

GOVP 19804896

행정 건행 물 등록 번호

05400-02540-26-35

통계분석자료모음

1996.12

통 계 청

머 리 말

급속히 변화하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통계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으며 통계수요의 형태 및 내용도 점차 전문화, 다양화, 세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통계청에서는 그동안 경제·사회·문화등 각 분야별 기본통계를 더욱 개선 발전시킴과 아울러 신규 통계의 개발, 통계분석자료의 확충 및 통계정보의 보급확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통계분석자료모음』 집은 통계청에서 '95년 12월 이후 현재 까지 통계책자 및 언론기관을 통하여 발표하였던 통계분석자료들을 모아 재편집한 것입니다.

이 책자가 통계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어지길 기대합니다.

1996년 12월

통 계 청 장 장 승 우

이용자를 위하여

이 책자는 '95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통계청 각 과에서 책자 및 언론기관을 통하여 발표하였던 통계분석자료들을 모아서 재편집 한 것입니다.

이용시 다음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인용된 수치는 자료작성시에는 가장 최근의 것이지만, 그 이후의 정정·보완 등으로 인하여 현재의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2. 해설이나 통계표상에 나타나는 순위매김 역시 자료작성 당시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 현시점에서 보면 달리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3. 재편집시 매 자료 사이에 간지를 넣어 통계도표를 새로 첨가하였으나, 여기에 인용된 수치도 재구성한 것이 아니라 본문의 수치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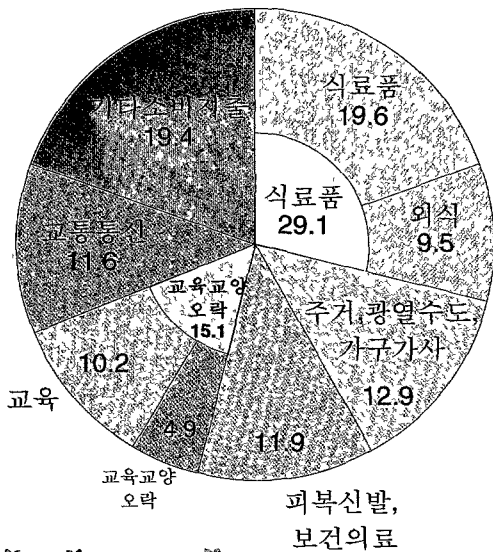
목 차

1. 도시근로자 가계조사에 의한 맞벌이 가구의 가계수지 ('95. 12)	1
2. 인구동태통계 작성결과(인구동태 신고에 의한 분석) ('95. 12)	17
3. 1995년도 한국의 사회지표 ('96. 1)	53
4. 1995년 고용동향 ('96. 3)	107
5. 1995년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동향 ('96. 3)	127
6. 통계로 본 베트남의 경제사회상 ('96. 4)	155
7. 1995년 사회통계조사 결과(고용·노사부문) ('96. 5)	213
8. 1995년 사회통계조사 결과(보건부문) ('96. 5)	249
9. 통계에 나타난 세계 속의 한국 ('96. 6)	277
10. 1994년 지역내총생산 ('96. 6)	369
11. '60년대 이후의 경제·사회 변화상 ('96. 7)	393
12. 1995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속보집계결과 ('96. 7)	407
13. 통계로 본 통독의 통일비용 ('96. 7)	447
14. 통계로 본 중국의 경제사회상 및 한·중교류 현황 ('96. 8)	543
15. '96년 통계활동현황조사 결과 ('96. 9)	583
16. 주민등록에 의한 '95 인구이동 집계결과 ('96. 9)	607
17. 통계로 본 한·러교류 현황 및 러시아 경제동향 ('96. 9)	6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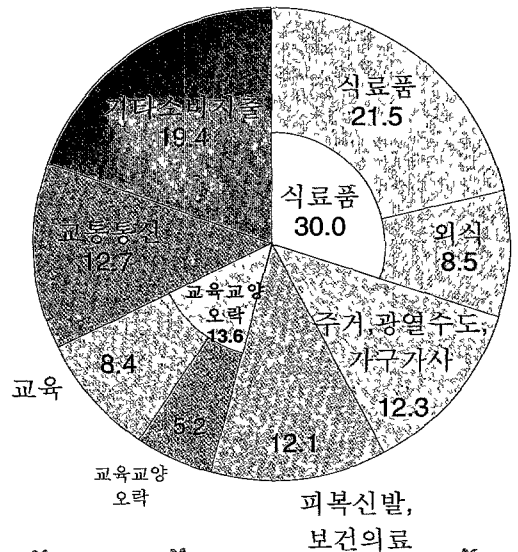
도시근로자 가계 조사에 의한 맞벌이 가구의 가계수지

'94년 맞벌이가구와
비맞벌이가구의 소비지출 구조 (%)

맞벌이 가구



비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소비지출이 많은 항목은
교육비, 외식비, 가구가사용품비 및 기타소비지출로 나타났고,
비맞벌이 가구의 소비지출이 많은 항목은
개인교통비, 보건의료비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에서 교육비 지출이 높게 나타난 것은 자녀교육비 충당이
맞벌이의 주요 요인임을 시사한다.

도시근로자 가계조사에 의한
맞벌이 가구의 가계수지

1995. 12

통계조사국 사회통계과

I. 개요

1. 검토배경

-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대함에 따라 맞벌이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요인을 보면,
 - 자녀교육비, 주택마련, 여유있는 삶을 위한 경제적인 필요성
 - 핵가족화, 가사노동의 시장화 등으로 육아 및 가사부담의 경감
 - 여성의 고학력화와 사회참여로 인한 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 가정에서의 입지 강화 등으로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선호
 - 인력 부족에 따라 여성인력의 활용이 절실할 뿐만 아니라 정보처리, 금융보험, 유통, 레저,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등 여성의 취업에 적합한 산업부문이 확대되고 있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85년 (3/4분기)	'94년 (3/4분기)	'95년 (3/4분기)
41.9 (44.6)	47.9 (49.0)	- (49.4)

- 맞벌이가구의 비중이 증대되면서 가계소득중 처의 소득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맞벌이가구에 대한 통계 자료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도시근로자가계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이를 분석하게 되었음

2. 개념정의

가. 맞벌이가구의 개념정의

- 맞벌이가구의 개념은 통계작성상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분석의 편의상 여기서는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가구 중에서 가구주가 남자이며 처가 유업자인 가구"로 정의함
 - 따라서, 남편이 자영업자 또는 자유업자이며 처가 근로자인 가구나 가구주가 여자인 경우는 제외되는 반면, 남편이 근로자이며 처가 자영업자 또는 자유업자인 가구는 포함됨
 - 이는 도시가계조사에서 소득조사를 근로자가구로 제한하고 있고 맞벌이가구 분석범위를 보다 전형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가구주가 여자인 경우를 제외하였음
 - 도시가계조사에서의 유업자란 조사대상기간 (1개월)동안 15일 이상 일을 한 사람을 말함
 - 가구주는 도시가계조사에 있어서 가구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임

< 맞벌이가구의 조건 >

한일 합일	국 본	유 배 우	가 구 주		배 우 자
		○	남 자	근 로 자	유 업
		○	○	○	○ (근로자)

※ 한국의 경우는 배우자가 자영업자 또는 자유업자인 경우도 유업자로 보아 맞벌이가구로 보지만 일본의 경우는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만 맞벌이가구로 정의함

나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 부업소득 및 재산·이전소득은 도시가계조사의 통계분류상 남편과 처의 소득 구분이 되지 않음

3. '94년 도시근로자 가계조사 대상가구중 맞벌이가구의 전반적 특성

- 배우자가 있고 가구주가 남자인 도시근로자 가구중에서 '94년 맞벌이가구가 30.7%, 비맞벌이가구가 69.3%임
- ※ 도시근로자 가계조사 대상가구중 배우자가 있고 가구주가 남자인가구는 82.3%임
- 맞벌이가구의 가구주 평균연령은 40.7세, 평균가구원수는 3.86명, 평균취업자수는 2.16명으로 비맞벌이가구에 비해 모두 높게 나타났음

< '94년 도시근로자 가계조사의 가구분포 >

(단위: %)

구 분	맞벌이가구	비맞벌이가구
○ 구 성 비 · 배우자가 있고 가구주가 남자인 도시근로자가구중의 비율	30.7	69.3
○ 평 균 · 가 구 주 연 령 (세) · 가 구 원 수 (명) · 가 구 당 취 업 자 수 (명)	40.7 3.86 2.16	38.5 3.84 1.17

- 특성별로 맞벌이가구의 비율을 보면

- 남편 및 처의 연령별로 40~49세인 가구의 맞벌이 비율이 높아 교육비 등의 부담이 큰 연령계층에서 맞벌이가구가 많음

< '94년 여성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 참가율(%) >

<u>25~29세</u>	<u>30~39세</u>	<u>40~49세</u>	<u>50세이상</u>
45.6	53.8	62.8	40.7

- 남편 및 처의 교육정도별로는 중졸이하인 가구, 남편의 직업별로는 기능직 및 단순노무직인가구, 입주형태별로는 월세인 가구의 맞벌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따라서 맞벌이 동기에 있어서 경제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 처의 교육정도별 맞벌이 비율을 보면 중졸이하인 가구의 맞벌이 비율이 가장 높지만 초급대졸이상인 가구의 맞벌이 비율이 고졸인 가구보다는 높게 나타나 여성의 고학력이 맞벌이의 한 요인으로 풀이됨

- 남편의 교육정도별로는 초급대졸이상 가구의 맞벌이 비율이 가장 낮음

〈 맞벌이가구와 비맞벌이가구의 특성별 가구분포 〉

(단위: %)

구 분	맞벌이가구 비 율	비맞벌이가구 비 율
○ 평 균	30.7	69.3
○ 가구인원수별		
· 2 인	37.5	62.5
· 3 인	24.3	75.7
· 4 인	29.9	70.1
· 5 인 이 상	36.2	63.8
○ 남편 연령별		
· 30 세 미 만	21.8	78.2
· 30세 ~ 39세	27.4	72.6
· 40세 ~ 49세	45.5	54.5
· 50 세 이 상	27.8	72.2
○ 처 연령별		
· 30 세 미 만	20.0	80.0
· 30세 ~ 39세	36.1	63.9
· 40세 ~ 49세	40.1	59.9
· 50 세 이 상	10.6	89.4
○ 남편 교육정도별		
· 중 졸 이 하	45.6	54.4
· 고 졸	28.2	71.8
· 초급대졸이상	24.4	75.6
○ 처 교육정도별		
· 중 졸 이 하	39.7	60.3
· 고 졸	23.5	76.5
· 초급대졸이상	32.8	67.2
○ 남편 직업별		
· 전 문 직	24.5	75.5
· 사 무 직	23.4	76.6
· 기 능 직	34.8	65.2
· 단순노무직	38.0	62.0
○ 입주형태별		
· 자 가	30.0	70.0
· 전 세	29.7	70.3
· 월 세	35.5	64.5

II. '94년도 맞벌이가구의 가계수지

1. 가계소득

- '94년도 맞벌이가구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2,030.4천원으로 나타났음
 - 맞벌이가구의 근로소득은 1,754.9천원으로 남편이 월평균 1,156.3천원을 벌었고 처가 월평균 513.0천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음
 - 처의 근로소득 513.0천원은 남편의 근로소득 1,156.3천원의 44.4%에 해당함
 - 근로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은 월평균 275.5천원으로 이 중 부업소득이 135.2천원, 재산 및 이전소득은 140.3천원으로 나타났음
- 소득원천별 소득구성비를 보면, 맞벌이가구의 근로소득 비중은 전체소득의 86.4%를 차지하며 남편의 근로소득 비중 56.9%, 처의 근로소득 비중이 25.3%를 차지하였음
 - 한편, 부업소득의 비중은 6.7%, 재산 및 이전소득은 6.9%를 차지함

2. 가계지출

- '94년도 맞벌이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1,360.5천원이었으며 그 중 소비지출은 1,190.0천원, 비소비지출은 170.5천원으로 나타났음
 - '94년도 맞벌이가구 소비지출의 구성비를 지출성격별로 나누어보면
 - 소비지출에 대한 식료품 구성비인 엔젤계수는 29.1로 나타났음
 - 교제를 위한 잡비 15.3%, 자녀교육비 10.2%, 외식비 9.5%, 개인교통비 6.5% 등 선택적 소비지출비목의 비중은 높게 나타난 반면
 - 주거비 3.7%, 광열수도비 3.8%, 보건의료비 4.2%, 피복신발비 7.7% 등 기초생활비목의 비중은 낮게 나타났으며
 - 조세, 타가구 송금보조 등 비소비지출은 170.5천원으로 나타났음

3. 가처분소득, 흑자 및 소비성향

- '94년도 맞벌이가구의 가계수지를 보면,
 - 가계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은 월평균 1,859.9천원이며
 -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흑자액은 669.9천원, 흑자율은 36.0%로 나타났음
 - 가처분소득에 대한 소비지출 비율인 평균소비성향은 64.0%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94년 맞벌이가구와 비맞벌이가구의 가계수지

(단위:천원, %)

구 분	맞벌이가구(A)		비맞벌이가구(B)		A - B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가구주연령(세)	40.71	-	38.50		-	-
가구원수(명)	3.86	-	3.84		-	-
취업인원수(명)	2.16	-	1.17		-	-
소 득	2030.4	100.0	1641.3	100.0	389.1	-
근로소득	1754.9	86.4	1427.1	86.9	327.8	△0.5
남편	1156.3	56.9	1335.1	81.3	△178.8	△24.4
처	513.0	25.3	3.1	0.2	509.9	25.1
기타가구원	85.6	4.2	88.9	5.4	△3.3	△1.2
기타소득	275.5	13.6	214.2	13.1	61.3	0.5
부업소득	135.2	6.7	20.7	1.3	114.5	5.4
재산이전	140.3	6.9	193.5	11.8	△53.2	△4.9
가계지출	1360.5	-	1293.5	-	67.0	-
소비지출	1190.0	100.0	1135.4	100.0	54.6	-
식료품	346.5	29.1	340.1	30.0	6.4	△0.9
외식비	112.7	9.5	96.0	8.5	16.7	1.0
주거비	43.9	3.7	40.7	3.6	3.2	0.1
광열수도	44.7	3.8	44.9	4.0	△0.2	△0.2
가구가사	64.1	5.4	53.6	4.7	10.5	0.7
피복신발	91.1	7.7	82.8	7.3	8.3	0.4
보건의료	49.6	4.2	54.3	4.8	△4.7	△0.6
교육교양	180.2	15.1	154.7	13.6	25.5	1.5
교육비	120.8	10.2	95.2	8.4	25.6	1.8
교통통신	138.6	11.6	144.2	12.7	△5.6	△1.1
개인교통	78.0	6.6	91.1	8.0	△13.1	△1.4
기타소비	231.4	19.4	220.0	19.4	11.4	0
잡비	181.7	15.3	174.7	15.4	7.0	△0.1
비소비지출	170.5	-	158.1	-	12.4	-
가처분소득	1859.9	-	1483.2	-	376.7	-
축자액	669.9	-	347.8	-	322.1	-
평균소비성향	64.0	-	76.6	-	△12.6p	-

Ⅲ. 맞벌이가구와 비맞벌이가구와의 비교

1. 가계소득

- '94년도 맞벌이가구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2,030.4천원으로 비맞벌이가구의 소득 1,641.3천원보다 389.1천원이 더 많아 비맞벌이가구소득을 100으로 하였을 경우 맞벌이가구소득은 124로 나타났음
- 맞벌이가구의 남편 근로소득은 1,156.3천원으로 비맞벌이가구의 남편 근로소득 1,335.1천원 보다 오히려 178.8천원 적은 것으로 나타나 처의 맞벌이 동기가 남편의 소득을 보충하려는 경제적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음
- 맞벌이가구 처의 근로소득은 513.0천원으로 이는 남편 근로소득의 44.4%에 해당함
 - 남편 근로소득에 대한 처의 근로소득 비중은 '91년 39.6%에서 '94년 44.4%로 4.8% 포인트 증가하였음

< 남편 근로소득에 대한 처의 근로소득 비중 추이 >

'91년	'92년	'93년	'94년
39.6%	40.4%	43.6%	44.4%

- 근로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은 맞벌이가구가 275.5천원, 비맞벌이가구가 214.2천원으로 맞벌이가구가 61.3천원(29.0%)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재산 및 이전소득은 비맞벌이가구가 193.5천원으로 더 많은 반면, 부업소득은 맞벌이가구가 135.2천원으로 비맞벌이가구보다 더 많음
- 이는 처가 자영업 또는 자유업자인 맞벌이가구의 부업소득에 처의 소득이 포함되었기 때문임
- 소득원천별 소득구성비를 보면, 맞벌이가구의 근로소득 비중은 가계소득의 86.4%를 차지하고 비맞벌이가구의 근로소득 비중은 86.9%임
- 맞벌이가구의 남편 근로소득의 소득비중은 56.9%로 비맞벌이가구의 남편 근로소득의 소득비중 81.3%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 맞벌이가구에서 처의 근로소득은 전체 소득 중 25.3%를 차지해 가계소득에 있어서 처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94년 맞벌이가구와 비맞벌이가구의 월평균소득 비교 >

(단위: 천원, %)

구 분	맞벌이가구 (A)		비맞벌이가구 (B)		차 이 (A-B)	A/B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소 득	2,030.4	100.0	1,641.3	100.0	389.1	1.24
근 로 소 득	1,754.9	86.4	1,427.1	86.9	327.8	1.23
· 남 편	1,156.3	56.9	1,335.1	81.3	△178.8	0.87
· 처	513.0	25.3	3.1	0.2	509.9	-
· 기타가구원	85.6	4.2	88.9	5.4	△ 3.3	-
기 타 소 득	275.5	13.6	214.2	13.1	61.3	1.29
· 부 업 소 득	135.2	6.7	20.7	1.3	114.5	6.53
· 재 산 · 이 전	140.3	6.9	193.5	11.8	△ 53.2	0.73

2. 가계지출

- '94년도 맞벌이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1,360.5천원으로 비맞벌이 가구의 가계지출 1,293.5천원에 비해 67.0천원(5.2%)을 더 지출하였음
- 맞벌이가구의 소비지출이 많은 항목은 교육비, 외식비, 가구가사용품비 및 기타소비지출로 각각 25.6천원, 16.7천원, 10.5천원 및 11.4천원을 더 지출한 반면 비맞벌이가구의 소비지출이 많은 항목은 개인교통비 및 보건의료비로 나타났음
- 맞벌이가구에서 교육비 지출이 높게 나타난 것은 자녀교육비 총당이 맞벌이를 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함

< '94년 맞벌이가구와 비맞벌이가구의 소비지출 비교 >

(단위 : 천원, %, %p)

구 분	맞벌이 가구(A)		비맞벌이 가구(B)		차 이 (A-B)	
	구성비(C)	구성비(D)	구성비(C)	구성비(D)	구성비(C-D)	구성비(C-D)
가 계 지 출	1,360.5	-	1,293.5	-	67.0	-
소 비 지 출	1,190.0	100.0	1,135.4	100.0	54.6	-
식 료 품 (외 식 비)	346.5 112.7	29.1 9.5	340.1 96.0	30.0 8.5	6.4 16.7	Δ0.9 1.0
주 거 비	43.9	3.7	40.7	3.6	3.2	0.1
광 열 수 도	44.7	3.8	44.9	4.0	Δ 0.2	Δ0.2
가 구 가 사	64.1	5.4	53.6	4.7	10.5	0.7
피 복 신 발	91.1	7.7	82.8	7.3	8.3	0.4
보 건 의 료	49.6	4.2	54.3	4.8	Δ 4.7	Δ0.6
교육교양오락 (교육비)	180.2 120.8	15.1 10.2	154.7 95.2	13.6 8.4	25.5 25.6	1.5 1.8
교 통 통 신 (개인교통비)	138.6 78.0	11.6 6.6	144.2 91.1	12.7 8.0	Δ 5.6 Δ13.1	Δ1.1 Δ1.4
기타소비지출 (잡비)	231.4 181.7	19.4 15.3	220.0 174.7	19.4 15.4	11.4 7.0	0.0 Δ0.1
비 소 비 지 출	170.5	-	158.1	-	12.4	-

- 맞벌이가구와 비맞벌이가구의 소비지출 구성비를 보면 맞벌이가구에서 교육교양오락비 특히 교육비, 외식비, 가구가사용품비 등의 문화관련비용의 지출비중이 비맞벌이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식료품, 광열수도비, 피복신발비 등에 대한 기초생활비의 지출비중은 맞벌이가구와 비맞벌이가구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맞벌이가구의 비소비지출은 170.5천원으로 비맞벌이가구의 158.1천원에 비해 12.4천원을 더 많이 나타났음
- 이는 맞벌이가구에서 부모, 자녀등에 대한 송금보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됨

3. 가처분소득, 흑자 및 소비성향

- '94년도 맞벌이가구의 가처분소득은 1,859.9천원으로 비맞벌이가구의 1,483.2천원에 비해 376.7천원(25.4%)이 더 많게 나타났음
- 흑자액은 669.9천원으로 비맞벌이가구의 347.8천원보다 322.1천원이 많아 비맞벌이가구의 두배에 가깝고 흑자율도 비맞벌이가구의 23.4%보다 12.6%포인트 높은 36.0%로 나타났음
 - 이는 맞벌이가구가 비맞벌이가구보다 소득은 389.1천원을 더 벌어들인데 반해 소비에서는 54.6천원만을 더 지출하였기 때문임
- 이에따라 맞벌이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64.0%인데 비해 비맞벌이가구는 76.6%로 12.6% 포인트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94년 가처분소득, 흑자 및 소비성향 비교 >

(단위 : 천원, %)

구 분	맞벌이가구(A)	비맞벌이가구(B)	차 이(A-B)	A/B
가 처 분 소 득	1,859.9	1,483.2	376.7	1.254
흑 자 액 (흑 자 율)	669.9 (36.0)	347.8 (23.4)	322.1 (12.6p)	1.926 -
평균 소비성향	64.0	76.6	Δ12.6p	-

《 참 고 》

한일간 맞벌이가구의 가계수지 비교

1. 맞벌이가구의 개념정의 및 특성비교

가. 가계조사에 있어서 맞벌이가구 개념비교

○ 한 국

-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가구중에서 가구주가 남자이며 처가 유업자인 가구

○ 일 본

- 1992년 까지는 근로자가구중 부부가 모두 일을 하고 있는 가구
- 1993년 부터는 근로자가구중 부부만이 일을 하고 또한, 부부 모두 근로자이며 기타가구원은 취업하고 있지 않은 미혼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가구

	1992년 이전	1993년 이후
개 념	· 근로자가구중 부부가 모두 일하고 있는 가구	· 근로자가구중 부부만이 일하고 있는 핵가족
부 부	· 夫·가구주, 妻:유업자	· 夫(남):가구주, 妻(여):근로자
가구원	· 소득이 있어도 됨	· 소득이 있으면 안됨

※ 한국의 임금근로자 비율은 '93년에 61.0%이고 '94년에 62.0%인 반면, 일본의 임금근로자 비율은 '93년에 80.7%이고 '94년에 81.1%로 한국보다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음

나. '94년 맞벌이가구의 특성비교

○ 한 국

- 맞벌이가구의 가구주 평균연령은 40.7세, 평균가구원수는 3.86명, 평균취업자수는 2.16명임
- 배우자가 있고 가구주가 남자인 근로자가구중 맞벌이가구는 30.7%이며 비맞벌이가구는 69.3%임 (전체 도시근로자가구중 맞벌이가구는 26.2%, 비맞벌이가구는 73.8%임)

○ 일 본

- 전체 근로자가구중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맞벌이가구 비율은 21.0%이고 가구주 평균연령은 43.2세이며 평균취업자수는 2명임

2 가계수지 비교

한일간에 맞벌이가구에 대한 개념 차이로 통계수치를 직접 비교하기는 곤란하나 대략적인 수준은 비교할 수 있음

가. 가계소득

○ 한국의 경우 소득원천별 구성비를 보면

- 한국과 일본의 가계소득에서 '94년 소득원천별 구성비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경우 근로소득이 86.4%이고 기타소득이 13.6%인데 반해 일본의 경우 근로소득이 96.7%이고 기타소득이 3.3%로 나타났음

· 한국의 경우 일본과 비교하여 기타소득의 비중이 높은 것은 맞벌이가구를 처가 근로자인 경우로 제한하지 않고 유업자인 경우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처가 자영업자 또는 자유업자인 경우 부업소득이 포함되었기 때문임

○ 근로소득을 남편과 처의 소득으로 분리하여 보면, 일본의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94년의 경우 73.7%인 반면, 한국의 경우 56.9%로 낮게 나타났음

- 반면, '94년 한국의 경우 처의 근로소득이 남편 근로소득의 44.4%에 해당하고 일본에서는 처의 근로소득이 남편 근로소득의 31.2%에 불과함

· 이는 일본의 경우 여성취업자중 주당 35시간미만 취업자의 비중이 '94년에 35.1%인 반면, 한국의 경우 주당 36시간미만 취업자의 비중이 9.8%로 낮고 전일근무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됨

< 한일간 맞벌이가구의 소득 구성비 >

(단위: %)

구 분	한 국			일 본		
	'92	'93	'94	'92	'93	'94
소 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근로소득	86.3	87.5	86.4	95.4	96.4	96.7
· 남편	58.9 (100.0)	57.9 (100.0)	56.9 (100.0)	74.8 (100.0)	73.0 (100.0)	73.7 (100.0)
· 처	23.8 (40.4)	25.2 (43.6)	25.3 (44.4)	20.5 (27.4)	23.4 (32.1)	23.0 (31.2)
· 기타가구원	3.5	4.3	4.2	0.0	0.0	0.0
○ 기타소득	13.7	12.5	13.6	4.6	3.6	3.3
· 부업소득	6.3	6.1	6.7	1.4	0.3	0.2
· 재산이전	7.5	6.4	6.9	3.3	3.4	3.1

나. 소비지출

- 한국의 가계소비지출 구성비를 일본과 비교해 보면,
 - 식료품비(외식비), 교육비, 가구가사용품비, 보건의료비에 대한 소비지출 비중이 일본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교양오락비와 기타소비지출 특히 잡비에 대한 지출은 일본이 높게 나타났음
- '94년 평균소비성향은 한국의 경우 64.0%로 일본의 68.7%보다 4.7%p 낮게 나타났음

< 한일간 맞벌이가구의 소비지출 구성비 >

(단위 : %)

구 분	한 국		일 본		A - B
	'93	'94 (A)	'93	'94 (B)	
소 비 지 출	100.0	100.0	100.0	100.0	-
식 료 품 (외 식)	29.5	29.1	22.9	22.9	6.2
	8.8	9.5	4.6	4.7	4.8
주 거	3.9	3.7	6.1	6.6	△2.9
광 열 수 도	3.9	3.8	4.8	4.9	△1.1
가 구 가 사	4.8	5.4	3.5	3.5	1.9
피 복 신 발	7.5	7.7	7.0	6.5	1.2
보 건 의 료	4.7	4.2	2.4	2.4	1.8
교 육 비	9.8	10.2	7.0	7.7	2.5
교 양 오 락	5.1	5.0	10.3	10.4	△5.4
교 통 통 신 (개인교통)	10.4	11.6	11.6	11.1	0.5
	5.3	6.6	7.5	7.0	△0.4
기타소비지출	20.5	19.4	24.4	24.1	△4.7
평균 소비성향	63.3	64.0	70.2	68.7	△4.7p

(불 입)

1. 맞벌이가구 가계수지 추이

(단위 : 전년대비, 천원, %)

구 분	금 액				증가율		구성비	
	'91	'92	'93	'94	연평균	'94	'91	'94
가구주연령(세)	39.63	39.98	40.45	40.71	-	0.01	-	-
가구원수(명)	4.12	3.99	3.96	3.86	-	-0.03	-	-
취업인원수(명)	2.17	2.13	2.15	2.16	-	0.00	-	-
소 득	1305.0	1567.8	1777.2	2030.4	15.9	14.2	100.0	100.0
근로소득	1128.2	1352.4	1554.3	1754.9	15.9	12.9	86.5	86.4
납편	761.3	923.7	1029.8	1156.3	14.9	12.3	58.3	56.9
처	301.6	372.8	448.6	513.0	19.4	14.4	23.1	25.3
기타가구원	65.3	55.9	75.9	85.6	9.5	12.8	5.0	4.2
기타소득	176.8	215.4	222.9	275.5	15.9	23.6	13.5	13.6
부업소득	83.3	98.2	108.9	135.2	17.5	24.2	6.4	6.7
재산이전	93.5	117.2	114.0	140.3	14.5	23.1	7.2	6.9
가계지출	877.0	1043.6	1172.1	1360.5	15.8	16.1	-	-
소비지출	798.4	934.3	1043.8	1190.0	14.0	14.0	100.0	100.0
식료품	250.5	280.5	307.4	346.5	11.4	12.7	31.4	29.1
외식비	59.4	75.3	92.3	112.7	23.8	22.1	7.4	9.5
주거비	34.8	41.4	40.3	43.9	8.0	8.9	4.4	3.7
광열수도	31.4	36.0	41.1	44.7	12.5	8.8	3.9	3.8
가구가사	46.0	50.6	49.8	64.1	11.7	28.7	5.8	5.4
피복신발	64.4	76.3	78.6	91.1	12.3	15.9	8.1	7.7
보건의료	40.2	45.0	48.6	49.6	7.3	2.1	5.0	4.2
교육교양	107.2	133.5	155.5	180.2	18.9	15.9	13.4	15.1
교육비	69.1	87.2	102.5	120.8	20.5	17.9	8.7	10.2
교통통신	69.8	83.2	108.6	138.6	25.7	27.6	8.7	11.6
개인교통	28.6	36.9	55.1	78.0	39.7	41.6	3.6	6.6
기타소비	154.1	187.8	213.8	231.4	14.5	8.2	19.3	19.4
잡소비	119.6	150.5	170.8	181.7	15.0	6.4	15.0	15.3
비소비지출	78.6	109.4	128.4	170.5	29.5	32.8	-	-
가처분소득	1226.4	1458.4	1648.8	1859.9	14.9	12.8	-	-
자액	428.0	524.1	605.0	669.9	16.1	10.7	-	-
평균소비성향	65.1	64.1	63.3	64.0	-	0.7p	-	-

2. '94년 한일간 맞벌이가구 가계수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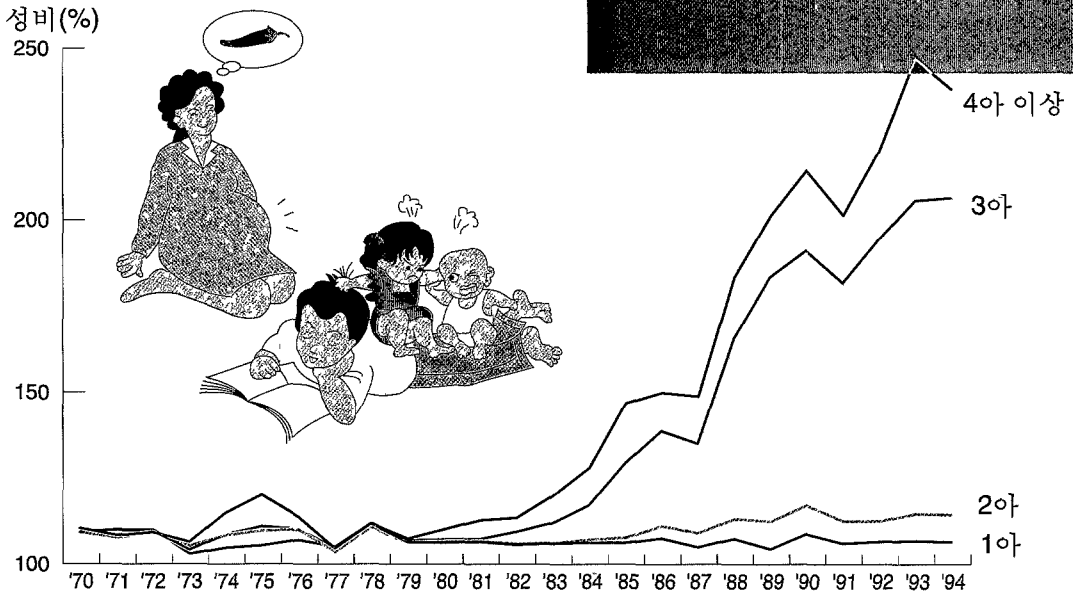
(단위: 천원, 엔, %)

	한 국		일 본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소 득	2,030.4	100.0	633,302	100.0
근 로 소 득	1,754.9	86.4	612,548	96.7
· 남 편	1,156.3	56.9	467,008	73.7
· 처	513.0	25.3	145,540	23.0
· 기타가구원	85.6	4.2	0	0.0
기 타 소 득	275.5	13.6	20,754	3.3
· 부업 소득	135.2	6.7	1,332	0.2
· 재산 이전	140.3	6.9	19,422	3.1
소 비 지 출	1,190.0	100.0	361,162	100.0
· 식 료 품 (외 식)	346.5 112.7	29.1 9.5	82,624 16,920	22.9 4.7
· 주 거	43.9	3.7	23,671	6.6
· 광 열 수 도	44.7	3.8	17,875	4.9
· 가 구 가 사 용 품	64.1	5.4	12,787	3.5
· 피 복 신 발	91.1	7.7	23,491	6.5
· 보 건 의 료	49.6	4.2	8,491	2.4
· 교 육 비	120.8	10.2	27,774	7.7
· 교 양 오 락	59.4	5.0	37,587	10.4
· 교 통 통 신 (개인교통)	138.6 78.0	11.6 6.6	39,994 25,179	11.1 7.0
· 기 타 소비지출	231.4	19.4	86,868	24.1
비 소 비 지 출	170.5	-	107,448	-
가 처 분 소 득	1,859.9	-	525,854	-
흑 자 액	669.9	-	164,692	-
평 균 소 비 성향	64.0	-	68.7	-

여 백

인구동태통계 작성결과 (인구 동태신고에 의한 분석)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출산순위가 높아질수록 출생성비는 훨씬 높아져
최근에 와서는 셋째아 이상의 경우
200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출산력이 떨어지면서 남아선호사상이
강하게 작용한 영향으로 보인다.

인구동태통계 작성결과

(인구동태 신고에 의한 분석)

1995. 12

통계조사국 인구분석과

I. 利用時 留意事項

- 本 資料에 收錄된 人口動態統計는 人口動態(出生, 死亡, 婚姻, 離婚)申告를 發生年度 基準으로 累積 集計하여 分析한 結果임.
- 本 資料는 發生年度別로 推定値와 申告値로 構成되어 있으며, 出生構成比 및 性比와 婚姻·離婚資料는 申告値로 分析하였으며, 나머지 資料는 영아(嬰兒)未申告, 遲延申告를 補完한 推定値임.
- 各種 人口動態指標 算出을 위한 資料는 事件發生後 10年 時點까지 累積集計하여 年報에 發表한 數値를 使用하였으며, 人口는 『1960~2000年 市道別 推計人口』(1994. 6. 統計廳), 『韓國의 將來人口 推移』(1991. 4 統計廳), 『1960~1985年 推計人口』(1988. 12. 統計廳)를 使用하였음.
- 人口動態申告에는 動態事件 發生後 뒤늦게 申告하는 遲延申告, 영아死亡과 같이 申告를 漏落시키는 未申告, 內容이 잘못 기재되는 歪曲申告 및 不實申告가 있어 正確한 人口動態統計 作成에 制約을 주고 있음. 遲延申告에 대해서는 發生年度別로 구별하여 該當年度로 算入하였으며, 重複申告는 申告書 確認을 통해서 處理하고, 歪曲申告 및 不實申告에 대해서는 質疑照會를 통해서 가능한 한 正確한 정보를 把握하였음.

Ⅱ. 人口動態件數 및 動態率

1. 人口動態件數(出生, 死亡, 婚姻, 離婚), 1970~1994

- 出生數는 '70年 1006.6千件에서 '87年 630.7千件으로 減少 趨勢를 보이다가, 그후 점차적으로 增加하여 '94年에 733.9千件으로 推定됨.
- 死亡數는 '70年 258.6千件에서 '94年 242.8千件으로 推定되는데 年度別 騰落 幅은 크지 않음.
- 出生에서 死亡을 뺀 自然增加는 '70年 748.1千名에서 '87年에 382.3千名이라는 最低 水準으로 減少하다가 그 후 增加하기 始作하여 '94年에 491.1千名에 이름
- 婚姻數는 '70年 295.1千件에서 年度別로 多少間의 騰落을 보이면서 增加하여 '94年에 379.6千件으로 推定됨.
- 離婚數는 '70年 11.6千件, '80年 23.0千件, '94年 65.8千件으로 急增하고 있음.

(單位 · 名, 件數)

年 度	出 生	死 亡	自 然 增 加	婚 姻	離 婚
1970	1,006,645	258,589	748,056	295,137	11,615
1971	1,024,773	237,528	787,245	239,457	11,361
1972	955,438	210,830	744,608	243,557	12,036
1973	967,647	267,909	699,738	257,907	12,492
1974	924,311	249,177	675,134	258,285	13,797
1975	874,869	270,851	604,018	282,200	16,179
1976	797,462	267,151	530,311	285,197	16,962
1977	827,079	249,767	577,312	301,755	19,767
1978	752,409	252,827	499,582	341,535	19,266
1979	864,297	240,447	623,850	352,364	16,681
1980	865,350	277,767	587,583	401,354	22,980
1981	880,310	238,017	642,293	363,263	23,754
1982	858,832	246,306	612,526	360,432	25,871
1983	778,362	263,665	514,697	367,116	28,686
1984	682,217	243,797	438,420	359,432	35,147
1985	662,510	246,121	416,389	375,253	38,429
1986	642,399	244,543	397,856	375,761	39,001
1987	630,724	248,450	382,274	374,487	41,912
1988	640,581	240,941	399,640	386,246	41,555
1989	646,890	241,187	405,703	395,045	42,726
1990	657,450	245,148	412,302	402,590	45,467
1991	718,207	245,713	472,494	407,954	48,498
1992	740,294	238,965	501,329	414,349	53,904
1993	726,715	236,503	490,212	385,871	60,028
1994	733,883	242,811	491,072	379,620	65,8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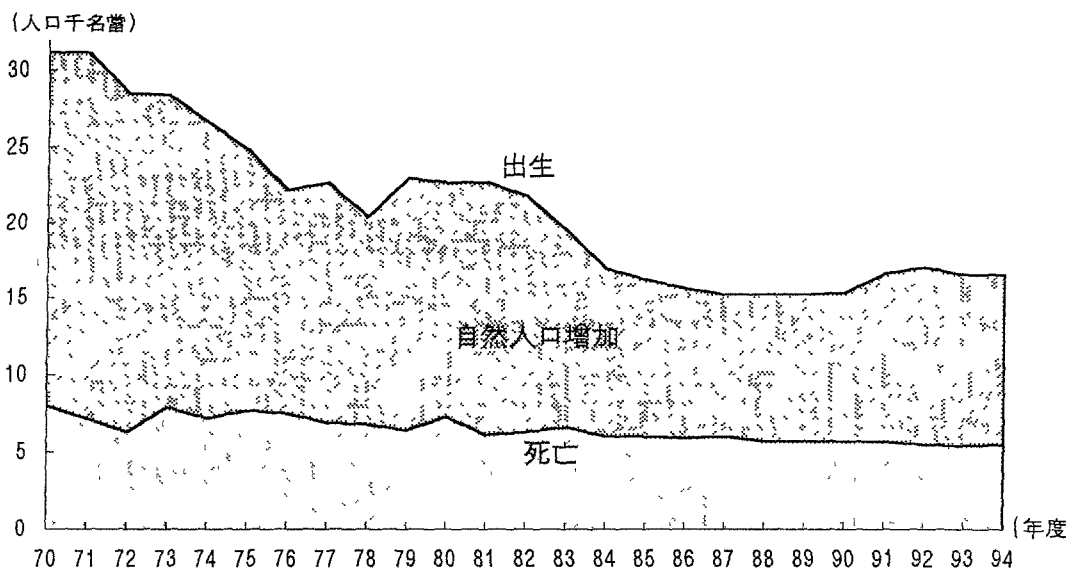
2. 人口動態率(粗出生率, 粗死亡率, 粗婚姻率, 粗離婚率), 1970~1994

- 粗出生率(人口千名當 出生數)은 '70年 31.2에서 '87~'89年 15.2라는 最低水準으로 減少하다가 다시 增加하여 '94년에는 16.5로 나타남.
- 粗死亡率(人口千名當 死亡數)은 '70年 8.0에서 年度別로 약간 騰落을 보이는 데, '94년에 5.5로 推定됨.
- 自然人口增加率(粗出生率-粗死亡率)은 '70年 23.2에서 繼續 減少趨勢를 보이다가 '87年 9.2로 最低 水準을 나타냈으며, 그 후 점차적으로 增加하기 始作하여 '94년에는 11.0으로 나타남.
- 粗婚姻率(人口千名當 婚姻數)은 '70年 9.1에서 年度別로 騰落을 보였으며, '94년에는 8.5로 推定됨.
- 粗離婚率(人口千名當 離婚數)은 '70年 0.4에서 繼續增加하여 '94년에는 1.5로 增加한 것으로 推定됨

(單位：人口千名當)

年度	粗出生率	粗死亡率	自然人口增加率	粗婚姻率	粗離婚率
1970	31.2	8.0	23.2	9.1	0.4
1971	31.2	7.2	24.0	7.3	0.3
1972	28.5	6.3	22.2	7.3	0.4
1973	28.4	7.9	20.5	7.6	0.4
1974	26.6	7.2	19.4	7.4	0.4
1975	24.8	7.7	17.1	8.0	0.5
1976	22.2	7.5	14.7	8.0	0.5
1977	22.7	6.9	15.8	8.3	0.5
1978	20.4	6.8	13.6	9.2	0.5
1979	23.0	6.4	16.6	9.4	0.4
1980	22.7	7.3	15.4	10.5	0.6
1981	22.7	6.1	16.6	9.4	0.6
1982	21.8	6.3	15.5	9.2	0.7
1983	19.5	6.6	12.9	9.2	0.7
1984	16.9	6.0	10.9	8.9	0.9
1985	16.2	6.0	10.2	9.2	0.9
1986	15.6	5.9	9.7	9.1	0.9
1987	15.2	6.0	9.2	9.0	1.0
1988	15.2	5.7	9.5	9.2	1.0
1989	15.2	5.7	9.5	9.3	1.0
1990	15.3	5.7	9.6	9.4	1.1
1991	16.6	5.7	10.9	9.4	1.1
1992	17.0	5.5	11.5	9.5	1.2
1993	16.5	5.4	11.1	8.8	1.4
1994	16.5	5.5	11.0	8.5	1.5

推定件數에 依한 人口動態率 推移



3. 主要國과의 動態率 比較, 1994

- 韓國의 粗出生率은 後進國보다는 낮고, 先進國보다는 높은 편임.
- 粗死亡率은 世界的으로 낮은 水準임. 이는 後進國보다는 實際 死亡率이 낮지만, 先進國보다는 實際 死亡率이 낮아서가 아니라 年齡別 人口構造의 差異에 따른 것으로, 韓國의 高齡人口 比率이 先進國보다 아직은 낮기 때문임.
- 自然人口增加率은 後進國보다는 낮고 先進國보다는 높은 편임.
- 粗婚姻率은 유럽國家들보다는 높은 편임.
- 粗離婚率은 대부분의 先進國보다는 낮고, 이탈리아, 멕시코, 브라질 등의 宗教 國보다는 높은 水準임.

(單位 · 人口千名當)

	年度	粗出生率	粗死亡率	自然人口 增加率	粗婚姻率	粗離婚率
한 국	1994	16.5	5.5	11.0	8.5	1.5
대만	1993	15.6	5.3	10.3	7.6	1.5
방글라데시	1993	35.5	11.7	23.8	10.9('91)	-
스리랑카	1992	19.8	5.6	14.2	9.0	-
싱가포르	1993	17.5	5.0	12.5	8.8	1.3
인도	1992	29.0	10.0	19.0	-	-
일본	1993	9.6	7.1	2.5	6.4	1.5
중국	1993	18.1	6.7	11.4	-	-
태국	1993	19.4	6.1	13.3	8.4('92)	-
홍콩	1992	12.2	5.3	6.9	7.9	1.0('90)
이집트	1992	30.3	7.7	22.6	8.4	1.4
브라질	1993	24.6	7.5	17.1	5.4('90)	0.5('90)
칠레	1992	21.6	5.4	16.2	6.6	0.4('91)
캐나다	1991	14.6	7.0	7.6	7.1('90)	2.9('90)
멕시코	1993	27.7	4.6	23.1	7.3	0.6('92)
미국	1993	15.6	8.8	6.8	9.0	4.6
호주	1992	15.1	7.1	8.0	6.6	2.6
덴마크	1993	13.1	12.1	1.0	6.1	2.5('92)
러시아	1992	10.7	12.2	-1.5	8.6('91)	4.3
독일	1993	9.8	11.0	-1.2	5.5	1.7('92)
스웨덴	1993	13.5	10.9('92)	2.6	4.3('92)	2.5('92)
영국	1993	13.2	10.9('92)	2.3	6.0('91)	3.0('91)
이탈리아	1993	9.4	9.5	-0.1	4.8	0.4
프랑스	1992	13.0	9.1	3.9	4.7	1.9('91)

資料 : 대만은 '93人口統計年鑑, 일본은 '93人口動態統計, 중국은 '94中國統計年鑑
나머지는 '93유엔人口統計年鑑

Ⅲ. 出 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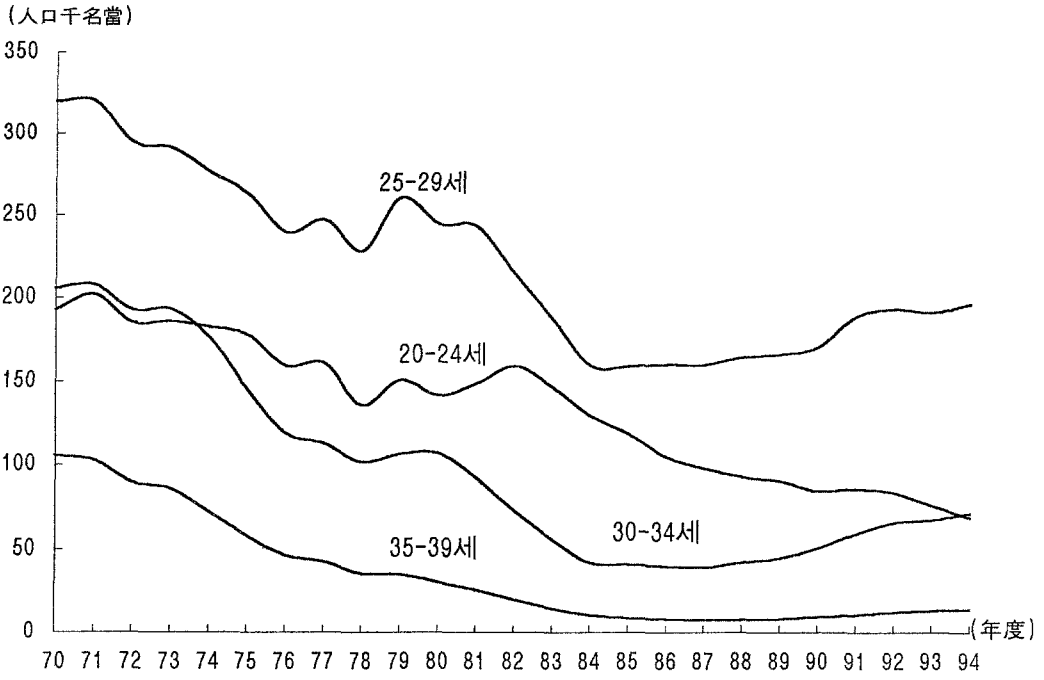
1. 母의 年齡別 出產率 및 合計出產率

- '70년에 비해 '94년에 모든 年齡層에서 出產率이 減少함.
- 20~24歲 年齡層의 出產率은 '83年 以後 繼續 減少 趨勢에 있는 反面, 25歲 以後 年齡層에서는 '87年 以後 出產率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出產年齡이 多少 높아지고 있으며, 세째아 以上の 出產 역시 약간 增加하고 있는 傾向 때문으로 풀이됨.
- 合計出產率(女子 1名이 平生동안 갖게 될 平均出生兒數)은 繼續 減少하여 '80年代 後半에 1.6水準으로 最低를 나타냈으며, 그후 점차적으로 增加하여 '90年 以後 1.7~1.8水準을 나타냄.

(單位 女子人口 千名當, 女子1名當)

年 度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合計出產率
1970	19.3	192.8	320.1	205.4	105.8	46.0	13.1	4.5
1971	20.7	201.9	320.6	207.4	102.9	41.7	10.8	4.5
1972	19.0	185.1	294.5	192.7	89.6	34.7	8.9	4.1
1973	18.2	185.8	290.8	193.1	85.6	34.2	7.8	4.1
1974	16.7	182.1	275.9	176.0	71.9	25.7	5.8	3.8
1975	14.2	177.6	262.8	145.6	57.9	20.7	5.0	3.4
1976	14.9	159.4	239.0	118.8	46.2	16.4	4.3	3.0
1977	17.4	160.9	246.7	112.5	42.7	14.1	4.1	3.0
1978	14.1	135.7	228.0	101.6	35.3	10.9	2.8	2.6
1979	15.3	150.8	260.2	106.5	35.2	10.1	2.5	2.9
1980	12.9	141.4	244.1	106.6	30.6	8.5	2.0	2.8
1981	12.9	148.3	242.8	92.2	25.9	7.2	1.6	2.7
1982	14.9	158.9	213.6	72.4	20.0	5.3	1.3	2.4
1983	13.0	146.5	186.9	55.5	14.6	4.0	0.8	2.1
1984	11.7	129.5	159.3	41.9	10.4	2.8	0.6	1.8
1985	10.1	118.5	158.9	41.0	8.8	2.2	0.5	1.7
1986	8.7	104.3	160.0	39.6	8.3	1.9	0.5	1.6
1987	7.0	97.4	159.5	39.2	7.7	1.7	0.3	1.6
1988	5.7	92.5	164.2	42.0	7.8	1.5	0.3	1.6
1989	4.4	89.8	165.9	44.6	8.3	1.4	0.2	1.6
1990	4.1	83.9	170.1	50.3	9.5	1.5	0.2	1.6
1991	4.2	85.4	188.2	58.8	10.5	1.4	0.2	1.7
1992	4.5	83.2	192.4	65.2	12.3	1.7	0.2	1.8
1993	4.4	75.6	190.5	67.0	13.2	1.9	0.2	1.8
1994	3.7	68.2	195.5	71.0	14.1	2.0	0.2	1.8

母의 年齡別 出産率(推定)



2. 主要國과의 母의 年齡別 出産率 및 合計出産率의 比較

- 우리나라의 年齡別 出産率은 先進 比較國과 마찬가지로 25~29歲에서 가장 높음.
- 合計出産率은 일본, 대만, 홍콩, 네덜란드보다는 높고, 다른 先進 比較國보다는 낮은편임.

(單位 : 人口千名當)

國 名	年 齡	- 20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合計 出産率
	年 度								
한 국	1994	3.7	68.2	195.5	71.0	14.1	2.0	0.2	1.8
일 본	1993	3.9	41.7	124.3	93.4	23.5	2.4	0.1	1.5
대 만	1992	17.0	91.0	148.0	72.0	16.0	2.0	0.0	1.7
싱가포르	1993	8.6	52.2	136.5	115.5	46.2	7.5	0.2	1.8
홍 콩	1992	6.3	40.6	91.7	78.9	29.3	4.4	0.3	1.3
미 국	1991	63.5	115.7	118.2	79.5	32.0	5.5	0.2	2.1
영 국	1992	31.8	85.5	117.7	87.1	33.2	5.5	0.3	1.8
프랑스	1991	9.1	73.2	139.4	93.4	37.0	7.4	0.5	1.8
네덜란드	1992	7.7	43.4	117.4	110.7	35.2	4.4	0.4	1.6
스웨덴	1992	12.0	90.8	149.9	112.5	44.1	7.4	0.3	2.1

資料 . 대만은 '93人口統計年鑑, 일본은 '93人口動態統計, 나머지는 '93유엔人口
統計年鑑

3. 出生構成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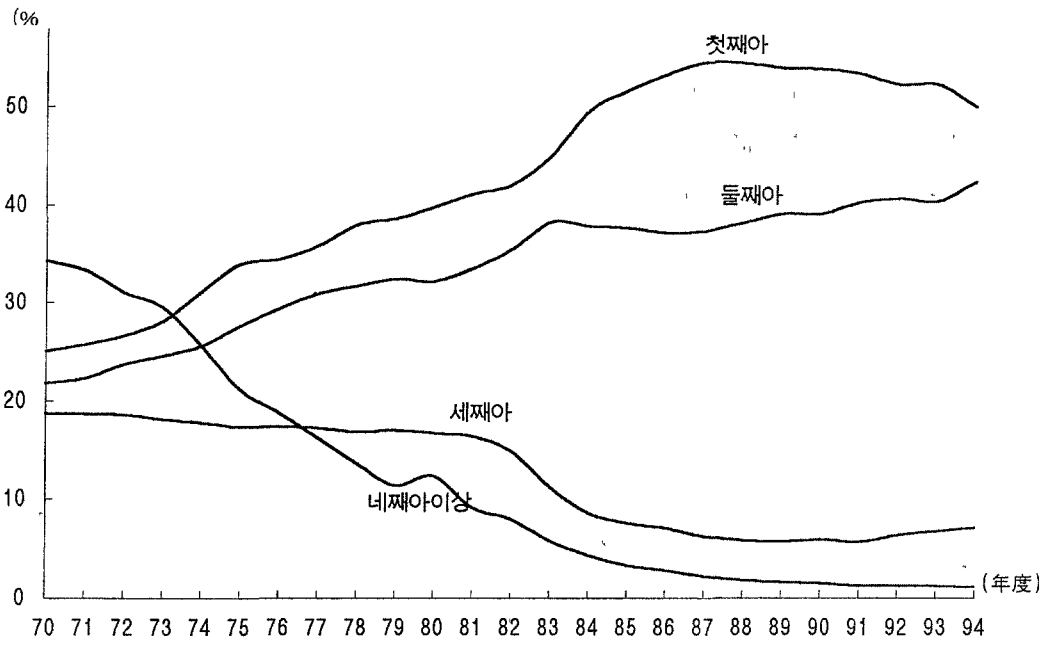
가. 出産順位別 出生構成比, 1970~1994

- '70年 이래 첫째, 둘째아 構成比는 繼續 增加하여 '94年 各各 50%, 42%로 나타남.
- 셋째아 以上の 構成比는 '70年 53.2%에서 減少하기 始作하여 '89년의 7.3%까지 減少 趨勢를 보이다가 '90년부터 絶對值 및 構成比가 增加하기 始作하여 '94년에는 8.2%를 보임.

(單位 : %)

年 度	計	1 兒	2 兒	3 兒	4兒以上
1970	100.0	25.0	21.8	18.8	34.4
1971	100.0	25.7	22.3	18.7	33.3
1972	100.0	26.6	23.7	18.6	31.0
1973	100.0	28.0	24.5	18.1	29.4
1974	100.0	31.1	25.5	17.8	25.5
1975	100.0	34.0	27.6	17.3	21.1
1976	100.0	34.5	29.3	17.4	18.8
1977	100.0	35.9	30.8	17.2	16.2
1978	100.0	38.0	31.6	16.8	13.6
1979	100.0	38.6	32.3	17.0	11.3
1980	100.0	39.7	32.1	16.7	12.3
1981	100.0	41.0	33.5	16.4	9.1
1982	100.0	41.9	35.5	14.8	7.9
1983	100.0	44.8	38.2	11.2	5.8
1984	100.0	49.4	37.8	8.5	4.3
1985	100.0	51.5	37.6	7.5	3.3
1986	100.0	53.1	37.1	7.0	2.8
1987	100.0	54.3	37.3	6.2	2.2
1988	100.0	54.2	38.1	5.8	1.8
1989	100.0	53.7	39.0	5.7	1.6
1990	100.0	53.6	39.0	5.9	1.5
1991	100.0	53.1	40.1	5.6	1.2
1992	100.0	52.0	40.5	6.3	1.2
1993	100.0	52.0	40.2	6.7	1.2
1994	100.0	49.7	42.1	7.1	1.1

出産順位別 構成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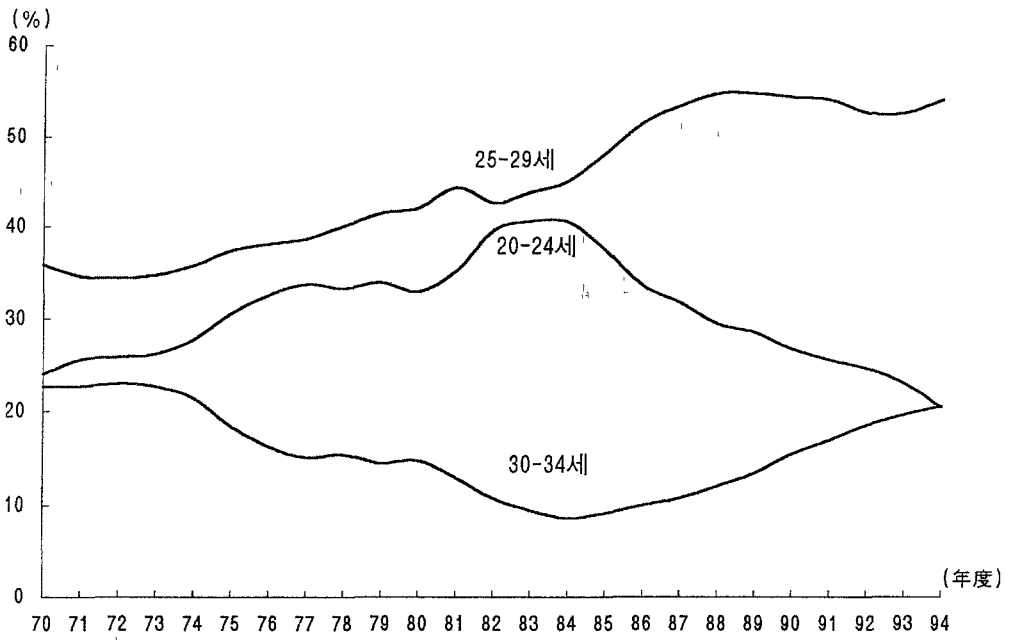
나. 母의 年齡別 出生構成比, 1970~1994

- '70年 20~29歲 年齡層에서 總出生의 59.9%를 차지했으나, 이후 점차 높아져 '85年 85.5% 水準으로 增加했으며, 그후 減少하기 始作하여 '94年 74.3%를 보임.
- 1980年代 중반부터 24歲以下 年齡層에서의 出生構成比가 줄어들고 있는 反面, 30~34歲 出生構成比가 늘어나고 있음. 이는 女性의 經濟活動 擴大, 教育年數 增加 및 結婚年齡 上昇에 따라 出產年齡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임.
- '70年 이래 줄곧 25~29歲 年齡層이 가장 높은 出生構成比를 보이며, 每年 점차 增加하여 '94년에 53.9%를 보임.

(單位 : %)

年 度	- 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
1970	3.0	24.0	35.9	22.6	9.9	3.5	1.7
1971	3.4	25.5	34.6	22.7	9.8	3.3	1.4
1972	3.6	25.8	34.4	23.0	9.5	3.0	1.3
1973	3.6	26.1	34.7	22.6	9.2	3.0	1.1
1974	3.6	27.7	35.8	21.4	8.3	2.5	0.9
1975	3.4	30.5	37.4	18.4	7.2	2.2	0.9
1976	4.0	32.5	38.1	16.3	6.4	2.0	0.8
1977	4.6	33.7	38.6	15.1	5.8	1.7	0.8
1978	4.2	33.2	40.0	15.4	5.3	1.5	0.6
1979	3.9	33.9	41.4	14.5	4.6	1.2	0.5
1980	3.2	32.9	42.0	14.8	3.9	1.9	1.2
1981	3.1	35.1	44.3	13.0	3.2	0.9	0.3
1982	3.6	39.5	42.5	10.8	2.6	0.7	0.3
1983	3.5	40.5	43.7	9.5	2.1	0.6	0.2
1984	3.6	40.4	45.0	8.6	1.8	0.4	0.2
1985	3.3	37.4	48.1	9.1	1.6	0.4	0.2
1986	3.0	33.5	51.5	10.0	1.6	0.3	0.2
1987	2.4	31.6	53.3	10.7	1.5	0.3	0.1
1988	2.0	29.3	54.6	12.0	1.6	0.3	0.1
1989	1.5	28.4	54.6	13.4	1.7	0.3	0.1
1990	1.4	26.6	54.2	15.4	2.1	0.3	0.1
1991	1.2	25.4	53.9	16.9	2.3	0.2	0.1
1992	1.2	24.5	52.5	18.5	2.8	0.3	0.1
1993	1.2	22.9	52.5	19.6	3.3	0.3	0.0
1994	1.0	20.4	53.9	20.5	3.7	0.4	0.1

母의 年齡別 出生構成比



다. 主要國과의 母의 年齡別 出生構成比 比較, 1994

- 年齡別 出生構成比를 살펴보면, 韓國은 모든 比較國과 마찬가지로 25~29歲 年齡層에서의 出生比重이 가장 높음.
- 25~29歲 年齡層에서의 出生은 比較國 중 가장 높은 53.9%로 나타남.
- 2順位는 대부분의 先進國에서는 30~34歲가, 미국 및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20~24歲 年齡層인데, 韓國에서는 20~24歲와 30~34歲가 비슷한 比重임

(單位 : %)

國 名	年 齡 年 度	- 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 +
한 국	1994	1.0	20.4	53.9	20.5	3.7	0.4	0.1
일 본	1993	1.5	16.7	43.0	30.1	7.8	1.0	0.0
대 본	1992	4.8	25.7	43.9	20.9	4.3	0.4	0.0
싱 가 포	1993	1.7	12.1	37.3	34.2	12.9	1.7	0.0
홍 콩	1992	1.8	12.9	37.7	34.9	10.9	1.3	0.0
미 국	1991	12.9	26.5	29.7	21.5	8.1	1.3	0.0
영 국	1992	7.0	23.6	35.5	24.2	8.2	1.4	0.1
프 랑 스	1991	2.4	20.0	39.1	26.0	10.3	2.1	0.1
독 일	1991	2.1	14.4	39.5	33.3	9.5	1.2	0.1
이 트 린	1991	3.4	22.0	39.2	25.8	8.2	1.4	0.1
스 웨 덴	1989	2.3	21.1	30.8	20.9	12.4	3.7	1.1
호 랑 겐	1992	2.6	21.1	38.4	25.8	10.3	1.8	0.1
폴 란 드	1992	5.4	20.0	34.5	28.7	9.8	1.5	0.1
나 다	1991	8.5	36.6	28.5	17.1	7.5	1.6	0.1
카 나 다	1990	5.8	20.2	38.1	25.5	7.7	0.9	2.7
멕시코	1992	16.0	30.6	24.4	14.8	7.3	2.3	0.6
필 리 피	1990	6.9	28.9	29.0	19.5	10.7	3.7	0.6
뉴 질	1992	7.8	22.5	32.7	26.9	8.8	1.3	0.1

資料 : 대만은 '93人口統計年鑑, 일본은 '93人口動態統計, 나머지는 '93유엔人口統計年鑑

4. 出生性比 比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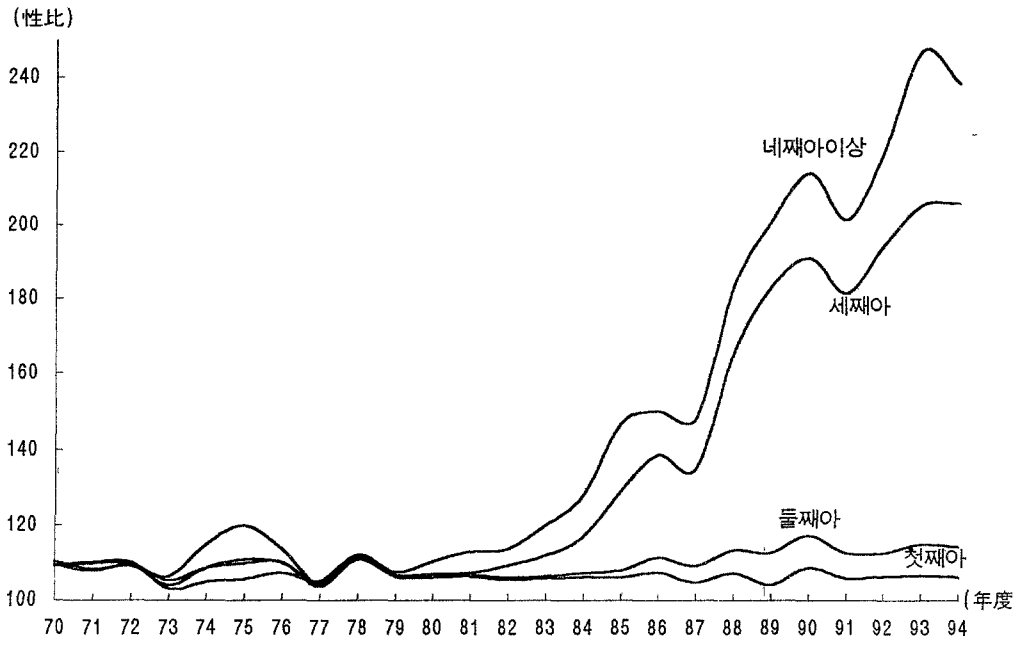
가. 出產順位別 出生性比, 1970~1994

- 出生性比는 '80年代 초반부터 繼續 높아져 '94년에는 115.5를 나타냄.
- 범띠, 용띠, 말띠해에는 대체적으로 女兒 出產을 忌避하여 出生性比가 週期的으로 影響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 특히, 出產順位가 높아질수록 出生性比는 훨씬 높아져 最近年度에와서는 세째아 以上의 경우 200을 上廻하고 있음.
- 이는 出產力이 떨어지면서 男兒選好思想이 강하게 作用한 影響으로 보임.

(單位 : 女兒100名當 男兒數)

年 度	計	1 兒	2 兒	3 兒	4兒以上
1970	109.5	110.2	109.3	109.1	109.4
1971	109.0	108.1	107.7	109.7	110.1
1972	109.5	109.0	109.5	109.5	110.1
1973	104.6	106.2	105.3	103.9	103.0
1974	109.4	114.7	108.5	108.4	104.8
1975	112.4	120.0	109.8	110.8	105.5
1976	110.7	113.6	110.1	109.9	107.1
1977	104.2	104.3	103.6	104.5	105.1
1978	111.3	111.6	110.9	110.8	112.0
1979	106.4	106.2	106.2	106.7	107.5
1980	105.3	106.0	106.5	106.9	110.2
1981	107.2	106.3	106.7	107.1	112.9
1982	106.8	105.4	106.0	109.2	113.6
1983	107.4	105.8	106.2	111.8	120.0
1984	108.3	106.1	107.2	116.9	128.1
1985	109.4	106.0	107.8	129.2	146.8
1986	111.7	107.3	111.2	138.6	149.9
1987	108.8	104.7	109.1	134.9	148.8
1988	113.3	107.2	113.3	165.4	183.3
1989	111.8	104.1	112.5	183.1	201.1
1990	116.6	108.6	117.2	190.8	214.1
1991	112.5	105.8	112.6	181.4	201.3
1992	113.8	106.3	112.6	194.1	220.1
1993	115.5	106.6	114.8	205.3	246.7
1994	115.5	106.1	114.3	205.9	237.7

出産順位別 出生性比



나. 主要國과의 出生性比 比較, 1994

- 1994年 基準 우리나라의 出生性比 115.5는 比較國중 가장 높음.

(單位 . 女兒100名當 男兒數)

國 名	年 度	性 比	國 名	年 度	性 比
한 국	1994	115.5			
일본	1993	105.6	필리핀	1990	108.4
대한민국	1992	110.0	덴마크	1991	105.3
대만	1992	107.2	덴마크	1991	105.3
싱가포르	1993	107.0	이집트	1989	106.5
미영	1991	104.6	브라질	1990	104.1
프랑스	1992	105.2	칠레	1991	104.9
네덜란드	1990	105.4	이스라엘	1992	105.9
호주	1992	105.2	말레이시아	1991	106.9
캐나다	1992	105.5	스리랑카	1988	105.2
방글라데시	1989	105.0	태국	1991	105.8
파키스탄	1988	107.0	독일	1991	105.5
이탈리아	1988	109.0	헝가리	1992	105.9
폴란드	1989	106.2	스웨덴	1991	106.2
스위스	1991	105.8	유고슬라비아	1990	107.5
	1992	104.5	뉴질랜드	1992	108.0
			포르투갈	1991	106.1

資料 : 대만은 '93人口統計年鑑, 일본은 '93人口動態統計,
나머지는 '93 유엔人口統計年鑑

V. 死亡

1. 年齡別 男子死亡率

- 男子의 年齡別 死亡率은 全年齡層에 걸쳐 減少하고 있으나, '70年代 以後 5~14歲 年少人口層에서의 減少 幅이 가장 커, 1994年 5~14歲 年齡層 死亡率은 1970年 水準의 25%程度임.
- 이는 社會經濟的 發展 및 醫療保健 技術이 다른 年齡層보다 5~14歲 年齡層의 健康을 相對的으로 더 많이 增加시킨 것으로 사료됨.

(單位：人口千名當)

年度	계	0-4	5-9	10-14	15-19	20-24	25-29	30-34	35-39
1970	9.2	4.7	2.6	2.1	3.5	4.2	3.8	4.0	5.5
1971	8.3	4.1	2.3	1.9	3.1	3.6	3.5	3.7	5.2
1972	7.3	3.1	1.7	1.4	2.6	3.1	3.1	3.7	4.7
1973	9.1	3.2	2.5	1.9	3.1	3.7	3.5	4.3	5.0
1974	8.4	3.1	2.3	1.7	2.8	3.6	3.2	4.1	4.9
1975	8.9	3.1	2.5	1.9	2.9	3.7	3.5	4.6	5.3
1976	8.6	3.3	2.4	1.7	2.9	4.1	3.6	4.8	5.6
1977	7.9	3.0	1.8	1.4	2.6	2.8	3.1	3.7	5.3
1978	8.0	2.8	1.8	1.3	2.2	2.8	2.9	3.3	5.4
1979	7.6	3.0	1.5	1.2	2.2	2.5	2.7	3.3	5.4
1980	8.4	2.9	1.6	1.2	2.0	2.8	2.9	3.5	5.4
1981	7.2	2.5	1.3	0.9	1.7	2.7	2.7	3.1	4.8
1982	7.3	2.8	1.3	1.0	1.9	2.5	2.6	3.2	4.6
1983	7.6	2.6	1.2	0.9	1.8	2.2	2.4	3.2	4.4
1984	7.0	2.3	1.1	0.8	1.7	1.9	2.3	2.8	4.2
1985	7.0	2.2	1.0	0.7	1.6	1.9	2.3	2.8	4.1
1986	6.9	1.9	0.9	0.6	1.5	1.7	2.3	2.8	4.1
1987	6.9	1.8	0.9	0.6	1.4	1.7	2.3	2.9	4.1
1988	6.6	1.7	0.9	0.6	1.4	1.6	2.2	2.8	4.1
1989	6.6	1.6	0.8	0.6	1.3	1.6	2.1	2.6	4.1
1990	6.5	1.5	0.7	0.6	1.2	1.5	1.9	2.5	3.7
1991	6.4	1.4	0.6	0.5	1.2	1.4	1.8	2.5	3.6
1992	6.2	1.4	0.6	0.5	1.3	1.3	1.8	2.4	3.3
1993	6.1	1.3	0.5	0.4	1.2	1.3	1.6	2.2	3.2
1994	6.2	1.4	0.5	0.4	1.1	1.3	1.7	2.2	3.1

年度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70-74	75-79	80+
1970	9.1	14.9	22.4	33.1	47.5	72.9	95.5	225.2	
1971	8.4	13.8	20.8	30.5	44.1	60.6	89.4	199.7	
1972	7.7	12.4	19.0	28.0	42.0	59.4	82.8	174.4	
1973	8.3	13.4	22.3	33.7	51.2	77.7	83.0	265.3	
1974	8.1	12.8	20.7	31.4	48.4	68.6	83.2	247.3	
1975	9.3	13.1	22.2	31.8	51.8	67.9	81.9	235.1	
1976	8.8	13.3	21.3	32.4	46.6	65.7	80.5	125.0	350.2
1977	8.0	13.0	18.9	28.2	42.1	63.3	91.0	136.7	302.6
1978	7.8	12.1	18.4	28.8	42.0	65.2	95.3	144.4	315.6
1979	7.6	11.7	18.2	26.5	39.2	58.9	84.9	131.0	262.9
1980	8.0	12.1	18.5	27.4	42.6	64.1	99.8	159.8	357.2
1981	7.4	10.9	16.7	24.1	36.5	53.5	86.4	126.0	274.4
1982	7.7	11.2	16.4	24.2	36.2	54.9	83.5	118.7	263.1
1983	8.0	11.4	16.1	24.2	37.6	57.3	89.3	131.6	290.6
1984	7.6	10.6	14.5	21.6	33.7	50.8	77.1	118.3	242.2
1985	7.0	10.4	14.2	21.4	33.1	50.3	76.1	118.0	240.2
1986	6.6	10.2	14.0	20.1	31.1	48.9	73.8	119.1	236.4
1987	6.2	10.1	13.7	19.7	30.5	47.2	71.8	117.5	226.8
1988	5.8	9.9	13.2	18.1	27.7	44.3	68.1	109.0	205.2
1989	5.7	9.6	12.9	17.3	27.3	41.5	65.6	107.5	203.9
1990	5.4	9.0	12.3	17.1	26.8	40.8	65.1	104.8	212.1
1991	5.5	8.4	12.1	16.6	25.7	39.8	62.4	97.8	211.2
1992	5.0	7.4	11.5	15.6	23.3	37.3	59.7	92.9	194.7
1993	5.1	6.9	11.2	15.0	21.7	35.8	57.6	91.2	189.7
1994	4.8	6.6	10.6	15.2	21.8	35.2	56.2	92.0	200.4

2. 年齡別 女子死亡率

- 女性の年齡別 死亡率 역시 '70年代 以後 全年齡層에서 減少하고 있으며, 그 減少幅이 5~29歲 年齡層에서 가장 커, 同年齡層 '94年の 死亡率이 '70年 水準의 25% 以下임.
- 이는 社會經濟的 發展 및 醫療保健 技術이 5~29歲 年齡層의 健康을 相對的으로 많이 增進시켰을 뿐만 아니라, 出生率 減少로 20代의 死亡率이 減少한 탓으로 풀이됨.

(單位 : 人口千名當)

年度	計	0-4	5-9	10-14	15-19	20-24	25-29	30-34	35-39
1970	6.8	4.5	2.3	1.7	2.5	3.5	3.7	3.3	4.1
1971	6.1	4.0	1.9	1.5	2.2	3.0	3.4	3.0	3.8
1972	5.2	3.1	1.5	1.2	1.7	2.6	2.8	2.8	3.2
1973	6.6	3.1	2.1	1.6	2.1	3.0	3.3	3.4	3.8
1974	6.0	3.0	2.1	1.5	1.9	2.7	2.9	3.3	3.3
1975	6.4	2.8	2.2	1.6	2.2	3.0	3.1	3.7	3.6
1976	6.3	3.0	2.3	1.7	2.5	3.4	2.7	3.5	3.4
1977	5.8	2.9	1.6	1.2	1.9	2.1	2.4	2.6	3.0
1978	5.7	2.7	1.5	1.1	1.6	1.9	2.1	2.4	2.9
1979	5.2	2.8	1.3	1.0	1.4	1.5	1.8	2.2	2.8
1980	6.2	2.9	1.5	1.1	1.4	1.8	2.0	2.3	3.0
1981	5.0	2.5	1.1	0.8	1.1	1.4	1.6	1.8	2.4
1982	5.2	2.7	1.1	0.7	1.1	1.4	1.4	1.7	2.3
1983	5.6	2.5	1.2	0.7	1.1	1.4	1.4	1.7	2.2
1984	5.1	2.2	1.0	0.5	0.9	1.1	1.2	1.4	1.9
1985	5.0	2.0	0.9	0.5	0.9	1.0	1.1	1.3	1.8
1986	5.0	1.8	0.8	0.5	0.8	0.9	1.1	1.3	1.8
1987	5.1	1.7	0.8	0.6	0.7	0.9	1.1	1.3	1.7
1988	4.8	1.6	0.6	0.5	0.7	0.8	1.0	1.1	1.7
1989	4.8	1.5	0.5	0.4	0.6	0.8	0.8	1.1	1.6
1990	4.9	1.3	0.5	0.4	0.5	0.7	0.9	1.0	1.4
1991	4.9	1.3	0.4	0.3	0.5	0.7	0.8	1.0	1.3
1992	4.8	1.2	0.4	0.3	0.5	0.6	0.7	1.0	1.2
1993	4.7	1.2	0.4	0.3	0.4	0.6	0.7	0.9	1.1
1994	4.7	1.2	0.4	0.3	0.5	0.6	0.7	0.9	1.1

연도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70-74	75-79	80+
1970	5.3	7.0	10.0	14.2	20.4	31.9	49.1	179.2	
1971	4.7	6.5	8.9	12.5	17.6	26.8	44.9	148.9	
1972	4.4	5.8	8.1	11.1	16.3	24.2	39.7	121.6	
1973	4.8	6.5	9.8	13.5	20.8	30.9	47.8	166.2	
1974	4.5	6.3	9.0	12.3	19.5	27.3	33.5	148.2	
1975	5.0	6.8	9.7	12.9	21.3	27.6	41.9	119.9	
1976	5.1	6.4	9.3	13.4	19.2	26.9	37.2	57.9	180.5
1977	4.1	5.9	8.2	12.1	17.1	27.1	41.4	69.1	165.7
1978	3.8	5.5	7.8	11.2	16.5	25.9	41.6	69.0	165.7
1979	3.5	5.2	7.3	10.2	15.7	24.8	39.2	63.2	149.5
1980	3.8	5.5	8.1	11.1	17.3	28.2	46.1	77.9	194.8
1981	3.1	4.7	7.0	9.4	14.4	22.7	37.7	61.0	155.4
1982	3.2	4.7	7.0	9.8	14.5	24.0	39.9	61.9	151.8
1983	3.3	4.7	7.0	9.8	15.5	25.4	44.0	69.7	172.0
1984	3.1	4.1	6.1	8.9	13.9	23.0	39.1	65.0	154.7
1985	2.8	4.1	5.9	8.7	13.3	22.8	38.4	63.8	154.1
1986	2.7	3.8	5.6	8.3	12.6	22.1	37.3	63.3	151.8
1987	2.6	3.8	5.5	8.2	12.8	21.0	37.4	64.1	153.0
1988	2.3	3.6	5.0	7.7	11.4	20.7	35.1	61.8	143.3
1989	2.2	3.5	5.0	7.1	11.3	19.1	34.1	60.2	143.1
1990	2.0	3.4	4.7	6.9	11.3	18.7	33.5	60.4	149.7
1991	1.9	3.1	4.6	6.7	11.0	18.5	33.0	60.4	149.5
1992	1.7	3.0	4.3	6.2	10.2	17.8	31.7	56.5	142.9
1993	1.7	2.5	4.2	6.0	9.7	16.2	30.5	53.2	142.4
1994	1.5	2.3	3.8	5.8	9.3	16.2	29.7	55.6	147.0

3. 年齡別 死亡率性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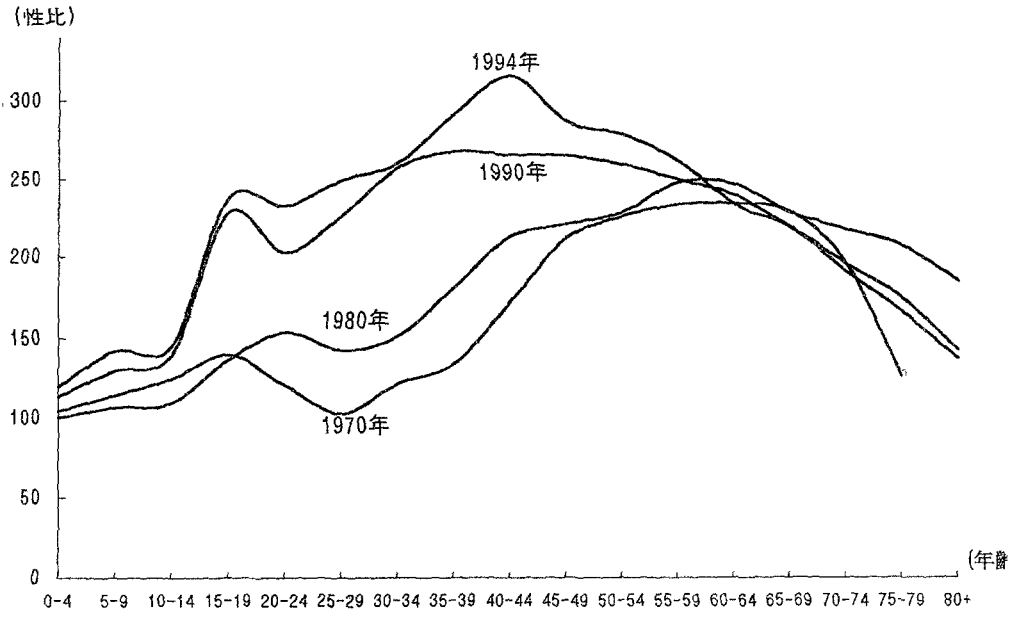
- '70~'94年 동안 全年齡層에서 男子死亡率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全體 年齡에 대한 死亡率性比(男子死亡率 對 女子死亡率 比)는 年度別로 약간의 騰落을 보이나 큰 差異는 없음.
- 年齡別로는 큰 差異를 보여 25~45歲 年齡層에서는 '70년에 비해 '94년이 약 2倍 程度 死亡率性비가 높아 졌음.
- 이는 '70年 以後 男性보다 女性의 死亡水準이 相對的으로 더 낮아지고 있음을 意味함.
- '94년의 境遇 15~69歲까지의 年齡層에서는 死亡率性비가 200~300으로 나타나, 同年齡層의 男子死亡率이 相對的으로 높음을 보여줌.

(單位 : 男子死亡率 對 女子死亡率 百分比)

年度	계	0-4	5-9	10-14	15-19	20-24	25-29	30-34	35-39
1970	134.5	104.0	114.1	124.2	139.6	120.1	102.3	120.9	133.6
1971	136.5	101.0	117.0	122.9	141.7	121.5	104.5	123.2	137.4
1972	139.6	100.6	117.7	121.2	151.4	121.6	110.7	128.7	144.8
1973	137.4	104.1	115.3	116.2	146.2	122.2	104.8	127.0	131.6
1974	139.8	104.3	111.9	117.1	147.4	134.5	112.8	124.9	146.6
1975	140.1	110.6	115.0	119.1	130.4	122.8	112.4	124.8	146.1
1976	137.4	110.3	104.5	103.0	117.6	122.1	135.3	137.3	164.1
1977	138.0	105.8	110.5	116.9	140.7	132.5	130.4	139.6	177.2
1978	141.5	103.1	116.7	116.3	136.5	149.0	138.2	140.0	184.3
1979	144.6	108.1	119.8	118.0	164.9	164.7	155.1	152.6	191.2
1980	135.1	100.1	106.6	108.8	136.6	153.5	142.3	150.5	180.0
1981	143.9	100.9	114.9	119.6	156.9	188.2	167.2	170.3	202.0
1982	142.5	103.4	113.7	128.4	173.1	175.4	179.9	190.7	201.4
1983	136.7	104.2	106.1	114.8	169.3	153.9	175.7	180.6	199.8
1984	137.4	104.4	109.0	138.7	176.0	169.7	201.1	194.2	219.7
1985	138.7	108.8	118.3	138.6	177.5	185.2	206.7	210.1	232.3
1986	138.4	108.8	118.7	128.8	180.9	191.9	215.2	215.0	227.8
1987	135.9	106.3	114.9	116.0	202.1	183.0	212.6	231.4	236.6
1988	136.9	105.7	135.8	135.1	207.6	194.8	223.1	254.4	244.9
1989	137.0	107.0	138.6	145.8	225.6	201.8	245.2	246.1	261.0
1990	133.7	113.0	129.8	139.5	227.9	202.0	225.6	256.8	267.4
1991	131.5	109.5	144.1	142.7	260.1	206.8	242.1	254.1	276.9
1992	130.2	110.6	148.7	146.9	255.4	220.9	243.5	251.7	283.6
1993	130.2	108.7	128.5	144.8	262.5	227.6	243.7	246.3	275.5
1994	130.2	119.5	142.4	144.8	237.5	232.3	248.9	259.9	291.2

연도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70-74	75-79	80+
1970	171.1	211.0	225.0	232.9	233.3	228.1	194.5	125.7	
1971	176.4	211.3	232.3	244.9	250.3	226.0	199.1	134.1	
1972	173.6	213.3	233.1	251.2	258.2	244.8	208.3	143.3	
1973	173.7	205.2	227.4	250.0	246.6	251.3	228.6	159.7	
1974	180.2	204.1	229.0	255.4	248.4	251.0	248.5	166.9	
1975	184.8	193.6	228.5	247.6	242.6	245.7	255.1	196.0	
1976	171.5	207.4	228.0	241.2	242.5	244.0	216.1	215.8	194.0
1977	192.7	221.6	230.2	233.9	246.5	233.6	219.5	197.9	182.6
1978	204.7	220.1	237.4	256.8	255.1	251.2	229.4	209.2	181.6
1979	220.1	224.9	249.1	259.3	249.5	237.9	216.7	207.5	175.9
1980	212.1	220.2	227.6	247.3	245.9	227.5	216.5	205.3	183.4
1981	234.5	234.2	240.1	257.5	252.8	235.5	229.1	206.3	176.6
1982	242.8	241.0	233.9	257.5	249.0	228.6	209.5	191.9	173.3
1983	243.7	243.2	231.4	246.9	242.7	225.5	202.8	188.7	169.0
1984	247.5	257.2	238.3	243.9	241.9	220.8	197.2	182.0	156.6
1985	247.4	255.5	242.0	245.5	248.8	221.1	198.4	185.0	155.9
1986	243.3	267.3	249.4	241.8	248.0	220.9	198.1	188.1	155.8
1987	239.5	264.5	249.2	239.3	237.7	224.8	192.2	183.2	148.3
1988	255.6	275.8	262.8	235.5	242.1	213.7	193.9	176.3	143.2
1989	264.0	273.4	258.0	241.8	241.8	217.4	192.4	178.7	142.5
1990	264.9	264.8	258.8	248.8	238.5	218.0	194.3	173.6	141.7
1991	289.8	267.2	263.1	247.6	233.4	215.6	188.8	162.1	141.2
1992	287.6	251.8	267.8	251.3	229.0	209.6	188.2	164.4	136.3
1993	294.5	274.9	267.9	247.9	224.6	221.2	189.1	171.3	133.2
1994	314.5	286.4	278.1	260.9	232.9	217.7	189.3	165.3	136.3

年齡別 死亡率性比(推定)



4. 主要國과의 年齡標準化死亡率 比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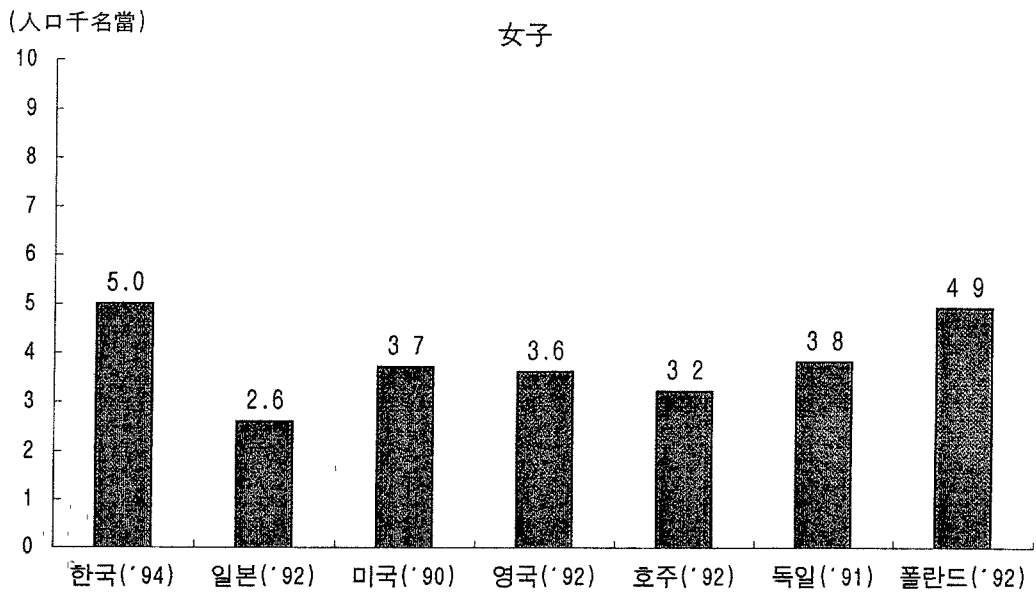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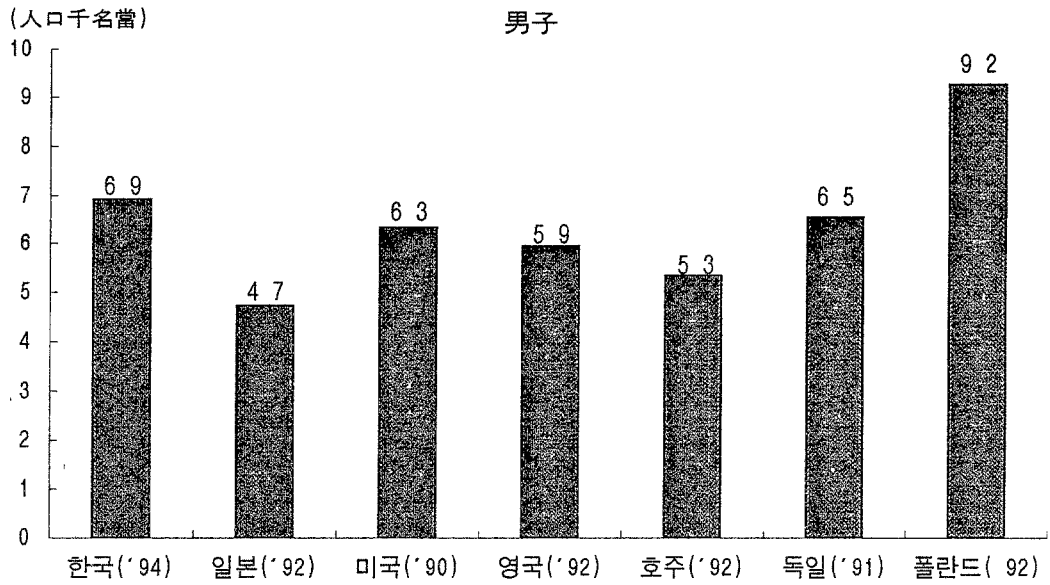
- '94年 男女 모두의 粗死亡率이 比較國 中 가장 낮게 나타남.
- '94年 男女死亡率을 1990年 性別 世界人口와 유럽人口로 標準化하였을 때, 男女모두 체코, 헝가리보다는 낮고 다른 나라보다는 높음.
- 이는 韓國의 粗死亡率이 相對적으로 낮은 理由가 한국의 젊은 年齡構造 탓이며, 實際 死亡率은 체코, 헝가리를 除外한 모든 比較國보다 높음을 意味함.

(單位 : 人口千名當)

主要國家	粗 死 亡 率		年 齡 標 準 化 死 亡 率			
			世界人口基準		유럽人口基準	
	男	女	男	女	男	女
한 국('94)	6.2	4.7	6.9	5.0	12.9	11.2
일본('92)	7.7	6.2	4.7	2.6	9.7	5.5
나 다('91)	7.8	6.5	5.4	3.1	10.8	6.5
미 국('90)	9.2	8.1	6.3	3.7	12.1	7.4
오스트리아('92)	10.1	10.9	6.1	3.5	12.1	7.6
체코('91)	12.3	10.7	9.0	5.0	17.7	10.5
덴마크('92)	11.9	11.5	6.3	4.0	12.8	8.3
프랑스('91)	9.8	8.6	5.7	2.8	11.0	5.9
독일('91)	10.9	11.8	6.5	3.8	13.2	8.0
헝가리('90)	16.1	12.9	10.5	5.6	19.7	11.4
이탈리아('90)	10.1	8.8	5.8	3.2	11.6	7.0
네덜란드('91)	9.0	8.3	5.7	3.3	12.0	7.0
노르웨이('91)	11.0	10.1	7.7	3.3	11.7	7.0
폴란드('92)	11.3	9.2	9.2	4.9	17.4	10.0
스웨덴('90)	11.6	10.6	5.3	3.2	11.1	6.9
스위스('92)	9.4	8.7	5.3	2.9	10.7	6.2
영국('92)	10.9	11.0	5.9	3.6	12.1	7.6
호주('92)	7.5	6.5	5.3	3.2	10.7	6.7
뉴질랜드('91)	8.3	7.4	6.0	3.8	11.8	7.7

資料 : 1993世界保健統計年鑑

主要國과의 年齡標準化死亡率(世界人口基準) 比較



V. 婚 姻

1. 婚姻形態別 婚姻構成比, 1970~1994

- 婚姻形態는 男女 모두 初婚인 경우가 全體 婚姻의 대부분으로 '70年代에는 92~94% 水準이었으나, 最近에는 90% 程度로 다소 減少 趨勢에 있음.
- 男子는 再婚, 女子가 初婚인 경우는 全體에서 차지하는 比率이 3~4%로 큰 變動은 없으나 減少 傾向이 있는데 반하여, 男子는 初婚, 女子는 再婚인 경우는 '70年代 1%未滿이었던 것이 最近에는 2.3%까지 增加하여 종래 家父長社會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結婚 形態로 나타나고 있음.
- 男女 모두 再婚인 경우도 '70年 중반 3.0%에서 '80年代 중반부터 4%以上으로 增加하고 있는데, 이는 死別男女 및 離婚男女의 結合이 增加하고 있는데 基因함.

(單位 : %)

年 度	計	初婚 - 初婚		再婚 - 初婚		初婚 - 再婚		再婚 - 再婚	
		(男)	(女)	(男)	(女)	(男)	(女)	(男)	(女)
1970	100.0	91.5		4.1		0.9		3.5	
1971	100.0	94.4		2.8		0.6		2.2	
1972	100.0	94.1		3.0		0.5		2.4	
1973	100.0	93.7		3.2		0.6		2.5	
1974	100.0	93.4		3.3		0.6		2.7	
1975	100.0	92.6		3.6		0.8		3.0	
1976	100.0	92.9		3.5		0.8		2.9	
1977	100.0	93.0		3.3		0.9		2.8	
1978	100.0	92.6		3.5		1.0		2.9	
1979	100.0	93.0		3.3		1.0		2.7	
1980	100.0	92.2		3.5		1.2		3.1	
1981	100.0	92.7		3.2		1.2		2.9	
1982	100.0	92.1		3.4		1.3		3.2	
1983	100.0	91.8		3.4		1.4		3.4	
1984	100.0	91.3		3.6		1.5		3.6	
1985	100.0	90.6		3.7		1.7		4.0	
1986	100.0	90.4		3.7		1.8		4.1	
1987	100.0	89.8		3.8		2.0		4.4	
1988	100.0	89.7		3.7		2.2		4.4	
1989	100.0	90.0		3.5		2.2		4.3	
1990	100.0	89.8		3.4		2.4		4.4	
1991	100.0	90.3		3.2		2.4		4.1	
1992	100.0	90.2		3.0		2.6		4.2	
1993	100.0	89.8		3.0		2.7		4.5	
1994	100.0	90.9		2.6		2.3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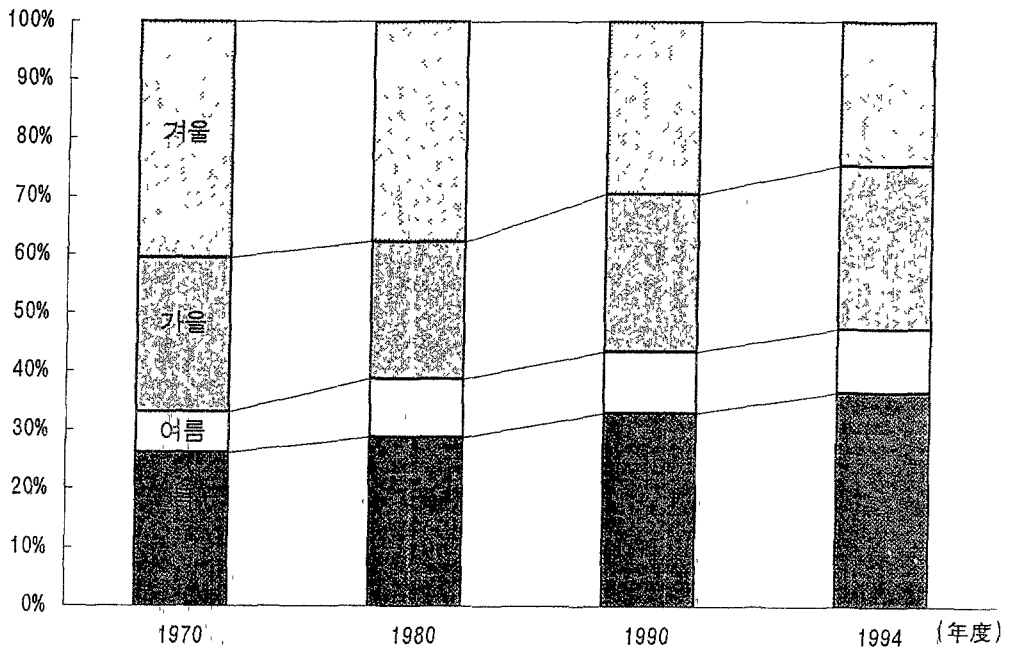
2. 季節別 婚姻構成比, 1970~1994

- 季節別로 살펴보면, 70年代에는 全體 婚姻 중 약 41%가 겨울철에 이루어 졌으며 다음으로 봄, 가을, 여름 順으로 나타났으나, 最近에는 봄철이 가장 많고, 다음이 가을, 겨울, 여름 順으로 나타나고 있음.
- '70年以後 겨울 婚姻 構成比는 減少 趨勢임.
- 또한, 여름철 婚姻이 '70年代에는 10%未滿에서 80年代 以後 10%以上の 水準을 나타내고 있어 相對的으로 季節別 偏差가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줌.

(單位 : %)

年 度	계	봄	여름	가을	겨울
1970	100.0	26.1	6.9	26.4	40.6
1971	100.0	26.9	7.0	28.1	38.0
1972	100.0	26.6	7.2	26.5	39.7
1973	100.0	27.9	7.6	24.2	40.3
1974	100.0	26.2	8.3	23.7	41.8
1975	100.0	27.7	9.1	24.2	39.0
1976	100.0	27.5	8.5	24.5	39.5
1977	100.0	27.8	9.8	24.6	37.8
1978	100.0	28.0	8.8	25.5	37.7
1979	100.0	29.2	9.7	24.4	36.7
1980	100.0	28.8	9.9	23.6	37.7
1981	100.0	30.6	9.9	25.6	33.9
1982	100.0	30.4	9.9	24.9	34.8
1983	100.0	29.8	10.0	24.6	35.6
1984	100.0	30.9	10.5	25.7	32.9
1985	100.0	31.7	10.9	24.3	33.1
1986	100.0	32.4	10.4	26.6	30.6
1987	100.0	32.1	10.1	26.6	31.2
1988	100.0	32.3	10.9	25.9	30.9
1989	100.0	32.5	10.4	27.5	29.6
1990	100.0	32.9	10.5	27.2	29.4
1991	100.0	33.5	11.5	28.2	26.8
1992	100.0	33.2	11.0	29.2	26.6
1993	100.0	32.4	11.5	28.9	27.2
1994	100.0	36.5	10.8	28.1	24.6

季節別 婚姻構成比



3. 婚姻形態別 婚姻年齡, 1985~1994

- 婚姻形態와 상관없이 平均 婚姻年齡은 '85年 男子가 27.4歲, 女子가 24.2歲에서 점차 增加하여 '94年에 男子 28.8세, 女子 25.6歲로 나타났으며, 男女 婚姻年齡 격차는 약 3歲로 거의 變動없음.
- 男女 모두 初婚인 경우 平均 婚姻年齡은 '85年 男子가 26.4歲, 女子가 23.4歲에서 점차 增加하여 '94年 男子 27.8歲, 女子가 24.7歲이고, 男女의 격차가 약 3歲로 '85~'94年 동안 변함이 없음.
- 이는 平均 壽命의 增加, 教育 年數의 增加로 家族生活 週期가 달라지고 있음을 意味함.

(單位 : 歲)

年 度	全體 婚姻			初婚(男子)-初婚(女子)		
	男 子	女 子	差 異	男 子	女 子	差 異
1985	27.4	24.2	3.2	26.4	23.4	3.0
1986	27.6	24.4	3.2	26.6	23.6	3.1
1987	27.8	24.6	3.2	26.8	23.7	3.2
1988	28.0	24.8	3.2	27.0	23.9	3.1
1989	28.2	24.9	3.3	27.2	24.1	3.1
1990	28.3	25.0	3.3	27.3	24.2	3.1
1991	28.4	25.1	3.3	27.4	24.2	3.2
1992	28.5	25.2	3.3	27.5	24.3	3.2
1993	28.6	25.4	3.2	27.5	24.3	3.2
1994	28.8	25.6	3.2	27.8	24.7	3.1

V. 離 婚

1. 年 齡 別 離 婚 構 成 比 및 平 均 離 婚 年 齡, 1985~1994

- 全體離婚의 절반 정도가 男子는 30~39歲에서, 女子는 25~34歲에서 發生함.
- 男女 모두 20代 離婚은 減少 趨勢에 있는 反面, 35歲 以後의 離婚構成比가 꾸준히 增加하고 있음.
- '85年 以後 男女의 平均 離婚年齡은 繼續 增加하고 있음.

- 男子

(單位 : %, 歲)

연도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平均 離婚 年齡
1985	0.1	4.0	21.7	26.5	20.7	13.2	7.2	2.9	1.7	2.0	35.6
1986	0.1	3.5	21.0	28.1	20.6	13.1	6.9	3.1	1.6	1.9	35.7
1987	0.1	3.2	20.6	28.3	20.5	13.2	7.5	3.2	1.6	1.9	35.8
1988	0.0	2.8	19.2	29.0	20.8	13.1	8.2	3.4	1.6	1.9	36.1
1989	0.0	2.7	18.5	29.2	20.6	13.8	7.7	3.7	1.8	1.9	36.2
1990	0.1	2.3	17.1	28.9	21.6	14.1	8.2	3.9	1.8	2.0	36.5
1991	0.0	2.3	14.5	28.7	23.2	14.7	8.2	4.2	2.0	2.0	37.0
1992	0.0	1.9	13.7	27.8	24.2	14.9	8.6	4.7	2.1	2.0	37.3
1993	0.0	1.9	12.0	26.4	25.2	15.7	9.3	5.2	2.2	2.0	37.7
1994	0.0	1.7	11.8	25.2	25.9	15.9	9.8	5.4	2.3	2.1	38.0

- 女子

(單位 : %, 歲)

연도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平均 離婚 年齡
1985	0.9	15.5	32.4	23.5	13.8	7.7	3.5	1.5	0.7	0.5	31.3
1986	0.8	13.4	33.2	25.3	13.8	7.3	3.4	1.5	0.6	0.5	31.4
1987	0.7	12.2	33.5	26.0	13.7	7.6	3.6	1.6	0.7	0.5	31.6
1988	0.5	11.3	32.1	27.5	14.1	7.7	3.9	1.6	0.7	0.5	31.9
1989	0.5	11.1	30.4	28.7	14.5	7.9	3.9	1.7	0.7	0.5	32.1
1990	0.4	10.0	28.8	28.9	16.4	8.1	4.2	1.9	0.9	0.5	32.5
1991	0.4	9.3	25.8	30.6	18.0	8.4	4.1	2.0	0.9	0.6	32.9
1992	0.4	8.6	24.5	30.3	19.2	8.8	4.4	2.2	0.9	0.6	33.2
1993	0.2	7.6	22.6	29.7	21.2	10.0	4.7	2.3	1.0	0.6	33.8
1994	0.2	6.9	21.8	28.6	22.6	10.6	5.1	2.5	1.0	0.6	34.1

2. 同居期間別 離婚構成比, 1985~1994

- 同居期間別 離婚構成比를 살펴보면, '94년에 發生한 離婚중 31.9%가 5年未滿, 25.2%가 10年未滿, 10年以上은 43.0%임.
- 結婚 5年以內 離婚은 '85年 41.5%에서 繼續減少하여 '90年 37.3%, '94년에 31.9%를 나타냈으며, 反面에 結婚生活 10年 後 離婚은 '85年 27.8%에서 '90年 33.7%, '94년에는 43.0%로 繼續 增加趨勢에 있음.
- 이는 同居期間이 긴 年齡層에서의 離婚의 增加 幅이 同居期間이 짧은 年齡層에서의 離婚의 增加 幅보다 크기 때문임.
- 한편, 平均同居期間은 '85年 7.1年에서 다소 增加하여 '94년에 9.1을 나타냄.

(單位 : 年, %)

年 度	平 均 同居 年數	0~5 年 未滿	5~10 年 未滿	10~15 年 未滿	15~20 年 未滿	20年 以上
1985	7.1	41.5	30.6	15.7	7.4	4.7
1986	7.2	40.3	31.4	16.1	7.6	4.5
1987	7.3	39.5	31.7	16.2	8.0	4.6
1988	7.5	38.6	31.1	17.7	8.0	4.6
1989	7.6	38.3	30.6	18.2	8.1	4.8
1990	7.8	37.3	29.0	19.4	8.6	5.7
1991	8.2	35.3	28.1	20.7	9.6	6.3
1992	8.5	33.9	27.0	22.0	10.4	6.8
1993	8.9	32.6	25.8	22.4	11.6	7.5
1994	9.1	31.9	25.2	22.5	12.6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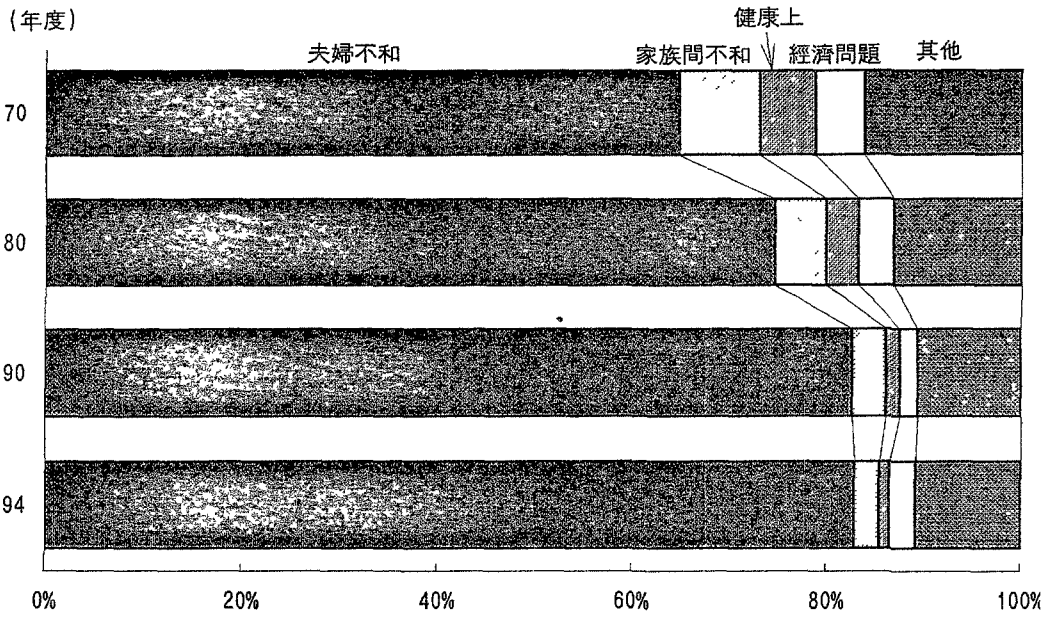
3. 離婚事由別 離婚構成比, 1970~1994

- 夫婦不和에 의한 離婚은, '70年 全體離婚의 64.9%에서 繼續 增加하여, '80年代 후반부터 83~85%를 차지함.
- 反面, 家族間 不和, 健康問題 또는 經濟問題에 의한 離婚은 減少하여, '70년에 5~8%이던 것이 '90년에는 3%以下임.
- 이는 都市化 및 核家族化에 따른 夫婦關係의 重要性이 增加된 때문으로 解析됨.

(單位 : %)

年 度	計	夫婦不和	家族間不和	健康上	經濟問題	其 他
1970	100.0	64.9	8.3	5.7	5.1	16.1
1971	100.0	64.8	8.3	6.1	5.5	15.4
1972	100.0	64.9	8.2	5.8	5.6	15.5
1973	100.0	63.6	8.3	5.8	5.5	16.9
1974	100.0	63.7	8.3	5.8	5.0	17.2
1975	100.0	64.4	8.6	5.2	5.2	16.7
1976	100.0	65.7	7.3	5.0	4.9	17.2
1977	100.0	68.0	6.8	4.7	4.4	16.1
1978	100.0	72.3	5.9	4.2	3.6	13.9
1979	100.0	73.2	5.6	3.9	3.5	13.8
1980	100.0	74.6	5.3	3.3	3.6	13.1
1981	100.0	75.8	5.4	2.7	3.9	12.2
1982	100.0	77.6	4.5	2.5	3.7	11.7
1983	100.0	78.6	4.5	2.2	3.5	11.3
1984	100.0	79.8	3.9	1.8	3.3	11.1
1985	100.0	80.9	4.1	1.6	3.0	10.4
1986	100.0	80.7	4.1	1.6	2.9	10.8
1987	100.0	80.5	3.3	1.7	2.6	11.9
1988	100.0	82.2	3.6	1.5	2.2	10.6
1989	100.0	82.7	3.4	1.4	2.1	10.4
1990	100.0	82.6	3.5	1.4	1.8	10.6
1991	100.0	83.7	3.4	1.2	1.7	10.0
1992	100.0	84.6	3.0	1.2	1.9	9.3
1993	100.0	83.7	2.9	1.0	2.2	10.2
1994	100.0	82.9	2.6	1.0	2.7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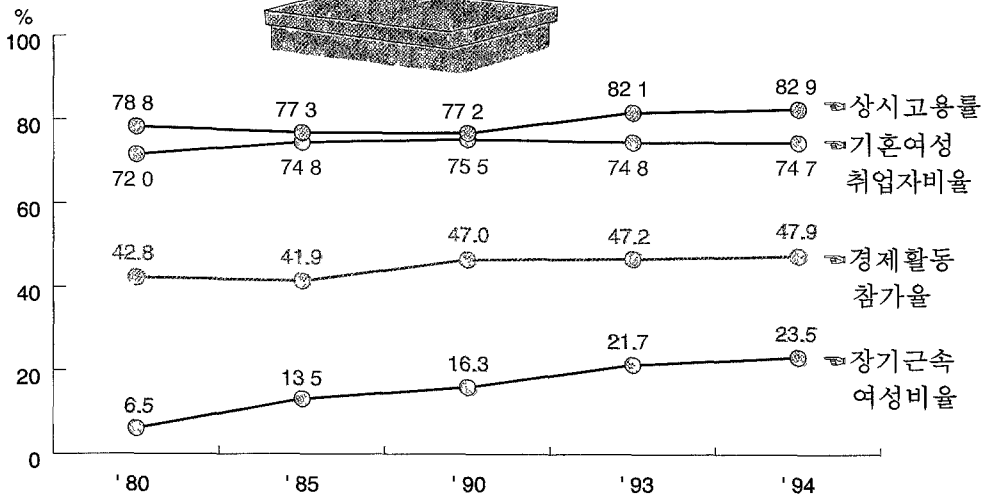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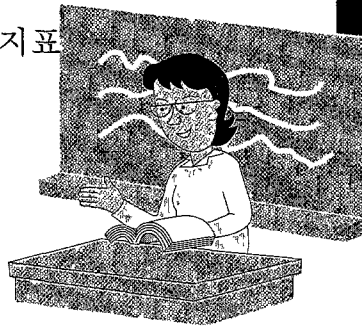
離婚事由別 構成比



여 백

'95년 한국의 사회지표

여성관련 노동지표



출산율의 감소, 여성의 고학력화, 사회인식의 변화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여성관련노동지표, 즉 경제활동참가율, 임금근로자 비율인
 피고용률, 상시고용률, 기혼여성취업자비율, 5년이상 근무한
 장기근속여성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1995년도
한국의 사회지표

1996. 1

통계조사국 사회통계과

I. 한국의 사회지표 개요

1. 사회지표의 개념

- 사회지표란 역사적 흐름속에서 우리가 처해있는 사회적 상태를 총체적이고 집약적으로 나타냄으로써 국민생활의 전반적인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임

2. 작성목적

- 국민생활의 양적인 측면은 물론 질적인 측면에서 복지정도를 파악
- 현 사회상태를 종합적·체계적·균형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의 역할
- 사회구조 변화나 관심분야를 파악하여 각종 사회개발 정책의 계획수립이나 정책결정 및 효과측정에 유용한 기초자료제공

3. 연 혁

- 1979년 : 최초로 8개부문 128개지표 공표
- 1987년 : 9개부문 224개지표 공표
- 1995년 : 290개지표 공표

4. 지표체계

한국의 사회지표는 인구, 소득·소비, 고용·노사, 교육, 보건, 주택·환경, 사회, 문화·여가, 공간의 9개부문으로 구성되어있음

< '95년 한국의 사회지표 수록현황 >

	계	인구	소득 소비	고용 노사	교육	보건	주택 환경	사회	문화 여가	공간	국제 비교
작성지표수	290	23	14	50	40	29	51	27	28	28	29

5. 작성방법

25개 통계기관에서 작성한 42종의 기존 통계자료를 재분류하거나 가공하여 지표를 작성하고 주관적 의식이나 사회적 관심사에 대하여는 직접 사회통계 조사를 통해 자료수집

II. '95 한국의 사회지표 요약

인 구

- 인구증가율이 1%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남아선호에 따른 셋째아의 출산등으로 최근 출생률이 약간 증가하고 있음
- 14세이하 유년인구의 비중은 80년대 이후의 출산력 감소로 크게 줄어들었고, 또한 65세이상 노령인구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소폭 늘어남으로써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가 노령인구와 유년인구를 부양할 경제적 부담을 나타내는 부양비는 계속 감소
- 최근 노동력부족에 따른 외국인력의 도입과 외국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 입국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활발한 대외경제협력에 따른 상용출장, 소득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외국관광과 해외유학의 증가로 내국인 출국자가 급증함으로써
 - 외국인 입국자수와 내국인 출국자수의 비율이 '94년 처음으로 100을 초과

	'80	'85	'90	'93	'94
출생률(천명당)	22.7	16.2	15.3	16.5	16.5
부 양 비 (%)	60.7	52.5	44.6	41.5	40.6
내국인출국 對 외국인입국 (%)	74.9	61.3	85.8	99.4	112.0

소득·소비

-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1인당 GNP는 '94년에 8,483달러로 증가하였으며 '95년에는 1만불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 '94년에 조세부담률은 20%에 근접하게 되었으며 국민저축률은 35.2%, 피용자 보수비율은 60.4%를 기록

	'80	'85	'90	'93	'94
1인당 GNP (달러)	1,597	2,242	5,883	7,513	8,483
조 세 부 담 률 (%)	17.8	17.1	18.6	18.9	19.6
국 민 저 축 률 (%)	23.2	29.8	35.9	35.2	35.2
피용자보수비율 (%)	52.1	53.9	59.0	60.4	60.4

- 경제성장에 따라 가구의 연간소득은 '88년 8,863천원에서 '93년에 18,822천원으로 연평균 16.3% 증가하였고
 - 시부소득에 대한 군부소득의 비중이 '88년 79.1%에서 '93년 81.4%로 증가함으로써 시군부별 소득격차가 감소하였음
 - 가구소득의 소득원천별 비중은 사업소득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 근로소득의 비중은 임금근로자의 비중증가와 꾸준한 임금상승으로 늘어났고
 - 재산및 이전소득의 비중도 부동산및 금융자산의 축적등에 따라 증가하였음
 - 아울러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가구소득의 비중을 보면 임금근로자의 가구소득을 100으로 하였을 경우 고용주 가구소득의 비중이 '88년 224.2에서 '93년 171.6으로 감소하여 취업형태별 소득격차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가구 연간 소득(천원)	군부소득비중 (시부=100)	원천별 비중 (%)			고용주소득비중 (임금근로자=100)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88	8,863	79.1	51.3	39.9	8.8	224.2
'93	18,822	81.4	54.2	36.6	9.2	171.6

- 한편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감소하였고, 10분위분배율이 증가함으로써 소득분배구조는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음
 - 다만 시군부별 소득분배에 있어서 군부지역의 지니계수가 상승하였는데 이는 군부지역에 있어서 비농림어업으로의 산업구조변화, 젊은층가구와 노령층가구의 소득격차, 전업농가와 겸업 농가간의 소득격차, 자동차 보급에 따른 도시민의 전원지역으로의 거주지 변경등이 그 원인인 것으로 판단됨

	전 국	지니계수		전 국	10분위 분배율	
		시 부	군 부		시 부	군 부
'88	0.3355	0.3496	0.2895	0.4659	0.4378	0.5696
'93	0.3097	0.3063	0.3101	0.5197	0.5288	0.5175

고용·노사

- 노동력인구가 '94년에 2천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경기호황의 지속으로 실업률은 감소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하고 있음
 - 한편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반영하여 전체산업중 농림어업취업자의 비중이 매우 낮아져 머지 않아 10%미만으로 하락할 것이 예상되고 있음
 - 또한 소득수준의 향상,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토요일휴무제의 확산등으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음

	'80	'85	'90	'93	'94
경제활동인구(천명)	14,431	15,592	18,539	19,803	20,326
경 활 참 가 율 (%)	59.0	56.6	60.0	61.1	61.7
실 업 륜 (%)	5.2	4.0	2.4	2.8	2.4
농림어업 취업자 구 성 비 (%)	34.0	24.9	17.9	14.7	13.6
제 조 업 주 당 근 로 시 간	53.1	53.8	49.8	48.9	48.7

○ 경제·사회·인구학적 요인등에 따라 노동력은 여성화, 고령화, 고학력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

- 출산율의 감소, 여성의 고학력화, 사회인식의 변화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여성관련 노동지표, 즉 경제활동참가율, 임금근로자 비율인 피고용률, 상시 고용률, 기혼여성 취업자비율, 5년이상 근무한 장기근속 여성비율이 크게 늘어났음

- 다만, 선진국에 비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아직 낮은편이고

· 또한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지만, 대졸이상 학력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고학력 여성의 실업문제가 부각되고 있음

< 여성관련 노동지표 (%) >

	'80	'85	'90	'93	'94
경제활동참가율	42.8	41.9	47.0	47.2	47.9
피 고 용 륜	39.2	48.2	56.8	57.4	58.7
상 시 고 용 륜	78.8	77.3	77.2	82.1	82.9
기 혼 여 성 취 업 자 비 율	72.0	74.8	75.5	74.8	74.7
장 기 근 속 여 성 비 율	6.5	13.5	16.3	21.7	23.5
실 업 륜 (대 졸 이 상)	3.5 9.2	2.4 10.1	1.8 5.3	2.2 4.7	1.9 4.2

- 한편 55세이상 고령 취업자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평균수명의 연장, 노인가구의 증가등에 따라 노동력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 특히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으로 농림어업의 고령취업자비율이 매우 높음

	'80	'85	'90	'93	'94
고령취업자비율	10.8	11.3	13.6	14.4	14.9
(농림어업)	21.2	26.1	39.2	47.2	49.3

○ 한편 교육정도별 및 성별 임금격차는 점차 축소되고 있고, 최근 근로자들이 임금인상을 위한 노조활동보다는 고용안정이나 복지후생의 근로조건 개선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됨에 따라 노조조직률은 계속 감소 추세에 있음

	'80	'85	'90	'93	'94
대졸이상임금지수 (고졸임금=100)	228.5	226.5	185.5	161.3	155.7
여성 임금지수 (남자=100)	42.9	46.7	53.4	54.6	56.8
노조조직률(%)	20.1	15.7	21.5	17.2	16.3

교 육

○ 80년대이후 출생률 감소에 따라 학생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 및 교원수는 늘어나 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교육 여건이 개선되고 있음

- 또한 여성의 사회활동참여 증가에 따라

· 여교사의 비율이 늘어나 교직의 여성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
· 또한 유치원 취원율도 크게 증가하였음

	'80	'85	'90	'94	'95
총학생수(천명)	10,568	11,152	11,007	10,501	10,494
국 민 학 교					
· 교사 1인당 학 생 수	47.5	38.2	35.5	29.5	28.3
· 학급당학생수	51.5	44.7	41.4	37.7	36.4
· 여교사 비율	36.8	43.1	50.1	54.5	55.6
유치원 취원율	4.1	18.9	31.4	38.7	40.1

○ 졸업생의 진학률 및 취업률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생의 전문대이상 대학진학률이 '95년에 50%이상을 기록하였고

- 취업률은 학교 급별에 관계없이 증가하고 있으나 80년대 후반이후 대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이 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보다 낮은 경향이 지속되고 있어 고학력자의 유희노동력화가 우려됨

	'80	'85	'90	'94	'95
고 등 학 생 의 전 문 대 이 상 대 학 진 학 륜	27.2	36.4	33.2	45.3	51.4
졸업생 취업률					
· 대 학 교	65.0	45.7	52.2	54.7	59.3
· 전 문 대 학	40.8	44.2	58.6	61.4	66.7
· 고 등 학 교	37.7	41.7	50.7	62.9	69.1

○ 한편 중앙정부예산중 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늘어나고는 있으나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으로 향후 더욱 많은 정부의 교육투자가 요구됨

- GNP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93년에 2.33%를 기록하였음

	'80	'85	'90	'94	'95
중앙정부예산중 교육 예산 비율	18.9	20.3	22.3	22.9	22.8
G N P 대 비 연구 개발 비	0.77	1.56	1.88	2.09 ('92)	2.33 ('93)

보 건

○ 평균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보건, 의료,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된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

- 60살에 정년 퇴직할 경우 퇴직후 남자는 15.5년, 여자는 20.1년 정도 더 살 수 있어 노령인구 대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 평 균 수 명 >

	'83	'85	'89	'91
남 자	63.8	64.9	66.7	67.7
여 자	72.2	73.3	74.9	75.7

- 국민 식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국민 1인당 1일 평균열량, 특히 동물성 단백질 공급량이 크게 증가하였음
 - 품목별로 보면 쌀소비량은 줄어드는 반면,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소비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음
- 단백질등 영양섭취 증가로 청소년의 신장, 체중 등 체격은 크게 향상되고 있음
- 의료보험대상 및 기간의 연장으로 환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의사인력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의사 1인당 인구, 병상당 인구수는 감소하여 의료혜택이 늘어나고 있음
- 가족계획실천율은 인구억제정책으로 계속 증가하여 오다가 90년대 들어 감소하고 있으며
 - 피임 실천율의 증가와少자녀관에 의한 단산으로 유배우 부인의 가임기간중 인공유산율은 감소하였음

	'80	'85	'90	'93	'94
1일 1인당 평균 열량 (kcal)	2,485	2,687	2,853	2,863	-
1일 1인 동물성 단백질공급량(g)	20.1	28.5	33.2	34.8	-
1인 1일 쇠고기 소비량 (g)	7.1	7.9	11.3	14.5	16.7
13세남자신장(cm)	150.4	154.1	157.0	158.6	159.1
의사1인당인구(명)	1,690	1,379	1,007	855	817
병상당인구(명)	1,001	549	429	349	315

주택·환경

-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의 소득상승으로 주거공간이 확대되고 있음.
 - 주택공급이 확대되고 있으며 GNP대비 주택투자율도 80년대 4~5%대 수준에서 90년이후는 8%대로 증가하였고 최근에는 7%대를 유지하고 있음

	'80	'85	'90	'93	'94
주택 공급 (천호)	212	227	750	695	623
GNP 대비 주택 투자율(%)	5.9	4.4	8.2	8.6	7.7

- 아울러 90년대에 들어 주택 및 아파트 가격이 안정됨으로써 국민의 공간적 삶의 질은 어느정도 개선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90	'91	'92	'93	'94
주택매매가격지수 (90.12=100)	93.5	103.3	96.5	93.2	91.7

- 승용차 보급의 확대로 '94년에 승용차대수가 5백만대를 돌파하여 승용차 1대당 인구수는 대폭 감소하였으며, 도로포장률은 지방도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다만 도로와 승용차와의 관계를 보면 '88~'94년기간중 도로는 1.3배 증가한 반면, 승용차수는 4.6배로 대폭 증가함으로써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음

	'80	'85	'90	'93	'94
승용차대수(천대)	249	557	2,075	4,271	5,149
승용차 1대당 인구수(명)	153.0	73.3	20.7	10.3	8.6
도로포장률(%)	33.2	49.9	71.5	84.7	77.8

- 또한 최근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 추세가 국민의 삶의 질에도 반영되어 이동전화, 무선호출, PC통신의 보급이 크게 두드러짐으로써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정보획득과 여가활용등 생활패턴이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음

- 특히 90년이후 이동전화 및 무선호출가입자수는 매년 배정도로 증가

< 인구 천명당 가입자수 >

	'85	'90	'91	'92	'93	'94
이동전화	0.1	1.9	3.8	6.2	10.7	21.6
무선호출	0.5	9.7	19.7	33.3	60.1	143.1
P C 통신	-	1.3	3.7	7.4	9.9	13.0

- 환경지표인 대기, 수질, 해수의 오염도는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문으로 보임

- 주요도시의 SO₂ 오염도는 저황연료유의 공급 및 LNG 사용 의무화등으로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임

- 4대강의 수질오염도는 90년대에 들어 특히 상류의 경우 영산강이 나빠졌고 하류는 낙동강이 크게 나빠졌음

- 해수오염도는 해양유류오염사고등으로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나빠지고 있음

	'90	'91	'92	'93	'94
서울SO ₂ 오염도(ppm)	0.051	0.043	0.035	0.023	0.019
영산강상류 BOD	1.2	1.1	1.4	1.4	2.0
낙동강하류 BOD	3.1	3.9	3.8	3.4	5.7

사회 및 문화여가

-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및 복지부문 세출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중앙정부세출에서의 비중이 10%에 근접하고 있고 GNP대비 비중도 '94년에 2.0%에 도달하고 있으나
 -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저조한 수준에 있고, 또한 이들 부문 지출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이를 충족하기 위해 대폭적인 투자확충이 요구되고 있음
 - 특히 저소득계층인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확충, 양로 및 장애인시설에 대한 투자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함

〈 중앙정부 사회보장 및 복지부문 세출지표 〉

	'80	'85	'90	'93	'94
세출예산(십억원)	437.9	779.0	2691.2	4576.8	5931.7
중앙정부 세출대비 (%)	5.7	5.0	8.1	9.3	9.9
GNP 대비	1.2	1.0	1.5	1.7	2.0

- 도서발행에 있어서는 기술과학, 어학분야, 아동도서의 발행부수가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고
 - 공공도서관수, 좌석 및 장서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도시공원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1인당 도시공원면적은 종래에 계속 증가하다 최근에 약간 감소하고 있음
 - 지역별로 보면 지방중소도시의 1인당 도시공원면적이 수도권 및 대도시보다 높게 나타나 도심 휴식처로서 쾌락한 공간적인 삶의 여유는 지방중소 도시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공 안

- 10만명당 범죄총건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10만명당 형법범 범죄건수가 700건 전후로 거의 일정한 반면, 사회현상의 복잡 다원화로 특히 특별법범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임
 - 형법범중 주요범죄 추이를 보면 재산범인 절도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강도, 폭행·상해, 살인, 강간은 증가하였음

	'80	'85	'90	'93	'94
10만명당 범죄총건수	1,561	1,986	2,732	3,080	3,090
(형 법 범)	800	666	560	652	732
(특 별 법 범)	761	1,320	2,172	2,428	2,358

○ 소년과 여성의 범죄비율을 보면

- 소년의 형법범 범죄비율은 감소하고 있고 유형별로 보아 재산범인 절도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강간, 살인, 폭행·상해는 감소하고 있음
- 여성범죄비율은 유형에 관계없이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80	'85	'90	'93	'94
형법범소년범죄비율	12.3	14.4	12.4	8.0	8.5
(절도)	42.5	45.2	47.4	47.9	53.0
(폭행·상해)	7.3	11.2	4.5	3.3	3.4

○ 자동차사고 발생건수는 '80-'94년기간 중 3.2배 증가하였고, 사망자수는 동기간중 1.8배 증가하였음

- 또한 자동차 만대당 사망자수는 '80년 106명에서 '94년 14명으로 감소
 - 이는 승용차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사고발생은 늘어나지만 최근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 국민의 교통사고에 대한 점진적 인식변화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외국의 자동차 사고 사망률을 보면 자동차 만대당 사망자수는 모로코가 31.9명, 중국이 27.2명이며,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는 포르투갈이 24.9명으로 높게 나타났음

	'80	'85	'90	'93	'94
자동차 만대당 사망자수	106	68	36	17	14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14.7	18.3	28.8	23.6	22.7

Ⅲ. '95년 한국의 사회지표 세부내용

1. 인 구

가. 인구규모 및 증가율

○ 1995년 7월 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인구는 44,851천명 임

- 출생률은 인구 천명당 '94년에 16.5로 '80년 22.7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는 가족계획사업에 의한 인구정책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기인한 것임
- 다만 최근들어 출생률이 약간 증가하고 있는데 주원인은 남아선호에 의한 셋째아의 출산영향등에 기인함
- 사망률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구 천명당 '80년 7.3에서 '94년 5.5로 감소했음
- 이에따라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자연인구증가율은 인구천명당 '80년의 15.4에서 '94년 11.0으로 감소하였음

(단위 : 천명당)

연 도	총인구(천명)	출 생 률	사 망 률	자연증가율
1980	38,124	22.7	7.3	15.4
1985	40,806	16.2	6.0	10.2
1990	42,869	15.3	5.7	9.5
1993	44,056	16.5	5.4	11.1
1994	44,453	16.5	5.5	11.0
1995	44,851	-	-	-

자료: 통계청 「'94 인구동태통계연보」, 「추계인구」

산식: 출생률=(연간출생아수/총인구)*1000, 사망률=(연간사망자수/총인구)*1000

나. 인구 구조

○ 낮은 출생률의 지속과 평균수명의 상승으로

- 유년(0~14세) 인구의 비중은 '80년 34.0%에서 '95년 23.2%로 10.8%포인트 감소한 반면
- 노령(65세이상) 인구의 비중은 '80년 3.8%에서 '95년 5.7%로 1.9%포인트 증가하였고
- 생산연령(15~64세) 인구의 비중은 '80년 62.2%에서 '95년 71.1%로 8.9%포인트 증가하였음.

○ 유년부양비는 '80년 54.6%에서 '95년 32.6%로 크게 감소하였고, 또한 노년부양비는 '80년 6.1%에서 '94년 8.0%로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하였음.

- 이에따라 총부양비는 '80년 60.7%에서 '95년 40.6%로 크게 감소하였음
(단위 : 천명, %)

연도	총인구	0~14세인구		15~64세인구		65세이상인구		부 양 비		
			%		%		%	계	유년	노년
1980	38,124	12,951	34.0	23,717	62.2	1,456	3.8	60.7	54.6	6.1
1985	40,806	12,305	30.2	26,759	65.6	1,742	4.3	52.5	46.0	6.5
1990	42,869	11,077	25.8	29,648	69.2	2,144	5.0	44.6	37.4	7.2
1995	44,851	10,400	23.2	31,908	71.1	2,543	5.7	40.6	32.6	8.0

산식 : 유년부양비 = (0~14세인구/15~64세인구)*100

노년부양비 = (65세이상인구/15~64세인구)*100

총부양비 = 유년부양비 + 노년부양비

자료 : 통계청 「추계인구」

○ 우리나라의 총부양비는 미국, 프랑스등 선진국에 비해서 낮음.

- 이는 우리나라의 유년부양비가 선진국에 비하여 별로 높지 않은 반면, 노년부양비는 10%포인트 정도 낮기 때문임.

(단위 : %)

	연 도	총부양비		
		유년부양비	노년부양비	
한 국	1990	44.6	37.4	7.2
	1995	40.6	32.6	8.0
인 도	1991	66.9	60.1	6.8
	1991	56.1	49.9	12.4
프 랑 스	1991	52.1	30.4	21.6
	1990	51.9	32.9	19.0
미 일	1990	43.4	26.1	17.3
	1990	41.4	32.9	8.5

자료 : UN, 「인구통계연감」

다. 내외국인 출입국 현황

- '94년도 내외국인 출입국자는 14,205천명으로 '80년 3,311천명 보다 무려 4.3배 늘었는데, 이는 '80년대 후반 이후 외국과의 인적교류가 급격히 증가한데 기인함.
- 외국인 입국자는 올림픽 개최등으로 인해 '88년에 인구천명당 50명을 넘어 선 후 '94년 현재는 인구 천명당 75.9명으로 나타났는데,
 - 특히 인구 천명당 외국인 입국자가 '94년에 75.9명으로서 '93년 70.2명에 비해 5.7명이나 크게 증가한 것은 노동력 부족에 따른 외국인력의 도입과 한국방문의 해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내국인 출국자는 해외여행의 자율화 조치등으로 '90년에 인구 천명당 50명을 초과한 이후 '94년에 85.0명으로 급증.
- '94년에는 외국인 입국자수와 내국인 출국자수의 비율이 112.0으로 처음으로 100을 초과하였음.
 - 이는 소득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외국관광과 해외유학의 증가, 활발한 경제교류와 국제적 행사참가 등으로 내국인 출국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단위 : 천명, 명, %)

연도	출국자총수	출국자	내국인 (A)		입국자	외국인 (B)		(A/B) *100
			인 구	인 구		인 구	인 구	
				1000명당			1000명당	
1980	3,311	1,695	726	19.0	1,616	969	25.4	74.9
1985	4,641	2,328	886	21.7	2,313	1,446	35.4	61.3
1988	7,122	3,583	1,414	33.6	3,539	2,172	51.7	65.1
1990	10,059	5,052	2,333	54.4	5,007	2,720	63.4	85.8
1993	12,288	6,163	3,074	69.8	6,125	3,092	70.2	99.4
1994	14,205	7,110	3,778	85.0	7,095	3,374	75.9	112.0

자료 : 법무부 「출입국관리통계연보」

2. 소득·소비

가. 국민총생산, 조세부담률 및 국민저축률

- '94년 국민총생산(GNP)은 경상가격으로 '80년 36조원, 610억달러에서 '94년 302조원 3770억달러로 증가
 - 1인당 GNP는 '80년 1,597달러에서 '94년 8,483달러로 증가
- 국민총생산액중 조세부담액의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80년 17.8%에서 '94년 19.6%로 증가하였고, 국민총가처분소득중 국민저축 비율인 국민저축률은 '80년 23.2%에서 '94년 35.2%로 증가
 - 요소비용 국민소득중에서 노동에 지불되는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인 피용자 보수 비율은 '80년 52.1%에서 '94년 60.4%로 증가

연 도	G N P(경상)		1인당 GNP(경상)		조 세 부담률 (%)	국 민 저축률 (%)	피 용 자 보수비율 (%)
	10억원	10억 \$	천 원	\$			
1980	36,857	61	971	1,597	17.8	23.2	52.1
1985	79,301	91	1,952	2,242	17.1	29.8	53.9
1990	178,262	252	4,165	5,883	18.6	35.9	59.0
1993	265,518	331	6,031	7,513	18.9	35.2	60.4
1994	302,867	377	6,817	8,483	19.6	35.2	60.4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한국주요경제지표」

- 선진국에 비해 조세부담률과 피용자 보수비율은 낮은 수준이며 국민저축률은 높은 수준임

<표> 국민총생산, 조세부담률 국제비교

국 가 명	국민총생산 ¹⁾ (10억US\$)	1인당 GNP ¹⁾ (\$)	조세부담률 ²⁾ (%)	국민저축률 ²⁾ (%)	피 용 자 ²⁾ 보수비율(%)
한 국	331	7,513	18.7	34.9	61.0
일 본	4,230	33,902	19.8	33.8	74.1
미 국	6,348	24,592	20.6	14.9	74.2
프 랑 스	1,241	21,521	24.2	19.9	59.7
캐 나 다	534	18,451	30.5	14.1	75.7

자료: IMF, 「국제금융통계」, OECD, 「Quarterly Labour Accounts」

주: 1)1993 2)1992

나. 가구당 연간소득 규모

- 전국 가구당 연간소득은 '93년 18,822천원으로 '88년 8,863천원에 비해 연평균 16.3% 증가하였음
- '93년 가구소득을 시·군부 지역별로 보면 시부소득은 19,679천원, 군부소득은 16,026천원으로 나타났음
 - 시부소득 대비 군부소득 비중을 보면 '88년 79.1%에서 '93년 81.4%로 2.3%p 증가하여 시·군부간 소득격차가 감소하였음

<표> 가구당 연간소득

(단위 : 천원, %)

	'88년	'93년	연평균증가율
○ 가구당 연간소득	8,863	18,822	16.3
○ 시부소득	9,515(100.0)	19,679(100.0)	15.6
- 근로자가구소득	8,488	18,256	16.6
○ 군부소득	7,529(79.1)	16,026(81.4)	16.3
○ 가구당 연간소득(실질)	10,176	15,466	8.7
<참 고>			
○ 도시근로자가구소득	7,760	17,734	18.0
○ 1인당GNP(US\$)	3,138(4,295)	6,031(7,513)	14.0
○ 1인당GNP(실질)	3,636	4,915	6.2
○ 임금	5,352	11,736	17.0
○ 임금(실질)	6,144	9,643	9.4

※ 가구당 연간소득(실질)과 임금(실질)은 소비자물가지수, 1인당GNP(실질)은 GNP디플레이터로 계산하였으며, 임금은 매월노동통계조사 결과임

다.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규모

- '93년 가구소득을 소득원천별로 보면 근로소득 10,202천원, 사업소득 6,884천원, 재산 및 이전소득 1,736천원으로 나타났음
- '93년 가구소득의 원천별 내역을 시·군부 지역별로 보면, 시부의 경우 근로소득 11,489천원, 사업소득 6,695천원, 재산 및 이전소득 1,495천원으로 나타난 반면 군부의 경우 사업소득 7,503천원, 근로소득 6,002천원, 재산 및 이전소득 2,521천원의 순서로 나타났음

군부지역에 있어서 사업소득이 높은 것은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많아 농업소득(즉, 사업소득)이 많기 때문임

○ 소득원천별 비중을 보면 사업소득의 비중은 '88년 39.9%에서 '93년 36.6%로 3.3%p 감소한 반면 근로소득은 51.3%에서 54.2%로 2.9%p 증가하였고, 재산 및 이전소득도 8.8%에서 9.2%로 0.4%p 증가하였음

- 이와같이 근로소득 비중이 늘어난 것은 임금근로자의 비중 증가와 '80년대후반이후의 높은 임금상승에 기인한 것이며, 재산 및 이전소득 비중이 늘어난 것은 축적된 부동산, 금융자산 등으로 부터의 소득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됨

※ 국민계정상 분배구조를 보면 요소비용 국민소득중 노동에 지불되는 피용자 보수비율이 '88년 54.7%에서 '93년 60.4%로 증가

○ 소득원천별 비중을 시·군부 지역별로 보면

○ 시부의 경우 근로소득의 비중은 '88년과 '93년에 차이가 없으나 사업소득비중은 '88년 34.9%에서 '93년 34.0%로 0.9%p 감소한 반면, 재산 및 이전소득은 6.7%에서 7.6%로 0.9%p 증가하였음

○ 군부의 경우 사업소득 비중은 '88년 52.8%에서 '93년 46.8%로 6.0%p나 크게 감소한 반면, 근로소득은 동기간중 32.9%에서 37.5%로 4.6%p 증가하였고, 재산 및 이전소득도 14.3%에서 15.7%로 1.4%p 증가하였음

- 이와같이 군부지역에 있어서 사업소득의 비중이 감소하고 근로소득의 비중이 증가한 것은 군부지역의 도시화와 산업화로 농림어업종사자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겸업농가의 농외소득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농가가구수는 '88년 1,826,344가구에서 '93년 1,592,478가구로 12.8%감소하였음 (농림수산부)

- 재산 및 이전소득의 비중에 있어서 군부지역이 시부지역보다 높은 것은 군부지역에 비교적 노령층이 많아 자녀등으로부터의 수증보조금과 같은 이전소득이 많기 때문임

※ 군부의 가구주가 60세이상 노령자 가구(비중)는 '85년 270천가구(8.3%)에서 '90년 374천가구(12.9%)로 38.5% 증가하였음('9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 가구소득의 원천별 내역 및 비중

(단위 : 천원, %)

	'88년				'93년			
	평균 소득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및 이전소득	평균 소득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및 이전소득
전국	8,863	4,545	3,535	783	18,822	10,202	6,884	1,736
시부	9,515	5,559	3,320	637	19,679	11,489	6,695	1,495
군부	7,529	2,474	3,974	1,081	16,026	6,002	7,503	2,521
전국	100.0	51.3	39.9	8.8	100.0	54.2	36.6	9.2
시부	100.0	58.4	34.9	6.7	100.0	58.4	34.0	7.6
군부	100.0	32.9	52.8	14.3	100.0	37.5	46.8	15.7

라.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가구소득

- '93년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가구소득은 '88년과 같이 고용주가구 30,665천원, 자영자가구 18,643천원, 임금근로자가구 17,871천원 순위로 나타났음
- 가구소득을 가구주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93년 고용주 가구소득은 '88년과 같이 가장 높지만 임금근로자 및 자영자 가구소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종사상지위별 가구소득 격차는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그 동안의 경제성장에 따라 고용 기회가 확대되고 임금이 상승된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됨
- 임금근로자의 소득 대비 종사상지위별 가구소득 비중을 시·군부 지역별로 보면 시부의 경우 고용주 가구소득이 227.2%에서 171.1%로 56.1%p나 감소되었고
 - 군부의 경우 고용주 가구소득이 169.2%에서 160.2%로 9.0%p 감소하여 고용주와 임금근로자가구간의 소득 격차 완화는 시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표〉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가구소득 및 임금근로자 대비 가구소득 비중

(단위: 천원, %)

		평 균	고 용 주	자 영 자	임금근로자	무 직
'88년	전 국	8,863	18,354	8,358	8,187	4,838
	시 부 군 부	9,515	19,282	9,209	8,488	5,304
		7,529	11,416	7,948	6,747	3,070
	전 국	108.3	224.2	102.1	100.0	59.1
시 부 군 부	112.1	227.2	108.5	100.0	62.5	
	111.6	169.2	117.8	100.0	45.5	
'93년	전 국	18,822	30,665	18,643	17,871	9,842
	시 부 군 부	19,679	31,241	20,541	18,256	10,740
		16,026	24,729	16,691	15,433	6,370
	전 국	105.3	171.6	104.3	100.0	55.1
시 부 군 부	107.8	171.1	112.5	100.0	58.8	
	103.8	160.2	108.2	100.0	41.3	
'93/'88	전 국	2.12	1.67	2.23	2.18	2.03

다. 소득10분위별 평균가구소득

- 소득10분위별 평균가구소득은 최하위소득계층인 1분위계층의 가구소득이 '88년에 2,482천원에서 '93년 5,174천원으로 2.08배 증가하였고, 최상위소득계층인 10분위계층의 가구소득은 '88년 24,363천원에서 '93년 45,630천원으로 1.87배 증가하였음

<표> 소득10분위별 평균가구소득

(단위 : 천원, 배)

	전 국			시 부			군 부		
	'88	'93	'93/'88	'88	'93	'93/'88	'88	'93	'93/'88
1 분위	2,482	5,174	2.08	2,659	5,704	2.15	2,184	3,946	1.81
2 분위	4,079	8,879	2.18	4,254	9,447	2.22	3,762	7,381	1.96
3 분위	5,020	11,200	2.23	5,225	11,812	2.26	4,646	9,526	2.05
4 분위	5,900	13,179	2.23	6,114	13,859	2.27	5,477	11,287	2.06
5 분위	6,767	15,215	2.25	7,024	15,893	2.26	6,312	13,063	2.07
6 분위	7,704	17,439	2.26	8,027	18,119	2.26	7,144	15,085	2.11
7 분위	8,901	19,895	2.24	9,347	20,649	2.21	8,098	17,441	2.15
8 분위	10,465	23,287	2.23	11,070	24,091	2.18	9,393	20,391	2.17
9 분위	12,945	28,310	2.19	13,834	29,379	2.12	11,281	24,845	2.20
10 분위	24,363	45,630	1.87	27,595	47,830	1.73	16,991	37,247	2.19

※ 전가구를 최저소득가구부터 최고소득가구까지 순서대로 나열 10등분하여 하위 계층을 1분위로 해서 각분위소득을 각분위가구수로 나누어 나타낸 것

바. 소득집중도

-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88년 0.3355에서 '93년 0.3097로 낮아졌으며 하위40% 소득계층과 상위20%소득계층간의 소득점유율 비율인 10분위분배율은 '88년 0.4659에서 '93년 0.5197로 높아짐으로써 소득분배구조가 개선되었음을 보여줌
- 시·군부 지역별로 소득분배를 보면 시부의 경우 지니계수가 감소하여 소득분배가 개선된 반면 군부의 경우 지니계수가 약간 증가하였음
 - 군부지역의 지니계수가 증가한 것은 군부지역이 비농림어업으로의 산업구조 변화, 젊은층가구와 노령층가구의 소득격차, 전업농가와 겸업농가간의 소득격차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급에 따라 군부로의 거주지 변경등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됨

※ 겸업농가 비중은 '94년 40.2%임 (농림수산부)

<표> 각 분위별 소득 비중

(단위 : %)

	국		시		군	
	'88	'93	'88	'93	'88	'93
1 분위	2.81	2.75	2.80	2.90	2.93	2.46
2 분위	4.58	4.72	4.46	4.80	4.99	4.61
3 분위	5.65	5.95	5.47	6.01	6.19	5.94
4 분위	6.64	7.00	6.39	7.04	7.28	7.05
5 분위	7.60	8.08	7.35	8.07	8.38	8.16
6 분위	8.67	9.27	8.43	9.20	9.47	9.41
7 분위	10.01	10.57	9.79	10.49	10.74	10.86
8 분위	11.80	12.37	11.64	12.25	12.47	12.76
9 분위	14.62	15.04	14.58	14.93	14.99	15.48
10 분위	27.62	24.25	29.09	24.31	22.56	23.28
지니계수	0.3355	0.3097	0.3496	0.3063	0.2895	0.3101
10분위 분배율	0.4659	0.5197	0.4378	0.5288	0.5696	0.5175

※ 지니계수란 소득분배곡선(로렌츠곡선)에 의한 소득불평등면적을 계수화한 것으로 완전평등일때 0, 완전불평등일때는 1로 수치화 한 지표임

※ 소득10분위분배율이란 소득10분위별로 등분된 소득분포자료에서 하위 40% 소득계층이 점유하는 소득비율을 상위 20% 소득계층이 점유하는 소득비율로 나누어서 계산한 지표임

3. 고용·노사

가. 노동력 수급 및 실업률

- 생산가능한 인구인 15세이상 인구는 '80년 24,463천명에서 '94년 32,939천명으로 증가하였으며
- 경제활동인구는 '80년 14,431천명에서 '94년 처음으로 2천만을 돌파하여 20,326천명으로 증가하였고 경제활동참가율도 '80년 59.0%에서 '94년 61.7%로 2.7%p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80년의 5.2%에서 '94년 2.4%로 낮아졌음

(단위 : 천명, %)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참가율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비경제활동 인구
1980	24,463	14,431	59.0	13,683	748	5.2	10,032
1985	27,553	15,592	56.6	14,970	622	4.0	11,961
1990	30,887	18,539	60.0	18,085	454	2.4	12,348
1993	32,400	19,803	61.1	19,253	550	2.8	12,597
1994	32,939	20,326	61.7	19,837	489	2.4	12,61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나. 산업별 취업구조

-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반영하여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은 '80년 34.0%에서 '94년에는 13.6%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제조업은 21.6%에서 23.7%로 소폭 증가하였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분야 종사자도 43.5%에서 62.5%로 증가하였음
- 다만 제조업 취업자의 비중은 '89년 27.8%의 정점에 도달한 이후 경제의 서비스화, 산업구조의 조정 등에 따라 감소추세로 전환, '94년에 23.7%를 나타냄

(단위 : %)

	계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제조업	
1980	100.0	34.0	22.5	21.6	43.5
1985	100.0	24.9	24.4	23.4	50.6
1990	100.0	17.9	27.6	27.2	54.5
1993	100.0	14.7	24.4	24.2	60.9
1994	100.0	13.6	23.9	23.7	62.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우리나라의 산업별 취업구조를 주요선진국과 비교해보면 농림어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제조업 취업자의 구성비는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나 독일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준임

< 주요국의 취업구조 >

(단위 : %)

나 라	연 도	농림어업	광 공 업	제 조 업	SOC 및 기타
한 국	1993	14.7	24.4	24.2	60.9
	1994	13.6	23.9	23.7	62.5
미 국	1993	2.7	16.9	16.4	80.3
	1993	5.9	23.8	23.7	70.2
독 일	1992	3.1	30.6	30.0	66.3
	1993	11.3	24.4	24.0	64.3

자료 : ILO, 「노동통계연감」

다. 근로시간

- 소득수준의 향상,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토요일무제의 확산등으로 평균 근로시간이 '80년 51.6시간에서 '94년 47.4시간으로 감소함

- 제조업에 있어서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80년 53.1시간에서 '94년 48.7시간으로 감소하였음

(단위 : 시간)

	평 균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사회및 개인 서비스업
1980	51.6	53.1	48.6	50.4	50.5	47.2
1985	51.9	53.8	50.0	49.0	50.0	46.6
1990	48.2	49.8	47.8	45.8	47.5	44.5
1993	47.5	48.9	48.0	46.6	46.5	44.7
1994	47.4	48.7	44.7	45.8	46.6	44.2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나 외국과 비교해 볼때 아직은 근로시간이 비교적 긴 나라에 속함

< 외국의 제조업 주당 평균 근로시간 >

(단위 : 시간)

	1989	1990	1991	1992	1993
한 국	50.7	49.8	49.3	48.7	48.9
싱가포르	48.6	48.5	48.7	48.7	49.2
홍콩	44.8	44.0	45.2	43.0	44.9
일본	41.4	40.8	40.0	38.8	37.7
미국	41.0	40.8	40.7	41.0	41.4
독일	40.4	40.7	40.9
멕시코	45.1	45.4	45.6	45.5	45.0

자료 : ILO, 「노동통계연감」

나. 여성관련 노동지표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

○ 출산율의 감소와 여성의 경제활동 증대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0년 42.8%에서 '94년 47.9%로 5.1%p 증가하였음

- 또한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100으로 본 성별 경제활동참가율비도 '80년 56.0에서 '94년 62.7%로 증가함

(단위 : %)

	경제활동 참가율	성별		성별경제활동 참가율비(B/A)
		남(A)	여(B)	
1980	59.0	76.4	42.8	56.0
1985	56.6	72.3	41.9	57.9
1990	60.0	74.0	47.0	63.5
1993	61.1	76.0	47.2	62.2
1994	61.7	76.4	47.9	62.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주요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주요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아직 50%미만으로 50%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편임

(단위 : %)

나 라	연 도	경제활동 참가율	성별	
			남	여
한 국	1993	61.1	76.0	47.2
	1994	61.7	76.4	47.9
미 국	1993	63.3	71.5	55.7
	1994	63.6	77.8	50.2
싱가포르	1993	64.5	79.1	50.6
덴마크	1993	68.2	74.6	62.0
스웨덴	1993	79.1	81.0	77.3

자료 : ILO, 「노동통계연감」

< 여성의 피고용률 및 상시고용률 >

- 취업자중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피고용률은 '80년 47.2%에서 '94년 62.0%로 증가함
 - 특히 여성의 피고용률은 '80년 39.2%에서 '87년 50%를 넘은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94년는 58.7%로 19.5%p가 증가하여 동기간중 남자의 피고용률 증가속도보다 빠르게 나타남
- 임금근로자 중에서 상용 및 임시고용자의 비율인 상시고용률은 '80년 79.9%에서 '94년 85.6%로 5.7%p 증가하고 있음
 - 여성의 상시고용률은 '80년 78.8%에서 '94년 82.9%로 4.1%p 증가하여 남성의 상시고용률 증가폭에 못미쳤음

(단위 : %)

	피고용률		상시고용률			
		남	여		남	여
1980	47.2	52.2	39.2	79.9	80.4	78.8
1985	54.1	58.0	48.2	82.8	85.8	77.3
1987	56.2	60.3	50.2	83.4	86.3	78.1
1990	60.5	63.1	56.8	83.2	86.9	77.2
1993	61.0	63.5	57.4	85.4	87.4	82.1
1994	62.0	64.2	58.7	85.6	87.3	82.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기혼여성 취업자 비율 >

- 전체 여성취업자중 기혼여성취업자의 비율인 기혼여성 취업자 비율은 사회인식의 변화, 핵가족화 등에 따라 '80년 72.0%에서 '94년 74.7%로 2.7%p 증가하였음
 - 특히 혼인상태가 유배우인 여성취업자의 비율은 동기간 중 59.0%에서 62.3%로 3.3%p 증가하였는데 이는 자녀교육비, 주택마련, 여유있는 삶을 위한 경제적인 필요성과 자아실현, 사회참여 등 심리적인 요인에 따라 맞벌이 주부가 늘어나는 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됨

(단위 : %)

	기혼여성 취업자	기혼여성 취업자			미혼여성 취업자
		유배우	사 별	이 혼	
1980	72.0	59.0	11.6	1.4	28.0
1985	74.8	61.7	11.6	1.5	25.2
1990	75.5	62.8	11.0	1.7	24.5
1993	74.8	62.5	10.4	1.8	25.2
1994	74.7	62.3	10.3	2.1	25.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장기근속 여성비율 >

○ 전체 여성취업자 중 한 기업체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장기근속 여성취업자 비율은 '80년 6.5%에서 '94년 23.5%로 17.0%p 증가하여 여성취업행태가 안정화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줌

- 근속년수별로 보면 5~9년 동안 근속한 비율이 동기간중 5.9%에서 17.4%로 11.5%p 증가하였고 10년이상 근무한 여성의 비율도 '80년 0.6%에서 '94년 6.1%로 5.9%p 증가하였음

(단위 · %)

	5년이상 근속여성 비율					5년이하 근속여성 비율
		5~9년	10~14년	15~19년	20년이상	
1980	6.5	5.9	0.4	0.1	0.1	93.5
1985	13.5	11.9	1.2	0.3	0.1	86.5
1990	16.3	13.1	2.5	0.5	0.2	83.7
1993	21.7	16.4	3.8	1.1	0.4	78.3
1994	23.5	17.4	4.1	1.3	0.6	76.5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 교육정도별 여성 실업률 >

○ 여성의 실업률은 '80년 3.5%에서 '94년 1.9%로 낮아졌고 특히 학력별로 보면 고졸 이하의 여성실업률이 크게 낮아졌음

- 한편 성별로 실업률을 비교해 보면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의 실업률보다는 낮은데 그 원인은 남성의 경우는 주력 노동력으로서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경제활동을 하려는 반면 여성은 경기부진 등으로 취업이 되지않을 경우 취업을 포기하고 노동시장을 이탈하기 때문임

- 다만 성별 교육정도별로 보면 대졸이상의 여성이 남성보다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 여성의 고학력 실업문제가 보다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단위 · %)

	계	전		국	
		국졸이하	중	졸	고
1980	5.2	2.7	6.3	9.3	6.2
1985	4.0	1.5	4.1	5.9	6.6
1990	2.4	0.7	1.8	3.4	4.4
1994	2.4	0.8	1.9	3.0	3.6
1980	3.5	1.4	4.2	10.7	9.2
1985	2.4	0.6	1.8	5.0	10.0
1990	1.8	0.3	1.1	3.1	5.3
1994	1.9	0.5	1.2	2.7	4.2
1980	6.2	3.9	7.4	8.8	5.6
1985	5.0	2.6	5.3	6.3	5.9
1990	2.9	1.2	2.3	3.5	4.1
1994	2.7	1.2	2.4	3.1	3.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장기근속 여성비율 >

- 전체 여성취업자 중 한 기업체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장기근속 여성취업자 비율은 '80년 6.5%에서 '94년 23.5%로 17.0%p 증가하여 여성취업행태가 안정화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줌
- 근속년수별로 보면 5~9년 동안 근속한 비율이 동기간중 5.9%에서 17.4%로 11.5%p 증가하였고 10년이상 근무한 여성의 비율도 '80년 0.6%에서 '94년 6.1%로 5.9%p 증가하였음

(단위 : %)

	5년이상 근속여성 비율	5~9년	10~14년	15~19년	20년이상	5년이하 근속여성 비율
1980	6.5	5.9	0.4	0.1	0.1	93.5
1985	13.5	11.9	1.2	0.3	0.1	86.5
1990	16.3	13.1	2.5	0.5	0.2	83.7
1993	21.7	16.4	3.8	1.1	0.4	78.3
1994	23.5	17.4	4.1	1.3	0.6	76.5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 교육정도별 여성 실업률 >

- 여성의 실업률은 '80년 3.5%에서 '94년 1.9%로 낮아졌고 특히 학력별로 보면 고졸 이하의 여성실업률이 크게 낮아졌음
- 한편 성별로 실업률을 비교해 보면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의 실업률보다는 낮은데 그 원인은 남성의 경우는 주력 노동력으로서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경제활동을 하려는 반면 여성은 경기부진 등으로 취업이 되지않을 경우 취업을 포기하고 노동시장을 이탈하기 때문임
- 다만 성별 교육정도별로 보면 대졸이상의 여성이 남성보다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 여성의 고학력 실업문제가 보다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단위 : %)

	계	국		고		대졸이상
		졸이하	졸	졸	졸	
			전	국		
1980	5.2	2.7	6.3	9.3	6.2	
1985	4.0	1.5	4.1	5.9	6.6	
1990	2.4	0.7	1.8	3.4	4.4	
1994	2.4	0.8	1.9	3.0	3.6	
			여	성		
1980	3.5	1.4	4.2	10.7	9.2	
1985	2.4	0.6	1.8	5.0	10.0	
1990	1.8	0.3	1.1	3.1	5.3	
1994	1.9	0.5	1.2	2.7	4.2	
			남	성		
1980	6.2	3.9	7.4	8.8	5.6	
1985	5.0	2.6	5.3	6.3	5.9	
1990	2.9	1.2	2.3	3.5	4.1	
1994	2.7	1.2	2.4	3.1	3.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고령취업자 비중을 외국과 비교하면 필리핀과 비슷한 수준이고 영국, 미국보다는 약간 높으며 일본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편임

〈 주요국의 고령 취업자 비율 〉

(단위 : 천명, %)

나 라	연 도	총취업자수	55세이상 취업자비율	성별	
				남	여
한 국	1993	19,253	14.4	8.3	6.1
	1994	19,837	14.9	8.6	6.3
일 본	1993	64,500	21.6	13.3	8.2
	1993	24,443	14.7	9.2	5.5
필리핀	1993	25,317	12.7	7.5	5.2
영국	1993	119,306	12.3	6.9	5.4

자료 : ILO, 「노동통계연감」

바. 교육정도별 임금격차

- 고졸임금을 기준(100.0)으로 하여 교육정도별 임금수준을 비교하면 「중졸이하」 86.9, 「초대(전문)졸」 107.4, 「대졸이상」 155.7로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수준도 높게 나타남

- 교육정도별 임금수준 추이를 보면 「대졸이상」의 경우 '80년 228.5에서 '94년 155.7, 「초대(전문)졸」은 동기간 중 146.3에서 107.4로 감소함으로써 학력간의 임금격차는 점차 개선되고 있음

(단위 : 원)

	중졸이하	고 졸	초대(전문)졸	대졸이상
1980	124 435	180 919	264 762	413 318
1985	226 272	303 049	393 450	686 490
1990	476 949	569 394	668 200	1 055 950
1993	776 312	881 467	965 408	1 421 811
1994	848 914	976 699	1 049 439	1 521 039
고졸임금수준 = 100				
1980	68.8	100.0	146.3	228.5
1985	74.7	100.0	129.8	226.5
1990	83.8	100.0	117.4	185.5
1993	88.1	100.0	109.5	161.3
1994	86.9	100.0	107.4	155.7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사. 성별임금 및 근속연수

- 성별 근속연수를 보면 남자는 '80년 3.4년에서 '94년 5.5년으로, 여자는 동기간중 2.0년에서 3.1년으로 늘어났음
- 남성 월평균 임금에 대한 여성 월평균 임금의 비율은 '80년 42.9%에서 '94년 56.8%로 증가함으로써 남녀간의 임금격차가 점차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줌
- 이는 여성의 취업형태에 있어서 상시고용률의 증가, 고임금이 보장되는 전문직종 진출, 여성의 근속연수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단위 : 원, 년)

	월평균 임금	B/A			평 균 근 속 연 수	남		여	
		남(A)	여(B)	B/A		남	여		
1980	173 150	222 956	95 692	42.9	2.8	3.4	2.0		
1985	314 213	386 346	180 319	46.7	3.6	4.3	2.2		
1990	616 765	727 444	388 171	53.4	4.0	4.7	2.5		
1993	956 531	1 103 893	602 655	54.6	4.6	5.4	2.8		
1994	1 047 735	1 195 869	679 237	56.8	4.8	5.5	3.1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아. 노조조직률 및 노조등록수

- 노동조합 조직대상자 중 노동조합 조직근로자 조합원수의 비율인 노동조합 조직률은 '89년 23.3%를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여 '94년 16.3%로 나타남
- 이는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경공업 분야의 노동조합 감소가 두드러지고 '87년 이후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조직된 신생노조들의 해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근로자들의 관심이 과거와 같은 임금인상이나 노조조직 등으로부터 고용안정, 복지후생 등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음

	조 직 대상자 ¹⁾ (천명)	조직근로자 조합원수 ²⁾ (천명)	노동조합 조직률 (%)	노 조 등 록 수	
				본조합수	지부수
1980	4 728	948	20.1	16	2 618
1985	6 397	1 004	15.7	16	2 534
1989	8 301	1 932	23.3	21	7 861
1990	8 763	1 887	21.5	21	7 698
1993	9 688	1 667	17.2	26	7 147
1994	10 178	1 659	16.3	25	7 02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 주 : 1) 노동조합 조직대상자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한 비농가의 상용 및 임시 취업자를 말함
 2) 조직근로자 조합원수는 노동조합설립 신고를 통해서 등록된 조합원수를 말함

4. 교 육

가. 학생현황

○ '80년대 이후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출생률로 인해 초·중학교 학령기 인구가 감소하여 총인구중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80년 27.7%에서 '95년 23.4%로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에따라 인구만명당 학생수는 국민학교가 '80년 1,484명에서 '95년 871명으로, 중학교가 '80년 648명에서 553명으로 감소하였고, 고등학교의 경우 '90년대에 들어 감소추세를 보여 '90년 533명에서 '95년 481명으로 감소하였음.
- 반면 인구만명당 대학생수(전문대이상)는 '80년 이후 대학졸업 정원제의 도입으로 입학정원이 확대됨에 따라 '80년 157명에서 '95년 421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단위 : 명, %)

	총학생수	인구만명당 학생수				
		학생비율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이상
1980	10,568,247	27.7	1,484	648	445	157
1985	11,151,871	27.2	1,190	682	528	309
1990	11,007,043	25.7	1,136	531	533	342
1994	10,500,541	23.6	922	564	464	398
1995	10,494,125	23.4	871	553	481	421

산식 : 학생비율 = (총학생수/총인구) × 100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나. 교사 1인당 학생수

○ 교사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학생수는 전반적으로 보아 감소세를 보임으로써, 교사 1인당 학생수는 감소하는 추세임.

- 중학교의 경우 '80년에 44.9명에서 '95년 24.8명으로 20.1명이 감소하였고
- 국민학교는 동기간중 47.5명에서 28.3명, 고등학교는 33.3명에서 21.8명으로 각각 19.2명, 11.5명이 감소하였음.
- 반면 대학교의 교수 1인당 학생수는 졸업정원제 도입이후 '85년까지 증가한 이후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단위 : 천명)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수	교사수	교사 1인당 학생수 (명)	학생수	교사수	교사 1인당 학생수 (명)	학생수	교사수	교사 1인당 학생수 (명)	학생수	교사수	교사 1인당 학생수 (명)
1980	5,658	119	47.5	2,472	55	44.9	1,697	51	33.3	598	21	28.5
1985	4,857	127	38.2	2,782	70	39.7	2,153	70	30.8	1,260	33	38.2
1990	4,869	137	35.5	2,276	90	25.3	2,284	93	24.6	1,467	41	35.8
1994	4,099	139	29.5	2,509	100	25.1	2,061	97	21.2	1,768	52	34.0
1995	3,905	138	28.3	2,482	100	24.8	2,158	99	21.8	1,890	56	33.8

주 : ※ 대학교에는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원이 포함됨.
 ※ 대학교 교수는 시간강사를 제외한 전임강사이상 재직교수임.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수는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으나, 외국과 비교하면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여 여전히 많은 편임.

< 주요국의 교사 1인당 학생수 >

(단위 : 명)

	연 도	초 등	중 등	고 등
한 국	1993	31	23	22 ¹⁾
프 랑 스	1992	16	12	25 ²⁾
일 본	1992	20	16 ²⁾	10 ²⁾
영 국	1990	20	13	16
말레이시아	1992	20	18	12 ³⁾
싱 가 포 르	1990	26	21	...

1) 1992 2) 1991 3) 1990

주 : 초등은 국민학교, 중등은 중·고등학교, 고등은 전문대학이상을 의미하며
고등교육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유네스코가 정한 기준에 의한 수치임.

자료 : 유네스코, 「통계연감」

디. 학급당 학생수

- 강의·학습의 효율성과 직결되는 지표인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여건의 개선으로 감소추세에 있음.

- 국민학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95년 36.4명으로 '80년 51.5명에 비해 15.1명이 감소하였는데
-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80년 68.5명에서 '95년 40.9명, 전남은 동기간중 47.2명에서 25.9명으로 감소하였음.
- 농어촌 인구의 도시지역 유입으로 서울지역과 같은 도시지역은 학급당 학생수가 높은 반면, 전남지역과 같은 농촌지역은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중학교는 동기간중 17.3명, 고등학교는 11.9명 감소되었음.

(단위 : 명)

	국민학교		중학교	인문교	실업교
	서울	전남			
1980	51.5	68.5	65.5	59.9	59.6
1985	44.7	56.2	61.7	58.0	55.5
1990	41.4	51.2	50.2	53.6	51.5
1994	37.7	42.8	48.9	47.4	46.8
1995	36.4	40.9	48.2	48.0	47.9
(95-80)	△15.1	△27.6	△17.3	△11.9	△11.7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라. 여교사 비율

○ 여성의 전문직종으로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교직에 있어서도 여성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 특히, 국민학교 여교사비율은 '90년에 처음으로 50%를 상회하여 '95년에 55.6%를 차지하였고, 중학교의 경우도 '95년에 절반정도의 수준에 육박하고 있음.

(단위 : %)

	국민학교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대학교
1980	36.8	32.8	17.2	17.0	15.7
1985	43.1	38.5	19.6	21.4	16.5
1990	50.1	46.5	22.1	24.3	17.6
1994	54.5	49.0	21.8	25.3	20.2
1995	55.6	49.8	22.2	26.1	21.3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 각 국의 여교사 비율 >

(단위 : %)

	연 도	초 등	중 등	고 등
한 국	1993	54	36	24 ¹⁾
일 본	1992	60	31 ²⁾	16 ²⁾
싱가포르	1989	71	63	21 ²⁾
홍 콩	1987	74	49	25 ¹⁾
프 랑 스	1992	77	58	28
영 국	1990	78	53	21

1) 1992 2) 1991

자료 : 유네스코, 「통계연감」

마. 유치원 취원율

○ '80~'95년 기간중 유치원수는 9.9배, 유치원 아동수 및 교원수는 각각 8.0배, 7.7배, 증가하였음.

- 이에따라 유치원 취원율은 '80년 4.1%에서 '95년 40.1%로 큰폭으로 증가하였으며

· 이는 여성의 사회활동참여 증가, 조기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교육열의, 관련정부 정책지원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교사 1인당 아동수는 '80년 19.9명에서 '82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후 감소추세로 전환하여 '95년에 20.7명을 기록하였음.

	유치원수 (개소)	유치원아동수 (명)	유치원취원율	교원수 (명)	1인당 아동수 (명)
			(%)		
1980	901	66,433	4.1	3,339	19.9
1985	6,242	314,692	18.9	9,281	33.9
1990	8,354	414,532	31.4	18,511	22.4
1994	8,910	510,100	38.7	24,288	21.0
1995	8,960	529,265	40.1	25,576	20.7
(95/80) 배율	9.9	8.0	-	7.7	-

산식 : 유치원 취원율 = (유치원아동수/4~5세인구)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바. 졸업생의 진학을

○ 교육기획의 확대로 학교 급별 진학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국민학생의 중학교 진학률은 99.9%, 중학생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98.5%로 매우 높아 거의 대부분이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으며,

- '95년의 경우 고등학생의 진학률이 50%를 상회하여 고등학교 졸업생중 절반가량이 전문대학이상에 진학하고 있음

(단위 : %)

	국민학생의 중학 진학률	중학생의 고교 진학률	고등학생의 전문대, 교육 대학 및 대학 진학률
1980	95.8	84.5	27.2 (43.3)
1985	99.2	90.7	36.4 (49.6)
1990	99.8	95.7	33.2 (44.9)
1994	99.9	98.8	45.3 (63.1)
1995	99.9	98.5	51.4 (74.2)

주 : () 은 재수생을 포함한 입학률을 의미

산식 : 진학률 = (당해년도 상급학교 진학자수/당해년도 졸업자수) × 100

입학률 = (당해년도 전문대, 교육대학 및 대학 입학자수 / 당해년도 고등학교 졸업자수) × 100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사. 취업률

○ '80년 ~ '95년기간중 학교 급별 취업률은 고등학교 졸업생이 37.7%에서 69.1%로 31.4%포인트, 전문대학 졸업생이 40.8%에서 66.7%로 25.9%포인트 증가한 반면, 대학졸업생은 65.0%에서 59.3%로 오히려 5.7%포인트 감소하였음

- 동기간중 학교 급별 취업률을 비교해 보면
 - '80년대 전반에는 고학력일수록 취업률이 높아 대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80년대 후반부터 오히려 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대학졸업생의 취업률의 변화는 '80년 졸업정원제의 도입, 경기변동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 '86년에 대학졸업생의 대폭 증가로 대학교의 취업률이 40.8%로 가장 낮게 나타난 이후 차츰 증가하고 있으며
 - 경기침체기인 '93년에는 낮아졌다가 다시 증가추세에 있음.

(단위: %)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1980	37.7	40.8	65.0
1985	41.7	44.2	45.7
1990	50.7	58.6	52.2
1994	62.9	61.4	54.7
1995	69.1	66.7	59.3

주 : 당해년도 4월1일 기준임

산식 : 취업률 = [취업자수 / (졸업생수 - 진학자수 - 군입대자수)] × 100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이. GNP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

○ 우리나라 연구수행기관수는 '80년 647개에서 '93년 3,318개로 증가하였고, 이들 연구기관의 GNP대비 연구투자개발비는 '80년 0.77%에서 '93년 2.33%로 1.6%포인트 증가하였음.

	연구기관수 (개소)	연구기관			연구개발비 (10억원)	GNP대비 (%)
		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1980	647	124	202	321	283	0.77
1985	1,291	119	217	928	1,237	1.56
1990	2,105	167	220	1,718	3,350	1.88
1992	3,106	212	237	2,657	4,989	2.09
1993	3,318	210	244	2,864	6,153	2.33

주 : 인문, 사회과학분야의 연구기관수 및 연구개발비는 제외

자료 :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연감」

자. 중앙정부예산 대 교육예산

○ 중앙정부예산중 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80년 18.9%에서 '95년 22.8%로 3.9%포인트 증가하였음.

(단위 : 10억원)

	중앙정부예산 (A)	교육예산 (B)	교육비 (C)		
			B/A (%)	C/B (%)	
1980	5,804	1,099	18.9	1,001	91.1
1985	12,275	2,492	20.3	2,354	94.5
1990	22,689	5,062	22.3	4,802	94.9
1994	47,594	10,879	22.9	10,234	94.1
1995	54,845	12,496	22.8	11,518	92.2

주 : 교육예산은 교육부 소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고, 교육비는 교육예산에서 간접교육비 부문(교육본부, 학술기관)을 제외한 세출예산임.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 교육지출 국제비교 >

○ 정부의 교육투자가 서서히 증대하고는 있으나, 외국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은 낮은 수준임.

(단위 : %)

		연 도	GNP 대비	정부지출대비
한	국	1992	4.4	14.8
일	본	1989	4.7	16.5
밀	레이시아	1992	5.5	16.9
오	스트리아	1992	5.8	7.7
스	웨 덴	1992	8.8	12.7
미	국	1990	5.3	12.3

주 : 정부지출은 지방정부예산 포함.

자료 : 유네스코, 「통계연감」

5. 보 건

가. 기 대 여 명

- 평균수명은 '91년 남자 67.7세, 여자 75.7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60세 연령 인구의 기대여명을 보면
 - 정년퇴직연령을 60세로 보았을 때 남자는 정년 퇴직후 15.5년, 여자는 20.1년 정도 더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정년연장과 정년후의 유희인력 활용방안등 노령인구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

< 기 대 여 명 >

(단위 : 년)

연 도	평 균 (0세)	남 자			여 자		
		0 세	60 세	65세	0 세	60 세	65세
1983	67.9	63.8	13.7	10.9	72.2	19.0	15.2
1985	69.0	64.9	14.1	11.2	73.3	19.4	15.5
1989	70.7	66.7	15.1	11.9	74.9	19.9	16.0
1991	71.6	67.7	15.5	12.3	75.7	20.1	16.1

자료 : 통계청, 「1991년 생명표」

-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증가 추세이지만 보건, 의료, 사회보장제도 등이 발달된 미국, 영국, 일본 등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

< OECD 국가의 평균수명 >

연 도	국 가 명	평 균 수 명		
		평 균	남 자	여 자
1991	한 국	71.6	67.7	75.7
1991-'95	카 나 다	77.4	74.2	80.7
//	멕 시 코	70.3	67.1	73.6
//	미 국	75.9	72.6	79.3
//	일 본	78.7	75.9	81.6
//	그 리 스	77.6	74.9	80.2
//	네덜란드	77.4	74.3	80.5
//	노르웨이	77.1	73.8	80.5
//	스 웨 덴	77.9	75.2	80.8
//	스 위 스	78.0	74.7	81.2
//	터 키	67.3	64.8	70.0
//	영 국	76.2	73.7	78.7

자료 : 통계청 「OECD 국가의 주요통계지표」

나. 영양공급

○ 국민 식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국민1인당 1일 평균열량은 '80년 2,485Kcal에서 '93년 2,863Kcal로 증가하였음.

○ 식물성 및 동물성의 식품군별 총공급량은 동기간중 1,165.9g에서 1,449g으로 증가하였음.

- 특히 동물성식품의 공급량이 크게 증가하였음

○ 단백질 공급량에 있어서는 식물성 단백질은 기복은 있으나 거의 정체상태에 있으며 동물성 단백질은 '80년 20.1g에서 '93년 33.6g으로 연차적으로 현저한 증가 추세를 있음.

< 영양공급 (1일1인당) >

	평균열량 (Kcal)	식품군별 총공급량(g)	식품군별		단백질 (g)	단백질	
			식물성	동물성		식물성	동물성
1980	2485	1,165.9	1,018.0	147.9	73.6	53.5	20.1
1985	2687	1,200.4	986.2	214.2	86.6	58.1	28.5
1990	2853	1,338.3	1,074.7	263.7	89.3	56.1	33.2
1993	2863	1,449.0	1,166.2	282.8	90.8	56.0	34.8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 평균열량 및 단백질 공급량은 미국, 프랑스등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나 일본과는 비슷한 수준임.

< 외국의 평균열량 및 단백질 공급량 (1일1인당) >

		연 도	평균열량 (Kcal)	단백질 (g)
한 국		1990	2,853	89.3
		1993	2,863	90.8
일 본		1990	2,926	95.6
미 국		1990	3,680	111.1
프 랑 스		1990	3,618	112.8
영 국		1990	3,282	93.7
독일(구서독)		1990	3,465	102.9
태 국		1990	2,271	47.5
말레이시아		1990	2,697	53.6

자료 : UN, 「통계연감」

- 우리나라의 주식인 쌀의 소비량이 계속 줄어드는 반면,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육류소비량은 계속 늘어나 동물성 단백질의 주요한 공급원천이 되고있음.

< 쌀 및 육류소비량 (1일1인당) >

(단위 : g)

	쌀소비량		쇠고기 소비량	돼지고기 소비량	달걀 소비량
	농가	비농가			
1980	412.5	343.7	7.1	17.3	17.9
1985	449.8	323.3	7.9	23.0	19.7
1990	439.3	306.9	11.3	32.3	25.2
1994	413.2	280.2	16.7	38.9	27.1
(94/80) 배율	(1.0)	(0.8)	(2.4)	(2.3)	(1.5)

자료 : 농림수산부, 「양곡소비량조사」
축협중앙회, 「축산물가격 및 수급자료」

- 고급단백질등 영양섭취 증가로 청소년의 신장, 체중등 체격은 향상되고 있으며 특히 남자 13세, 여자11세의 개선폭이 현저함.

- '80년~'94년 기간중 11세의 경우 신장은 남자가 139.3cm에서 145.4cm로 6.1cm 여자는 140.3cm에서 147.3cm로 7cm 늘어났으며, 체중은 남자가 32.3kg에서 39.1kg으로 6.8kg 늘어났고, 여자는 32.9kg에서 40.0kg으로 7.1kg이 늘어났음.
- 동기간중 13세는 신장이 남자 8.7cm, 여자 5.2cm가 커졌고, 체중은 남자 9.2kg, 여자 6.0kg 증가하여 남녀간의 체격 향상폭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청소년의 신장, 체중 >

(단위 : cm, kg)

	신 장				체 중			
	11 세		13 세		11 세		13 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80	139.3	140.3	150.4	150.7	32.3	32.9	40.0	42.7
1985	141.4	143.2	154.1	153.1	33.9	34.8	43.0	44.2
1990	144.1	145.8	157.0	154.6	37.3	37.9	47.1	46.9
1994	145.4	147.3	159.1	155.9	39.1	40.0	49.2	48.7
(94-80)	(6.1)	(7.0)	(8.7)	(5.2)	(6.8)	(7.1)	(9.2)	(6.0)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다. 의 료

-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총환자수는 '94년 115,808천명으로 '80년의 30,296천명에 비해 3.8배 증가함.
- '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이후 환자수가 급증하였으며, 의료보험기간의 연장 및 노령인구 증가로 환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한편 총환자수중 입원환자 비율은 약간의 등락은 있으나 90년대에 들어 큰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입원 환자 비율 >

(단위 : 천명)

	총환자수	입원환자		입원환자 비율 (%)	의 사 수
		연 인 원	외래환자 연 인 원		
1980	30,296	8,446	21,850	27.9	22,564
1985	60,188	16,358	43,830	27.2	29,596
1990	91,161	29,387	61,774	32.2	42,554
1993	109,679	34,578	75,101	31.5	51,518
1994	115,808	37,993	77,815	32.8	54,406
(94/80) 배율	3.8	4.5	3.6	4.9%p	2.4

산식 : 입원환자비율 = (입원환자 연인원수/총환자수)*100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 의사 1인당인구는 '80년 1,690명에서 '94년 817명으로 반감하였고 병상당 인구수는 '80년 1,001명에서 '93년 315명으로 감소하였음.

< 의료인력과 병상당인구 >

(단위 : 명)

	의 사 1인당인구	한 의 사 1인당인구	치과 의사 1인당인구	약 사 1인당인구	병상당 ¹⁾ 인 구
1980	1,690	12,645	10,531	1,565	1,001
1985	1,379	10,770	7,507	1,366	549
1990	1,007	7,401	4,457	1,155	429
1993	855	5,821	3,617	1,080	349
1994	817	5,435	3,436	1,057	315

주 : 1)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에 한함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라. 가족계획실천율

- 그동안 정부의 가족계획 사업에 의한 인구억제 정책으로 가족계획실천율은 '76년 44.2%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91년에는 79.4%로 증가하여 '94년에는 77.4%로 약간 감소하였음.
- 이와같이 '90년대 들어 가족계획실천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피임등 가족계획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감소, 자녀수에 대한 의식의 변화 등에 기인한 것임
- 가족계획실천 방법을 순위별로 보면 '94년에 난관수술 37.0%, 콘돔 18.5%, 정관수술 15.0%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가족계획 실천율	가족계획방법					
		정관수술	난관수술	자궁내 장 치	먹 는 피 임 약	콘 돔	기 타
1976	44.2	9.5	9.3	23.8	17.6	14.2	25.6
1985	70.4	12.6	44.9	10.5	6.1	10.2	15.6
1988	77.1	14.3	48.2	8.7	3.6	12.6	12.6
1991	79.4	15.1	44.5	11.3	3.8	12.8	12.5
1994	77.4	15.0	37.0	13.6	2.3	18.5	13.7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마. 인공 유산율

- 피임 실천율의 증가와 소자녀관에 의한 단산으로 총인공유산율이 '79년 2.9에서 '93년 1.4로 줄었음.
- 총인공유산율(Total Abortion Rate)이란 유배우 부인이 20세부터 44세까지의 가입연령 기간중 몇번 인공유산율 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임.
- 인공유산 경험률에 있어서는 '79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부인 2명중 1명이 인공유산율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인공유산 경험률은 조사대상(20 ~ 44세 유배우부인)인구중에서 인공유산경험이 있는 부인의 비율임.

	연령별 인공 유산율(부인1000명당 건수)					총인공 유산율 (TAR)	인공유산 경험 률 (%)
	20~24	25~29	30~34	35~39	40~44		
1979	70	156	148	156	54	2.9	48
1985	91	146	115	40	20	2.1	53
1988	102	103	71	29	7	1.6	52
1991	186	112	60	21	6	1.9	53
1993	105	94	63	25	1	1.4	49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6. 주택·환경

가. 주택건설 및 투자

- 주택공급은 '90년 750천호, '94년 623천호로 확대되었으며, '90년대에 들어 특히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GNP대비 주택투자율은 '80년대에는 4~5% 수준에서 '90년 이후는 8%대로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7%대로 감소하였음.

(단위 : 천호)

	주 공 택 급	공 공		건축물건축허가 연면적 (1,000㎡)	주거용 비율(%)	GNP대비 주택투자율 (%)
		공 공	민 간			
1980	212	106	105	25,727	57.3	5.9
1985	227	132	95	38,217	53.9	4.4
1990	750	269	481	116,419	60.9	8.2
1993	695	227	469	117,790	58.8	8.6
1994	623	258	364	116,221	54.5	7.7

산식 : 주택투자율 = (주거용건물투자액/GNP) × 100
 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한국은행, 「국민계정」

나. 도시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지수

- '90. 12월을 기준으로한 도시주택 매매가격 지수는 '91년에 103.3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94년에 91.7%까지 하락하였는데 이는 부동산투기 억제정책, 신도시 건설에 의한 주택공급의 확대 등에 기인한 것임.
- 반면 도시주택 전세가격지수는 계속 증가추세를 보여 '94년에 115.4를 기록하였음.
- 이는 주택가격 안정추세의 전망에 따른 전세선호, 핵가족화등에 의한 전세 신규수요의 꾸준한 증가 등에 기인함.

1990. 12 = 100

	매 매 가 격 지 수				전 세 가 격 지 수			
	계	단 독	연 립	아파트	계	단 독	연 립	아파트
1990	93.5	95.6	93.4	89.7	99.8	101.1	98.1	98.2
1991	103.3	102.5	103.6	104.3	103.8	102.3	104.7	105.7
1992	96.5	97.6	96.3	95.0	108.3	105.4	112.6	111.6
1993	93.2	93.9	92.9	92.3	112.1	108.7	116.6	115.9
1994	91.7	92.0	91.6	91.2	115.4	110.4	120.0	121.5

자료 : 한국주택은행, 「도시주택가격동향조사」

다. 도로와 승용차와의 관계

- 도로포장률은 '80년의 33.2%에서 '94년 77.8로 44.6%포인트 증가하여 도로상태는 크게 개선되었으며, 특히 지방도로는 23.5%에서 72.8로 49.3%포인트 증가하여 개선정도가 현저함.
 - '93년과 '94년을 비교하면 총도로는 61,296km에서 73,833km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농어촌의 非法定道路가 市郡道로 편입(12천km)된데 따른 것임
 - 이에따라 지방도로의 포장률이 '93년 80.8%에서 72.8%로 감소하였고 전체 도로포장률도 '93년 84.7%에서 '94년 77.8%로 감소하였음
- 승용차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100만대를 돌파한 '88년 이후의 도로와 승용차의 관계를 보면
 - '88년~'94년 기간중 도로는 55,778km에서 73,833km로 1.3배 증가한 반면, 승용차대수는 1,118천대에서 5,149천대로 4.6배로 대폭 증가함으로써 교통체증의 유발요인이 되고 있음
- 승용차 1대당 인구수는 '80년대 153.0명에서 '94에는 8.6명으로 대폭 감소하였음.

	도로 포장률 (%)		총도로연장 (km)	승용차수 (천대)	승용차 1대당 인구수
	국도	지방도			
1980	33.2	71.6	46,951	249	153.0
1985	49.9	76.4	52,264	557	73.3
1988	61.4	84.4	55,778	1,118	37.6
1990	71.5	90.4	56,715	2,075	20.7
1993	84.7	98.1	61,296	4,271	10.3
1994	77.8	99.5	73,833	5,149	8.6

주 : 총도로는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특별시도, 시군도의 합계임
 산식 : 도로포장률 = (총포장도로/총도로) × 100
 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라. 최종에너지 및 전력소비량

- 활발한 산업활동, 승용차의 급증등으로 최종에너지의 총소비량은 '80년 37,597천톤에서 '94년 112,206천톤으로 3.0배 증가하였으며, 1인당에너지 소비량(TOE)은 '80년 0.99에서 '94년 2.52로 2.5배 증가.
- 1인당 전력소비량은 '80년의 859KWH에서 '94년 3,297KWH로 3.8배 증가하여 동기간중 1인당 전력소비량 증가율이 최종에너지소비량 증가율보다 더 높게 나타났음.

	최종에너지 소비량 (1,000 TOE)		전력소비량 (GWH)	1인당 전력 소비량(KWH)
	총 소비량	1인당 에너지 소비량(TOE)		
1980	37,597	0.99	32,734	859
1985	46,998	1.15	50,732	1,243
1990	75,107	1.75	94,383	2,202
1993	104,048	2.36	127,734	2,899
1994	112,206	2.52	146,540	3,297
(94/80)배율	(3.0)	(2.5)	(4.5)	(3.8)

주 : 1TOE = 10⁷ Kcal, 1GWH = 10⁶ KWH
 ※ TOE(Tonnage of Oil Equivalent) : 석유로 환산한 Ton 단위임
 ※ 최종에너지란 1차에너지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일정한 전환과정을 거쳐 최종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말함.
 자료 : 통상산업부, 「에너지통계연보」

마. 전화, 이동전화 및 무선호출

- 인구 100명당 전화가입자는 '85년 16.0명에서 '94년 39.6명, 특히 가정용전화는 동기간중 12.5명에서 31.8명으로 증가하여 거의 한 가구당 1대 이상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줌.
-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85년의 4,686명에서 '94년에 960,258명으로, 무선호출 가입자수는 동기간중 19천명에서 6,360천명으로 급속한 증가를 보였음.
 - 또한 인구천명당 가입자수를 보면 이동전화는 '85년 0.1명에서 '94년 21.6명으로, 무선호출은 동기간중 0.5명에서 143.1명으로 높은 증가를 보였음
 - 특히 '90년이후 이동전화 및 무선호출 가입자수가 매년 배정도로 증가하고 있음

(단위 : 명)

	인구100명당 전화가입자수		이 동 전 화 ¹⁾		무 선 호 출	
	가정용	가입자수	인 구 1000명당	가입자수	인 구 1000명당	
1985	16.0	12.5	4,686	0.1	18,782	0.5
1990	31.0	25.2	80,005	1.9	417,650	9.7
1991	33.7	27.1	166,198	3.8	850,516	19.7
1992	35.7	29.4	271,868	6.2	1,451,710	33.3
1993	37.8	30.5	471,784	10.7	2,648,744	60.1
1994	39.6	31.8	960,258	21.6	6,360,280	143.1

주 : 1) 이동전화는 '88.7월 부터 기존의 차량전화 이외에 휴대전화도 포함
 자료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통계연보」

바. PC 통신가입자수

- PC 통신가입자수는 '87년 226명에서 '94년 578,344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이에따라 인구만명당 가입자수는 '87년 0.1명에서 '94년 130.1명으로 증가하였음.
 - 이는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른 PC 보급의 확대로 PC통신을 통한 정보수집 및 여가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때문임.

(단위 : 명)

	가입자수	전년대비 증가배율	인구만명당 가입자수		가입자수	전년대비 증가배율	인구만명당 가입자수
	1987	226	-		0.1	1991	159,343
1988	1,185	5.2	0.3	1992	323,248	2.0	74.0
1989	16,016	13.5	3.8	1993	435,191	1.3	98.8
1990	54,357	3.4	12.7	1994	578,344	1.3	130.1

자료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통계연보」

사. 주요도시의 대기오염도 - SO₂

- 우리나라 주요도시의 연평균 SO₂ 오염도를 보면 서울은 '85년 0.056ppm에서 '94년 0.019ppm으로 0.037ppm, 부산은 동기간중 0.047ppm에서 0.023ppm으로 0.024ppm, 광주 0.034ppm에서 0.013ppm으로 0.021ppm이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SO₂ 오염도가 낮아지고 있음.

- 이는 저황연료유의 공급 및 LNG사용 의무화 등으로 인한 것임.

(단위 : ppm)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1985	0.056	0.047	0.039	0.052	0.034	0.033	0.030
1990	0.051	0.039	0.041	0.044	0.017	0.029	0.031
1991	0.043	0.038	0.041	0.041	0.017	0.028	0.038
1992	0.035	0.033	0.040	0.036	0.017	0.022	0.031
1993	0.023	0.028	0.035	0.021	0.014	0.020	0.032
1994	0.019	0.023	0.038	0.022	0.013	0.021	0.030
(94-85)	△0.037	△0.024	△0.001	△0.03	△0.021	△0.012	-

자료 : 환경부, 「한국환경연감」

아. 4대강 주요지점의 수질오염도 - BOD

- 4대강의 수질오염도(BOD)를 보면 '90년대에 들어 상류의 경우 한강과 영산강의 오염도는 더욱 나빠졌고 낙동강과 금강의 오염도는 예전과 비슷하거나 낮아졌음.

- 하류지역을 보면 특히 낙동강의 오염도가 '90년 3.1mg/ℓ에서 5.7mg/ℓ로 크게 나빠졌고, 영산강의 경우는 1.2mg/ℓ에서 1.9mg/ℓ로 약간 나빠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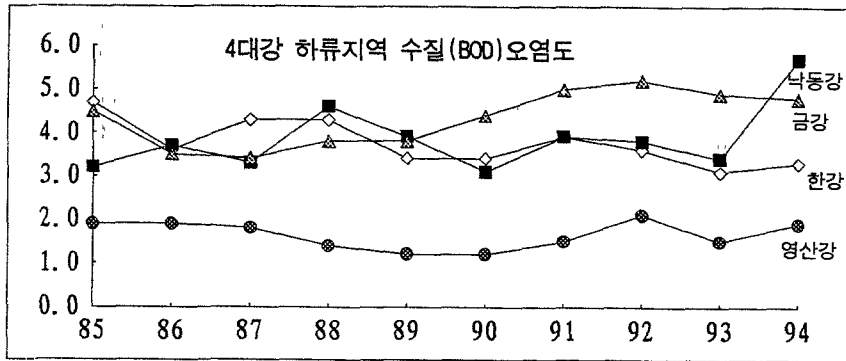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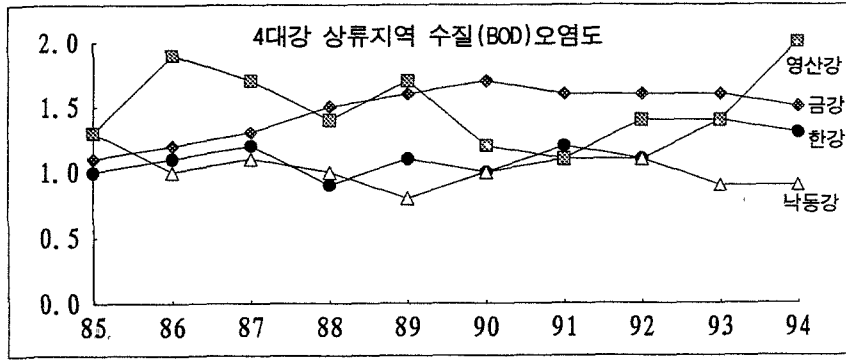
- '93년~'94년 최근의 수질오염도를 비교해 보면 낙동강, 한강은 하류의 오염도가 나빠졌고, 영산강의 경우는 상·하류 모두 나빠졌음.

(단위 : mg/ℓ)

	한 강		낙 동 강		금 강		영 산 강	
	춘천댐	노량진	안동댐	삼랑진	대청댐	강 경	담양	무안
1985	1.0	4.7	1.3	3.2	1.1	4.5	1.3	1.9
1986	1.1	3.6	1.0	3.7	1.2	3.5	1.9	1.9
1987	1.2	4.3	1.1	3.3	1.3	3.4	1.7	1.8
1988	0.9	4.3	1.0	4.6	1.5	3.8	1.4	1.4
1989	1.1	3.4	0.8	3.9	1.6	3.8	1.7	1.2
1990	1.0	3.4	1.0	3.1	1.7	4.4	1.2	1.2
1991	1.2	3.9	1.1	3.9	1.6	5.0	1.1	1.5
1992	1.1	3.6	1.1	3.8	1.6	5.2	1.4	2.1
1993	1.4	3.1	0.9	3.4	1.6	4.9	1.4	1.5
1994	1.3	3.3	0.9	5.7	1.5	4.8	2.0	1.9
(94-85)	0.3	△1.4	△0.4	2.5	0.4	0.3	0.7	-

주 :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는 20°C에서 5일간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탄소물질의 산화에 필요한 산소량을 구하는 것임

자료 : 환경부, 「한국환경연감」



자. 주요연안의 해수오염도 - COD

○ 주요연안의 해수오염도를 보면 '90년대에 들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마산과 군산의 오염도는 높아짐.

- 이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해양 유류오염사고와 마산만의 반폐쇄적인 지형적 특성때문으로 여겨짐.
- '93년과 '94년을 비교해 보면 부산, 마산지역을 제외하고 비슷하거나 오염도가 낮아짐.

(단위 : mg/l)

	부 산	마 산	여 수	인 천	목 포	군 산	울 산
1985	2.3	3.8	2.1	2.3	2.5	1.9	2.4
1990	1.6	4.1	2.1	1.9	2.4	2.5	2.1
1991	1.6	4.3	1.6	1.6	1.8	2.2	2.0
1992	1.2	3.1	1.8	1.5	1.8	2.3	1.7
1993	1.7	4.0	1.5	1.5	1.9	2.7	1.8
1994	2.2	5.6	1.5	1.4	2.0	2.0	1.8
(94-85)	Δ0.1	1.8	Δ0.6	Δ0.9	Δ0.5	0.1	Δ0.6

주 : COD(Chemical Oxygen Demand; 화학적 산소 요구량)는 물의 오염도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서 유기물이 산화되고 무기산화물과 가스체가 되기때문에 소비되는 산화제에 대응하는 산소량을 ppm으로 나타냄.

자료 : 환경부, 「한국환경연감」

7. 사회

가.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및 복지부문 세출 규모

-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및 복지부문 세출규모는 '80년 4,379억원에서 '94년 5조 9,317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중앙정부 세출대비로는 동기간 중 5.7%에서 9.9%, GNP대비로는 1.2%에서 2.0%로 증가하였음

(단위 : 십억원, %)

	중앙정부 사회보장 및 복지부문 세출	중앙정부 세출대비	GNP 대비
1980	437.9	5.7	1.2
1985	779.0	5.0	1.0
1990	2 691.2	8.1	1.5
1993	4 576.8	9.3	1.7
1994	5 931.7	9.9	2.0

자료 :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재정경제원, 「결산개요」

주 : 사회보장 및 복지세출 내역은 사회보장행정, 병약자·일시취업불능자, 노령·무능력자·유가족, 복지사업 등임

-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및 복지부문 세출규모는 아직 낮은 수준에 있음

< 주요국의 사회보장 및 복지부문 세출규모 >

(단위 : %)

나 라	연 도	중앙정부 세출대비	GNP 대비
한 국	1993	9.3	1.7
	1994	9.9	2.0
싱가포르	1991	2.1	0.5
말레이시아	1993	5.2	1.5
미 국	1992	28.1	6.9
영 국	1991	34.3	12.9
스웨덴	1992	51.3	24.1
덴마크	1990	38.4	18.7

자료 :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나. 공적부조인구

- 저소득층으로 생활능력이 미약한 생활보호 대상자는 '85년에 2,273천명이었으며 '80년대 후반부터 조금씩 감소하여 '94년에 1,903천명으로 나타남
 - 이는 자녀학비지원, 생업자금융자, 직업훈련 및 취로사업 실시에 따른 자활보호 대상자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 저소득층중에서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받는 의료보호 수혜자는 '90년에 3,930천명을 기록한 후 감소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의료보호 수혜율은 '90년에 9.2%를 기록한 후 '94년에 4.8%로 하락하였음

(단위 : 천명)

	생활보호 대상자				의료보호 수혜자	
	계	자활보호	거택보호	시설보호		수혜율(%)
1980	1 829	1 500	282	47	2 142	5.6
1985	2 273	1 928	282	63	3 259	7.9
1990	2 255	1 835	339	81	3 930	9.2
1993	2 001	1 580	338	83	2 366	5.4
1994	1 903	1 501	320	81	2 136	4.8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 : '94년의 경우 월소득 17만원 이하이고 가구재산이 1,700만원 이하인자로 근로능력이 없으면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이고 근로능력이 있으면 자활보호대상자가 됨
- *의료보호대상자 책정기준 : 월소득 19만원 이하이고 가구재산이 2,500만원 이하인자

다. 사회복지시설 및 수용자수

- 양로시설, 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은 소폭이나마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양로시설은 '80년에 48개에서 '94년 141개로 증가하였고, 수용자수는 동기간중 3,158명에서 8,089명으로 2.6배 증가하였음
 - 장애인 수용시설은 '88년 장애인 올림픽 개최 이후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장애인을 위한 정부시책이 꾸준히 추진됨에 따라 '85년 92개에서 '94년 216개로 증가하였으며 수용자수도 13,936명으로 증가하였음

(단위 : 개소, 명)

	양로시설	장애인수용시설		모자보호	부녀직업보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수용자				
1980	48	3 158	90	11 281	33	24	314
1985	67	5 059	92	9 326	34	23	290
1990	89	6 409	150	12 759	37	22	287
1993	135	7 525	201	13 533	40	23	287
1994	141	8 089	216	13 936	37	22	284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8. 문화.여가

가. 도서발행 실적

- 도서발행 종수는 '85년 19,756종에서 '94년 29,564종으로 증가하였고, 도서발행 부수는 '85년 78,469천부에서 '94년 152,326천부로 증가하였음
- '93년과 '94년을 비교하면 발행종수는 12.4%, 발행부수는 9.4%의 증가하였는데
 - 특히 증가율이 두드러진 분야는
 - . 기술과학 도서가 발행종수는 3,887종으로 '93년에 비해 30.2%, 발행부수는 5,073천부로 36.5% 증가하였는데 이는 정보화와 관련된 도서발행 증가에 기인함
 - . 어학분야는 세계화, 국제화추세에 따라 발행종수가 15.6%, 발행부수가 31.8% 증가하였음
 - . 아동도서의 발행부수는 높은 자녀교육열을 반영하여 50.4%의 높은 신장세를 보임

(단위: 종, 천부)

	도 서 발 행 종 수				도 서 발 행 부 수			
	1985	1990	1993	1994	1985	1990	1993	1994
총 계	19,756	20,903	26,304	29,564	78,469	129,611	139,222	152,326
총 철	295	197	350	283	465	400	1,916	552
	337	621	680	727	837	3,080	1,913	3,046
종 교	1,438	1,563	2,040	1,941	2,902	3,860	5,910	5,468
	2,962	3,142	3,106	3,539	3,996	5,289	5,298	5,735
사 회 과 학	352	328	420	463	625	502	760	1,231
	1,607	1,761	2,986	3,887	1,512	1,999	3,717	5,073
순 수 과 학	1,275	983	1,173	1,314	3,175	3,006	3,504	3,752
	997	882	1,143	1,321	2,933	3,185	3,959	5,218
예 술 학	4,478	3,646	5,336	6,053	7,441	7,278	13,742	14,665
	878	657	924	966	1,048	1,206	2,397	2,003
문 학 사	2,246	2,344	4,061	4,360	5,799	8,387	11,729	17,646
	2,891	4,779	4,085	4,710	47,736	91,420	84,377	87,936
아 동 학 습 참 고 서								

자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연감」

○ 발행종수와 발행부수를 구성비를 통하여 보면

- 사회과학, 기술과학 및 문학 부문은 발행부수보다 발행종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다량 소량발행으로 독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것으로 보임
- . 문학분야의 구성비를보면 발행종수 20.5%에 비해 발행부수 9.6%를 차지함
- 반면 학습참고서분야는 전체 발행부수 비율이 57.7%를 차지하여 소량 다량발행의 경향을 보임

(단위: %)

	도 서 발 행 종 수				도 서 발 행 부 수			
	1985	1990	1993	1994	1985	1990	1993	1994
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총계	1.5	0.9	1.3	1.0	0.6	0.3	1.4	0.4
류학	1.7	3.0	2.6	2.5	1.1	2.4	1.4	2.0
중교	7.3	7.5	7.8	6.6	3.7	3.0	4.2	3.6
사회과학	15.0	15.0	11.8	12.0	5.1	4.1	3.8	3.8
순수과학	1.8	1.6	1.6	1.6	0.8	0.4	0.5	0.8
기술과학	8.1	8.4	11.4	13.1	1.9	1.5	2.7	3.3
예술헌학	6.5	4.7	4.5	4.4	4.0	2.3	2.5	2.5
어학	5.0	4.2	4.3	4.5	3.7	2.5	2.8	3.4
문학	22.7	17.4	20.3	20.5	9.5	5.6	9.9	9.6
역사	4.4	3.1	3.5	3.3	1.3	0.9	1.7	1.3
아동	11.4	11.2	15.4	14.7	7.4	6.5	8.4	11.6
학습참고서	14.6	22.9	15.5	15.9	60.8	70.5	60.6	57.7

자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연감」

나 공공도서관 보급률

- 공공도서관수는 '80년 227개에서 '94년 724개로 2.6배 증가하였으며 좌석수는 5배 장서수도 5.1배 증가함

- 인구 만명당 좌석수는 10.3개에서 44개로 4.3배, 장서수는 4.4배, 이용자수는 3.5배 증가하였음

(단위: 개)

연 도	도서관수	좌 석 수	인 구		이용자수	
			만명당	장서수 (천권)	만명당	(천명)
1980	277	39,146	10.3	4,265	1,119	10,836
1985	388	83,782	20.5	9,040	2,215	15,981
1990	591	150,615	35.2	13,773	3,219	31,824
1993	688	182,730	41.5	18,216	4,135	36,795
1994	724	195,805	44.0	21,812	4,907	44,260
(94/80)	2.6	5.0	4.3	5.1	4.4	4.1

자료: 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통계」

다.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전체 도시공원은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의 증가에 따라 '85년 2,558개에서 '94년 6,719개로 2.6배 증가하였음

- 공원면적을 도시계획구획내 인구조로 나누어 계산한 1인당 면적은 '85년의 21.4㎡에서 19.0㎡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자연공원의 1인당 면적이 감소한데 기인함
 . 특히 어린이공원이 '85년 1,816개소에서 5,035개소로 2.8배 증가

○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및 대도시보다 지방 중소도시가 1인당면적이 높게 나타나 도시공원으로 파악한 공간적인 삶의 여유가 지방중소도시에서 더 큰것으로 나타남

- 1인당 면적은 서울 8.7㎡, 경기 16.1㎡, 부산 7.9㎡보다 충남 48.5㎡, 전남 46.0㎡, 경남 46.0㎡로 중소도시에서 높게 나타남

(단위: 개소, ㎡)

	계	자연		근린		어린이		기타		
		1인당 면적	공원	1인당 면적	공원	1인당 면적	공원	1인당 면적	공원	
1985	2,558	21.4	173	15.6	547	5.1	1,816	0.1	22	0.6
1990	4,305	22.1	181	15.2	990	6.0	3,105	0.2	29	0.7
1993	5,891	18.6	180	11.3	1,237	6.3	4,446	0.3	28	0.7
'1994	6,719	19.0	204	11.2	1,446	6.8	5,035	0.3	28	0.7
(94/85) 배율	2.6	0.9	1.2	0.7	2.6	1.3	2.8	3.0	1.3	1.2
서울 부산 대구	1,361	8.7	22	5.8	229	2.5	1,106	0.2	4	0.3
	239	7.9	9	3.0	49	4.6	178	0.1	2	0.3
	272	19.2	3	13.0	44	3.2	225	0.2	-	-
인천 광주 대전	299	13.6	9	8.7	69	3.0	219	0.4	1	1.5
	203	10.8	-	-	50	10.0	152	0.3	1	0.5
	198	30.6	5	20.6	36	7.2	156	0.3	1	2.6
경강 충북	1,148	16.1	26	8.1	266	7.2	849	0.4	5	0.4
	413	36.0	15	21.3	102	14.1	296	0.6	-	-
	264	44.5	9	29.9	81	12.0	173	0.5	1	2.1
충전 전남	308	48.5	22	32.2	40	15.3	246	1.1	-	-
	254	28.6	10	12.4	91	15.3	150	0.3	3	0.7
	282	46.0	23	29.3	65	13.7	190	0.5	4	2.5
경북 경남 제주	665	32.0	17	13.0	160	17.5	485	0.6	3	0.9
	698	46.0	30	30.8	134	13.3	529	0.4	3	1.5
	115	33.2	4	15.9	30	16.7	81	0.6	-	-

자료: 건설교통부, 「건설교통 통계연감」

9. 공 안

가. 유형별 범죄 발생건수

- '80년의 총범죄 발생건수는 595,277건에서 '94년 1,373,407건으로 증가 하였으며
 -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건수는 '80년 1,561건에서 '94년 3,090건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10만명당 형법범은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현상의 복잡다원화로 특별법범이 인구 10만명당 '80년 761건에서 '94년 2,358건으로 늘어났기 때문임
- 이에 따라 범죄 총건수중에서 유형별 범죄발생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특별법범 76.3% 형법범 23.7%로 나타났으며, 형법범중에서 강력범죄 비율보다 재산범죄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단위: 건, %)

연 도	범 죄							
	총건수	10 만 명 당	형 법 범	10 만 명 당	재산범죄	강력범죄	특별법범	10 만 명 당
1980	595,277 (100.0)	1,561	305,162 (51.3)	800	154,575 (26.0)	31,218 (5.2)	290,115 (48.7)	761
1985	810,416 (100.0)	1,986	271,621 (33.5)	666	190,065 (23.5)	37,911 (4.7)	538,795 (66.5)	1,320
1990	1,171,380 (100.0)	2,732	240,145 (20.5)	560	158,413 (13.5)	39,252 (3.4)	931,235 (79.5)	2,172
1993	1,356,914 (100.0)	3,080	287,451 (21.2)	652	185,929 (13.7)	41,737 (3.1)	1,069,463 (78.8)	2,428
1994	1,373,407 (100.0)	3,090	325,343 (23.7)	732	222,127 (16.2)	44,748 (3.3)	1,048,064 (76.3)	2,358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주: 형법범은 재산범죄, 강력범죄, 위조범죄, 풍속범죄, 과실범죄 등으로 구분되며, 특별법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부정수표단속법, 식품위생법 등 130여종이 있음

나. 주요범죄 발생건수

- '80년대 이후 형법범중에서 절도, 살인, 강도, 강간, 폭력.상해등 주요범죄 추이를 보면 절도는 감소한 반면 살인, 강도, 강간, 폭행.상해는 증가하였음
- 절도는 '80년 97,007건에서 '94년 57,219건으로 감소하였고
- 살인, 강간은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93년 각각 806건, 7,051건이 '94년 795건, 6,169건으로 감소

(단위: 건)

연 도	주요범죄 발생건수	범죄종류				
		절 도	살 인	강 도	강 간	폭행.상해
1980	125,732	97,007	536	2,374	3,977	21,838
1985	138,102	103,179	600	3,135	5,453	25,735
1990	130,935	95,031	666	4,195	5,519	25,524
1993	99,142	60,492	806	2,876	7,051	27,917
1994	99,052	57,219	795	4,469	6,169	30,400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다. 형법범 및 주요범죄자

- 형법범의 범죄자수는 '80년 351,615명에서 '94년 443,443명으로 1.3배 증가
- 재산범인 절도범죄자수는 '80년 63,358명에서 '94년 50,630명으로 0.8배 감소하였고, 강력범인 강도범죄자수는 '80년 3,406명에서 '94년 6,523명으로 1.9배 증가하였음
- 형법범의 주요범죄자 비율을 보면 절도 47.9%, 폭행.상해 39.9%로 높게 나타나고 살인과 강도, 강간은 각각 0.7%, 6.2%, 5.3%를 차지함

(단위 : 명, %)

연 도	형 법 범 범죄자수	주 요 범죄자수	범죄종류				
			절 도	살 인	강 도	강 간	폭행.상해
1980	351,615	99,781 (100.0)	63,358 (63.5)	576 (0.6)	3,406 (3.4)	5,672 (5.7)	26,769 (26.8)
1985	307,907	110,855 (100.0)	67,527 (60.9)	676 (0.6)	4,616 (4.2)	7,695 (6.9)	30,341 (27.4)
1990	282,664	94,996 (100.0)	47,783 (50.3)	878 (0.9)	6,410 (6.8)	7,438 (7.8)	32,487 (34.2)
1993	447,201	104,328 (100.0)	53,031 (50.9)	964 (0.9)	5,744 (5.5)	7,311 (7.0)	37,278 (35.7)
1994	443,443	105,746 (100.0)	50,630 (47.9)	727 (0.7)	6,523 (6.2)	5,650 (5.3)	42,216 (39.9)
(94/80) 배율	1.3	1.1	0.8	1.3	1.9	1.0	1.6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라. 소년범죄비율 및 평균연령

- 전체 범죄자중에 12세 이상 20세 미만 소년이 차지하는 형법범 비율은 '80년 12.3%에서 '94년 8.5%로 감소하였음
- 재산범죄인 절도는 '80년 42.5%에서 '94년 53.0%로 증가한 반면
- 강력범죄인 살인, 강도, 강간, 폭행, 상해는 '80년 15.1%, 53.3%, 40.1%, 7.3%에서 '94년 8.5%, 53.1%, 11.3%, 3.4%로 각각 감소
- 이에따라 절도 범죄자의 평균연령은 '80년 24.1세에서 '94년 23.0세로 낮아진 반면 다른 주요 소년범죄자의 평균연령은 증가하였음

(단위 : 세, %)

연 도	총범죄자에 대한 소년범죄비율						총범죄자 평균연령				
	형법범	절 도	살 인	강 도	강 간	폭행상해	절 도	살 인	강 도	강 간	폭행상해
1980	12.3	42.5	15.1	53.3	40.1	7.3	24.1	29.6	21.1	24.5	33.8
1985	14.4	45.2	13.0	49.5	42.3	11.2	24.1	31.2	21.6	24.4	34.8
1990	12.4	47.4	18.2	51.9	35.9	4.5	24.2	30.8	21.8	26.2	36.5
1993	8.0	47.9	11.9	48.0	23.1	3.3	24.4	32.3	22.2	28.8	38.0
1994	8.5	53.0	8.5	53.1	11.3	3.4	23.0	33.7	21.0	31.6	37.9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마. 유형별 범죄자수 및 여성범죄 비율

- 전체 범죄자중 여성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80년 10.8%에서 '94년 13.5%로 계속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특히 형법범의 경우 '80년 12.6%에서 '94년 20.4%로 크게 증가
- 여성범죄 비율은 형법범의 경우 유형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증가

(단위: %)

연 도	총범죄자에 대한 여성 범죄 비율	형법범 범죄자에 대한 여성범죄 비율							특 별 법 범
		재산범	강력범	풍속범	위조범	과실범	공무원		
1980	10.8	12.6	16.5	12.8	17.6	15.6	3.2	3.8	9.2
1985	9.4	16.5	14.3	13.6	29.2	16.4	13.4	5.8	6.3
1990	9.9	15.7	13.4	12.2	29.9	15.7	8.4	4.2	8.5
1993	11.9	18.1	18.5	13.1	21.1	15.8	8.5	4.5	9.8
1994	13.5	20.4	20.9	14.2	26.9	17.7	9.9	2.2	11.0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바. 자동차 사고

- 자동차 사고 발생건수는 '80년 83,711건에서 '94년 266,107건의 3.2배 증가하였고, 사망자수는 '80년 5,608명에서 '94년 10,087명으로 1.8배 증가 하였음
- 자동차 만대당 사망자수를 보면 '80년 106명에서 '94년 14명으로 감소
- 이는 자동차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자동차 사고 발생건수가 증가하지만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 국민의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 변화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단위: 건수, 명)

연 도	발생건수	사망자수	자동차만대당		부상자수
			사망자수	인구10만명당 사망자수	
1980	83,711	5,608	106	14.7	111,641
1985	146,836	7,522	68	18.3	184,420
1990	255,303	12,325	36	28.8	324,229
1993	260,921	10,402	17	23.6	337,679
1994	266,107	10,087	14	22.7	350,892
94/80	3.2	1.8	0.1	1.5	3.1

자료: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 외국의 자동차 사고 사망률을 보면 자동차 만대당 사망자수는 모로코가 31.9명, 중국이 27.2명이며,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는 포르투칼이 24.9명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교통사고의 국제비교

(단위: 건수,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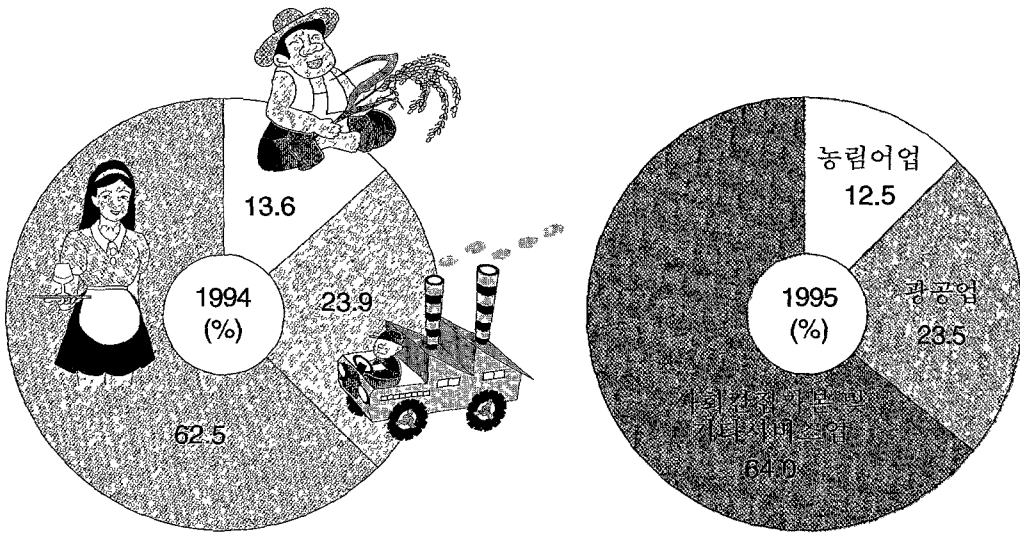
국 가	발생건수	사망자수	자동차만대당		부상자수	기준년도
			사망자수	인구10만명당 사망자수		
모 로 코	41,331	3,524		13.8	61,205	1992
	242,343	63,508	31.9	5.4	142,251	1993
중 국	266,107	10,087	27.2	22.7	350,892	1994
	52,349	2,455	14.0	24.9	70,627	1992
포 르 투 칼	87,293	7,818	6.3	20.0	128,145	1992
	143,362	9,900	4.5	17.3	...	1992
스 페 인	168,846	966	3.6	13.7	50,577	1992
	395,462	10,631	2.4	13.2	...	1992
프 랑 스	2,251,173	39,235	2.4	15.4	...	1992
	728,139	10,649	2.0	8.5	879,397	1994
캐 나 다			1.6			
독 일						
미 일						
일본						

자료: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여 백

'95년 고용동향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95년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이 2,541천명으로 '94년대비 158천명(5.9%) 감소한 반면, 광공업과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은 각각 4,799천명, 13,037천명으로 '94년 대비 각각 64천명(1.4%), 634천명(5.1%) 증가 하였다.

1995년 고용동향

1996. 3

통계조사국 사회통계과

I : '95년 고용동향의 특징

< 요약 >

- '95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경기확장의 지속으로 취업자 증가율(2.7%, 540천명)이 노동공급측면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율(2.3%, 471천명)을 상회하여 실업자가 70천명 감소하였음.
- '95년 경제활동참가율은 62.0%로 '94년대비 0.3%p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48.3%)이 '94년 보다 0.4%p 증가한 데 기인함.
 -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인구 중 20~24세, 25~29세 연령계층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94년 대비 각각 1.4%p, 2.2%p의 높은 증가폭을 보였음.
- '95년 취업자는 20,377천명으로 '94년대비 540천명 증가하였음.
 - 연령계층별로는 40대에서, 산업별로는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에서, 직업별로는 전문·기술·행정·관리직에서,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시근로자가, 취업시간대별로는 36시간이상에서 취업자 증가가 크게 나타났음.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는 특히 정보·교육·법률·회계 및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부문의 증가에 기인한 것임.
 - 제조업 취업자는 '94년대비 78천명(1.7%) 증가하였으며 경공업에서는 64천명 감소한 반면 중공업에서는 143천명 증가하였음.
- '95년 실업률은 2.0%로 '94년대비 0.4%p 감소하였음.
 - 비농가에서의 실업률 감소가 두드러졌으며, 연령계층별로는 20대이하의 젊은 계층에서, 교육정도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실업률 감소폭이 높게 나타났음.
 - 그러나, 젊을수록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높은 현상은 지속되고 있음.

< 노동력 공급 원천 >

- '95년 취업자는 540천명 증가하였는데 이를 원천별로 보면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취업으로 흡수된 인력이 471천명, 기존의 실업상태에서 취업으로 전환된 인력이 70천명임.
 - '95년 중 신규로 노동가능한 15세이상 인구로 진입한 인구는 619천명인데,
 - 이 중 가사나 통학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분(147천명)을 제외하면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경제활동인구 순증가는 471천명임.

- 또한 실업자가 70천명 감소하여 취업상태로 전환되어 '95년 중 전체 취업자 증가는 540천명임.

< '95년 원천별 취업증가 >

(단위 : 천명)

15세이상 인구증가 ①=②+③	경제활동 인구증가 ②	비경제활동 인구증가 ③	실업자 감소 ④	취업자 증가 ②+④
	619	471	147	70

< 성별·연령계층별 취업자 >

- '95년 취업자는 20,377천명으로 '94년대비 540천명(2.7%) 증가하였는데 이 중 남자가 321천명, 여자가 219천명 차지함.
- 증가된 540천명 취업자를 연령계층별로 보면, 40대가 311천명, 55세이상의 고령층이 111천명의 순으로 취업자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1차 베이비붐과 최근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 증대에 기인함.
 - 특히 여성 취업기회의 확대로 20대 후반 여성의 취업자 증가율이 6.6%로 높게 나타났음.

< 산업별 취업자 >

- '95년 농림어업 부문의 취업자는 2,541천명으로 '94년대비 158천명 감소하였음.
- 제조업 취업자는 4,773천명으로 '94년대비 78천명(1.7%) 증가하였음.
 - 중공업부문에서는 경기호황의 지속으로 '94년대비 143천명(6.3%) 증가한 반면, 경공업부문에서는 64천명(2.6%) 감소하였음.
- '95년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는 13,037천명으로 '94년대비 634천명(5.1%)이 증가하였음.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중에서 도소매·음식숙박업 부문의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사업·개인·교육서비스 부문의 취업자와 금융·통신 등 기타서비스부문 취업자는 증가세가 두드러짐.
 - 이러한 산업은 특히 여성 고용의 유발 효과가 큰 부문으로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와 관련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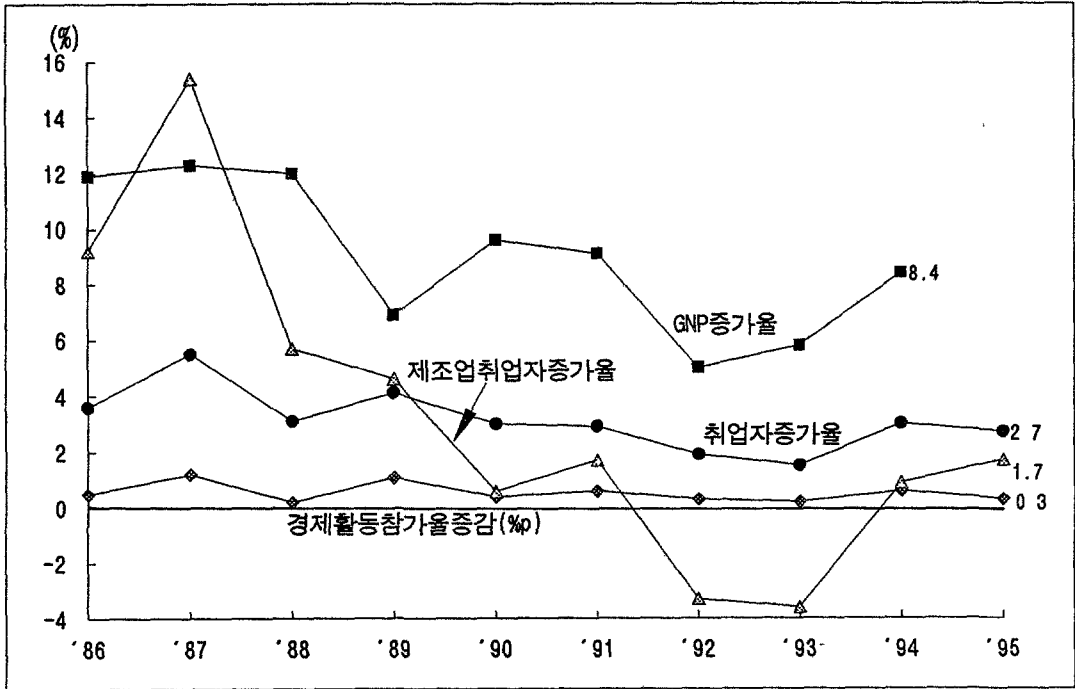
< 직업별, 종사상지위별,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

- '95년에는 전문·기술·행정·관리직 취업자가 '94년대비 262천명(8.5%)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다음으로 서비스·판매직이 176천명(4.1%) 증가하였음.
 - 남자는 전문·기술·행정·관리직에서, 여자는 서비스·판매직에서 증가세가 높게 나타났음.
 - 또한 여성의 고학력화 등에 따라 전문·기술·행정·관리직이 80천명, 사무직이 62천명 증가하여 여성인력의 전문화현상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
-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가 상시근로자를 중심으로 '94년 대비 439천명(3.6%) 증가하였고,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주가 171천명(3.1%) 증가한 반면, 무급가족종사자는 70천명(3.5%) 감소하여 102천명(1.4%) 증가에 그쳤음.
 - 임금근로자의 증가는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부문의 405천명(상시:370천명, 일용:35천명)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특히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정보처리, 회계, 법률, 교육·가사서비스 부문에서의 취업이 활발히 이루어졌음.
 - 일용근로자가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에서 35천명 증가한 것은 시간제 취업, 계약 및 파견직 등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기인한 것임.
 - 이에 따라 총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94년 62.0%에서 '95년 62.5%로 0.5%p 증가하였음.
 - 특히 상시근로자의 비중은 53.1%에서 53.7%로 0.6%p 증가하여 취업구조가 안정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 1주간 평균 취업시간은 농림어업의 취업시간 증가에 따라 '94년대비 0.1시간이 증가한 52.4시간으로 나타났음.
 - 농림어업의 평균취업시간은 45.8시간으로 '94년대비 1.2시간 증가한 반면, 비농림어업부분인 제조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은 51.9시간, 58.4시간으로 '94년대비 각각 0.4시간, 0.2시간 감소하였음.
 - 제조업 취업자의 평균취업시간은 경공업 52.0시간, 중공업 51.9시간으로 '94년대비 각각 0.2시간, 0.4시간 감소하였음.
 - 18~35시간 취업자는 3.9% 감소한 반면, 36시간이상 취업자는 3.0% 증가하였음.
 - 이는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긴 상시근로자의 비중 증가와 근로시간이 비교적 짧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 감소에 기인함.

< 실업자 >

- '95년 실업자와 실업률은 각각 419천명, 2.0%로 '94년에 비하여 실업자는 70천명(14.3%), 실업률은 0.4%p 감소하였음.
 - 대졸이상 고학력 실업률은 2.7%로 '94년 보다 0.9%p 감소하였으나 다른 학력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임.
 - 20~24세 대졸이상계층에서 실업률은 남녀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나(남자:13.4%, 여자:7.9%) 젊은계층 고학력자의 실업률이 높은 현상은 지속되고 있음.

○ GNP, 취업자, 경제활동참가율 증감률(전년대비)



<전년대비증감(률), 천명, %>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국민총생산	11.9	12.3	12.0	6.9	9.6	9.1	5.0	5.8	8.4	-
○경찰인구 증가율	3.4	4.7	2.6	4.1	2.9	2.7	2.0	1.9	2.6	2.3
○경제활동 참가율 증감(%)	57.1	58.3	58.5	59.6	60.0	60.6	60.9	61.1	61.7	62.0
	0.5	1.2	0.2	1.1	0.4	0.6	0.3	0.2	0.6	0.3
○취업자 증가율	3.6	5.5	3.1	4.1	3.0	2.9	1.9	1.5	3.0	2.7
·농림어업 증감률	-1.9	-2.2	-2.7	-1.3	-5.8	-5.3	-2.4	-5.4	-4.6	-5.9
·제조업 증감률	9.2	15.4	5.7	4.6	0.6	1.7	-3.3	-3.6	0.9	1.7
·서비스업 증감률	3.3	4.4	5.0	6.7	7.7	6.4	5.6	5.8	5.8	5.1
·사자 증감률										
·기타 증감률										
○실업률 증감(%)	3.8	3.1	2.5	2.6	2.4	2.3	2.4	2.8	2.4	2.0
	-0.2	-0.7	-0.6	0.1	-0.2	-0.1	0.1	0.4	-0.4	-0.4

II . '95년 고용동향

1. 15세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동향

가. 15세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 '95년 15세이상 인구는 33,558천명으로 '94년대비 619천명(1.9%) 증가하였으며, 그 중 실제로 노동시장에 참여한 경제활동인구는 20,797천명으로 '94년대비 471천명(2.3%) 증가하였음.
- 15세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인 경제활동참가율은 62.0%로서 경기확장의 지속에 따라 '94년대비 0.3%p 증가하였음.
 - 이러한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는 '94년과 마찬가지로 남성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에 힘입은 것임.
 -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폭 0.3%p가 '94년의 증가폭 0.6%p 보다는 낮게 나타나 노동력 공급 여력이 점차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줌.
- 가사나 통학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12,761천명으로 '94년대비 147천명(1.2%) 증가하였음.
 - 이 중 가사는 87천명(1.3%), 통학 등은 61천명(1.0%) 증가하였음.

< 고 용 동 향 >

(단위 : 천명, %)

구 분	'93	'94	'95	전년대비증감(률)		
				'93	'94	'95
15세 이상 인구	32,400	32,939	33,558	502(1.6)	539(1.7)	619(1.9)
경제활동인구	19,803	20,326	20,797	377(1.9)	523(2.6)	471(2.3)
경제활동참가율	61.1	61.7	62.0	(0.2P)	(0.6P)	(0.3P)
남 자	76.0	76.4	76.5	(0.5P)	(0.4P)	(0.1P)
여 자	47.2	47.9	48.3	(-0.1P)	(0.7P)	(0.4P)
비경제활동인구	12,597	12,614	12,761	125(1.0)	17(0.1)	147(1.2)
가 사	6,513	6,564	6,651	138(2.2)	51(0.8)	87(1.3)
통 학 등	6,084	6,049	6,110	-13(-0.2)	-35(-0.6)	61(1.0)
남 자	3,757	3,750	3,818	-13(-0.3)	-7(-0.2)	68(1.8)
여 자	8,840	8,864	8,944	138(1.6)	24(0.3)	80(0.9)

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 경제활동인구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12,433천명, 여자는 8,363천명으로 '94년대비 각각 2.2%(266천명), 2.5%(204천명) 증가하였음.

-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자가 76.5%, 여자가 48.3%로 '94년대비 각각 0.1%P, 0.4%P 증가하였음.

○ 경제활동인구를 연령계층별로 세분하여 보면,

- 15~19세 청소년 계층의 경제활동인구는 출산력 저하에 따른 인구의 감소로 '94년대비 38천명(7.9%) 감소하였고, 경제활동참가율은 진학률의 상승에 따라 1.0%P 감소하였음.

- 20~24세 연령계층의 경제활동인구는 2,188천명으로 출산력 저하에 따라 '94년대비 37천명(1.7%) 감소하였음.

· 이들 연령계층에서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8%로 '94년대비 0.7%P 증가하였는데 이를 성별로 세분하여 보면

· 남자의 경우에는 진학률 상승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0.3%P 감소한 반면

· 여자의 경우에는 진학률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노동시장의 진입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이 1.4%P 크게 늘어났음.

※ 대학진학률('94년→'95년) : 남자(47.4%→52.8%, 5.4%P 증가),
여자(42.9%→49.8%, 6.9%P 증가)
대학원진학률('94년→'95년): 남자(9.2%→10.4%, 1.2%P 증가),
여자(6.9%→ 7.3%, 0.4%P 증가)

- 25~29세 연령계층의 경제활동인구는 2,817천명으로 '94년대비 47천명(1.7%)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0.6%P 증가하였음.

· 특히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폭은 2.2%P로 두드러졌음.

- 30대 연령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94년대비 0.2%P 감소하였음.

· 이는 주로 30대초반 여성들이 육아, 가사부담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참가가 저조하기 때문임.

- 제1차 베이비붐의 영향으로 40대의 경제활동인구가 308천명 늘어나 40~54세 연령계층의 경제활동인구는 336천명(5.9%) 증가하였음.

·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8.8%로 '94년대비 0.4%P 증가하였으며 특히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0.6%P 증가하였음.

- 55세이상 고령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2%로 0.3%P 증가하였으며,

· 성별로 보면 남자 64.6%, 여자 35.9%로 남자가 여자의 약 2배 수준이며 '94년대비 남자는 0.3%P 감소한 반면 여자는 0.6%P 증가하였음.

< 성별·연령계층별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추이 >

(단위 : 천명, %)

구 분	경 제 활 동 인 구					경 제 활 동 참 가 율				
	'92	'93	'94	'95	'95/ '94	'92	'93	'94	'95	'95- '94
< 전 체 >	19,426	19,803	20,326	20,797	2.3	60.9	61.1	61.7	62.0	0.3P
15~19세	590	510	479	441	-7.9	14.5	13.5	12.9	11.9	-1.0P
20~24세	2,133	2,180	2,225	2,188	-1.7	62.5	61.3	62.1	62.8	0.7P
25~29세	2,604	2,700	2,770	2,817	1.7	68.1	67.9	68.5	69.1	0.6P
30~39세	5,586	6,021	6,147	6,193	0.7	75.3	75.6	76.0	75.8	-0.2P
40~54세	5,698	5,606	5,733	6,069	5.9	77.8	77.7	78.4	78.8	0.4P
55세이상	2,814	2,785	2,973	3,089	3.9	48.2	47.0	47.9	48.2	0.3P
< 남 자 >	11,627	11,890	12,167	12,433	2.2	75.5	76.0	76.4	76.5	0.1P
15~19세	244	201	197	174	-11.7	11.7	10.5	10.4	9.3	-1.1P
20~24세	788	815	829	817	-1.4	58.2	56.5	58.3	58.0	-0.3P
25~29세	1,777	1,828	1,870	1,859	-0.6	91.3	90.7	90.2	89.6	-0.6P
30~39세	3,699	3,973	4,033	4,083	1.2	97.0	97.1	96.9	97.0	0.1P
40~54세	3,488	3,455	3,521	3,729	5.9	94.6	94.5	94.6	94.7	0.1P
55세이상	1,630	1,617	1,717	1,770	3.1	65.1	64.2	64.9	64.6	-0.3P
< 여 자 >	7,799	7,913	8,159	8,363	2.5	47.3	47.2	47.9	48.3	0.4P
15~19세	346	309	282	267	-5.3	17.4	16.7	15.6	14.6	-1.0P
20~24세	1,345	1,365	1,396	1,370	-1.9	65.4	64.5	64.7	66.1	1.4P
25~29세	827	872	900	957	6.3	44.1	44.5	45.6	47.8	2.2P
30~39세	1,886	2,048	2,114	2,110	-0.2	52.3	52.9	53.8	53.2	-0.6P
40~54세	2,210	2,151	2,212	2,340	5.8	60.8	60.5	61.6	62.2	0.6P
55세이상	1,184	1,168	1,255	1,319	5.1	35.5	34.3	35.3	35.9	0.6P

2. 취업자 동향

가. 연령계층별 취업자

- '95년 취업자중 남자는 12,153천명으로 '94년대비 321천명(2.7%) 증가하였고, 여자는 8,224천명으로 '94년대비 219천명(2.7%) 증가하였음.
- 전체 취업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연령계층별 취업자 증가를 보면 40~54세 339천명(40대:311천명)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제1차 베이비붐에 기인함.
- 55세이상 고령계층의 취업자는 '94년대비 3.8%(111천명) 증가하였으며, 특히 여성 고령인구 취업자가 4.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 성별·연령계층별 취업자 추이 >

(단위 : 천명, %)

구 분	'91	'92	'93	'94	'95	'95/'94	
						증감	증감률
< 전 체 >	18,612	18,961	19,253	19,837	20,377	540	2.7
15~19세	579	530	454	434	405	-29	-6.7
20~24세	1,962	1,985	1,995	2,074	2,058	-16	-0.8
25~29세	2,568	2,502	2,578	2,654	2,731	77	2.9
30~39세	5,295	5,506	5,915	6,049	6,108	59	1.0
40~54세	5,595	5,639	5,541	5,667	6,006	339	6.0
55세이상	2,612	2,801	2,771	2,958	3,069	111	3.8
< 남 자 >	11,076	11,322	11,515	11,832	12,153	321	2.7
15~19세	218	215	175	177	159	-18	-10.2
20~24세	705	719	718	754	755	1	0.1
25~29세	1,763	1,692	1,726	1,772	1,791	19	1.1
30~39세	3,469	3,637	3,886	3,954	4,015	61	1.5
40~54세	3,413	3,441	3,403	3,470	3,690	210	6.1
55세이상	1,509	1,618	1,606	1,705	1,754	49	2.9
< 여 자 > (여성취업자비율)	7,535 (40.5)	7,639 (40.3)	7,738 (40.2)	8,005 (40.4)	8,224 (40.4)	219	2.7
15~19세	360	315	279	257	247	-10	-3.9
20~24세	1,257	1,265	1,276	1,320	1,304	-16	-1.2
25~29세	806	810	852	882	940	58	6.6
30~39세	1,827	1,869	2,029	2,096	2,093	-3	-0.1
40~54세	2,182	2,198	2,138	2,196	2,326	130	5.9
55세이상	1,103	1,182	1,165	1,253	1,315	62	4.9

나. 산업별 취업자

- '95년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이 2,541천명으로 '94년대비 158천명(5.9%) 감소한 반면, 광공업과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은 각각 4,799천명, 13,037천명으로 '94년대비 각각 64천명(1.4%), 634천명(5.1%) 증가하였음.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가 비교적 큰폭으로 증가하여 고용증대를 주도하였으며, 특히 정보처리, 교육, 법률, 회계 및 개인서비스 등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부문에서 259천명(7.1%) 증가하여 증가세가 두드러졌음.
- 또한 경기호황의 지속으로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의 취업자가 '94년에 0.9% 증가한데 이어 '95년에는 1.7% 증가하였음.

< 성별·산업별 취업자 및 구성비 >

(단위: 천명, %)

	'94		'95		'95/'94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증감	증감률
< 전 체 >	19,837	100.0	20,377	100.0	540	2.7
○ 농 림 어 업	2,699	13.6	2,541	12.5	-158	-5.9
○ 광 공 업	4,735	23.9	4,799	23.5	64	1.4
· 제조업	4,695	23.7	4,773	23.4	78	1.7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	12,403	62.5	13,037	64.0	634	5.1
· 건설업	1,777	9.0	1,896	9.3	119	6.7
· 도소매·음식숙박	5,198	26.1	5,358	26.3	160	3.1
·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3,667	18.5	3,926	19.3	259	7.1
· 금융·운수창고, 전기	1,761	8.9	1,857	9.1	96	5.5
< 남 자 >	11,832	100.0	12,153	100.0	321	2.7
○ 농 림 어 업	1,427	12.1	1,335	11.0	-92	-6.4
○ 광 공 업	2,967	25.1	3,042	25.0	75	2.5
· 제조업	2,930	24.8	3,017	24.8	87	3.0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	7,438	62.8	7,776	64.0	338	4.5
· 건설업	1,616	13.6	1,715	14.1	99	6.1
· 도소매·음식숙박	2,554	21.6	2,632	21.6	78	3.1
·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2,010	17.0	2,111	17.4	101	5.0
· 금융·운수창고, 전기	1,259	10.6	1,319	10.9	60	4.8
< 여 자 >	8,005	100.0	8,224	100.0	219	2.7
○ 농 림 어 업	1,272	15.9	1,206	14.6	-66	-5.2
○ 광 공 업	1,767	22.1	1,758	21.4	-9	-0.5
· 제조업	1,765	22.0	1,756	21.4	-9	-0.5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	4,965	62.0	5,261	64.0	296	6.0
· 건설업	161	2.0	182	2.2	21	13.0
· 도소매·음식숙박	2,644	33.0	2,726	33.2	82	3.1
·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1,657	20.7	1,815	22.1	158	9.5
· 금융·운수창고, 전기	502	6.3	538	6.5	36	7.2

○ 산업별 취업자 증감내역을 성별로 보면,

- 농림어업취업자는 '94년대비 158천명(5.9%) 감소하였는데 이 중 남자가 92천명, 여자가 66천명으로 남자의 이농현상이 두드러졌음.
- 제조업 취업자는 남자가 87천명 증가한 반면, 여자는 9천명 감소하였음.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의 경우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여자가 158천명, 남자가 101천명으로 증가하여 증가세가 두드러졌음.

○ 제조업 취업자를 중공업과 경공업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 전기기계 및 기계장비 등 중공업부문의 취업자는 '94년대비 143천명(6.3%) 증가한 반면,
- 경공업은 가죽·신발, 의복·섬유 등을 중심으로 '94년대비 64천명(2.6%) 감소하였음.

< 제조업 취업자 추이 >

(단위 : 천명, %)

구 분	'93	'94	'95			
			증감률	증 감	증감률	
제 조 업 전 체	4,652	4,695	0.9	4,773	78	1.7
- 경 공 업	2,429	2,440	0.5	2,376	-64	-2.6
· 가죽·신발	237	212	-10.5	189	-23	-10.8
· 의복·섬유	995	1,007	1.2	977	-30	-3.0
- 중 공 업	2,223	2,254	1.4	2,397	143	6.3
· 전기기계	111	132	18.9	152	20	15.2
· 기계장비	340	387	13.8	453	66	17.1

○ 이에 따른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의 변화를 보면,

- 농림어업과 광공업의 비중은 각각 13.6%에서 12.5%로 1.1%p, 23.9%에서 23.5%로 0.4%p 감소한 반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은 62.5%에서 64.0%로 1.5%p 증가하였음.
- 제조업 취업자 구성비는 23.7%에서 23.4%로 0.3%p 감소함으로써, '90년대에 들어 제조업 취업자 비중의 감소 추세는 지속되고 있음.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중에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부문의 구성비 증가폭이 0.8%p로 두드러졌으며, 특히 이러한 현상은 여성취업자의 경우에 더욱 두드러졌는데 이는 여성취업에 적합한 정보처리·교육 및 개인서비스 등 부문에서 활발한 고용이 이루어졌기 때문임.

다. 직업별 취업자

○ '95년 취업자를 직업별로 보면 농림어업직을 제외한 모든 직업에서 증가하였으며, 특히 전문·기술·행정·관리직에서 262천명이 증가하여 전체 취업자 증가(540천명)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음.

- 이를 성별로 세분하면, 남자취업자는 전문·기술·행정·관리직과 기능·기계조작 조립 등 단순노무직에서 각각 182천명, 187천명 증가하였고, 여자취업자는 서비스·판매직에서 146천명 크게 증가하였음.

· 또한 여성의 고학력화 등에 따라 전문·기술·행정·관리직, 사무직에 있어서 각각 80천명, 62천명 증가하여 여성인력의 전문화현상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

< 성별·직업별 취업자 추이 >

(단위 : 천명, %)

구 분	'93	'94	'95	'95/'94		
				증감	구성비	증감률
< 전 체 >	19,253	19,837	20,377	540	100.0	2.7
· 전문·기술·행정·관리직	2,899	3,074	3,336	262	48.5	8.5
· 사무직	2,414	2,433	2,510	77	14.3	3.2
· 서비스·판매직	4,029	4,288	4,464	176	32.6	4.1
· 농림어업직	2,773	2,671	2,511	-161	-29.8	-6.0
·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직	7,137	7,370	7,556	186	34.4	2.5
< 남 자 >	11,515	11,832	12,153	321	100.0	2.7
· 전문·기술·행정·관리직	2,045	2,235	2,417	182	56.6	8.1
· 사무직	1,291	1,217	1,234	17	5.2	1.4
· 서비스·판매직	1,751	1,803	1,834	31	9.6	1.7
· 농림어업직	1,458	1,405	1,310	-95	-29.6	-6.8
·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직	4,970	5,172	5,359	187	58.2	3.6
< 여 자 >	7,738	8,005	8,224	219	100.0	2.7
· 전문·기술·행정·관리직	854	839	919	80	36.4	9.5
· 사무직	1,123	1,215	1,277	62	28.2	5.1
· 서비스·판매직	2,278	2,485	2,631	146	66.5	5.9
· 농림어업직	1,315	1,267	1,201	-66	-30.1	-5.2
·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직	2,168	2,198	2,196	-2	-1.0	-0.1

라.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 '95년 임금근로자(상용·임시, 일용)는 439천명(3.6%), 자영업주는 171천명(3.1%) 증가한 반면, 무급가족종사자는 70천명(3.5%) 감소하였음.
- 임금근로자의 증가는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부문의 405천명(상시:370천명, 일용:35천명)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특히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정보처리, 회계, 법률, 교육·가사서비스 부문에서의 취업이 활발히 이루어졌음.
- 일용근로자가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에서 35천명 증가한 것은 시간제 취업, 계약 및 파견직 등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기인한 것임.
- 제조업 취업자가 '95년에는 78천명 증가하였는데 주로 상시근로자(47천명), 자영업주(22천명)의 증가에 기인함.
- 무급가족종사자는 주로 농림어업과 도소매, 음식·숙박업에서 감소하였음.
- 이에 따라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비중은 임금근로자의 구성비가 62.0%에서 62.5%로 0.5%p 증가하였으며, 특히 상시근로자의 비중 0.6%p 증가는 산업화의 진전으로 취업구조가 보다 안정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 반면에 무급가족종사자의 구성비는 10.2%에서 9.6%로 0.6%p 감소하였음.

<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추이 >

(단위 : 천명, %)

구 분		'93		'94		'95		'95/'94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증감	증감률
총 취업자 수		19,253	100.0	19,837	100.0	20,377	100.0	540	2.7
임금근로자	계	11,751	61.0	12,297	62.0	12,736	62.5	439	3.6
	상시근로자	10,033	52.1	10,530	53.1	10,935	53.7	405	3.8
	○ 농림어업	72	0.4	75	0.4	75	0.4	0	0.0
	○ 광공업	3,617	18.8	3,645	18.4	3,680	18.1	35	1.0
	○ 제조업	3,573	18.6	3,614	18.2	3,661	18.0	47	1.3
	○ SOC, 기타	6,345	32.9	6,810	34.3	7,180	35.2	370	5.4
	일용근로자	1,718	8.9	1,767	8.9	1,801	8.8	34	1.9
	○ 농림어업	123	0.6	106	0.5	105	0.4	-1	-0.9
	○ 광공업	375	1.9	381	1.9	380	1.9	-1	-0.3
	○ 제조업	373	1.9	379	1.9	378	1.9	-1	-0.3
○ SOC, 기타	1,220	6.4	1,280	6.5	1,315	6.5	35	2.7	
비임금근로자	계	7,502	39.0	7,540	38.0	7,642	37.5	102	1.4
	자영업주	5,432	28.2	5,521	27.8	5,692	27.9	171	3.1
	○ 농림어업	1,634	8.5	1,571	7.9	1,489	7.3	-82	-5.2
	○ 광공업	543	2.8	548	2.8	569	2.8	21	3.8
	○ 제조업	537	2.8	543	2.7	565	2.8	22	4.1
	○ SOC, 기타	3,256	16.9	3,402	17.1	3,633	17.8	231	6.8
	무급가족종사자	2,070	10.8	2,020	10.2	1,950	9.6	-70	-3.5
	○ 농림어업	1,000	5.2	948	4.8	872	4.3	-76	-8.0
	○ 광공업	169	0.9	160	0.8	170	0.8	10	6.3
	○ 제조업	168	0.9	159	0.8	169	0.8	10	6.3
○ SOC, 기타	901	4.7	911	4.6	908	4.5	-3	-0.3	
○ 도소매 음식숙박	756	3.9	772	3.9	759	3.7	-13	-1.7	

다.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 1주간 평균 취업시간은 농림어업의 취업시간 증가에 따라 '94년대비 0.1시간이 증가한 52.4시간으로 나타났음.
 - 농림어업의 평균취업시간은 45.8시간으로 '94년대비 1.2시간 증가한 반면, 비농림어업부분인 제조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은 51.9시간, 58.4시간으로 '94년대비 각각 0.4시간, 0.2시간 감소하였음.
 - 제조업 취업자의 평균취업시간은 경공업 52.0시간, 중공업 51.9시간으로 '94년대비 각각 0.2시간, 0.4시간 감소하였음.
- 남자는 여자보다 평균적으로 4.2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95년 취업자를 취업시간대별로 보면, 1주간 36시간이상 취업자와 1~17시간 취업자는 전년보다 늘어난 반면, 18~35시간 취업자는 감소하였음.
 - 18~35시간 취업자가 감소한 반면, 36시간이상 취업자가 증가한 것은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긴 상시근로자의 비중증가와 근로시간이 비교적 짧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감소에 기인함.
 - 1~17시간 취업자는 '94년대비 7.8% 증가하였는데,
 - 이는 여성 및 고령자의 취업확대,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에서의 시간제취업 증가에 기인함.

< 1주간 평균 취업시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

(단위 : 천명, 시간, %)

구 분	'92	'93	'94	'95	'95/'94
평균취업시간	52.4	52.6	52.3	52.4	0.1
[남 자	54.1	54.3	54.0	54.1	0.1
[여 자	49.8	50.0	49.8	49.9	0.1
[농림어업	44.9	45.2	44.6	45.8	1.2
[제조업	52.5	52.5	52.3	51.9	-0.4
[· 경공업	52.5	52.4	52.2	52.0	-0.2
[· 중공업	52.4	52.7	52.3	51.9	-0.4
[SOC 기타	54.3	54.4	54.0	53.9	-0.1
[· 도소매	59.3	59.3	58.6	58.4	-0.2
[음식숙박					
취업자 전체	18,961	19,253	19,837	20,377	2.7
36시간 미만	1,340	1,275	1,302	1,283	-1.5
[1~17시간	259	240	269	290	7.8
[18~35시간	1,081	1,035	1,033	993	-3.9
36시간 이상	17,470	17,844	18,397	18,953	3.0
[36~53시간	8,348	8,595	9,125	9,389	2.9
[54시간이상	9,122	9,249	9,272	9,564	3.1
일시휴직자	152	134	138	141	2.2

3. 실업자 동향

가. 실업자 및 실업률

- '95년 실업자는 419천명으로 '94년대비 70천명(14.3%)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2.0%로 '94년대비 0.4%p 감소하였음.
- 실업률이 크게 감소한 것은 경기호황의 지속에 따라 기업의 신규채용 등 고용기회가 확대되었기 때문임.
- '95년 실업자를 성별로 보면 남자가 280천명으로 '94년대비 54천명(16.2%), 여자가 139천명으로 16천명(10.3%) 감소하였음.
- 성별 실업률을 보면 남자 2.3%, 여자 1.7%로 '94년대비 각각 0.4%p, 0.2%p 감소하였음.

< 실업자 동향 >

(단위:천명, %)

구 분	'93	'94	'95	전년대비증감(률)		
				'93	'94	'95
실업자	550	489	419	85(18.3)	-61(-11.1)	-70(-14.3)
[남자]	375	334	280	70(23.0)	-41(-10.9)	-54(-16.2)
[여자]	175	155	139	15(9.4)	-20(-11.4)	-16(-10.3)
실업률	2.8	2.4	2.0	0.4p	-0.4p	-0.4p
[남자]	3.2	2.7	2.3	0.6p	-0.5p	-0.4p
[여자]	2.2	1.9	1.7	0.1p	-0.3p	-0.2p

나. 연령계층별 실업률

- 15~24세 청소년 계층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청소년 계층이 신규노동력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생기는 마찰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55세이상계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계층에서 실업률이 감소하였음.
- 55세이상계층에서 실업률이 증가한 것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고령화추세에 따른 노인단독가구의 증가로 일자리를 찾는 고령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임.

다. 학력별 실업률

- '95년 대졸이상 실업률은 2.7%, 고졸은 2.5%로 '94년대비 각각 0.9%p, 0.5%p 감소하였음.
- 그러나 학력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높은 현상은 지속되고 있음.
- 이는 고학력층에서의 노동력수급의 불균형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대졸이상 고학력자의 경우 여자의 실업률은 3.3%로 남자의 2.5%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여자의 고학력 실업 문제가 부각됨.

○ 학력별·연령계층별로 보면, 학교를 갓 졸업한 연령계층의 실업률이 높게 나타남.

- 특히 20~24세 대졸이상 계층에서 실업률이 남자는 13.4%, 여자는 7.9%로 높게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높은 현상은 지속되고 있음.

<연령계층 및 학력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명,%)

	계		중졸이하		고 졸		대졸이상	
	'94	'95	'94	'95	'94	'95	'94	'95
< 전 체 >	489 2.4	419 2.0	100 1.3	86 1.1	259 3.0	226 2.5	130 3.6	108 2.7
15~19세	9.4	8.2	11.4	8.8	8.8	7.6
20~24세	6.8	5.9	5.0	4.5	5.7	5.3	11.6	9.0
25~29세	4.2	3.1	3.4	2.7	3.6	2.6	5.3	3.8
30~54세	1.4	1.2	1.2	1.0	1.5	1.3	1.5	1.3
55세이상	0.5	0.7	0.4	0.6	0.7	1.1	1.0	0.5
< 남 자 >	334 2.7	280 2.3	71 1.8	60 1.6	176 3.1	149 2.6	88 3.3	71 2.5
15~19세	10.2	19.1	11.9	9.4	9.3	9.0
20~24세	9.0	7.7	5.5	5.4	8.5	7.3	18.3	13.4
25~29세	5.2	3.7	4.8	3.3	4.5	3.1	6.5	4.6
30~54세	1.7	1.5	1.7	1.5	1.7	1.5	1.6	1.5
55세이상	0.7	0.9	0.6	0.8	0.8	1.3	1.1	0.5
< 여 자 >	155 1.9	139 1.7	29 0.7	25 0.6	83 2.7	77 2.4	42 4.2	37 3.3
15~19세	8.9	7.5	8.9	10.0	8.5	6.9
20~24세	5.4	4.9	3.9	2.5	4.1	3.9	9.9	7.9
25~29세	2.0	1.9	1.1	1.5	1.6	1.6	2.7	2.3
30~54세	0.8	0.7	0.7	0.5	1.0	0.9	0.6	0.7
55세이상	0.2	0.3	0.3	0.3

라. 가구유형별 실업자

- 가구유형별로 보면, '95년 비농가와 농가의 실업률은 각각 2.2%, 0.5%로 '94년대비 0.5%p, 0.2%p 감소하였음.

< 가구유형별 실업자 및 실업률 >

(단위 : 천명, %)

	'91	'92	'93	'94	'95
농 가					
· 실업자	27	26	26	21	15
· 실업률	0.8	0.8	0.9	0.7	0.5
비 농 가					
· 실업자	409	439	524	468	404
· 실업률	2.6	2.7	3.1	2.7	2.2

마. 전직유무별 실업자

- '95년 신규실업자는 165천명, 전직실업자가 255천명으로 실업자의 40%가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이고, 60%는 실업전에 취업했던 것으로 나타났음.
-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신규실업자를 성별로 보면 남자가 98천명, 여자는 67천명이며,
 - 연령계층별로는 30세미만이 124천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전직실업자는 255천명이며, 실직전의 산업을 보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 부문이 많았음.

< 전직 유무별 실업자 추이 >

(단위 : 천명)

	'93	'94	증 감	'95	증 감
전 체 실 업 자	550	489	-61	419	-70
신 규 실 업 자	253	211	-42	165	-46
남 자	163	136	-27	98	-38
여 자	90	75	-15	67	-8
15~19세	36	26	-10	19	-7
20~24세	107	85	-22	71	-14
25~29세	62	56	-6	34	-22
30세이상	47	43	-4	41	-2
전 직 실 업 자	297	278	-19	255	-23
제 조 업	94	80	-14	68	-12
[사회간접자본및기타	198	191	-7	184	-7
· 건설업	44	40	-4	38	-2
· 도소매·음식	88	89	1	87	-2
· 사업·개인·	45	42	-3	41	-1
· 공공서비스					
· 금융·운수창고	21	21	0	19	-2
· 전기					

4. 지역고용동향

- 6대도시의 취업자 증가율은 3.3%로 9개도의 취업자 증가율 2.2%보다 높게 나타났다.
- 15개시도 중에서는 경기(6.7%)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천(6.3%), 광주(5.5%), 대전(4.8%), 대구(4.1%)의 순으로 나타났다.
- 실업률은 9개도보다 6대도시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도시지역에 취업기호가 상대적으로 많아 구직활동이 보다 활발하기 때문임.
- 6대도시는 평균 2.8%로 전년대비 0.4%p 감소하였고, 9개도의 실업률은 평균 1.3%로 전년대비 0.4%p 감소하였음.

< 지역 고용 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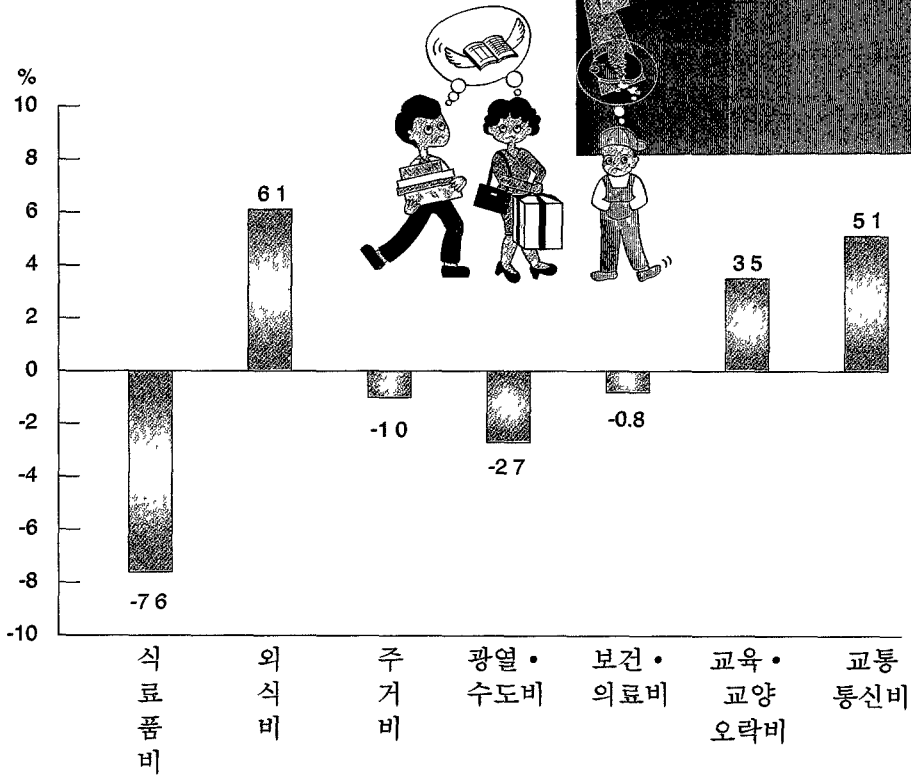
(단위: 천명, %)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94	'95	'95/'94		'94	'95	'94	'95	'95-94 (P)
			증	감					
전 국	19,837	20,377	540	2.7	489	419	2.4	2.0	-0.4
6대 도시	9,327	9,633	306	3.3	310	277	3.2	2.8	-0.4
서울	4,894	5,014	120	2.5	138	133	2.7	2.6	-0.1
부산	1,627	1,669	42	2.6	71	61	4.2	3.5	-0.7
대구	948	987	39	4.1	36	30	3.7	2.9	-0.8
인천	923	981	58	6.3	27	22	2.8	2.2	-0.6
광주	474	500	26	5.5	18	15	3.7	2.9	-0.8
대전	460	482	22	4.8	19	17	4.0	3.4	-0.6
9개도	10,510	10,744	234	2.2	179	142	1.7	1.3	-0.4
경강	3,264	3,482	218	6.7	66	53	2.0	1.5	-0.5
기원	636	626	-10	-1.6	6	5	0.9	0.8	-0.1
충북	599	603	4	0.7	12	9	2.0	1.5	-0.5
충남	916	907	-9	-1.0	10	9	1.1	1.0	-0.1
전북	832	835	3	0.4	20	16	2.4	1.9	-0.5
전남	1,076	1,061	-15	-1.4	13	13	1.2	1.2	0.0
경북	1,270	1,278	8	0.6	19	17	1.5	1.3	-0.2
경남	1,663	1,695	32	1.9	32	18	1.9	1.1	-0.8
제주	254	257	3	1.2	2	2	0.8	0.8	0.0

여 백

'95년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 동향

10년간('86~'95) 소비지출 증가율 추이



한편 최근 10년간('86~'95)의 소비지출 구조의 변화추이를 보면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 가사용품비, 보건의료비 등 필수적 소비지출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의식비, 교육교양 오락비, 교통통신비 등 선택적 소비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1995년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동향

1996. 3

통계조사국 사회통계과

I. 요약

1. '95년 가계소득·소비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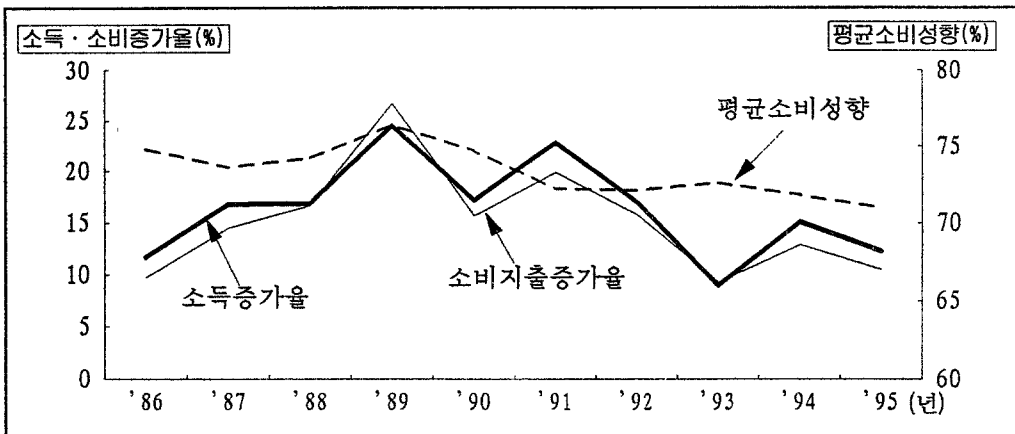
가. 개요

- '95년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은 높은 경제성장과 임금상승을 반영하여 '94년대비 12.3% 증가한 1,911.1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지출은 '94년대비 10.5% 증가한 1,230.6천원으로 나타났음
 - 평균소비성향은 71.0%로 '94년 71.8%에 비해 0.8%포인트 감소하였음
- '95년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의 증가율이 '94년의 증가율에 비해 각각 2.8%포인트, 2.4%포인트 낮게 나타났는데
 - 이는 경제성장의 둔화예상, '95년 하반기 사회분위기의 영향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가계수지 추이 >

(단위 : %)

연도	소득 증가율	소비지출 증가율	평균소비성향	연도	소득 증가율	소비지출 증가율	평균소비성향
'86	11.7	9.7	74.8	'91	22.8	19.9	72.2
'87	16.8	14.5	73.6	'92	17.0	15.8	72.1
'88	16.9	16.7	74.2	'93	9.0	9.3	72.6
'89	24.5	26.7	76.4	'94	15.1	12.9	71.8
'90	17.2	15.7	74.7	'95	12.3	10.5	71.0



나. 소득동향

- '95년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원천별 특징을 보면
 - 가구주 근로소득은 1,321.2천원으로 11.3% 증가하여 임금상승률(11.2%)과 같은 수준을 보였으며 가구원 근로소득은 321.4천원으로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 등을 반영하여 22.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 반면 재산 및 이전소득은 205.7천원으로 2.7% 증가하여 '94년의 증가율 26.5%에 비해 증가율이 크게 감소하였음

○ '95년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비지출동향의 특징을 보면

- 소비패턴의 고급화로 외식비, 교육·교양오락비에 대한 지출 증가율은 각각 18.3%, 17.3%로 '94년에 이어 높은 증가를 보인 반면
- 개인교통비에 대한 지출은 3.7% 증가하여 '94년의 증가율 49.7%에 비해 증가율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어느정도 충족되었기 때문임

라. 가계수지동향

- 가계소득중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은 1,732.6천원으로 '94년대비 11.7% (181.6천원) 증가하였음
-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흑자액은 502.0천원으로 '94년대비 14.8% (64.8천원) 증가하였으며 가처분소득중 흑자액의 비율인 흑자율은 29.0%로 '94년대비 0.8%포인트 증가하였음
- 따라서 평균소비성향은 71.0%로 '94년대비 0.8%포인트 감소하였음

마. 가구특성별 가계수지의 특징

- 가구원수별로 소득원천별 구성비를 보면 4인가구에서 근로소득 비중이 가장 높고 재산 및 이전소득의 비중은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높게 나타났음
- 가구주 연령계층별로는 50대초반 계층의 소득이 가장 높고 평균소비성향은 교육비의 지출비중이 가장 큰 40대후반 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맞벌이가구의 경우 남편 근로소득은 1,292.0천원으로 '94년 1,156.3천원에 비해 11.7% 증가하였고 처의 근로소득은 580.2천원으로 '94년 513.0천원에 비해 13.1% 증가하였음

바. 소득분배구조

- 소득집중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86년 0.3069에서 '95년 0.2837로 감소되어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분배상태는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소득 5분위별 소득점유율의 배율 (V/I) 즉 5분위의 소득점유율을 1분위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배율도 '86년 5.00에서 '95년 4.41배로 분배구조가 개선되었음

2. '95년 4/4분기 가계소득·소비동향

- '95년 4/4분기 가계수지동향을 살펴보면 소득증가율 및 소비지출 증가율이 둔화되었음
- '95년 4/4분기 소득증가율은 11.1%로 '94년 4/4분기의 증가율 16.2%에 비해 5.1%포인트 낮아졌음
- 한편 '95년 4/4분기 소비지출 증가율은 8.6%로 '94년 4/4분기의 증가율 16.1%에 비해 7.5%포인트 낮아졌음
- 이에따라 '95년 4/4분기 가계수지는 소비지출의 증가율이 소득증가율보다 낮아서 평균소비성향은 72.0%로 '94년 4/4분기 평균소비성향 73.2%에 비해 1.2%포인트 낮아졌음

Ⅱ. '95년 가계수지 동향

1. 소득 동향

가. 개황

- '95년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11.1천원으로 '94년 1,701.3천원에 비해 12.3% 증가하였음
-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90년기준 실질소득은 1,414.6천원으로 '94년대비 7.5% 증가하였음
- ※ 근로자 월평균임금상승률(매월노동통계조사)은 '94년 12.7%에서 '95년 11.2%로 상승률이 둔화되었음

< 연도별 소득 추이 >

(단위 : 천원, 전년대비, %)

	'90	'91	'92	'93	'94	'95
명목소득 (증가율)	943.3 17.2	1,158.6 22.8	1,356.1 17.0	1,477.8 9.0	1,701.3 15.1	1,911.1 12.3
실질소득 (증가율)	943.3 7.9	1,060.0 12.4	1,168.1 10.2	1,214.3 4.0	1,315.8 8.4	1,414.6 7.5
소비자물가상승률	8.6	9.3	6.2	4.8	6.2	4.5
GNP 성장률	9.6	9.1	5.0	5.8	8.4	8.7(p)

※ 실질금액 = 명목금액 / 소비자물가지수 × 100

나. 소득원천별 동향

- '95년 도시근로자가구의 근로소득은 1,642.5천원으로 '94년 1,449.0천원에 비해 13.4% 증가했음
 - 가구주 근로소득은 1,321.2천원으로 '94년에 비해 11.3% 증가하였고 가구원 근로소득은 321.4천원으로 '94년대비 22.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가구당 평균취업인원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 ※ 가구당 취업인원수는 '95년 1.54명으로 '94년 1.50명에 비해 2.7% 증가
 -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95년 48.3%로 '94년 47.9%에 비해 0.4%포인트 증가
- 기타소득은 268.5천원으로 '94년대비 6.4%증가하여 '94년 증가율 24.8%에 비해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음
 - 부업소득은 62.8천원으로 '94년대비 20.9% 증가하였음

- 재산 및 이전소득의 증가율은 2.7%로 '94년 증가율 26.5%에 비해 낮아짐
- 이는 수증보조등 이전소득, 이자 및 임대소득 등 재산소득의 증가율이 둔화된데 기인함

○ 이에따라 근로소득의 비중은 85.9%로 '94년 85.2%에 비해 0.7%포인트 증가한 반면, 기타소득의 비중은 14.1%로 '94년 14.8%에 비해 0.7%포인트 감소하였음

- 근로소득의 경우 가구주 근로소득의 비중은 0.7%포인트 감소하였으나 가구원 근로소득의 비중이 1.4%포인트 증가하여 전체 근로소득의 비중이 증가하였음

< 가구당 월평균 소득 >

(단위 : 천원, 전년대비, %)

구 분	1993년		1994년			1995년		
	금 액	증감률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소 득	1,477.8	9.0	1,701.3	100.0	15.1	1,911.1	100.0	12.3
근로소득	1,275.7	10.3	1,449.0	85.2	13.6	1,642.5	85.9	13.4
· 가구주	1,066.8	8.2	1,187.2	69.8	11.3	1,321.2	69.1	11.3
· 가구원	208.9	22.5	261.9	15.4	25.3	321.4	16.8	22.7
기타소득	202.1	1.3	252.3	14.8	24.8	268.5	14.1	6.4
재산·이전	158.4	△1.2	200.3	11.8	26.5	205.7	10.8	2.7
부업소득	43.7	11.8	52.0	3.1	18.8	62.8	3.3	20.9

○ 소득원천별 구성비의 추이를 보면 가구주의 근로소득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가구원의 근로소득 비중은 늘어나고 있음

- 가구주 근로소득 비중은 '86년 77.8%에서 '95년 69.1%로 8.7%포인트 감소한 반면, 가구원 근로소득 비중은 '86년 10.7%에서 '95년 16.8%로 6.1%포인트 증가하였고 기타소득은 '86년 11.5%에서 '95년 14.1%로 2.6%포인트 증가하였음

< 소득 원천별 구성비 추이 >

(단위: %)

구 분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소 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근로소득	88.5	87.3	87.7	86.3	85.8	85.1	85.3	86.3	85.2	85.9
가 구 주	77.8	75.1	75.4	73.9	73.3	71.6	72.7	72.2	69.8	69.1
가 구 원	10.7	12.2	12.2	12.3	12.5	13.5	12.6	14.1	15.4	16.8
기타소득	11.5	12.7	12.3	13.7	14.2	14.9	14.7	13.7	14.8	14.1
재산및이전	8.9	10.0	9.6	11.2	11.6	11.9	11.8	10.7	11.8	10.8
부업소득	2.6	2.7	2.7	2.5	2.6	3.0	2.9	3.0	3.1	3.3

2. 가계지출 동향

가. 개 황

- '95년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은 1,409.1천원으로 '94년 1,264.0천원에 비해 11.5% 증가하였음
- 소비지출은 1,230.6천원으로 '94년에 비해 10.5% 증가했으며, 비소비지출은 178.5천원으로 '94년에 비해 18.8% 증가하였음

나. 소비지출 비목별 동향

- '95년 도시근로자 소비지출 비목별 동향의 두드러진 특징을 보면,
- 교육비가 학원비의 인상, 수능시험 대비를 위한 보충수업 등의 요인으로 19.4%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 외식비도 '94년의 증가율에 비해 둔화되기는 하였지만 18.3%의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 개인교통비에 대한 지출은 3.7% 증가하여 '94년의 증가율 49.7%에 비해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는데 이는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어느정도 충족되었기 때문임

<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

(단위 : 천원, 전년대비, %)

구 분	1994년				1995년			
	금액	구성비	증감률	기여도	금액	구성비	증감률	기여도
가 계 지 출	1,264.0	-	14.3	-	1,409.1	-	11.5	-
소 비 지 출	1,113.7	100.0	12.9	-	1,230.6	100.0	10.5	-
식 료 품 (외 식)	328.7 100.3	29.5 9.0	13.7 23.6	4.0 1.9	353.8 118.6	28.8 9.6	7.7 18.3	2.3 1.6
주 거 비	43.0	3.9	0.3	0.0	45.9	3.7	6.7	0.3
광 열 수 도	43.7	3.9	3.3	0.1	50.0	4.1	14.4	0.6
가 구 가 사	56.2	5.0	10.3	0.5	59.6	4.8	6.0	0.3
피 복 신 발	85.7	7.7	13.3	1.0	97.5	7.9	13.8	1.1
보 건 의 료	55.0	4.9	4.1	0.2	58.5	4.8	6.4	0.3
교 육 교 양 오 략 (교 육 비)	150.9 96.3	13.5 8.6	13.2 11.9	1.8 1.0	177.0 115.0	14.4 9.3	17.3 19.4	2.3 1.7
교 통 통 신 (개인 교통비)	133.5 78.9	12.0 7.1	32.5 49.7	3.3 2.6	142.7 81.9	11.6 6.7	6.9 3.7	0.8 0.3
기 타 소 비 지 출 (잡 비)	217.1 171.0	19.5 15.4	9.3 8.0	1.9 1.3	245.6 190.8	20.0 15.5	13.1 11.6	2.6 1.8
비 소 비 지 출	150.4	-	26.0	-	178.5	-	18.8	-

○ 한편 최근 10년간('86~'95)의 소비지출 구조의 변화추이를 보면,

-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보건의료비 등 필수적 소비지출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 소비지출에 대한 식료품 구성비인 엔겔계수는 '86년 36.4에서 '95년 28.8로 7.6포인트 감소하였음
 - 동기간중 주거비의 비중은 4.7%에서 3.7%로, 광열수도비는 6.8%에서 4.1%로 감소하였고,
 - 보건의료비는 5.6%에서 4.8%로 감소하였음
- 반면, 외식비, 교육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등 선택적 소비지출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식료품비 비중의 계속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외식비는 그 비중이 '86년 3.5%에서 '95년 9.6%로 6.1%포인트 증가하였음
 - 교육교양오락비는 '86년 10.9%에서 '94년 14.4%로 3.5%포인트 증가하였고,
 - 교통통신비는 '86년 6.5%에서 '95년 11.6%로 5.1%포인트 증가하였으며 특히, 개인교통비는 동기간중 0.3%에서 6.7%로 크게 증가하였음

< 지난 10년간 소비지출 구성비 구조의 변화 >

(단 위 : %)

구 분	'86	'89	'90	'91	'92	'93	'94	'95	'95 - '86
소 비 지 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식 료 품 (외 식)	36.4 3.5	32.4 6.5	32.5 7.0	31.8 7.3	30.4 7.6	29.3 8.2	29.5 9.0	28.8 9.6	Δ7.6 6.1
· 주 거	4.7	4.2	4.6	4.4	4.2	4.3	3.9	3.7	Δ1.0
· 광 열·수 도	6.8	4.6	4.5	4.1	4.1	4.3	3.9	4.1	Δ2.7
· 가 구 가 사 용 품	5.2	5.9	5.8	5.8	5.5	5.2	5.0	4.8	Δ0.4
· 피 복·신 발	7.8	8.6	8.4	8.1	8.0	7.7	7.7	7.9	0.1
· 보 건·의 료	5.6	5.5	5.3	5.3	5.4	5.4	4.9	4.8	Δ0.8
· 교 육 교 양 오 락 (교 육 비)	10.9 7.2	12.0 7.3	11.9 7.5	12.4 7.7	13.3 8.6	13.5 8.7	13.5 8.6	14.4 9.3	3.5 2.1
· 교 통·통 신 (개 인 교 통)	6.5 0.3	8.2 2.9	8.4 3.5	8.8 3.9	9.2 4.5	10.2 5.3	12.0 7.1	11.6 6.7	5.1 6.4
· 기 타 소 비 지 출 (잡 비)	16.1 12.4	18.6 14.4	18.6 14.4	19.2 15.2	20.0 16.1	20.1 16.0	19.5 15.4	20.0 15.5	3.9 3.1

1) 식 료 품

○ 식료품비는 353.8천원으로 '94년에 비해 7.7% 증가하였음

- 주요품목별로는 육류가 10.5% 증가하였고, 외식비도 18.3%로 증가추세를 보인 반면, 곡류와 채소·해조류는 각각 1.2%, 3.0% 소폭 감소를 보였음
- 가격탄력성이 큰 육류의 경우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소비가 크게 증가한 반면, 채소·해조류의 경우는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채소·해조류에 대한 지출이 감소하였음

< 식 료 품 비 지 출 추 이 >

(단위 : 천원, 전년대비, %)

구 분	1994년			1995년			소 비 자 가 륜 상 승 륜
	금 액	구 성 비	증 감 륜	금 액	구 성 비	증 감 륜	
식 료 품	328.7	100.0	13.7	353.8	100.0	7.7	3.4
곡 류	39.9	12.1	1.5	39.4	11.1	Δ1.2	3.7
육 류	35.5	10.8	6.2	39.2	11.1	10.5	Δ 0.6
채 소 · 해 조 류	34.4	10.5	18.3	33.4	9.4	Δ3.0	Δ 7.0
외 식	100.3	30.5	23.6	118.6	33.5	18.3	5.5

○ 최근 10년간('86~'95) 식료품비중 주식, 부식, 기호식품, 외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소득수준 향상과 식생활패턴의 변화로 주식과 부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한 반면, 외식과 기호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였음

- 특히 주식의 비중은 '86년 28.2%에서 '95년 11.1%로 크게 감소하였고, 외식의 비중은 9.6%에서 33.5%로 높게 증가하여 식료품비중 1/3을 넘고 있음

< 식 품 종 류 별 구 성 비 추 이 >

(단위 : 천원, 전년대비, %)

구 분	1995년		구 성 비				
	금 액	증 감 륜	'86	'90	'93	'94	'95
식 료 품	353.8	7.7	100.0				
주 식	39.4	Δ1.2	28.2	19.4	13.6	12.1	11.1
부 식	132.9	3.8	45.4	41.9	40.3	38.9	37.6
기 호 식 품	62.9	3.8	16.8	17.1	18.0	18.4	17.8
외 식	118.6	18.3	9.6	21.6	28.1	30.5	33.5

주) 주식은 곡류, 부식은 육류, 유란, 어개류, 채소, 해조, 유지 및 조미료, 기호식품은 과실, 빵 및 과자류, 음료, 주류, 외식은 외식비를 나타냄.

2) 교육·교양오락

- 교육비는 115.0천원으로 '94년에 비해 19.4%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 이는 학원비의 인상, 수능시험 대비 등으로 보충교육비의 지출이 높게 증가하였고 해외연수, 취학전 자녀의 학습지 등에 대한 지출도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 교양오락비는 62.0천원으로 '94년에 비해 13.6% 증가하였음
 - 교양오락용품비의 증가율은 8.5%로 대형TV 등 일부품목의 소비자가격이 특소세인하로 하락하여 '94년에 비해 증가율이 둔화되었음
 - 반면 여가선용과 관련하여 등산, 낚시, 스포츠·오락시설의 이용 및 강습료에 대한 지출의 증가로 교양오락서비스에 대한 지출증가율은 20.4%로 '94년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 월평균 교육교양오락비 지출 및 소비지출 구성비 >

(단위 : 천원, 전년대비, %)

구 분	1994년			1995년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교육비	96.3	8.6	11.9	115.0	9.4	19.4
·납입금	40.6	3.6	11.6	44.0	3.6	8.3
·보충교육비	39.2	3.5	12.3	45.6	3.7	16.3
·기타교육비	13.5	1.2	14.2	22.1	1.8	64.6
교양오락비	54.6	4.9	15.4	62.0	5.0	13.6
·교양오락용품	31.2	2.8	16.0	33.8	2.7	8.5
·교양오락서비스	23.4	2.1	15.3	28.2	2.3	20.4

3) 교통·통신

- 교통·통신비는 142.7천원으로 6.9% 증가해 '94년 증가율 32.5% 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였음
 - 특히 개인교통비의 증가율이 3.7%로 '94년 49.7%에 비해 증가율이 크게 낮아짐
 - 이는 자동차 보유가구가 증대되면서 신규차량 구입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임

	'93년	증가율	'94년	증가율	'95년	증가율
자가용승용차 신규등록대수 (천대, %)	804.3	12.0	869.0	8.0	847.7	△2.4

(자료: 건설교통부)

- 통신비는 '94년에 비해 19.6% 증가해 계속 높은 증가추세를 보였음
 - 이는 이동전화 및 무선호출기의 사용증가와 PC보급의 확대에 따라서 PC통신 이용료 등의 지출이 증가한 때문임

< 월평균 교통통신비 지출 및 소비지출 구성비 >

(단위 : 천원, 전년대비, %)

구 분	1994년			1995년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교 통 · 통 신	133.5	12.0	32.5	142.7	11.6	6.9
· 공공교통비	35.8	3.2	13.3	38.4	3.1	7.2
· 개인교통비	78.9	7.1	49.7	81.9	6.7	3.7
(승용차구입)	38.9	3.5	60.6	36.5	3.0	△6.3
(승용차유지)	39.6	3.6	41.5	44.9	3.7	13.5
· 통 신 비	18.8	1.7	14.4	22.4	1.8	19.6

4) 주거, 광열·수도

- 주거비는 45.9천원으로 '94년에 비해 6.7% 증가하였음
- 광열·수도비는 50.0천원으로 14.4% 증가하여 '94년 증가율 3.3%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 이는 전기료의 인상 및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증가로 인해 전기료 및 연료비의 증가율이 15.7%로 6.0천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 월평균 주거, 광열·수도 지출 및 소비지출 구성비 >

(단위: 천원, 전년대비, %)

구 분	1994년			1995년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금 액	구성비	증감률
○ 주 거 비	43.0	3.9	0.3	45.9	3.7	6.7
○ 광 열 · 수 도	43.7	3.9	3.3	50.0	4.1	14.4
· 수 도 료	6.0	0.5	11.9	6.3	0.5	6.4
· 전기료 및 연료	37.7	3.4	2.0	43.7	3.5	15.7

5) 가구가사, 피복·신발, 보건·의료

- 가구가사용품비는 59.6천원으로 '94년에 비해 6.0% 증가하였음
 - 장식장, 응접세트, 냉장고, 선풍기 등 일반가구 및 가전용기구에 대한 지출이 7.5% 증가하여 '94년에 비해 증가율이 둔화되었음
- 피복·신발비는 97.5천원으로 '94년에 비해 13.8% 증가함으로써 '94년에 이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음
 - 신사·숙녀복, 코트 등 외의의 소비지출이 15.1% 증가하였음
- 보건·의료비는 58.5천원으로 '94년에 비해 6.4% 증가하였음

< 월평균 가구가사, 피복·신발, 보건·의료 지출 및 소비지출 구성비 >

(단위 : 천원, 전년대비, %)

구 분	1994년			1995년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금 액	구성비	증감률
○ 가구가사용품	56.2	5.0	10.3	59.6	4.8	6.0
· 일반가구 및 · 가정용기구	27.8	2.5	12.5	29.8	2.4	7.5
○ 피 복·신 발	85.7	7.7	13.3	97.5	7.9	13.8
· 외 의	50.6	4.5	16.3	58.3	4.7	15.1
○ 보 건·의 료	55.0	4.9	4.1	58.5	4.8	6.4

6) 기타소비지출

- 기타소비지출은 245.6천원으로 '94년대비 13.1%(28.5천원) 증가하였음
- 회비 및 교제비, 관혼상제비 등 잡비는 11.6%(19.8천원) 증가하였고
- 이미용 관련비용의 지출은 16.0%(4.6천원) 증가하였음

< 월평균 기타소비지출 및 소비지출 구성비 >

(단위 : 천원, 전년대비, %)

구 분	1994년			1995년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기타소비지출	217.1	19.5	9.3	245.6	20.0	13.1
· 잡 비	171.0	15.4	8.0	190.8	15.5	11.6
· 이 미 용	28.7	2.6	13.7	33.3	2.3	16.0

다. 비소비지출 동향

- 비소비지출은 178.5천원으로 '94년대비 18.8%(28.1천원) 증가하였음
- 가계소득의 증가로 근로소득세 등의 조세부담액이 59.2천원으로 '94년대비 22.1% 증가하였음
- 가족·친지 등의 생활보조를 위한 송금 등 기타비소비지출은 60.5천원으로 '94년대비 22.2% 증가하였음

< 월평균 비소비지출 >

(단위: 천원, 전년대비, %)

구 분	1994년			1995년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금 액	구성비	증감률
비 소비 지 출	150.4	100.0	26.0	178.5	100.0	18.8
조 세	48.5	32.2	22.8	59.2	33.1	22.1
사회보장분담금	35.3	23.5	14.5	39.8	22.3	12.8
이 자	17.1	11.4	17.6	19.1	10.7	11.5
기타비소비지출	49.5	32.9	43.4	60.5	33.9	22.2

3. 가계수지 동향

가. 가처분소득

- '95년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은 1,732.6천원으로 '94년에 비해 11.7%(181.6천원) 증가하였음

< 월평균 가처분 소득 >

(단위: 천원, 전년대비, %)

구 분	1994년	1995년	증 감 액	증 감 률
소 득	1,701.3	1,911.1	209.8	12.3
비 소비 지 출	150.4	178.5	28.1	18.8
가 처 분 소 득	1,551.0	1,732.6	181.6	11.7

나. 흑자(율)

-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흑자액은 502.0천원으로 '94년대비 14.8%(64.8천원) 증가하였으며,
- 이에따라 가처분소득중 흑자액의 비율인 흑자율은 29.0%로 '94년의 28.2%보다 0.8%포인트 증가하였음.

< 월평균 흑자액 >

(단위: 천원, 전년대비, %)

구 분	1993년	1994년	증 감 률	1995년	증 감 률
가처분소득	1,358.5	1,551.0	14.2	1,732.6	11.7
소 비 지 출	986.2	1,113.7	12.9	1,230.6	10.5
흑 자 액	372.3	437.2	17.4	502.0	14.8
흑 자 율	27.4	28.2	0.8p	29.0	0.8p

※ 흑자액 = 가처분소득 - 소비지출
 흑자율 = 흑자액 ÷ 가처분소득

다. 소비성향

○ 평균소비성향과 한계소비성향은 '94년에 비해 각각 0.8%포인트, 1.9%포인트 감소한 71.0%, 64.3%로 나타남

- 이는 소득증가율의 둔화, 경제성장률의 향후 둔화예상 및 '95년 하반기 사회 분위기의 영향으로 소비지출이 자제되어 가처분소득이 11.7% 증가한데 반해 소비지출은 이보다 낮은 10.5% 증가에 그쳤기 때문임
- 한계소비성향이 감소한 것은 소득증가의 속도가 소비지출 증가속도를 초과하였기 때문임

○ 지난 '86년이후 10년간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비성향 추이를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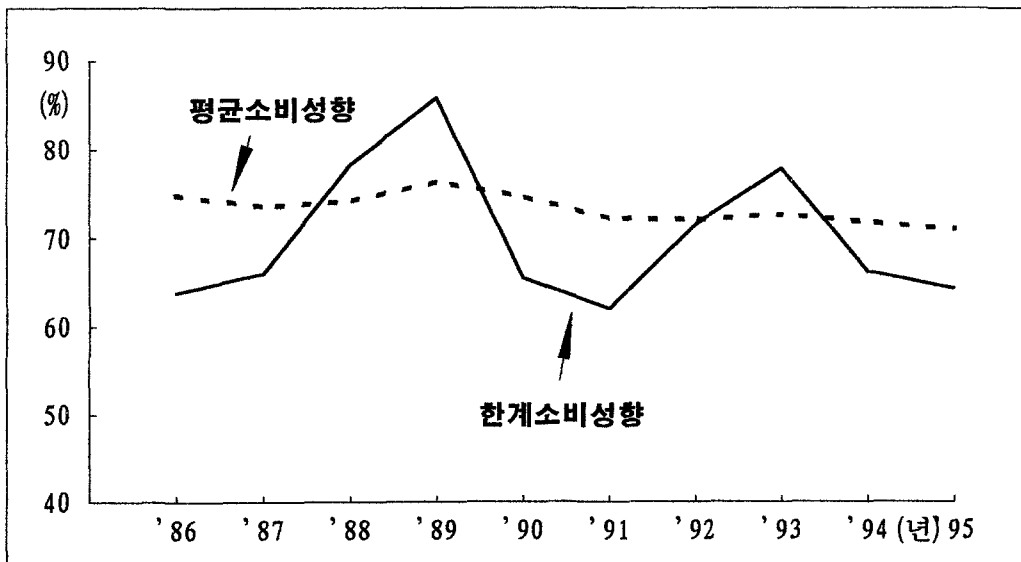
- 평균소비성향은 장기적으로 소득증가에 따라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 한계소비성향은 '87~'89년, '92~'93년 상승추세를 보였는데, '87~'89년 기간중에는 사회전반에 확산된 과소비에 기인하였으나 '92~'93년 기간중에는 '90년대 초반 경기부진에 따른 소득증가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출 증가세가 둔화되지 않은데 기인함

< 소비성향 추이 >

(단위: %)

구 분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평균소비성향	74.8	73.6	74.2	76.4	74.7	72.2	72.1	72.6	71.8	71.0
한계소비성향	63.8	66.0	78.3	85.9	65.5	62.0	71.6	77.8	66.2	64.3

※ 평균소비성향 = 소비지출 ÷ 가처분소득 × 100
 한계소비성향 = 소비지출증가분 ÷ 가처분소득증가분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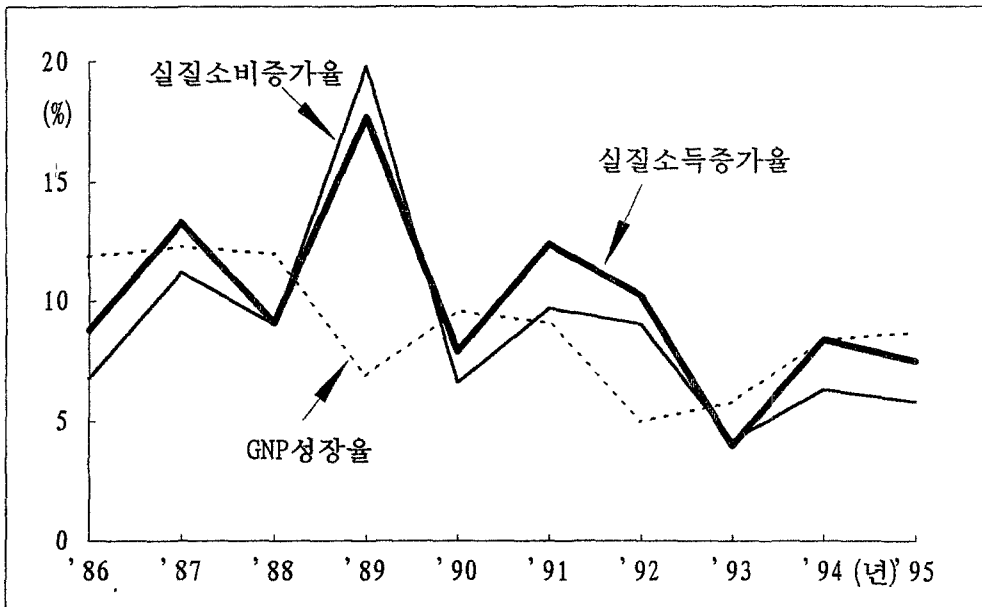


< GNP대비 가계수지 추이 >

(단위 : %)

연도	실질소득증가율	실질소비지출증가율	GNP성장률	연도	실질소득증가율	실질소비지출증가율	GNP성장률
'86	8.8	6.8	11.9	'91	12.4	9.7	9.1
'87	13.3	11.2	12.3	'92	10.2	9.0	5.0
'88	9.1	9.0	12.0	'93	4.0	4.2	5.8
'89	17.7	19.8	6.9	'94	8.4	6.3	8.4
'90	7.9	6.6	9.6	'95	7.5	5.8	8.7(p)

※ 실질금액 = 명목금액 / 소비자물가지수 × 100



4. 특성별 가계수지

가. 가구원수별 가계수지

1) 소득원천별 분포

- 도시근로자가구의 '95년 가계소득은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취업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월평균소득은 2인가구가 1,577.2천원이며, 4인가구가 1,963.5천원으로 2인가구의 1.24배임
- 소득원천별 구성비를 보면,
 - 근로소득의 비중은 4인가구가 87.8%로 가장 높고, 재산 및 이전소득의 비중은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음

< 가구원수별 소득원천별 구성비 >

(단위 : 천원, %)

구 분	평균	2 인	3 인	4 인	5 인	6인이상
취업인원수(명)	1.54	1.40	1.44	1.47	1.81	2.24
가구주연령(세)	39.35	37.46	38.32	39.62	41.25	42.98
소득 2인가구기준 배율	1,911.1 -	1,577.2 (1.00)	1,795.6 (1.14)	1,963.5 (1.24)	2,122.5 (1.35)	2,488.4 (1.58)
소득원천별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근로소득	85.9	85.4	83.3	87.8	86.2	84.3
재산 및 이전소득	10.8	12.9	13.3	9.0	10.1	10.8
부업소득	3.3	1.7	3.4	3.3	3.7	4.9

2) 소비지출 구조

- 가구원수별 소비지출은 2인가구가 929.5천원, 4인가구가 1,302.3천원으로 4인가구가 2인가구의 1.40배를 지출하였음
 - 소비지출이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는 것은 가구원수의 증가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여 1인당 소비지출이 체감하기 때문임
- 가구원수별로 소비지출 비목별 구성비를 보면
 -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대체로 증가하여 6인이상가구에서 30.2%로 가장 높았음
 - 외식비의 경우는 2인가구에서 11.2%로 가장 높고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음
 - 교육·교양오락비에 대한 지출은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5인가구에서 1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특히 교육비에 대한 지출비중은 3인가구가 5.7%, 4인가구에서 크게 증가하여 11.2%, 5인가구에서 13.4%를 나타냈음

- 피복·신발비, 교통·통신비, 잡비는 2인가구에서 각각 8.9%, 13.9%, 17.6%로 지출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광열·수도비에 대한 지출비중은 가구원수에 관계없이 일정함을 보였음

〈 가구원수별 소비지출 구조 〉

(단위 : 천원, %)

구 분	평 균	2 인	3 인	4 인	5 인	6인이상
소 비 지 출 2인가구기준 배율	1,230.6 -	929.5 (1.00)	1,128.7 (1.21)	1,302.3 (1.40)	1,408.2 (1.52)	1,568.1 (1.69)
소비지출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 료 품 (외 식 비)	28.8 9.6	28.1 11.2	28.8 10.3	28.5 9.2	29.3 9.0	30.2 9.4
주 광 열 · 수 도	3.7 4.1	5.0 4.0	3.9 4.1	3.7 4.0	3.2 4.3	2.6 4.4
가 구 · 가 사 용 품	4.8	4.5	5.7	4.9	3.9	4.0
피 복 · 신 발	7.9	8.9	7.9	7.7	7.9	7.8
보 건 · 의 료	4.8	5.1	5.2	4.5	4.7	4.6
교 육 · 교 양 · 오락 (교 육 비)	14.4 9.3	7.6 2.4	11.2 5.7	16.1 11.2	17.8 13.4	17.4 11.8
교 통 · 통 신 (개 인 교 통)	11.6 6.7	13.9 7.6	12.4 7.1	11.6 7.2	9.6 4.5	9.1 4.2
기 타 소 비 지 출 (잡 비)	20.0 15.5	22.9 17.6	20.7 15.8	19.1 15.0	19.3 15.1	19.9 15.7

3) 흑자규모 및 소비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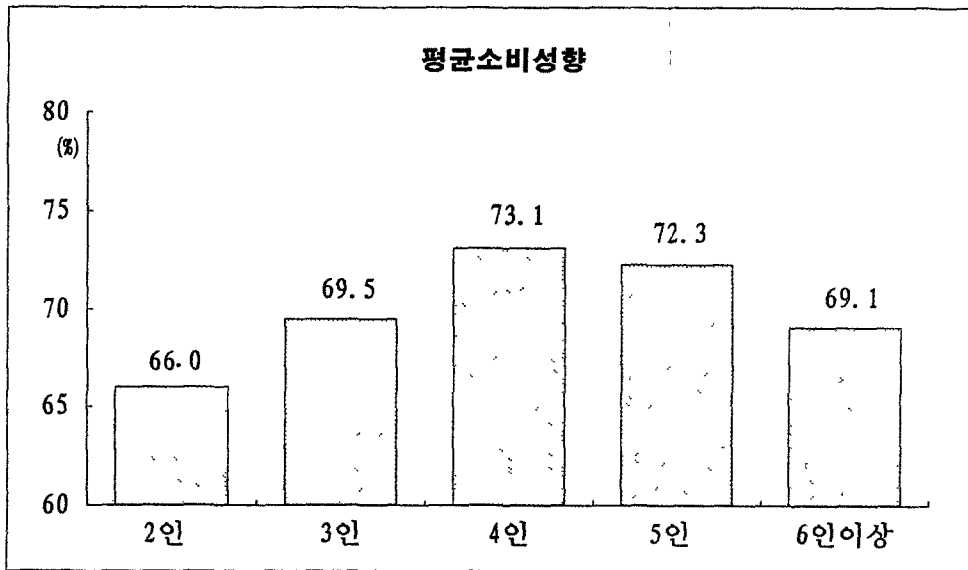
- '95년 도시근로자가구의 흑자액은 가구원수가 6인이상인 가구가 700.8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인가구에서 478.8천원으로 가장 낮았음
- 흑자율은 2인가구가 34.0%로 가장 높으며 가구원수가 많아질수록 낮아져 4인가구에서 26.9% 가장 낮고 5인가구에서 부터 다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신혼가구, 노인가구 등 2인가구는 육아비, 교육비 등의 지출부담이 없어 흑자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가구원수가 많아짐에 따라 2~4인가구는 부양비용이 증가하여 흑자율이 낮아짐
 - 반면 5인이상가구에서 흑자율이 다시 상승하는 것은 취업인원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소득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임
- 이에따라 평균소비성향은 2인가구가 66.0%로 가장 낮고 가구원수가 많아짐에 따라 높아져 4인가구의 경우 73.1%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다 5인이상에서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가구원수별 흑자(율) 및 소비성향 >

(단위 : 천원, %)

구 분	평 균	2 인	3 인	4 인	5 인	6인이상
가 처 분 소 득	1,732.5	1,408.9	1,623.7	1,781.1	1,946.8	2,268.9
흑 자 액	502.0	479.5	495.0	478.8	538.7	700.8
흑 자 율	29.0	34.0	30.5	26.9	27.7	30.9
평균소비성향	71.0	66.0	69.5	73.1	72.3	69.1

< 가구원수별 평균소비성향 >



나. 가구주연령별 가계수지

1) 소득원천별 분포

- 연령계층별 '95년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은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55세이상 계층부터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가구주 연령이 24세이하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279.3천원이며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대체로 소득이 증가하여 50~54세 연령계층에서는 2,356.5천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55세이상 계층에서는 정년퇴직 등으로 인해 다시 감소 추세를 보였음
- 가구주의 연령계층별로 소득원천별 구성비를 보면,
 - 근로소득의 비중은 20대초반 80.2%에서 40대초반의 88.3%까지 대체로 증가하다가 40대후반부터 감소하고 있음

- 반면 재산 및 이전소득의 비중은 20대초반에서 18.4%로 가장 높고 40대초반에서 8.8%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 이는 20대계층의 가구에서 경제자립도가 취약하여 부모 등 타가구로 부터의 이전소득이 많아 높게 나타났으나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40대후반 이후 계층의 가구에서 재산축적에 따른 이자 및 임대료 등 재산소득이 증가하여 다시 재산 및 이전소득이 증가하고 있음
- 반면 50대후반이상 계층의 가구가 재산 및 이전소득 비중이 높은 것은 자녀 등으로 부터의 보조 또한 증가하기 때문임

< 연령계층별 소득 구성비 >

(단위 : 명, 천원, %)

구 분	평균	-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
취업 인원수	1.54	1.48	1.45	1.35	1.37	1.49	1.70	2.01	1.92
소 득	1911.1	1279.3	1703.2	1827.8	1906.3	1897.5	2035.2	2356.5	2087.6
소득원천별 구 성 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근로 소득	85.9	80.2	84.6	88.1	86.6	88.3	86.5	85.6	79.9
· 가구주	69.1	58.3	66.9	75.6	76.4	74.2	67.8	59.5	52.1
· 가구원	16.8	21.9	17.7	12.5	10.2	14.1	18.7	26.1	27.8
재산·이전 부업 소득	10.8	18.4	13.5	9.6	8.9	8.8	9.5	10.8	16.1
	3.3	1.4	1.9	2.4	4.5	2.9	4.0	3.6	4.0

2) 소비지출 구조

- 가구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 뿐 아니라 소비지출 규모도 커지는데 50대초반 연령계층의 가구 소비지출이 1479.3천원으로 가장 높고 50대후반 계층에서는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가구주 연령계층별 소비지출 구조를 보면
 - 20대가구는 신혼기로서 외식비, 주거비, 피복신발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에 대한 지출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 특히 주거비, 피복신발비 및 교양오락비의 비중은 20대초반 가구가 많고 교통통신비의 비중은 20대후반 가구가 가장 높았음
 - 30대가구는 자녀의 취학으로 교육비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기 시작하고 식료품비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40대가구는 중·고등학생 자녀를 두고있는 만큼 교육비에 대한 지출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50대가구에서는 경조비, 교제비 등의 잡비의 지출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건강유지와 관련된 보건의료비에 대한 지출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소비지출의 비목별 구성비 >

(단위 : 명, 천원, %)

구 분	평균	-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
가 구 인 원 수	3.71	2.68	3.08	3.61	3.99	4.05	4.11	3.93	3.40
소 비 지 출	1230.6	862.0	1113.5	1114.0	1257.4	1271.7	1356.1	1479.3	1314.7
소비지출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식 료 품 (외 식)	28.8 9.6	29.4 12.1	28.0 11.1	29.6 10.5	28.9 9.0	28.7 8.3	28.0 8.5	28.0 10.2	29.1 9.7
· 주 거 · 광 열 수도	3.7 4.1	7.3 4.1	3.9 3.9	3.3 4.2	4.3 4.1	3.8 4.0	3.3 4.1	3.0 3.9	3.5 4.1
· 가 구 가 사 용 품 · 피 복 신 발	4.8 7.9	3.6 10.6	5.7 8.9	5.9 7.9	5.3 7.5	4.2 7.7	3.8 7.5	3.8 7.9	4.5 7.8
· 보 건 의 료	4.8	3.8	4.9	5.0	4.6	4.4	4.3	4.8	5.4
· 교 육 교 양 오 략 (교 육) (교 양 오 략)	14.4 9.3 5.0	12.0 5.6 6.4	8.1 2.5 5.6	10.3 4.8 5.4	16.9 11.2 5.7	20.3 16.0 4.3	20.7 16.5 4.2	15.2 10.6 4.6	8.9 4.4 4.5
· 교 통 통 신 (개 인 교 통)	11.6 6.7	10.3 2.6	14.4 8.6	13.7 9.0	11.0 7.0	9.5 5.0	9.7 4.2	11.5 6.2	11.1 5.7
· 기 타 소 비 지 출 (잡 비)	20.0 15.5	18.9 12.9	22.3 16.7	20.2 15.3	17.4 13.3	17.4 13.5	18.6 14.8	21.8 17.8	25.6 20.7

3) 흑자(울) 규모 및 소비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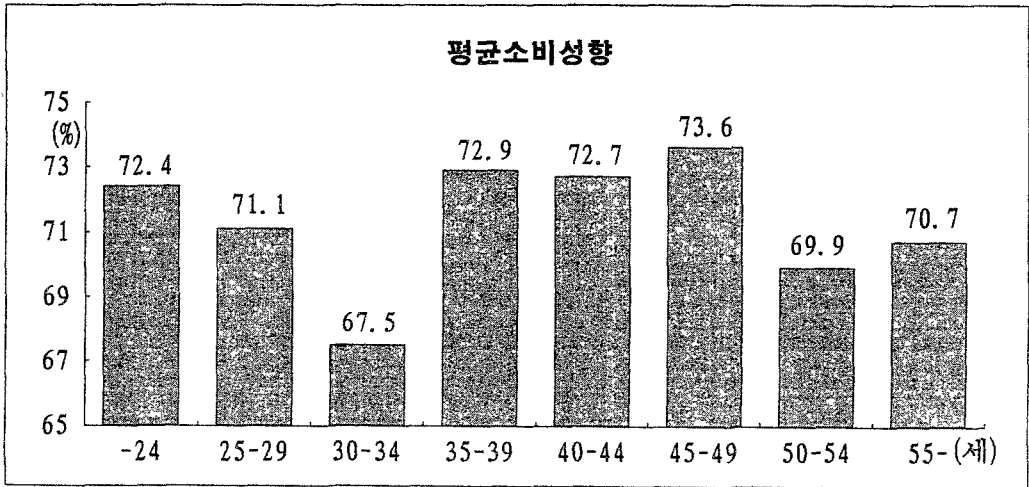
- 연령계층별 '95년 도시근로자가구의 흑자액은 소득이 높은 50대초반 계층이 636.0천원으로 가장 많고 20대초반 계층이 329.1천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음
- 흑자율은 30대초반 계층이 32.5%로 가장 높고 교육비의 부담이 가장 큰 40대 후반계층이 26.4%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 반면 평균소비성향은 20대초반에서 30대초반에 이르기까지 감소하고 30대후반 부터 40대후반까지 증가하다 50대에 들어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이는 30대초반까지는 자녀교육비 등의 지출부담이 적어 평균소비성향이 낮으나 30대후반이후 자녀교육비 및 기타소비지출 등이 증가하면서 평균소비성향이 높아지고 있음

< 연령계층별 가계수지 >

(단위 : 천원, %)

구 분	평균	-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
가처분 소득	1732.5	1191.1	1565.8	1649.7	1726.0	1748.6	1843.7	2115.3	1858.4
흑 자 액 흑 자 율	502.0 29.0	329.1 27.6	452.4 28.9	535.6 32.5	468.6 27.1	476.8 27.3	487.6 26.4	636.0 30.1	543.7 29.3
평균소비성향	71.0	72.4	71.1	67.5	72.9	72.7	73.6	69.9	70.7

< 연령계층별 평균소비성향 >



다. 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

1) 소득원천별 분포

- 도시근로자가구의 '95년 가구소득을 5분위계층별로 보면 상위계층인 5분위계층의 소득은 3,586.7천원으로 하위계층인 1분위계층의 812.1천원에 비해 4.42배임
- 저소득계층일수록 가구주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고 고소득계층일수록 가구원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구당 취업인수가 많은 가구가 소득이 높기 때문임
 - 가구주 근로소득 비중은 1분위계층이 82.5%로 5분위계층의 60.7%보다 21.8% 포인트 높게 나타났음
 - 가구원 근로소득의 비중은 5분위계층이 20.4%로 1분위계층의 6.5%보다 13.9% 포인트 높게 나타났음
- 고소득계층일수록 이자, 배당, 임대료 등의 재산소득과 부업소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 소득원천별 구성비 >

(단위 : %)

구 분	평 균	1 분 위	2 분 위	3 분 위	4 분 위	5 분 위
취업인수(명)	1.54	1.18	1.36	1.55	1.71	1.90
소득(천원) (1분위기준배율)	1,911.1 -	812.1 (1.00)	1,285.7 (1.58)	1,676.5 (2.06)	2,193.2 (2.70)	3,586.7 (4.42)
소득원천별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근로소득	85.9	89.0	89.7	89.1	88.2	81.1
·가구주	69.1	82.5	78.2	73.3	69.5	60.7
·가구원	16.8	6.5	11.4	15.8	18.7	20.4
재산및이전 부업소득	10.8 3.3	9.3 1.8	8.4 1.9	8.4 2.4	8.3 3.5	14.5 4.4

2) 소비지출 구조

- 소비지출 규모도 소득과 비례하여 상위 5분위계층의 소비지출은 1,923.5천원으로 하위 1분위 계층의 소비지출 741.4천원에 비해 2.59배 ('94년 : 2.67배)임
- 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보건의료 등 기본적 성격의 소비지출의 비중은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높게 나타났음
- 반면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소비지출의 다양화와 고급화에 따라 교육·교양 오락, 교통통신비, 피복신발비 및 잡비 등과 같이 선택적 소비지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 소비지출비목별 구성비 >

(단위: 천원, %)

구 분	평균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가 구 원 수(명)	3.71	3.30	3.59	3.75	3.88	4.02
소 비 지 출 (1분위기준배율)	1,230.6 -	741.4 (1.00)	979.5 (1.32)	1,149.7 (1.55)	1,358.2 (1.83)	1,923.5 (2.59)
소비지출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 료 품 (외 식 비)	28.8 9.6	32.2 8.5	31.2 9.7	30.0 9.9	28.3 9.6	25.8 9.9
주 거	3.7	5.9	4.2	3.9	3.3	2.8
광 열·수 도	4.1	5.6	4.7	4.3	3.9	3.1
가 구·가 사 용 품	4.8	4.5	4.5	4.6	4.4	5.6
피 복·신 발	7.9	7.4	7.5	7.8	8.1	8.3
보 건·의 료	4.8	5.9	4.9	4.8	4.6	4.3
교 육 교 양 오락 (교 육)	14.4 9.3	12.0 7.9	13.7 8.9	14.1 9.4	15.1 10.1	15.3 9.6
교 통·통 신 (개 인 교 통)	11.6 6.7	9.9 3.7	11.0 5.4	11.6 6.5	12.4 7.5	12.0 7.8
기 타 소 비 지 출 (잡 비)	20.0 15.5	16.5 11.6	18.3 13.7	18.8 14.5	20.0 15.7	22.8 18.4

3) 흑자(울)규모 및 소비성향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흑자율이 높아지며 평균소비성향은 낮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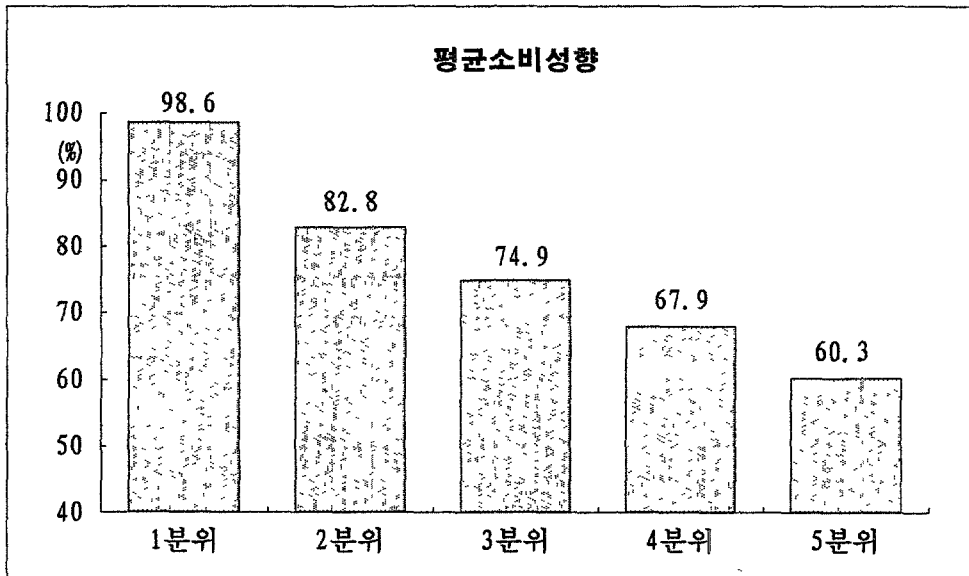
- 하위 1분위계층은 가처분소득의 98.6%를 지출하여 흑자율은 1.4%에 불과한 반면, 상위 5분위계층은 가처분소득의 60.3%만을 소비지출하여 흑자율이 39.7%로 높게 나타났음
- 따라서 평균소비성향도 하위 1분위계층은 98.6%로 높게 나타난 반면 상위 5분위계층은 60.3%로 낮게 나타났음

< 소득 5분위별 흑자(울) 및 소비성향 >

(단위 : 천원, %)

구 분	평 균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가 처 분 소 득	1,732.5	752.3	1,182.8	1,534.6	2,000.0	3,191.9
흑 자 율	502.0	10.9	203.3	384.9	641.8	1268.4
흑 자 율	29.0	1.4	17.2	25.1	32.1	39.7
평균소비성향	71.0	98.6	82.8	74.9	67.9	60.3

< 소득 5분위별 평균소비성향 >



라. 맞벌이가구의 가계수지

1) 소득원천별 분포

- '95년 맞벌이가구의 소득은 2,275.7천원으로 '94년에 비해 12.1%(245.3천원) 증가하였음
- 근로소득은 1,982.0천원으로 '94년에 비해 12.9%(227.1천원) 증가하였으며 근로소득의 비중도 '94년 86.4%에서 '95년 87.1%로 0.7%포인트 증가하였음
- 남편의 근로소득은 1,292.0천원으로 '94년 1,156.3천원에 비해 11.7% 증가하였고 처의 근로소득은 580.2천원으로 '94년 513.0천원에 비해 13.1% 증가하였음
- 재산 및 이전소득은 145.3천원으로 '94년대비 3.6% 증가하였으며, 부업소득은 148.5천원으로 동기간에 9.8% 증가하였음

< 맞벌이가구의 소득원천별 구조 >

(단위: 천원, %)

구 분	1994년			1995년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가구원수 (명)	3.86	-	Δ0.10	3.83	-	Δ0.03
취업인원수(명)	2.16	-	0.01	2.17	-	0.01
소 득	2,030.4	100.0	14.2	2,275.7	100.0	12.1
근로소득	1,754.9	86.4	12.9	1,982.0	87.1	12.9
남편	1,156.3	56.9	12.3	1,292.0	56.8	11.7
처	513.0	25.3	14.4	580.2	25.5	13.1
기타가구원	85.6	4.2	12.8	109.8	4.8	28.3
재산 및 이전	140.3	6.9	23.1	145.3	6.4	3.6
부업소득	135.2	6.7	24.2	148.5	6.5	9.8

2) 소비지출 구조

- '95년 맞벌이가구의 소비지출은 1,306.4천원으로 '94년 1,190.0천원에 비해 9.8% 증가하여 소득 증가율 12.1%를 밑돌았음
- 외식비와 교육비에 대한 지출이 각각 133.1천원, 141.9천원으로 18.1%(20.4천원) 17.5%(21.1천원)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음
- 가구가사에 대한 지출은 61.1천원으로 '94년대비 4.7% 감소하였음

< 맞벌이가구 소비지출 구조 >

(단위: 천원, %)

구 분	1994년			1995년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취업인원수(명)	2.16	-	0.01	2.17	-	0.01
가 계 지 출	1,360.5	-	16.1	1,502.6	-	10.4
소 비 지 출	1,190.0	100.0	14.0	1,306.4	100.0	9.8
식 료 품	346.5	29.1	12.7	372.8	28.5	7.6
외 식 비	112.7	9.5	22.1	133.1	10.2	18.1
주 거 비	43.9	3.7	8.9	49.3	3.8	12.3
광 열 수 도	44.7	3.8	8.8	50.5	3.9	13.0
가 구 가 사	64.1	5.4	28.7	61.1	4.7	△4.7
피 복 신 발	91.1	7.7	15.9	102.1	7.8	12.1
보 건 의 료	49.6	4.2	2.5	54.9	4.2	10.7
교 육 교 양	180.2	15.1	15.9	208.7	16.0	15.8
교 육 비	120.8	10.2	17.9	141.9	10.9	17.5
교 통 통 신	138.6	11.6	27.6	149.9	11.5	8.2
개 인 교 통	78.0	6.6	41.6	82.1	6.3	5.3
기 타 소 비	231.4	19.4	8.2	257.1	19.7	11.1
잡	181.7	15.3	6.4	201.1	15.4	10.7
비 소 비 지 출	170.5	-	32.8	196.2	-	15.1

3) 가계수지동향

- 가계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은 2,079.5천원으로 '94년 1,859.9천원에 비해 11.8% 증가하였음
- 이에따라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흑자액은 773.1천원으로 '94년 669.9천원에 비해 15.4% 증가하여 흑자율은 37.2%로 나타났음
- 반면 평균소비성향은 62.8%로 '94년 64.0%에 비해 1.2%포인트 감소하였음

< 맞벌이가구 흑자율 및 소비성향 >

(단위: 천원, %)

구 분	1994년		1995년	
	금 액	증 감 률	금 액	증 감 률
가 처 분 소 득	1,859.9	12.8	2,079.5	11.8
흑 자 액	669.9	10.7	773.1	15.4
흑 자 율	36.0	0.7p	37.2	1.2p
평균 소비 성향	64.0	0.7p	62.8	△1.2p

5. 소득분포

가. 소득 5분위별 분포

- 소득 5분위별 소득점유율 분포를 '94년과 비교하여 보면 1분위~3분위 계층의 소득점유율은 변화가 없으나 4분위 계층의 소득점유율이 증가하고 5분위 계층의 소득점유율은 감소하였음
- 최근 10년간 소득 5분위별 소득점유율 분포추이를 보면 1분위~4분위 계층은 소득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5분위계층의 소득점유율은 감소하였음
- 따라서 소득분배구조를 나타내는 소득5분위별 소득점유율의 배율(V / I)이 '86년 5.00에서 '95년 4.41배로 개선되었음

$$\text{※ 소득 5분위별 소득점유율 배율} = \frac{\text{5분위계층의 소득점유율(\%)}}{\text{1분위계층의 소득점유율(\%)}}$$

< 근로자가구의 소득 5분위별 소득분포 >

구 분	5분위별 소득계층의 소득 점유율 (%)					배 율 (V / I)
	1분위 (Ⅰ)	2분위 (Ⅱ)	3분위 (Ⅲ)	4분위 (Ⅳ)	5분위 (Ⅴ)	
'86	7.9	13.0	16.9	22.7	39.5	5.00
'90	8.4	13.2	17.2	22.5	38.8	4.62
'91	8.5	13.5	17.4	22.6	38.0	4.47
'92	8.5	13.6	17.5	22.8	37.6	4.42
'93	8.6	13.6	17.5	22.8	37.5	4.36
'94	8.5	13.5	17.5	22.9	37.6	4.42
'95	8.5	13.5	17.5	23.0	37.5	4.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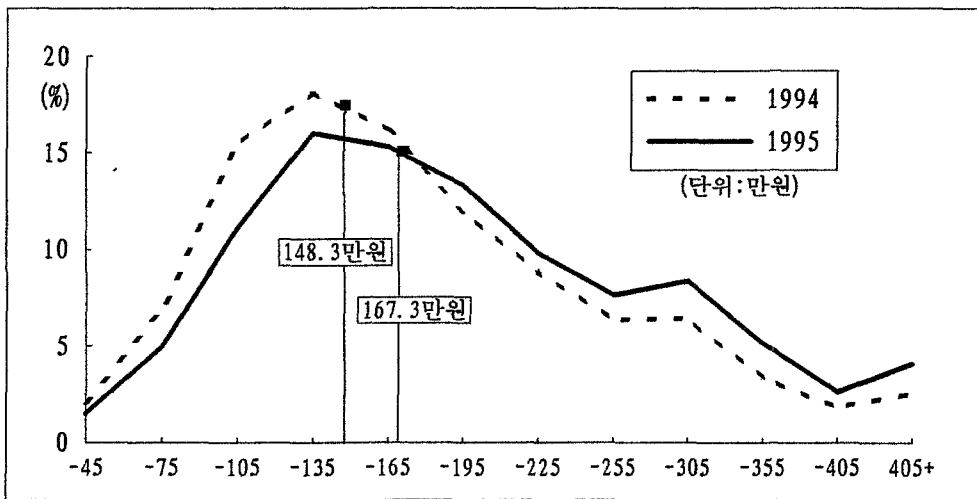
나. 소득계층별 분포

- '95년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계층별 분포를 보면 가구소득이 '94년대비 12.3% 증가함에 따라 소득분포가 상향 이동되었으며 소득분배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도시근로자가구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소득계층은 '95년에도 '94년과 같이 1,200~1,350천원미만 계층이었으나 소득순으로 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인 증양값은 '95년에 1,673.4천원으로 '94년에 1,483.4천원에 비해 12.8% 증가하였음
- 평균치가 포함된 계층은 '94년 1,650~1,800천원미만 계층에서 '95년 1,800~1,950천원미만 계층으로 상향 이동되었으며 '94년에는 평균치포함 계층이하 가구가 전체 근로자가구의 64.8%였으나 '95년에는 평균치 계층이하 가구가 62.2%로 줄었음

< 근로자가구의 소득계층별 구성비 >

(단위: %)

	1994년		1995년	
	구 성 비	누적구성비	구 성 비	누적구성비
450,000원 미만	2.1	2.1	1.5	1.5
600,000원 미만	2.5	4.6	1.8	3.3
750,000원 미만	4.3	9.0	3.2	6.5
900,000원 미만	6.5	15.4	4.5	11.0
1,050,000원 미만	9.0	24.4	6.6	17.6
1,200,000원 미만	8.6	33.0	7.5	25.1
1,350,000원 미만	9.5	42.5	8.6	33.6
1,500,000원 미만	8.4	50.9	7.5	41.1
1,650,000원 미만	7.7	58.7	7.8	48.9
1,800,000원 미만	6.1	64.8	6.9	55.9
1,950,000원 미만	5.8	70.6	6.3	62.2
2,100,000원 미만	4.8	75.4	5.3	67.5
2,250,000원 미만	4.0	79.4	4.6	72.1
2,550,000원 미만	6.4	85.8	7.6	79.8
3,050,000원 미만	6.4	92.2	8.4	88.2
3,550,000원 미만	3.4	95.6	5.2	93.4
4,050,000원 이상	1.8	97.4	2.6	96.0
4,050,000원 이상	2.6	100.0	4.1	100.0
총 양 값	1,483.4천원		1,673.4천원	
평 균	1,701.3천원		1,911.1천원	



다. 소득분배 구조

○ 도시근로자의 소득분배상태는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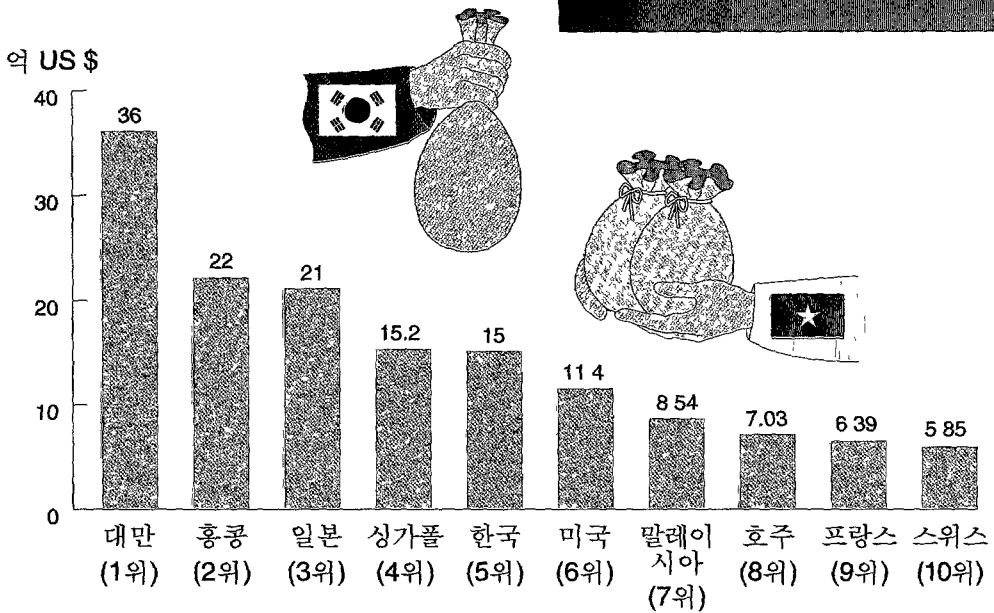
- 소득 집중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86년 0.3069에서 '95년 0.2837로 감소하여 소득분배가 개선되었음

연 도	'86	'90	'93	'94	'95
지 니 계 수	0.3069	0.2948	0.2817	0.2845	0.2837

여 백

통계로 본 베트남의 경제사회상

국가별 외자도입 총자본금



베트남의 국가별 외자도입('88~'96. 1.10)을 보면
대만(36억\$), 홍콩(22억\$), 일본(21억\$) 순으로 크고,
한국은 15억\$로 5위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로 본 베트남의 경제사회상

1996. 4

자료관리국 국제통계과

1. 자연환경

베트남 국토면적은 남북한 전체면적의 1.5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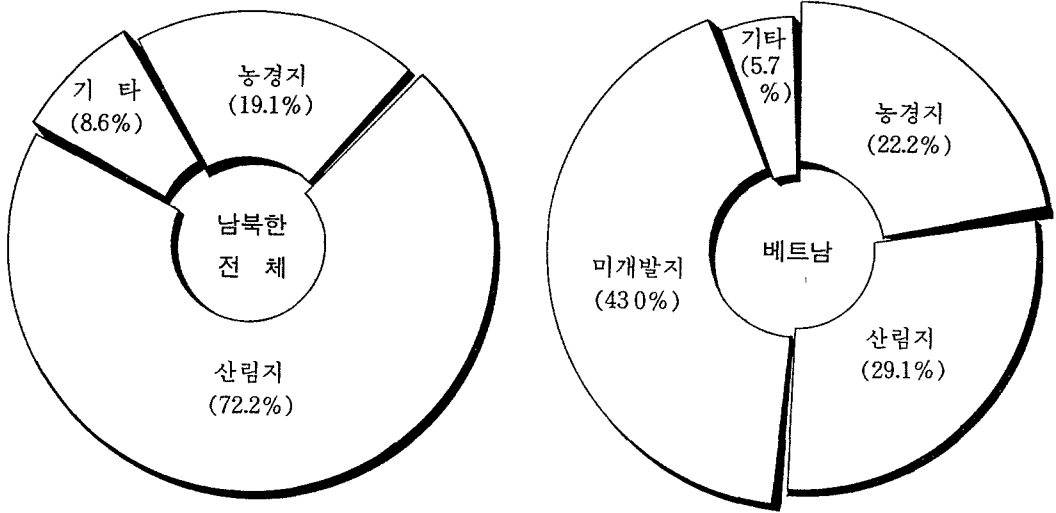
- 베트남 국토면적은 330,991km²로써 남북한 전체면적인 222,154km² 보다 1.5배 정도 넓으며, 남한의 99,392km² 보다는 3.3배나 넓은 편이다.
- 국토의 이용면에서 살펴보면 베트남은 농경지가 73,484km²(22.2%), 산림지가 94,412km²(29.1%), 미개발지가 142,178km²(43.0%)로써 남북한 전체와 비교해보면 농경지와 미개발지의 비중은 높은 반면 산림지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는 북부의 홍하델타지역과 남부의 메콩델타지역은 농경지비중이 60% 전후로써 농경지비중이 매우 높으며, 중부의 중북부해안지역, 중남부해안지역, 중남부 고원지역은 산림지의 비중이 30~50%대로써 산림지 비중이 높고 북부산간지역에서의 미개발지는 63.7%나 된다.

〈 표 〉 국토의 이용(1993년)

	(단위 km, %)					
	전체국토	농경지	산림지	특수사용지	거주지	미개발지
전국 (구성비)	330 991 (100.0)	73 484 (22.2)	96 412 (29.1)	11 177 (3.4)	7 740 (2.3)	142 178 (43.0)
북부산간지역 (구성비)	102 962 (100.0)	12 931 (12.6)	20 042 (19.5)	2 297 (2.2)	2 100 (2.0)	65 592 (63.7)
홍하델타지역 (구성비)	12 512 (100.0)	7 213 (57.6)	523 (4.2)	1 759 (14.1)	825 (6.6)	2 192 (17.5)
중북부해안지역 (구성비)	51 174 (100.0)	6 930 (13.5)	18 680 (36.5)	1 611 (3.1)	691 (1.4)	23 262 (45.5)
중남부해안지역 (구성비)	45 186 (100.0)	5 332 (11.8)	17 171 (38.0)	1 342 (3.0)	611 (1.4)	20 730 (45.9)
중남부고원지역 (구성비)	56 119 (100.0)	5 727 (10.2)	32 940 (58.7)	839 (1.5)	576 (1.0)	16 037 (28.6)
남북동지역 (구성비)	23 469 (100.0)	9 373 (39.9)	5 276 (22.5)	1 469 (6.3)	1 262 (5.4)	6 089 (25.9)
메콩델타지역 (구성비)	39 569 (100.0)	25 978 (65.7)	1 780 (4.5)	1 860 (4.7)	1 675 (4.2)	8 276 (20.9)
남북한 ¹⁾ (구성비)	222 154 (100.0)	42 486 (19.1)	160 483 (72.2)	- (-)	- (-)	- (-)
남한 (구성비)	99 392 (100.0)	21 248 (21.4)	65 711 (66.1)	- (-)	- (-)	- (-)

주· 1) 통일원, 남북한 경제지표(1995) 자료임

〈도〉 국토의 이용(1993년)



원유매장량 50억톤

- 베트남의 제1의 부존자원은 원유로써 원유매장량은 50억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석탄매장량은 30~35억톤으로 추정되며 철광석은 7억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 베트남의 광물자원은 북부지역에 대부분 매장되어 있으며 경영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외국기업과의 합작경영이 요구되고 있다.

〈표〉 주요 광물자원의 매장량현황

(단위 톤)

지 하 자 원	추정 총매장량	주요 매장지역 및 광구
원 유	50억	바익호, 다이홍 유전
석 탄	30~35억	팡닌성, 팡옌, 판메, 투옌팡
철 광 석	7억	탁 케, 쿠이사
주 석	7만	피아오악, 탐다오
구 리	60만	다강유역, 신쿠옌, 반푹
크 롬	1,000만	탄노아, 누이누아
보 오 크 사 이 트	30억	중국국경지대, 호치민 북동부지역
인 회 석	10억	라오카이

자료 UNDP, Report on the Economy of Vietnam(1990 12)

베트남 연평균 강우량은 2,000mm 이상

- 베트남 15개 관측소의 연평균 강우량은 2,151mm로써 한국의 서울, 부산 및 광주
의 연평균 강우량 931mm보다 2.4배를 나타내고 있다.
- 지역별로는 북부지역 6개 관측소의 연평균 강우량은 2,278mm, 중부지역 7개 관측소
의 연평균 강우량은 2,026mm, 남부지역 2개 관측소의 연평균 강우량은 2,208mm를 기
록하고 있다.
- 월별로는 우기인 5월~10월이 평균 280mm의 강우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건기인 11월
~4월은 평균 63mm의 강우량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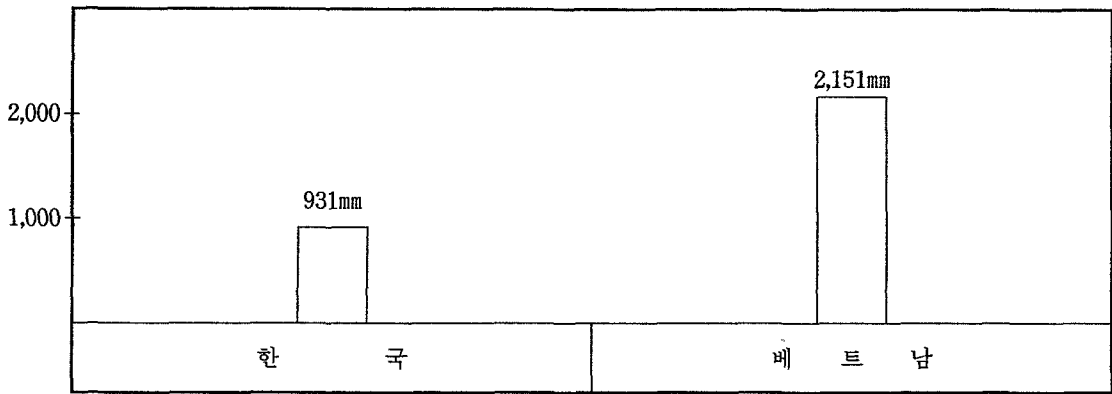
〈 표 〉 월별, 관측소별 강우량(1994년)

(단위 mm)

관측소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 계
북부지역													
라이찌우	3	2	87	114	211	584	712	334	168	236	25	32	2 508
선 라	04	9	69	67	205	311	521	214	149	119	12	49	1 725.4
뚜엔 팡	28	43	90	14	386	192	268	282	142	210	6	40	1 701
하 노 이	12	40	122	19	416	384	468	596	319	103	23	71	2 537
홍 가 이	1	31	123	4	57	345	732	404	288	149	19	40	2 193
남 단	9	28	144	30	596	466	340	502	694	141	20	34	3 004
중부지역													
빈	34	53	52	35	226	190	195	218	476	143	242	198	2 062
후 에	92	46	60	6	52	65	12	20	328	349	415	560	2 005
다 낭	40	67	28	1	23	183	27	150	495	535	260	306	2 115
꾸 이 년	35	8	16	—	115	58	30	85	212	393	113	268	1 333
플라이꾸	—	18	6	107	173	264	906	221	550	113	1	42	2 401
다 랫	04	4	81	83	212	144	255	80	320	214	7	64	1 463
냐 짱	10	5	21	1	47	297	28	39	229	300	180	180	2 800
남부지역													
호 치 민	2	—	41	32	134	477	225	244	302	292	28	29	1 804
까 마 우	23	—	38	129	448	419	394	466	448	104	65	77	2 611
평 균	19	24	65	43	220	292	341	257	341	227	94	133	2 151
한 국													
서울	6.5	14.8	31.7	44.9	152.4	85.0	139.5	232.7	60.7	214.5	49.6	23.5	1 055.8
부산	42.0	44.4	31.5	123.5	258.9	86.4	134.9	34.5	60.4	90.7	46.3	6.4	959.9
광주	30.7	32.4	35.7	43.3	86.6	65.8	78.8	224.6	39.0	82.4	32.5	24.6	776.4
평 균	26.4	30.5	33.0	70.6	166.0	79.1	117.7	163.9	53.4	129.2	42.8	18.2	930.7

주 1) 기상청 자료임

〈도〉 연간평균 강우량



베트남 연평균기온 한국보다 약 10℃ 정도 높아

- 베트남 15개 관측소의 연평균 기온은 24.1℃로써 한국의 서울, 부산 및 광주의 연평균기온 14.6℃보다 9.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는 북부지역 6개 관측소의 연평균기온은 23.2℃, 중부지역 7개 관측소의 연평균기온은 24.1℃, 남부지역 2개 관측소의 연평균기온은 27.1℃로써 남부지역이 가장 더운 것으로 나타났다.
- 월별로는 우기인 5월~10월이 평균 26.2℃를 나타내고 있으며, 건기인 11월~4월은 22.1℃를 나타내고 있다.
- 따라서 베트남은 적절한 일조량과 많은 강우량 및 높은 기온으로 인하여 벼농사를 연중 3모작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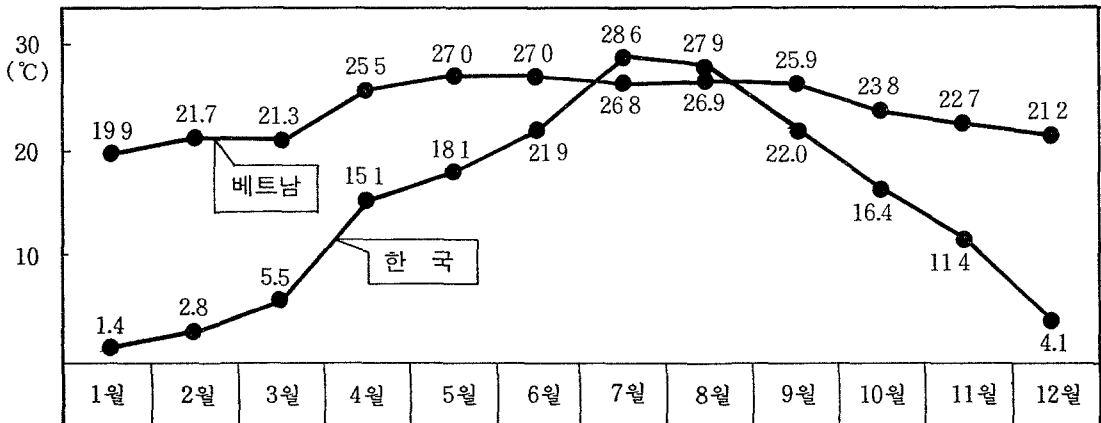
〈표〉 월별, 관측소별 평균기온(1994년)

(단위 °C)

관측소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북부지역													
라이저우	18.2	20.1	20.5	25.9	26.7	26.4	26.5	26.4	26.4	22.9	20.0	18.6	23.2
선라	16.4	20.4	18.1	22.0	25.0	24.9	24.6	24.7	23.7	20.6	18.1	16.7	21.3
뚜엔꽝	17.4	19.3	18.2	26.0	28.1	28.1	27.8	27.8	27.0	23.5	21.3	19.1	23.6
하노이	17.8	18.9	18.4	25.3	27.8	28.7	28.4	28.5	27.1	24.3	23.1	19.7	24.0
홍가이	17.6	18.2	17.8	24.5	27.4	28.2	27.3	27.8	27.1	24.1	22.5	19.7	23.5
남딘	17.7	18.6	18.0	24.8	27.6	28.5	28.4	28.2	26.9	24.0	22.7	19.4	23.7
중부지역													
빈	18.7	20.0	18.3	25.2	28.0	28.8	28.9	28.4	26.7	24.2	22.6	19.9	24.1
후에	20.6	22.8	20.7	26.6	28.2	28.8	28.7	29.4	27.0	24.3	23.4	22.6	25.3
다낭	21.7	23.8	22.8	26.3	28.6	28.1	29.4	29.2	27.3	24.9	24.1	23.6	25.8
꾸이년	23.3	25.4	25.5	28.2	29.7	30.2	30.4	30.4	28.6	26.1	25.6	24.9	27.4
플라이꾸	18.4	21.5	22.1	23.9	24.1	22.3	21.5	22.3	22.0	21.2	20.5	19.9	21.6
다랏	15.7	17.0	17.6	18.6	19.2	18.8	17.9	18.6	18.2	17.3	17.0	16.4	17.7
냐짱	24.0	25.1	26.1	27.7	28.9	28.5	28.3	28.3	27.4	26.0	25.6	24.7	26.7
남부지역													
호치민	26.1	27.6	28.4	29.1	28.4	27.2	27.1	27.2	26.8	26.3	27.1	26.5	27.3
까마우	25.6	26.5	27.7	28.3	27.9	27.2	26.9	26.6	26.3	26.7	27.2	26.4	26.9
평균	19.9	21.7	21.3	25.5	27.0	27.0	26.8	26.9	25.9	23.8	22.7	21.2	24.1
한국 ¹⁾													
서울	-0.9	0.8	4.0	15.2	17.9	22.8	28.5	27.6	21.0	15.2	9.3	1.1	13.5
부산	3.9	5.2	7.4	15.0	18.0	20.5	27.9	28.1	23.1	17.9	13.8	6.9	15.6
광주	1.1	2.5	5.0	15.1	18.4	22.4	29.3	28.1	21.9	16.1	11.2	4.3	14.6
평균	1.4	2.8	5.5	15.1	18.1	21.9	28.6	27.9	22.0	16.4	11.4	4.1	14.6

주 1) 기상청 자료임

〈도〉 월별 평균기온(1994년)



2. 인 구

베트남인구 남북한전체인구보다 약간 많아

- 1994년도 베트남총인구는 72,509.5천명으로써 남북한 전체인구 67,406천명에 비하여 7.6%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남한인구 44,453천명에 비해서는 1.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1994년도 인구밀도는 베트남이 219인/km², 남북한전체가 304인/km²로써 남북한전체대비 72%에 달하고 있으며, 남한의 447인/km²에 비해서는 49% 수준에 불과하다.
- 지역별로는 홍하델타지역의 인구밀도가 1,124인/km², 메콩델타지역이 401인/km², 남북동지역이 378인/km²를 나타냄으로써 곡창지대를 중심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인구 및 인구밀도(1994년)

	면 적 (km ²)	평 균 인 구 (천명)	인 구 밀 도 (인/km ²)
전 국	330 991	72 509.5	219
북 부 산 간 지 역	102 961	12 387.9	120
홍 하 델 타 지 역	12 510	14 065.4	1 124
중 북 부 해 안 지 역	51 174	9 726.6	190
중 남 부 해 안 지 역	45 192	7 557.6	167
중 남 부 고 원 지 역	56 119	2 998.7	53
남 북 동 지 역	23 467	8 878.0	378
메 콩 델 타 지 역	39 568	15 850.6	401
남 북 한 ²⁾	222 154 ¹⁾	67 406	304
남 한	99 392 ¹⁾	44 453	447

주 1) 1993년 면적임

2) 통일원, 남북한 경제지표(1995)자료임

지난 34년간(1961~1994) 베트남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2.6%로 매우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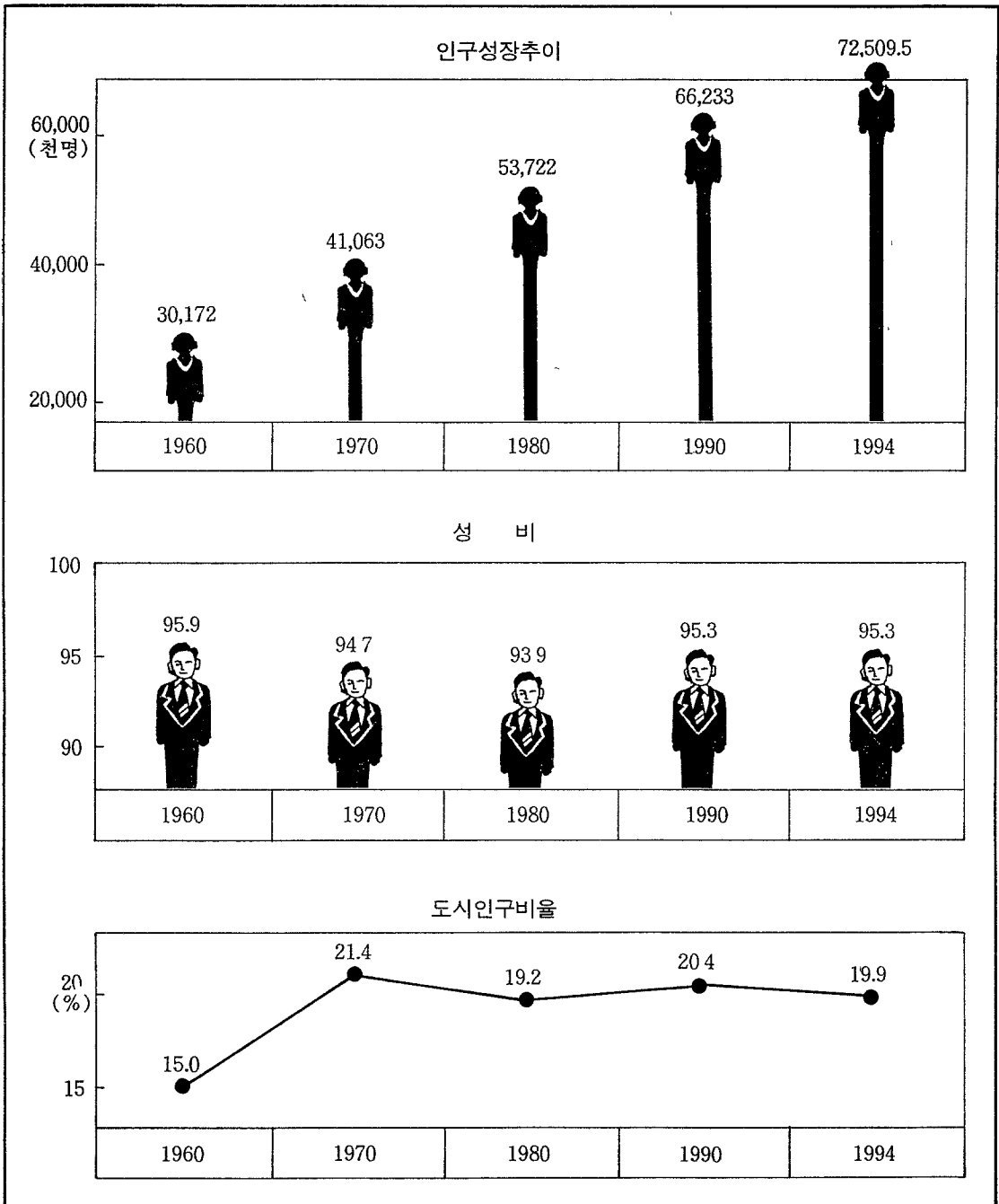
- 지난 34년간(1961~1994) 베트남 연평균인구증가율은 2.61%로써 한국의 지난 46년간(1950~1995)인구증가율 1.75%보다 0.86%「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여자 100명당 남자인구수인 성비는 지난 1960년에 95.9, 1970년 94.7, 1980년 93.9, 1994년에는 95.3을 나타냄으로써 女超현상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 또한 산업발전의 주요지표로 볼 수 있는 도시인구비율도 1960년 15%에서 1994년 19.9%로 4.9%「포인트」 증가하였으나 한국의 지난 1990년도 도시인구비율 74.7%에 비하여 산업발전이 부진함을 나타내고 있다.

〈표〉 인구성장추이, 성비 및 도시인구비율

	인 구 (천명)	성 비 (여자100명당)	도시인구비율 (%)
1960	30 172	95.9	15.0
1970	41 063	94.7	21.4
1980	53 722	93.9	19.2
1990	66 233	95.3	20.4
1991	67 774	94.9	20.4
1992	69 405	95.0	19.4
1993	71 026	95.4	19.5
1994	72 509.5	95.3	19.9
1961~1994 평균인구증가율(%)	2.6		
한 국 (1994)	44 453	101.3	74.4 ¹⁾

주 · 1) 1990년도입

〈도〉 인구성장추이, 성비 및 도시인구비율



1994년도 외국인 베트남 방문자수 1991년대비 7.4배로 높아져

- 1991년도 베트남 국내입국인구수는 135,866명으로써 한국의 2,942,063명에 비하여 4.6% 수준이며 1994년도 베트남 국내입국인구수는 940,707명으로써 한국의 3,373,942명에 비하여 27.9%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 연도별 베트남 국내입국인구를 분석해보면 1994년도에는 1991년대비 6.9배 증가하였다. 이는 베트남 정부의 외국관광객 유치 및 외자도입 노력의 결실인 것으로 풀이된다.

〈 표 〉 국내입국인구

(단위 명)

			1991	1992	1993	1994
외국인	계		135 866	308 073	528 375	940 707
	목적		99 721	231 973	375 700	738 661
여사	여행		41 829	128 858	209 640	431 308
	사업		29 880	76 096	111 978	235 677
국미	타국		28 012	27 019	54 082	71 676
	목적		5 579	13 078	23 364	42 438
일 프	본		6 144	17 343	29 007	65 055
	랑		6 273	16 991	47 683	96 697
중 흥	스		196	2 150	8 352	14 326
	국		13 856	13 230	15 224	23 186
대 태	만		—	63 666	95 077	184 241
	국		5 218	9 747	13 869	23 581
영 기	국		—	8 790	17 276	36 863
	타		62 455	86 978	125 848	252 274
베 트 남	인		36 145	76 100	152 675	202 046
	목적					
방 문	여행		33 944	73 827	128 267	183 416
	사업		2 201	2 273	5 566	7 730
거 주	국		16 003	35 114	78 024	109 738
	목적		5 576	6 472	12 052	4 960
프 호	스		5 481	10 051	19 904	28 529
	주		3 663	7 107	11 144	16 627
캐 나	다		3 663	7 107	11 144	16 627
	타		5 422	17 401	31 551	32 192
한국국내입국인구 ¹⁾			2 942 063	3 008 973	3 092 088	3 373 942

주 : 1)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자료임

3. 노동력

베트남 총인구대비 노동력비율 한국보다 2%이상 높아

- 베트남의 노동력은 1985년 26,020.3천명에서 1993년 32,718천명으로 25.7% 증가하였고, 총인구대비 노동력비율도 1985년 43.5%에서 1993년 46.1%로 2.6%「포인트」 증가하였다.
- 총인구대비 노동력비율을 한국과 그리고 같은 공산권국가인 북한과 비교해보면 1985년에는 베트남이 한국보다 6.8%「포인트」 북한보다 1.8%「포인트」 높으며, 1993년에는 한국보다 2.4%「포인트」 높았으나 북한보다는 0.8%「포인트」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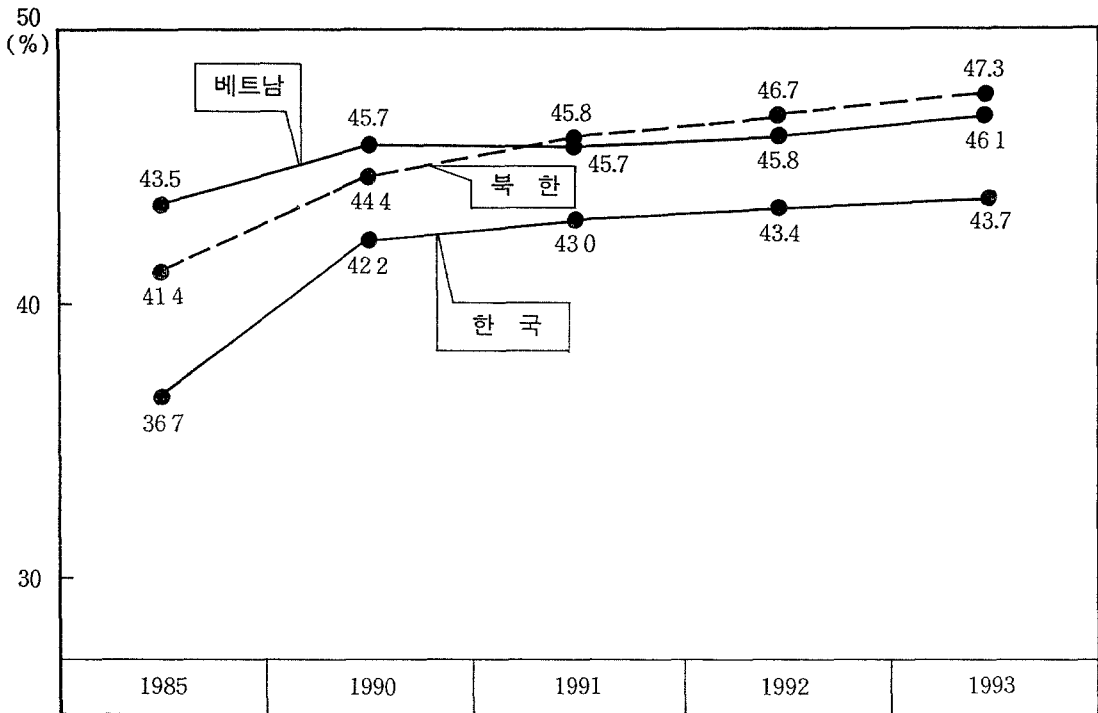
〈표〉 노동력 및 총인구대비 노동력 비율

(단위 천명)

	1985	1990	1991	1992	1993
베 트 남					
총 인 구	59 872	66 233	67 774	69 405	71 026
노 동 력	26 020 3	30 294.5	30 974.2	31 818 9	32 718.0
총 인 구 대 비 노 동 력 비 율 (%)	43.5	45.7	45.7	45.8	46.1
한 국					
총 인 구	40 806	42 869	43 268	43 663	44 056
노 동 력	14 970	18 085	18 612	18 961	19 253
총 인 구 대 비 노 동 력 비 율 (%)	36.7	42.2	43.0	43.4	43.7
북 한 ¹⁾					
총 인 구	19 995	21 720	22 028	22 336	22 645
노 동 력	8 339	9 652	10 083	10 430	10 704
총 인 구 대 비 노 동 력 비 율 (%)	41.7	44.4	45.8	46.7	47.3

주 1) 통일원, 남북한경제지표(1995) 자료임

〈도〉 총인구대비 노동력 비율



베트남 농림어업 노동력 비중 70%가 넘어

- 베트남 산업별 노동력구성비는 1985년도에는 농림어업이 72.9%, 광공업이 10.8%, SOC 및 기타가 16.3%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3년도에는 농림어업이 73%, 광공업이 10.8%, SOC 및 기타가 16.2%를 차지함으로써 산업구조의 정체를 보이고 있다.
- 한국의 산업별 노동력 구성비는 1985년도에는 농림어업이 24.9%, 광공업이 24.4%, SOC 및 기타가 50.6%를 차지하였으며, 1993년도에는 농림어업이 14.7%, 광공업이 24.4%, SOC 및 기타가 60.9%를 차지함으로써 베트남 산업구조의 후진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산업별 노동력 구성비

(단위 %)

	1985	1990	1991	1992	1993
베 트 남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농 립 어 업	72.9	72.3	72.6	72.9	73.0
광 공 업	10.8	11.2	11.0	10.8	10.8
SOC 및 기 타	16.3	16.5	16.4	16.3	16.2
한 국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농 립 어 업	24.9	17.9	16.5	15.8	14.7
광 공 업	24.4	27.6	27.2	25.8	24.4
SOC 및 기 타	50.6	54.5	56.3	58.4	60.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도〉 산업별 노동력 구성비(1993년)

농림어업 (73.0%)	광공업 (10.8%)	SOC 및 기타 (16.2%)	베트남
농림어업 (14.7%)	광공업 (24.4%)	SOC 및 기타 (60.9%)	한 국

4. 외자도입

베트남 외자도입 승인액 185억 6천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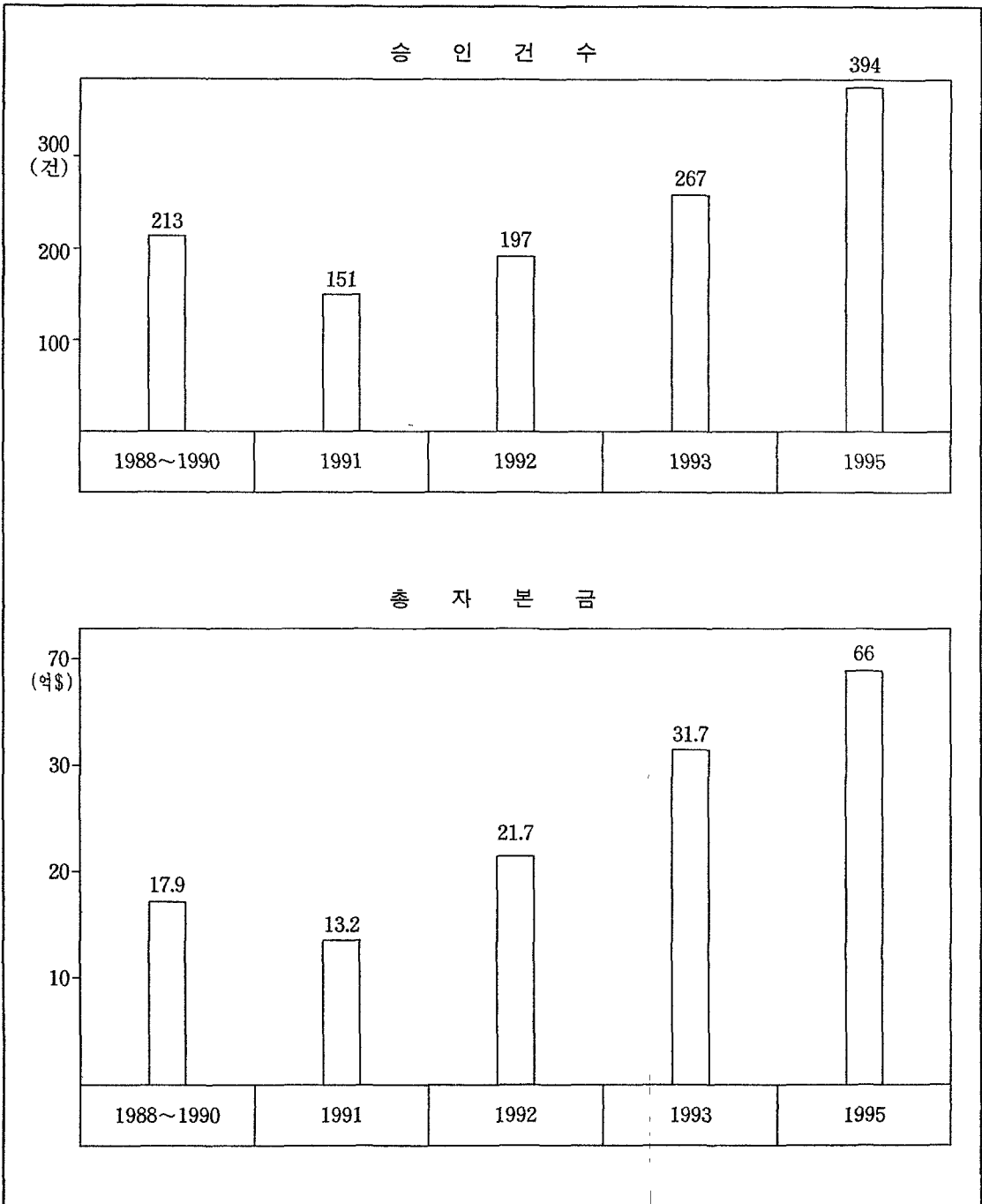
- 1988년부터 1995년까지 베트남의 외자도입 승인건수는 1,589건에 달하고 투자규모인 총자본금은 185억 6천 2백만 \$에 이르고 있다.
- 연도별로는 1991년에 151건 1,323,252.8천\$, 1992년에 197건 2,168,176.4천\$, 1993년에 267건 3,169,618.4천\$, 1995년도에는 394건 6,600,000천\$에 이르고 있어 해마다 외자도입 승인건수와 총자본금이 증가추세에 있다.

〈 표 〉 외자도입 승인 건수 및 자본금

	승인건수 (건)	총자본금 (천\$)	법정총자본금 (천\$)
1988~1995 ²⁾	1 589	18 562 000	—
1988~1990	213	1 794 213.7	1 007 979.7
1991	151	1 323 252.8	664 154.2
1992	197	2 168 176.4	1 417 629.0
1993	267	3 169 618.4	1 557 129.6
1995 ²⁾	394	6 600 000	—

주 1) 외국에서 구상하고 있는 투자계획은 제외함.
 2) 국가안전기획부 해외산업경제정보(96. 2 25) 자료임

〈도〉 연도별 외자도입 승인건수 및 자본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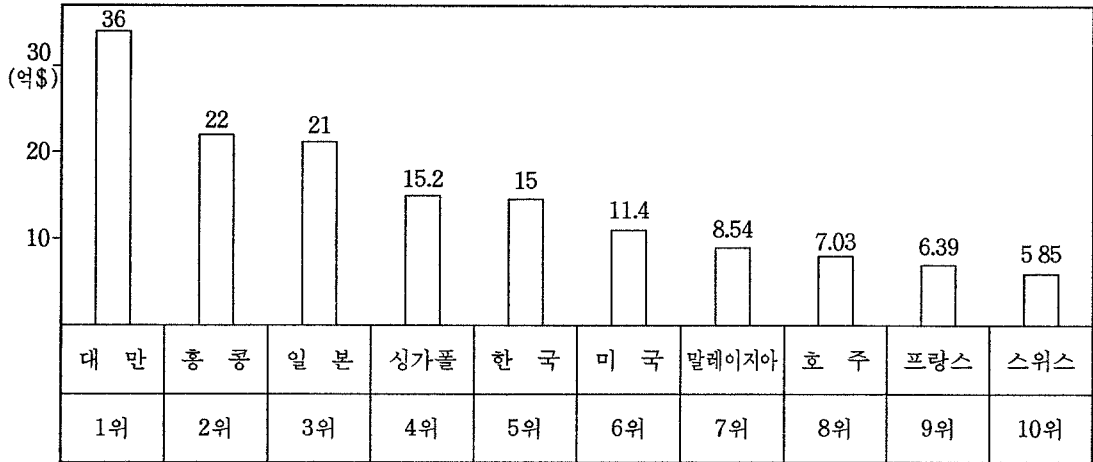
1996년 1월 10일 현재 한국은 다섯번째로 베트남에 투자를 많이해

- 베트남은 1988년부터 1996년 1월 10일까지 서방국가로부터 외자를 도입하였다. 외자 도입액이 큰 10대 국가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 총자본금이 1위인 국가는 대만으로 1996년 1월 10일 현재까지 총자본금이 36억\$ (19.4%)이며 2위는 홍콩으로 총자본금이 22억\$ (11.8%)이다. 3위는 일본이며 총자본금이 21억\$ (11.3%), 한국은 총자본금 15억\$ (8.1%)로써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10대 투자국이 총자본금의 76.1%를 차지하고 있다.

〈표〉 국가별 외자도입 승인건수 및 자본금

		1988년~1994년				1988년~1996년(1월 10일)	
		승인건수 (건)	총자본금 (천\$)	순위	법정자본금 (천\$)	총자본금 (억\$)	순위
대	만	185	1 984 821.2	1	970 647.4	36	1
홍	콩	210	1 918 869.5	2	895 077.6	22	2
일	본	76	678 980.9	7	481 314.1	21	3
싱	가 폴	81	1 072 470.5	3	535 333.2	15.2	4
한	국	100	933 475.1	4	401 807.8	15	5
미	국	28	224 923.4	14	93 236.4	11.4	6
말	레이시아	37	592 285.0	8	312 903.3	8.54	7
호	주	52	799 071.3	5	327 750.1	7.03	8
프	랑스	69	759 110.8	6	324 232.0	6.39	9
스	위스	15	462 926.5	9	180 626.5	5.85	10

〈도〉 국가별 외자도입 총자본금 순위(1996년 1월 10일)



1996년 1월 10일 현재까지 제조업분야 외자도입액이 약 46% 차지

- 베트남의 1988년부터 1996년 1월 10일 현재까지 외자도입 실적을 산업별로 분석해 보면 제조업이 85억\$로써 총자본금의 4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숙박 및 관광업이 63억\$로써 33.9%를 차지하고 있다.
- 석유 및 가스업은 11.3억\$로써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운수 및 통신업은 10.6억\$로써 5.7%를 차지하고 있다.

	1988~1996. 1. 10까지 총자본금	
	(억\$)	%
계	185.9	100.0
제조업	85	45.7
숙박 및 관광업	63	33.9
석유 및 가스	11.3	6.1
운수 및 통신업	10.6	5.7
농림어업	3.7	2.0
금융업	2.5	1.3
기타	9.8	5.3

외자도입기업체의 이윤율은 상당히 높은편

- 1993년말 현재 활동중인 외자도입기업체의 1993년도 경영성과를 분석해보면 판매액은 1,225.8백만\$, 이윤액은 293백만\$ (23.9%), 조세액은 447.6백만\$ (36.5%)로 나타나고 있다.
- 출자총액(2,653백만\$)에 대한 이윤율은 11.0%로써 이윤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조세까지 포함한다면 이윤율은 27.9%에 달하고 있다.
- 산업별로는 광공업판매액은 1,102백만\$, 이윤액은 281.3백만\$ (25.5%), 조세액은 435.6백만\$ (39.5%)로 나타나고 있으며 출자총액(1,975.2백만\$)에 대한 이윤율은 14.2%로써 조세까지 포함한다면 36.3%에 달하고 있다.

〈 표 〉 1993년말 현재 활동중인 외자도입 기업체의 경영지표

	기업체수 (개)	판매액(1993년) (백만\$)	이윤(1993년) (백만\$)	조세(1993년) (백만\$)
계	481	1 225.8	293	447.6
농 립 업	13	0.99	0.04	0.04
어 업	15	5.2	0	0.1
광 공 업	294	1 102	281.3	435.6
건 설 업	24	2.8	0.16	0.09
도소매업, 서비스 및 숙박업	99	79.9	9.2	9.9
운수, 창고 및 통신업	16	24.7	2.8	1.5
금 용 업	9	5.8	-0.3	0.4
과 학 및 기 술	1	0.92	0.082	—
문 화 및 체 육	3	0.1	—	0

5. 국내총생산

1994년 베트남 1인당 GDP 213\$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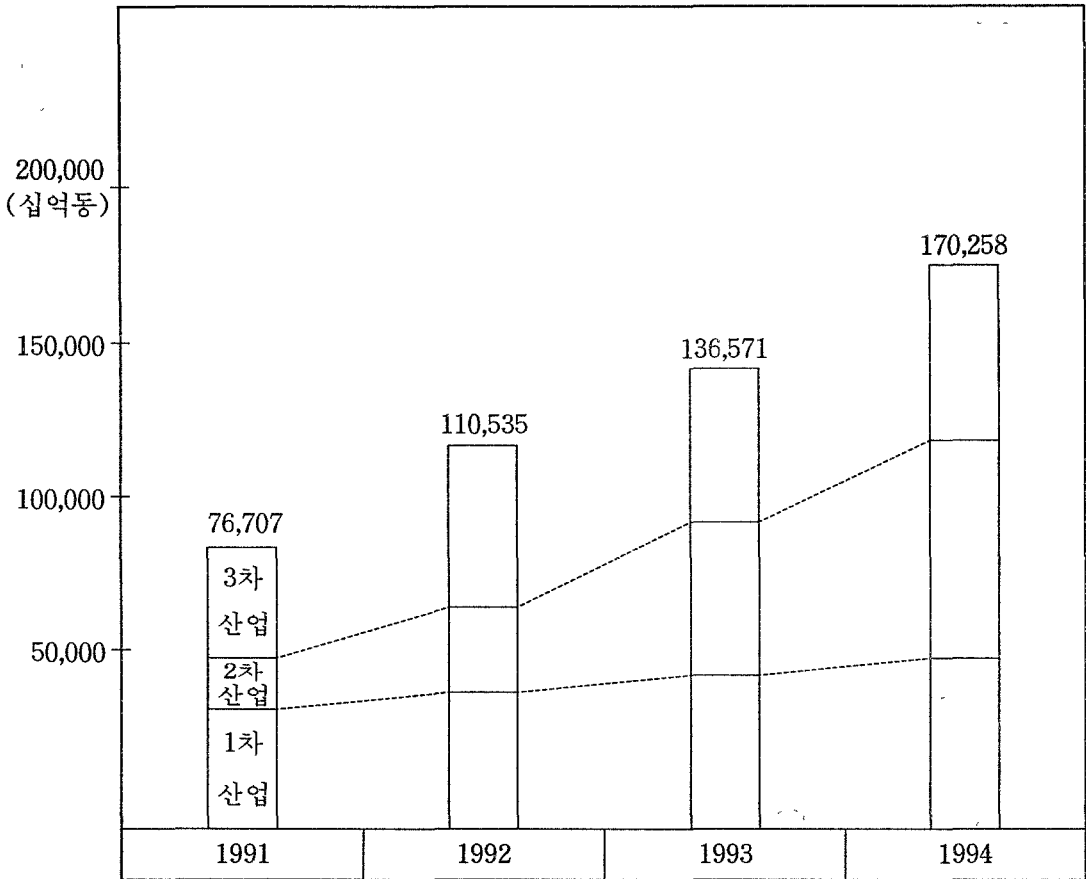
- 베트남의 명목 국내총생산액은 제5차 5개년 계획년도의 첫해인 1991년 76,707십억동에서 1994년 170,258십억동으로 2.2배 증가하였다.
-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은 1991년 31,058십억동에서 1994년 48,865십억동으로 1.6배, 광공업 및 건설업은 1991년 18,252십억동에서 1994년 50,481십억동으로 2.8배, 서비스업은 1991년 27,397십억동에서 1994년 70,912십억동으로 2.6배 증가하였다.
- 1인당 국내총생산은 1991년 1,132천동에서 1994년 2,348천동으로 2.1배 증가하였으며, 1994년도 1인당 국내총생산을 미달러로 환산하면 212.7\$에 해당된다.

〈 표 〉 산업별 국내총생산(경상가격)

	(단위 십억동)			
	1991	1992	1993	1994
국 내 총 생 산	76 707	110 535	136 571	170 258
농 립 어 업	31 058	37 513	40 796	48 865
광 공 업 ¹⁾ 및 건 설 업	18 252	30 135	39 472	50 481
서 비 스 업	27 397	42 887	56 303	70 912
1인당 국내총생산(천동)	1 132	1 593	1 923	2 348
1인당 국내총생산(\$)	94.5	150.9	177.3	212.7

주 베트남의 대미환율(동/US\$)은 1987년 225, 1988년 900, 1989년 4,300, 1990년 6,800, 1991년 11,975, 1992년 10,555, 1993년 10,845, 1994년 11,040임

〈도〉 산업별 국내총생산(경상가격)



산업별 국내총생산구조가 점차 선진국형으로

- 산업별 국내총생산의 구성비를 보면 제1차 산업인 농림어업은 1991년도 40.5%에서 1994년도 28.7%로 11.8%「포인트」 줄었으며, 제2차 산업인 광공업 및 건설업은 1991년 23.8%에서 1994년 29.6%로 5.8%「포인트」 증가하였고, 제3차산업인 서비스업은 1991년 35.7%에서 1994년 41.7%로 6%「포인트」 증가하였다.
- 베트남의 산업구조는 1991년의 1차>3차>2차에서 1992~3년의 3차>1차>2차로 이행하다가 1994년 3차>2차>1차의 선진화 구조로 조정되고 있다.

〈표〉 산업별 국내총생산 구성비

(단위 %)

	1991	1992	1993	1994
계	100.0	100.0	100.0	100.0
농림어업	40.5	33.9	29.9	28.7
광공업 ¹⁾ 및 건설업	23.8	27.3	28.9	29.6
광공업 ¹⁾	19.8	21.7	21.5	22.0
건설업	4.0	5.6	7.4	7.6
서비스업	35.7	38.8	41.2	41.7
운수업	} 3.7	4.2	4.4	4.1
우편 및 통신업				
도소매업	12.7	13.8	12.8	13.6
금융 및 보험업	1.4	1.4	1.7	2.0
공공행정, 과학, 교육, 보건 및 체육	8.9	8.8	10.5	10.7
가사, 관광, 숙박 및 개인서비스업	9.0	10.6	11.7	11.3

주 1) 전기가스업도 포함

1995년 베트남 GDP성장률 9.5%

- 베트남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추이를 분석해 보면 통일후인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기간중인 1976~1980년대에는 평균 0.2%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1981년부터 도이모이 개혁이전인 1986년까지는 6%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 또한, 도이모이 개혁이후 1987년은 3.9%, 1988년 5.1%, 1989년 8%, 1990년 5.1%, 1991년 6%를 기록하다가 최근에는 1992년 8.6%, 1993년 8.1%, 1994년 8.8% 및 1995년에는 9.5%를 기록함으로써 개혁의 성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 산업별로 최근의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분석해 보면 농림어업은 1991년 2.2%에서 1994년 3.9%로 1.7%「포인트」 증가하였으나, 광공업 및 건설업은 1991년 9%에서 1994년 14%로 5%「포인트」 증가하여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서비스업도 1991년 8.3%에서 1994년 10.2%로 1.9%「포인트」 증가하였다.

〈표〉 산업별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단위 %)

	1991	1992	1993	1994	1995
계	6.0	8.6	8.1	8.8	9.5
농 립 어 업	2.2	7.1	3.8	3.9	-
광 공 업 및 건 설 업	9.0	14.0	13.1	14.0	-
광 공 업	9.9	14.6	12.1	12.9	14.0
건 설 업	5.2	11.0	18.3	19.4	-
서 비 스 업	8.3	7.0	9.2	10.2	-
운 수 업	} 6.5	6.3	6.5	7.0	-
우 편 및 통 신 업					-
도 소 매 업	4.8	6.1	6.0	9.0	-
금 용 및 보 험 업	8.2	10.7	16.5	22.8	-
공공행정,과학,교육,보건및체육	6.2	7.0	9.3	13.2	-
가사,관광,숙박및개인서비스업	12.4	7.5	11.7	8.3	-

주 1976~1990년간의 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행 베트남 편람(1994) 자료이며, 1995년 자료는 국가안전기획부 해외 산업경제정보(96 2 15) 자료임

국영부문 국내총생산 구성비 점차 높아지고 있어

- 국내총생산을 소유형태별로 분석해 보면 국내총생산에서 국영부문이 차지하는 구성비가 1990년 32.5%에서 1994년 40.2%로 7.7%「포인트」 높아졌고 사영부문은 1990년 67.5%에서 1994년 59.8%로 낮아져 「도이모이」개혁이후 국영부문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산업별로는 농림어업은 사영부문이 각 연도별로 97%이상을 생산하여 사유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광공업 및 건설업은 국영부문이 1990년 62.8%에서 1994년 65.2%로 2.5%「포인트」 높아져 국영부문의 비중이 크며 서비스업은 사영부문이 1994년 51.9%를 차지하고 있으나 감소추세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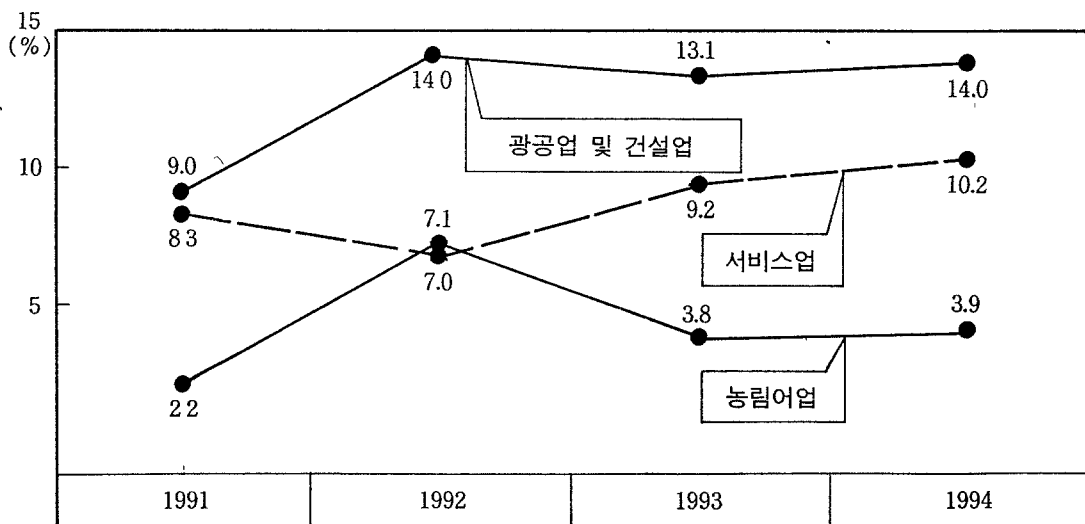
〈표〉 소유형태별, 산업별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단위 %)

		1991	1992	1993	1994
계		6.0	8.6	8.1	8.8
소유형태별					
국영		8.6	12.4	11.6	12.8
사영 ¹⁾		4.7	6.8	6.2	6.7
산업별					
농림어업		2.2	7.1	3.8	3.9
국영		2.3	2.2	7.1	7.0
사영 ¹⁾		2.2	7.2	3.7	3.8
광공업 ²⁾ 및 건설업		9.0	14.0	13.1	14.0
국영		10.4	18.6	14.7	14.5
사영 ¹⁾		6.6	5.4	9.8	12.8
서비스업		8.3	7.0	9.2	10.2
국영		7.4	7.5	8.8	11.4
사영 ¹⁾		8.9	6.6	9.6	9.2

주 1) 사영은 국영이외의 모든 분야를 의미함
 2) 전기가스업도 포함됨

〈도〉 산업별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6. 재 정

사회주의국가인 베트남의 GDP대비 총세입 비율은 낮은편

- 베트남의 총세입은 1991년 6,372십억동에서 1994년 32,199십억동으로 5.1배 증가하였고 총세출은 1991년 9,186십억동에서 1994년 39,063십억동으로 4.3배 증가하였다.
- 재정자립도를 보면 1991년 69.4%, 1992년 87.8%, 1993년 88.7%, 1994년 82.4%를 나타내고 있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적자액은 1991년 2,814십억동에서 1994년 6,894십억동으로 2.4배 국모로 확대되고 있다.
- GDP 대비 총세입비율은 1991년 15.2%에서 1994년 23.6%로 8.4%「포인트」 높아지고 있으나 자유국가인 우리나라와 간접적으로 비교해 볼때 사경제 비율이 몹시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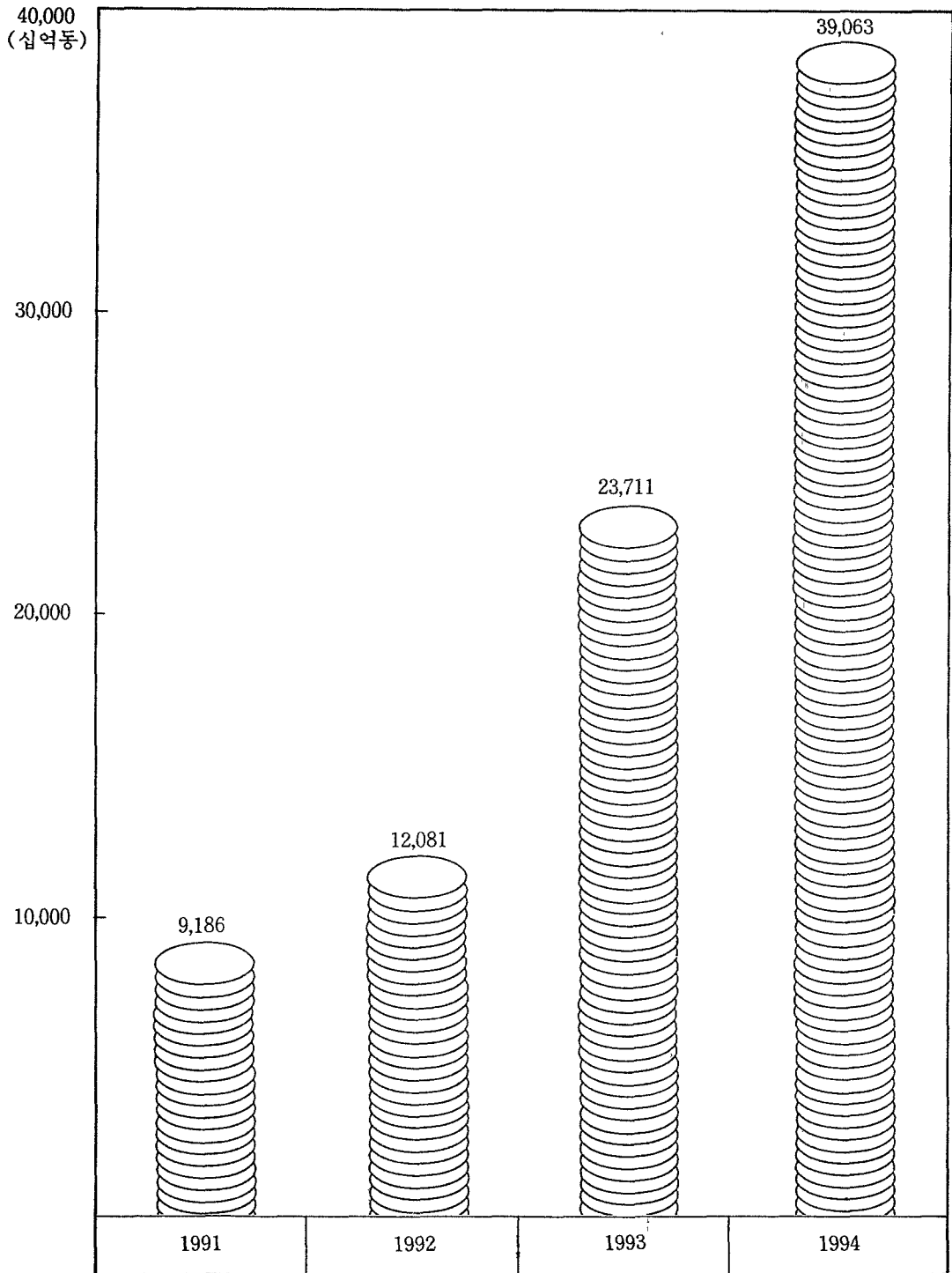
〈 표 〉 중앙정부예산 수지표

(단위 십억동, %)

	1991	1992	1993	1994
총 세 입	6 372	10 609	21 023	32 199
국 내 세 입	6 153	10 083	20 175	31 171
외 국 원 조	219	526	848	1 028
총 세 출	9 186	12 081	23 711	39 063
재 정 적 자	-2 814	-1 472	-2 688	-6 864
차 입 금				
국 내	1 173	393	1 373	2 625
해 외 차 관	1 641	1 079	1 315	4 239
GDP 대비 총세입비율	15.2	13.8	19.0	23.6
GDP 대비 국내세입비율	14.7	13.1	18.2	22.8
GNP 대비 총세입비율(한국)	15.4	14.6	14.5	14.3
GNP 대비 총세입비율(북한) ¹⁾	75.1	88.2	92.2	89.2

주 1) 통일원, 남북한 경제지표(1995) 자료임

〈도〉 총 세 출



베트남 국내세입액중 외국합작기업 납부세액이 약 20%전후

- 중앙정부의 국내세입 구성비를 분석해 보면 조세수입은 1990년 79.1%에서 1993년 80.5%로 0.6%「포인트」 증가하였고 요금 및 기타 세입은 1990년 16.8%에서 1993년 13.3%로 3.5%「포인트」 감소하였다.
- 조세수입 중 국영기업은 1990년 33.8%에서 1993년 18.9%를 차지하여 14.9%「포인트」 감소하였고, 외국 합작기업은 1990년 17.7%에서 1993년 16.4%로 1.3%「포인트」 감소하였으나 관세는 1990년 11.9%에서 1993년 20.5%로 8.6%「포인트」 증가하여 향후 개방화 확대에 따른 세수증대가 예상되고 있다.

〈표〉 중앙정부의 국내세입 구성비

		(단위 %)			
		1990	1991	1992	1993
계		100.0	100.0	100.0	100.0
조	세	79.1	85.0	77.4	80.5
국	영 기 업	33.8	37.8	29.2	18.9
외	국 합 작 기 업	17.7	19.4	21.0	16.4
광	공업 ¹⁾ 및 도소매업	10.8	9.3	9.0	9.4
농	업 세	4.8	7.0	6.4	4.3
관	세	11.9	10.9	10.9	20.5
주	택 및 토 지 세	0.0	0.0	0.1	0.8
소	득 세	0.0	0.6	0.8	0.6
요	금 및 기 타 세 입	16.8	12.6	14.4	13.3
감	가 상 각 비	4.1	2.4	8.2	6.2

주 1) 전기가스업도 포함됨

1989년 베트남 가계 정기예금(3개월)이자율 월12% 수준

- 베트남의 월 예금이자율은 정기예금(3개월) 가계의 경우 1988년 12월에 6%, 1989년 3월에 12%, 1990년 3월에 4%를 나타내었으며 1993년 3월에 2%, 1994년 3월에는 1.4%로 점차 예금금리가 인하되고 있다.
- 월 대출이자율은 광공업 및 운수업의 경우 1988년 12월에 3~3.6%, 1989년 3월에 10.8~10.9%, 1990년 3월에 1.8~3.7%를 기록하였고 1993년 3월에 2%로 대출금리도 1989년 3월을 정점으로 인하되고 있다.
- 베트남의 국내은행의 월 이자율이 높은 이유는 1987년~1992년의 높은 물가상승률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된다.

〈표〉 국내은행의 월이자율

	(단위 %)						
	1988년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2월	3월	3월	7월	3월	3월	3월
예금이자율							
요구불예금							
가계	0.0	9.0	2.4	2.1	2.1	1.0	0.7
기업	0.5	4.0	0.9	0.9	1.0	0.3	0.1
정기예금(3개월)							
가계	6.0	12.0	4.0	3.5	3.5	2.0	1.4
기업	2~2.5	5.8	1.8	1.8	2.1	1.5	0.8
정기예금(6개월)							
가계	—	—	—	—	—	—	1.7
기업	—	—	—	—	—	1.5	1.0
대출이자율							
농업	2.5~3.0	10.6~10.8	2.1~2.4	2.1~2.4	3.3	2.5	—
광공업 및 운수업	3.0~3.6	10.8~10.9	1.8~3.7	1.8~3.7	3.0	2.0	—
도소매업 및 관광	3.6~4.0	11.0	3.0	3.0	3.7	2.7	—
시설자금						1.8	1.2
운전자금						2.7	2.1

7. 농 업

베트남 농업생산은 성장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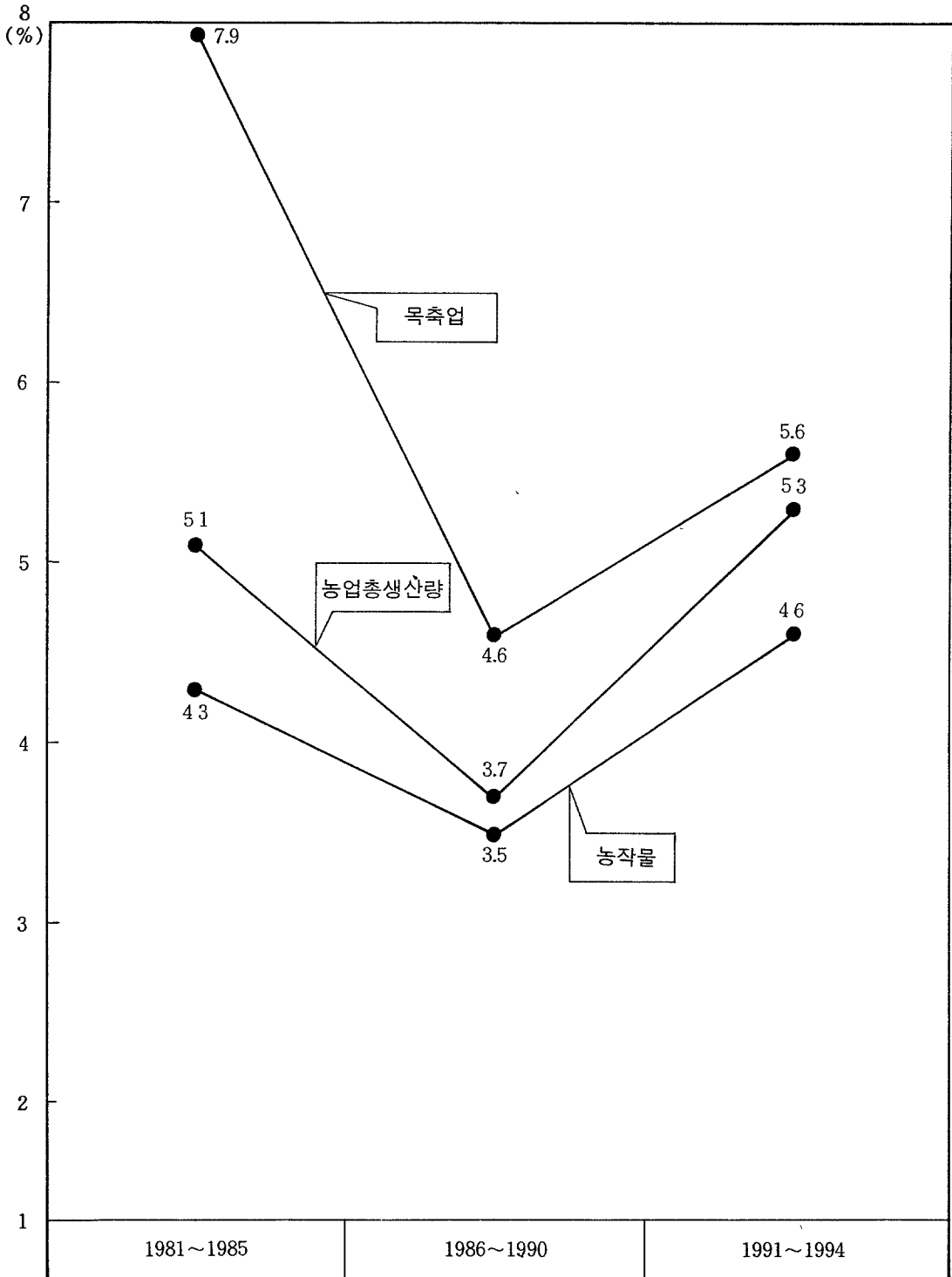
- 농업총생산량 성장률은 농업부문의 인센티브를 처음으로 도입한 제3차 5개년 계획 기간중인 1981~1985년 기간중 평균 5.1%가 증가하였고 제4차 5개년 기간중인 1986~1990년에는 3.7%, 제5차 5개년 기간중인 1991~1994년에는 5.3% 증가하여 풍흉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시현하였다.
- 농작물 생산 성장률은 1981~1985년 기간중에는 평균 4.3%, 1986~1990년 기간중에는 평균 3.5%, 1991~1994년 기간중에는 5.2%로 증가하였다.
- 목축업부문은 1981~1985년 기간중에는 평균 7.9%, 1986~1990년 기간중에는 평균 4.6%, 1991~1994년 기간중에는 평균 5.6% 증가하였다.

〈 표 〉 농업 총생산량 성장률(1989년 불변가격)

	계	농 작 물	목 축
1981	3.8	0.7	16.5
1982	10.4	11.4	7.0
1983	3.3	1.3	10.3
1984	5.3	5.5	4.4
1985	2.5	2.7	1.5
평균(1981~1985) ¹⁾	5.1	4.3	7.9
1986	5.0	3.5	9.7
1987	0.4	-2.1	7.7
1988	4.0	6.8	-3.3
1989	7.5	7.7	6.8
1990	1.7	1.5	2.3
평균(1986~1990) ¹⁾	3.7	3.5	4.6
1991	2.9	3.7	0.7
1992	8.1	7.1	11.2
1993	6.2	6.3	5.8
1994	3.9	3.7	4.6
평균(1991~1994) ¹⁾	5.3	5.2	5.6

주 1) 단순산술평균치임

〈도〉 농업총생산량 성장률



메콩델타지역 곡물생산량은 전체생산량의 절반수준

- 지역별 곡물생산량은 북부지역은 1994년 9,882.8천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37.7%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부지역은 1994년 16,315.7천톤으로 62.3%를 차지하고 있다.
- 홍하델타 평야지역은 1994년 4,619.1천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17.6%를 차지하고 있으며, 메콩델타지역은 1994년 12,289.3천톤으로 46.9%를 차지하고 있다.

〈 표 〉 지역별 곡물 생산량

(단위 · 천톤)

	1990	1991	1992	1993	1994
전 국	21 488.5	21 989.5	24 214.6	25 501.7	26 198.5
북 부 지 역	8 448.4	7 834.6	9 701.2	10 797.8	9 882.8
북 부 산 간 지 역	2 349.6	2 367.4	2 832.9	2 162.1	2 955.8
홍 하 델 타 지 역	4 100.7	3 456.7	4 693.1	5 388.1	4 619.1
중 북 부 해 안 지 역	1 988.1	2 010.5	2 175.2	2 247.6	2 307.9
남 부 지 역	13 040.1	14 154.9	14 513.4	14 703.9	16 315.7
중 남 부 해 안 지 역	1 875.6	2 027.3	1 853.9	1 732.2	2 034.3
중 남 부 고 원 지 역	581.0	606.9	618.6	634.2	664.4
남 북 동 지 역	975.7	1 056.7	974.3	1 135.6	1 327.7
메 콩 델 타 지 역	9 607.8	10 464.0	11 066.6	11 201.9	12 289.3

1994년 베트남 쌀생산량 한국의 4.6배 수준

- 곡물생산량은 1980년 14,406.4천톤에서 1994년 26,198.5천톤으로 1980년대비 81.9% 증가하였으며 이중 쌀 생산량은 1980년 11,647.4천톤에서 1994년 23,528.2천톤으로 1980년대비 2배로 규모가 확대되었다. 1994년도 베트남 쌀 생산량은 한국의 4.6배에 달하고 있다.
- 곡물 재배면적은 1980년 7,049.3천ha에서 1994년 현재 7,809천ha로 10.8% 증가하였는데 쌀 재배면적은 1980년 5,600.2천ha에서 1994년 6,598.6천ha로 17.8%, 기타 곡물은 1980년 1,449.1천ha에서 1994년 1210.4천ha로 16.5%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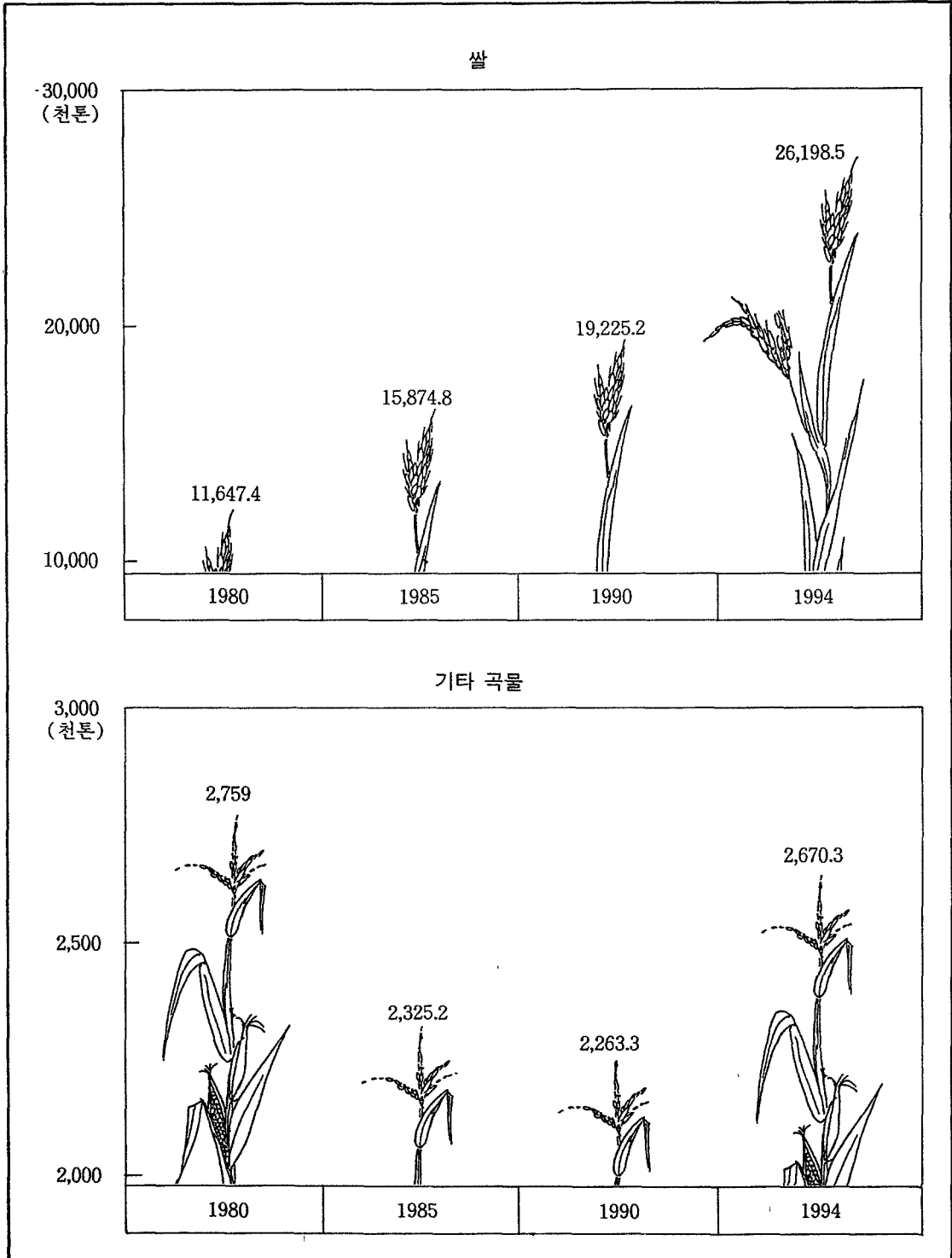
〈표〉 곡물 생산량 및 재배면적

(단위 천톤, 천 ha)

	계	생 산 량		계	재 배 면 적	
		쌀	기타곡물		쌀	기타곡물
1980	14 406.4	11 647.4	2 759.0	7 049.3	5 600.2	1 449.1
1985	18 200.0	15 874.8	2 325.2	6 833.6	5 703.9	1 129.7
1990	21 488.5	19 225.2	2 263.3	7 110.9	6 027.7	1 083.2
1994	26 198.5	23 528.2	2 670.3	7 809.0	6 598.6	1 210.4
한국(1994)	5 744	5 060	684	1 403	—	—
북한(1994)	4 125	1 502	2 623	1 483	—	—

자료 통일원, 남북한 경제지표(1995)

〈도〉 곡물 생산량



베트남 ha당 쌀생산량은 우리나라보다 7백kg 적어

- 농업생산성의 주요지표인 ha당 쌀생산량을 분석해 보면 1990년에는 31.9백kg, 1991년 31.1백kg, 1992년 33.3백kg, 1993년도에는 34.8백kg으로 1990년대비 9.1% 생산성이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면 베트남은 1993년도 ha당 쌀생산량이 7백kg 정도가 적은 편이다.
- 지역별로는 홍하델타지역의 ha당 쌀생산량이 가장 높은 편으로 1993년도에는 46.8백kg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메콩델타지역은 36.9백kg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지역별 ha당 쌀 생산량

		(단위 백kg)			
		1990	1991	1992	1993
전	국	31.9	31.1	33.3	34.8
북	부 지역	28.0	24.9	31.2	35.6
	북부산간 지역	22.7	19.5	24.8	28.3
	홍하델타 지역	34.2	29.3	40.0	46.8
	중북부해안 지역	24.2	24.2	25.8	27.1
남	부 지역	34.6	35.2	34.6	34.3
	중남부해안 지역	32.5	34.2	30.2	28.0
	중남부고원 지역	23.3	25.3	23.9	23.7
	남북동 지역	26.0	27.3	22.7	26.3
	메콩델타 지역	36.7	36.8	37.4	36.9
한	국	45.1	44.6	46.1	41.8
북	한	22.6	28.1	26.8	23.2

자료 : 통일원, 남북한 경제지표(1995)

8. 물 가

1992년이후 물가수준은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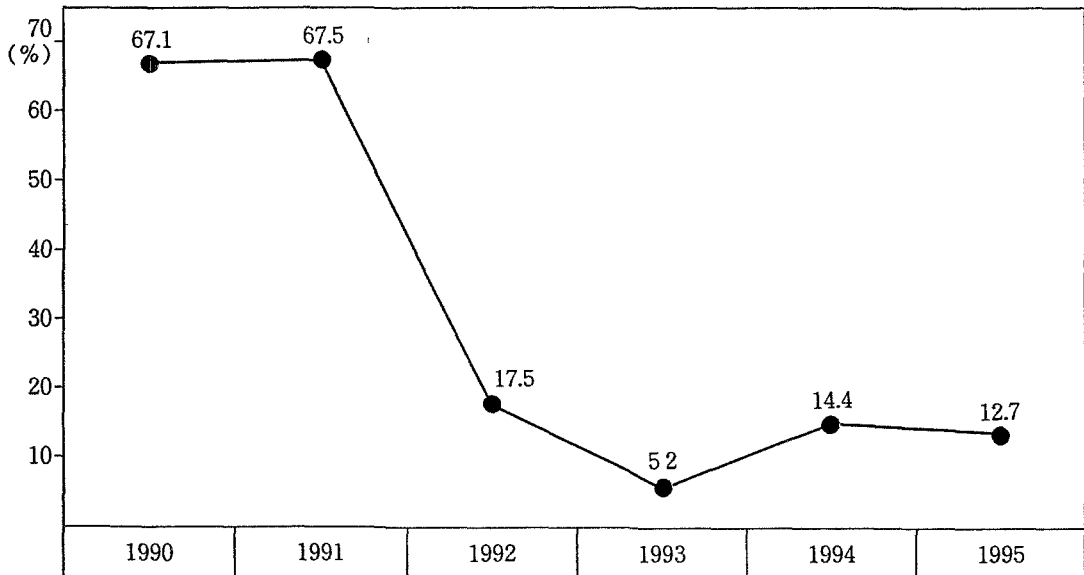
- 베트남의 소비재 및 서비스 소매가격지수는 전월대비 연평균지수는 1990년 104.4, 1991년 104.4, 1992년 101.4, 1993년 100.4, 1994년 101.1로 1992년 이후 물가가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
- 전년 12월대비 당해년도 12월 지수는 1990년이 167.1, 1991년이 167.5로써 과거 수년동안과 마찬가지로 높은 물가상승률을 나타낸 반면 최근에는 1992년 117.5, 1993년 105.2, 1994년 114.4, 1995년 112.7로써 물가가 상당히 안정화 되어 있다.

〈표〉 소비재 및 서비스 소매가격 지수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전월(100.0)대비 평균 지 수	104.4	104.4	101.4	100.4	101.1	-
전년 12월 대비 당해년도12월지수	167.1	167.5	117.5	105.2	114.4	112.7

주 1987년 물가상승률은 223.1%, 1988년 393.8%, 1989년은 34.7%임

〈도〉 소비재 및 서비스 소매물가 상승률



1994년 소매물가는 식량 및 식료품이 높은 상승세

- 1994년도 소매물가지수를 분석해보면 소비재는 전년말월 대비 14.9% 증가하였고 서비스는 13% 증가하였다. 또 금은 8%, US\$는 1.7% 상승하였다.
- 소비재중 식량 및 식료품은 23.6% 상승하여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비식량 및 식료품은 5.9% 상승하였다.

〈표〉 1994년 12월 전년말월대비 소매물가지수

구	분	지	수
재 화	및 서 비 스		114.4
소	비	재	114.9
식 량,	식 료 품		123.6
비 식 량	및 식 료 품		105.9
서	비	스	113.0
	금		108.0
	US \$		101.7

1994년 햅쌀 1kg 가격은 157한국원

- 주요소비재 및 서비스 평균소매가격을 분석해 보면 햅쌀 1kg은 1991년 2,028동에서 1994년 2,195동으로 8.2% 증가하였고, 쇠고기 1kg은 1991년 11,893동에서 1994년 20,726동으로 74.3% 크게 증가하였다.
- 백설탕 1kg은 1991년 4,378동에서 1994년 6,091동으로 39.1% 증가하였고, 등유 1리터는 1991년 2,287동에서 1994년 2,552동으로 11.6%, 휘발유 1리터는 1991년 2,628동에서 1994년 2,745동으로 4.5% 각각 상승하였다.
- 1994년 베트남의 주요 소비재 및 서비스 평균가격을 한국 원화로 환산하면 햅쌀 1kg은 157한국원, 돼지고기 1kg은 1,117한국원, 쇠고기 1kg은 1,480한국원으로 나타났으며 두부 1kg은 223한국원, 맥주1리터는 318한국원, 등유 1리터는 182한국원, 휘발유 1리터는 196한국원으로 나타났다.

〈표〉 주요 소비재 및 서비스 평균소매가격

	단 위	1991	1992	1993	1994		
					베트남동	한국원	
햄	살	kg	2 028	1 742	1 865	2 195	157
참	쌀	kg	2 646	2 647	2 718	3 241	234
돼 지 고 기		kg	10 519	15 265	15 443	15 639	1 117
쇠 고 기		kg	11 893	17 910	18 208	20 726	1 480
닭 고 기		kg	9 369	13 985	14 012	16 147	1 153
오 리 알	10개		5 355	6 046	6 478	7 470	534
잉 어		kg	5 974	10 667	11 028	12 463	890
바 다 새 우		kg	11 941	18 053	18 936	24 689	1 764
일 반 콩		kg	2 978	3 361	4 058	4 500	321
땅 콩 류		kg	5 273	5 469	6 163	6 453	461
고 등 어		kg	5 608	9 019	12 359	15 856	1 133
두 부		kg	2 071	2 820	3 047	3 117	223
소 금		kg	649	672	677	683	49
국 수 류		kg	18 926	19 510	19 874	20 008	1 429
백 설 탕		kg	4 378	4 627	5 124	6 091	435
맥 주		리터	2 956	3 719	4 102	4 446	318
차		kg	16 667	20 103	22 501	24 925	1 780
면 직 물 천		m	3 469	5 156	5 198	5 207	372
양 모, 방 모 직 물		kg	56 420	69 396	76 545	78 776	5 627
비 타 민 C	백정		815	1 088	1 870	3 452	247
등 유		리터	2 287	2 534	2 558	2 552	182
휘 발 유		리터	2 628	2 416	2 637	2 745	196
전 력		Kwh	265	468	475	492	35
물		m ³	448	902	935	1 141	82
이 발 (남자)		1회	1 523	2 219	2 920	3 152	225
파 마 (여자)		1회	5 640	7 941	8 982	10 600	757
사 진 촬 영		1회	2 659	3 989	4 286	4 590	328

주 한국 1원당 베트남 14동으로 환산하였음

9. 대외거래

1995년 무역규모는 127억\$로 크게 확대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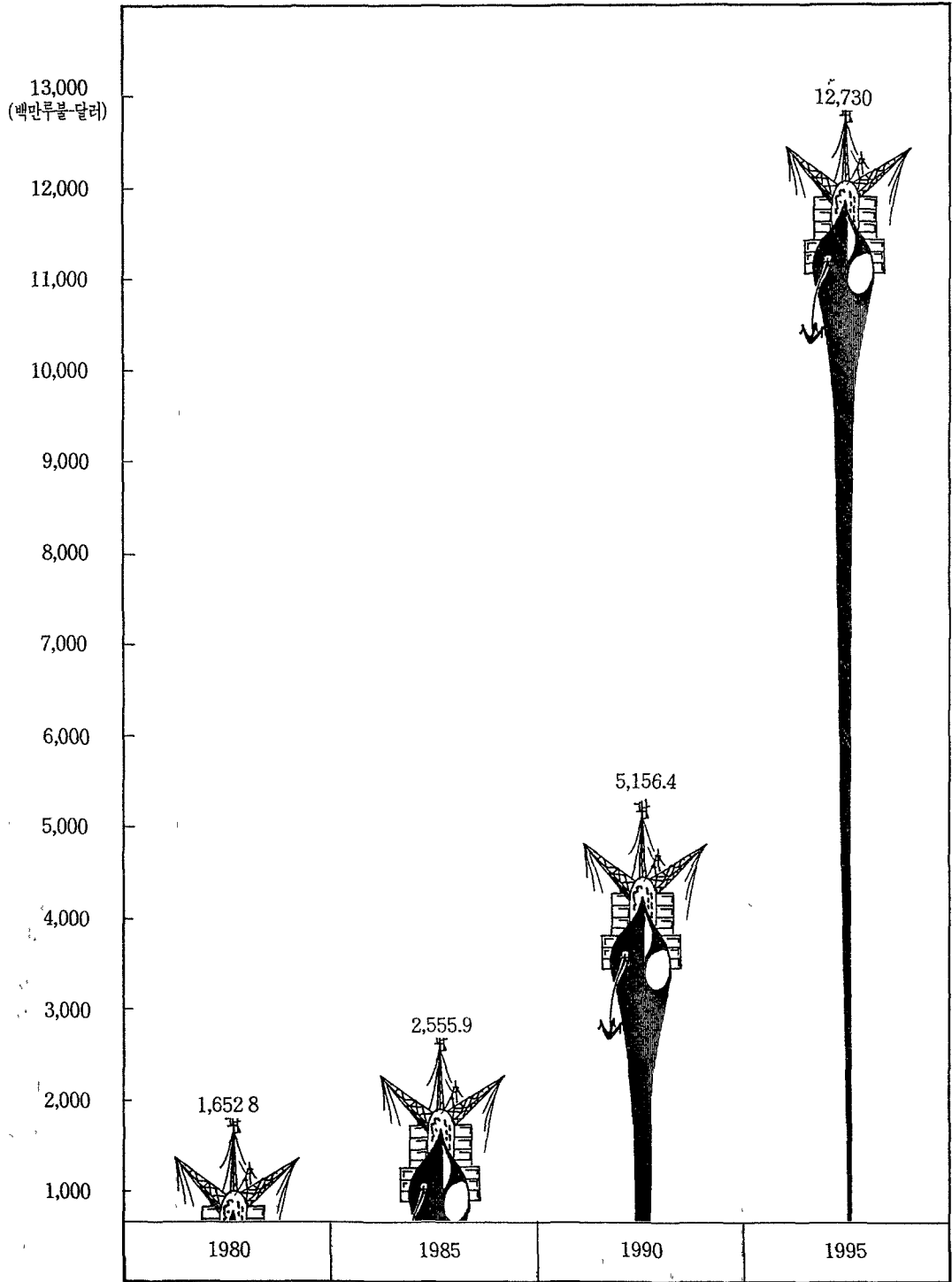
- 베트남의 무역규모는 1980년 1,652.8백만루블-달러로써 1985년 2,555.9백만루블-달러, 1990년 5,156.4백만루블-달러, 1995년 12,730백만루블-달러를 기록하여 1980년대 비 7.7배 무역규모가 확대되었다.
- 수출은 1980년 338.6백만루블-달러에서 1985년 698.5백만루블-달러, 1990년 2,404백만루블-달러, 1995년도에는 5,220백만루블-달러를 나타내어 1980년 대비 15.4배로 개방노선 채택이후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 수입은 1980년 1,314.2백만루블-달러, 1985년 1,857.4백만루블-달러, 1990년 2,752.4백만루블-달러, 1995년도에는 7,510백만루블-달러를 기록함으로써 1980년대비 5.7배 규모가 확대되었다.
- 베트남 무역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1980년에는 -975.6백만루블-달러, 1985년 -1,158.9백만루블-달러, 1990년 -348.4백만루블-달러, 1995년도에는 -2,290백만루블-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1991년 이후 무역적자폭이 점차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 수출입액

	계 (백만루블-달러)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백만루블-달러) ¹⁾
		백만루블-달러 ¹⁾	백만달러	백만루블-달러 ¹⁾	백만달러	
1980	1 652.8	338.6	112.7	1 314.2	559.1	-975.6
1985	2 555.9	698.5	272.7	1 857.4	449.4	-1 158.9
1990	5 156.4	2 404.0	1 352.2	2 752.4	1 372.5	-348.4
1991	4 425.2	2 087.1	2 009.8	2 338.1	2 049.0	-301.0
1992	5 121.4	2 580.7	2 552.4	2 540.7	2 540.3	-400.0
1993	6 909.2	2 985.2	2 952.0	3 924.0 ²⁾	3 924.0	-938.8
1994 ³⁾	9 879.8	4 054.0	4 054.0	5 825.8	5 825.8	-1 771.8
1995 ³⁾	12 730.0	5 220.0	5 220.0	7 510.0	7 510.0	-2 290.0

- 주 1) 루블-달러는 구소련 루블화와 미 달러화를 단순합제한 수치임
 2) 외국인의 직접투자액수도 수입에 포함함
 3) 베트남 무역부자료임

〈도〉 수출입액



수출-농림수산물, 수입-생산재의 비중이 높아

- 베트남의 상품별 수출액 구성비를 분석해 보면 농림수산물은 1985년 56.9%, 1990년 47.8%, 1993년도에는 48.4%를 차지하였으며, 경공업품 및 수공업품은 1985년 33.7%, 1990년 26.4%, 1993년도에는 17.6%를 차지하여 농림수산물과 경공업품 및 수공업품은 감소추세에 있다.
- 반면에 중공업품 및 광물은 1985년 9%, 1990년 25.7%, 1993년도에는 33.8%로써 크게 증가하고 있다.
- 베트남의 상품별 수입액 구성비를 분석해보면 연료, 원자재등 생산재는 1985년 85.4%, 1990년 85.1%, 1993년도에는 84.4%를 차지함으로써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식량, 식료품 등 소비재는 1985년 14.6%, 1990년 14.9%, 1993년도에는 15.6%를 차지하고 있다.

〈 표 〉 상품별 수출입액

(단위 백만 루블-달러¹⁾)

	1985	1990	1991	1992	1993
수출	698.5	2 404.0	2 087.1	2 580.7	2 985.2
(%)	(100.0)	(100.0)	(100.0)	(100.0)	(100.0)
중공업품 및 광물	62.9	616.9	697.1	954.8	1 014.0
(%)	(9.0)	(25.7)	(33.4)	(37.0)	(33.8)
경공업품 및 수공업품	235.5	635.8	300.1	349.5	526.5
(%)	(33.7)	(26.4)	(14.4)	(13.5)	(17.6)
농림수산물	397.3	148.8	1 088.9	1 276.1	1 444.4
(%)	(56.9)	(47.8)	(52.2)	(49.4)	(48.4)
기타	27	24	1.0	0.3	0.2
(%)	(0.4)	(0.1)	(0.04)	(0.01)	(0.01)
수입	1 857.4	2 752.4	2 338.1	2 540.8	3 924.0
(%)	(100.0)	(100.0)	(100.0)	(100.0)	(100.0)
생산재	1 586.6	2 342.6	2 012.8	2 119.8	3 311.2
(%)	(85.4)	(85.1)	(84.3)	(83.4)	(84.4)
소비재	270.8	409.8	325.2	420.9	612.8
(%)	(14.6)	(14.9)	(13.6)	(16.6)	(15.6)

주 1) 루블-달러는 구소련 루블화와 미 달러화를 단순합계한 수치임

베트남의 교역상대국은 구소련 및 동구권에서 서방진영으로 전환

- 1993년 베트남의 10대 교역국은 과거 구소련, 동구권에서 서방진영으로 전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1993년 베트남 제1위의 교역국은 싱가포르로써 교역액은 1985년 60백만루블-달러에서 1993년 1,438.6백만루블-달러로 24배 규모로 교역이 확대되었으며, 일본은 베트남의 제2위의 교역국으로써 1985년 174.4백만루블-달러에서 1993년 1,389.2백만루블-달러로써 8배의 규모로 확대되었다.
- 한국의 1993년 베트남과 교역규모는 818.9백만루블-달러로써 제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362.4백만루블-달러로써 제4위를 차지하고 있다.

〈 표 〉 1993년 10대 교역국의 연도별 무역규모

(단위 백만루블-달러)

	1985	1990	1991	1992	1993
싱 가 폴	60.0	691.5	764.7	1 223.3	1 438.6
일 본	174.4	509.3	877.0	1 073.3	1 389.2
한 국 ¹⁾	26.7	150.2	240.1	493.5	818.9
프 랑 스	19.2	238.7	231.0	294.0	362.4
대 만	—	69.7	117.6	140.0	359.8
홍 콩	76.2	440.1	418.0	344.6	314.4
중 국	—	12.4	37.7	127.4	221.3
태 국	0.4	69.3	71.9	112.7	171.3
독 일	—	—	107.9	75.0	122.1
인 도 네 시 아	0.2	24.4	65.9	50.7	107.4

주 1) 한국무역협회 자료임

1995년 한·베트남 무역규모는 1983년대비 약68배

- 우리나라와 베트남간의 대외거래를 시작한 1983년도의 무역규모는 22,809천\$이며 1995년도에는 1,544,612천\$로써 1983년대비 67.7배로 크게 규모가 확대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와 베트남간에 수교한 연도인 1992년이후 무역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의 베트남에 대한 수출은 1983년 12,544천\$에서 1995년도에는 1,351,014천\$로써 107.7배 확대되었고 수입은 1983년 10,265천\$에서 1995년 193,598천\$로써 18.9배 확대되었다.
- 베트남에 대한 무역수지는 1983년이후 계속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1995년까지 흑자누계액은 3,432,683천\$에 달하고 있다.

〈 표 〉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입 현황

(단위 천\$)

	계	수 출	수 입	무 역 수 지
1983	22 809	12 544	10 265	2 279
1984	31 809	24 039	7 770	16 269
1985	26 688	15 055	11 633	3 422
1986	61 217	34 850	26 367	8 483
1987	54 629	38 545	16 084	22 461
1988	75 732	61 881	13 851	48 030
1989	86 770	44 891	41 879	3 012
1990	150 205	116 825	33 380	83 445
1991	240 102	198 948	41 154	157 794
1992	493 515	436 182	57 333	378 849
1993	818 897	728 268	90 629	637 639
1994	1 141 134	1 027 359	113 775	913 584
1995	1 544 612	1 351 014	193 598	1 157 416
1983~1995	4 748 119	4 090 401	657 718	3 432 683

주 1983~1994년은 한국무역협회 자료이며 1995년 자료는 관세청 자료임

10. 사회간접자본

가. 운수

1990년 이후 수송량이 크게 늘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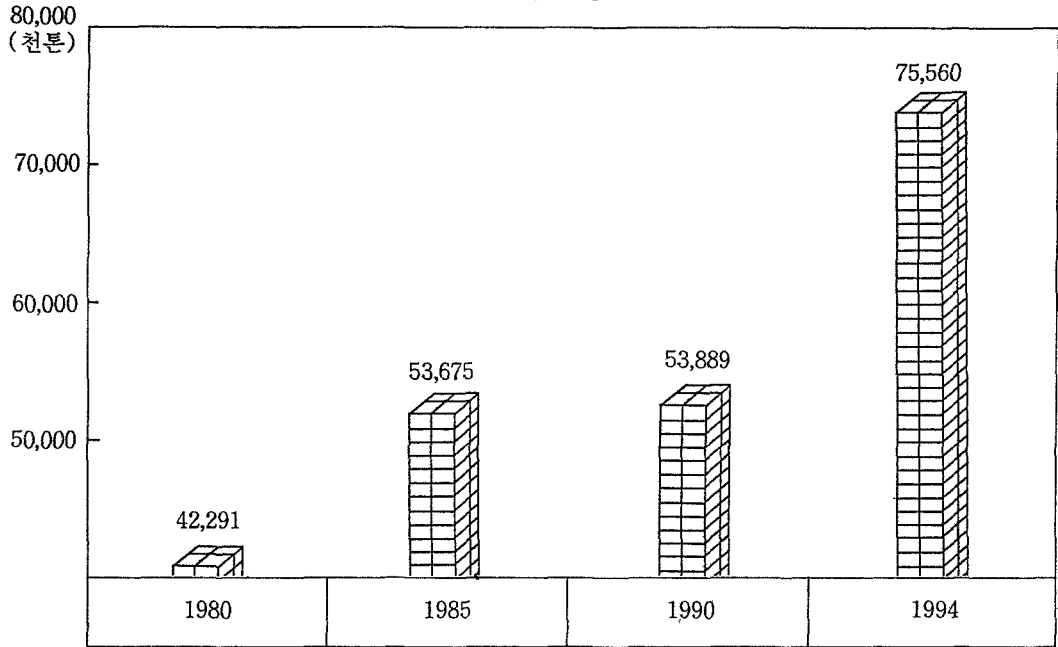
- 베트남의 화물수송량은 1980년 42,291천톤, 1985년 53,675천톤, 1990년 53,889천톤, 1994년도에는 75,560천톤으로써 1980년 대비 1.8배 증가하였다. 화물수송거리는 1980년 9,823.3백만톤킬로미터에서 1994년 20,081백만톤킬로미터로 2배정도 증가하였다.
- 또한, 여객수송량은 1980년 447.7백만명, 1985년 378.5백만명, 1990년 326.8백만명으로 감소하다가 1994년도에는 536.9백만명으로 1980년 대비 20% 증가하였다. 여객수송거리는 1980년 13,795백만명킬로미터에서 1994년 16,435백만명킬로미터로 19.1% 정도 증가하였다.

〈 표 〉 수송량 및 수송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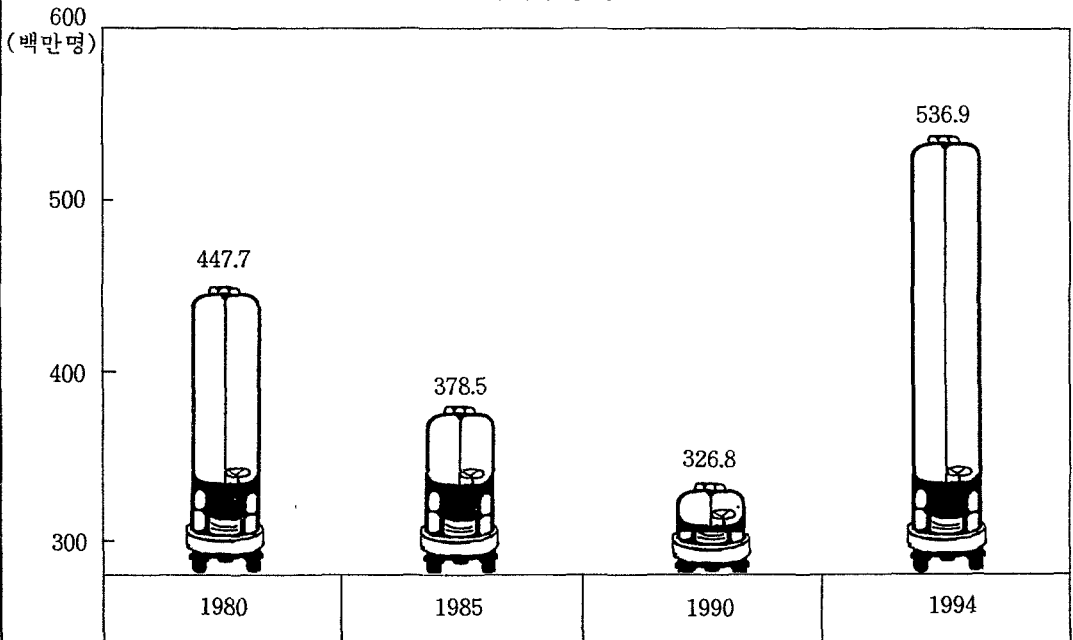
	화물수송량 (천톤)	여객수송량 (백만명)	화물수송거리 (백만톤킬로미터)	여객수송거리 (백만명킬로미터)
1980	42 291	447.7	9 823.3	13 795.0
1985	53 675	378.5	12 704.2	13 486.5
1990	53 889	326.8	12 544.2	11 829.7
1991	56 431	436.5	17 209.5	12 915.1
1992	64 903	493.0	17 002.2	14 599.6
1993	70 464	516.4	18 419.0	15 272.0
1994	75 560	536.9	20 081.0	16 435.0

〈도〉 수 송 량

화물수송량



여객수송량



베트남 도로 포장률 8.5%에 불과

- 1994년 베트남의 육로총연장은 177,259km로써 이중 포장도로가 15,070km에 달하여 도로포장률은 8.5%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자갈길 내지 흙길이다.
- 수로 총연장은 40,988km로써 1,000톤이상 배가 다닐수 있는 수로는 1,891km에 불과하며 전체수로의 4.6%에 해당된다.
- 교량의 갯수는 39,482개로써 총연장은 556,588m에 달하고 있다.

〈 표 〉 관리주체별 육로, 수로, 교량 및 하수도 현황¹⁾

	계	중앙정부관리	성·시 관리	시·군 관리	읍·면 관리
육 로 (km)	177 259	6 383	20 052	28 754	122 070
포 장 도 로	15 070	4 870	6 463	2 252	1 485
수 로 (km)	40 988	5 131	9 270	10 252	16 335
1,000 톤 이 상	1 891	1 746	83	60	2
교 량					
갯 수	39 482	1 747	4 147	5 256	28 332
길 이 (m)	556 588	67 307	93 490	87 380	308 411
하 수 도 (개)	98 560	8 184	23 734	16 052	50 590
10 톤 이 상	21 781	7 796	10 776	1 960	1 249
한 국					
육 로 (km)	73 833	—	—	—	—
포 장 도 로 (km)	57 421	—	—	—	—

주) 1) 1994년 2월 1일 기준임

육로 화물수송량 분담률은 증가추세에 있어

- 수송부문별 화물수송량 분담률을 분석해보면 철로는 1980년 8.3%에서 1994년 4.5%로 감소추세에 있고, 육로는 1980년 61.3%에서 1985년 58.3%로 감소하였다가 1994년 65.3%로 증가추세에 있다.
- 내수면은 1980년 27.5%에서 1994년 23.8%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해상로는 1980년 3.0%에서 1994년 6.3%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 표 〉 수송부문별 화물수송량 분담률

	계	철 로	육 로	내 수 면	해 상
1980	100.0	8.3	61.3	27.5	3.0
1985	100.0	7.5	58.3	29.3	4.9
1990	100.0	4.3	58.9	30.2	6.5
1994	100.0	4.5	65.3	23.8	6.3

나. 우편 및 통신

1994년 우편물, 소포 및 전보이용건수 1985년의 절반이상 감소

- 우편물은 1985년 171,1백만통에서 1994년 80백만통으로 46.8% 감소하였고, 소포는 1985년 488백만통에서 1994년 90백만통으로 81.6% 감소하였다.
- 신문·잡지 발행부수는 1985년 193.8백만부에서 1994년 270백만부로 39.3% 증가하였으며, 전보는 1985년 124.2백만건에서 1994년 50.6백만건으로 59.3% 감소하였다.

〈표〉 우편 및 통신 주요지표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우 편 물 (백만통)	171.1	58.2	—	4.8	79.3	80
소 포 (백만통)	488.0	124.0	47.0	60.8	75.8	90
신문, 잡지 (백만부)	193.8	136.5	117.3	133.9	158.2	270.0
전 보 (백만건)	124.2	73.3	66.2	90.8	60.0	50.6

유무선설비는 감소하였으나 종사자수는 증가하여

- 베트남의 우편조직은 1985년 1,743개에서 1993년 2,005개로 15% 증가하였다.
- 유무선 설비조직을 분석해 보면 무선송수신기는 1985년 2,358대에서 1993년 1,056대로 55.2% 감소하였고, 전화교환기는 1985년 3,868대에서 1993년 1,110대로 71.3% 감소하였다.
- 전화회선수는 1985년 103.1천회선에서 1993년 268.3천회선으로 2.6배 증가하였으며, 전보기계는 1985년 2,390대에서 1993년 1,300대로 45.6% 감소하였으나 유무선 설비 조직 종사자는 오히려 1985년 35.7천명에서 1993년 54.2천명으로 51.8%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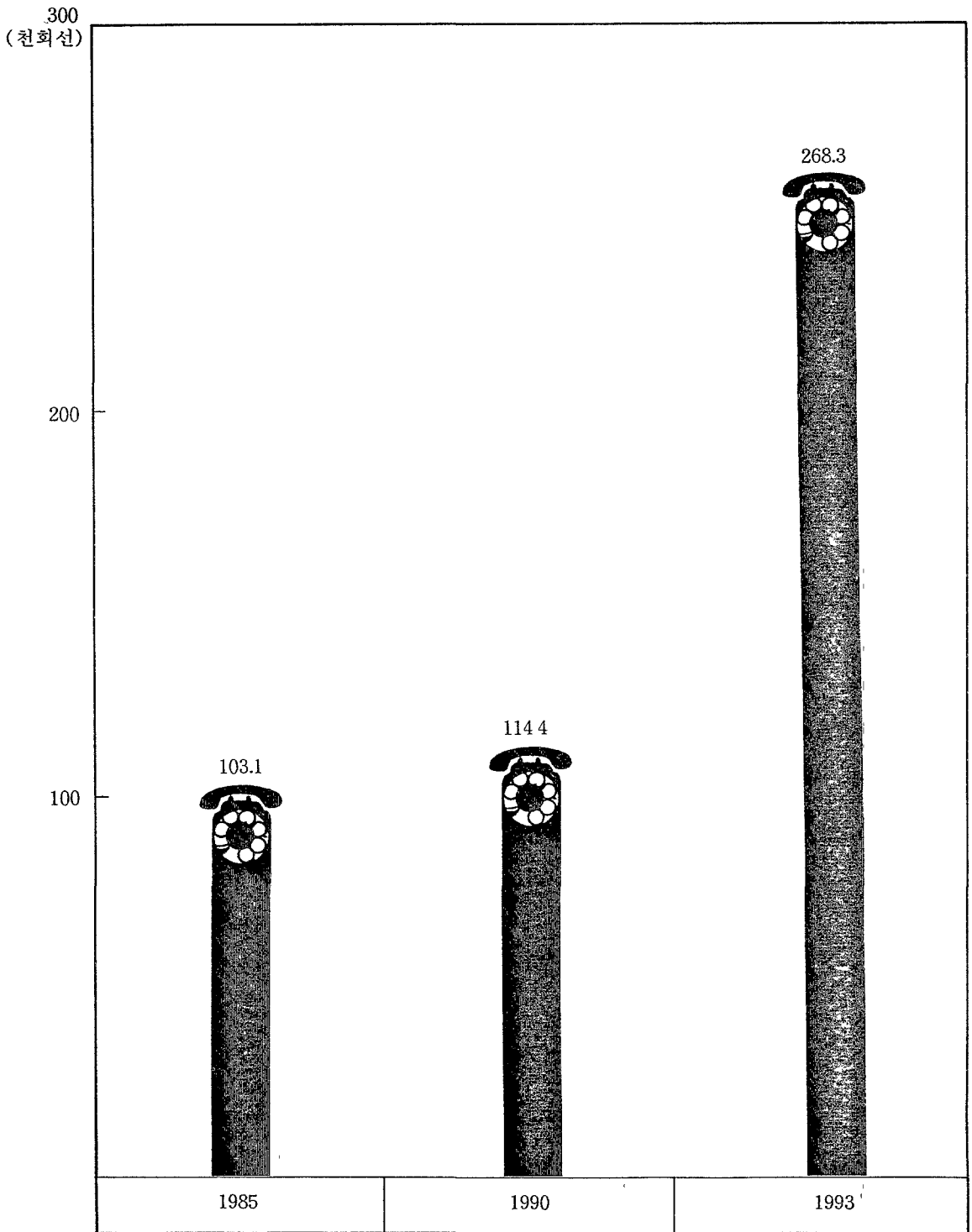
〈표〉 우편 및 통신 조직 현황¹⁾

	1985	1990	1991	1992	1993
우 편 조 직 (개)	1 743	1 731	1 728	1 932	2 005
중 앙 우 편 기 관 (개)	40	44	49	64	53
시 군 우 편 기 관 (개)	475	495	498	597	603
읍 면 동 우 편 기 관 (개)	1 228	1 192	1 181	1 271	1 349
유·무 선 설 비 조 직					
무 선 송 수 신 기 (대)	2 358	2 521	2 532	2 025	1 056
전 화 교 환 기 (대)	3 868.0	1 436.0	1 444.0	1 380	1 110
전 화 ²⁾ (천회선)	103.1	114.4	121.1	132.1	268.3
전 보 기 계 (대)	2 390	1 367	1 370	1 168	1 300
종 사 자 수 (천명)	35.7	31.5	46.7	50.7	54.2

주 1) 매년 12월 31일 기준임

2) 매년 평균자료 임

〈도〉 전화 회선수



11. 교 육

1994-1995학기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약 34명 정도

- 베트남의 만 7세에서 12세까지 실시되고 있는 초등교육을 분석해 보면 학교수는 1991-1992학기 16,076개교에서 1994-1995학기 18,817개교로써 17.1% 증가하였으며, 학생수는 1991-1992학기 9,081.3천명에서 1994-1995학기 10,047.5천명으로 10.6% 증가 하였다.
- 학교 1개교당 평균 학생수는 1991-1992학기에는 564.9명에서 1994-1995학기 534명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학급1개당 평균 학생수도 1991-1992학기 34.1명에서 1994-1995학기 33.5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 표 〉 초등학교

	1991-1992	1992-1993	1993-1994	1994-1995
학 교 수 (개 교)	16 076	16 832	18 029	18 817
학 급 수 (천 개)	266.0	278.8	292.0	300.0
교 사 수 (천 명)	259 0	267.8	278.0	288.2
학 생 수 (천 명)	9 081.3	9 469.7	9 778.7	10 047.5
학교1개당 평균학생수(명)	564.9	562.6	542.4	534.0
학급1개당 평균학생수(명)	34.1	34.0	33.5	33.5
교사1인당 평균학생수(명)	35.1	35.4	35.2	34.9

1994-1995학기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 약 40명 정도

- 만 13세~15세를 대상으로 하는 중학교의 교사수는 1991-1992학기 129.6천명에서 1994-1995학기 142.2천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수는 1991-1992학기 2,721.9천명에서 1994-1995학기 3,677.6천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 학급1개당 평균 학생수는 1991-1992학기 37.1명에서 1994-1995학기 40.4명으로, 교사1인당 평균 학생학수는 1991-1992학기 평균 21명에서 1994-1995학기 25.9명으로 각각 증가하고 있다.

〈표〉 중 학교

	1991-1992	1992-1993	1993-1994	1994-1995
학 교 수 ¹⁾ (개 교)	1 113	1 148	1 135	1 269
학 급 수 (천 개)	73.3	73.8	79.7	91.0
교 사 수 (천 명)	129.6	126.3	133.7	142.2
학 생 수 (천 명)	2 721.9	2 772.8	3 086.7	3 677.6
학교1개당 평균학생수 ²⁾ (명)	2 956.1	2 906.8	3 339.2	3 577.5
학급1개당 평균학생수 (명)	37.1	37.6	38.7	40.4
교사1인당 평균학생수 (명)	21.0	22.0	23.1	25.9

주 1) 중고등학교 학교총수임

2) 중고등학교 전체학생수에 대한 평균학생수임

1994-1995학기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약 45명 정도

- 만 16세~18세를 대상으로 하는 고등학교의 교사수는 1991-1992학기 35.1천명에서 1994-1995학기 37.1천명으로, 학생수는 1991-1992학기 568.2천명에서 1994-1995학기 862.3천명으로 각각 증가하였다. 그러나, 학생수가 중학생수에 비하여 1/4도 안 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고등학교 진학률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 학급1개당 평균 학생수는 1991-1992학기 42.1명에서 1994-1995학기 45.1명으로, 교사1인당 평균 학생수는 1991-1992학기 평균 16.2명에서 1994-1995학기 23.2명으로 각각 증가하였다.

〈 표 〉 고등학교

	1991-1992	1992-1993	1993-1994	1994-1995
학 급 수 (천 개)	135	14.2	16.3	19.1
교 사 수 (천 명)	35.1	32.5	34.7	37.1
학 생 수 (천 명)	568.2	564.2	703.3	862.3
학급1개당 평균학생수(명)	42.1	39.7	43.1	45.1
교사1인당 평균학생수(명)	16.2	17.4	20.3	23.2

1994년 대학교 졸업생수는 1990년 대비 77.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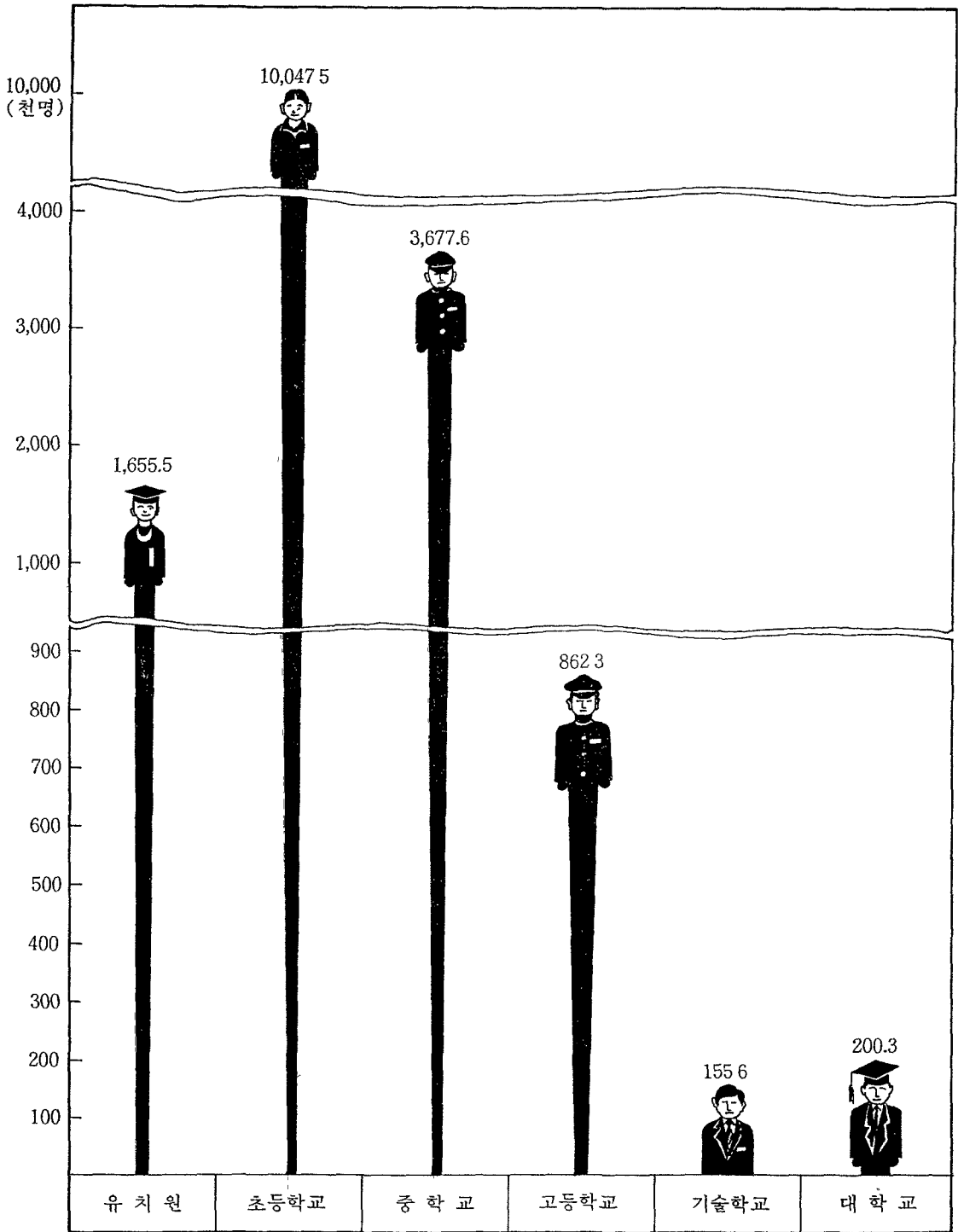
- 1994년 베트남의 대학교수는 109개교로써 교수수는 21.7천명으로 나타났다.
- 학생수는 1990년 129.6천명에서 1994년 200.3천명으로써 54.6% 증가하였고 졸업생 수는 1990년 20.9천명에서 1994년 36.9천명으로 76.6% 증가하였다.
- 인구만명당 대학생수는 1990년 40명 수준에서 1994년 49명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낮은편 이다.

〈 표 〉 대학교 현황

	1990	1991	1992	1993	1994
학 교 (개)	106	108	109	109	109
교 수 (천 명)	21.9	21.8	21	21.2	21.7
학 생 (천 명)	129.6	107	136.8	157.1	200.3
일 반 과 정	93	90.1	116.9	122.9	133.9
전 문 과 정	7	4.5	7.1	6.6	6.6
현 장 과 정	26.4	12.4	12.8	27.6	59.8
졸 업 생 (천 명)	20.9	20.5	24.8	29.1	36.9
인구만명당 학생수(명)					
베 트 남 ¹⁾	40	32	35	39	49
한 국 ²⁾	342	351	364	379	398

주 · 1) 기술학교 포함수치임
 2)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1994) 자료임

〈도〉 1994-1995학기 각급학교 학생수



베트남 대학교수 중 여성 구성비 30.9%

- 1994년도 베트남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 및 기술학교 교원의 수준을 분석해 보면 여성 교원수는 대학교가 30.9%, 기술학교가 42%로써 여성의 구성비가 높은 편이다.
- 교육수준은 대학교 교원은 대학원 졸업자가 14.4%, 기술학교 교원은 1.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1994년도 대학교 및 기술학교 교원수준

	계	대 학 교	기 술 학 교
계	31 333	21 711	9 622
(%)	(100.0)	(100.0)	(100.0)
여 성 교 원 수	10 751	6 711	4 040
(%)	(34.3)	(30.9)	(42.0)
교 육 수 준			
대 학 원 졸 업	3 283	3 117	166
(%)	(10.5)	(14.4)	(1.7)
대 학 교 졸 업	25 319	17 997	7 322
(%)	(80.8)	(82.9)	(76.1)
기 술 학 교 졸 업	2 108	381	1 727
(%)	(6.7)	(1.8)	(17.9)
기 타	623	216	407
(%)	(2.0)	(1.0)	(4.2)

12. 보 건

베트남의 의료보건시설은 증가추세이나 병상수는 오히려 감소추세

- 베트남의 의료보건시설은 1991년 12,476개소에서 1994년 12,942개소로써 3.7% 증가하고 있다.
- 병상수는 오히려 1991년 206.2천개에서 1994년 191.2천개로 7.3% 감소하고 있으며, 병상당 인구수는 1990년 329명 수준에서 1994년 379명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 표 〉 의료 보건시설현황

	1991	1992	1993	1994
의료보건시설(개소)	12 476	12 646	12 507	12 942
병 원, 진 료 소	1 550	1 743	1 883	1 896
요 양 소	115	111	110	108
보 건 소	10 710	10 687	10 412	10 836
병 상 수(천 개)	206.2	197.5	194.7	191.2
병 원, 진 료 소	118.1	113.4	111.8	112.3
보 건 수	73.5	69.6	67.2	65.8
병 상 당 인 구 수(명)				
베 트 남	329	351	365	379
한 국 ¹⁾	404	379	349	315

주 1)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1995) 자료임

의료전문인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 의료전문인력을 분석해 보면 의학분야 의료인력은 1991년 156.5천명에서 1994년 136.4천명으로 12.8% 감소하였으나 전문의는 1990년 25.9천명에서 1994년 29.7천명으로 14.7% 증가하였다.
- 약학분야 전문인력은 1991년 24.3천명에서 1994년 21.5천명으로 11.5% 감소하였다.
- 의사 1인당 인구수는 1991년 909명에서 1994년 973명으로 증가하였고, 약사 1인당 인구수는 1991년 2,789명에서 3,373명으로 증가하였다.

〈 표 〉 의료전문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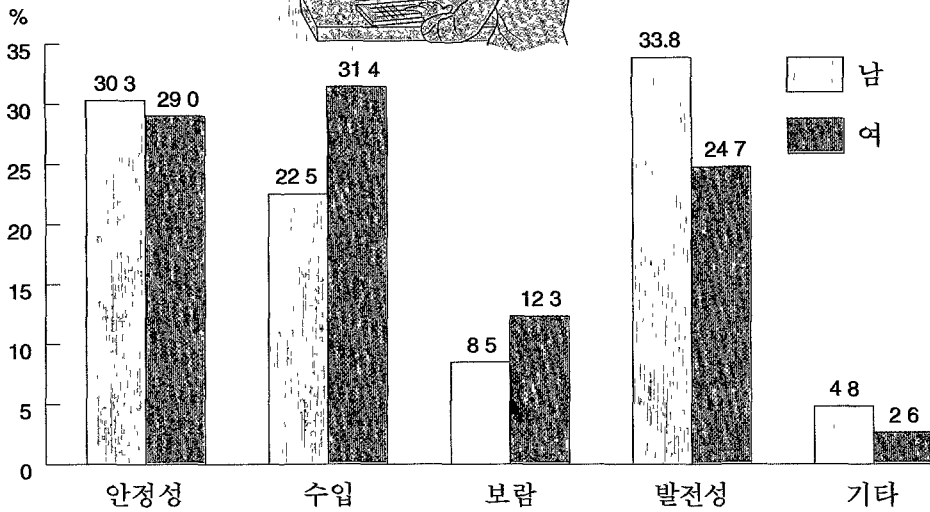
	(단위 천명)			
	1991	1992	1993	1994
의 학 분 야	156.5	140.6	139.3	136.4
전 문 의	25.9	27.4	28.5	29.7
보 조 의 사	48.7	46.3	45.1	44.8
간 호 사	68.3	55.2	53.7	50.8
조 산 원	13.6	11.7	12	11.1
약 학 분 야	24.3	21.7	22.2	21.5
고 급 약 사	6.5	6.4	6.5	5.9
중 급 약 사	5.9	5.3	5.7	6.1
보 조 약 사	11.9	10	10	9.5
의사1인당인구수(명)				
베 트 남	909	942	965	973
한 국 ¹⁾	951	902	855	824
약사1인당인구수(명)				
베 트 남	2 789	3 198	3 199	3 373
한 국 ¹⁾	1 127	1 104	1 080	1 067

주 1) 통계청, 통계로 본 한국의 발자취(1995 8)

여 백

'95년 사회통계조사결과(고용·노사부문)

남녀별 직업선택 요인 구성



성별로 보면 직업선택요인으로 남자는 「발전성」을 가장 중요시하고 여자는 「수입」을 가장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사회통계조사결과

(고용·노사부문)

1996. 5

통계조사국 사회통계과

I. 조사개요

< 일반 조사사항 >

1. 조사목적

- 사회지표 작성을 위하여 기존의 각종 조사에서 생산되고 있지않는 각 부문에 대한 국민들의 주관적 의식 및 사회적 관심사와 삶의 질에 관련된 항목들을 조사하여 사회상태의 변동을 파악하고 사회개발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

2. 조사연혁

- 사회통계조사는 77년 3월에 최초로 실시되었음
- '78년에 수립된 사회지표체계를 토대로 인구부문을 제외한 8개부문중 4~5개부문을 '84년까지 교대로 조사하였음.
- '85년이후는 조사부문을 2~3개로 축소한 대신에 조사항목을 늘려 기존항목을 부연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개발하여 조사
- '87년 1차 사회지표체계 개편에서 문화·여가부문을 신설하여 작성해 왔으며, 사회통계조사 방법은 그대로 유지하여 왔음.

3. 실시근거

- 통계법에 의한 일반통계(승인번호 : 10118)

4. 조사대상

- 전국 약 34,000 표본가구내의 만 15세이상 모든 가구원
 - o 조사대상 가구원수는 총 83,555명

5. 조사방법

- 면접타계식 조사를 원칙으로 자계식 조사 병행

< '95년 조사사항 >

1. 조사기간

- '95. 9. 17 ~ 9. 26 (10일간)

2. 조사내용

- 기본사항 : 성명, 성별, 교육정도 등 10개항목
- 고용·노사부문 : 직업선택요인, 여성취업장애요인 등 7개항목
- 보건부문 : 건강평가, 흡연, 음주 등 12개항목

3. 금번 공표 부문

- 고용·노사 부문(보건부문은 추후 공표)

4. 조사항목별 조사대상

○ 원칙적으로 15세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

- 유병기간 및 치료방법의 2개항목은 0세이상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조 사 항 목 명	조 사 대 상	비고
○ 기본사항(10개)		
○ 고용·노사부문(7개)		
- 직업선택요인	15세이상 모든가구원	
- 여성취업에 관한 태도	"	
- 여성취업 장애요인	취학전자녀의 어머니(보호자)	신규
- 취학전 자녀 양육실태	"	신규
- 취학전 자녀 양육의견	15세이상 여성취업자	
- 여성취업자의 취업사유	15세이상 임금근로자	보완
- 근로여건 만족도		
○ 보건부문(12개)		
- 건강평가	15세이상 모든가구원	
- 혈압	"	
- 비만	"	
- 건강관리방법	"	
○ 가장 주된 방법	"	
- 의료서비스 만족도	"	보완
- 의료서비스 불만이유	"	
○ 가장 주된 이유	"	
- 흡연	20세이상 모든가구원	
- 흡연에 관한 견해	"	신규
- 음주	"	
- 과음횟수	"	
- 유병기간	0세이상 모든 가구원	
- 치료방법	"	

II. '95년 사회통계조사 결과 요약(고용·노사부문)

1. 직업선택요인

- 직업을 선택할때 가장 중요시하는 요인으로는 「안정성」(29.6%), 「발전성」(29.2%), 「수입」(27.1%), 「보람」(10.5%)순으로 나타났음.
- 성별로는 남자가, 지역별로는 시부에서, 연령별로는 젊은층에서, 학력별로는 고학력층에서, 직업별로는 전문직과 사무직에서 「발전성」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음
- 반면 「안정성」과 「수입」은 성별로는 여자가, 연령별로는 고연령층에서, 학력별로는 저학력층에서, 직업별로는 서비스 판매직이나 기능노무직에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난 조사와 비교해보면 발전성이 4년동안 14.3%에서 29.2%로 14.9%p의 큰 증가를 보였음. 이러한 현상은 군부보다 시부에서, 성별로는 남자가, 연령별로는 젊은층에서, 학력별로는 고학력일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 이는 지속적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여건의 개선으로 안정성과 수입이 직업선택 요인으로서의 중요성이 감소한 반면, 세계화, 정보화 등 급변하는 경제사회 여건하에서 발전성이 직업선택의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2. 여성취업

가. 여성취업에 관한 태도

- 여성취업에 관한 태도는 「가정과 관계없이」(20.9%), 「결혼전과 자녀성장후」(34.1%) 취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였음
-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가정과 관계없이」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답변한 사람이 24.7%이며 「결혼전과 자녀성장후」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는 비율인 35.8%와 합할 경우 60.5%로 높게 나타나 여성 스스로가 여성취업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임을 보여 주고 있음
- 지난번 조사와 비교해보면 「결혼전까지만 취업」, 「자녀성장후 취업」, 「가정에만 전념」의 비율이 각각 7.0%p, 6.3%p, 5.3%p 감소한 반면, 「가정과 관계없이」, 「결혼전과 자녀성장후」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2%p, 11.6%p 증가하였음
- 이와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은 출산력 저하, 핵가족화, 전기제품등 가정용 내구재 보급에 따라 여성의 육아 및 가사부담이 경감되었고 여성의 고학력화가 이루어 지는 한편, 여성취업에 관한 사회적인식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나. 여성취업자의 취업사유

- 여성 취업자의 취업사유는 「가계보탬」 34.2%, 「생계유지」 19.4%, 「자기집일」 19.3%, 「적성활용」 16.5%, 「사회적 경험활용」 6.5%, 「시간활용」 3.2%, 「사회기여」 0.6%의 순으로 나타났음
- 이에 따라 대부분의 여성들이 가계보탬, 생계유지, 자기집일과 같은 가정생활의 기본적 동기를 충족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음을 알수 있음
- 또한 적성활용 등 자아실현이나 사회참여와 같은 적극적 동기로 일하는 여성도 26.8%를 차지하였는데 특히 젊은층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관리직 종사자인 경우에 이러한 경향은 두드러졌음

- '91년과 비교해 보면 「자기집일」이 4.7%p, 「생계유지」가 0.8%p 감소한 반면, 「적성활용」, 「가계보탬」이 각각 2.7%p, 2.0%p 증가하였음
- 적성활용 등 자아실현이나 사회참여와 같은 적극적 동기는 '91년 23.1%에서 '95년 26.8%로 3.7%p 증가하였음
- 가계보탬이 늘어난 것은 주택구입, 교육비 등 가계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맞벌이 동기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다. 여성취업 장애요인

- 여성취업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가사 및 육아부담」 52.5%와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24.7%로 높게 나타나 여성취업 장애요인이 대부분 가정적, 사회적 요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3. 근로여건 만족도

- 근로여건 만족도는 인간관계, 직무, 인사, 복지후생, 작업환경, 장래성, 임금 등 거의 모든 세부항목에서 보통 또는 만족으로 응답한 사람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근로여건 만족도가 보통 이상인 비율을 보면 인간관계가 90%이상, 직무가 83.4%, 승진이동 등 인사, 복지후생, 작업환경, 직장에서의 장래성이 70%대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임금은 57.8%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음
- 근로여건에 대한 불만은 임금 42.2%, 직장에서의 장래성 30.9%, 작업환경 29.5% 복지후생 28.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91년과 비교해 보면 근로여건에 대한 불만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직장에서의 장래성 15.3%p, 작업환경 7.4%p, 임금 6.6%p, 직무 4.6%p 순으로 감소하였음

4. 취학전 자녀 양육

가. 취학전 자녀 양육실태

- 실제로 취학전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의 취학전 자녀 양육실태를 보면 「자녀의 부모」(55.9%), 「유치원, 예·체능학원」(22.4%), 「가족, 친인척」(10.2%)순으로 나타났음
- 「자녀의 부모」나 「가족, 친인척」이 취학전 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66.1%, 유치원 등을 포함한 「육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32.7%로 취학전 자녀 3명중 1명은 육아시설을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 자녀의 보호자(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자녀의 부모」, 「가족, 친인척」이 각각 27.5%, 24.0%이며, 유치원 등 육아시설은 45.4%로 높게 나타났음
- 취학전 자녀의 연령별로 보면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주로 「자녀의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5~6세인 취학직전의 자녀인 경우는 유치원 등 「육아시설」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음

나. 취학전 자녀 양육의견

- 실제로 취학전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자녀의 부모가 모두 취업을 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직접 돌보지 못한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취학전 자녀 양육의견은 「가족·친인척」과 유치원 등 「육아시설」에 기대하는 비중이 각각 49.5%로 같게 나타났음

Ⅲ. 사회통계조사 결과 세부내용(고용·노사부문)

1. 직업선택요인

- '95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는 「안정성」(29.6%), 「발전성」(29.2%), 「수입」(27.1%), 「보람」(10.5%)순으로 나타났음
- 지역별로 보면 시부에서는 「발전성」(30.1%)과 「안정성」(29.0%)을, 군부에서는 「안정성」(31.7%)과 「수입」(30.7%)을 직업선택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음
- 성별로 보면 직업선택 요인으로 남자는 「발전성」을 가장 중요시하고, 여자는 「수입」을 가장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남자는 직업을 선택할 때 「발전성」(33.8%), 「안정성」(30.3%), 「수입」(22.5%)을 직업선택의 요인으로 들고 있음
 - 반면 여자의 경우는 「수입」이 31.4%로 가장 높고 「안정성」이 29.0%로 나타났으며 「발전성」은 24.7%로 나타났음
- 연령별로 보면 젊을수록 「발전성」을 중요시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수입」과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20세이하의 연령층에서는 「발전성」이 47.0%로 가장 높았고, 60세이상의 고령층에서는 「수입」이 3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학력별로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발전성」을, 학력이 낮을수록 「수입」, 「안정성」을 중요시하고 있음
-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직, 사무직에서는 「발전성」을 직업선택의 중요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판매직, 기능노무직 종사자는 「수입」을 직업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음
-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상용직의 경우 「발전성」과 「안정성」, 임시직, 일용직은 「수입」, 고용주는 「발전성」,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안정성」과 「수입」을 직업선택의 중요요인으로 보고 있음

○ 지난 조사와 비교해보면 발전성이 4년동안 14.3%에서 29.2%로 14.9%p의 큰 증가를 보였음. 이러한 현상은 군부보다 시부에서, 성별로는 남자가, 연령별로는 젊을수록, 학력별로는 고학력일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 이는 지속적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여건의 개선으로 안정성과 수입이 직업선택 요인으로서의 중요성이 감소한 반면, 세계화, 정보화 등 급변하는 경제사회 여건하에서 발전성이 직업선택의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표 1 - 1. 직업선택요인 >

(단위 · %)

		계	명성명예	안정성	수 입	보 랐	발전성	기 타
'95	전 국	100.0	3.3	29.6	27.1	10.5	29.2	0.5
	시 군	100.0	3.1	29.0	26.1	11.2	30.1	0.5
	부 부	100.0	3.9	31.7	30.7	7.7	25.6	0.4
	여 남	100.0	4.4	30.3	22.5	8.5	33.8	0.4
		100.0	2.1	29.0	31.4	12.3	24.7	0.5
	15 ~ 19	100.0	7.7	17.7	10.7	15.9	47.0	0.9
	20 ~ 29	100.0	2.9	25.6	18.8	12.8	39.5	0.5
	30 ~ 39	100.0	2.1	30.2	27.4	10.3	29.6	0.5
	40 ~ 49	100.0	2.5	33.8	33.6	8.4	21.5	0.2
	50 ~ 59	100.0	2.9	36.1	35.3	7.4	18.0	0.2
	60세이상	100.0	3.5	34.0	38.4	7.9	15.6	0.6
	국졸이하	100.0	2.9	32.0	39.7	7.2	17.8	0.5
	고졸	100.0	3.8	28.4	27.2	11.0	29.2	0.5
	대졸	100.0	2.7	29.8	24.3	10.3	32.6	0.4
	이상	100.0	4.8	27.0	14.1	15.5	38.0	0.6
	전문관리	100.0	5.4	26.3	14.3	16.4	37.1	0.6
	사무직원	100.0	2.5	33.2	16.9	11.2	35.8	0.4
	서비스판매	100.0	1.7	30.8	34.9	7.9	24.3	0.4
	농어업숙련	100.0	3.7	35.7	32.5	6.4	21.6	0.1
	기능노무	100.0	1.6	31.0	35.3	7.0	24.8	0.3
	임금근로자	100.0	2.5	30.1	27.6	10.1	29.4	0.4
	상용	100.0	3.1	32.2	20.7	10.8	32.9	0.4
	일용	100.0	1.7	26.0	35.2	10.1	26.6	0.5
	비임금근로	100.0	1.5	29.0	41.4	7.3	20.6	0.2
	고용주	100.0	3.0	32.7	31.6	7.7	24.8	0.3
	자영업자	100.0	4.1	27.9	26.6	8.6	32.4	0.4
	가족종사자	100.0	3.0	33.5	32.0	7.1	24.1	0.3
		100.0	1.9	34.4	34.6	8.4	20.6	0.1

		계	명성명예	안정성	수 입	보 란	발전성	기 타
'91	전 국	100.0	3.1	37.2	29.7	15.1	14.3	0.5
	시 군	100.0	2.9	36.1	28.5	16.7	15.1	0.6
		100.0	3.5	40.3	33.1	10.5	12.1	0.4
	읍	100.0	4.4	38.2	25.8	13.6	17.6	0.5
		100.0	1.9	36.3	33.2	16.6	11.4	0.6
	15 ~ 19	100.0	6.3	27.2	12.5	29.5	23.4	1.0
	20 ~ 29	100.0	3.0	34.7	22.9	18.4	20.2	0.8
	30 ~ 39	100.0	2.1	39.7	31.7	12.9	13.4	0.3
	40 ~ 49	100.0	2.1	41.2	35.7	11.1	9.7	0.3
	50 ~ 59	100.0	2.6	41.4	38.1	9.1	8.5	0.2
	60세이상	100.0	3.0	38.9	42.0	8.5	6.8	0.7
	국졸이하 중고대졸이상	100.0	2.0	38.2	43.5	8.2	7.7	0.5
		100.0	3.7	35.3	27.9	17.5	15.1	0.5
		100.0	3.0	38.5	24.8	15.9	17.3	0.5
100.0		4.6	34.7	14.0	25.6	20.4	0.8	

< 표 1 - 2. 직업선택요인 - '91년 대비 증감표 >

(단위 : %p)

		명성명예	안정성	수 입	보 란	발전성	기 타
전 국		0.2	-7.6	-2.6	-4.6	14.9	-
시 군	부	0.2	-7.1	-2.4	-5.5	15.0	-0.1
	부	0.4	-8.6	-2.4	-2.8	13.5	-
읍		-	-7.9	-3.3	-5.1	16.2	-0.1
		0.2	-7.3	-1.8	-4.3	13.3	-0.1
15 ~ 19		1.4	-9.5	-1.8	-13.6	23.6	-0.1
20 ~ 29		-0.1	-9.1	-4.1	-5.6	19.3	-0.3
30 ~ 39		-	-9.5	-4.3	-2.6	16.2	0.2
40 ~ 49		0.4	-7.4	-2.1	-2.7	11.8	-0.1
50 ~ 59		0.3	-5.3	-2.8	-1.7	9.5	-
60세이상		0.5	-4.9	-3.6	-0.6	8.8	-0.1
국졸이하 중고대졸이상		0.9	-6.2	-3.8	-1.0	10.1	-
		0.1	-6.9	-0.7	-6.5	14.1	-
		-0.3	-8.7	-0.5	-5.6	15.3	-0.1
		0.2	-7.7	0.1	-10.1	17.6	-0.2

2. 여성취업

2 - 1. 여성취업에 관한 태도

- 여성취업에 관한 태도는 「결혼전과 자녀성장후」(34.1%), 「가정과 관계없이」(20.9%) 취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여 여성취업에 관한 의식이 매우 적극적임을 보여주고 있음
 - 여성취업에 관하여 성별로는 남녀 모두 「결혼전과 자녀성장후」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사람이 32.3%, 35.8%로 높게 나타났음
 -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가정과 관계없이」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답변한 사람이 24.7%이며 「결혼전과 자녀성장후」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비율(35.8%)과 합할 경우 60.5%로 높게 나타나 여성 스스로가 여성취업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임을 보여주고 있음
 - 반면 남자의 경우 여성이 「가정에만 전념」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사람도 19.6%로 나타나 5명의 남성중 1명이 여전히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가정과 관계없이」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연령이 높을수록 「가정에만 전념」 하는 것이 좋다는 사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결혼전과 자녀성장후」, 「가정과 관계없이」 취업하는 것이 좋다는 비율이 대졸이상 65.3%, 고졸 58.4%, 중졸 54.9%, 국졸이하 43.0%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가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지난번 조사와 비교해보면 「결혼전까지만 취업」, 「자녀성장후 취업」, 「가정에만 전념」의 비율이 각각 7.0p, 6.3p, 5.3p 감소한 반면, 「가정과 관계없이」, 「결혼전과 자녀성장후」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2p, 11.6p 증가하였음
 - 이러한 경향은 성별, 연령계층별, 학력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연령별로 20대이하 계층에서 「가정과 관계없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30대이상에서는 「결혼전과 자녀성장후」라고 응답한 사람이 크게 증가하였음
 - 이와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은 출산력 저하, 핵가족화, 전기제품 등 가정용 내구재 보급에 따라 여성의 육아 및 가사부담이 경감되었고 여성의 고학력화가 이루어 지는 한편, 여성취업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표 2-1-1. 여성취업에 관한 태도 >

(단위 : %)

	계	가정에만	결혼전까지	자녀성장	결혼전과	가정과	
		전	만	후	자녀성장	관계없이	
'95	전 국	100.0	15.8	13.2	16.1	34.1	20.9
	시 군	100.0	14.4	12.1	16.4	35.9	21.1
	부 부	100.0	20.7	17.1	15.0	27.4	19.9
	연 락	100.0	19.6	15.1	16.1	32.3	16.8
		100.0	12.1	11.3	16.1	35.8	24.7
	15 ~ 19	100.0	7.9	15.4	7.2	30.8	38.6
	20 ~ 29	100.0	7.7	13.4	11.0	39.4	28.5
	30 ~ 39	100.0	13.9	8.7	22.6	38.8	16.1
	40 ~ 49	100.0	17.4	11.4	21.9	34.0	15.4
	50 ~ 59	100.0	20.2	17.4	16.3	30.3	15.7
	60세이상	100.0	33.6	17.5	12.7	22.8	13.4
	국 줄이	100.0	25.7	16.3	15.0	25.8	17.2
	중 하	100.0	14.7	13.8	16.6	31.7	23.2
	고 줄	100.0	12.2	12.2	17.3	37.9	20.5
	대 줄	100.0	10.9	10.1	13.8	40.6	24.7
	이 상						
'91	전 국	100.0	21.1	20.2	22.4	22.5	13.7
	시 군	100.0	19.8	18.6	23.7	23.7	14.2
	부 부	100.0	25.0	24.9	18.7	19.3	12.1
	연 락	100.0	25.7	22.9	20.9	20.2	10.3
		100.0	17.0	17.8	23.9	24.6	16.7
	15 ~ 19	100.0	12.2	28.5	12.6	26.7	19.9
	20 ~ 29	100.0	12.2	21.7	18.8	31.3	16.0
	30 ~ 39	100.0	20.5	13.9	33.5	21.5	10.7
	40 ~ 49	100.0	23.3	17.7	27.8	18.6	12.5
	50 ~ 59	100.0	25.8	23.1	20.1	18.4	12.6
	60세이상	100.0	42.0	19.9	15.4	12.4	10.4
	국 줄이	100.0	31.3	21.0	19.9	15.9	11.9
	중 하	100.0	18.2	21.3	24.1	21.6	14.8
	고 줄	100.0	16.8	19.7	23.8	26.0	13.7
	대 줄	100.0	15.2	17.6	20.9	30.5	15.8
	이 상						

< 표 2-1-2. 여성취업에 관한 태도 - '91년 대비 증감표 >

(단위 : %p)

	가정에만 전	결혼전까지 취업	자녀성장 후취업	결혼전과 자녀성장후	가정과 관계없이
전 국	-5.3	-7.0	-6.3	11.6	7.2
시 군	-5.4	-6.5	-7.3	12.2	6.9
부	-4.3	-7.8	-3.7	8.1	7.8
남	-6.1	-7.8	-4.8	12.1	6.5
여	-4.9	-6.5	-7.8	11.2	8.0
15 ~ 19	-4.3	-13.1	-5.4	4.1	18.7
20 ~ 29	-4.5	-8.3	-7.8	8.1	12.5
30 ~ 39	-6.6	-5.2	-10.9	17.3	5.4
40 ~ 49	-5.9	-6.3	-5.9	15.4	2.9
50 ~ 59	-5.6	-5.7	-3.8	11.9	3.1
60세이상	-8.4	-2.4	-2.7	10.4	3.0
국졸이하	-5.6	-4.7	-4.9	9.9	5.3
중졸	-3.5	-7.5	-7.5	10.1	8.4
고졸	-4.6	-7.5	-6.5	11.9	6.8
대졸이상	-4.3	-7.5	-7.1	10.1	8.9

2 - 2. 여성취업자의 취업사유

- 취업하고 있는 여성에 대하여 취업한 사유를 물어본 결과 「가계보탬」 34.2%, 「생계유지」 19.4%, 「자기집일」 19.3%, 「적성활용」 16.5%, 「사회적 경험 활용」 6.5%, 「시간활용」 3.2%, 「사회기여」 0.6% 순으로 응답하였음
 - 여성의 취업사유는 가계보탬, 생계유지, 자기집일과 같이 대부분 가정생활의 기본적 동기(72.9%)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적성활용, 사회경험 축적, 시간활용, 사회기여 등과 같이 자아실현이나 사회참여를 취업사유로 들고 있는 여성의 비중도 26.8%로 나타났음
-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생활의 기본적 동기충족보다 자아실현이나 사회참여와 같은 적극적 동기가 여성취업사유로서 높게 나타났음
 - 특히 대졸이상의 여성취업자는 취업사유로서 「적성활용」을 57.1%로 들었고 「사회경험」, 「시간활용」, 「사회기여」를 포함할 경우 70.2%로 압도적으로 나타났음
 - 또한 혼인상태별로는 미혼이,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직이 여성취업사유로 「적성활용」을 각각 42.1%, 63.4%로 높게 들고 있음
- 지난번 조사와 비교해 보면 「자기집일」, 「생계유지」가 각각 4.7%p, 0.8%p 감소한 반면, 「적성활용」, 「가계보탬」이 각각 2.7%p, 2.0%p 증가하였고 「시간활용」, 「사회경험」, 「사회기여」도 모두 합하여 1.0%p 증가하였음
 - 적성활용 등 자아실현 및 사회참여 동기가 '91년 23.1%에서 '95년 26.8%로 3.7%p나 크게 증가함으로써 여성취업 동기가 가정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는 것에서 벗어나 점차 다양화되고 적극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 가계보탬이 늘어난 것은 주택구입, 교육비 등 가계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맞벌이 동기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 표 2-2-1. 여성취업자의 취업사유 >

(단위 : %)

	계	생계	가계	자기	적성	사회	시간	사회	기 타	
		유지	보탬	집일	활용	경험	활용	기여		
'95	전 국	100.0	19.4	34.2	19.3	16.5	6.5	3.2	0.6	0.3
	시 군	100.0	18.2	36.9	12.7	19.8	7.8	3.6	0.6	0.3
	부 부	100.0	22.9	26.5	38.4	6.9	2.7	2.1	0.4	0.2
	15 ~ 19	100.0	9.1	24.4	2.3	25.2	35.0	3.3	0.2	0.5
	20 ~ 29	100.0	9.4	23.1	5.6	39.9	18.8	2.2	0.7	0.3
	30 ~ 39	100.0	12.9	45.8	21.4	13.5	1.5	3.9	0.7	0.2
	40 ~ 49	100.0	23.8	42.8	23.6	6.0	0.5	2.8	0.3	0.1
	50 ~ 59	100.0	32.3	32.9	27.5	2.7	0.3	3.2	0.6	0.6
	60세이상	100.0	37.0	21.9	34.1	1.4	0.1	4.8	0.3	0.4
	국졸이하	100.0	32.4	32.7	30.0	1.1	0.3	3.0	0.1	0.3
	중졸	100.0	21.6	45.5	23.0	3.5	1.8	4.2	0.2	0.3
	고졸	100.0	12.1	36.2	13.5	21.0	13.1	3.4	0.5	0.3
	대졸이상	100.0	6.7	17.4	5.5	57.1	8.9	1.9	2.3	0.4
	미혼	100.0	13.1	15.6	2.2	42.1	23.9	1.6	1.1	0.3
	유배	100.0	11.8	45.2	28.5	9.3	0.9	3.6	0.4	0.3
	사이	100.0	65.8	17.9	8.4	2.5	0.2	4.7	0.2	0.4
	이혼	100.0	84.1	6.4	1.7	4.9	0.9	1.1	0.8	0.1
	전문관리	100.0	6.7	17.0	2.0	63.4	5.3	2.4	2.8	0.5
	사무직원	100.0	8.0	22.1	8.3	33.4	25.0	1.9	1.1	0.2
	서비스판매	100.0	25.7	36.0	21.5	8.7	3.9	3.4	0.1	0.6
	농어업숙련	100.0	21.7	16.1	60.2	0.5	0.1	1.3	0.0	0.1
	기능노무	100.0	22.8	56.2	7.7	5.1	3.1	5.0	0.1	0.1
'91	전 국	100.0	20.2	32.2	24.0	13.8	6.2	2.6	0.5	0.4
	시 군	100.0	20.3	36.2	13.5	18.0	8.0	3.0	0.6	0.3
	부 부	100.0	20.1	23.8	46.1	5.2	2.5	1.6	0.5	0.4
	15 ~ 19	100.0	10.5	25.1	2.7	26.8	31.6	1.8	0.8	0.8
	20 ~ 29	100.0	10.7	26.2	8.8	34.0	16.5	2.4	1.0	0.4
	30 ~ 39	100.0	15.1	43.5	25.9	10.2	1.4	3.3	0.4	0.1
	40 ~ 49	100.0	25.5	39.8	27.7	4.4	0.4	1.6	0.3	0.3
	50 ~ 59	100.0	28.9	27.2	38.5	2.0	0.2	2.6	0.5	0.2
	60세이상	100.0	37.8	16.1	38.8	2.3	0.1	3.9	0.2	0.9
	국졸이하	100.0	28.9	30.3	36.7	1.4	0.3	1.9	0.1	0.4
	중졸	100.0	20.5	43.7	24.1	5.3	2.4	3.6	0.3	0.2
	고졸	100.0	13.0	32.9	12.3	22.0	15.5	3.0	0.9	0.5
	대졸이상	100.0	4.6	15.0	5.8	61.2	9.5	1.9	1.9	0.1
	미혼	100.0	13.2	19.2	2.9	37.3	23.6	1.7	1.5	0.6
	유배	100.0	12.5	41.2	35.3	7.1	0.8	2.8	0.2	0.2
	사이	100.0	68.0	14.8	10.5	2.0	0.1	3.6	0.2	0.7
	이혼	100.0	81.4	7.4	1.2	7.5	0.3	0.1	1.2	0.9

< 표 2-2-2. 여성취업자의 취업사유 - '91년 대비 증감표 >

(단위 : %p)

		생계 유지	가계 보탬	자기 집일	적성 활용	사회 경험	시간 활용	사회 기여	기 타	
전	국	-0.8	2.0	-4.7	2.7	0.3	0.6	0.1	-0.1	
시 군	부 부	-2.1	0.7	-0.8	1.8	-0.2	0.6	-	-	
		2.8	2.7	-7.7	1.7	0.2	0.5	-0.1	-0.2	
15	~	-1.4	-0.7	2.3	27.9	8.2	-28.3	-1.6	-0.8	
20	~	-1.3	-3.1	5.6	48.7	-15.2	-14.3	-1.7	-0.4	
30	~	-2.2	2.3	-4.5	3.3	0.1	0.6	0.3	0.1	
40	~	-1.7	3.0	-4.1	1.6	0.1	1.2	-	-0.2	
50	~	3.4	5.7	-11.0	0.7	0.1	0.6	0.1	0.4	
60세이상		-0.8	5.8	-4.7	-0.9	-	0.9	0.1	-0.5	
국 중 고 대	졸 이 졸 이	하 졸 졸 상	3.5	2.4	-6.7	-0.3	-	1.1	-	-0.1
			1.1	1.8	-1.1	-1.8	-0.6	0.6	-0.1	0.1
			-0.9	3.3	1.2	-1.0	-2.4	0.4	-0.4	-0.2
		2.1	2.4	-0.3	-4.1	-0.6	-	0.4	0.3	
미 유 사 이	배	혼 우 별 혼	-0.1	-3.6	-0.7	4.8	0.3	-0.1	-0.4	-0.3
			-0.7	4.0	-6.8	2.2	0.1	0.8	0.2	0.1
			-2.2	3.1	-2.1	0.5	0.1	1.1	-	-0.3
			2.7	6.4	9.1	3.7	-6.6	0.8	0.7	-0.9

2 - 3. 여성취업 장애요인

- 여성의 취업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냐 라는 질문에 대하여
 - 「가사 및 육아부담」이 52.5%,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24.7%, 「승진 등 근로
 여건」이 9.5%로 높게 나타난 반면
 · 「직업의식 및 책임감 부족」이 8.7%, 「여성의 능력부족」이 4.3%로 낮게 나타나 여
 성의 취업장애 요인이 대부분 가정적·사회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표 2-3-1. 여성취업 장애요인 >

(단위 : %)

		계	여성의 능력	사 회 편 견	직업의식 및 책임감 부족	승 진 등 근로여건	가사 및 육아부담	기 타		
전	국	100.0	4.3	24.7	8.7	9.5	52.5	0.3		
시 군	부 부	100.0	3.9	24.8	8.9	9.3	53.0	0.2		
		100.0	6.1	24.4	8.3	10.0	50.9	0.4		
여 파		100.0	5.0	24.5	10.8	9.1	50.3	0.3		
		100.0	3.7	24.8	6.8	9.9	54.6	0.2		
15	~	100.0	4.8	38.0	10.9	16.3	29.6	0.4		
20	~	100.0	3.2	29.8	10.6	11.4	44.8	0.1		
30	~	100.0	3.2	20.2	8.3	7.2	60.9	0.2		
40	~	100.0	4.6	24.0	8.7	9.3	53.3	0.2		
50	~	100.0	5.7	22.1	7.8	8.6	55.5	0.3		
60세	이상	100.0	6.2	16.5	5.4	5.7	65.6	0.6		
국 중 고 대	졸 이 하 졸 졸 상 졸 이 상	100.0	6.1	19.7	6.1	7.9	59.7	0.5		
		100.0	5.0	28.2	8.7	11.6	46.2	0.3		
		100.0	3.4	26.1	9.3	9.9	51.1	0.2		
		100.0	3.0	24.2	11.5	8.0	53.2	0.1		
전 서 서 능 기	문 비 어 능	관 직 스 업 판 숙 무	리 원 매 련	100.0	3.2	24.5	12.2	8.2	51.7	0.2
				100.0	2.5	28.7	11.6	12.4	44.6	0.2
				100.0	4.0	23.6	8.5	8.7	55.0	0.2
				100.0	6.7	20.7	7.7	7.4	57.3	0.3
				100.0	4.6	22.6	8.4	9.6	54.6	0.2

3.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

< 총괄 >

- 근로여건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보면 거의 모든 세부항목에서 보통이상으로 응답한 사람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 이상인 비율을 보면 인간관계가 90%이상, 직무가 83.4%, 승진이동 등 인사, 복지후생, 작업환경, 직장에서의 장래성이 70%대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임금은 57.8%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음
 - 근로여건에 대한 불만은 임금 42.2%, 직장에서의 장래성 30.9%, 작업환경 29.5%, 복지후생 28.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지난 조사와 비교해보면 근로여건에 대한 불만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직장에서의 장래성 15.3%p, 작업환경 7.4%p, 임금 6.6%p, 직무 4.6%p 순으로 감소하였음

< 표 3-1. 근로여건 만족도 - 총괄 >

(단위 : %, %p)

			만족	보통	불만
직무 (하시는 일)	'91		35.3	43.5	21.2
	'95		34.9	48.5	16.6
	증감		- 0.4	5.0	- 4.6
승진·이동등 인사		'95	12.5	64.3	23.2
복지후생		'95	15.7	55.7	28.6
임금	'91		16.1	35.1	48.8
	'95		17.2	40.6	42.2
	증감		1.1	5.5	- 6.6
직장에서의 장래성	'91		10.4	43.5	46.2
	'95		17.9	51.2	30.9
	증감		7.5	7.7	-15.3
작업환경		'91	19.4	43.7	36.9
	'95		21.7	48.8	29.5
	증감		2.3	5.1	- 7.4
인간관계	상하간	'91	33.2	55.6	11.2
		'95	32.8	57.7	9.5
	증감		- 0.4	2.1	- 1.7
	동료간	'91	46.3	50.2	3.5
'95		46.2	50.7	3.1	
	증감		- 0.1	0.5	- 0.4
남녀간		'95	27.8	67.4	4.8

3 - 1. 직 무(하시는일)

- 직무(하시는일)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34.9%, 「보통」 48.5%로 「보통이상」이 83.4%로 나타났음
- 학력별 만족비율은 대졸이상 55.1%, 고졸 33.5%로 고학력층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음
- 직무만족비율을 직업별로 보면 전문관리직이 60.1%, 사무직이 42.2%로 높게 나타난 반면, 기능노무직이 23.6%, 농림어업직이 16.8%로 직무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음
- '91년과 비교해보면 「불만」이 4.6%p로 크게 감소하였고, 「보통」은 5.0%p 증가하였음

< 표 3-1-1. 근로여건만족도 - 직무 >

(단위 : %)

	계	만 족		보 통	불 만	불 만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약간 불만	매우 불만	
'95 전 국	100.0	34.9	8.7	26.2	48.5	16.6	14.0	2.7
시 군 부	100.0	35.1	8.9	26.2	48.5	16.4	13.6	2.8
	100.0	33.6	7.6	26.0	48.6	17.8	16.0	1.8
읍	100.0	36.6	9.4	27.2	47.8	16.6	13.7	3.0
	100.0	32.1	7.5	24.6	51.3	16.6	14.4	2.1
15 ~ 19	100.0	29.1	5.3	23.8	48.7	22.2	17.9	4.3
20 ~ 29	100.0	38.9	8.8	30.1	46.0	15.1	12.8	2.2
30 ~ 39	100.0	37.6	9.4	28.2	47.4	15.0	12.5	2.5
40 ~ 49	100.0	30.6	8.4	22.2	49.9	19.4	16.3	3.1
50 ~ 59	100.0	27.6	7.8	19.8	53.0	19.4	16.3	3.1
60세이상	100.0	26.2	8.2	18.0	57.4	16.4	13.7	2.7
국졸이하 중 고 대졸이상	100.0	17.5	3.1	14.4	58.5	24.1	20.3	3.8
	100.0	22.9	4.5	18.4	54.3	22.8	19.2	3.6
	100.0	33.5	7.6	25.9	50.4	16.2	13.7	2.5
	100.0	55.1	16.7	38.5	35.6	9.2	7.5	1.7
전문관리 사무직원 서비스판매 농어업숙련 기능노무	100.0	60.1	19.3	40.7	33.2	6.8	5.7	1.1
	100.0	42.2	9.0	33.2	46.5	11.3	10.0	1.3
	100.0	27.2	5.8	21.5	52.4	20.4	17.4	3.0
	100.0	16.8	4.0	12.8	47.7	35.5	28.2	7.3
	100.0	23.6	4.8	18.7	54.8	21.7	18.0	3.7

		계	만 족		보 통	불 만	불 만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약간 불만	매우 불만	
'91	전 국	100.0	35.3	9.7	25.6	43.5	21.2	17.3	3.9
	시 군	100.0	35.5	9.6	25.9	43.7	20.8	17.0	3.8
	부 부	100.0	34.0	9.6	24.4	42.7	23.3	18.9	4.4
	여	100.0	36.0	9.7	26.2	42.1	22.0	17.8	4.2
		100.0	34.0	9.5	24.7	45.9	20.0	16.4	3.6
	15 ~ 19	100.0	34.4	9.0	25.4	43.5	22.2	17.8	4.3
	20 ~ 29	100.0	41.1	10.8	30.2	40.9	18.1	14.8	3.3
	30 ~ 39	100.0	34.5	8.8	25.7	44.1	21.4	17.7	3.7
	40 ~ 49	100.0	30.5	8.5	22.0	45.5	24.0	19.4	4.7
	50 ~ 59	100.0	28.9	9.2	19.7	46.2	24.9	20.3	4.6
	60세이상	100.0	29.7	13.6	16.1	47.2	23.1	17.4	5.5
	국졸이하	100.0	20.1	5.1	15.0	49.9	30.0	23.7	6.3
	중졸	100.0	25.4	5.5	19.9	49.3	25.3	20.9	4.4
	고졸	100.0	36.1	9.0	27.0	43.8	20.2	16.7	3.5
	대졸이상	100.0	57.6	19.5	38.1	31.2	11.2	9.1	2.1

< 표 3-1-2. 근로여건 만족도-직무(하시는일) - '91년 대비 증감표 >

(단위 : %p)

		만 족		보 통	불 만	불 만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약간 불만	매우 불만	
	전 국	-0.4	-1.0	0.6	5.0	-4.6	-3.3	-1.2
	시 군	-0.4	-0.7	0.3	4.8	-4.4	-3.4	-1.0
	부 부	-0.4	-2.0	1.6	5.9	-5.5	-2.9	-2.6
	여	0.6	-0.3	1.0	5.7	-5.4	-4.1	-1.2
		-1.9	-2.0	-0.1	5.4	-3.4	-2.0	-1.5
	15 ~ 19	-5.3	-3.7	-1.6	5.2	0.0	0.1	0.0
	20 ~ 29	-2.2	-2.0	-0.1	5.1	-3.0	-2.0	-1.1
	30 ~ 39	3.1	0.6	2.5	3.3	-6.4	-5.2	-1.2
	40 ~ 49	0.1	-0.1	0.2	4.4	-4.6	-3.1	-1.6
	50 ~ 59	-1.3	-1.4	0.1	6.8	-5.5	-4.0	-1.5
	60세이상	-3.5	-5.4	1.9	10.2	-6.7	-3.7	-2.8
	국졸이하	-2.6	-2.0	-0.6	8.6	-5.9	-3.4	-2.5
	중졸	-2.5	-1.0	-1.5	5.0	-2.5	-1.7	-0.8
	고졸	-2.6	-1.4	-1.1	6.6	-4.0	-3.0	-1.0
	대졸이상	-2.5	-2.8	0.4	4.4	-2.0	-1.6	-0.4

3 - 2. 승진·이동등 인사

- 승진, 인사이동 및 인사배치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12.5%, 「보통」 64.3%, 「불만」 23.2%로 나타났음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의 경우는 「만족」이 「불만」보다 낮게 나타난 반면, 대졸이상의 경우 「만족」 25.8%, 「불만」 22.8%로 만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직에서 인사이동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 표 3-2-1. 근로여건 만족도 - 승진·이동 등 인사 >

(단위 : %)

	계	만족		보통	불만	불만		
		매우만족	약간만족			약간불만	매우불만	
전국	100.0	12.5	2.5	10.0	64.3	23.2	17.5	5.7
시군부	100.0	12.9	2.6	10.3	63.7	23.4	17.5	5.9
	100.0	9.9	1.8	8.0	68.1	22.1	17.5	4.5
남여	100.0	15.3	3.0	12.2	60.3	24.4	18.4	6.0
	100.0	8.0	1.7	6.3	70.8	21.3	16.1	5.2
15 ~ 19	100.0	7.6	1.7	5.9	63.5	28.9	20.6	8.3
20 ~ 29	100.0	12.9	2.3	10.6	62.0	25.1	29.7	5.1
30 ~ 39	100.0	15.1	2.9	12.2	61.9	23.0	16.9	6.1
40 ~ 49	100.0	11.2	2.8	8.4	65.5	23.3	17.3	6.1
50 ~ 59	100.0	9.6	2.3	7.3	69.3	21.1	15.4	5.7
60세이상	100.0	7.0	1.4	5.6	81.1	11.9	8.3	3.6
국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100.0	2.1	0.5	1.6	80.1	17.8	12.8	5.1
	100.0	5.2	0.9	4.3	73.2	21.6	15.9	5.8
	100.0	11.1	2.3	8.8	63.4	25.6	19.5	6.1
전문관리 사무직원 서비스판매 농어업숙련 기능노무	100.0	27.1	5.9	21.2	52.1	20.9	15.9	5.0
	100.0	17.2	3.3	13.8	54.6	28.2	22.4	5.9
	100.0	6.4	1.5	4.9	75.7	17.9	14.1	3.8
농어업숙련 기능노무	100.0	0.8	0.8	0.0	89.6	9.6	6.7	3.0
	100.0	6.2	1.1	5.2	70.0	23.8	17.4	6.4

3 - 3. 복지후생

○ 직장의 복지시설 및 복지후생 등과 관련된 만족도는 「만족」 15.7%, 「보통」 55.7%, 「불만」 28.6%로 나타남

- 복지후생에 대한 만족도는 대졸이상이 24.6%, 전문관리직 종사자가 24.5%, 사무직 종사자가 24.8%로 높게 나타남

< 표 3-3-1. 근로여건 만족도 - 복지후생 >

(단위 : %)

	계	만족		보통	불만	불만		
		매우만족	약간만족			약간불만	매우불만	
전국	100.0	15.7	3.0	12.7	55.7	28.6	20.7	7.9
시군부	100.0	15.5	3.0	12.5	55.1	29.4	21.0	8.4
	100.0	16.8	2.7	14.1	59.2	24.0	19.2	4.8
남여	100.0	17.1	3.3	13.8	52.2	30.7	21.9	8.7
	100.0	13.4	2.5	10.9	61.3	25.3	18.7	6.6
15 ~ 19	100.0	17.2	3.7	13.6	57.6	25.1	18.3	6.8
20 ~ 29	100.0	18.0	3.3	14.7	52.7	29.3	21.3	8.0
30 ~ 39	100.0	16.1	3.2	12.8	53.1	30.8	21.8	9.0
40 ~ 49	100.0	14.1	2.7	11.4	57.4	28.5	20.9	7.5
50 ~ 59	100.0	12.6	2.0	10.7	61.5	25.9	19.0	6.9
60세이상	100.0	9.1	2.0	7.1	72.4	18.5	13.3	5.2
국졸이하	100.0	6.0	0.9	5.1	68.4	25.6	19.2	6.4
중졸	100.0	7.7	1.2	6.5	61.7	30.7	21.8	8.9
고졸	100.0	16.5	3.0	13.5	53.7	29.8	21.4	8.4
대졸이상	100.0	24.6	5.2	19.5	48.4	27.0	19.6	7.4
전문관리	100.0	24.5	5.1	19.4	48.6	26.9	19.5	7.4
사무직원	100.0	24.8	5.0	19.8	49.8	25.4	19.8	5.6
서비스판매	100.0	10.1	1.8	8.3	64.6	25.3	18.4	6.9
농어업숙련	100.0	9.1	3.5	5.6	61.2	29.7	22.0	7.7
기능노무	100.0	10.0	1.6	8.4	58.5	31.5	22.2	9.3

3 - 4. 임 금(일에 비해)

- 임금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17.2%, 「보통」 40.6%, 「불만」 42.2%로 임금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은것으로 나타났음
- 대졸이상, 전문관리직 및 사무직 종사자에서는 임금만족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중졸이하와 농어업숙련직 및 기능노무직 종사자에서는 불만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 '91년과 비교해 보면 「불만」은 6.6%p 감소한 반면, 「만족」이 1.1%p, 「보통」이 5.5%p 증가하였음

< 표 3-4-1. 근로여건 만족도 - 임금 >

(단위 : %)

	계	만 족		보 통	불 만	불 만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약간 불만	매우 불만	
'95 전 국	100.0	17.2	2.4	14.9	40.6	42.2	33.8	8.4
시 군 부	100.0	17.1	2.4	14.7	40.7	42.2	33.5	8.7
	100.0	18.0	2.2	15.8	39.6	42.4	35.8	6.6
읍	100.0	17.5	2.4	15.1	40.2	42.3	33.1	9.2
	100.0	16.7	2.3	14.4	41.2	42.1	35.0	7.1
15 ~ 19	100.0	16.1	2.5	13.5	38.4	45.6	37.6	8.0
20 ~ 29	100.0	19.1	2.5	16.7	39.5	41.4	34.0	7.4
30 ~ 39	100.0	17.7	2.6	15.2	40.5	41.8	33.0	8.8
40 ~ 49	100.0	15.5	2.1	13.4	41.3	43.2	33.5	9.7
50 ~ 59	100.0	15.0	1.8	13.2	40.7	44.3	36.0	8.3
60세이상	100.0	13.0	2.4	10.6	46.7	40.3	32.4	7.9
국졸이하	100.0	10.4	0.8	9.6	40.4	49.2	40.3	8.9
	100.0	12.6	1.3	11.3	40.3	47.1	38.0	9.1
	100.0	17.0	2.5	14.5	40.4	42.6	34.2	8.4
	100.0	24.4	3.6	20.8	41.2	34.4	26.9	7.6
전문관리 사무직원 서비스판매 농어업숙련 기능노무	100.0	25.1	4.2	20.9	42.3	32.6	25.6	7.0
	100.0	20.5	2.7	17.9	40.9	38.6	32.0	6.6
	100.0	14.1	1.8	12.3	42.1	43.8	37.4	6.4
	100.0	14.8	2.3	12.6	37.7	47.5	36.8	10.7
	100.0	13.5	1.6	11.9	39.3	47.2	37.1	10.2

		계	만족		보통	불만	불만		
			매우만족	약간만족			약간불만	매우불만	
'91	전국	100.0	16.1	2.3	13.7	35.1	48.8	37.5	11.3
	시군	100.0	15.8	2.2	13.6	35.2	49.0	37.4	11.6
	부부	100.0	17.7	3.0	14.7	34.3	48.0	38.3	9.7
	여	100.0	16.0	2.3	13.7	34.4	49.6	37.2	12.4
		100.0	16.3	2.5	13.8	36.1	47.6	38.1	9.5
	15 ~ 19	100.0	18.7	3.4	15.3	34.7	46.6	38.0	8.6
	20 ~ 29	100.0	17.3	2.2	15.1	35.1	47.5	36.9	10.6
	30 ~ 39	100.0	14.7	2.1	12.6	34.4	50.9	38.1	12.8
	40 ~ 49	100.0	14.9	1.9	13.0	35.1	50.0	38.6	11.4
	50 ~ 59	100.0	15.8	3.0	12.8	36.0	48.3	37.4	10.8
	60세이상	100.0	19.4	4.7	14.8	38.0	42.7	32.5	10.0
	국졸이하	100.0	11.4	2.0	9.4	34.9	53.8	41.4	12.4
	중졸	100.0	14.0	1.9	12.1	34.2	51.8	40.8	11.0
	고졸	100.0	16.4	2.2	14.2	34.7	49.0	37.3	11.7
	대졸이상	100.0	21.9	3.4	18.5	37.0	41.0	31.4	9.6

< 표 3-4-2. 근로여건 만족도-임금 - '91년 대비 증감표 >

(단위 : %p)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불만	
			매우만족	약간만족			약간불만	매우불만
	전국	1.1	0.1	1.2	5.5	-6.6	-3.7	-2.9
	시군	1.3	0.2	1.1	5.5	-6.8	-3.9	-2.9
	부부	0.3	-0.8	1.1	5.3	-5.6	-2.5	-3.1
	여	1.5	0.1	1.4	5.8	-7.3	-4.1	-3.2
		0.4	-0.2	0.6	5.1	-5.5	-3.1	-2.4
	15 ~ 19	-2.6	-0.9	-1.8	3.7	-1.0	-0.4	-0.6
	20 ~ 29	1.8	0.3	1.6	4.4	-6.1	-2.9	-3.2
	30 ~ 39	3.0	0.5	2.6	6.1	-9.1	-5.1	-4.0
	40 ~ 49	0.6	0.2	0.4	6.2	-6.8	-5.1	-1.7
	50 ~ 59	-0.8	-1.2	0.4	4.7	-4.0	-1.4	-2.5
	60세이상	-6.4	-2.3	-4.2	8.7	-2.4	-0.1	-2.1
	국졸이하	-1.0	-1.2	0.2	5.5	-4.6	-1.1	-3.5
	중졸	-1.4	-0.6	-0.8	6.1	-4.7	-2.8	-1.9
	고졸	0.6	0.3	0.3	5.7	-6.4	-3.1	-3.3
	대졸이상	2.5	0.2	2.3	4.2	-6.6	-4.5	-2.0

3 - 5. 직장에서의 장래성

- 직장의 장래성에 대해서는 「만족」 17.9%, 「보통」 51.2%, 「불만」 30.9%로 불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대졸이상의 고학력자, 전문관리직 종사자에서 장래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음
- '91년과 비교해 보면 「만족」, 「보통」이 각각 7.5%p, 7.7%p 증가한 반면, 「불만」 15.3%p 감소하였음

< 표 3-5-1. 근로여건 만족도 - 직장에서의 장래성 >

(단위 : %)

	계	만족		보통	불만	불만		
		매우만족	약간만족			약간불만	매우불만	
'95 전 국	100.0	17.9	3.6	14.3	51.2	30.9	21.9	9.1
시 군 부	100.0	18.4	3.8	14.6	51.2	30.4	21.2	9.2
	100.0	14.7	2.4	12.3	51.2	34.2	25.8	8.4
남 여	100.0	20.4	4.1	16.3	48.5	31.1	21.9	9.2
	100.0	13.8	2.8	11.1	55.6	30.6	21.7	8.9
15 ~ 19	100.0	16.1	4.1	12.1	46.8	37.1	24.7	12.4
20 ~ 29	100.0	22.5	4.4	18.1	47.7	29.8	22.0	7.8
30 ~ 39	100.0	19.6	3.8	15.8	51.5	28.9	20.2	8.7
40 ~ 49	100.0	14.3	3.1	11.2	52.2	33.4	23.1	10.4
50 ~ 59	100.0	10.2	2.2	8.0	54.6	35.1	24.2	10.9
60세이상	100.0	8.2	2.1	6.2	64.0	27.8	19.4	8.3
국졸이하	100.0	4.3	0.7	3.6	59.0	36.7	25.5	11.3
중졸	100.0	9.4	1.9	7.6	53.9	36.7	24.7	12.0
고졸	100.0	17.4	3.5	13.9	50.3	32.4	23.1	9.3
대졸이상	100.0	32.2	6.6	25.6	46.7	21.2	15.6	5.6
전문관리	100.0	34.4	7.7	26.7	47.0	18.6	14.0	4.6
사무직원	100.0	22.7	3.9	18.8	50.0	27.4	20.8	6.6
서비스판매	100.0	11.3	2.5	8.9	54.8	33.9	23.9	10.0
농어업숙련	100.0	10.0	3.8	6.2	50.0	40.1	28.6	11.5
기능노무	100.0	10.9	2.1	8.9	52.5	36.6	25.0	11.6

		계	만 족		보 통	불 만	불 만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약간 불만	매우 불만	
'91	전 국	100.0	10.4	2.0	8.4	43.5	46.2	32.2	14.0
	시 군	100.0	10.5	2.0	8.5	43.8	45.7	31.9	13.8
	부 부	100.0	9.6	1.8	7.9	41.8	48.5	34.0	14.6
	여 파	100.0	12.1	2.2	9.9	41.3	46.6	32.1	14.5
		100.0	7.5	1.5	6.0	46.9	45.6	32.5	13.1
	15 ~ 19	100.0	11.0	2.3	8.7	44.9	44.1	31.3	12.8
	20 ~ 29	100.0	12.3	2.3	9.9	44.1	43.6	31.4	12.2
	30 ~ 39	100.0	10.4	1.9	8.6	43.0	46.5	31.6	14.9
	40 ~ 49	100.0	8.5	1.3	7.2	42.1	49.4	34.6	14.7
	50 ~ 59	100.0	7.6	1.7	5.9	42.4	50.0	33.8	16.1
	60세이상	100.0	8.2	2.7	5.4	49.7	42.2	28.2	13.9
	국졸이하	100.0	3.5	0.7	2.8	43.5	53.0	36.1	16.9
	고졸	100.0	5.9	1.0	4.9	41.5	52.6	37.0	15.6
	대졸	100.0	10.4	2.0	8.4	43.3	46.3	32.2	14.1
	대졸이상	100.0	21.3	4.0	17.3	45.6	33.1	23.8	9.3

< 표 3-5-2. 근로여건 만족도-직장에서의 장래성 - '91년 대비 증감표 >

(단위 : %p)

		만 족		보 통	불 만	불 만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약간 불만	매우 불만	
	전 국	7.5	1.6	5.9	7.7	-15.3	-10.3	-4.9
	시 군	7.9	1.8	6.1	7.4	-15.3	-10.7	-4.6
	부 부	5.1	0.6	4.4	9.4	-14.3	-8.2	-6.2
	여 파	8.3	1.9	6.4	7.2	-15.5	-10.2	-5.3
		6.3	1.3	5.1	8.7	-15.0	-10.8	-4.2
	15 ~ 19	5.1	1.8	3.4	1.9	-7.0	-6.6	-0.4
	20 ~ 29	10.2	2.1	8.2	3.6	-13.8	-9.4	-4.4
	30 ~ 39	9.2	1.9	7.2	8.5	-17.6	-11.4	-6.2
	40 ~ 49	5.8	1.8	4.0	10.1	-16.0	-11.5	-4.3
	50 ~ 59	2.6	0.5	2.1	12.2	-14.9	-9.6	-5.2
	60세이상	0.0	-0.6	0.8	14.3	-14.4	-8.8	-5.6
	국졸이하	0.8	0.0	0.8	15.5	-16.3	-10.6	-5.6
	고졸	3.5	0.9	2.7	12.4	-15.9	-12.3	-3.6
	대졸	7.0	1.5	5.5	7.0	-13.9	-9.1	-4.8
	대졸이상	10.9	2.6	8.3	1.1	-11.9	-8.2	-3.7

3 - 6. 작업환경(안전·위생 등)

- 직장의 안전, 위생 등 작업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21.7%, 「보통」 48.8%, 「불만」 29.5%로 나타났음
- 고학력자, 그리고 전문관리직 및 사무직 종사자의 작업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학력이 낮을수록, 농어업 및 기능노무직 근로자에서 작업환경에 대한 불만이 높게 나타났음
- '91년과 비교해 보면 「만족」, 「보통」이 각각 2.3%p, 5.1%p 증가한 반면 「불만」은 7.4%p 감소하였음

< 표 3-6-1. 근로여건 만족도 - 작업환경 >

(단위 : %)

	계	만족		보통	불만	불만		
		매우만족	약간만족			약간불만	매우불만	
'95 전 국	100.0	21.7	5.1	16.6	48.8	29.5	21.6	7.9
시 군 부	100.0	22.0	5.3	16.8	48.8	29.2	21.1	8.1
	100.0	20.0	4.0	15.9	48.8	31.3	24.5	6.7
남 여	100.0	21.8	5.3	16.5	45.6	32.7	23.3	9.3
	100.0	21.7	4.8	16.9	54.0	24.2	18.7	5.5
15 ~ 19	100.0	26.6	6.4	20.2	47.4	26.1	19.5	6.5
20 ~ 29	100.0	25.7	6.0	19.7	49.3	25.0	19.0	6.0
30 ~ 39	100.0	22.7	5.3	17.4	46.9	30.4	21.7	8.7
40 ~ 49	100.0	18.1	4.6	13.5	48.6	33.3	24.0	9.3
50 ~ 59	100.0	16.6	3.6	13.0	49.0	34.4	24.8	9.6
60세이상	100.0	11.8	2.7	9.1	59.5	28.7	22.3	6.4
국졸이하	100.0	9.1	1.5	7.6	52.1	38.8	28.3	10.5
중졸	100.0	10.9	2.3	8.5	47.6	41.5	29.7	11.8
고졸	100.0	21.7	4.8	16.9	49.1	29.2	21.2	8.0
대졸이상	100.0	35.9	9.5	26.4	46.9	17.2	13.5	3.8
전문관리	100.0	36.5	9.7	26.9	47.5	16.0	12.4	3.6
사무직원	100.0	35.0	8.5	26.5	49.2	15.8	13.1	2.8
서비스판매	100.0	17.7	3.8	13.9	56.8	25.4	20.2	5.2
농어업숙련	100.0	6.9	2.3	4.6	39.0	54.2	41.4	12.8
기능노무	100.0	11.6	2.3	9.4	47.2	41.2	28.9	12.3

		계	만 족		보 통	불 만	약간 불만		매우 불만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약간 불만	매우 불만	
'91	전 국	100.0	19.4	5.0	14.4	43.7	36.9	25.3	11.6
	시 군	100.0	19.9	5.1	14.7	43.7	36.5	24.9	11.5
	부 부	100.0	17.3	4.2	13.1	43.8	38.9	27.1	11.8
	연 락	100.0	18.3	4.6	13.7	41.8	39.9	26.4	13.5
		100.0	21.3	5.7	15.6	46.9	31.8	23.4	8.4
	15 ~ 19	100.0	25.2	6.7	18.5	45.2	29.5	22.2	7.3
	20 ~ 29	100.0	23.6	5.8	17.7	44.1	32.3	23.0	9.3
	30 ~ 39	100.0	17.7	4.8	12.9	42.5	39.8	26.1	13.7
	40 ~ 49	100.0	15.7	4.2	11.4	44.2	40.2	27.2	13.0
	50 ~ 59	100.0	15.4	3.6	11.7	43.1	41.6	28.5	13.1
	60세이상	100.0	17.3	4.2	13.3	48.9	33.9	24.5	9.6
	국졸이하	100.0	9.0	2.0	7.0	42.5	48.5	32.8	15.7
	중졸	100.0	10.4	2.5	7.9	41.4	48.2	32.0	16.2
	고졸	100.0	21.1	5.3	15.8	44.5	34.4	23.7	10.7
	대졸이상	100.0	34.3	9.5	24.8	45.2	20.5	15.2	5.3

< 표 3-6-2. 근로여건 만족도-작업환경 - '91년 대비 증감표 >

(단위 : %p)

		만 족	만 족		보 통	불 만	약간 불만		매우 불만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약간 불만	매우 불만	
	전 국	2.3	0.1	2.2	5.1	-7.4	-3.7	-3.7	
	시 군	2.1	0.2	2.1	5.1	-7.3	-3.8	-3.4	
	부 부	2.7	-0.2	2.8	5.0	-7.6	-2.6	-5.1	
	연 락	3.5	0.7	2.8	3.8	-7.2	-3.1	-4.2	
		0.4	-0.9	1.3	7.1	-7.6	-4.7	-2.9	
	15 ~ 19	1.4	-0.3	1.7	2.2	-3.4	-2.7	-0.8	
	20 ~ 29	2.1	0.2	2.0	5.2	-7.3	-4.0	-3.3	
	30 ~ 39	5.0	0.5	4.5	4.4	-9.4	-4.4	-5.0	
	40 ~ 49	2.4	0.4	2.1	4.4	-6.9	-3.2	-3.7	
	50 ~ 59	1.2	0.0	1.3	5.9	-7.2	-3.7	-3.5	
	60세이상	-5.5	-1.5	-4.2	10.6	-5.2	-2.2	-3.2	
	국졸이하	0.1	-0.5	0.6	9.6	-9.7	-4.5	-5.2	
	중졸	0.5	-0.2	0.6	6.2	-6.7	-2.3	-4.4	
	고졸	0.6	-0.5	1.1	4.6	-5.2	-2.5	-2.7	
	대졸이상	1.6	0.0	1.6	1.7	-3.3	-1.7	-1.5	

3 - 7. 인간관계

3-7-1. 인간관계(상하간)

- 상하간의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32.8%, 「보통」 57.7%, 「불만」 9.5%로 「보통이상」이 90.5%로 나타나 다른 근로여건에 비하여 만족도가 매우 높음
-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관리직 및 사무직의 경우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음
- '91년과 비교해 보면 「만족」 0.4%p, 「불만」 1.7%p 감소하였고, 「보통」은 2.1%p 증가하였음

〈 표 3-7-1-1. 근로여건 만족도- 인간관계(상하간) 〉

(단위 : %)

	계	만족		보통	불만	불만		
		매우만족	약간만족			약간불만	매우불만	
'95 전 국	100.0	32.8	8.2	24.7	57.7	9.5	7.7	1.7
시 군 부	100.0	32.5	8.3	24.2	57.9	9.6	7.8	1.8
	100.0	35.0	7.6	27.5	56.4	8.6	7.5	1.1
남 여	100.0	33.9	8.6	25.2	56.3	9.8	8.0	1.8
	100.0	31.0	7.4	23.7	60.2	8.8	7.4	1.4
15 ~ 19	100.0	33.4	7.6	25.8	57.6	8.9	7.3	1.6
20 ~ 29	100.0	36.2	9.0	27.2	53.7	10.1	8.4	1.6
30 ~ 39	100.0	34.5	8.4	26.1	56.2	9.3	7.4	1.9
40 ~ 49	100.0	28.5	7.4	21.1	62.2	9.4	7.6	1.8
50 ~ 59	100.0	27.4	6.8	20.6	63.5	9.1	7.7	1.4
60세이상	100.0	26.1	7.1	19.0	67.0	6.9	5.8	1.1
국졸이하	100.0	21.5	5.0	16.5	69.2	9.3	7.7	1.6
중졸	100.0	23.6	5.5	18.1	66.1	10.3	8.6	1.7
고졸	100.0	33.4	8.6	24.9	56.9	9.6	7.9	1.7
대졸이상	100.0	42.8	10.5	32.3	48.5	8.7	7.1	1.7
전문관리	100.0	43.9	11.5	32.4	48.1	8.0	6.6	1.4
사무직원	100.0	39.9	9.2	30.6	50.4	9.8	8.1	1.7
서비스판매	100.0	28.8	8.1	20.7	63.4	7.8	6.4	1.4
농어업숙련	100.0	21.9	3.3	18.6	68.0	10.1	9.0	1.1
기능노무	100.0	26.1	6.3	19.8	63.5	10.4	8.5	1.9

		계	만 족		보 통	불 만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약간 불만	매우 불만	
'91	전 국	100.0	33.2	9.2	24.0	55.6	11.2	8.6	2.6
	시 군	100.0	32.9	9.0	23.9	55.8	11.3	8.6	2.7
	부 부	100.0	34.6	9.8	24.8	54.6	10.8	8.8	2.0
	남	100.0	33.2	9.1	24.1	55.5	11.3	8.6	2.7
	여	100.0	33.0	9.2	23.8	55.8	11.1	8.6	2.5
	15 ~ 19	100.0	35.6	11.4	24.2	51.0	13.4	10.2	3.2
	20 ~ 29	100.0	35.9	10.1	25.8	52.6	11.5	8.7	2.8
	30 ~ 39	100.0	31.4	8.3	23.1	56.8	11.7	8.9	2.8
	40 ~ 49	100.0	30.6	8.0	22.6	59.0	10.4	8.1	2.3
	50 ~ 59	100.0	31.7	8.3	23.4	58.8	9.5	7.8	1.7
	60세이상	100.0	33.7	11.9	21.7	57.9	8.5	6.5	2.0
	국졸이하	100.0	27.2	7.9	19.3	61.7	11.2	8.5	2.7
	중졸	100.0	27.2	7.3	19.9	61.3	11.5	8.9	2.6
	고졸	100.0	34.5	9.4	25.1	54.2	11.3	8.6	2.7
	대졸이상	100.0	40.0	11.3	28.7	49.1	10.9	8.4	2.5

< 표 3-7-1-2. 근로여건 만족도-인간관계(상하간) - '91년 대비 증감표 >

(단위 : %p)

		만 족		보 통	불 만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약간 불만	매우 불만	
	전 국	-0.4	-1.0	0.7	2.1	-1.7	-0.9	-0.9
	시 군	-0.4	-0.7	0.3	2.1	-1.7	-0.8	-0.9
	부 부	0.4	-2.2	2.7	1.8	-2.2	-1.3	-0.9
	남	0.7	-0.5	1.1	0.8	-1.5	-0.6	-0.9
	여	-2.0	-1.8	-0.1	4.4	-2.3	-1.2	-1.1
	15 ~ 19	-2.2	-3.8	1.6	6.6	-4.5	-2.9	-1.6
	20 ~ 29	0.3	-1.1	1.4	1.1	-1.4	-0.3	-1.2
	30 ~ 39	3.1	0.1	3.0	-0.6	-2.4	-1.5	-0.9
	40 ~ 49	-2.1	-0.6	-1.5	3.2	-1.0	-0.5	-0.5
	50 ~ 59	-4.3	-1.5	-2.8	4.7	-0.4	-0.1	-0.3
	60세이상	-7.6	-4.8	-2.7	9.1	-1.6	-0.7	-0.9
	국졸이하	-5.7	-2.9	-2.8	7.5	-1.9	-0.8	-1.1
	중졸	-3.6	-1.8	-1.8	4.8	-1.2	-0.3	-0.9
	고졸	-1.1	-0.8	-0.2	2.7	-1.7	-0.7	-1.0
	대졸이상	2.8	-0.8	3.6	-0.6	-2.2	-1.3	-0.8

3-7-2. 인간관계(동료간)

○ 동료간의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46.2%, 「보통」 50.7%로 「보통이상」의 비율이 96.9%이고 「불만」은 3.1%에 불과하여 다른 근로여건 만족도에 비하여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냄

- 학력별로는 고학력일수록 만족도가 높고,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직 및 사무직 종사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표 3-7-2-1 . 근로여건 만족도- 인간관계(동료간) >

(단위 : %)

	계	만족		보통	불만	불만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약간 불만	매우 불만	
'95 전 국	100.0	46.2	13.5	32.7	50.7	3.1	2.7	0.4
시 군 부	100.0	45.7	13.5	32.2	51.1	3.2	2.8	0.4
	100.0	49.6	13.6	36.0	48.3	2.2	1.9	0.2
읍	100.0	47.0	14.1	32.9	50.1	2.9	2.7	0.4
	100.0	44.8	12.3	32.5	51.9	3.4	2.9	0.4
15 ~ 19	100.0	48.4	15.2	33.1	48.4	3.3	3.0	0.3
20 ~ 29	100.0	51.8	15.5	36.3	45.4	2.9	2.5	0.4
30 ~ 39	100.0	47.6	13.7	33.9	49.5	2.8	2.4	0.4
40 ~ 49	100.0	40.3	12.1	28.2	56.3	3.4	3.0	0.4
50 ~ 59	100.0	38.1	10.2	27.9	58.3	3.6	3.4	0.2
60세이상	100.0	35.8	8.5	27.3	61.1	3.1	2.5	0.6
국졸이하	100.0	34.8	9.0	25.8	61.5	3.7	3.4	0.3
중졸	100.0	37.3	10.1	27.2	59.3	3.4	2.9	0.5
고졸	100.0	46.9	14.1	32.8	50.0	3.2	2.7	0.4
대졸이상	100.0	55.8	16.6	39.2	41.8	2.4	2.1	0.3
전문관리	100.0	55.2	16.6	38.6	42.4	2.4	2.1	0.3
사무직원	100.0	52.8	15.2	37.6	44.7	2.5	2.2	0.3
서비스판매	100.0	9.5	11.7	27.8	57.1	3.5	3.0	0.5
농어업숙련	100.0	33.2	8.5	24.6	64.4	2.5	2.5	0.0
기능노무	100.0	41.2	11.9	29.4	55.3	3.5	3.1	0.4

		계	만 족		보 통	불 만	만족도		
			매우만족	약간만족			불만	매우불만	
'91	전 국	100.0	46.3	14.6	31.7	50.2	3.5	2.6	0.9
	시 군	100.0	45.6	14.5	31.0	50.8	3.6	2.7	1.0
	부 부	100.0	50.0	15.2	34.9	46.6	3.3	2.5	0.8
	여 남	100.0	46.2	14.4	31.8	50.2	3.6	2.7	0.9
		100.0	46.3	14.9	31.4	50.2	3.5	2.5	1.0
	15 ~ 19	100.0	49.7	19.5	30.2	46.2	4.1	2.7	1.4
	20 ~ 29	100.0	51.3	17.2	34.1	45.5	3.2	2.2	1.0
	30 ~ 39	100.0	44.9	13.2	31.7	51.3	3.8	2.9	0.8
	40 ~ 49	100.0	41.2	12.3	28.9	55.0	3.8	2.9	0.9
	50 ~ 59	100.0	41.4	11.5	30.0	55.0	3.5	2.6	0.9
	60세이상	100.0	40.5	15.0	25.5	55.0	4.6	3.3	1.3
	국졸이하	100.0	39.3	11.4	27.9	56.8	3.9	2.7	1.2
	중졸	100.0	39.8	11.5	28.3	56.0	4.2	3.3	0.9
	고졸	100.0	48.3	15.9	32.4	48.2	3.5	2.6	0.9
	대졸이상	100.0	53.0	17.0	36.0	43.9	3.1	2.3	0.8

< 표 3-7-2-2. 근로여건 만족도-인간관계(동료간) - '91년 대비 증감표 >

(단위 : %p)

		만 족		보 통	불 만	만족도		
		매우만족	약간만족			불만	매우불만	
	전 국	-0.1	-1.1	1.0	0.5	-0.4	0.1	-0.5
	시 군	0.1	-1.0	1.2	0.3	-0.4	0.1	-0.6
	부 부	-0.4	-1.6	1.1	1.7	-1.1	-0.6	-0.6
	여 남	0.8	-0.3	1.1	-0.1	-0.7	0.0	-0.5
		-1.5	-2.6	1.1	1.7	-0.1	0.4	-0.6
	15 ~ 19	-1.3	-4.3	2.9	2.2	-0.8	0.3	-1.1
	20 ~ 29	0.5	-1.7	2.2	-0.1	-0.3	0.3	-0.6
	30 ~ 39	2.7	0.5	2.2	-1.8	-1.0	-0.5	-0.4
	40 ~ 49	-0.9	-0.2	-0.7	1.3	-0.4	0.1	-0.5
	50 ~ 59	-3.3	-1.3	-2.1	3.3	0.1	0.8	-0.7
	60세이상	-4.7	-6.5	1.8	-6.1	-1.5	-0.8	-0.7
	국졸이하	-4.5	-2.4	-2.1	4.7	-0.2	0.7	-0.9
	중졸	-2.5	-1.4	-1.1	3.3	-0.8	-0.4	-0.4
	고졸	-1.4	-1.8	0.4	1.8	-0.3	0.1	-0.5
	대졸이상	2.8	-0.4	3.2	-2.1	-0.7	-0.2	-0.5

3-7-3. 인간관계(남녀간)

○ 남녀간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27.8%, 「보통」 67.4%로 「보통이상」의 비율이 95.2%이고 「불만」은 4.8%로 나타나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냄

- 학력별로는 고학력일수록 만족도가 높고,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직 및 사무직 종사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표 3-7-3-1. 근로여건 만족도- 인간관계(남녀간) >

(단위 : %)

	계	만족		보통	불만	불만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약간 불만	매우 불만	
전국	100.0	27.8	7.4	20.4	67.4	4.8	4.0	0.8
시군부	100.0	28.1	7.6	20.5	67.2	4.7	3.9	0.8
	100.0	25.9	5.9	20.0	68.6	5.6	5.0	0.6
읍면	100.0	28.0	7.8	20.1	67.6	4.4	3.7	0.7
	100.0	27.6	6.6	21.0	67.1	5.4	4.5	0.9
15 ~ 19	100.0	27.9	6.4	21.4	66.6	5.5	4.3	1.2
20 ~ 29	100.0	31.9	8.5	23.4	63.0	5.1	4.3	0.9
30 ~ 39	100.0	28.8	7.6	21.2	66.7	4.5	3.8	0.7
40 ~ 49	100.0	23.1	6.3	16.7	72.2	4.8	4.0	0.8
50 ~ 59	100.0	21.6	5.9	15.7	74.0	4.4	4.1	0.3
60세이상	100.0	21.6	5.3	16.4	74.3	4.0	3.2	0.9
국졸이하	100.0	17.7	4.3	13.5	76.7	5.6	4.6	1.0
중졸	100.0	18.7	4.7	14.0	76.0	5.3	4.4	0.9
고졸	100.0	27.4	7.6	19.8	67.8	4.8	4.0	0.8
대졸이상	100.0	37.1	9.5	27.6	58.7	4.2	3.6	0.6
전문관리	100.0	37.6	10.1	27.5	58.8	3.7	3.1	0.5
사무직원	100.0	33.9	8.8	25.2	61.0	5.1	4.5	0.6
서비스판매	100.0	24.4	6.8	17.7	70.5	5.1	4.1	1.0
농어업숙련	100.0	12.9	4.5	8.5	87.1	0.0	0.0	0.0
기능노무	100.0	20.6	5.5	15.1	74.2	5.2	4.3	0.9

3 - 8.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길다」 43.6%, 「보통」 54.1%, 「짧다」 2.4%로 나타나 근로시간이 길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성별로는 남자가, 학력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직업별로는 서비스 판매직 및 농림어업 종사자가 근로시간이 길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음

< 표 3-8-1. 근로여건 만족도- 근로시간 >

(단위 : %)

	계	길 다		보 통	짧 다	짧 다		
		매우 길다	약간 길다			약간 짧다	매우 짧다	
전 국	100.0	43.6	11.7	31.8	54.1	2.4	2.0	0.4
시 군 부 부	100.0	44.0	12.3	31.8	53.5	2.5	2.0	0.5
	100.0	40.9	8.6	32.3	57.5	1.7	1.5	0.2
남 여	100.0	46.9	13.5	33.3	51.6	1.6	1.3	0.3
	100.0	38.2	8.8	29.4	58.1	3.7	3.0	0.7
15 ~ 19	100.0	42.9	9.2	33.7	53.8	3.4	3.1	0.3
20 ~ 29	100.0	44.8	11.7	33.1	52.5	2.8	2.2	0.5
30 ~ 39	100.0	44.5	13.0	31.5	53.0	2.5	2.1	0.4
40 ~ 49	100.0	41.9	11.4	30.5	56.6	1.5	1.2	0.3
50 ~ 59	100.0	42.8	10.9	31.9	55.6	1.6	1.4	0.2
60세이상	100.0	37.7	8.4	29.2	58.6	3.7	2.7	0.9
국졸이하	100.0	46.4	12.0	34.4	51.6	2.0	1.7	0.3
중졸	100.0	48.8	13.4	35.4	49.3	1.9	1.7	0.2
고졸	100.0	44.1	11.9	32.1	53.6	2.4	1.8	0.5
대졸이상	100.0	37.8	10.2	27.6	59.3	2.9	2.5	0.5
전문관리	100.0	34.9	9.9	25.0	61.7	3.4	2.8	0.6
사무직원	100.0	36.7	7.7	29.0	60.9	2.4	1.7	0.7
서비스판매	100.0	55.3	18.2	37.1	42.6	2.1	1.9	0.2
농어업숙련	100.0	55.8	16.5	39.3	43.5	0.7	0.7	0.0
기타노무	100.0	46.6	12.3	34.3	51.4	2.0	1.7	0.3

4. 취학전 자녀양육

4 - 1. 취학전 자녀 양육실태

- 실제로 취학전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의 취학전 자녀 양육실태를 보면 「자녀의 부모」 55.9%, 「유치원, 예·체능학원」 22.4%, 「가족, 친인척」 10.2%순으로 나타났음
- 「자녀의 부모」나 「가족·친인척」이 취학전 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66.1%, 유치원등을 포함한 「육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32.7%로 3명중 1명은 육아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육아시설」 이용비율은 시부지역에서 34.0%로 군부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육아시설을 이용할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임
- 어머니(보호자)의 취업유무별로 보면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는 「자녀의 부모」, 「가족, 친인척」이 각각 27.5%, 24.0%이며, 유치원 등 육아시설은 45.4%로 높게 나타났음
-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유치원 등 「육아시설」 이용은 26.5%로 나타났음
- 취학전 자녀의 연령별로 보면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자녀의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고 있으며 자녀가 클수록 유치원 등 「육아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0~2세의 어린자녀는 「자녀의 부모」가 80.9%, 「가족, 친인척」이 12.0%로 주로 부모나 친인척이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고, 3~4세의 경우는 「자녀의 부모」 42.7%, 「육아시설」 46.8%로 나타났으며, 5~6세는 「자녀의 부모」 18.2%, 「육아시설」 74.2%로 취학직전의 자녀는 유치원 등 「육아시설」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음

< 표 4-1-1. 취학전 자녀 양육실태 >

(단위 : %)

	계	자녀의 부모	가족 친인척	파출부 가정부	육아 시설	유치원 예체능 학원	유아원 선교원	놀이방 (가정 탁아)	어 린 집 (시설 탁아)	직 장 내 탁 아	기 타
전 국	100.0	55.9	10.2	0.8	32.7	22.4	6.5	1.7	2.0	0.1	0.4
시 부 군 부	100.0	55.1	9.7	0.9	34.0	23.4	6.7	1.7	2.1	0.1	0.3
	100.0	59.6	12.7	0.3	26.8	17.6	5.6	2.0	1.6	0.0	0.5
< 어머니 > (보호자)											
· 취 업	100.0	27.5	24.0	2.4	45.4	27.5	9.7	3.7	4.3	0.2	0.7
· 가 사	100.0	69.9	3.4	0.1	26.5	20.0	4.9	0.8	0.8	0.0	0.2
< 자 녀 >											
0 ~ 2세	100.0	80.9	12.0	1.3	5.3	1.0	1.6	1.6	1.0	0.1	0.4
3 ~ 4세	100.0	42.7	9.4	0.5	46.8	27.9	13.0	2.6	3.2	0.1	0.5
5 ~ 6세	100.0	18.2	7.0	0.3	74.2	62.8	8.1	0.9	2.3	0.1	0.3

4 - 2. 취학전 자녀 양육의견

○ 실제로 취학전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자녀의 부모가 모두 취업을 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직접 돌보지 못한다고 가정하였을때 그 자녀를 누가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 「가족·친인척」과 「육아시설」이 49.5%로 같게 나타나 취학전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보지 못할 경우 「가족, 친인척」과 「육아시설」에 기대하는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가족이나 친인척에 의한 육아를 희망하는 경우를 보면 지역별로는 군부가, 자녀연령별로는 0~2세에서 높게 나타났음
- 반면 육아시설을 희망하는 경우는 지역별로는 시부가, 자녀연령별로는 자녀가 클수록, 그리고 어머니가 전업주부가 아닌 실제로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 높게 나타났음

< 표 4-2-1. 취학전 자녀 양육의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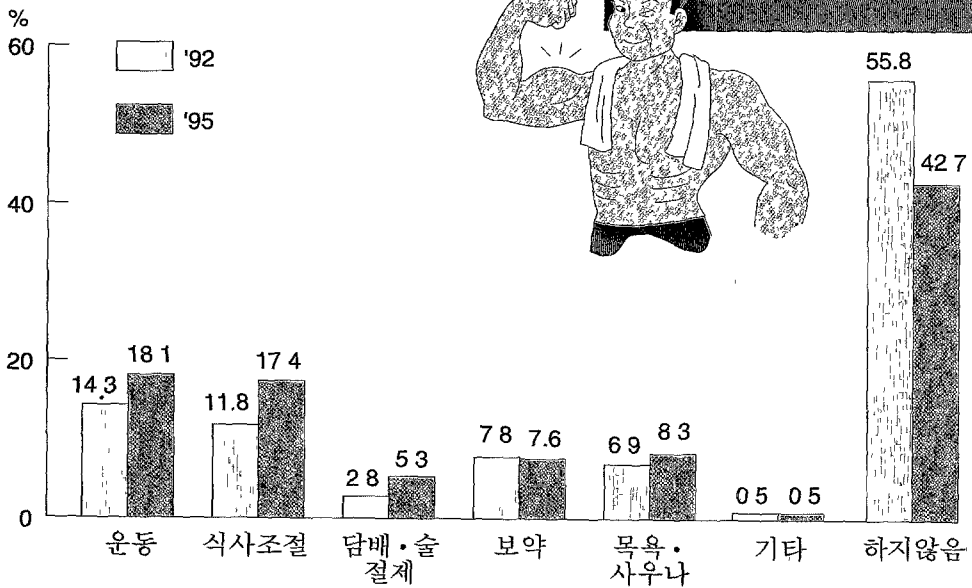
(단위 : %)

	계	가족·친인척	파출부·가정부	육아시설	기타					
					유치원·예체능원	유아원·선교원	놀이방	어린이집	직장내 탁아	기타
전국	100.0	49.5	1.0	49.5	22.2	9.5	7.1	5.7	5.0	0.0
시군부	100.0	48.5	1.1	50.5	22.9	9.3	7.0	5.8	5.5	0.0
	100.0	54.3	0.6	45.1	19.1	10.8	7.8	4.8	2.6	0.0
< 어머니 > (보호자)										
· 취업	100.0	44.8	0.7	54.5	26.6	10.4	6.5	6.5	4.5	0.0
· 가사	100.0	51.8	1.1	47.1	20.0	9.1	7.4	5.3	5.3	0.0
< 자녀 >										
0 ~ 2세	100.0	74.1	1.3	24.6	1.7	4.8	8.7	4.6	4.8	0.0
3 ~ 4세	100.0	34.6	0.5	64.9	26.2	17.1	8.2	7.9	5.5	0.0
5 ~ 6세	100.0	21.3	0.9	77.8	57.7	8.3	2.3	4.7	4.8	0.0

여 백

'95년 사회통계 조사결과 (보건부분)

건강관리방법



주된 건강관리 방법으로 운동이 18.1%,
 식사조절이 17.4%, 목욕·사우나 8.3%,
 보약 7.6%로 나타나
 운동과 식사조절이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건강관리 방법으로 나타났다.

1995년
사회통계조사결과
(보건부문)

1996. 5

통계조사국 사회통계과

I. 조사개요

< 일반 조사사항 >

1. 조사목적

- 사회지표 작성을 위하여 기존의 각종 조사에서 생산되고 있지않는 각 부문에 대한 국민들의 주관적 의식 및 사회적 관심사와 삶의 질에 관련된 항목들을 조사하여 사회상태의 변동을 파악하고 사회개발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

2. 조사연혁

- 사회통계조사는 77년 3월에 최초로 실시되었음.
- '78년에 수립된 사회지표체계를 토대로 인구부문을 제외한 8개부문중 4~5개부문을 '84년까지 교대로 조사하였음.
- '85년이후는 조사부문을 2~3개로 축소한 대신에 조사항목을 늘려 기존항목을 부연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개발하여 조사
- '87년 1차 사회지표체계 개편에서 문화·여가부문을 신설하여 작성해 왔으며, 사회통계조사 방법은 그대로 유지하여 왔음.

3. 실시근거

- 통계법에 의한 일반통계(승인번호 : 10118)

4. 조사대상

- 전국 약 34,000 표본가구내의 만 15세이상 모든 가구원
 - o 조사대상 가구원수는 총 83,555명

5. 조사방법

- 면접타계식 조사를 원칙으로 자계식 조사 병행

< '95년 조사사항 >

1. 조사기간

- '95. 9. 17 ~ 9. 26 (10일간)

2. 조사내용

- 기본사항 : 성명, 성별, 교육정도등 10개항목
- 고용·노사부문 : 직업선택요인, 여성취업장애요인 등 7개항목
- 보건부문 : 건강평가, 흡연, 음주 등 12개항목

3. 금번 공표부문

- 보건부문(고용·노사부문은 기공표)

4. 조사항목별 조사대상

○ 원칙적으로 15세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

- 유병기간 및 치료일수의 2개항목은 0세이상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조 사 항 목 명	신규여부	조 사 대 상
○ 기본사항(10개)		
○ 보건부문(12개)		
- 건강평가	보	15세이상 모든가구원
- 혈압		완
- 비만	보	"
- 건강관리방법		완
○ 가장 주된 방법		완
- 의료서비스 만족도	보	"
- 의료서비스 불만이유		완
○ 가장 주된 이유	신	20세이상 모든가구원
- 흡연에 관한 견해		규
- 금연주	신	"
- 과음횟수		"
- 유병기간		0세이상 모든 가구원
- 치료일수		"
○ 고용·노사부문(7개)		
- 직업선택요인	신	15세이상 모든가구원
- 여성취업에 관한 태도		신
- 여성취업 장애요인	신	"
- 취학전 자녀 양육실태		규
- 취학전 자녀 양육의견	신	취학전자녀의 어머니(보호자)
- 여성취업자의 취업사유		신
- 근로여건 만족도	보	15세이상 여성취업자 15세이상 임금근로자

II. '95년 사회통계조사 결과 요약(보건부문)

1. 건강평가

가. 개인의 건강평가

-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건강양호가 43.7%, 보통이 36.9%, 건강허약이 19.5%로 80.6%가 본인의 건강은 보통이상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건강이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여자보다 남자가,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직·사무직인 경우에 높게 나타남
- 3년전과 비교해 보면 건강이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1.3%p,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1.6%p 증가한 반면, 건강이 좋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이 2.8%p 감소함으로써 자신의 건강에 대한 평가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음

나. 혈 압

- 「최근에 혈압을 측정된 사람에게 혈압이 어떠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정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74.3%로 높게 나타났음
 - 연령이 많을수록 혈압이 「정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낮아지는 반면, 혈압이 「높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높아져, 특히 60세 이상에서 「높음」이 26.9%로 높게 나타났음

다. 비 만

- 연령과 신장을 감안하여 자신의 체중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5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만」은 21.9%, 「여윌」은 19.5%로 나타났음
 - 정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남자(60.4%)가 여자(56.8%)보다 많았음
- 3년전과 비교해 보면 「정상」, 「여윌」은 전반적으로 감소한 반면, 「비만」의 비율은 3.8%p 증가하여 영양과다등으로 자신의 체중이 비만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2. 건강 관리방법

- 조사대상 인구중 57.3%가 어떠한 형태로든 건강관리를 하고 있어 건강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주된 건강관리방법으로는 운동이 18.1%, 식사조절이 17.4%, 목욕·사우나 8.3%, 보약 7.6%로 나타나 운동과 식사조절이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건강관리방법인 것으로 나타났음
- 3년전과 비교해 보면 건강관리 비율이 44.2%에서 57.3%로 13.1%p나 크게 증가함으로써 최근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줌

3. 흡 연

가. 흡연과 금연

- 우리나라 성인인구중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비율(흡연인구비율)은 38.4%, 피우지 않는 사람의 비율은 61.6%로 나타났음

-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중 이전에는 담배를 피웠으나 금연한 사람의 비율은 13.4%이며 전혀 피운적이 없는 사람이 86.6%로 나타났음

○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흡연량을 보면 하루 한갑을 피우는 사람의 비율이 55.7%로 가장 많았고 반갑이하가 30.1%, 한갑 반 이상이 14.2%로 나타났음

- 성별로는 남자는 한갑이 57.7%, 여자는 반갑이하가 6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3년전과 비교해 보면 흡연인구 비율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건강을 위하여 금연하거나 담배를 반갑이하로 줄여 피우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음

○ 흡연인구중 금연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53.5%이며 전혀 시도한 적이 없는 사람은 46.5%로 흡연인구중 절반이상이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나. 흡연과 건강평가

○ 자신의 건강이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흡연자중에는 47.3%, 비흡연자중에는 37.7%로 나타나 흡연자가 비흡연자 보다 오히려 자신의 건강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담배를 끊었다는 응답자중 26.4%가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응답하여 건강상 금연한 것으로 풀이됨

다. 흡연과 건강관리방법

○ 담배를 피우는 사람중 건강관리를 하는 사람의 비율은 59.2%이며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중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58.7%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보아 흡연유무와 관계없이 거의 모든 사람이 비슷한 수준에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은 식사조절(36.6%), 운동(27.4%), 목욕·사우나(14.8%)의 순으로 건강관리방법을 택하고 있는 반면,

·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은 운동(34.3%), 식사조절(19.6%), 담배·술 절제(16.0%)의 순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음

4. 음 주

가. 음주 및 과음횟수

○ 우리나라 성인인구중 음주인구의 비율은 63.1%이며 지역별로는 시부가 65.6%, 군부가 54.2%로 시부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 성별로는 남자가 83.0%, 여자가 44.6%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대가 7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음주인구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술을 마시는 사람중 음주횟수를 보면 월2~4회가 35.1%, 월1회 이하가 31.4%, 주2~4회가 25.2%의 순으로 나타났음

- 술을 마시는 사람중 주량 이상으로 과음한 사람의 비율은 53.9%이며, 특히 남자의 경우는 72.6%가 과음하고 있어 남자 음주인구 4명중 3명이 과음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3년전과 비교하여 보면 음주인구비율은 57.9%에서 63.1%로 5.2%p 증가하였는데 성별로는 특히 여성의 음주인구비율이 11.6%p 증가하였고 연령별로는 젊은 층인 20~30대에서 음주인구 비율이 8%p 전후로 크게 증가하였음

나. 음주와 건강평가 및 건강관리방법

- 음주자의 주관적인 건강평가를 보면 건강양호가 46.8%, 보통이 37.9%, 건강허약이 15.4%로 술마시는 사람중 84.7%가 자신의 건강이 보통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중 60.7%는 건강관리를 하고 있으며, 또한 술을 끊은 사람중에서는 65.6%가, 한번도 술을 마신적이 없는 사람중에서는 52.1%가 어떠한 형태로든 건강관리를 하고 있어
 - 술을 끊었거나 현재 마시고 있는 사람이 술을 마신적이 없는 사람보다 오히려 건강관리에 더 신경을 쓰고 있음을 보여줌
- 술 마시는 사람중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의 건강관리방법을 보면 운동이 33.3%, 식사조절이 26.2%, 목욕·사우나가 15.8%, 담배·술 절제가 12.5%, 보약 및 영양제가 11.5%의 순으로 나타났음

다. 음주와 흡연

- 조사대상 인구중 음주와 흡연을 동시에 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30.8%이며 특히 남자의 경우에는 59.8%가 음주와 흡연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음주와 흡연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구비율은 36.6%로 특히 여자의 경우에는 56.0%가 술도 담배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5. 의료서비스 만족도 및 불만이유

- 지난 1년간 주로 이용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종합병원과 병원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불만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 의원, 한의원, 보건소, 약국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
- 의료서비스에 대한 주된 불만이유는 「진료 대기시간 길다」가 28.6%, 「치료결과 미흡」이 20.9%, 「불친절」이 18.6%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군부지역에서 「의료기관이 멀다」가 15.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군부지역의 의료기관 근접성이 아직도 낮은 것으로 보임

6. 유병기간

가. 이환율, 유병일수 및 외병일수

- 조사대상 2주간의 0세이상 인구중 아프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의 비율인 이환율은 '95년 19.0%로 과거에 비해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는 아프다는 인식의 변화와 의료 시설 접근도가 용이한데서 오는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나. 진료자수 및 치료일수

- 인구 천명당 의사의 진료를 받은 사람은 '95년 98.5명으로 '89년, '92년에 비해 증가하여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는 높아진 것으로 보임
- 1인당 치료일수는 4.7일로 '92년과 같으며 연령이 증가할 수록 치료일수가 3년전에 비하여 늘어났음

Ⅲ. 사회통계조사 결과 세부내용(보건부문)

1. 건강 평가

1 - 1. 개인의 건강평가

-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건강양호가 43.7%, 보통이 36.9%, 건강허약이 19.5%로 80.6%가 본인의 건강은 보통이상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건강이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여자보다 남자가,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직·사무직인 경우에 높게 나타난 반면,
 - 건강이 허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이와는 반대계층에서 높게 나타났음.
- 3년전과 비교해 보면 건강이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1.3%p,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1.6%p 증가한 반면, 건강이 좋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이 2.8%p 감소함으로써 자신의 건강에 대한 평가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경향은 지역별로는 시부에서, 성별로는 남자가 두드러졌음.

<표 1-1-1 개인의 건강평가>

(단위: %)

	계	건강양호			보통	건강허약	건강치못	매우나쁨
		매우건강	건강한편	건강한입				
'95 전 국	100.0	43.7	6.1	37.6	36.9	19.5	17.3	2.2
시 군 부	100.0	42.8	5.9	36.9	38.9	18.3	16.4	1.9
	100.0	46.8	6.7	40.1	29.5	23.7	20.7	3.0
남	100.0	50.5	8.0	42.5	34.8	12.9	12.9	1.9
	100.0	37.2	4.2	33.0	38.9	23.9	21.5	2.4
15 ~ 19	100.0	61.9	12.5	49.4	33.0	5.1	4.7	0.4
20 ~ 29	100.0	54.3	8.9	45.4	37.6	8.2	7.6	0.6
30 ~ 39	100.0	44.3	5.2	39.1	41.3	14.4	13.5	0.9
40 ~ 49	100.0	38.8	4.2	34.6	39.0	22.2	20.4	1.8
50 ~ 59	100.0	32.0	3.0	29.0	35.9	32.1	28.0	4.1
60세이상	100.0	26.2	2.8	23.4	28.9	45.0	37.6	7.4
국졸이하	100.0	29.8	3.2	26.6	31.3	38.9	33.4	5.5
중졸	100.0	45.5	7.1	38.4	37.4	17.1	15.5	1.6
고졸	100.0	48.4	7.0	41.4	39.1	12.5	11.5	1.0
대졸이상	100.0	50.7	6.9	43.8	39.0	10.3	9.7	0.6
전문관리	100.0	52.5	6.9	45.6	37.9	9.6	9.0	0.6
사무직원	100.0	52.0	7.3	44.7	38.4	9.7	9.3	0.4
서비스판매	100.0	42.9	5.6	37.3	39.3	17.8	16.4	1.4
농어업숙련	100.0	39.4	4.6	34.8	31.8	28.9	26.3	2.6
기능노무	100.0	43.2	5.4	37.8	39.3	17.5	16.5	1.0

(단위: %)

	계	건강양호		보통	건강허약	건강치못	매우나쁨	
		매우건강	건강한입					
'92 전 국	100.0	46.5	5.8	40.7	35.3	18.2	16.3	1.9
시 군	100.0	46.1	5.8	40.3	37.1	16.8	15.1	1.7
	100.0	47.5	5.6	41.9	30.1	22.5	20.0	2.5
남	100.0	54.1	7.8	46.3	32.8	13.0	11.5	1.5
	100.0	39.1	3.8	35.3	37.7	23.1	20.9	2.2
15 ~ 19	100.0	61.6	9.9	51.7	33.3	5.1	4.8	0.3
20 ~ 29	100.0	57.8	8.4	49.4	34.4	7.9	7.4	0.5
30 ~ 39	100.0	47.6	5.4	42.2	38.7	13.7	12.9	0.8
40 ~ 49	100.0	40.7	4.1	36.6	38.5	20.8	19.1	1.7
50 ~ 59	100.0	34.7	2.9	31.8	34.3	31.1	27.5	3.6
60세이상	100.0	27	2.5	24.5	30.2	42.9	36.2	6.7
국중고대	100.0	31.6	2.7	28.9	32.7	35.8	31.1	4.7
	100.0	48.3	5.9	42.4	36.2	15.4	14.1	1.3
졸이하졸이상	100.0	52.6	7.1	45.5	36.7	10.7	10.0	0.7
	100.0	56.4	8.1	48.3	35.3	8.3	7.8	0.5

<표 1-1-2 개인의 건강평가 - '92년 대비 증감표>

(단위 %p)

	건강양호	건강양호		보통	건강허약	건강치못	매우나쁨
		매우건강	건강한입				
전 국	-2.8	0.3	-3.1	1.6	1.3	1.0	0.3
시 군	-3.3	0.1	-3.4	1.8	1.5	1.3	0.2
	-0.7	1.1	-1.8	0.6	1.2	0.7	0.5
남	-3.6	0.2	-3.8	2.0	1.8	1.4	0.4
	-1.9	0.4	-2.3	1.2	0.8	0.6	0.2
15 ~ 19	0.3	2.6	-2.3	0.3	0.0	-0.1	0.1
20 ~ 29	-3.5	0.5	-4.0	3.2	0.3	0.2	0.1
30 ~ 39	-2.9	-0.2	-3.1	2.6	0.7	0.6	0.1
40 ~ 49	-1.9	0.1	-2.0	0.5	1.4	1.3	0.1
50 ~ 59	-2.7	0.1	-2.8	1.6	1.0	0.5	0.5
60세이상	-0.8	0.3	-1.1	1.3	2.1	1.4	0.7
국중고대	-1.8	0.5	-2.3	1.4	3.1	2.3	0.8
	-2.8	1.2	-4.0	1.2	1.7	1.4	0.3
졸이하졸이상	-4.0	-0.1	-4.1	2.4	1.8	1.5	0.3
	-3.3	-1.2	-4.5	3.7	2.0	1.9	0.1

1 - 2. 혈 압

○ 「최근에 혈압을 측정한 사람에게 혈압이 어떠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정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74.3%로 높게 나타났음.

- 연령이 많을수록 혈압이 「정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낮아지는 반면, 혈압이 「높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높아져, 특히 60세 이상에서 「높음」이 26.9%로 높게 나타났음.

<표 1-2-1 혈 압>

(단위: %)

	계	높 음		정 상	낮 음	낮은편	
		매 높 우 편	높 음 임			낮은편	매 우 편
'95 전 국	100.0	13.2	1.2	74.3	12.6	12.1	0.5
시 군 부 부	100.0	12.7	1.1	74.4	12.9	12.4	0.5
	100.0	15.0	1.5	74.0	11.0	10.6	0.4
남 여	100.0	13.2	1.0	78.7	8.1	7.8	0.3
	100.0	13.2	1.3	70.2	16.7	16.0	0.7
15 ~ 19	100.0	7.7	0.7	81.4	10.9	10.4	0.5
20 ~ 29	100.0	7.6	0.6	82.3	10.2	9.9	0.3
30 ~ 39	100.0	8.7	0.5	78.0	13.2	12.6	0.6
40 ~ 49	100.0	13.7	0.9	72.3	14.1	13.5	0.6
50 ~ 59	100.0	21.9	2.2	64.1	13.9	13.4	0.5
60세이상	100.0	26.9	3.2	59.7	13.4	13.0	0.4

1 - 3. 비 만

- 연령과 신장을 감안하여 자신의 체중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58.6%로 높게 나타났으며 「비만」은 21.9%, 「여윌」은 19.5%로 나타났음.
 - 정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남자(60.4%)가 여자(56.8%)보다 많았음.
 - 여자는 여윌(16.5%)보다 비만(26.9%)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더 많았고, 남자는 비만(16.9%)보다 여윌(22.7%)의 비율이 더 많았음.
 - 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정상」비율이 낮아지는 반면, 비만이나 여윌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40대에서 「비만」비율이 2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60세이상에서 「여윌」비율이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3년전과 비교해 보면 「정상」, 「여윌」은 전반적으로 감소한 반면, 「비만」의 비율은 3.8%p 증가하여 영양과다등으로 자신의 체중이 비만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표 1-3-1 비 만>

(단위: %)

	계	비 만		정 상	여 윌	여원편		
		매우비만	비 만			여원편	매우여원편	
'95 전 국	100.0	21.9	1.3	20.6	58.6	19.5	17.9	1.6
시 군	100.0	23.3	1.5	21.8	57.5	19.1	17.5	1.6
	100.0	16.8	0.6	16.2	62.5	20.6	19.0	1.6
읍	100.0	16.9	0.9	16.0	60.4	22.7	20.7	2.0
	100.0	26.9	1.8	25.1	56.8	16.5	15.2	1.3
15 ~ 19	100.0	13.9	0.9	13.0	69.7	16.5	15.7	0.8
20 ~ 29	100.0	17.1	1.1	16.0	65.2	17.7	16.6	1.1
30 ~ 39	100.0	24.5	1.5	23.0	57.8	17.9	16.5	1.4
40 ~ 49	100.0	28.1	1.6	26.5	54.4	17.5	16.2	1.3
50 ~ 59	100.0	26.2	1.4	24.8	53.8	20.0	18.0	2.0
60세이상	100.0	20.8	1.4	19.4	48.9	30.4	26.5	3.9

(단위: %)

	계	비 만		정 상	여 율	여 율		
		매우비만	비 만			여원편	매우여원편	
'92 전 국	100.0	18.1	1.0	17.1	60.0	21.9	19.4	2.5
시 군	100.0	19.6	1.2	18.4	58.9	21.5	19.1	2.4
	100.0	13.8	0.6	13.2	63.3	22.9	20.3	2.6
남	100.0	13.1	0.7	12.4	61.9	25	22.3	2.7
	100.0	22.9	1.4	21.5	58.2	18.9	16.6	2.3
15 ~ 19	100.0	11.5	0.8	10.7	70.2	18.4	16.9	1.5
20 ~ 29	100.0	12.8	0.8	12.0	67.4	19.8	18.2	1.6
30 ~ 39	100.0	21.5	1.2	20.3	58.0	20.4	18.4	2.0
40 ~ 49	100.0	24.5	1.2	23.3	56.7	18.8	16.8	2.0
50 ~ 59	100.0	22.0	1.2	20.8	54.7	23.3	20.2	3.1
60세이상	100.0	16.3	1.1	15.2	48.8	34.9	28.9	6.0
국 중 고 대	100.0	19.1	1.2	17.9	52.7	28.3	24.1	4.2
	100.0	18.3	1.1	17.2	61.6	20.1	18.0	2.1
	100.0	17.1	0.9	16.2	63.3	19.5	17.7	1.8
	100.0	18.6	1.0	17.6	62.4	18.9	17.2	1.7

<표 1-3-2 비 만 - '92년 대비 증감표>

(단위: %p)

	비 만	비 만		정 상	여 율	여 율	
		매우비만	비 만			여원편	매우여원편
전 국	3.8	0.3	3.5	-1.4	-2.4	-1.5	-0.9
시 군	3.7	0.3	3.4	-1.4	-2.4	-1.6	-0.8
	3.0	0.0	3.0	-0.8	-2.3	-1.3	-1.0
남	3.8	0.2	3.6	-1.5	-2.3	-1.6	-0.7
	4.0	0.4	3.6	-1.4	-2.4	-1.4	-1.0
15 ~ 19	2.4	0.1	2.3	-0.5	-1.9	-1.2	-0.7
20 ~ 29	4.3	0.3	4.0	-2.2	-2.1	-1.6	-0.5
30 ~ 39	3.0	0.3	2.7	-0.2	-2.5	-1.9	-0.6
40 ~ 49	3.6	0.4	3.2	-2.3	-1.3	-0.6	-0.7
50 ~ 59	4.2	0.2	4.0	-0.9	-3.3	-2.2	-1.1
60세이상	4.5	0.3	4.2	0.1	-4.5	-2.4	-2.1
국 중 고 대	3.3	0.3	3.0	-0.7	-2.7	-1.4	-1.3
	3.8	0.3	3.5	-1.2	-2.5	-1.6	-0.9
	4.4	0.3	4.1	-2.5	-1.8	-1.2	-0.6
	3.6	0.2	3.4	-1.8	-1.8	-1.4	-0.4

2. 건강 관리방법

2 - 1. 건강관리에 관한 주된 방법

- 조사대상 인구중 57.3%가 어떠한 형태로든 건강관리를 하고 있어 건강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지역별로는 시부가, 성별로는 남자가, 연령별로는 30 ~ 40대가, 직업별로는 전문관리 및 사무직에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이들의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음
- 주된 건강 관리방법으로는 운동이 18.1%, 식사조절이 17.4%, 목욕·사우나 8.3%, 보약 7.6%로 나타나 운동과 식사조절이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건강관리방법인 것으로 나타났음.
 - 시부에서는 운동, 식사조절, 목욕·사우나가, 군부에서는 식사조절, 운동, 보약이 주된 건강관리방법으로 나타났음.
 - 성별로는 남자가 운동을 통해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 압도적인 반면, 여자는 식사조절이 주된 건강관리방법으로 나타났음.
 - 연령계층별로는 젊은 사람일수록 운동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고 있으며 식사조절은 거의 모든 계층에서 골고루 택하고 있으며 50대이상의 경우에는 보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표 2-1-1 건강 관리방법(주된방법) >

(단위: %)

			계	운동	식사조절	담배·술 절제	보약	목욕 사우나	기타	하지 않음	
'95	전 시 군	국	100.0	18.1	17.4	5.3	7.6	8.3	0.5	42.7	
		부	100.0	20.0	18.5	5.2	7.0	9.4	0.6	39.4	
		부	100.0	11.4	13.5	5.6	9.8	4.4	0.4	55.0	
		남	여	100.0	24.4	11.8	10.3	7.0	7.9	0.5	38.1
			여	100.0	12.2	22.8	0.6	8.1	8.7	0.5	47.2
	15 ~ 19 20 ~ 29 30 ~ 39 40 ~ 49 50 ~ 59 60세이상			100.0	21.1	15.1	1.0	2.6	4.2	0.2	55.7
				100.0	20.6	19.9	5.2	3.2	8.6	0.4	42.1
				100.0	17.8	18.9	6.2	6.4	11.3	0.6	38.8
				100.0	19.2	16.1	6.3	8.2	10.9	0.6	38.9
				100.0	16.8	16.4	6.5	12.0	7.7	0.6	40.2
				100.0	12.0	15.1	5.0	16.5	3.3	0.6	47.6
	전문관리 사무직원 서비스판매 농어업숙련 기능노무			100.0	29.3	17.3	8.1	6.3	11.1	0.7	27.3
				100.0	21.2	19.9	6.0	4.9	10.6	0.7	36.7
				100.0	15.7	17.4	4.7	7.2	12.2	0.5	42.3
				100.0	4.7	12.4	6.8	14.5	2.3	0.5	58.9
			100.0	16.3	15.4	9.2	7.5	8.8	0.6	42.4	

○ 3년전과 비교해 보면 건강관리 비율이 44.2%에서 57.3%로 13.1%p나 크게 증가함으로써 최근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줌.

- 건강관리 방법으로는 식사조절이 5.6%p, 운동이 3.8%p, 담배·술 절제가 2.5%p 증가한 반면, 보약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연령계층별로는 20~30대가 식사조절을, 40~50대는 운동을 건강 관리방법으로 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음.

(단위: %)

		계	운 동	식사조절	담배·술 절 제	보 약	목 욱 사우나	기 타	하지 않음
'92	전 국	100.0	14.3	11.8	2.8	7.8	6.9	0.5	55.8
	시 군	100.0	16.6	13.3	2.9	7.9	8.3	0.6	50.5
		100.0	7.3	7.2	2.6	7.7	2.7	0.3	72.2
	여	100.0	20.3	8.4	5.5	8.2	7.7	0.5	49.4
		100.0	8.6	15.0	0.2	7.5	6.2	0.5	62.0
	15 ~ 19	100.0	18.1	10.7	0.6	2.6	2.9	0.3	64.8
	20 ~ 29	100.0	16.5	13.9	3.2	3.8	7.7	0.6	54.4
	30 ~ 39	100.0	13.9	12.3	3.3	7.8	10.2	0.6	51.9
	40 ~ 49	100.0	14.7	11.5	2.9	9.3	9.3	0.7	51.7
	50 ~ 59	100.0	11.9	11.0	3.5	11.6	5.6	0.4	56.0
60세이상	100.0	8.6	9.2	2.6	15.1	2.0	0.6	61.8	

<표 2-1-2 건강 관리방법(주된방법) - '92년 대비 증감표 >

(단위: %p)

		운 동	식사조절	담배·술 절 제	보 약	목 욱 사우나	기 타	하지 않음
전 국		3.8	5.6	2.5	-0.2	1.4	0.0	-13.1
시 군	부	3.4	5.2	2.3	-0.9	1.1	0.0	-11.1
	부	4.1	6.3	3.0	2.1	1.7	0.1	-17.2
여		4.1	3.4	4.8	-1.2	0.2	0.0	-11.3
		3.6	7.8	0.4	0.6	2.5	0.0	-14.8
15 ~ 19		3.0	4.4	0.4	0.0	1.3	-0.1	-9.1
20 ~ 29		4.1	6.0	2.0	-0.6	0.9	-0.2	-12.3
30 ~ 39		3.9	6.6	2.9	-1.4	1.1	0.0	-13.1
40 ~ 49		4.5	4.6	3.4	-1.1	-8.4	-0.1	-12.8
50 ~ 59		4.9	5.4	3.0	0.4	2.1	0.2	-15.8
60세이상		3.4	5.9	2.4	1.4	1.3	0.0	-14.2

3. 흡 연 (20세이상)

3 - 1. 흡 연

- 우리나라 성인인구중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비율(흡연인구비율)은 38.4%, 피우지 않는 사람의 비율은 61.6%로 나타났음.
 - 군부의 흡연율은 40.5%로 시부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남자의 흡연율은 73.0%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여성 흡연율은 6.0%로 낮게 나타났음.
 -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중 이전에는 담배를 피웠으나 금연한 사람의 비율은 13.4%이며 전혀 피운적이 없는 사람이 86.6%로 나타났음.
 - 담배를 안피우는 사람중 담배를 끊은 사람의 비율은 남자의 경우 53.9%로 매우 높고 연령이 많아 질수록 높게 나타났음.
-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흡연량을 보면 하루 한갑을 피우는 사람의 비율이 55.7%로 가장 많았고 반갑이하가 30.1%, 한갑 반 이상이 14.2%로 나타났음.
 - 성별로는 남자는 한갑이 57.7%, 여자는 반갑이하가 6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 3-1-1 흡 연>

(단위: %)

	계	안피움			피운다	피운다				
		안피움	끊었음	피운적이 없음		반갑이하	한 갑	한갑반	두갑이상	
'95 전 국	100.0	61.6	13.4	86.6	38.4	30.1	55.7	11.8	2.4	
시 군	100.0	62.2	13.7	86.3	37.8	30.9	54.7	12.0	2.4	
	100.0	59.5	12.6	87.4	40.5	27.3	59.2	11.1	2.4	
여	100.0	27.0	53.9	46.1	73.0	27.3	57.7	12.5	2.5	
	100.0	94.0	2.6	97.4	6.0	62.0	33.2	4.0	0.9	
20 ~ 29	100.0	63.0	7.0	93.0	37.1	36.3	53.8	8.8	1.1	
30 ~ 39	100.0	59.0	11.3	88.7	41.0	24.5	58.3	14.6	2.6	
40 ~ 49	100.0	60.9	14.5	85.5	39.1	22.8	59.1	14.4	3.6	
50 ~ 59	100.0	62.9	17.2	82.8	37.1	27.9	57.7	11.7	2.8	
60세이상	100.0	63.8	23.4	76.6	36.2	43.3	47.0	7.7	2.0	

○ 3년전과 비교해 보면 흡연인구 비율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건강을 위하여 금연하거나 담배를 반갑이하로 줄여 피우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음.

- 담배를 피우는 사람중 한갑이상 피우는 사람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반갑이하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1.9%p 증가하였음.
-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중 이전에는 담배를 피웠으나 금연한 사람의 비율은 6.9%p가 증가 하였음.
- 연령계층별로 흡연인구 비율을 3년전과 비교하여 보면 20~40대 계층은 흡연인구 비율은 약간 증가한 반면, 50대이상의 고령인구에서는 흡연인구 비율이 감소하였음

(단위: %)

	계	피우는 사람			피운다	반갑이하	한 갑	한갑반	두갑이상
		안피움	끊었음	피운적없음					
'92 전 국	100.0	61.5	6.5	93.5	38.5	28.2	57.0	11.9	2.9
시 군	100.0	62.8	6.7	93.3	37.2	29.6	55.7	11.8	2.9
	100.0	57.9	5.9	94.1	42.1	24.6	60.3	12.0	3.1
읍	100.0	26.8	28.0	72.0	73.2	25.3	59.0	12.5	3.1
	100.0	93.9	0.8	99.2	6.1	61.1	34.0	4.2	0.6
20 ~ 29	100.0	63.7	2.8	97.2	36.3	34.4	56.6	7.9	1.2
30 ~ 39	100.0	59.1	5.4	94.6	40.9	22.5	60.4	14.1	3.0
40 ~ 49	100.0	62.4	7.8	92.2	37.6	21.8	57.5	16.1	4.7
50 ~ 59	100.0	61.7	8.9	91.1	38.3	24.5	58.7	12.6	4.2
60세이상	100.0	60.7	11.7	88.3	39.2	40.9	48.4	8.2	2.5

<표 3-1-2 흡 연 - '92년 대비 증감표>

(단위: %p)

	계	피우는 사람			피운다	반갑이하	한 갑	한갑반	두갑이상
		안피움	끊었음	피운적없음					
전 국	0.1	6.9	-6.9	-0.1	1.9	-1.3	-0.1	-0.5	
시 군	-0.6	7.0	-7.0	0.6	1.3	-1.0	0.2	-0.5	
	1.6	6.7	-6.7	-1.6	2.7	-1.1	-0.9	-0.7	
읍	0.2	25.9	-25.9	-0.2	2.0	-1.3	0.0	-0.6	
	0.1	1.8	-1.8	-0.1	0.9	-0.8	-0.2	0.3	
20 ~ 29	-0.7	4.2	-4.2	0.8	1.9	-2.8	0.9	-0.1	
30 ~ 39	-0.1	5.9	-5.9	0.1	2.0	-2.1	0.5	-0.4	
40 ~ 49	-1.5	6.7	-6.7	1.5	1.0	1.6	-1.7	-1.1	
50 ~ 59	1.2	8.3	-8.3	-1.2	3.4	-1.0	-0.9	-1.4	
60세이상	3.1	11.7	-11.7	-3.0	2.4	-1.4	-0.5	-0.5	

3 - 2. 금연에 관한 견해

- 흡연인구중 금연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53.5%이며 전혀 시도한 적이 없는 사람은 46.5%로 흡연인구중 절반이상이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한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금까지 금연을 시도한 적이 있는 사람은 시도한 적이 없는 사람보다 줄여서 피우거나, 금연하겠다는 의지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음
 - 지금까지 금연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사람중 앞으로 계속 담배를 피우겠다는 사람은 12.7%에 불과한 반면, 향후 금연 하겠다는 사람은 19.3%, 줄여서 피우겠다는 사람은 68.2%로 높게 나타났음
 - 지금까지 금연을 시도한 경험이 없는 사람중 앞으로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겠다는 사람은 43.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앞으로 줄여서 피우겠다는 사람도 51.0%로 높게 나타난 반면 금연하겠다는 사람은 5.4%에 불과함

<표 3-2-1 금연에 관한 견해>

(단위: %)

	계	금연시도한 경험 있음			금연시도한 경험 없음			계	속음	향후 줄여 피우음	향후 금연
		금연 시도 있음	계	속음	줄여서 피우음	금연	금연 시도 없음				
전국	100.0	53.5	12.7	68.2	19.3	46.5	43.7	51.0	5.4		
시군	100.0	54.9	11.3	68.7	20.2	45.1	38.1	56.1	6.0		
	100.0	48.8	17.8	66.3	15.8	51.2	60.0	35.9	4.1		
남여	100.0	54.5	12.3	68.8	18.9	45.5	42.2	52.7	5.3		
	100.0	42.2	19.0	57.3	23.7	57.9	56.1	35.6	8.3		
20 ~ 29	100.0	51.6	9.1	70.2	20.7	48.4	37.6	55.0	7.4		
30 ~ 39	100.0	56.9	10.0	70.5	19.3	43.1	36.7	57.8	5.6		
40 ~ 49	100.0	57.1	12.3	67.6	20.1	42.9	41.5	53.8	4.9		
50 ~ 59	100.0	54.0	17.2	65.4	17.4	46.0	48.3	47.0	4.8		
60세이상	100.0	44.3	22.1	61.6	16.5	55.7	62.5	34.1	3.4		
국중고대	100.0	44.2	22.6	64.0	13.1	55.9	60.6	36.0	3.4		
	100.0	53.5	14.8	69.7	15.5	46.5	45.6	49.5	4.9		
	100.0	55.6	10.3	69.2	20.3	44.4	37.6	56.1	6.3		
	100.0	58.9	8.0	67.6	24.4	41.1	31.6	61.6	6.8		
미유사이	100.0	49.3	9.3	68.4	22.3	50.7	39.4	53.5	7.3		
	100.0	56.4	12.9	68.6	18.4	43.6	42.4	52.5	5.0		
	100.0	38.3	25.3	58.2	16.4	61.7	66.1	30.0	3.7		
	100.0	42.0	13.8	63.8	22.4	58.0	50.3	45.5	4.3		

3 - 3. 흡연과 건강평가

○ 자신의 건강이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흡연자중에는 47.3%, 비흡연자 중에는 37.7%로 나타나 흡연자가 비흡연자 보다 오히려 자신의 건강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담배를 끊었다는 응답자중 26.4%가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응답하여 건강상 금연한 것으로 풀이됨.

<표 3-3-1 흡연과 건강평가>

(단위: %)

	계	건강			보 통	건강 허약	건강치 못 함	매우 나쁨
		양호	매우 건강	건강함 편				
계	100.0	41.4	5.3	36.1	37.4	21.3	18.9	2.4
안 피 음	100.0	37.7	4.4	33.3	38.6	23.7	21.0	2.7
끊 었 음	100.0	39.7	5.4	34.3	33.8	26.4	20.8	5.6
피운적없음	100.0	37.4	4.3	33.1	39.4	23.3	21.0	2.3
피 음	100.0	47.3	6.7	40.6	35.3	17.4	15.6	1.8
반갑 이하	100.0	46.2	6.8	39.4	34.4	19.5	17.1	2.4
한 갑	100.0	48.9	6.6	42.3	35.4	15.7	14.2	1.5
한 갑 반	100.0	43.8	6.2	37.6	37.9	18.2	16.3	1.9
두갑 이상	100.0	41.3	9.2	32.1	33.1	25.6	22.5	3.1

3 - 4. 흡연과 건강관리방법

○ 담배를 피우는 사람중 건강관리를 하는 사람의 비율은 59.2%이며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중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58.7%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보아 흡연 유무와 관계없이 거의 모든 사람이 비슷한 수준에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건강관리방법상에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에 차이가 있음.

-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은 식사조절(36.6%), 운동(27.4%), 목욕·사우나(14.8%)의 순으로 건강관리방법을 택하고 있는 반면,
-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은 운동(34.3%), 식사조절(19.6%), 담배·술 절제(16.0%)의 순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음.
- 또한 과거에는 담배를 피웠으나 금연한 사람은 운동(34.4%), 담배·술 절제(22.5%), 식사조절(20.5%)의 방법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반면,
- 담배를 한번도 피운적이 없는 사람은 식사조절(40.1%), 운동(26.2%), 목욕·사우나(15.9%)의 순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음.

<표 3-4-1 흡연과 건강관리 방법>

(단위: %)

	계	하였음							하지 않음
		운동	식사조절	담배술절제	영양제복용	목욕사우나	기타		
계	100.0	58.9	30.2	30.1	9.8	13.9	14.9	1.0	41.1
안 피움	100.0	58.7	27.4	36.6	6.0	14.0	14.8	1.0	41.3
끊었음	100.0	75.1	34.4	20.5	22.5	12.3	9.7	0.8	24.9
피운적없음	100.0	56.1	26.2	40.1	2.7	14.4	15.9	1.1	43.9
피움	100.0	59.2	34.3	19.6	16.0	13.7	15.4	0.8	40.8
반갑 이하	100.0	63.6	35.1	20.8	18.1	13.5	11.8	0.8	36.4
한 갑	100.0	57.7	35.0	18.9	15.9	13.3	15.9	0.9	42.3
한 갑 반	100.0	56.7	29.8	20.5	12.3	15.5	21.3	0.7	43.3
두갑 이상	100.0	50.9	29.5	17.1	7.5	19.3	25.5	1.4	49.1

4. 음 주 (20세이상)

4 - 1. 음주 및 과음횟수

- 우리나라 성인인구중 음주인구의 비율은 63.1%이며 지역별로는 시부가 65.6%, 군부가 54.2%로 시부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 성별로는 남자가 83.0%, 여자가 44.6%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대가 7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음주인구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술을 마시는 사람중 음주횟수를 보면 월2 ~ 4회가 35.1%, 월1회 이하가 31.4%, 주2 4회가 25.2%의 순으로 나타났음.
 - 성별로 음주횟수를 보면 남자의 음주인구중 월2 ~ 4회가 37.7%, 주2 ~ 4회가 35.5%로 나타난 반면 여자 음주인구는 월1회 이하 60.3%, 월2 ~ 4회 30.5%로 나타났음.
 - 음주횟수를 연령계층별로 보면 모든 연령계층에서 월2 ~ 4회의 횟수로 마시는 사람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두번째로 비중이 높은 음주횟수를 보면 20 30대가 월1회 이하, 40대 이상은 주2 ~ 4회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거의 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의 비중은 40대 이상에서 15%전후로 높게 나타났음.
 - 연령이 많을수록 음주인구 비율은 감소하지만 일단 마시는 사람의 경우에는 젊은층보다 대체적으로 음주횟수가 잦다는 것을 알수 있음
 - 술을 마시는 사람중 주량 이상으로 과음한 사람의 비율은 53.9%이며, 특히 남자의 경우는 72.6%가 과음하고 있어 남자 음주인구 4명중 3명이 과음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과음횟수를 보면 1년에 3회 이내가 22.8%, 3개월에 1~2회가 15.7%, 1개월에 1~3회가 10.7%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4-1-1 음주 및 과음횟수(20세 이상)>

(단위: %)

	계	음주인구비율	음 주 횟 수				과 음 횟 수					
			월1회 이하	월2~4회	주2~4회	거의 매일	1년3회 이내	3개월 1~2회	1개월 1~3회	주1회 이상	없 음	
			'95	전 국	100.0	63.1	31.4	35.1	25.2	8.4	22.8	15.7
	시 군 부 부	100.0	65.6	33.1	35.2	24.5	7.3	23.3	15.8	10.3	4.6	45.9
		100.0	54.2	23.9	34.6	28.3	13.2	20.6	15.3	12.3	5.0	46.8
	남	100.0	83.0	14.8	37.7	35.5	12.1	27.9	22.2	15.7	6.9	27.4
	여	100.0	44.6	60.3	30.5	7.3	1.9	14.0	4.5	2.0	0.8	78.6
	20 ~ 29	100.0	74.3	35.7	42.0	19.5	2.8	25.1	14.7	7.8	2.4	50.0
	30 ~ 39	100.0	69.4	32.0	33.9	27.1	7.1	22.6	17.4	12.1	5.3	42.6
	40 ~ 49	100.0	62.8	28.7	31.3	29.7	10.3	22.1	17.6	13.5	6.3	40.6
	50 ~ 59	100.0	54.5	26.7	30.4	28.5	14.3	22.5	14.7	11.9	5.9	45.0
	60세이상	100.0	40.8	26.8	30.2	24.4	18.6	18.2	11.4	8.3	5.3	56.8

○ 3년전과 비교하여 보면 음주인구비율은 57.9%에서 63.1%로 5.2%p 증가하였는데 이는 특히 여성의 음주인구비율이 11.6%p 증가하였고 20~30대에서 음주인구비율이 8%p 전후로 크게 증가한데 기인함.

- 음주인구의 음주횟수를 보면 주2~4회와 월1회 이하가 증가한 반면, 월2~4회는 4.6%p 감소하였는데 특히 남자의 경우 주2~4회가 7.4%p로 크게 증가하였음.
- 음주인구중 과음한 사람의 비중은 3년전에 비하여 52.6%에서 53.9%로 증가하였고 특히 남자의 경우 68.0%에서 72.6%로 과음인구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음.

	계	음주인구비율	음 주 횟 수				과 음 횟 수					
			월1회 이하	월2~4회	주2~4회	거의 매일	1년3회 이내	3개월 1~2회	1개월 1~3회	주1회 이상	없 음	
			'92	전 국	100.0	57.9	30.1	39.7	21.4	8.9	22.9	15.0
	시 군	100.0	59.7	32.5	40.1	20.2	7.2	23.6	15.1	9.7	4.2	47.4
	부 부	100.0	52.8	22.1	38.2	25.2	14.5	20.5	14.9	12.3	4.8	47.5
	남	100.0	84.7	16.6	43.7	28.1	11.7	28.0	20.2	14.0	5.8	32.0
	여	100.0	33.0	62.3	30.0	5.4	2.3	10.7	2.7	1.5	0.8	84.3
	20 ~ 29	100.0	64.6	35.3	45.9	16.1	2.7	25.1	13.3	7.0	1.9	52.7
	30 ~ 39	100.0	62.0	28.6	40.7	23.5	7.2	24.2	17.8	11.8	5.1	41.1
	40 ~ 49	100.0	58.2	28.2	34.8	25.8	11.3	22.7	16.7	13.2	5.4	42.0
	50 ~ 59	100.0	53.3	25.5	34.3	24.4	15.9	20.2	14.4	12.2	6.1	47.0
	60세이상	100.0	42.1	28.8	34.8	18.8	17.8	17.2	9.8	8.2	4.5	60.3

<표 4-1-2 음주 및 과음횟수 - '92년대비 증감표>

(단위 : %p)

	음주인구	음 주 횟 수				과 음 횟 수				
		월1회 이하	월2~4회	주2~4회	거의 매일	1년3회 이내	3개월 1~2회	1개월 1~3회	주1회 이상	없 음
		전 국	5.2	1.3	-4.6	3.8	-0.5	-0.1	0.7	0.4
시 군	5.9	0.6	-4.9	4.3	0.1	-0.3	0.7	0.6	0.4	-1.5
부 부	1.4	1.8	-3.6	3.1	-1.3	0.1	0.4	0.0	0.2	-0.7
남	-1.7	-1.8	-6.0	7.4	0.4	-0.1	2.0	1.7	1.1	-4.6
여	11.6	-2.0	0.5	1.9	-0.4	3.3	1.8	0.5	0.0	-5.7
20 ~ 29	9.7	0.4	-3.9	3.4	0.1	0.0	1.4	0.8	0.5	-2.7
30 ~ 39	7.4	3.4	-6.8	3.6	-0.1	-1.6	-0.4	0.3	0.2	1.5
40 ~ 49	4.6	0.5	-3.5	3.9	-1.0	-0.6	0.9	0.3	0.9	-1.4
50 ~ 59	1.2	1.2	-3.9	4.1	-1.6	2.3	0.3	-0.3	-0.2	-2.0
60세이상	-1.3	-2.0	-4.6	5.6	0.8	1.0	1.6	0.1	0.8	-3.5

4 - 2. 음주와 건강평가

○ 음주자의 주관적인 건강평가를 보면 건강양호가 46.8%, 보통이 37.9%, 건강허약이 15.4%로 술마시는 사람중 84.7%가 자신의 건강이 보통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 술을 끊었다고 응답한 사람중 자신의 건강이 보통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64.7% 그리고 전혀 마신적이 없다는 응답자의 70.2%가 보통이상이라고 응답함으로써

· 음주자가 비음주자에 비하여 오히려 자신의 건강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음.

<표 4-2-1 음주와 건강평가(20세 이상)>

(단위: %)

	계	건강양호			보통	건강허약	건강치함	
		매우건강	건강한입	건강치못			매우나쁨	
계	100.0	41.4	5.3	36.1	37.4	21.3	18.9	2.4
마신다	100.0	46.8	6.2	40.6	37.9	15.4	14.3	1.1
· 거의 매일	100.0	43.9	6.7	37.2	34.0	22.1	19.2	2.9
· 주 2 ~ 4회	100.0	49.7	6.8	42.9	36.3	14.0	13.1	0.9
· 월 2 ~ 4회	100.0	49.7	6.6	43.1	37.3	13.0	12.2	0.8
· 월 1회이하	100.0	41.8	5.0	36.8	40.8	17.4	16.3	1.1
끊었음	100.0	31.3	4.3	27.0	33.4	35.4	27.4	8.0
마신적 없음	100.0	32.6	3.6	29.0	37.6	29.8	26.5	3.3

4 - 3. 음주와 건강관리 방법

-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중 60.7%는 건강관리를 하고 있으며, 또한 술을 끊은 사람중에서는 65.6%가, 한번도 술을 마신적이 없는 사람중에서는 52.1%가 어떠한 형태로든 건강관리를 하고 있어
 - 술을 끊었거나 현재 마시고 있는 사람이 술을 마신적이 없는 사람보다 오히려 건강관리에 더 신경을 쓰고 있음을 보여줌.
- 술 마시는 사람중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의 건강관리방법을 보면 운동이 33.3%, 식사조절이 26.2%, 목욕·사우나가 15.8%, 담배·술 절제가 12.5%, 보약 및 영양제 11.5%의 순으로 나타났음.
 - 음주횟수와 건강관리방법과의 관계를 보면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의 경우에는 운동이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방법이며 그 다음이 식사조절이거나 영양제 및 보약 복용, 목욕·사우나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 월1회 이하로 술을 적게 마시는 사람의 경우에는 식사조절, 그 다음으로 운동, 목욕·사우나의 순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음.
- 술을 끊은 사람이거나 술을 마신적이 없는 비음주자의 경우에는 건강관리방법으로 식사조절, 운동, 영양제 및 보약복용 순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음.

<표 4-3-1 음주와 건강관리 방법>

(단위: %)

	계	하였음	하 지						않 음
			운 동	식 조	사 절	담배술 절 제	영양제 용 복	목 욕 사우나	
계	100.0	58.9	30.2	30.1	9.8	13.9	14.9	1.0	41.1
마 신 다	100.0	60.7	33.3	26.2	12.5	11.5	15.8	0.8	39.3
· 거 의 매 일	100.0	49.2	29.5	19.3	13.8	19.9	17.0	0.8	50.8
· 주 2 ~ 4회	100.0	60.6	36.6	18.5	15.5	11.7	16.8	0.8	39.4
· 월 2 ~ 4회	100.0	63.6	36.0	24.5	14.8	9.7	14.3	0.8	36.4
· 월 1회이하	100.0	60.7	28.3	35.7	7.4	11.4	16.5	0.8	39.3
끊 었 음	100.0	65.6	24.5	31.7	12.5	18.4	11.7	1.1	34.4
마신적 없음	100.0	52.1	24.4	40.1	1.7	18.4	14.4	1.2	47.9

4 - 4. 음주와 흡연 (15세이상)

- 조사대상 인구중 음주와 흡연을 동시에 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30.8%이며 특히 남자의 경우에는 59.8%가 음주와 흡연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음주와 흡연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구비율은 36.6%로 특히 여자의 경우에는 56.0%가 술도 담배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술은 마시고 담배는 피우지 않는 인구비율은 28.1%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담배는 피우고 술은 마시지 않는 인구비율은 4.4%에 불과함

<표 4-4-1 음주와 흡연>

(단위: %)

	계				남				여			
	마 심	안 마 심	끊었음	마신적 없	마 심	안 마 심	끊었음	마신적 없	마 심	안 마 심	끊었음	마신적 없
피운다	30.8	4.4	2.4	2.0	59.8	6.9	4.2	2.7	3.3	2.1	0.8	1.3
피우지 않는다	28.1	36.6	6.3	30.3	17.2	16.1	5.2	10.9	38.5	56.0	7.4	48.6
· 끊었음	4.8	2.8	2.2	0.6	8.7	4.5	3.8	0.7	1.1	1.1	0.7	0.4
· 피운적 없다	23.4	33.9	4.1	29.7	8.5	11.6	1.4	10.2	37.4	54.9	6.7	48.1

5. 의료서비스 만족도 및 불만이유

5 - 1. 의료서비스 만족도

- 지난 1년간 주로 이용한 의료서비스에 관한 만족도를 보면 종합병원과 병원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불만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 의원, 한의원, 보건소, 약국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

<표 5-1-1 의료서비스 만족도>

(단위: %)

	계	만 족		보 통	불 만	모 르 겠 다		모 르 겠 다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약간 불만	매우 불만		
종합 병원	100.0	15.3	3.8	11.5	23.2	60.6	44.5	16.1	0.9
병 원	100.0	15.2	2.1	13.1	38.1	45.1	38.5	6.6	1.7
의 원	100.0	15.4	2.6	12.7	46.2	36.3	32.9	3.4	2.2
한 의 원	100.0	26.4	6.3	20.1	38.6	31.4	28.3	3.1	3.6
보 건 소	100.0	29.9	8.0	21.9	45.0	20.6	18.4	2.2	4.5
약 국	100.0	14.3	2.5	11.8	59.8	12.9	11.8	1.0	13.1

5 - 2. 의료서비스에 관한 주된 불만이유

- 의료서비스에 관한 주된 불만이유는 「진료 대기시간 길다」가 28.6%, 「치료결과 미흡」이 20.9%, 「불친절」이 18.6%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군부지역에서 「의료기관이 멀다」가 15.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군부지역의 의료기관 근접성이 아직도 낮은 것으로 보임.

<표 5-2-1 의료서비스에 관한 주된 불만이유>

(단위: %)

	계	의료 기관 멀다	시설 미비	불친절	의료비 비싸다	치료 결과 미흡	대기시간길다			기 타
							입원	진료	투약	
전 국	100.0	5.0	6.5	18.6	13.2	20.9	3.6	28.6	3.3	0.3
시 군	100.0	2.8	5.5	19.5	13.5	21.8	3.7	29.3	3.5	0.4
	100.0	15.2	11.1	14.4	11.7	16.8	2.9	25.5	2.4	0.2
남 여	100.0	4.5	7.2	19.2	12.9	21.1	3.6	28.1	3.1	0.3
	100.0	5.5	5.9	18.1	13.5	20.7	3.5	29.0	3.5	0.3
15 ~ 19	100.0	4.8	5.8	24.8	12.3	23.7	3.3	22.2	2.6	0.6
20 ~ 29	100.0	3.7	6.3	23.7	12.1	20.7	3.2	27.1	2.7	0.5
30 ~ 39	100.0	4.3	6.6	17.9	12.0	21.0	3.5	30.9	3.5	0.3
40 ~ 49	100.0	4.2	6.4	16.9	13.8	20.7	4.2	29.2	4.4	0.1
50 ~ 59	100.0	5.6	7.0	15.8	14.2	21.9	3.9	28.3	2.9	0.5
60세이상	100.0	10.1	6.8	13.2	16.5	18.3	3.3	28.5	3.1	0.1

6. 유병기간(0세이상)

6 - 1. 이환율, 유병일수 및 와병일수

○ 조사대상 2주간동안의 0세이상 인구 중 아프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의 비율인 이환율은 '95년 19.0%로 과거에 비해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는 아프다는 인식의 변화와 의료시설 접근도가 용이한데서 오는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 군부지역의 이환율이 '92년 14.5%에서 '95년 17.0%로 높게 증가한 것은 농촌인구의 노령화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유병일수와 와병일수는 3년전과 비슷한 수준임

<표 6-1-1 이환율, 유병일수 및 와병일수>

(단위: %, 일)

	이 환 율		유 병 일 수		와 병 일 수	
	'92	'95	'92	'95	'92	'95
전 국	18.5	19.0	5.9	5.8	0.9	0.8
시 군	19.8	19.5	5.8	5.7	0.8	0.7
부	14.5	17.0	6.6	6.2	1.2	1.0
남	16.1	16.6	5.8	5.7	0.9	0.8
	20.8	21.4	6.0	5.9	0.9	0.7
여						
0 ~ 9	28.0	28.0	5.1	4.9	0.6	0.6
10 ~ 19	9.8	12.4	4.3	4.3	0.4	0.2
20 ~ 29	12.5	12.5	5.1	4.8	0.7	0.5
30 ~ 39	17.6	17.8	5.7	5.5	0.8	0.7
40 ~ 49	20.8	18.3	6.3	6.3	0.9	0.8
50 ~ 59	22.8	21.3	7.2	7.4	1.1	0.9
60세이상	26.5	28.8	8.1	7.9	1.9	1.5

※ 이환율 = 조사대상 2주간 유병자수 / 조사인구(0세이상 모든가구원)
 유병일수 = 총유병일수 / 총유병자수
 와병일수 = 총와병일수 / 총유병자수

6 - 2. 진료자수 및 치료일수

- 인구 천명당 의사의 진료를 받은 사람은 '95년 98.5명으로 '92년에 비해 증가하여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는 높아진 것으로 보임
 - 시부는 '92년에 비해 감소하였고 군부는 '92년보다 높아졌음
 - 남자는 '92년 89.4명에 비해 '95년 88.4명으로 감소하고 여자는 '92년 104.7명에서 108.4명으로 증가하여 남자의 진료일수는 여자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임
 - 연령별로는 0~4세가 279.6명으로 가장 많고 10대 후반이 37.1명으로 가장 적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함
- 1인당 치료일수는 4.7일로 '92년과 같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치료일수가 3년전에 비하여 늘어났음

<표 6-2-1 진료자수 및 치료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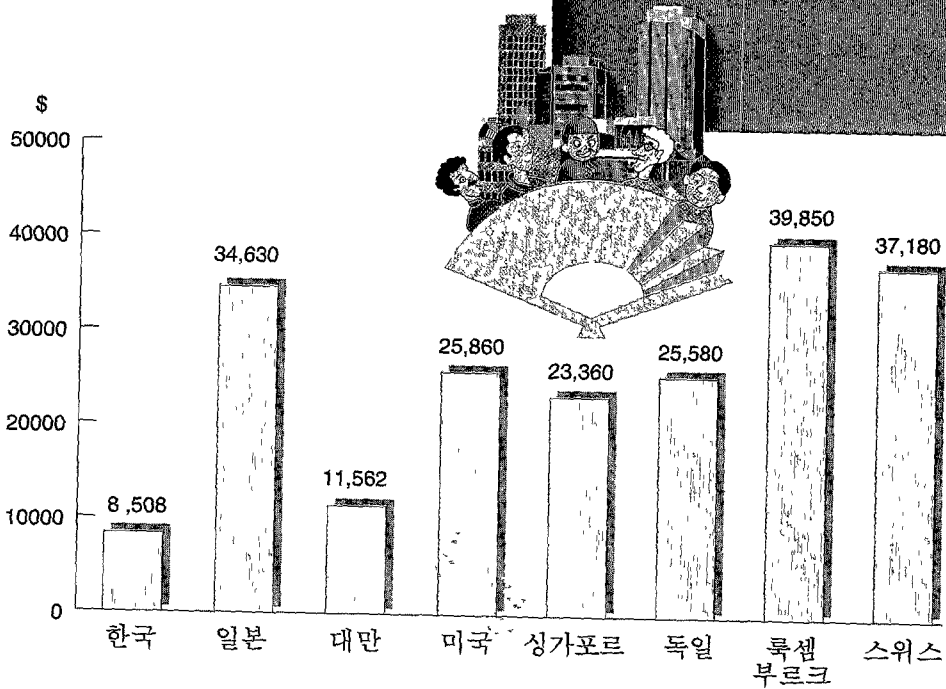
(단위: 명, 일)

	의사 진료자수(1,000명당)		1인당 치료 일수	
	'92	'95	'92	'95
전 국	97.1	98.5	4.7	4.7
시 군	101.2	98.1	4.8	4.7
	84.5	99.8	4.6	4.6
남	89.4	88.4	4.8	4.8
	104.7	108.4	4.6	4.6
0 ~ 4	317.7	279.6	4.2	3.9
5 ~ 9	121.3	125.0	3.6	3.5
10 ~ 14	50.1	51.4	4.0	3.5
15 ~ 19	35.3	37.1	4.3	4.2
20 ~ 24	39.4	42.9	4.9	4.7
25 ~ 29	54.1	53.4	4.5	3.8
30 ~ 34	68.7	66.7	4.5	4.2
35 ~ 39	76.6	76.6	5.0	4.8
40 ~ 44	90.1	79.3	5.3	4.9
45 ~ 49	102.3	89.8	5.1	5.5
50 ~ 54	109.7	108.9	5.5	5.8
55 ~ 59	125.6	127.4	5.3	5.7
60 ~ 64	144.2	155.5	5.6	5.8
65세이상	140.8	171.6	5.8	6.2

※ 의사 진료자수 = 조사대상 2주간 병·의원 진료자수 / 조사인구(0세이상 모든 가구원)
 1인당 치료일수 = 병·의원진료자의 총진료일수 / 병·의원 진료자수

통계에 나타난 세계속의 한국

1인당 GNP(1994)



'94년 현재 우리나라 국민총생산(GNP) 규모는 3,780억달러('95년 4,517억달러)로 세계 11위 수준이며, 1인당 국민총생산은 8,508달러('95년 10,076달러)로 세계 29위이다

- 본문 중에서 -

통계에 나타난 세계속의 한국

1996. 6

자료관리국 국제통계과

1. 국토 · 기상

우리나라 국토의 2/3가 산림 · 목초지

- 9만9천 km²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국토면적은 세계총면적의 0.07%, 아시아 면적의 0.36%를 차지하고 있다.
- 국토의 이용현황을 보면 총면적중 농경지 면적비율은 20.7%로써 아시아 평균 17.0% 보다 높으며, 국가별로는 일본(11.8%)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나 영국(25.0%), 프랑스(35.2%), 독일(33.9%), 이탈리아(39.4%) 등 서구 선진국보다는 다소 낮은 편이다.
- 산림 · 목초지는 65.8%로써 일본(68.2%)과 같은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표〉 국토 면적 이용 (1993)

(단위 . 10km², %)

국 가	총 면 적	국토 면적 이용 (%)		
		농 경 지	산림 · 목초지	기 타
세 계	13,422,362	10.8	56.2	30.0
한 국	9,939	20.7	65.8	13.5
일 본	37,780	11.8	68.2	20.0
미 국	980,943	19.1	53.6	27.3
프 랑 스	55,150	35.2	46.6	18.2
독 일	35,691	33.9	44.7	21.4
이탈리아	30,127	39.4	36.7	23.9
스 위 스	4,129	11.3	57.3	31.4
영 국	24,488	25.0	55.1	19.9

주 : 총면적은 국토내의 수면을 포함한 국토의 총면적

2. 인 구

총인구 : 25위, 인구밀도 : 3위

○ 95년 우리나라 총인구(연앙추계)는 4,485만명으로 세계 총인구의 0.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25위이다.

— 인구최다국은 중국(12.2억명)으로 세계인구의 2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9.4억명, 16.3%), 미국(2.6억명, 4.6%), 인도네시아(2.0억명, 3.5%) 순이다.

○ 인구밀도는 94년 현재 우리나라는 1㎢당 443명으로 소규모 도시국가(모나코, 홍콩 등)와 소규모 섬국가(몰타, 바베이도스 등)를 제외하면 방글라데시(800명), 대만(582명)에 이어 3위를 나타낸다.

선진국보다 65세이상 노령인구비율 훨씬 적고
노동력 인구계층(15~64세)은 많아

○ 95년 7월 1일 기준 우리나라의 연령계층별 인구구조는 0~14세 23.2%, 15~64세 71.1%, 65세이상 5.7%로 나타났다.

— 65세이상의 인구비율은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일본 14.1%, 미국 12.6%, 독일 15.2%, 영국 15.5% 등)10~20%수준이어서 우리나라의 2~3배 수준이다.

— 15~64세 인구비율은 60%대의 선진국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다.

총부양비 세계에서 최저 수준

- 노동력인구(15~64세)가 부양해야 하는 유년(0~14세)과 노년(65세이상)층에 대한 총부양비는 40.6%로 세계에서 최저 수준이다. 이는 낮은 노년층과 높은 노동력인구층 비율에 기인한다.
- 유년인구대비 노령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우리나라 24.5%로 대부분 선진국의 50% 이상에 비해 낮은 편이다.

〈표〉 연령구조 및 부양비(1995)

(단위 : %)

	연령구조			총부양비	노령화지수
	0~14세	15~64세	65세이상		
한국	23.2	71.1	5.7	40.6	24.5
일본	16.4	69.5	14.1	43.6	86.0
캐나다	20.8	67.4	11.8	48.5	56.7
미국	22.0	65.4	12.6	53.1	57.3
오스트리아	17.8	67.3	14.9	48.6	83.7
프랑스	19.6	65.5	14.9	52.7	76.0
독일	16.0	68.8	15.2	45.6	95.0
영국	19.5	65.0	15.5	53.9	79.5

출생률은 선진국보다 높고, 사망률은 낮아

- 인구 천명당 출생률은 94년 현재 우리나라는 16.5명으로 선진국(일본 9.6명, 미국 15.6명, 프랑스 13.0명, 독일 9.8명 등) 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다.

○ 인구 천명당 사망률은 94년 5.5명으로 선진국(일본 7.1명, 미국 8.8명, 프랑스 9.1명, 영국 10.9명 등)보다 다소 낮은 편이다. 이는 우리나라 노령인구비율이 선진국보다 훨씬 적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의 인구 천명당 자연인구증가율(출생률-사망률)은 94년 11.0명으로써 10명미만의 대부분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 마이너스 자연증가율을 하는 국가들로는 독일(-1.2), 불가리아(-3.0), 에스토니아(-4.0), 헝가리(-3.1), 이탈리아(-0.1), 라트비아(-1.5), 루마니아(-0.7), 러시아(-1.5), 우크라이나(-3.5)등의 국가들로서 유럽 및 구소련에 해당되는 국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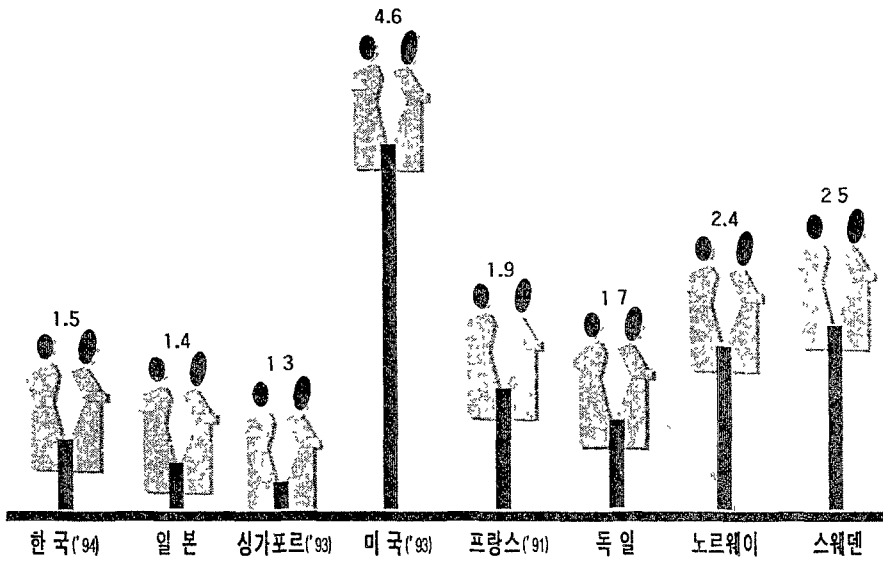
혼인율은 선진국보다 높고, 이혼율은 낮아

○ 인구천명당 혼인율은 94년 8.5명으로 선진국(일본 6.4명, 프랑스 4.7명, 독일 5.4명 등)보다 다소 높은 편이며, 이는 젊은 연령계층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인구천명당 이혼율은 94년 1.5명으로 일본(1.4명), 대만(1.5명)과는 유사하며, 미국(4.6명), 캐나다(2.9명), 영국(3.0명) 등의 서구선진국 보다는 훨씬 낮은 편이다.

이혼율(1992년)

(인구1,000명당 이혼건수)



<표> 인구동태율

(단위 . 인구천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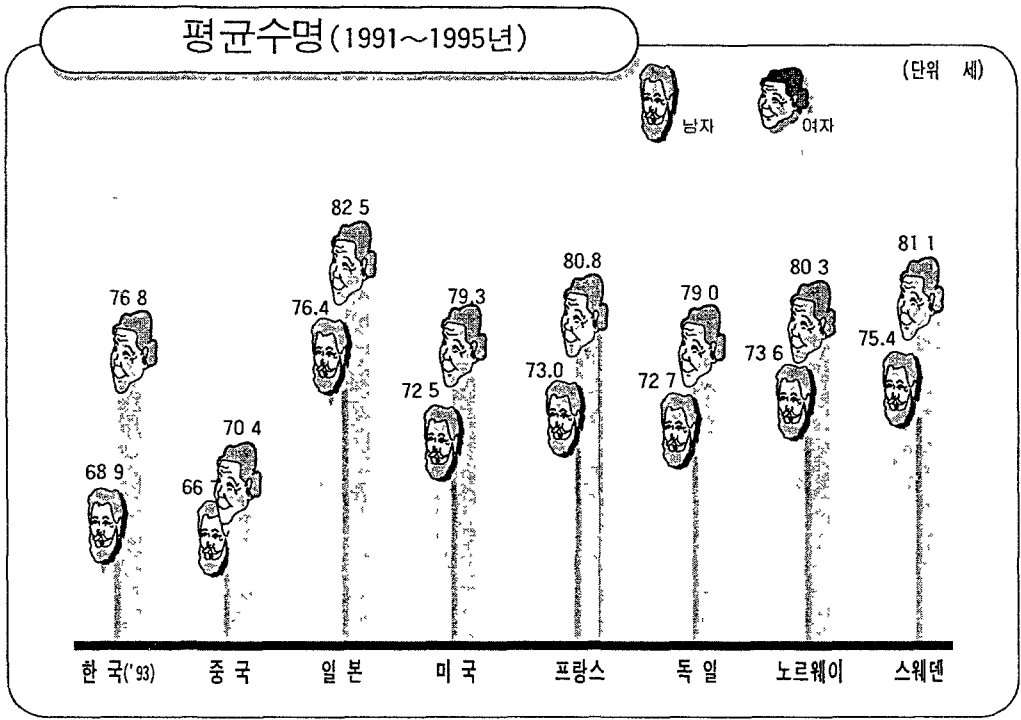
	연도			연도	연도		연도	
	출생률	사망률	자연증가율		혼인율	이혼율		
한국	94	16.5	5.5	11.0	94	8.5	94	1.5
일본	93	9.6	7.1	2.5	93	6.4	92	1.4
캐나다	91	14.6	7.0	7.7	90	7.1	90	2.9
미국	93	15.6	8.8	6.9	93	9.0	93	4.6
오스트리아	93	11.8	10.2	1.6	93	5.6	92	2.1
프랑스	92	13.0	9.1	3.8	92	4.7	91	1.9
독일	93	9.8	11.0	-1.2	93	5.4	92	1.7
이탈리아	93	9.4	9.5	-0.1	93	4.8	93	0.4
영국	92	13.5	10.9	2.5	91	6.1	91	3.0

평균수명은 선진국에 비해 약 5세정도 낮아

○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93년 현재 남자 68.9세, 여자 76.8세로 평균 72.8세로 나타나서 세계 평균수치인 남자 62.4세, 여자 66.5세, 평균 64.4세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선진국의 평균수명은 대부분 70대 후반에 있으며, 우리나라보다 약5세가량 높다.

○ 남녀간의 평균수명 차이는 우리나라가 7.9세로 프랑스(7.8세)와 거의 유사하며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표〉 평균수명(1991~1995)

(단위 : 세)

국 가	계	남 자	여 자
세 계	64.4	62.4	66.5
한 국 ¹⁾	72.8	68.9	76.8
중 국	68.5	66.7	70.4
일 본	79.5	76.4	82.5
미 국	76.0	72.5	79.3
오스트리아	76.2	73.0	79.2
프 랑 스	76.9	73.0	80.8
독 일	76.0	72.7	79.0
영 국	76.2	73.6	78.7

주 1) 93년 잠정자료

한국 재외동포 및 체류자 : 중국 1위, 미국 2위

- 한국 재외동포 및 체류자를 국가별로 보면, 95년 현재 중국이 194만명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미국(180만명), 일본(70만명), 우즈베키스탄(22만명), 러시아(11만명), 카자흐스탄(10만명), 캐나다(7만명), 브라질(4만명)순이다.

〈표〉 한국 재외동포 및 체류자(1995년말 기준)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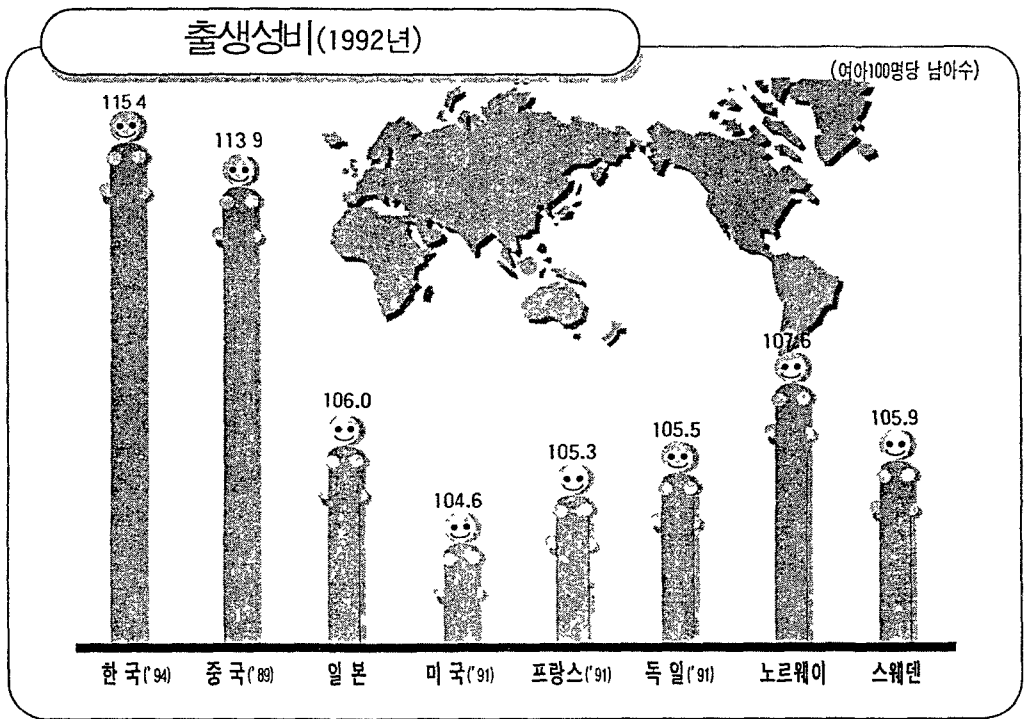
중 국	미 국	일 본	우즈베키스탄
1,940,398	1,801,684	696,811	220,336
러 시 아	카자흐스탄	캐 나 다	브 라 질
108,325	103,525	73,032	38,131

- 94년말 제한등록외국인수는 대만이 23,259명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중국(11,264명), 미국(19,611명), 일본(8,436명) 순이다.

- 94년동안 정규입국외국인수(상륙허가자 제외)는 총 2,775,473명으로 이중 일본이 1,625,453명으로 최다입국 나라이며, 이어서 미국(355,514명), 홍콩(114,457명), 대만(162,047명) 순이다.

출생아 성비는 115.4로 세계 최고

- 여아 출생아 100명에 대한 남아 출생아 비율인 출생성비는 우리나라가 115.4로 세계 최상위권이며 이어 중국(113.9)이 뒤따르고 있다. 이는 동양사회에서의 높은 남아 선호사상의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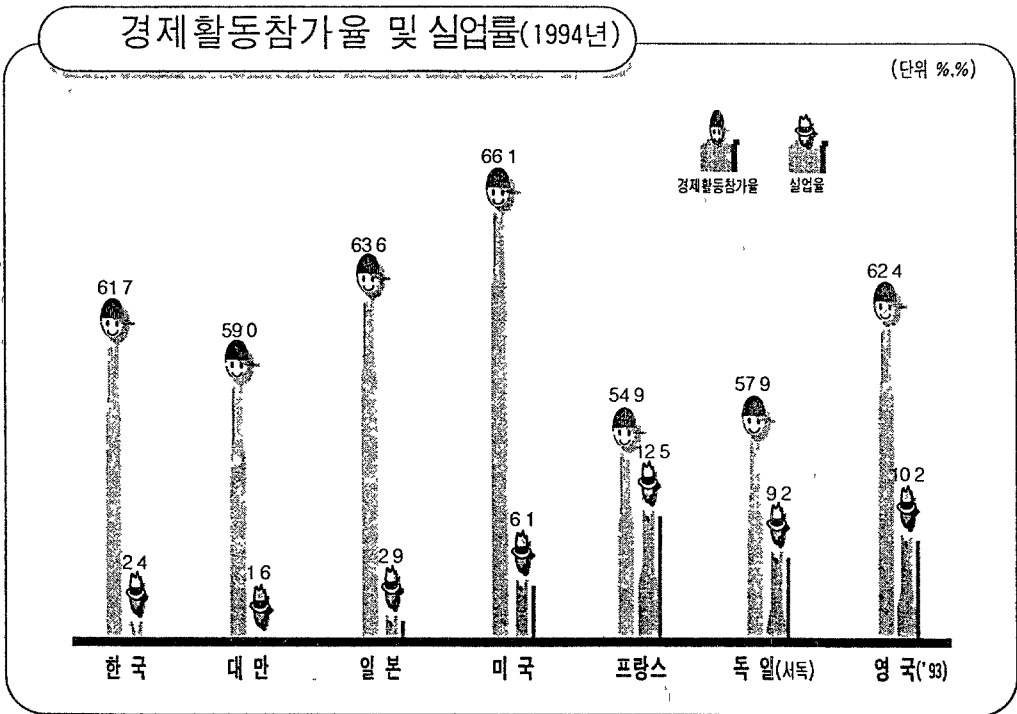
3. 노동·임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선진국보다 낮아

○ 우리나라 경제활동 참가율은 94년 현재 61.7%로 일본(63.8%, 93년), 미국(66.1%), 캐나다(65.3%), 스웨덴(77.6%), 영국(62.4%, 93년)보다는 낮으나 프랑스(54.9%), 독일(57.9%), 대만(59.0%)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남자의 경우는 76.4%로 일본(78%), 미국(74.7%), 캐나다(73.3%), 스웨덴(79.4%), 영국(72.7%) 등 선진국가와 함께 높은 수준에 있다.

— 여자의 경우는 대만(45.4%), 프랑스(47.6%), 서독(46.3%)과 같은수준인 47.9%로 일본(50.3%), 미국(58.2%), 캐나다(57.6%), 스웨덴(75.8%), 영국(52.8%) 등 선진국가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성의 사회참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표〉 경제 활동 참가율(1994)

(단위 %)

국 가	합 계	성 별	
		남 자	여 자
한 국 ¹	61.7	76.4	47.9
일 본 ²	63.8	78.0	50.3
대 만	59.0	72.4	45.4
미 국	66.1	74.7	58.2
캐 나 다	65.3	73.3	57.6
프 랑 스	54.9	62.8	47.6
스 웨 덴	77.6	79.4	75.8
영 국 ²	62.4	72.7	52.8
독일(서독)	57.9	70.5	46.3

주 : 1) 1995년 자료 계 62.0%, 남 76.5%, 여 48.3%
 2) 1993년 자료

전문직 종사자 비율 아직 선진국 수준에 못미쳐

- **직업별 취업구조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93년 현재 전문 기술, 행정관리직에 10.3%가 종사하고 있으며, 선진국인 일본(15.7%), 캐나다(32.5%), 미국(30.6%), 핀란드(37.3%), 독일(20.3%), 오스트레일리아(24.9%) 등의 국가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판매직(15.9%)과 생산관리직(31.9%), 농림수산업(14.6%)은 선진국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다.**
 - 판매직의 경우, 일본 14.7%, 캐나다 9.8%, 미국 12.0%, 독일 9.1%를 나타내고 있으며, 생산관리직의 경우 캐나다 23.8%, 미국 25.5%, 핀란드 7.8%를 기록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경우 일본 5.9%, 캐나다 4.5%, 미국 2.9%, 핀란드 5.7%를 나타내고 있다.

<표> 직업별 취업구조

(단위 : %)

국 가	연 도	전문기술 행정관리	사무직	판매직	농림수산 업 종사자	생산 관리직	서비스직 및 기타
한 국 ²	93	10.3	15.0	15.9	14.6	31.9	12.3
일 본	93	15.7	19.0	14.7	5.9	35.2	9.5
캐나다	93	32.5	15.7	9.8	4.5	23.8	13.8
미 국	94	30.6	15.1	12.0	2.9	25.5	13.7
핀란드	94	37.3	22.4	11.2	5.7	7.8	15.6
독 일 ¹	91	20.3	20.9	9.1	3.6	31.9	14.2
오스트레일리아	93	24.9	6.0	14.8	15.6	21.7	16.5

주 : 1) 서독 자료

2) 한국의 신직업분류(단위 %)

연도	입법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직원 및 장판매근로자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 장판매근로자	농업 및 어업속련 근로자	기능원,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 근로자
1993	2.7	12.3	12.5	20.9	13.2	27.3	11.0
1994	2.7	12.8	12.3	21.6	12.8	26.6	11.2
1995	2.6	13.8	12.3	21.9	11.7	26.5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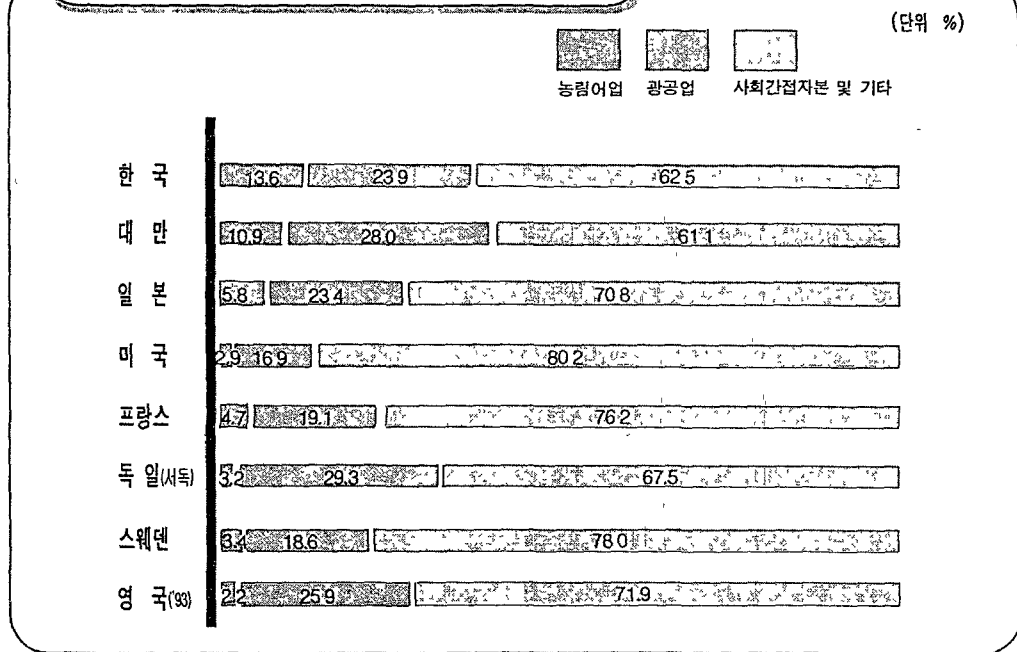
농림어업 종사자 비율 선진국의 2~5배 정도

○ 94년 현재 우리나라 산업별취업자 구성비는 농림어업 종사자가 13.6% 로써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들의 2~6%수준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 제조업 취업자는 23.6%로 미국(16.4%), 캐나다(14.5%), 스웨덴(18.3%), 프랑스(18.8%) 등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며, 독일(28.7%), 일본(23.3%) 등 국가에 비해서는 낮은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부문의 취업자는 62.5%로 미국, 일본, 캐나다, 스웨덴 등 선진국들의 70~80%대 수준 보다는 낮은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에 있어 앞으로는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부문의 취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별 취업자 구성(1994년)



〈표〉 산업별 취업자 구성 (199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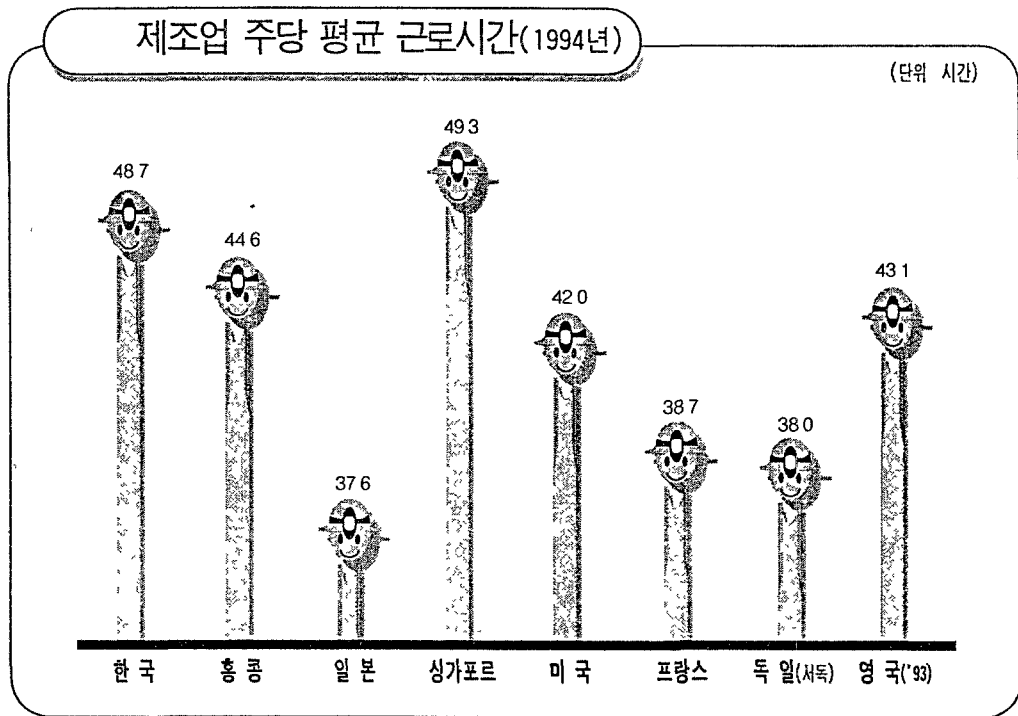
(단위 : %)

국 가	농림어업	광공업(제조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한국 ¹	13.6	23.9 (23.6)	62.5
일본	5.8	23.4 (23.3)	70.8
대만	10.9	28.0 (27.8)	61.1
미국	2.9	16.9 (16.4)	80.2
캐나다 ²	4.4	15.7 (14.5)	79.9
스웨덴	3.4	18.6 (18.3)	78.0
독일 ³	3.2	29.3 (28.7)	67.5
프랑스	4.7	19.1 (18.8)	76.2

주 1) 1995년 자료 농림어업 : 12.5%, 광공업(제조업) : 23.6%(23.4%),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 63.9%
 2) 1993년 자료
 3) 서독자료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진국보다 높아

- 우리나라 제조업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경제발전과 노사 활동에 영향을 입어 85년 53.8시간, 90년 49.8시간에서 94년에는 48.7시간으로 계속 감소하였다.
- 선진국의 경우 94년 현재 일본 37.6시간, 미국 42.0시간, 멕시코 44.8시간, 핀란드 38.2시간, 프랑스 38.7시간, 스웨덴 37.8시간으로 우리나라 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평균임금증가율 선진국의 2~15배 정도

- 85~94년간 우리나라 제조업 평균 임금증가율은 16%로써 대만(10.3%)과 함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반면, 선진국(일본*2.7%, 캐나다* 4.1%, 미국 2.6%, 프랑스* 3.7%, 독일(서독) 4.7%, 스웨덴* 6.7%, 영국* 6.9%)은 2~6%대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주 * : 85~93년 자료 이용]

94년 파업건수는 87년의 3.2%

- 우리나라 파업건수는 87년에 3749건이었으나 현저히 감소하여 94년에는 121건이 되었으며, 148만 4천일의 작업손실 일수를 나타내었다.

- 프랑스(1351건, 93년), 일본(263건, 92년), 대만(2021건), 캐나다(379건)등은 우리나라보다 많은 파업 건수를 나타낸 반면, 미국(35건, 93년), 노르웨이(20건), 스웨덴(13건)등은 낮은 파업 건수를 기록하였다.
- 일본(23만일), 대만(136만일), 프랑스(51만일), 독일(59만일)등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작업손실일수를 기록한 반면, 캐나다(162만일), 미국(398만일)등은 높은 작업손실일수를 나타냈다.
- 미국의 경우 낮은 수치의 파업건수와 높은 작업손실일수를 기록한 것으로 보아 각 파업당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거나 또는 장기간 파업이 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일본의 경우, 미국과 반대의 현상을 나타내는것으로써 소규모의 파업이 많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4. 농림어업

우리나라 농가인구비율 선진국의 2~5배 정도

- 지난 10년간의 세계국가의 전체인구중 농가인구 비율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85년 농가인구 비율이 20.9%이었던 것이 94년에는 11.6%로 감소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 선진국이 2~5%대 인것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 대만은 94년 18.8%의 농가인구비율을 나타내 우리나라보다도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표> 농가인구

(단위 : %)

	총인구대비 농가인구비율	
	1985	1994
한국	20.9	11.6
일본	8.1	4.9
대만	21.5	18.8
미국	3.2	2.2
캐나다	4.3	2.7
프랑스	6.3	4.0
독일	5.0	3.5
영국	2.3	1.8
이탈리아	7.9	4.9

- 1979~1981년을 기준으로(=100) 각 연도의 농업생산량과 생산자물가지수를 가중치로 하여 종자와 사료를 제외한 가처분생산량에 대한 비교를 나타내는 지수인 FA0농업생산지수에 따르면 94년 현재 우리나라는 114.1, 미국은 120.5, 오스트리아 112.9, 영국 102.7을 나타내고 있어 세계 평균 129.4에는 미달하고 있다.

— 대부분 선진국들은 80년대에는 증가분이 많이 있었으나 점차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 스웨덴의 경우는 각각 99.7, 89.2를 나타내고 있어서 오히려 79~81년도에 비해 그 증가분은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표> FAO 농업생산지수(1994년)

(1979~81=100.0)

국	가	농업생산지수	국	가	농업생산지수
세	계	129.4	오	스트리아	112.9
한	국	114.1	프	랑스	101.4
일	본	99.7	독	일	105.0
캐	나다	128.1	스	웨덴	89.2
미	국	120.5	영	국	1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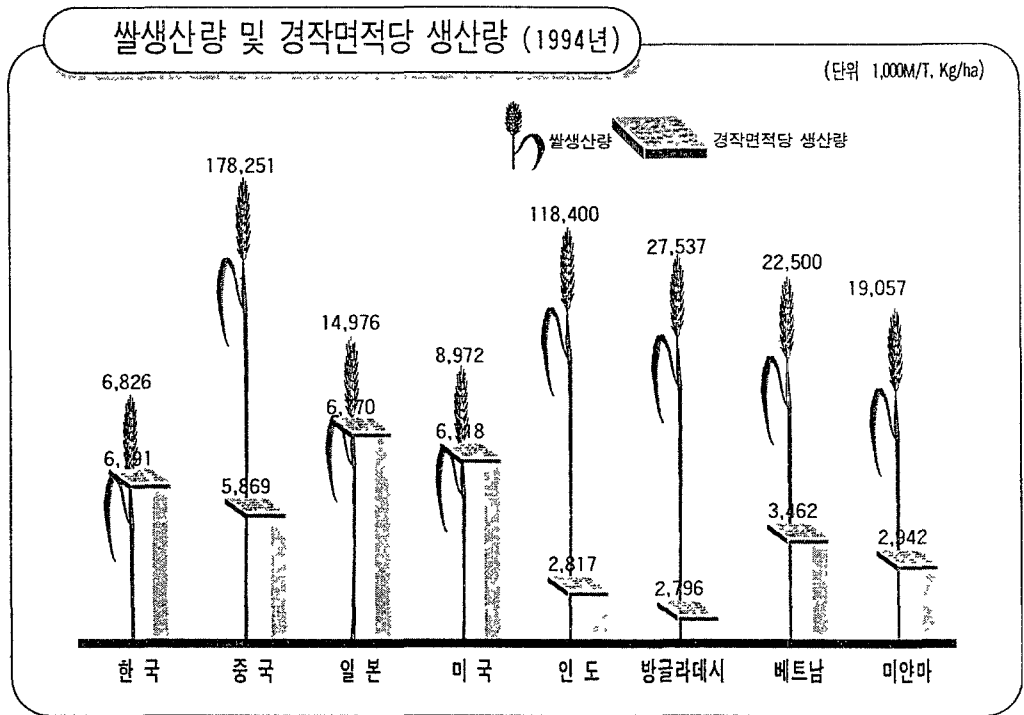
○ 주요농업생산물인 쌀, 보리, 밀, 감자, 고구마의 1헥타아르(ha)당 생산량을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보리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일본은 쌀, 밀, 고구마에서 최고의 생산을 나타내고 있고 미국이 감자생산에서 최고를 기록하였다.

<표> 경작면적당 농업생산물(1994)

(단위 . kg/ha)

	쌀	보리	밀	감자	고구마
세 계	3,651	2,188	2,445	14,591	13,256
한 국	6,191	3,816	3,704	22,491	16,864
일 본	6,770	3,608	3,718	30,357	24,639
중 국	5,869	2,286	3,318	12,505	16,154
미 국	6,718	3,026	2,526	37,394	18,145

- 쌀의 경우,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 그리스(8,000kg), 오스트레일리아(8,336kg) 보다는 적은 단위생산량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보다는 높은 생산을 하고 있다.
- 밀의 경우, 빵을 주식으로 하는 국가에서 높은 생산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스트리아 5,250kg, 덴마크 6,496kg, 프랑스 6,676kg, 독일 6,706kg, 네덜란드 8,067kg, 영국 7,178kg을 나타내고 있다.



○ 소에 대한 돼지사육의 백분율은 우리나라가 202%, 일본 213% 를 나타내어 소에 비해 돼지가 약 2배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초목지가 많은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는 소가 돼지보다 훨씬 많아서 각각 57%, 11%, 5%를 나타내었다.

○ 닭사육량을 보면 94년 현재 우리나라 8,100만마리로서 일본(3억 2,400만마리)의 25%, 미국(15억 3천만마리)의 5% 수준이다.

<표> 농업생산물 (소, 돼지, 닭 : 1994)

(단위 : 1,000마리, %, 100만마리)

	소	돼지	비율 ¹	닭
한국	2,945	5,955	202	81
일본	4,989	10,621	213	324
미국	100,988	57,904	57	1,530
오스트레일리아	24,732	2,740	11	65
뉴질랜드	8,550	430	5	10

주 · 1) 소에 대한 돼지사육의 비율

○ 쇠고기와 돼지고기 생산량을 보면,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같은 초목지가 많은 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돼지고기의 생산량이 쇠고기의 생산량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는 돼지고기가 쇠고기의 약 3배, 일본은 2.3배, 프랑스 1.3배, 독일은 2.3배, 영국 1.2배를 생산하고 있다.

<표> 쇠고기, 돼지고기 생산량(1994)

(단위 : 1,000톤)

	쇠 고 기	돼 지 고 기
한 국	210	621
일 본	605	1,400
캐 나 다	930	1,205
미 국	11,199	8,027
프 랑 스	1,667	2,116
독 일	1,550	3,550
영 국	877	1,032
오스트레일리아	1,825	344
뉴질랜드	565	48

우리나라 : 세계 7위 수준의 비료 다소비국

○ 1헥타아르(ha)당 총비료소비량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473.9kg을 나타내어 선진국(일본 395.1kg, 미국 101.1kg, 프랑스 235.4kg, 독일 238.7kg, 영국 320.7kg 등)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세계 7위 수준의 비료 다소비국가이다.

수산물 어획량 세계 10위

- 수산물 어획량은 93년 현재 우리나라는 333만 5,500톤으로 세계 어획량의 3.3% 세계 10위에 해당하며, 일본은 우리의 2.4 배가 되는 812만 8,100톤의 어획량으로 세계 3위 세계 어획량의 8%에 해당한다.

<표> 수산물 어획량(1993)

(단위 1,000톤, %)

국	가	순 위	어 획 량	비 율
세	계		101,417.5	100.0
중	국	1	17,567.9	17.3
페	루	2	8,450.6	8.3
일	본	3	8,128.1	8.0
칠	레	4	6,038.0	6.0
미	국	5	5,939.3	5.9
러	시 아	6	4,461.4	4.4
인	도	7	4,324.2	4.3
인도네시아		8	3,637.7	3.6
타	이	9	3,348.1	3.3
한	국	10	3,335.5	3.3

5. 광공업

○ 주요광물 다 생산국을 보면, 92년 현재

- 금의 경우, 남아프리카공화국(614,100kg)이 세계 1위로써 세계 생산의 3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미국(329,124kg)이 뒤따르고 있다.
- 은의 경우, 멕시코(2,317M/T)는 세계생산의 18.3%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하고, 이어서 미국(1,804M/T)이 뒤따르고 있다.
- 동광의 경우, 칠레(1,966.9천M/T)는 세계생산의 23.4%를 차지하여 1위를 기록하고, 이어서 미국(1,765.1천M/T)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 아연의 경우, 일본(729.5천M/T)이 세계생산의 11.6%를 차지하여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어서 중국(718.9천M/T)이 2위를 기록 하고 있다.
- 다이아몬드의 경우, 오스트레일리아(2,100만캐럿)는 세계생산의 44.6%를 차지하여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어서 자이르(1,200만캐럿)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담배 : 세계 1.9% 생산, 맥주 : 세계 1.4% 생산

○ 담배생산량은 92년 현재, 중국(1조 6,500억개비)이 세계전체의 33%를, 미국(7,031억개비)이 14%를 기록하여 두나라가 세계 전체 생산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966억개비 담배를 생산하여 전체의 1.9%를 생산하고 있다.

○ 맥주생산량은 92년 현재, 미국(237억 ℓ), 독일(114억 ℓ), 중국(102억 ℓ)이 세계 전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16억 ℓ를 생산하여 세계생산량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시멘트 생산 : 6위, 타이어 생산 : 6위

○ 시멘트생산량은 UN 산업상품연보에 의하면 92년 현재, 중국(308.2백만톤)이 세계 총생산의 25.9%로 최다생산국이며, 두 번째인 일본(88.3백만톤)의 3.5배이다.

— 우리나라(44.4백만톤)는 세계의 3.7%를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 6위 수준이다.

○ 타이어 생산량은 우리나라가 3,812만개를 생산하여 세계생산의 4.5%에 해당하며 세계 6위 수준이며, 다생산국으로는 미국(27.2%), 일본(18.3%), 프랑스(7.1%), 중국(6.1%), 독일(5.7%)이다.

<표> 시멘트 및 타이어 생산량(1992)

(단위 : 1,000M/T, 1,000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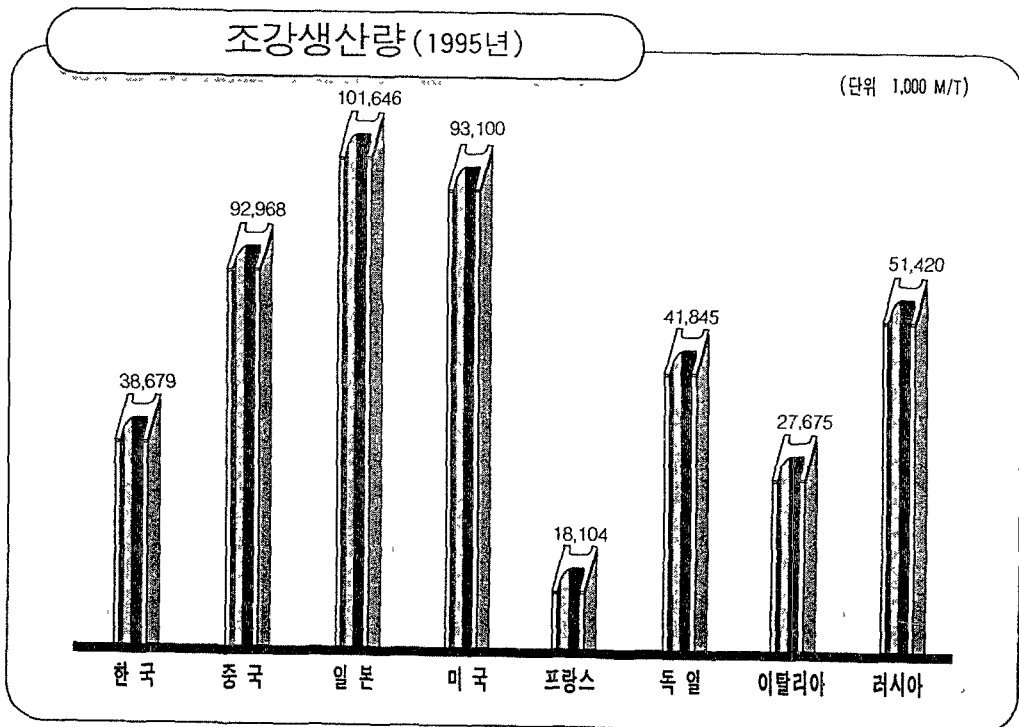
		시멘트	타이어
세계		1,189,177	847,943
한국		44,444(6)	38,120(6)
중국		308,217(1)	51,834(4)
일본		88,252(2)	154,900(2)
미국		70,848(4)	230,250(1)
독일 ¹		30,456(8)	48,247(5)
프랑스		21,584(13)	59,928(3)
러시아 ²		77,463(3)	33,522(7)

주 · 1) 서독자료 : 1990년

2) 1991년 자료

조강 생산량 6위

- 우리나라 조강생산량은 86년 1,456만톤, 90년 2,313만톤, 93년 3,303만톤, 95년 3,868만톤을 생산하여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95년 현재 세계 6위 수준의 생산국이다.
- 1위 조강생산국인 일본은 세계생산(74,802만톤)의 13.6%, 미국은 12.4%, 중국은 12.4%를 생산하여, 다생산 3개국에서 세계 총생산의 38.4%를 생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생산의 5%를 생산하고 있다.



철강재 수출 : 8위 철강재 수입 : 10위

○ 우리나라 철강재 수출은 93년 현재 1,104.3만톤으로 세계 8위 수준이다. 일본은 2,350.6만톤으로 우리나라의 약 2배를 수출하고 있으며, 세계 1위 수출국이다. 이어서 독일(1,812.4만톤), 러시아(1,659.9만톤), 벨기에-룩셈부르크(1,384.5만톤), 브라질(1,223.7만톤)순이다.

○ 철강재 수입은 93년 현재 중국(3,664만톤)이 세계수입의 16.8%를 차지하여 세계 1위 수입국이다. 미국(1,782.4만톤)은 중국의 절반 정도를 수입하고 있으며 2위이다. 우리나라는 531.8만톤을 수입하여 세계 10위 수준이다.

— 미국의 경우, 조강생산 2위, 철강재수입 2위, 철강재수출 16위를 기록한 것으로 보아 국내소비가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다.

<표> 조강생산(1995) 및 철강재 수출·입(1993)

(단위 : 1,000 M/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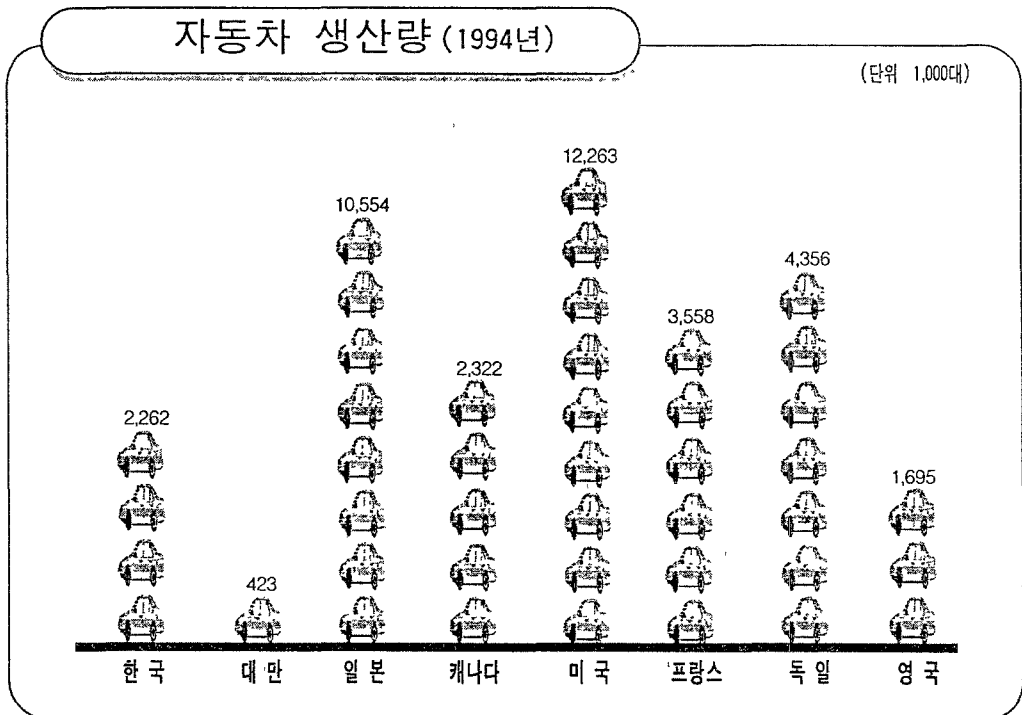
국 가	조 강 생 산	철 강 재 수 출	철 강 재 수 입
한 국 ¹	38,679(6)	11,043 (8)	5,318 (10)
일 본	101,646(1)	23,506 (1)	6,111 (9)
중 국	92,968(3)	1,257 (28)	36,640 (1)
캐 나 다	14,403(13)	4,965 (14)	3,746 (17)
미 국	93,100(2)	3,689 (16)	17,824 (2)
프 랑 스	18,104(11)	11,561 (7)	8,533 (5)
독 일	41,845(5)	18,124 (2)	13,584 (4)
이탈리아	27,675(7)	11,890 (6)	8,165 (7)
영 국	17,910(12)	8,203 (10)	4,917 (12)

주 : 1) 철강재 수출 94년 9,664(천톤), 95년 9,351(천톤)
 철강재 수입 94년 8,383(천톤), 95년 10,716(천톤)

○ 우리나라 자동차 총생산량은 85년(378천대)에 세계 16위, 90년(1,322천대) 세계 10위, 94년(2,262천대) 현재는 85년의 6.0배, 90년의 1.7배를 더 많이 생산하여 세계 6위이다.

— 승용차생산은 1,758천대를 생산하여 세계 6위이며, 버스, 트럭, 특장차 등의 상용차 생산은 504천대를 기록하여 세계 5위이다.

○ 자동차 다생산국으로는 미국(12,263천대)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어 일본(10,554천대), 독일(4,356천대), 프랑스(3,558천대), 캐나다(2,322천대) 순이다.



<표> 자동차 생산량(1994)

(단위 : 1,000대)

국 가	계(순위)	승용차(순위)	상용차(순위)
한 국 ¹	2,262(6)	1,758(6)	504(5)
일 본	10,554(2)	7,801(1)	2,753(2)
캐 나 다	2,322(5)	1,216(10)	1,106(3)
미 국	12,263(1)	6,614(2)	5,649(1)
프 랑 스	3,558(4)	3,175(4)	383(6)
독 일	4,356(3)	4,094(3)	262(12)
스 페 인	2,142(7)	1,822(5)	321(9)
영 국	1,695(8)	1,467(7)	228(15)
브 라 질	1,583(9)	1,249(9)	334(7)
이탈리아	1,534(10)	1,341(8)	194(16)

주 1) 1995년 계 2,526(천대) 승용차 2,003(천대) 상용차 523(천대)

자동차 수출 : 세계 8위

- 자동차(신차기준)수출실적을 보면, 우리나라는 94년 현재 737,943대를 수출하여 세계 8위 수준이며, 그 중 승용차와 상용차 수출은 각각 648,385대 및 89,558대를 기록하여 각각 세계 8위, 9위를 차지하였다.
- 일본은 자동차 총생산에서는 세계 2위였지만, 수출에서는 94년 현재 4,460,292대를 기록하여 세계 1위 수출국이다.

<표> 자동차 수출실적(1994)

(단위 : 대)

국 가	계(순위)	승용차(순위)	상용차(순위)
한 국 ¹	737,943(8)	648,385(8)	89,558(9)
일 본	4,460,292(1)	3,360,668(1)	1,099,624(1)
캐 나 다 ²	1,840,554(4)	1,221,500(5)	619,054(2)
미 국 ²	1,045,349(7)	864,238(7)	181,111(5)
프 랑 스	2,157,446(3)	1,975,436(3)	182,010(4)
독 일	2,410,297(2)	2,269,895(2)	140,402(6)
스 웨 덴	346,124(12)	267,169(12)	78,955(11)
이탈리아	669,568(9)	541,527(10)	128,041(7)
영 국 ²	632,973(10)	561,351(9)	71,622(12)

주 1) 1995년 자료 · 계 978,571(대), 승용차 856,368(대), 상용차 122,203(대)

2) 1993년 자료

자동차 수입 : 미국·캐나다 48.2%, 독일 16%, 일본 11%

○ 각국에서 수입한 자동차의 내역을 주요 9개국으로 한정하여 살펴 보면,

- 우리나라의 경우 캐나다·미국에서 총수입의 절반에 가까운 48.2%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어서 독일(16%), 일본(11%) 순이다.
- 일본의 경우, 독일로부터 약 50%를 수입하고 있으며,
- 캐나다, 미국의 경우 일본으로부터 각각 78.2%, 80%를 수입하고 있다.
-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은 독일로부터 50%에 가까운 비율을 수입하고 있으며, 영국은 프랑스로부터 41.1%를 수입하고 있어서 유럽국가 상호간에 자동차무역이 활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자동차 수출입(1993)

(단위 : 대, %)

수입국	수출국					
	계 ¹	한국	일본	캐나다·미국	프랑스	독일
한국	2,064	-	11.0	48.2	1.9	16.0
일본	189,651	0.1	-	28.5	3.1	49.8
대만	166,879	19.1	11.8	39.5	6.6	17.5
캐나다	223,607	13.1	78.2	-	0.6	4.8
미국	2,022,684	5.5	80.0	-	0.2	8.6
프랑스	563,168	1.5	11.2	0.9	-	45.5
독일	982,026	4.6	39.6	2.7	34.6	-
이탈리아	651,348	1.2	4.7	0.2	30.2	48.2
스웨덴	63,704	1.7	28.2	1.8	14.9	48.2
영국	855,144	2.0	19.0	0.8	41.1	28.5

주· 1) 한국, 일본, 캐나다·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으로부터 수입한 합계를 나타냄

선박 건조량, 수주량 : 모두 세계 2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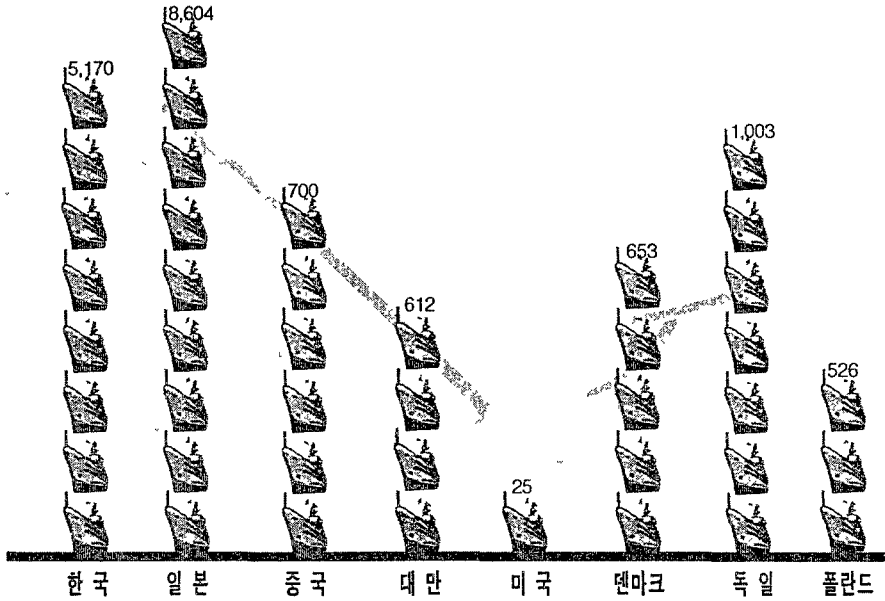
○ **선박건조량**은 94년 현재 일본과 우리나라가 각각 8,604천G/T(597척), 5,170천G/T(115척)의 건조량을 나타내어 세계 총선박건조량의 각각 45.4%, 27.3%를 차지하여 세계 1, 2위를 나타내고 있다.

○ **선박수주량**은 우리나라가 93년에 9,507천G/T으로 일본(7,534천G/T)을 누르고 1위를 기록하였으나, 94년 현재는 6,371천G/T(166척)으로 떨어지면서 세계 총 선박수주량의 2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11,940천G/T(613척))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였다.

— 우리나라는 선박수주량이나 건조량에서 일본 다음으로 많은 생산국이지만 일본의 거의 절반밖에 되지않는 양이다.

선박건조량(1994년)

(단위 1,000G/T)



<표> 선박 건조량 및 수주량(1994)

(단위 · 1,000G/T)

국 가	선박건조(순위)	선박수주(순위)
세 계	18,966	26,140
한 국	5,170(2)	6,371(2)
일 본	8,604(1)	11,940(1)
중 국	700(4)	781(5)
덴 마 크	653(5)	460(7)
대 만	612(6)	975(4)
독 일	1,003(3)	1,076(3)
네덜란드	188(14)	246(10)

전자제품 생산액 : 3위

○ 전자제품 최대 생산국으로는 95년 현재 미국(2,495.1억 달러)과 일본(2,180.4억달러)이며 세계 총생산의 56.6%를 차지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637억달러로 세계 3위이며 2위인 일본의 29.2%를 나타내고 있다.

○ 전자제품 생산이 미국과 일본에 편중되어 있는 반면, 수출과 수입은 여러국가에 분포되어 있는 상황이다.

— 수출의 경우, 일본(966.9억달러), 미국(705.5억달러), 독일(355.2억달러), 싱가포르(330.6억달러), 한국(309.5억달러), 홍콩(308.8억달러)이 다수출국에 속하며,

— 수입의 경우, 미국(996.8억달러)이 1위이며, 이어서 독일(423.1억달러), 영국(342.8억달러), 홍콩(288.3억달러), 프랑스(244.7억달러)순이다. 우리나라는 186.6억달러를 기록하여 세계 9위이다.

—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우, 국내생산은 높지 않으나 수입하여 수출하는 재수출이 많아 높은 수입과 수출액을 보여 주고 있다.

〈표〉 전자제품 생산, 수출, 수입

(단위 100만달러(순위))

국 가	생산(1995) ¹	수출(1994)	수입(1994)
한 국 ²	63,704 (3)	30,948 (5)	18,659 (9)
홍 콩	9,198 (13)	30,882 ³ (6)	28,834 ³ (4)
일 본	218,044 (2)	96,694 ³ (1)	21,532 ³ (7)
말레이시아	22,862 (8)	17,619 ³ (11)	8,573 ³ (13)
싱 가 포 르	27,651 (7)	33,057 ³ (4)	21,654 ³ (6)
대 만	22,631 (9)	17,924 ³ (10)	8,878 ³ (12)
미 국	249,510 (1)	70,551 ³ (2)	99,683 ³ (1)
프 랑 스	30,270 (6)	19,795 (8)	24,468 (5)
독 일	45,808 (4)	35,516 (3)	42,306 (2)
이탈리아	20,168 (10)	9,943 (13)	15,237 (11)
영 국	32,904 (5)	29,122 (7)	34,275 (3)

주 . 수출은 재수출도 포함. 특히 홍콩과 싱가포르의 재수출이 많음

1) 자료 예상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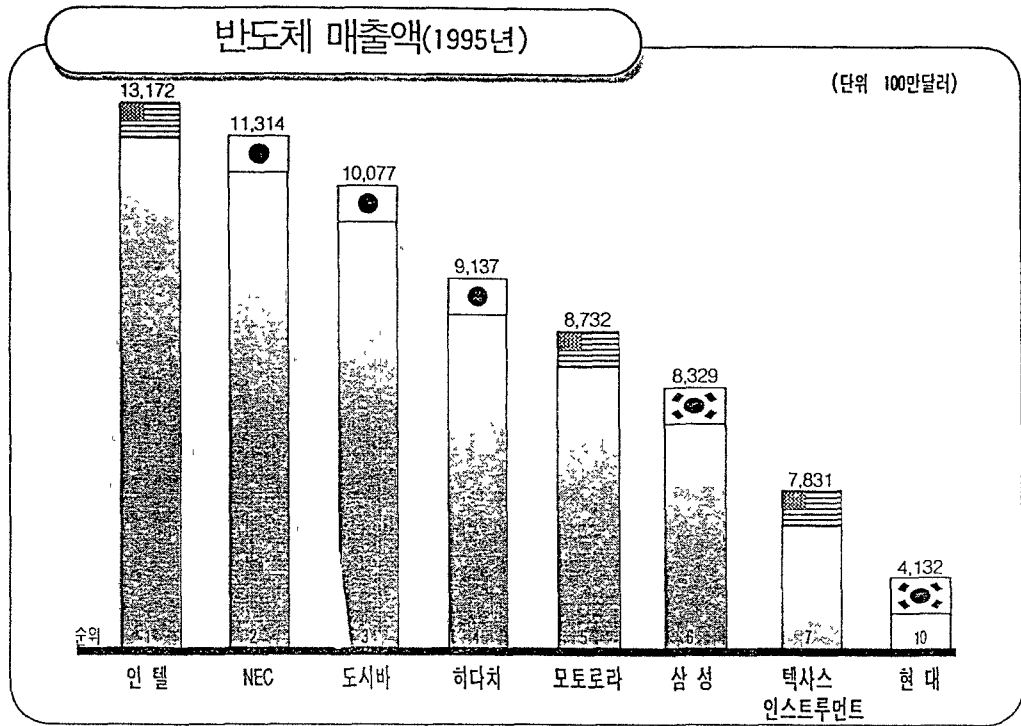
2) 95년자료 수출 43,592, 수입 25,072(백만 달러)

3) 1993년 자료

반도체 매출액 : 삼성 6위, 현대 10위, LG반도체 16위

○ 세계 각 업체별 반도체 매출액을 보면 95년 현재 인텔 (미국)이 131.7억달러로 세계 총매출액의 8.7%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 삼성은 83.3억 달러를 매출하여 세계 6위이며 세계매출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대와 LG반도체는 각각 41.3억달러, 28.6억달러로 세계 10위, 16위이다. 특히 현대는 전년비 증가율이 171.7%를 나타내어 반도체 매출업체별 중에서는 최고의 증가율을 보였다.



<표> 세계반도체 매출액(업체별)(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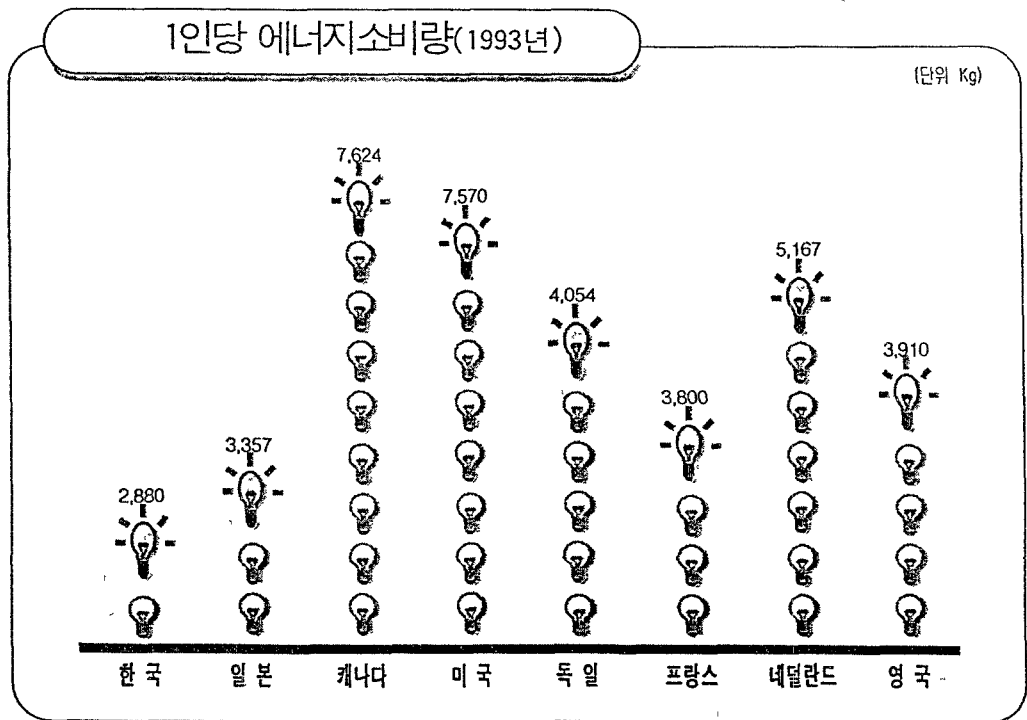
(단위 · 100만달러)

업체	순위	매출액	전년비 증가율
세계		151,272	36.9
인텔	1	13,172	30.4
NEC	2	11,314	42.1
도시바	3	10,077	33.4
히다치	4	9,137	37.5
모토로라	5	8,732	20.6
삼성	6	8,329	72.4
텍사스인스트루먼트	7	7,831	41.1
현대	10	4,132	171.7
LG 반도체	16	2,863	68.7

6. 에너지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미국의 38%, 일본의 86%

- 93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1차에너지 소비량은 2,880kg으로 선진국인 일본(3,357kg), 캐나다(7,624kg), 미국(7,570kg), 프랑스(3,800kg), 독일(4,054kg)등 보다 훨씬 적은 소비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계 평균 1인당 소비량(1,396kg)보다는 많은 소비량을 나타내고 있다.
 - 우리나라는 미국의 38%, 일본의 86%에 해당하는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내고 있다.
- 우리나라는 세계 1차에너지 생산량의 0.3%, 소비량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 미국은 세계 1차 에너지 생산량과 소비량이 각각 19.4%, 25.2%를 기록하여 최고의 생산국이자 소비국임을 나타내고 있다.



<표> 1차 에너지 생산 및 소비 (1993)

(단위 : 1,000M/T, %, kg)

	생 산 량	구성비	소 비 량	구성비	1인당소비량
세 계	8,061,476	100.0	7,759,446	100.0	1,396
한 국	21,027	0.3	126,879	1.6	2,880
일 본	82,776	1.0	418,106	5.4	3,357
캐 나 다	315,147	3.9	219,690	2.8	7,624
미 국	1,565,563	19.4	1,952,578	25.2	7,570
프 랑 스	113,362	1.4	218,627	2.8	3,800
독 일	147,559	1.8	327,789	4.2	4,054
영 국	230,790	2.9	227,345	2.9	3,910
네덜란드	74,336	0.9	78,971	1.0	5,167
오스트레일리아	159,026	2.0	93,554	1.2	5,310

1인당 원유소비는 많은 편이나,
천연가스 소비는 선진국보다 훨씬 적어

○ 석탄, 원유, 천연가스의 1인당 소비량을 비교하면, 93년 현재 우리나라는 각각 963kg, 1,687kg, 5,438메가줄을 나타내고 있어서 석탄과 원유는 세계 평균 1인당 소비량(석탄 631kg, 원유 547kg, 천연가스 14,028메가줄)보다 각각 1.5배, 3배정도 많이 소비하고 있으나 천연가스는 약 1/3 정도 소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일본은 석탄과 원유에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1인당 소비량을 보여주고 있으나, 천연가스에서는 우리나라보다 3.3배나 많은 17,853 메가줄을 소비하고 있다.
-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석탄에서 2.9배(2,794kg), 원유에서 1.6배(2,630kg), 천연가스에서 약 16배(86,701메가줄) 많이 소비하고 있다.

〈표〉 석탄, 원유, 천연가스의 1인당 소비량(1993)

(단위 : kg, 메가줄(Megajoules))

국 가	석 탄	원 유	천 연 가 스
세 계	631	547	14,028
한 국 ¹	963	1,687	5,438
일 본	954	1,690	17,853
미 국	2,794	2,630	86,701
캐 나 다	550	2,405	100,078
영 국	1,503	1,442	46,304
프 랑 스	365	1,354	22,718
독 일	963	1,273	34,168
핀 란 드	1,187	1,549	23,651
이탈리아	263	1,425	34,147
스 웨 덴	389	2,056	3,752

주 : 1) 1994년 석탄·960kg, 원유·1,724kg, 가스·7,034메가줄

원유 수입량 세계 5위, 원유 정제능력 세계 10위

- 원유수입을 비교하면, 93년 현재 미국이 340.9백만톤으로 세계 1위이며, 이어서 일본(212.1백만톤), 독일(99.6백만톤), 이탈리아(77.2백만톤), 한국(76.6백만톤, 94년 78.4백만톤), 프랑스(74.7백만톤) 순이다. 즉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수준으로 1위인 미국의 22.5%이다.

○ 원유정제능력으로는 93년 현재 우리나라가 83.5백만톤으로 세계 전체 정제능력의 2.2%에 해당하며, 세계 10위 수준의 정제능력을 가지고 있다.

— 1위 정제능력을 가진 나라는 미국(757.3백만톤)으로써 2위인 러시아(301.1백만톤)의 2.5배, 3위인 일본(240백만톤)의 3.2배 정제능력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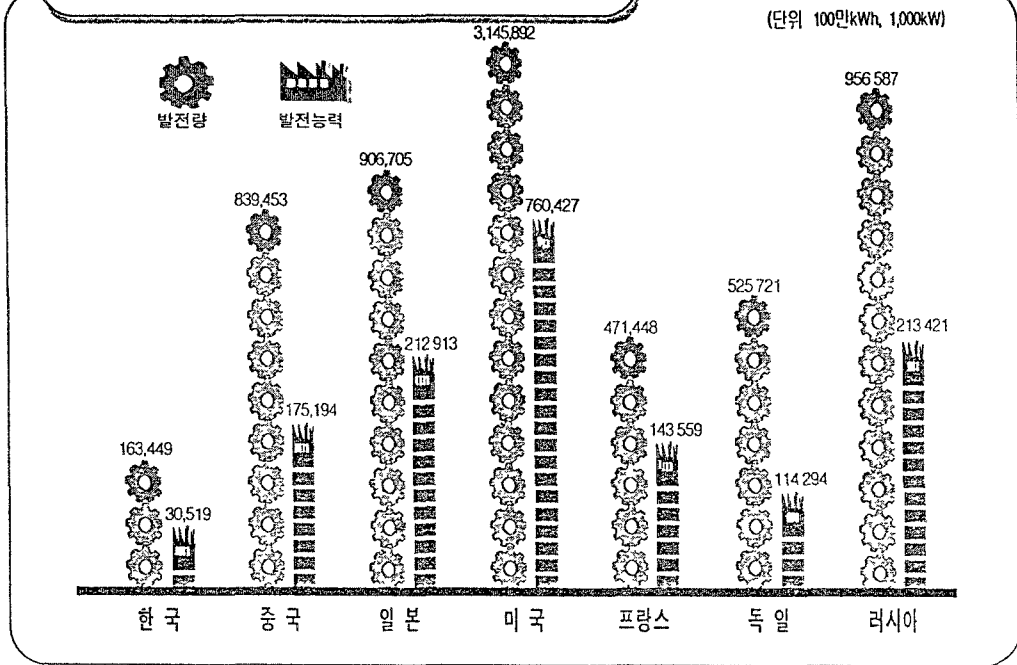
화력 발전량 : 14위, 원자력 발전량 : 10위

○ 세계전체의 발전량을 보면, 화력에 의해 62.6%, 수력에 의해 19.4%, 원자력에 의해 17.7% 생산하고 있다.

— 우리나라 전력발전량은 93년 현재 1,634.5억kWh로 세계 총발전량의 1.3%를 차지하여 세계 15위 수준이다.

— 우리나라 총발전량의 61%를 차지하는 화력발전은 993.1억kWh의 발전량을 내고 있으며 세계 14위 수준이며, 원자력에 의한 발전량은 전체의 36%(581.4억kWh)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10위 수준이다.

발전량 및 발전능력(1993년)



<표> 전력발전량(1993)

(단위 · 100만kWh)

국 가	계	화 력	수 력	원자력
세 계	12,260,710	7,669,958	2,376,106	2,167,515
한 국 ¹	163,449(15)	99,305(14)	6,006	58,138(10)
미 국	3,145,892(1)	2,236,388(1)	276,463	610,365(1)
러 시 아	956,587(2)	662,199(3)	175,174	119,186(5)
일 본	906,705(3)	550,181(4)	105,470	249,256(3)
독 일	525,721(6)	350,656(5)	21,465	153,476(4)
캐 나 다	527,316(5)	108,775(13)	323,690	94,823(6)
프 랑 스	471,448(7)	35,366(30)	67,894	368,188(2)
영 국	323,029(9)	227,771(7)	5,686	89,353(7)

주 : ()안의 수치는 세계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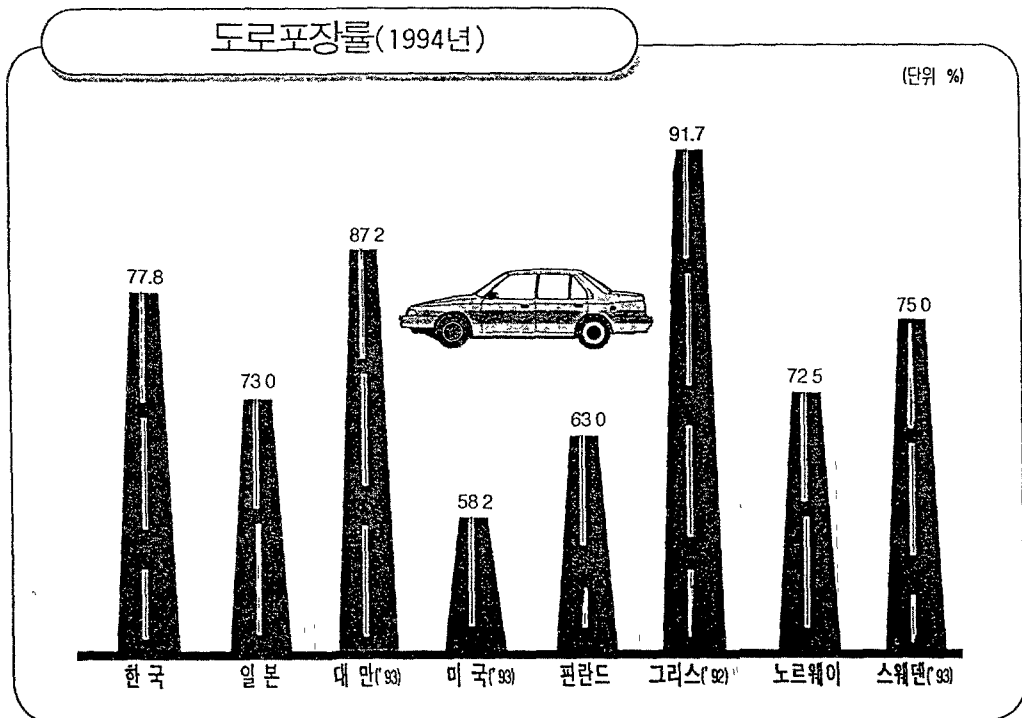
1) 1994년 자료 계 184,931(백만kWh), 화력 122,182(백만kWh), 수력 4,098(백만kWh)
원자력 58,651(백만kWh)

7. 운수 · 통신 · 관광

도로 포장률 : 23위, 도로밀도 : 20위

○ 도로포장률을 비교하면, 94년 현재 우리나라는 77.8%를 기록하고 있어 세계 23번째로 많이 포장되어 있는 수준이며, 1㎢ 국토면적당 도로길이를 나타내는 도로밀도는 우리나라가 0.74km/㎢로 세계 20위 수준이다.

- 오스트리아, 덴마크, 이탈리아, 영국 등은 100% 도로포장률을 나타내고 있고, 도로밀도는 각각 1.50, 1.65, 1.02, 1.58를 나타내어 12위, 9위, 17위, 10위 수준이다.
- 일본의 경우, 73%의 도로포장률과 3.01의 도로밀도를 나타내어 도로포장률은 우리나라보다 약간 뒤떨어지지만, 도로밀도에 있어서는 훨씬 앞서 있음을 보여준다.



<표> 도로포장률 및 도로밀도(1994)

(단위 : %, km/km²)

국	가	도로포장률(순위)	도로밀도(순위)
한	국	77.8 (23)	0.74 (20)
일	본	73.0 (28)	3.01 (3)
대	만 ¹	87.2 (21)	0.56 (25)
미	국 ¹	58.2 (34)	0.64 (23)
오스트리아		100.0 (1)	1.50 (12)
덴 마 크		100.0 (1)	1.65 (9)
이 탈 리 아 ²		100.0 (1)	1.02 (17)
영 국 ¹		100.0 (1)	1.58 (10)

- 주 1) 1993년 자료
2) 1991년 자료

1인당 자동차 보유대수:33위, km당 자동차 보유대수:4위

○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및 승용차 보유대수는 94년 현재 우리나라는 각각 166.6대 및 115.8대를 기록하여 모두 세계 33위 수준으로서 개인당 자동차보유대수는 선진국 보다 낮은 편이다.

- 도로 1km당 자동차수는 100.3대로 세계 4위 수준으로, 도로에 비해서 많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가구당 승용차수는 0.42대로써 5집가운데 2집은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일본의 경우, 인구 1,000명당 520.1대의 자동차(7위)와 341.4대의 승용차(18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km당 57.2대(9위)를 보유하고 있다. 가구당으로는 0.98대(16위)로 약 1집당 1대를 보유하고 있다.

〈표〉 자동차보유대수(1994)

(단위 : 대)

국	가	1,000명당 자동차수	1,000명당 승용차수	km당 자동차수	가구당 승용차수
한	국	166.6(33)	115.8(33)	100.3(4)	0.42(27)
일	본	520.1(7)	341.4(18)	57.2(9)	0.98(16)
대	만	216.2(29)	179.8(30)	226.6(2)	0.67(21)
캐	나	629.7(2)	493.1(4)	19.1(33)	1.01(14)
미	국 ¹	748 (1)	564.5(2)	30.8(21)	1.3 (9)
덴	마	364 (19)	320 (20)	26.6(28)	0.58(24)
프	랑	517 (8)	431 (10)	36.8(17)	1.35(8)
노	르	464 (13)	380 (14)	22 (31)	0.82(18)
룩	셈	606 (3)	566 (1)	45 (15)	1.505(5)
스	페	454 (14)	343 (17)	48.9(12)	1.16(10)
스	위	490 (13)	449 (7)	48.1(13)	1.1 (11)

주 · () 안의 자료는 세계 순위임
1) 1993년 자료

철도 수송량 : 여객 1위 - 일본, 화물 1위 - 미국

- 여객철도 수송량은 93년 현재 일본이 4,018.6억인km로 1위를 기록하였고, 이어서 중국(3,483.3억인km), 인도(3,145.6억인km), 우크라이나(758.9억인km), 프랑스(584.3억인km), 이탈리아(483.6억인km), 독일(481.5억인km), 이집트(366.4억인km), 한국(336.9억인km) 순이다.
- 화물철도 수송량은 미국(1조 6,192.6억톤km)이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46.6억톤km로 18위, 일본 256.2억톤km로 14위, 프랑스 459억톤km로 11위, 독일 530.7억톤km로 9위를 기록하고 있다.
 - 미국은 철도가 주로 화물수송량으로 쓰이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고속철도가 잘 개발되어 있어서, 철도이용객이 아주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유럽국가(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에서 철도이용자가 많은 것을 보여주었다.

〈표〉 철도수송량(1993)

(단위 : 백만인-km, 백만톤-km)

국	가	여	객	화	물
한	국	33,693	(9)	14,658	(18)
중	국	348,330	(2)	1,195,464	(2)
일	본	401,864	(1)	25,619	(14)
미	국	9,974	(23)	1,619,258	(- 1)
오	스트리아	9,599	(24)	12,030	(20)
프	랑 스	58,430	(5)	45,900	(11)
독	일	48,150	(7)	53,071	(9)
이	탈 리 아 ¹	48,361	(6)	21,830	(16)
영	국	30,354	(11)	13,765	(19)

주 . 1) 1992년 자료

항공수송량 : 총여객 8위, 국제여객 5위

○ 민간항공 여객수송량을 비교하면, 93년 현재 우리나라는 총여객 510억인-km를 운행하여 세계 8위 수준이며, 국제 여객 수송량은 456.8억인-km를 운행하여 5위 수준이다. 즉, 항공이용은 주로 국제적 이동에 많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의 경우 총여객 및 국제여객 수송량이 각각 7,720억인-km 및 2,197억인-km를 기록하여 모두 세계 1위이고, 2위인 영국보다 총여객에서 6.2배 국제여객에서 약 2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제여객수송량이 국내여객수송량보다 훨씬 많은 데 반해, 미국은 국내여객수송량이 국제여객수송량보다 2.5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토면적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민간항공수송량(1993)

(단위 : 백만인-km)

국	가	여객 총계	국제여객 수송량
한	국	51,002(8)	45,680(5)
일	본	106,360(3)	53,979(3)
싱	가	41,262(10)	41,262(6)
대	만	38,328(13)	35,777(10)
캐	나	40,426(11)	24,936(11)
미	국	772,048(1)	219,691(1)
프	랑	59,455(5)	38,043(8)
독	일	52,941(7)	47,808(4)
오	스	59,094(6)	36,015(9)
이	탈	29,659(14)	22,734(12)
영	국	124,882(2)	119,950(2)

우체국당 관할인구수 : 42위 수준, 1인당 우편이용 : 19위 수준

- UPU에서 발간된 우편통계(Postal Statistics) 자료에 의한 86개국의 우체국당 관할인구를 비교하면, 94년 현재 우리나라는 13,116.9명으로 인구가 적은순으로 해서 세계 42위 수준이다. 미국은 5,204.0명으로 23위 수준이며, 일본은 6,002.8명으로 25위, 프랑스는 3,413.2명으로 16위 수준이다.
- 국민 1인당 우편이용을 비교하면, 94년 현재 우리나라는 71.0통으로, 많은 순으로 해서 세계 19위 수준이며, 미국은 670.5통으로 1위, 일본은 192.4통으로 11위, 영국은 299.2통으로 8위 수준이다.

<표> 우편 통계(1994)

(단위 : 명, 톤)

국 가	우체국당 관할인구수	국민 1인당 우편이용
한 국	13,116.9(42)	71.0(19)
일 본	6,002.8(25)	192.4(11)
대 만	1,500.5(3)	96.2(16)
미 국	5,204.0(23)	670.5(1)
오스트리아	3,038.6(13)	428.5(3)
덴 마 크	4,027.9(18)	341.4(5)
프 랑 스	3,413.2(16)	419.2(4)
독 일	4,179.4(19)	230.2(10)
영 국	2,978.1(12)	299.2(8)

전화가입자수: 34위 수준, 이동전화 가입자수: 33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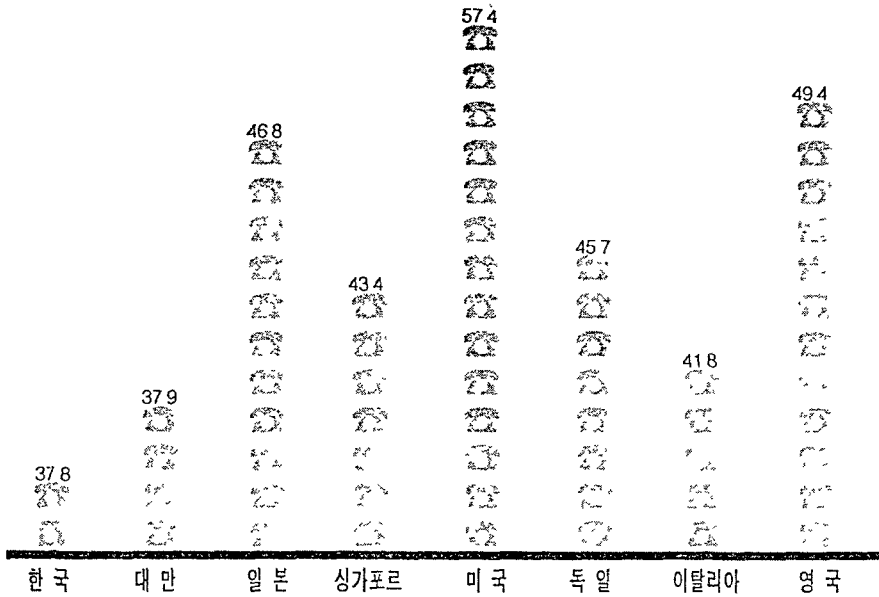
○ 인구 100명당 전화가입자수를 비교하면, 93년 현재 우리나라는 37.8을 기록하여 세계 34위 수준이며, 일본은 46.8로 22위, 미국은 57.4로 9위, 독일은 45.7로 24위, 영국은 49.4로 18위 수준이다.

○ 우리나라는 92년에 인구 만명당 이동전화가입자수가 62.3을 기록하여 세계 38위 수준이었으나, 93년에는 107을 기록하여 세계 33위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 일본 171로 27위, 미국 620으로 7위, 핀란드 967로 1위, 스웨덴 891로 2위, 영국 383으로 15위 수준이다.

전화보급률(1993년)

(100명당 보유대수)



<표> 전화 및 이동전화 가입자수(1993)

국 가	인구 100명당 전화가입자수	인구 만명당 이동전화가입자수
한국	37.8(34)	107(33)
일본	46.8(22)	171(27)
대만	37.9(33)	257(20)
캐나다	59.2(7)	460(11)
미국	57.4(9)	620(7)
오스트리아	45.1(26)	281(19)
핀란드	54.4(10)	967(1)
프랑스	53.6(14)	101(35)
독일	45.7(24)	219(21)
이탈리아	41.8(31)	211(23)
스웨덴	67.8(3)	891(2)
영국	49.4(18)	383(15)

관광객수: 31위, 관광수입: 24위, 관광지출: 15위

○ 방문국가에서 적어도 1박이상 하는 방문자로 정의한 관광객수는 93년 현재 우리나라는 333만명(95년 375만명)으로 세계 31위 수준이다.

— 세계 1위는 프랑스(6,010만명)로 나타났으며, 미국(4,579만 명) 2위, 영국(1,919만명) 6위, 스위스(1,240만명) 13위, 싱가포르(580만명) 20위, 일본(193만명)이 39위이다.

○ 관광수입을 비교하면 93년 현재 미국이 565억 100만달러로 세계 1위이며, 영국이 344억 4,900만달러로 2위, 프랑스 234억 1,000만달러로 3위를 나타내고 있다.

— 우리나라는 35억 1,000만달러로 세계 24위 수준이다.

○ 관광지출은 93년 현재 우리나라는 41억 500만달러로 세계 15위 수준이다.

— 미국은 우리나라의 약 10배가 되는 412억 6,000만달러로 세계 1 위이며, 이어 독일(375억 1,400만달러), 일본(268억 6,000만달러), 영국(172억 4,400만달러)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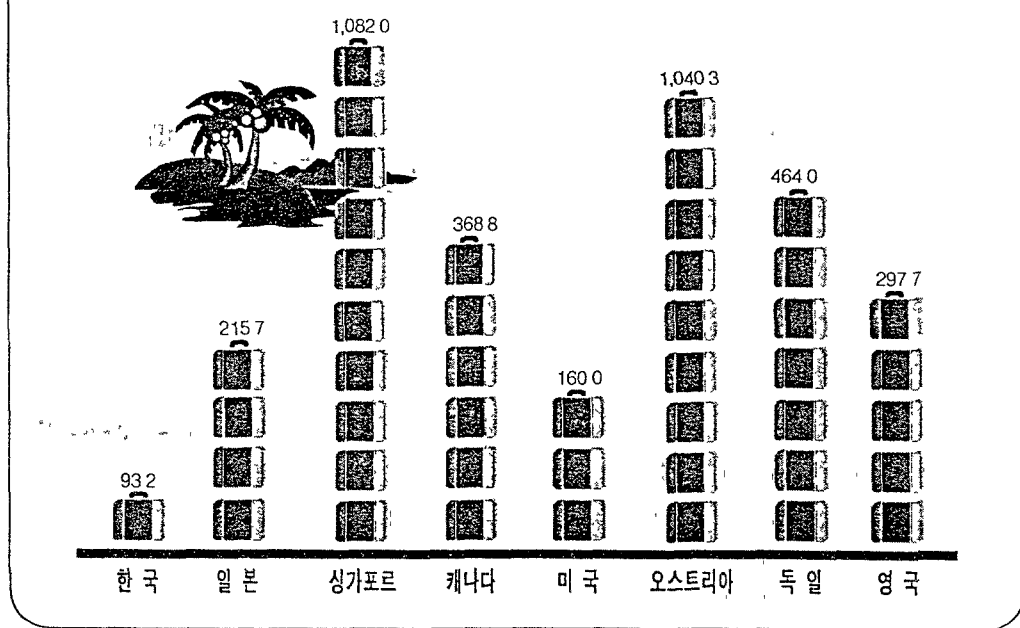
— 관광수입이 관광지출보다 많은 나라를 보면, 싱가포르, 미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위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이다.

— 일본의 경우, 관광지출이 수입의 약 7.6배인 데 이는 주로 높은 일본물가와 엔고의 영향으로 오히려 해외에서 여행하는 쪽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독일은 관광지출이 수입의 약 3.6배, 캐나다는 1.8배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해외관광지출(1993년)

(단위 달러)



<표> 해외관광객수 및 관광 수입과 지출(1993)

(단위 : 1,000명, 100만달러)

국 가	관광객수	관광수입	관광지출
한 국 ¹	3,331(31)	3,510(24)	4,105(15)
일 본	1,925(39)	3,557(23)	26,860(3)
싱 가 포 르	5,804(20)	5,793(12)	3,022(19)
캐 나 다	15,105(11)	5,897(11)	10,629(7)
미 국	45,793(2)	56,501(1)	41,260(1)
오스트리아	18,257(8)	13,566(6)	8,180(9)
프 랑 스	60,100(1)	23,410(3)	12,805(6)
독 일	14,348(12)	10,509(7)	37,514(2)
스 위 스	12,400(13)	7,001(9)	5,803(11)
영 국	19,186(6)	34,449(2)	17,244(4)
오스트레일리아	2,996(33)	4,655(16)	4,10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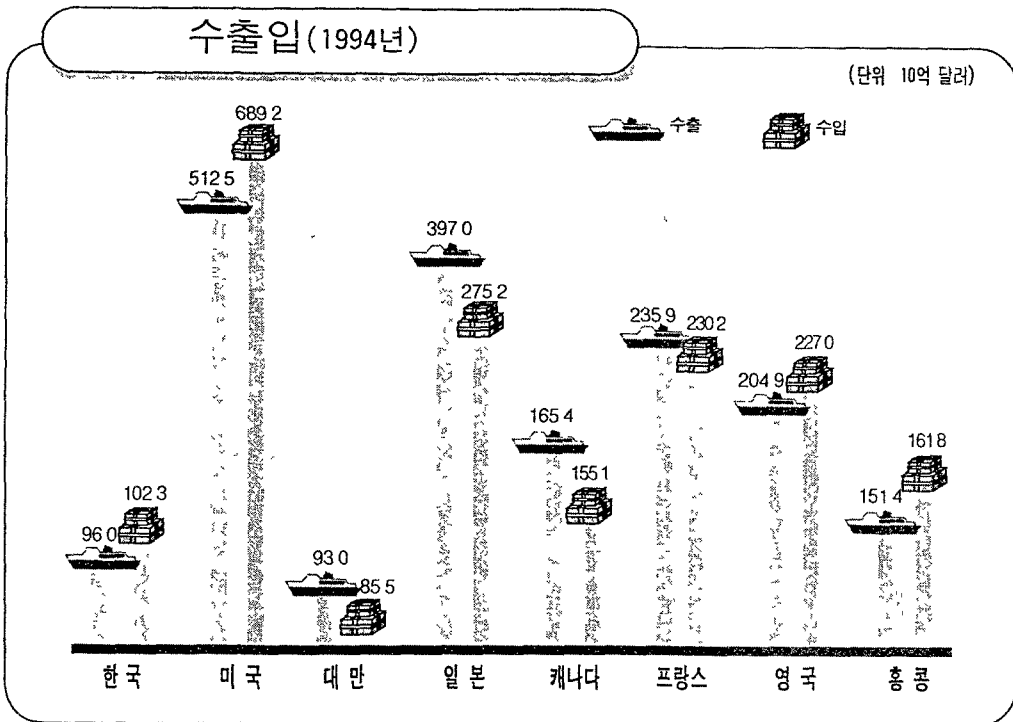
주 1) 1994년 자료 관광객수 3,580(천명), 수입 3,806(백만달러), 지출 4,088(백만달러)
 1995년 자료 관광객수 3,753(천명), 수입 5,579(백만달러), 지출 5,918(백만달러)

8. 무역 · 국제수지 · 외환

무역교역량 : 12위, 수출 : 12위, 수입 : 12위

○ IMF발표에 따르면 94년 전세계의 무역교역량은 8조 6,533억달러(수출 4조 3,675억달러, 수입 4조 2,859억달러)로 전년대비 14.1%(수출 14.1%, 수입 13.8%)증가하였다.

- 각 국가별로는 미국이 1조 2,017억달러(수출 5,125억달러, 수입 6,892억달러)로 세계시장의 13.9%(수출 11.7%, 수입 16.1%)를 차지 하면서 수위를 기록하였고, 독일이 8,091억달러(수출 4,272억달러, 수입 3,819억달러)로 세계시장의 9.4%(수출 9.8%, 수입 8.9%)를 차지하여 2위를,
- 그리고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의 소위 G7국가가 차례를 이었으며 이들 G7국가가 전세계교역량의 49.2%(수출 48.8%, 수입 49.6%)를 차지하였다.
- 우리나라는 1,984억달러(수출 960억달러, 수입 1,023억달러)로 세계 교역량의 2%(수출 2%, 수입 2%)를 차지하여 12위를 기록하였고 홍콩,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는 각각 8위, 11위, 13위, 16위를 기록하였다.



<표> 각국의 교역량규모(1994)

(단위 · 억달러)

국	가	교역량 (수출+수입) (구성비(%))		수출 (구성비(%))		수입 (구성비(%))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세	계	86,533		43,675		42,859	
한	국 ¹	1,984(2)	12	960(2)	12	1,023(2)	12
미	국	12,017(14)	1	5,125(12)	1	6,892(16)	1
독	일	8,091(9)	2	4,272(10)	2	3,819(9)	2
일	본	6,722(8)	3	3,970(9)	3	2,752(6)	3
프	랑	4,661(5)	4	2,359(5)	4	2,302(5)	4
영	국	4,319(5)	5	2,049(5)	5	2,270(5)	5
이	탈리아	3,575(4)	6	1,898(4)	6	1,677(4)	6
캐	나	3,204(4)	7	1,654(4)	7	1,551(4)	8
홍	콩	3,132(4)	8	1,514(3)	9	1,618(4)	7
중	국	2,367(3)	10	1,210(3)	10	1,157(3)	10
싱	가포르	1,995(2)	11	968(2)	11	1,027(2)	11
대	만	1,784(2)	13	928(2)	13	855(2)	14
말	레이시아	1,183(1)	16	588(1)	17	596(1)	17

주 : 1) 1995년 수출 : 1,250.6(억달러), 수입 1,351.2(억달러)

경상수지 적자 : 9위(적자규모크기 순으로)

○ IMF에 따르면 94년 경상수지 자료가 집계된 110개 국가 중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나라는 모두 40개로써, 이중 일본이 1,292억달러 흑자로 1위, 스위스가 185억달러, 이탈리아가 146억달러 흑자로 각각 2, 3위를 차지하였다.

— 반면에 적자를 기록한 국가는 모두 70개국으로써, 이들중 미국이 1,509억달러, 멕시코가 288억달러, 독일이 239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적자규모가 큰 순서로 1, 2, 3위를 차지하였다.

— 우리나라는 45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여 적자규모가 큰 순서로 9번째다.

무역수지 적자 : 14위(적자규모크기 순으로)

○ 무역수지가 흑자인 나라는 자료가 발표된 110개 국가중 38개이며, 일본이 1,459억달러 흑자로 1위, 독일이 505억달러 흑자로 2위, 이탈리아가 355억달러로 3위를 차지하였으며,

— 적자를 기록한 나라는 1,643억달러 적자의 미국, 185억달러의 멕시코, 161억달러의 영국을 비롯하여 72개국이다. 우리나라는 31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적자규모가 큰 순서로 14번째이다.

<표> 주요국의 경상수지 및 무역수지(1994)

(단위 : 억달러)

경 상 수 지			무 역 수 지		
국 가	규 모	순위	국 가	규 모	순위
한 국 ¹	-45	-9	한 국 ¹	-31	-14
일 본	1,292	1	일 본	1,459	1
스 위 스	185	2	독 일	505	2
이탈리아	146	3	이탈리아	355	3
싱가포르	120	5	캐 나 다	122	6
프 랑 스	81	7	프 랑 스	81	11
중 국	65	8	대 만	73.4	16
대 만	62	9	중 국	72.9	17
영 국	-24	-16	싱가포르	21	23
말레이시아	-41	-10	말레이시아	16	25
타 이	-84	-7	타 이	-37	-12
캐 나 다	-174	-4	영 국	-161	-3
독 일	-239	-3	멕시코	-185	-2
멕시코	-288	-2	미 국	-1,643	-1
미 국	-1,509	-1			

주 1) 1995년 자료 : 경상수지 - 88억달러 무역수지 - 47억달러

○ IMF자료에 의하면, 94년 국내총생산액(GDP)중에서 수출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싱가포르(수출 140.4%, 수입 148.9%), 말레이시아(수출 83.2%, 수입 84.4%), 쿠웨이트(수출 47.8%, 수입 17.6%) 등이다.

— 우리나라는 수출 25.2%, 수입 26.9%로 일본(수출 8.6%, 수입 6.0%), 미국(수출 7.6%, 수입 10.2%), 프랑스(수출 17.7%, 수입 17.3%)등에 비하면 높은편이나, 캐나다(30.1%, 28.2%), 독일(23.3%, 20.8%), 영국(20.0%, 22.2%) 등 기타 선진국들과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표〉 주요국의 무역의존도(1994)

(단위 : %)

국 가	수출+수입	수 출	수 입
싱가포르	289.3	140.4	148.9
말레이시아	167.6	83.2	84.4
대 만	74.0	38.5	35.5
타 이	69.6	31.6	38.0
캐 나 다	58.3	30.1	28.2
한 국	52.1	25.2	26.9
중 국	48.7	24.9	23.8
독 일	44.1	23.3	20.8
영 국	42.2	20.0	22.2
이탈리아	35.1	18.6	16.5
프 랑 스	35.0	17.7	17.3
미 국	17.8	7.6	10.2
일 본	14.6	8.6	6.0

주 무역의존도는 GDP중 수출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최고수출국 : 미국, 최고수입국 : 일본

- 95년 현재 주요국가별 수출을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에 241억 3,100만달러, 전체수출의 19.3%를 수출하여 미국이 최고수출국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일본(170억 4,900만달러, 13.6%), 홍콩(106억 8,200만달러, 8.5%), 중국(91억 4,400만달러, 7.3%), 싱가포르(66억 8,900만달러, 5.3%), 독일(59억 6,500만달러, 4.8%) 순이다.
- 각 국가별 수입을 보면, 우리나라는 95년 현재 일본으로부터 326억 600만달러(전체수입의 24.1%)를 수입하여 일본이 최고 수입국이며, 이어 미국(304억 400만달러, 22.5%), 중국(74억 100만달러, 5.5%), 독일(65억 8,400만달러, 4.9%), 사우디아라비아(54억 3,200만달러, 4.0%) 순이다.

〈표〉 국가별 수출입(1995)

(단위 : 100만달러)

순 위	수출국가(금액)		수입국가(금액)	
세 계		125,058		135,119
1	미 국	(24,131)	일 본	(32,606)
2	일 본	(17,049)	미 국	(30,404)
3	홍 콩	(10,682)	중 국	(7,401)
4	중 국	(9,144)	독 일	(6,584)
5	싱가포르	(6,689)	사우디아라비아	(5,432)
6	독 일	(5,965)	오스트레일리아	(4,897)
7	대 만	(3,882)	인도네시아	(3,325)
8	말레이시아	(2,951)	말레이시아	(2,515)
9	영 국	(2,874)	영 국	(2,387)
10	인도네시아	(2,958)	이탈리아	(2,425)

외환보유액(금 제외) : 14위

- IMF자료에 의하면 95년말 현재 외환보유액(금제외)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으로써 1,833억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는 대만(903억달러), 독일(850억달러), 중국(754억달러), 미국(748억달러), 싱가포르(687억달러) 등이다. 우리나라는 327억달러로써 14위이다.

<표> 주요국의 외환보유액 현황(1994)

(단위 : 억달러)

국 가	외환보유액 : 금제외(순위)	금 (자국평가)	외환보유액 : 금포함(순위)
일 본	1,833 (1)	12	1,845 (1)
대 만	903 (2)	56	959 (2)
독 일	850 (3)	96	946 (3)
중 국	754 (4)	6	760 (5)
미 국	748 (5)	111	859 (4)
싱가포르	687 (6)	-	687 (6)
영 국	420 (8)	53	473 (10)
타 이	360 (10)	9	369 (14)
이탈리아	349 (11)	256	605 (7)
한 국	327 (14)	0.3	327 (15)
프 랑 스	269 (15)	316	585 (8)
말레이시아	238 (16)	1.2	239 (16)
멕 시 코	168 (21)	-	169 (23)
캐 나 다	150 (25)	2	152 (27)

— 금을 포함한 외환보유액도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이고 이어 대만, 독일, 미국, 중국순이다. 우리나라는 327억달러로 15위이다.

총외채 : 계속 증가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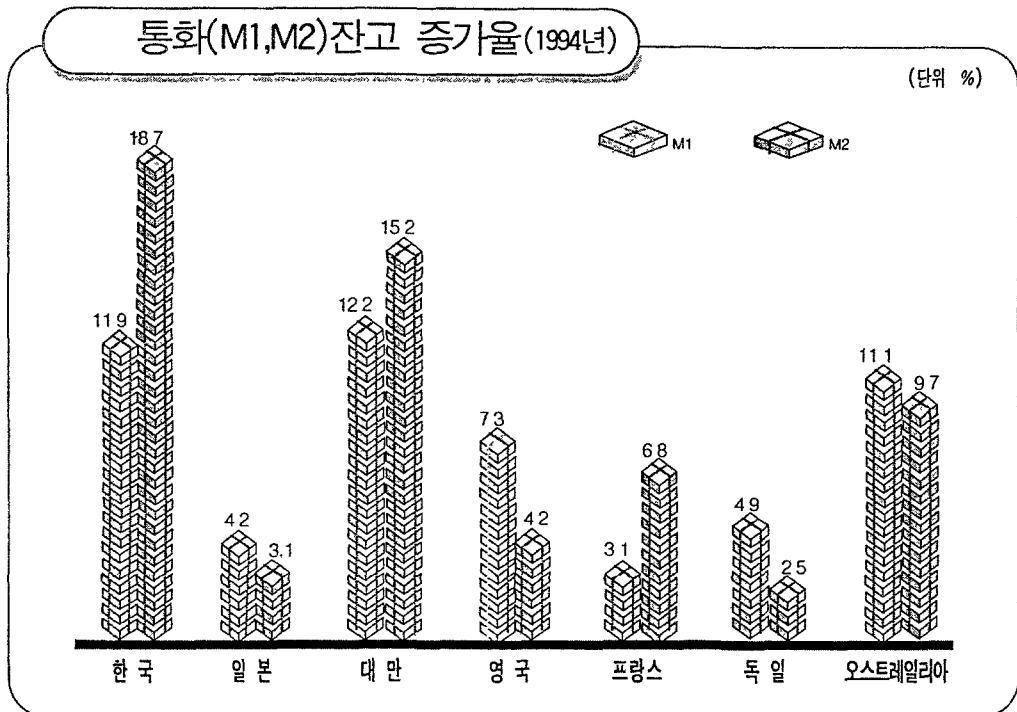
○ 세계은행(WORLD BANK)자료에 따르면 93년 현재 총외채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브라질(1,327억달러)이며, 멕시코(1,180억달러), 인도(918억달러), 인도네시아(895억달러), 중국(838억달러), 아르헨티나(745억달러), 터키(679억달러)등의 개발도상국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 우리나라는 93년 현재 438.7억달러로 총외채가 많은 순서로는 8위에 해당 한다. 94년에는 568억달러이고, 95년에는 94년의 39.0%가 증가한 789.8억달러로 잠정집계되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9. 통화 · 금융 · 재정

통화(M₁) 및 총통화(M₂) 증가율은 선진국보다 높고,
일본 제외한 아시아 주요국들과 유사

- IMF자료에 의하면 94년말 우리나라 통화(M₁) 증가율(말잔기준)은 전년대비 11.9%, 총통화(M₂) 증가율은 18.7%로 일본(통화증가율 4.2%, 총통화증가율 3.1%), 미국(통화 0.1%, 총통화 0.1%), 독일(4.9%, 2.5%), 프랑스(3.1%, 6.8%) 등 선진국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나,
— 대만(12.2%, 15.2%), 말레이시아(16.8%, 12.7%), 타이(17.0%, 12.9%), 싱가포르(2.3%, 14.4%) 등 아시아 주요국들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중앙은행 공정할인을 선진국과 유사, 일본은 최저 수준

○ IMF자료에 의하면 각국의 금리수준을 판단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중앙은행 공정할인율은 94년말 현재 일본 1.75%, 미국 4.75%, 덴마크 5.0%, 독일 4.50%로 선진국의 금리는 대체로 낮다고 말할수 있다.

— 우리나라는 5.0%로 중앙은행 공정할인율만 본다면 일본보다는 높지만 기타 선진국들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말레이시아는 5.07%, 대만은 5.50%, 타이는 9.50% 수준이다.

우리나라 상장주식거래대금 : 7위
상장주식시가 총액 : 13위

○ 한국증권거래소 자료에 의하면 94년중 세계에서 증권거래 규모가 가장 큰 증권거래소는 미국의 뉴욕증권거래소로 상장주식거래 대금 규모는 2조 4,542억달러로 우리나라(2,868억달러)의 9배, 상장주식 시가총액은 4조 1,479억달러로 우리나라(1,918억달러)의 22배 수준이다.

— 우리나라의 한국증권거래소는 상장주식거래대금기준으로는 세계 7위, 상장주식시가 총액기준으로는 세계 13위이다.

<표> 세계의 주요 증권거래소(1994)

(단위 : 억달러)

국 가(거래소)	상장주식거래대금	상장주식시가총액	채권상장잔액
한 국	2,868	1,918	1,300
미 국(뉴욕)	24,542 (9)	41,479 (22)	23,674 (18)
(전미증권업협회)	14,493 (5)	7,937 (4)	6 (0.0)
영 국(런던)	10,293 (4)	11,580 (6)	9,096 (7)
일 본(동경)	8,599 (3)	35,922 (19)	17,965 (14)
대 만	7,367 (3)	2,473 (1.3)	303 (0.2)
독 일(독일연합)	5,704 (2)	4,993 (2.6)	18,864 (15)
홍 콩	1,261 (0.4)	2,695 (1.4)	· · ·
싱가포르	848 (0.3)	1,363 (0.7)	1,532 (1.2)
타 이	820 (0.3)	1,256 (0.7)	26 (0.0)

주 · ()안의 수치는 한국에 대한 배수비율임

사회보장비율 : 선진국에 못미쳐

○ 정부세입중 조세수입에 의한 비율은 94년 현재 우리나라 84.8%이며, 일본 90년 94.5%, 미국 92년 92.0%, 핀란드 91년 88.9%, 스웨덴 92년 84.6%, 오스트레일리아 91년 90.0%) 등 선진국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약간 높은 편이다.

○ 정부세출을 각 항목별로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 사회보장비는 94년 9.9%로 대부분 선진국의 30%대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이다.

— 방위비는 94년 16.7%로 미국(20.6%)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이 10% 미만인데 비해 높은 편이다.

〈표〉 재정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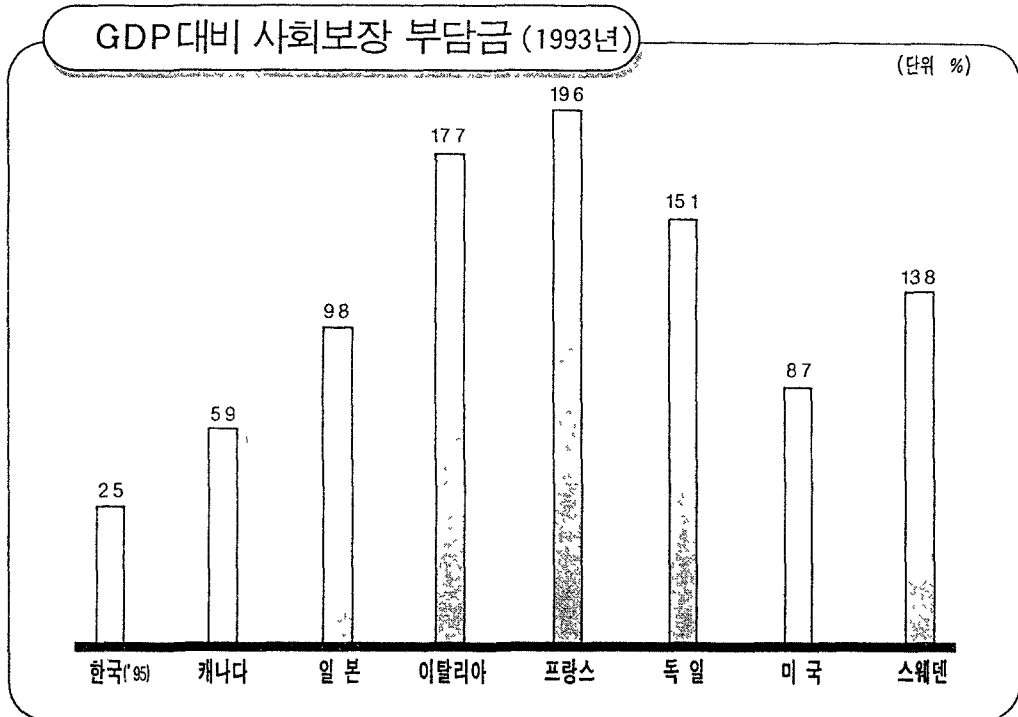
국 가	연 도	세입중 조세수입	세 출				
			사 회 보 장비	교 육비	경 제 사 업비	방 위비	기 타
한 국	94	84.8	9.9	18.2	22.5	16.7	32.7
캐 나 다	89	88.4	35.1	2.9	5.0	7.4	49.6
미 국	92	92.0	28.5	1.8	1.7	20.6	47.4
오스트리아	91	91.1	44.8	9.4	0.3	2.4	43.1
핀 란 드	91	88.9	44.8	13.9	3.8	4.3	33.2
네덜란드	92	91.3	36.9	10.8	1.5	4.6	46.2
노르웨이	90	76.6	38.0	9.4	3.3	8.0	41.3
오스트레일리아	91	90.0	29.9	7.0	1.8	8.6	52.7

사회보장부담금 선진국에 훨씬 뒤떨어져

- 93년 각국의 사회보장세를 제외한 조세부담률을 살펴보면 덴마크(48.3%), 스웨덴(36.1%), 노르웨이 (34.2%), 핀란드(33.6%) 등 북유럽국가들이 가장 높고, 다른 유럽국가도 평균 30%정도로 18.8%(94년19.6%, 95년 20.5%)인 우리나라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21.0%, 19.3%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 GDP대비 사회보장금은 우리나라가 85년 0.9%, 90년 1.9%, 91년 1.9%, 92년 2.1%, 93년 2.6%, 94년 2.6%, 95년 2.5%를 나타내어 93년까지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으나 최근에는 정체수준을 보이고 있다. 즉 사회보장 부담금의 증가율이 GDP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었다.

— 93년 현재, 일본 9.8%, 캐나다 5.9%, 미국 8.7%, 독일 15.1%, 핀란드 12.1%, 스웨덴 13.8%, 영국 6.0%의 GDP대비 사회보장부담금을 나타내고 있어서 우리나라(2.6%)보다는 훨씬 많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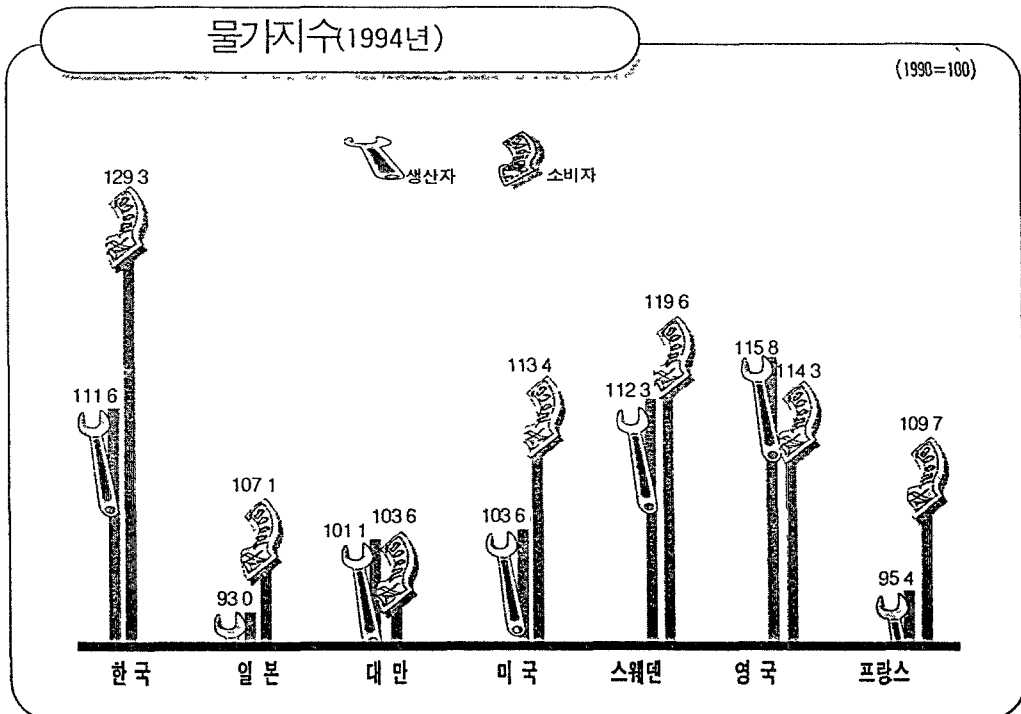
(* 사회보장부담금은 사회보장행정, 병약자, 노령인구, 무능력자, 복지사업 등에 지출된 비용을 뜻함)



10. 물가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 선진국보다 높음

- 1990년을 100으로 보았을때, 94년 소비자물가지수는 우리나라가 129.3(95년 135.1)을 나타내고 있어서 100~115 수준대의 선진국(일본 107.1, 캐나다 109.4, 미국 113.4, 프랑스 109.7, 영국 114.3 등)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치이다.
- 생산자물가지수는 1990년을 100으로 보았을때, 94년 현재 우리나라는 111.6(95년 116.8)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93.0), 캐나다(108.6), 미국(103.6), 오스트리아(101.5), 프랑스(95.4), 독일(104.4)등의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 우리나라는 아시아 경쟁대상국(일본(93.0), 싱가포르(87.3), 대만(101.1))보다는 높은 생산자물가지수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쌀 소매가격 : 일본의 1/3배, 미국의 1.6배

- 94년 현재 우리나라는 쌀 1kg의 소매가격이 1.9달러로 일본(6.11달러), 벨기에(2.95달러), 독일(4.56달러)보다는 낮으나, 인도(0.35달러), 말레이시아(0.5달러), 필리핀(0.52달러) 보다 약 3~5배 가량 높으며, 미국(1.18달러), 브라질(0.71달러), 오스트레일리아(1.03달러) 보다는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쇠고기 소매가격 : 일본의 약 0.5배, 미국의 2.6배

- 쇠고기 1kg의 소매가격은 94년 현재 우리나라는 18.66달러로 일본(39.93달러), 독일(31.22달러), 노르웨이(20.61달러), 스위스(22.70달러) 보다는 낮으나, 캐나다(5.70달러), 미국(7.06달러), 오스트레일리아(9.04달러), 뉴질랜드(5.20달러) 보다는 약 2~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유 소매가격 : 일본의 0.8배, 미국의 2.3배

○ 우유 1ℓ당 소매가격은 94년 현재 우리나라는 1.71달러로 미국(0.75달러), 캐나다(0.99달러), 프랑스(1.07달러), 독일(0.86달러), 영국(0.89달러)과 같은 선진국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이 비교적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인 말레이시아(1.17달러), 브라질(0.60달러), 콜롬비아(0.54달러)보다도 높은 값이다.

—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로는 일본(2.12달러), 필리핀(2.26달러), 싱가포르(2.16달러)를 들 수 있다.

○ 감자 1kg당 소매가격은 94년 현재 우리나라는 1.72달러로 중국(0.24달러), 인도(0.19달러) 보다 7~9배가 비싸며, 미국(0.75달러) 보다는 2.3배 정도 비싸다.

○ 맥주 0.33ℓ당 소매가격은 94년 현재 우리나라가 0.78달러로 일본(2.28달러, 92년)의 1/3 이고, 독일(0.49달러)의 1.6배이다.

<표> 주요식료품의 소매물가(1994)

(단위 달러)

국 가	쌀(1kg)	쇠고기(1kg)	우유(1ℓ)	감자(1kg)
한국(전도시) ¹	1.90	18.66	1.71	1.72
일본(동 경)	6.11	39.93	2.12	2.81
미 국	1.18	7.06	0.75	0.75
프랑스(파리)	1.89 ¹	18.88	1.07	1.43
독 일	4.56	31.22	0.86	0.88
영 국 ²	-	6.88	0.89	0.46
이탈리아(로마)	2.15	8.30	1.13	0.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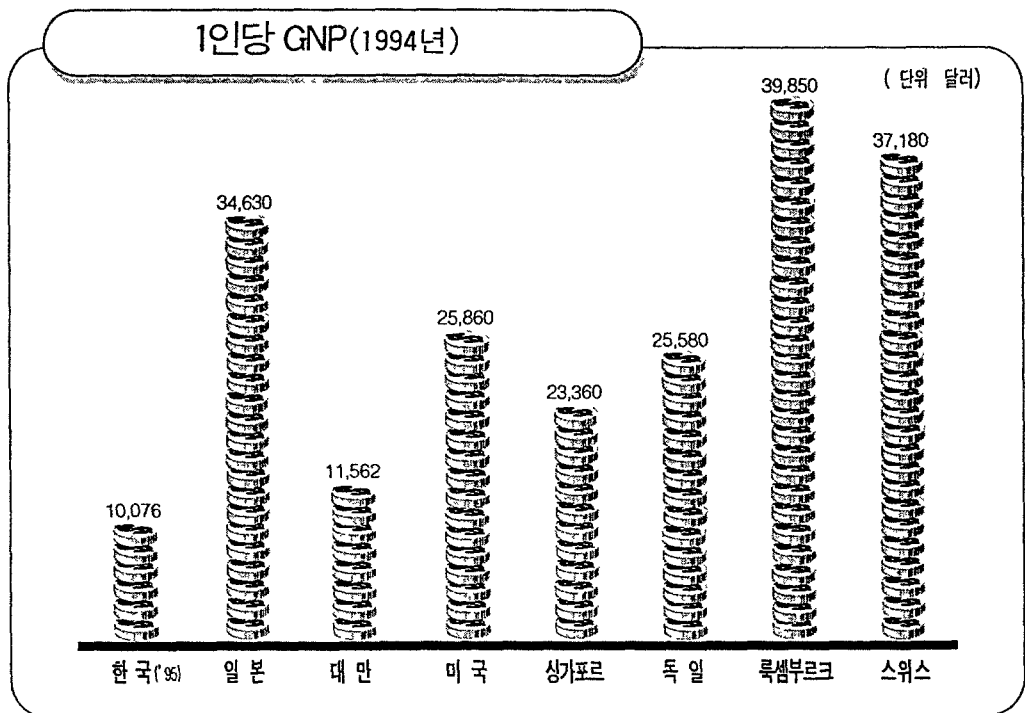
주 : 1) ILO 자료
2) 1992년 자료

11. 국민계정

GNP, GDP : 11위, 1인당 GNP : 29위, 1인당 GDP: 31위

○ 94년 현재 우리나라 국민총생산(GNP)규모는 3,780억달러(95년 4,517억달러)로 세계11위 수준이며, 1인당 국민총생산은 8,508달러(95년 10,076달러)로 세계 29위이다.

- 국내총생산(GDP)은 94년 현재 우리나라 3,808억달러(95년 4,556억달러)로 세계 11위이며, 1인당 국내총생산은 8,537달러(95년 10,158달러)로 세계 31위이다.
- 미국은 GNP와 GDP에서 모두 1위이나 1인당 GNP와 1인당 GDP는 각각 25,860달러 및 25,852달러로 모두 세계 6위이다.
- 일본은 GNP, GDP에서 세계 2위이며, 1인당 GNP, 1인당 GDP는 각각 3위, 2위를 나타내고 있어서 경제면에서는 세계에서 최고의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표> GNP 및 GDP(1994)

(단위 : 10억달러, 달러)

국 가	국민총생산 (GNP)	1인당 GNP	국내총생산 (GDP)	1인당 GDP
한 국 ¹	378.0 (11)	8,508 (29)	380.8 (11)	8,537 (31)
일 본	4,629.5 (2)	34,630 (3)	4,590.9 (2)	36,739 (2)
대 만	244.0 (18)	11,562 (27)	241.0 (18)	11,422 (28)
캐 나 다	530.0 (8)	19,570 (16)	549.2 (8)	18,777 (17)
미 국	6,726.9 (1)	25,860 (6)	6,738.4 (1)	25,852 (6)
벨 기 에	229.0 (19)	22,920 (13)	227.9 (19)	20,906 ² (14)
프 랑 스	1,319.4 (4)	23,470 (11)	1,419.9 (4)	21,690 ² (12)
독 일	1,815.0 ³ (3)	25,580 (7)	1,834.9 ³ (3)	22,539 ³ (10)
이탈리아	1,102.1 ⁴ (5)	19,270 (17)	1,017.8 (6)	17,796 (19)
스 위 스	267.2 (16)	37,180 (2)	257.3 (17)	36,809 (1)
영 국	1,039.7 (6)	18,410 (20)	1,023.1 (5)	16,332 ² (21)

주 · ()안의 수치는 순위

1) 95년 잠정치 GNP · 451.7(십억달러), 1인당 GNP : 10,076달러,
GDP · 455.6(십억달러), 1인당 GDP : 10,158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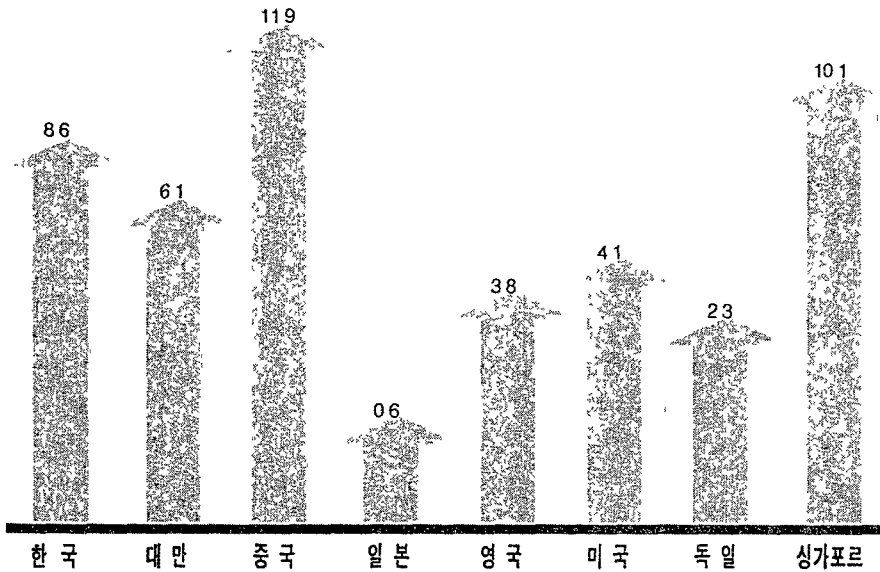
2) 93년 자료 3) 서독자료 4) 잠정치

94년 경제성장률 91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

○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94년 8.6% 95년 9.0%를 기록하여 91년(9.1%)이래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94년 현재 페루(13.0%), 중국(11.9%), 싱가포르(10.1%), 말레이시아(8.7%)와 더불어 높은 성장을 한 국가중의 하나이다.

실질 경제성장률(1994년)

(단위 %)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 선진국형으로 변형과정

○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을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85년에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통신 및 기타 서비스업이 각각 12%, 30%, 8%, 14%, 7%, 29% 이던 것이 94년에는 7%, 27%, 14%, 12%, 7%, 33%로 변했다.

- 즉, 농림어업이 많이 줄어든 반면 건설업과 기타 서비스업이 많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개발 도상국형태에서 선진국형으로의 진입과정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 대부분 선진국은 기타서비스업이 40%대를 나타내고 있고 농림어업은 5% 미만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단위 : %)

국 가	농림어업	광 공 업	건 설 업	도소매업	운수통신업	기타서비스업
한 국	7	27	14	12	7	33
일 본	2	30	9	12	6	40
대 만	4	39	4	15	6	32
캐 나 다	3	24	6	14	8	45
미 국	2	23	4	17	6	49
덴 마 크	4	21	6	14	9	47
프 랑 스	3	24	5	16	6	45
핀 란 드	5	21	8	10	8	46
스 위 스	3	37	8	22	8	22
영 국	2	25	6	14	7	46

주 : 조사연도는 국가별로 다소 상이함

국내총생산중 총고정자본형성 : 높은 수준
 정부소비지출 및 민간소비지출 : 낮은 수준

○ 지출항목별 국내총생산(1994)을 보면

- 대부분 선진국의 정부소비지출(캐나다 20.1%, 미국 17.4%, 오스트리아 19.0%, 독일 17.5% 등)이 20%대 전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비교적 낮은 (10.6%)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 민간소비지출의 경우, 우리나라(53.7%)는 선진국(일본 59.2%, 캐나다 60.4%, 미국 68.7%, 프랑스 60.1% 등)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조금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 총고정 자본 형성의 경우, 우리나라(35.8%)는 선진국(일본 28.6%, 캐나다 18.6%, 미국 15.3%, 프랑스 18.3%)보다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표〉 지출항목별 국내총생산(1994)

(단위 : %)

국 가	정부소비지출	민간소비지출	총고정자본형성
한 국 ¹	10.6	53.7	35.8
일 본	9.8	59.2	28.6
싱가포르	8.5	40.2	34.4
대 만	15.1	59.2	22.9
캐 나 다	20.1	60.4	18.6
미 국	17.4	68.7	15.3
오스트리아	19.0	55.0	24.5
덴 마 크	25.3	53.7	14.9
프 랑 스	19.9	60.1	18.3
독 일 ²	17.5	55.2	18.9
이탈리아	17.3	62.8	16.4
영 국	21.6	63.9	15.0

주 1) 1995년 자료 정부소비지출 : 10.4%, 민간소비지출 : 52.9%, 총고정자본 : 36.6%

2) 서독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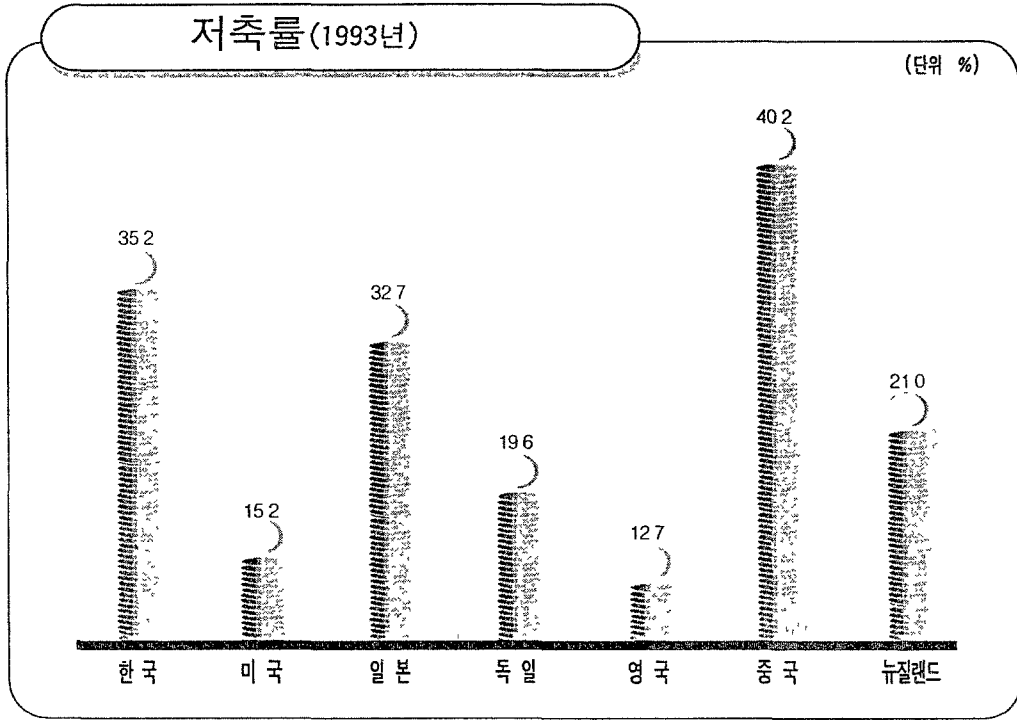
투자율과 저축률 : 동양권 국가는 높고, 서양권 국가 낮음

○ 국내 총생산에 대한 투자율은 93년 현재 우리나라는 35.2%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 동양권에 있는 국가(일본 30.3%, 말레이시아 33.2%)들이 10~20% 초반대의 투자율을 기록한 유럽 및 북대서양 선진국(캐나다 18.2%, 미국 16.5%, 프랑스 17.1%, 영국 15.1% 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총생산에 대한 저축률은 우리나라가 93년 현재 35.2%를 나타내어 대부분 선진국(캐나다 13.3%, 미국 15.2%, 프랑스 18.1%, 영국 12.7% 등)의 10%대를 훨씬 초과한 값이다.

저축률(1993년)



<표> 국내총생산에 대한 투자율과 저축률(1993)

국 가		투 자 율	저 축 륜
한	국 ¹	35.2	35.2
일	본	30.3	32.7
말레이시아		33.2	38.1
캐나다		18.2	13.3
미국		16.5	15.2
덴마크		14.3	17.2
프랑스		17.1	18.1
독일		23.9	19.6
이탈리아		16.8	18.0
스웨덴		13.5	12.3
영국		15.1	12.7

주 . 1) 투자율 94년 : 36.2%, 95년 : 37.5%^P
저축률 94년 : 35.4%, 95년 : 36.2%^P

12. 보건

의료종사자수 :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

-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과 전국민 의료보험제에 따른 의료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의 결과로 80년에 인구10만명당 의사, 약제사, 치과의사, 간호사 수가 각각 59명, 64명, 9명, 106명이던것이 94년에는 각각 122명, 95명, 29명, 257명을 기록하여 각각 2.1배, 1.5배, 3.2배, 2.4배 증가하였다.

— 그러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낮은편이다. 의사수를 비교 하면, 캐나다 224명(91년), 덴마크 278명(90년), 프랑스 300명(89년), 스페인 382명(90년), 이탈리아 475명(89년)을 나타내고 있다.

<표> 인구 10만명당 의료종사자수

(단위: 명)

국 가	연 도	의 사	약 제 사	치과의사	간 호 사
한 국	94	122	95	29	257
일 본	92	177	-	-	-
캐 나 다	91	224	83 ¹	54	972
덴 마 크	90	278	29 ²	89	655
핀 란 드	91	247	142 ³	91	986 ³
프 랑 스	89	300	91	67	-
네덜란드	90	251	15	53	815 ³
스 페 인	90	382	94	27	381 ²
스 웨 덴	90	253	10	61	923 ²
이탈리아	89	475	94	19	296

주 1) 1990년 자료

2) 1988년 자료

3) 1989년 자료

- 85~90년간의 인구 1,000명당 평균 병상수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3.0(94년 4.1개)을 기록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는 선진국의 경우, 캐나다(16.1), 스웨덴(6.2), 핀란드(10.8), 프랑스(9.3), 오스트리아(10.8), 독일(8.7), 이탈리아(7.5), 스위스(11.0), 영국(6.3), 일본(15.9)보다는 훨씬 미달하고 있는 수준이다.

— 그러나 정부 및 민간단체에서 의료복지시설에 투자를 많이하고 있는 추세여서, 앞으로는 많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망률 : 간암사망률 - 1위, 고혈압성질환 - 5위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나온 인구 10만명당 사망원인별 41개국 사망률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후진국형 질병인 결핵이 81년에 21.4명에서 94년 9.6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간암 사망률은 23.4명으로 1위, 고혈압성 질환사망률은 5위, 육·해·공을 포함한 모든교통사고 사망률은 2위 수준에 있는 반면 폐암, 유방암, 기관지염으로 인한 사망률은 비교적 낮았다.
- 간암으로 인한 사망률의 경우, 가장 높은 4개국은 모두 동양권 국가인 한국(23.4), 중국(19.5), 홍콩(19.5), 일본(16.1)이다.
 - 남자 10만명당 간암사망률을 보면 94년 현재 우리나라는 35.4명으로 1위 수준이며 이어 홍콩(30.3), 중국(28.3명), 일본(24.1명)순이다. 즉, 모두 동양권국가에 속한 나라들이다.
- 선진국에서 높은 수치를 보이는 당뇨에 의한 사망은 우리나라의 경우 81년 5.7명에서 94년에는 17.2명(세계 18위)으로 3배나 증가 하였다.

〈표〉 인구 10만명당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

(단위 : 명)

국 가	결 핵	위 암	간 암	당뇨병	고혈압성 질 환	교통사고 ¹
한 국	9.6(5)	29.3(7)	23.4(1)	17.2(18)	26.2(5)	35.9(2)
일 본	2.7(20)	38.5(1)	16.1(4)	8.3(33)	6.7(28)	12.4(29)
싱가포르	3.6(15)	12.3(26)	3.9(12)	8.5(32)	10.2(16)	9.0(37)
캐 나 다	0.4(35)	7.4(36)	1.4(22)	15.7(19)	4.4(35)	13.3(26)
미 국	0.8(31)	5.7(38)	1.6(21)	19.4(11)	13.2(11)	18.6(15)
핀 란 드	1.7(22)	14.5(20)	5.5(9)	11.7(25)	8.3(20)	12.8(28)
프 랑 스	1.4(26)	11.1(29)	5.9(8)	10.5(26)	10.0(17)	16.2(20)
독 일	0.9(29)	20.0(15)	3.3(15)	28.9(5)	17.2(8)	12.9(27)
이탈리아	1.1(28)	24.1(12)	8.7(6)	33.7(2)	27.7(4)	17.5(17)
스 웨 덴	0.5(33)	13.4(23)	3.4(14)	17.9(16)	6.8(27)	9.6(35)
오스트레일리아	0.3(37)	7.0(37)	1.7(20)	13.8(21)	6.0(30)	13.4(24)

주: 자료연도는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 ()안의 수치는 41개국중 비교 순위임

1) 육, 해, 공을 포함한 모든 교통사고

우리나라, 미국, 캐나다 : 정·난관수술에 의한 피임이 가장 많음

-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전체 피임률은 94년 현재 77.4%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선진국의 70%대 수준과 같은 정도이다. 그중 정·난관 수술에 의한 피임(40.2%)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 미국, 캐나다 등은 정난관 수술에 의한 피임이 가장 많은 나라인 반면, 프랑스, 독일, 스위스, 영국등 대부분 서유럽 국가들은 먹는 피임약에 의한 피임이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표〉 기혼여성의 피임률

(단위 %)

국 가	총 계	먹 는 피임약	자궁내 장 치	콘 돔	정난관 수 술	기 타
한 국	77.4	1.8	10.5	14.3	40.2	10.6
미 국	74.3	15.1	1.5	10.6	36.3	10.9
캐나다	73.1	11.0	5.8	7.9	43.5	5.1
프랑스	79.9	27.0	24.4	4.2	8.7	15.6
독 일 ¹	77.9	33.7	14.6	5.7	12.4	11.3
스위스	71.2	28.0	10.6	8.4	15.8	8.5
영 국	72.0	25.0	6.0	16.0	23.0	8.0

주. 국가에 따라 약간의 연도차이가 있음

1) 서독자료

우리나라 흡연을 줄어드는 추세

- 우리나라 남녀 흡연율은 89년에 각각 75.4%, 7.6%에서 92년에 각각 73.2%, 6.1%, 95년에 각각 73.0%, 6.0%를 기록하여 많은 양은 아니지만 줄어드는 추세에 있음을 볼 수 있다.
- 주로 동양권 사회에서 높은 흡연율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 남자 61.2% 여자 14.2%로 우리나라보다 남자는 낮은 수치를, 여자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남자 흡연율이 여자보다 월등히 높은(약 10배)비율을 나타낸 반면, 선진국은 남·녀가 비슷한 흡연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20~40%대 수준이다.

〈표〉 흡연율

(단위 : %)

국 가	연도	남 자	여 자
한 국 ¹	92	73.2	6.1
일 본	91	61.2	14.2
미 국	90	28.4	22.8
덴 마 크	91	47.3	40.6
프 랑 스	90	37.8	19.2
네덜란드	90	39.0	31.0
영 국	90	31.0	29.0
캐 나 다	91	27.1	26.3

주 : 1) 한국은 20세이상 남녀대상이나 다른나라는 15세 이상 남녀대상임
95년 남자 : 73.0%, 여자 : 6.0%

AIDS 감염자수 : 미국이 최고

○ UN 통계연감 자료에 의한 93년 12월 기준으로 누적된 AIDS감염자수 자료에 의하면 미국(388,434명)이 세계 총AIDS감염자 (93년 851,628, 94년 1,025,073명, 95년 1,291,810명)의 45.6%를 나타내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어서 브라질(53,217명), 우간다(43,875명), 케냐(30,126명), 잠비아(29,734명), 프랑스(28,671명), 짐바브웨(27,905명)가 많은 감염자를 나타내고 있어서,

— 성이 개방적인 서구권 국가 및 아프리카에 많은 감염자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우리나라는 서구권국가보다는 훨씬 낮지만 AIDS감염자 수가 92년에 2명, 93년에 8명, 94년에 11명, 95년에 14명을 기록하여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95년 12월 누적 AIDS 감염자수는 41명을 기록하였다.
- 일본의 경우, 92년 90명, 93년 147명을 기록하여 매년 100명이 넘는 감염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93년 12월 누적 감염자수는 685명을 기록하고 있다.
- 아시아 나라중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를 기록하고 있는 타이(8,193명) 역시 성이 개방적인 국가중의 하나임을 암시하고 있다.

(※ 여기서 감염자수는 환자수를 의미함)

13. 교육 및 연구개발

고등교육취학률 : 남자취학률이 여자의 1.7배

- 우리나라 94년 현재 유치원교육 취학률은 80%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 62%, 캐나다 58%, 영국 27%, 일본 49%보다도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서 아동교육에 상당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 교육대학, 기술대학 등을 포함한 초급대학 이상의 교육을 의미하는 고등교육 취학률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94년 현재 50.8%를 기록하여 캐나다(102.9%), 미국(80.6%), 핀란드(63.2%), 뉴질랜드(57.5%)에 이어 5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 고등교육 취학률을 남녀성비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남자 63.6%, 여자 37.3%로 남자취학률이 여자보다 1.7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에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노르웨이, 영국 등은 여자의 고등교육 취학률이 남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고등교육 취학률

(단위 : %)

국 가	연도	총 계	남 자	여 자
한 국 ¹	94	50.8	63.6	37.3
중 국	93	3.8	5.3	2.3
캐 나 다 ²	92	102.9	94.2	111.8
오스트리아	93	43.2	44.6	41.8
핀 란 드	93	63.2	58.2	68.5
프 랑 스	93	49.5	43.9	55.2
독 일	93	35.6	41.1	29.7
노르웨이	93	54.4	49.2	59.9
영 국	92	37.4	36.9	37.9

주 : 1) 95년 총계 54.6%

2) 고등교육은 직업교육도 포함

교사 1인당 학생수 : 선진국에 비해 많아

○ 교사 1인당 학생수를 보면 95년 현재 우리나라는 초등, 중등, 고등교육이 각각 28.2명, 23.4명, 26.3명을 기록하고 있어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해 교사 1인당 학생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초등교육의 경우 일본,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는 교사 1인당 학생수가 20명보다 적은 수를 나타내고 있고, 캐나다, 중국, 영국은 30명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중등교육의 경우 대부분 선진국이 15명대 수준이다.

— 고등교육의 경우 중국, 오스트리아는 10명미만 수준이고, 미국, 영국은 17명 수준이다.

○ 여교사의 비율은 95년 현재 우리나라는 초등 56%, 중등 37%, 고등 23%를 나타내고 있어서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 대부분 선진국의 초등 여교사 비율은 90%대 수준이며, 중등 여교사 비율은 40~60%대 수준이며, 고등 여교사 비율은 20~30%대 수준이다.

<표> 교사 1인당 학생수 및 여교사 비율(1993)

(단위 : 명, %)

국 가	교사 1인당 학생수			여교사 비율		
	초 등	중 등	고 등	초 등	중 등	고 등
한 국 ¹	28.2	23.4	26.3 ²	56	37	23
중 국	31	15	9	94	35	30
일 본	19	16 ³	10 ³	94	31 ³	16 ³
캐 나 다	31 ⁴	16 ⁴	30	69 ⁴	53 ⁴	30
미 국	-	15	17	-	54	35 ⁵
오스트리아	18	9	9	98	56	25
독 일	20	15	-	97	45	-
이탈리아	13	8	28	99	63	-
스 페 인	22	16	19 ⁴	96	50	30 ⁴
영 국 ⁴	35	-	17	100	-	21

주 1) 95년자료

2) 4년제 대학 이상

3) 91년자료

4) 92년자료

5) 90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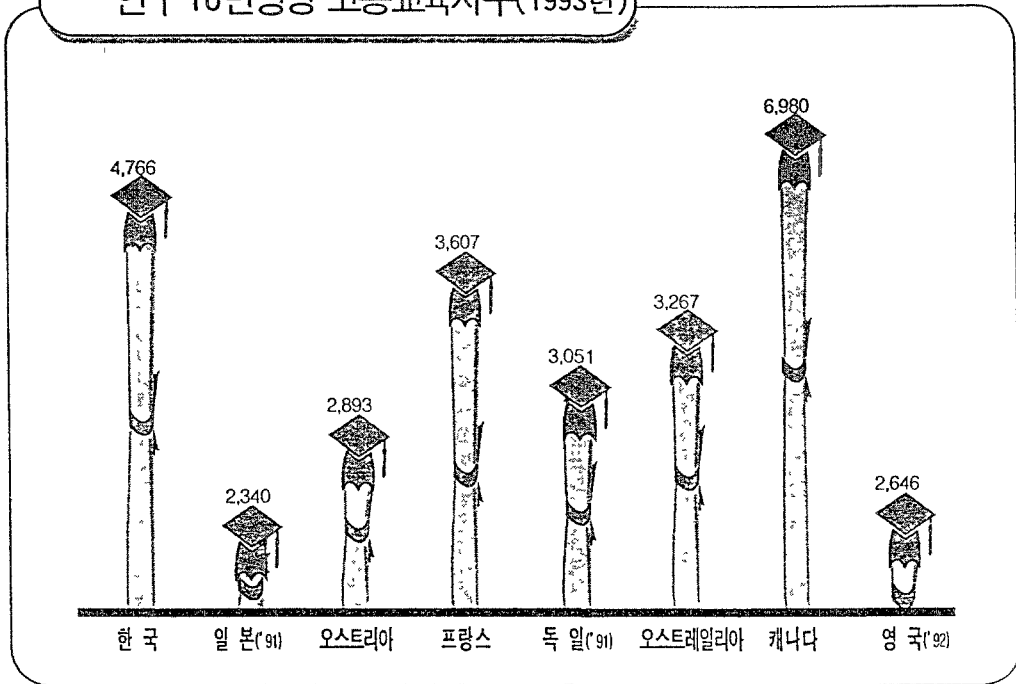
인구 10만명당 고등교육자수 : 3위 수준

○ 인구 10만명당 고등교육재학생수는 80년을 100으로 보았을때 93년의 증가분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280%를 기록하여 10개국중 최고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 캐나다 146%, 미국 106%, 독일 154%, 일본 113%를 보여주고 있음.

○ 그 뿐만 아니라 실제 고등교육재학생수를 비교해 보아도 93년 현재 우리나라는 4,766명(95년 5,226명)으로 캐나다(6,980), 미국(5,611)에 이어 3위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인구 10만명당 고등교육자수(1993년)



<표> 인구 10만명당 고등교육자수(1993)

(단위 명, %)

국 가	고등교육자수	80년 대비 증가분
한 국	4,766 ¹	280
캐 나 다	6,980	146
미 국	5,611	106
노르웨이	4,111	212
프 랑 스	3,607	170
오스트레일리아	3,267	147
독 일 ^{2 3}	3,051	154
영 국 ⁴	2,646	180
일 본 ³	2,340	113

주 : 1) 95년 5,22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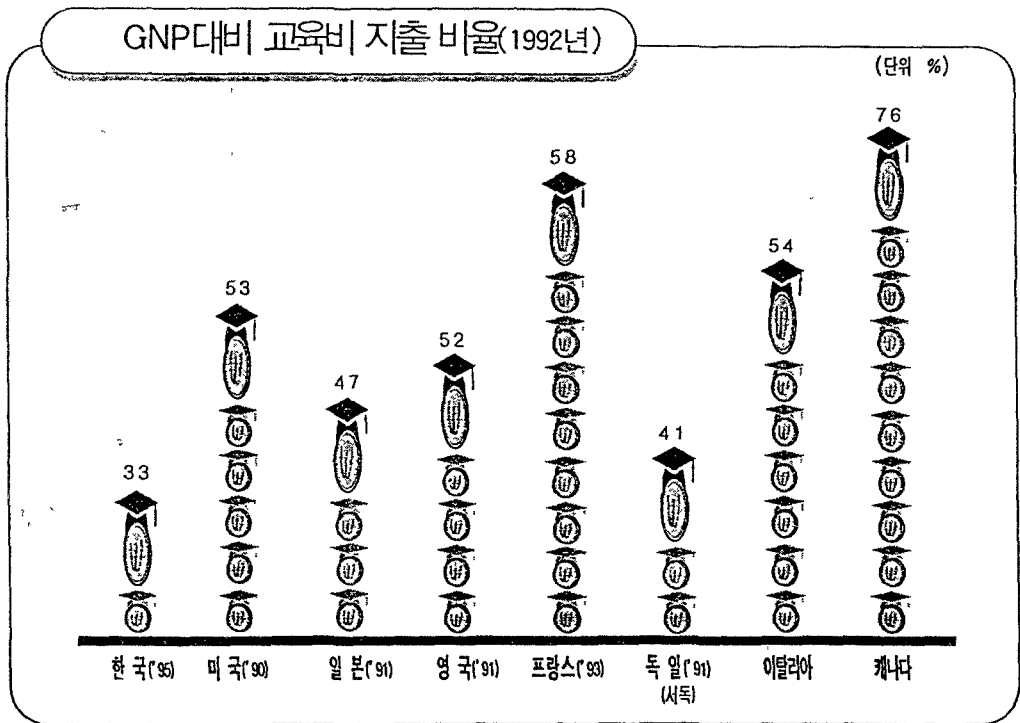
2) 서독자료

3) 1991년 자료

4) 1992년 자료

○ GNP대비 총 교육비지출은 92년 현재 우리나라는 4.2%로 선진국(미국 5.3%, 일본 4.7%, 캐나다 7.6%, 핀란드 7.2%, 노르웨이 8.4%, 영국 5.2%)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5.1%보다도 낮은 편이다.

○ 정부경상지출대비 교육비지출액을 비교해보면 92년 현재 우리나라는 15.3%로써, 미국 12.3%, 오스트리아 8.6%, 독일 12.5%보다 높으나 스위스 19.5%보다는 낮다.



**연구개발비 : 총액으로는 선진국에 뒤떨어지나
GNP대비로는 선진국과 유사**

- 주요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를 비교해 보면, 94년 현재 미국이 1,726억달러, 일본이 1,127억달러, 독일 474억달러, 프랑스 301억달러, 영국 206억달러이고 우리나라는 98억달러이다.
 - GNP대비로는 대부분 2.5%대에 있어서 우리나라(2.6%)는 주요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 연구개발비의 정부부담률은 우리나라는 16%로써, 미국 43%, 프랑스 45%에 비해 훨씬 적은 비율이다.
- 연구원 1인당 연구비는 프랑스가 23만 1,300달러(92년), 일본이 20만 8,200달러(93년), 독일이 18만 6,400달러(91년), 영국이 16만 5,000달러(92년)로 모두 15만달러 이상을 기록한 반면, 우리나라는 8만 3,700달러(94년)로 선진국의 1/2~1/3 수준이다.
- 연구논문 발표건수는 우리나라는 5,814건으로 미국(27만 7,902건)의 2.1%에 해당하며, 세계22위이다.

〈표〉 연구개발투자

(단위 : 억달러, %, 1,000달러, 1,000건)

	연구개발비	GNP대비		연구원 1인당	연구논문
		GNP대비	정부:민간	연구비	발표건수(95)
한 국 (94)	98	2.61 ¹	16:84	83.7	5.8
미 국 ⁴ (94)	1,726	2.56	43:57	166.7 ²	277.9
일 본 (93)	1,127	2.66	20:80	208.2	59.6
독 일 ⁴ (93)	474	2.48	37:63	186.4 ²	54.5
프랑스 ¹ (93)	301	2.41	45:55	231.3 ³	42.5
영 국 ¹ (93)	206	2.19	32:68	165.0 ³	70.4

주 · 연구비의 경우 한국, 일본은 자연과학분야 연구비이며,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은 인문, 사회과학분야 연구비 포함

1) 잠정치

2) 91년 자료

3) 92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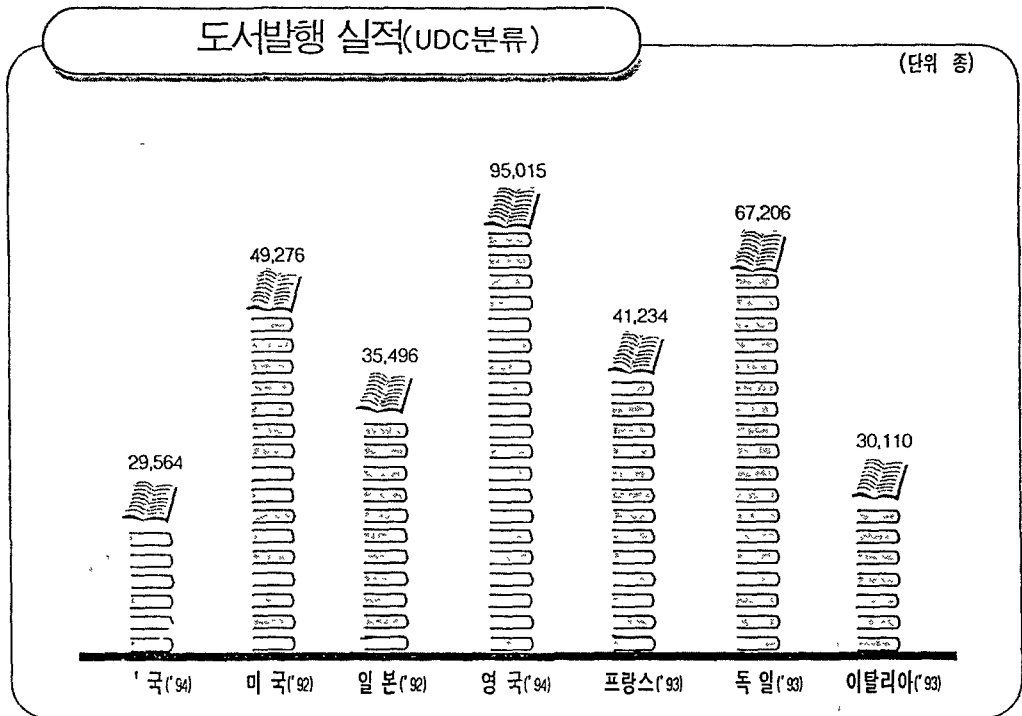
4) 추정치

14. 사회 · 문화 · 주거

영국 : 최고의 도서발행실적

○ 국제 10진분류(Universal Decimal Classification)에 의한 도서발행실적을 보면 우리나라는 94년 현재 총 29,564종의 도서를 발행하여 세계 9위 수준이다.

- 분류별로는 학습교재가 16%, 아동도서가 15%를 기록하여 문학(20.5%)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순수과학이 1.6%를 기록하여 3%대 이상을 발행하는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열악한 편이다. 또한, 사회과학분야(12.0%)도 20%대의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편이다.
- 영국은 95,015종의 도서를 발행하여 세계 1위를 기록하였고, 이어서 독일(67,206종), 미국(49,276종), 프랑스(41,234종), 스페인(40,758종) 순이다.



〈표〉 도서발행 실적(1993)

(단위 : 종수, %)

국 가	총 계	사회과학	순수과학	응용과학	문 학
한 국 ¹	29,564	12.0	1.6	13.1	20.5
일 본 ²	35,496	24.0	3.2	17.7	24.0
캐나다	22,208	27.9	4.2	10.8	14.4
미 국 ²	49,276	20.6	5.5	16.5	17.9
프랑스	41,234	19.1	4.8	13.5	30.1
독 일	67,206	22.0	3.5	14.4	18.6
이탈리아	30,110	20.4	3.7	11.9	25.5
러시아	29,017	16.0	9.5	29.8	26.1
스페인	40,758	20.4	5.2	13.7	27.5
영 국 ¹	95,015	20.8	11.3	11.5	20.1

주: 1) 1994년 자료 2)1992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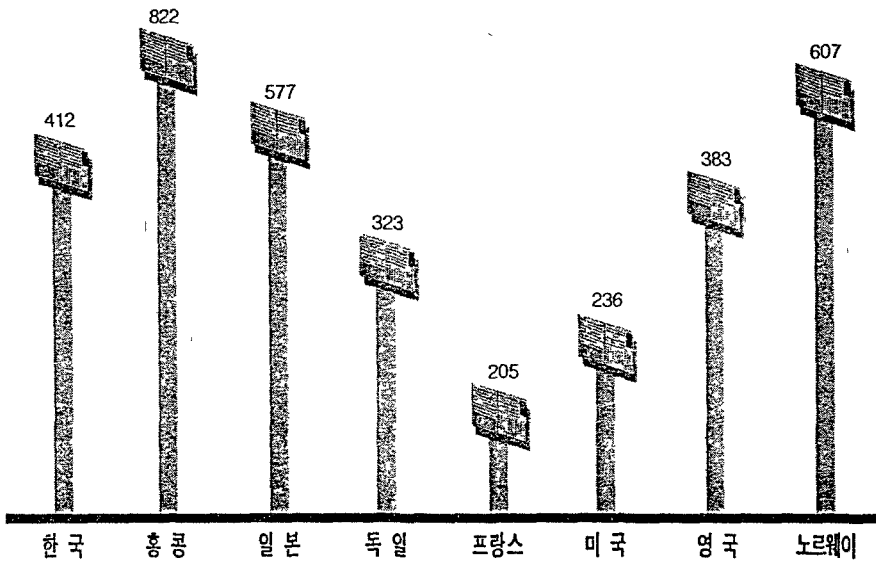
일간신문발행부수 : 7위 수준

○ 인구 천명당 일간신문발행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92년 현재 412부로 세계 7위 수준이다.

— 홍콩은 822부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어서 노르웨이(607), 일본(577), 아이슬란드(519), 핀란드(512), 스웨덴(511), 오스트리아(398), 영국(383), 스위스(377), 룩셈부르크(372) 순이었으며,

— 인구 천명당 많은 부수를 낸 국가는 유럽쪽의 국가임을 보여주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일간신문 발행부수(1992년)



우리나라 영화수입건수는 영화제작건수의 5.5배

○ UNESCO 통계연감에 따르면, 각 국가별 영화제작은 인도가 838편으로 가장 많은 영화를 제작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홍콩(247), 일본(238), 미국(210), 타이(194), 프랑스(152) 순이다.

— 그러나 수출에 있어서는 미국이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각 국에서 수입된 영화중 미국영화가 차지하는 영역은 대부분 50% 이상이며 다음으로 프랑스 영화가 차지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93년 현재 영화를 63편 제작한 반면 5.5배가 되는 347편의 영화를 수입하여 세계 12번째로 많이 수입하고 있다.

- 1인당 연간 영화관람횟수는 1.1을 기록하고 있어 선진국인 캐나다(2.8), 미국(3.9), 덴마크(2.0), 프랑스(2.3), 영국(2.0)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표> 영화제작 및 수입편수(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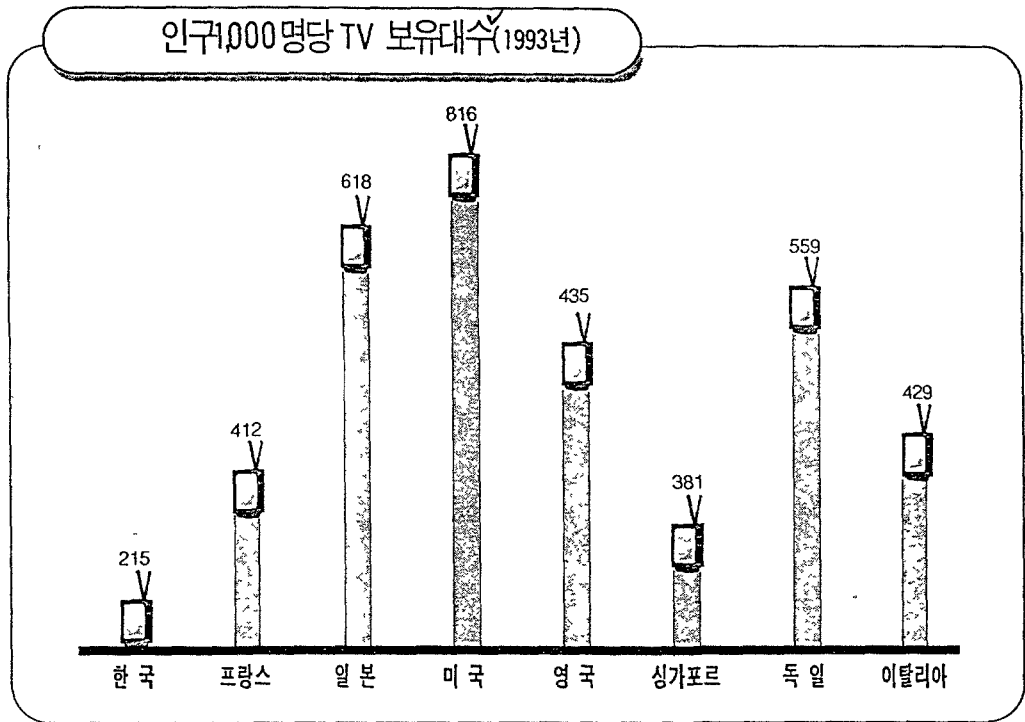
국 가	자국제작 영화편수	총수입편수		1인당연간 관람회수	
		미국(%)	프랑스(%)		
한 국	63	347	51.9	7.8	1.1
일 본	238	352	59.7	13.1	1.1
캐 나 다	22	1,115 ¹	63.9 ¹	14.0 ¹	2.8 ¹
미 국	210	-	-	-	3.9 ²
프 랑 스	152	226	55.8	-	2.3
독 일	67	196	66.3	10.7	1.6
이탈리아	105	292	65.8	7.2	1.6
스 웨 덴	29	203	48.8	13.3	1.8
오스트레일리아	23	236	72.5	6.8	3.0

주 1) 1990년 자료 2) 1991년 자료

텔레비전 및 라디오 보유대수 : 41위, 6위

- 인구 천명당 텔레비전 및 라디오 보유대수를 보면, 93년 현재 우리나라는 텔레비전 215대, 라디오 1,013대를 기록하여 각각 세계 41위 및 6위수준으로 나타났다.

○ 미국은 인구 천명당 텔레비전(816대)이나 라디오(2,120대) 보유대수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본은 텔레비전(618대)은 4위, 라디오(911대)는 11위를 기록하고 있어 일본 역시 소득수준에 비해서 문화시설은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00명당 텔레비전 및 라디오 보유수(1993)

(단위 : 대)

국 가	텔레비전(순위)	라디오(순위)
한 국	215 (41)	1,013 (6)
일 본	618 (4)	911 (11)
캐 나 다	618 (4)	992 (9)
미 국	816 (1)	2,120 (1)
프 랑 스	412 (20)	890 (13)
독 일	559 (6)	890 (13)
이탈리아	429 (17)	802 (18)
스 웨 덴	470 (12)	879 (16)
영 국	435 (15)	1,146 (4)

도로교통사고 발생건수 : 3위, 사망자수 : 6위 수준

- 세계도로통계(World Road Statistics)자료에 의한 70개 국의 인구 10만명당 도로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를 비교하면, 94년 현재 우리나라는 598.6건의 도로교통사고 발생건수를 기록 하여 세계 3위로 많은 사고발생이 있으며,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22.7명을 기록하여 세계 6위로 나타났다.

— 교통사고 발생건수로는 일본이 583.6건으로 5위, 미국은 871.9건으로 2위, 캐나다는 592.9건으로 4위, 오스트리아는 530.6건으로 7위 수준이다.

— 사망자수를 보면, 일본 8.5명으로 47위, 독일 12.1명으로 29위, 미국 15.5명으로 17위, 오스트리아 16.9명으로 12위 수준이다.

○ 1억 주행 km당 사망자수는 93년 현재 우리나라는 6.5명으로 나타났으며, 일본(94년, 1.5명), 미국(92년, 1.1명), 프랑스(94년, 1.8명), 영국(94년, 0.86명)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있다.

15. 환 경

수질오염 : 한강 - 비교적 양호, 낙동강 - 비교적 높은 편

- 세계 주요강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을 보면 중국 황하강은 87~91년에 1.84mg/ℓ, 일본 사가미강은 88~92년에 1.71mg/ℓ, 헝가리 다뉴브강은 88~92년에 5.29mg/ℓ, 영국 에세강은 84~88년에 1.43mg/ℓ을 기록하고 있으며,
 - 우리나라는 한강(팔당댐)이 90~94년에 1.32mg/ℓ를 나타내고 있어서 상수원수 1급(1 BOD이하)에 조금 미달하며, 상수원수 2급 또는 수산용수 1급(3 BOD이하)에 해당하여 한강의 오염정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며,
 - 낙동강은 3.66mg/ℓ로 상수원수 3급, 수산용수 2급, 공업용수 1급(6 BOD 이하)에 해당하여 비교적 오염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을 비교하면, 헝가리 다뉴브강은 88~92년에 20.72mg/ℓ, 영국 템즈강은 84~88년에 21.84mg/ℓ, 포르투갈 테조강은 88~92년에 15.61mg/ℓ, 멕시코 블랑코강이 87~91년에 64.61mg/ℓ를 나타낸 반면 우리나라는 90~94년에 한강(팔당댐) 2.36mg/ℓ, 낙동강 6.56mg/ℓ를 기록하여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 방출량 : 14위

○ 대기중에 온실효과를 일으키며 자동차 배기가스나 각종 재료의 에너지변환 등에 의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₂) 방출량은 91년 현재 우리나라가 7,222.9만톤으로 세계 14위 방출국으로 기록되었다.

— 미국(134,596.9만톤)은 세계1위로써, 2위인 러시아(97,739.6만톤)보다 1.4배 많은 방출량이다.

1인당 프레온가스와 하론 소비량 : 27위

○ 오존층의 파괴물질로써 냉매, 에어로졸 분사제, 세척제, 화재진압용 소화제 등으로 널리 쓰이는 프레온가스(CFCs)와 하론(Halons)의 1인당 소비량은 우리나라가 0.23kg으로 세계 27위이다.

— 최다소비국가는 싱가포르(1.44kg)이고 이어 영국(1.27kg), 독일(1.19kg), 프랑스(1.12kg)순이다.

<표> 이산화탄소(CO₂)배출량(1991)과
1인당 프레온가스(CFCs)와 하론(Halons) 소비량(1990)

(단위 : 1,000톤, kg)

국 가	CO ₂		1인당 프레온가스와 하론	
	배출량(1991)	순위	소비량(1990)	순위
한 국	72,229(1.67)	14(38)	0.23 ¹	27
일 본	297,802(2.40)	4(23)	0.97	7
싱가포르	11,270(4.12)	49(9)	1.44	1
캐 나 다	112,071(3.98)	8(10)	0.58	15
미 국	1,345,969(5.33)	1(7)	0.88	8
덴 마 크	17,209(3.34)	34(13)	0.64	12
핀 란 드	14,205(2.84)	43(17)	0.48	17
프 랑 스	102,105(1.79)	10(32)	1.12	4
스 위 스	11,420(1.65)	47(40)	0.04	62
영 국	157,521(2.74)	7(19)	1.27	2
독 일	264,637(3.31)	5(14)	1.19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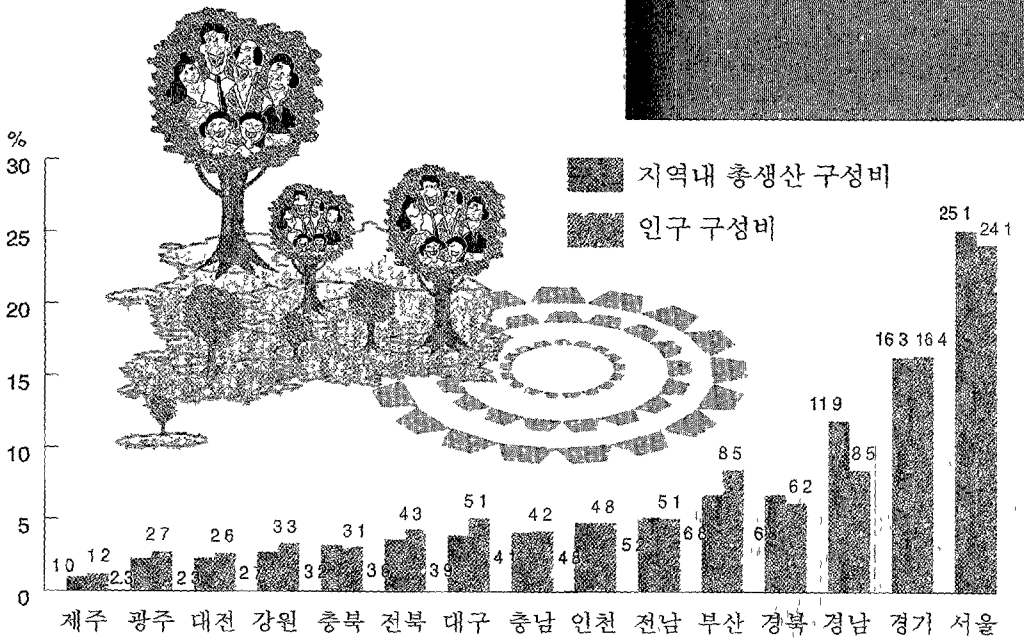
주· ()안의 수치는 1인당 CO₂ 배출량 및 그 순위이며 1위는 카타르(10.66), 2위는 아랍에미리트(9.43), 3위는 룩셈부르크(7.31)임

1) 1986년 자료

여 백

'94년 지역내 총생산

시도별 지역내 총생산 및 인구구성비



지역내 총생산 규모의 상위 3개 지역인 서울, 경기, 경남이 전체 지역내총생산의 53.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경남이 인구에 비해 지역내총생산 구성비가 높게 나타났다.

1994년
지역내총생산

1996. 6

통계조사국 통계분석과

1. 지역내총생산 개요

1. 지역내총생산 추계목적

- 지역내총생산은 지역경제실태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종합경제지표로서, 각종 지역관련정책이나 계획의 수립 및 지역관련 연구시 기초자료로 활용됨
 - 특히, 지방자치제도의 진전에 따라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봄
- 지역내총생산은 각종 지역단위통계를 기초로 작성되므로 동 통계작성과정을 통하여 지역통계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2. 지역내총생산 추계경위

- '83년 5월 : 지역소득통계 개발 기본계획 수립
- '84~'85년 : 충청남·북도 지역내총생산추계 시산
- '86~'96년 : 15개 시도 지역내총생산 추계
 - '93년 : '85~'91년도분 추계결과 공표
 - '94년 : '92년도분 추계결과 공표 및 기준년도('90년기준) 개편
 - '95년 : '93년도분 추계결과 공표
 - '96년 : '94년도분 추계결과 공표

3. 지역내총생산의 개념

○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은 한 지역내에서 가계·기업·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창출한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합계임

- 『지역내총생산』은 지역별·경제활동별로 발생된 생산측면의 부가가치(소득)임

· 따라서 발생된 소득이 지역간 이전을 통해 최종적으로 어느 지역주민에게 귀착되었는가를 나타내 주는 분배측면의 소득과는 차이가 있음

<지역소득(생산·지출·분배)지표의 포괄범위>

①총산출	지 역 내 총 생 산				중간 투입
②지역내 총생산	비용자보수	영업잉여	순간접세 (간접세-보조금)	고정자본 소모	
③지역민 총생산	지역외로부터 의 순요소소득	비용자보수	영업잉여	순간접세 (간접세-보조금)	고정자본 소모
④지역민 소득(분배)	지역외로부터 의 순요소소득	비용자보수	영업잉여		
⑤지역내 총지출	민간최종소비지출	정부최종 소비지출	지역내총 자본형성	이출-이입	

II . '94년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추계 결과

1. 지역내총생산(경상가격)

○ '94년도 15개 시도의 지역내총생산은 305조 9,735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8조 4,192억원(14.4%)이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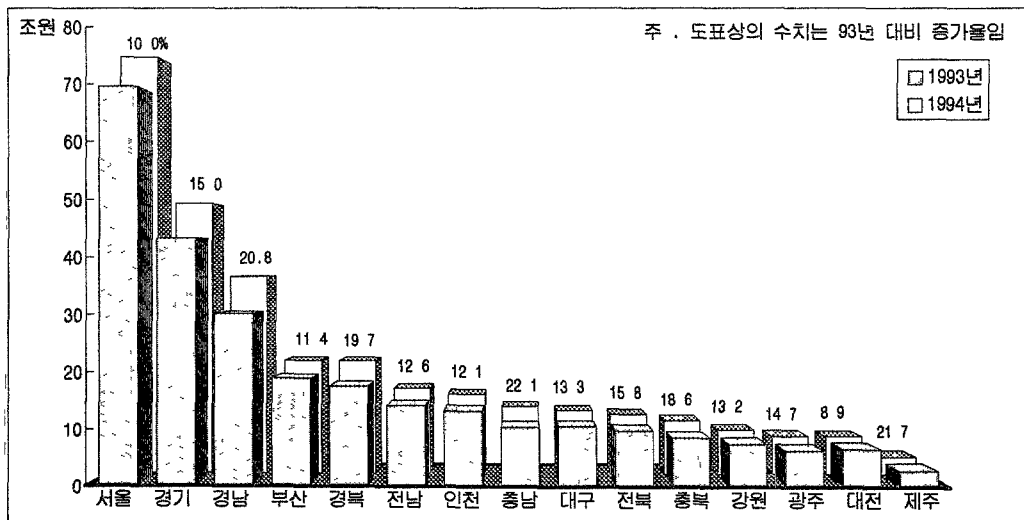
- 시도별로 지역내총생산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 크게 증가한 지역: 충남(22.1%), 제주(21.7%), 경남(20.8%)
- 작게 증가한 지역: 대전(8.9%), 서울(10.0%), 부산(11.4%)

- 시도별 총생산은 서울, 경기, 경남 순이며, 이들 상위 3개 지역의 지역내총생산이 전국의 53.3%를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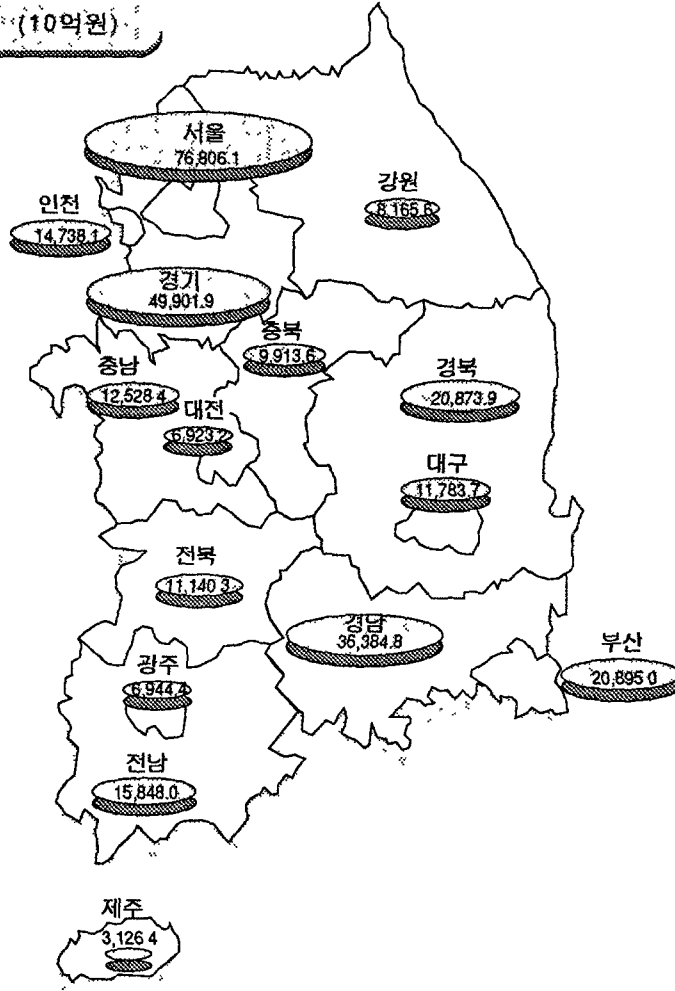
- 규모 상위 3개 지역: 서울(25.1%), 경기(16.3%), 경남(11.9%)
- 규모 하위 3개 지역: 제주(1.0%), 대전(2.3%), 광주(2.3%)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및 증가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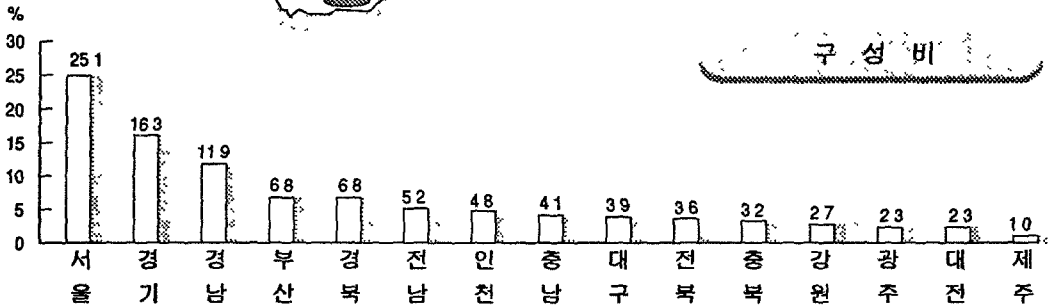


1994년 시·도내 총생산 규모 및 구성비

총생산 규모 (10억원)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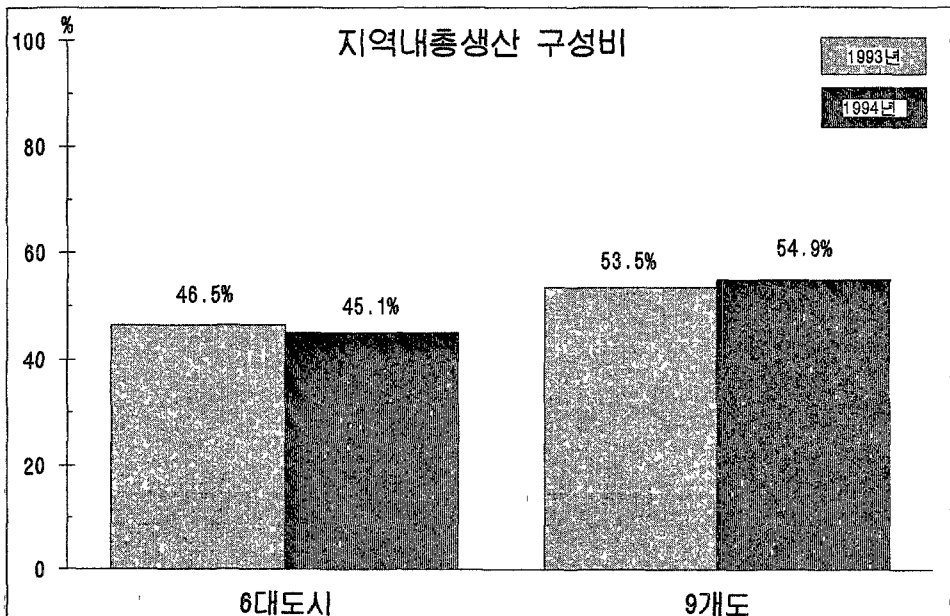
○ 지역을 대도시와 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 전 국토면적의 2.9%에 불과한 6대 도시의 지역내총생산은 전체의 45.1%이며 전년에 비해 1.4%포인트 감소함

· 이는 총규모의 25.1%를 차지하는 서울의 지역내총생산이 건설업의 마이너스 성장 등으로 인하여 전년에 비해 1.0%포인트 감소한 것 등에 기인함

	지역내총생산(10억원)		구성비(%)		
	'93년	'94년	'93년	'94년	전년대비
6대 도시 (서울)	124,526.4 (69,821.9)	138,090.6 (76,806.1)	46.5 (26.1)	45.1 (25.1)	△1.4%P (△1.0%P)
9개 도	143,028.0	167,882.9	53.5	54.9	1.4%P

- 따라서 9개 도의 지역내총생산 구성비는 전년에 비해 1.4%포인트가 증가한 54.9%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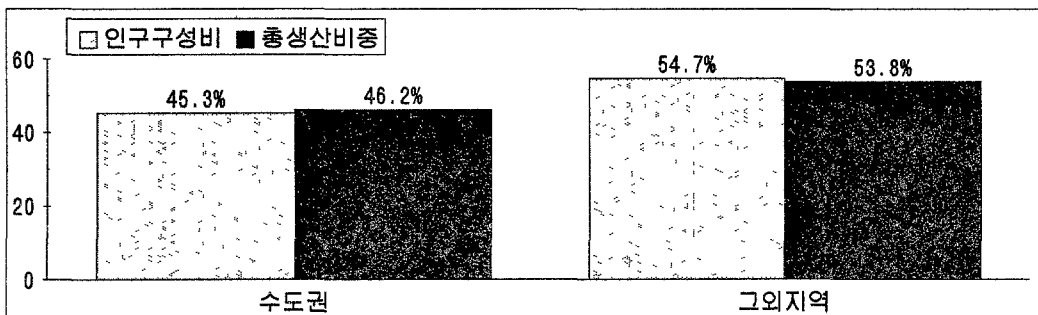


2. 인구구성비와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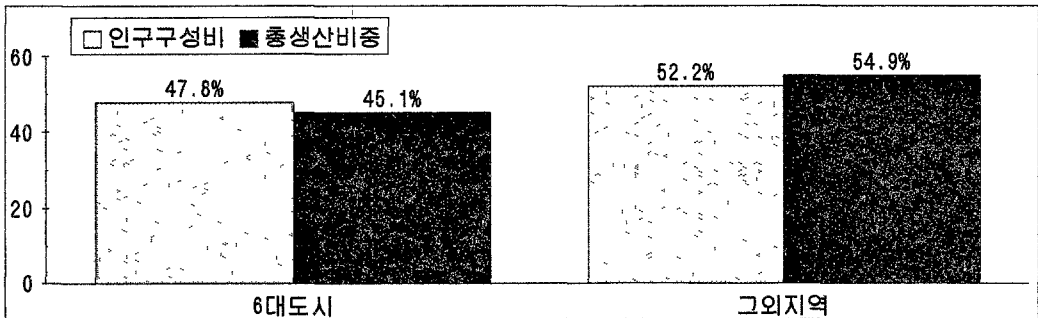
○ 15개 시도별 지역내총생산을 인구 구성비와 비교하면,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지역내총생산 구성비는 46.2%로서 전년의 47.2%에 비해서는 1.0%포인트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인구구성비 (45.3%)보다는 높은 수준임

	지역내총생산 구성비		인구 구성비	
	'93	'94	'93	'94
·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47.2%	46.2%	44.6%	45.3%



- 서울 등 6대 도시의 지역내총생산 구성비는 전체의 45.1%로 전년에 비해 1.4%포인트가 감소했으나 인구구성비는 전년과 같은 47.8%임



지역내총생산 및 인구구성비 비교

(단위: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도내총생산(A)	25.1	6.8	3.9	4.8	2.3	2.3	16.3	2.7	3.2	4.1	3.6	5.2	6.8	11.9	1.0
인 구 (B)	24.1	8.5	5.1	4.8	2.7	2.6	16.4	3.3	3.1	4.2	4.3	5.1	6.2	8.5	1.2
차 이 (A - B)	1.0	-1.7	-1.2	0.0	-0.4	-0.3	-0.1	-0.6	0.1	-0.1	-0.7	0.1	0.6	3.4	-0.2

- 한편 지역내총생산규모의 상위 3개 지역인 서울, 경기, 경남이 전체 지역내총생산의 53.3%를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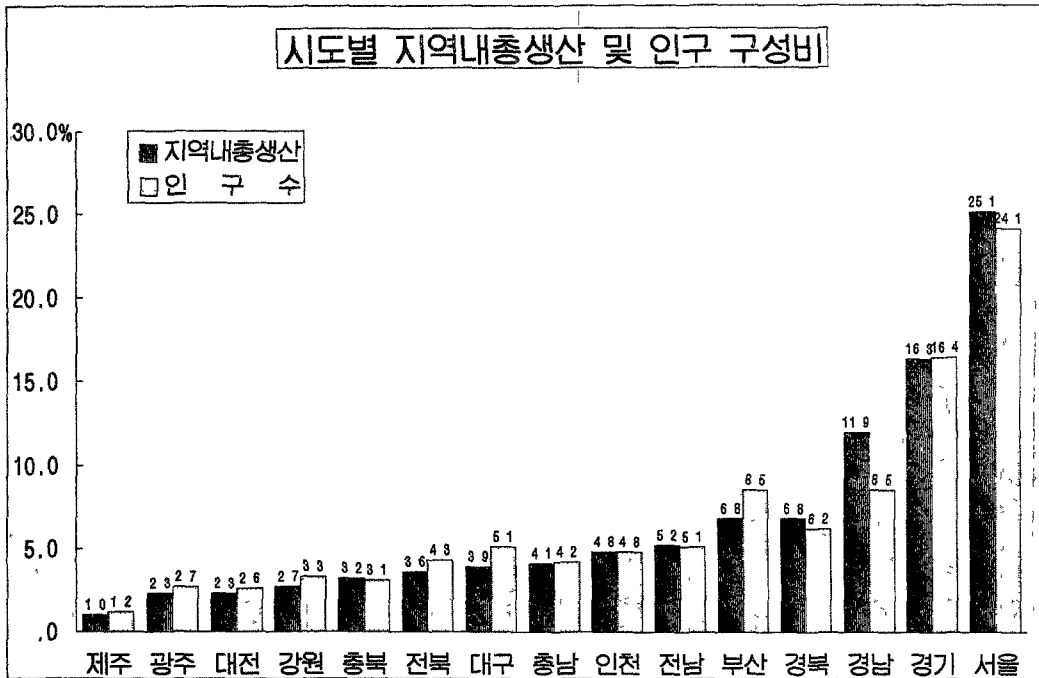
. 특히 경남이 인구에 비해 지역내총생산 구성비가 높게 나타남

	지역내총생산(A)	인 구 (B)	차이(A)-(B)
· 서 울 :	25.1%	24.1%	1.0%p
· 경 기 :	16.3%	16.4%	△0.1%p
· 경 남 :	11.9%	8.5%	3.4%p

- 부산, 대구, 전북, 강원 등이 인구에 비해 총생산의 구성비가 낮게 나타남

· 부산, 대구가 인구에 비해 총생산구성비가가 낮은 이유는 인근 대규모 공단(타지역 소재)으로 통근하는 인구가 많은 점 등에 기인함

	지역내총생산(A)	인 구 (B)	차이 (A)-(B)
· 부 산 :	6.8%	8.5%	△1.7%p
· 대 구 :	3.9%	5.1%	△1.2%p
· 전 북 :	3.6%	4.3%	△0.7%p
· 강 원 :	2.7%	3.3%	△0.6%p



시도별 지역내총생산(경상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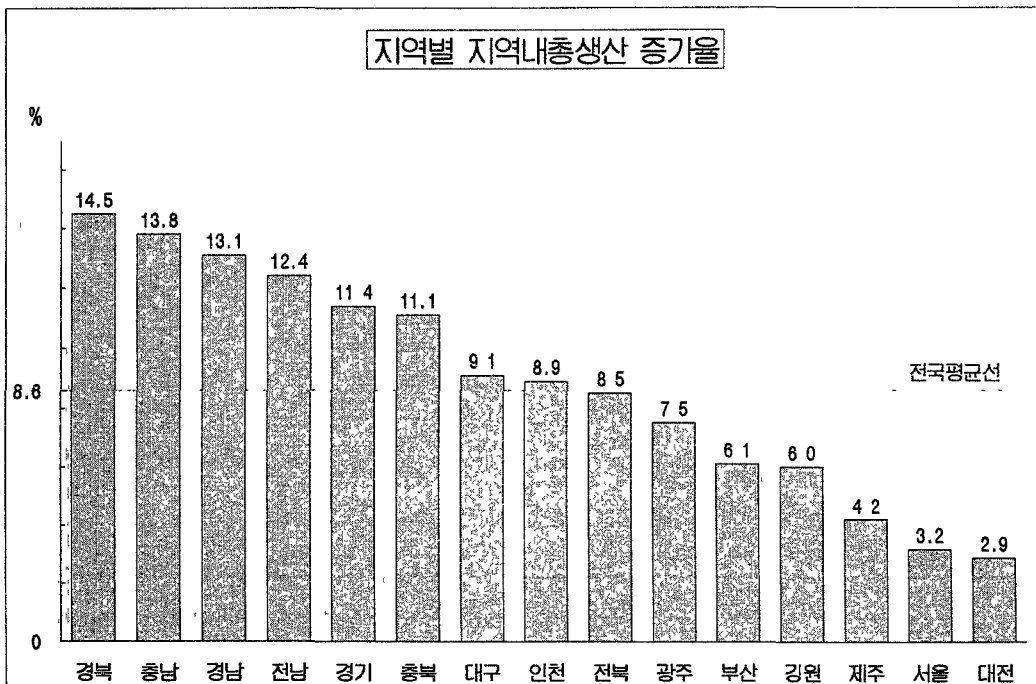
(단위: 10억원, %)

지역	금 액		증 가 율		구 성 비		비 고 ('94년 인구 구성비)
	'93년	'94년	'93년	'94년	'93년	'94년	
서울	69,821.9	76,806.1	13.5	10.0	26.1	25.1	24.1
부산	18,749.3	20,895.0	10.4	11.4	7.0	6.8	8.5
대구	10,398.1	11,783.7	10.9	13.3	3.9	3.9	5.1
인천	13,147.2	14,738.1	9.4	12.1	4.9	4.8	4.8
광주	6,053.2	6,944.4	14.0	14.7	2.3	2.3	2.7
대전	6,356.7	6,923.2	12.0	8.9	2.4	2.3	2.6
경기	43,380.7	49,901.9	12.1	15.0	16.2	16.3	16.4
강원	7,214.8	8,165.6	7.5	13.2	2.7	2.7	3.3
충북	8,357.4	9,913.6	15.1	18.6	3.1	3.2	3.1
충남	10,263.2	12,528.4	13.7	22.1	3.8	4.1	4.2
전북	9,618.3	11,140.3	11.0	15.8	3.6	3.6	4.3
전남	14,071.4	15,848.0	11.0	12.6	5.3	5.2	5.1
경북	17,432.2	20,873.9	8.0	19.7	6.5	6.8	6.2
경남	30,120.5	36,384.8	5.0	20.8	11.3	11.9	8.5
제주	2,569.5	3,126.4	8.8	21.7	1.0	1.0	1.2
합계	267,554.3	305,973.5	10.9	14.4	100.0	100.0	100.0

3. 시도별 경제성장률 (불변가격)

○ '94년도 15개 시도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8.6%로 전년의 6.4%보다 높은 증가를 보였음

- 이는 제조업의 높은 성장에 힘입음
- 지역별로는 전 산업에서 고르게 높은 성장세를 보인 경북, 충남, 경남, 전남 등이 높은 성장을 나타냄
 - 경북(14.5%), 충남(13.8%), 경남(13.1%), 전남(12.4%)
- 서울과 대전은 건설업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제주는 농림어업의 부진으로 낮은 성장을 나타냄
 - 대전 (2.9%), 서울 (3.2%), 제주 (4.2%)



시도별 산업의 불변생산액 및 증가율(1990년 불변가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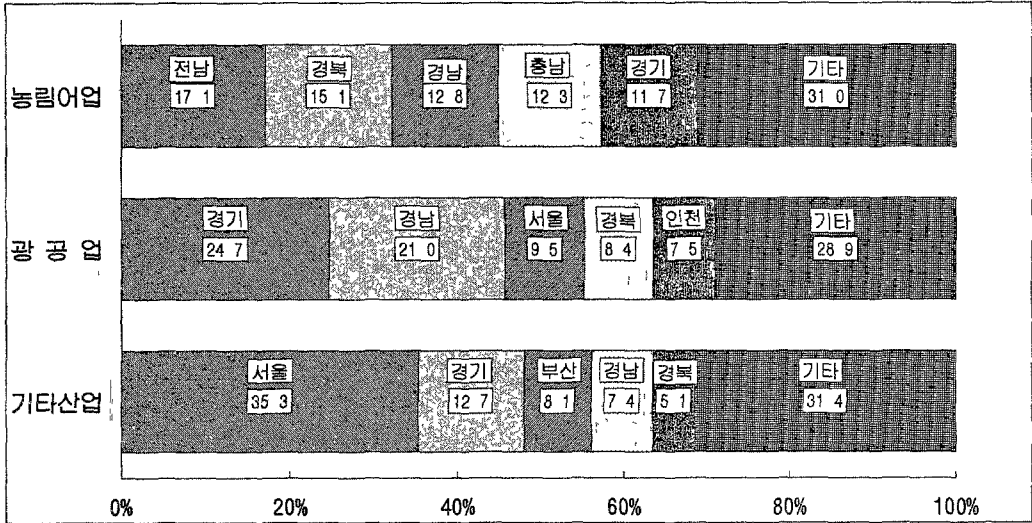
(단위: 10억원, %)

	'93년			'94년			증가율		
	농림 어업	광공업	기타 산업	농림 어업	광공업	기타 산업	농림 어업	광공업	기타 산업
서울	205	6,723	50,326	231	7,051	51,789	13.0	4.9	2.9
부산	407	3,856	10,943	409	3,735	11,988	0.4	-3.1	9.5
대구	56	2,097	6,250	46	2,330	6,791	-17.6	11.1	8.6
인천	99	5,216	5,389	97	5,661	5,895	-1.4	8.5	9.4
광주	150	1,352	3,376	157	1,425	3,660	4.9	5.4	8.4
대전	52	1,363	3,764	48	1,368	3,912	-7.3	0.4	3.9
경기	2,139	17,721	16,817	2,092	20,220	18,534	-2.2	14.1	10.2
강원	747	1,205	3,814	808	1,219	4,087	8.2	1.2	7.2
충북	937	2,503	3,332	911	3,023	3,592	-2.8	20.8	7.8
충남	2,002	1,558	4,386	2,061	1,909	5,070	3.0	22.5	15.6
전북	1,701	1,710	4,192	1,671	1,927	4,656	-1.8	12.7	11.1
전남	2,785	3,562	5,244	2,855	4,115	6,053	2.5	15.5	15.4
경북	2,287	5,540	6,489	2,430	6,520	7,444	6.3	17.7	14.7
경남	1,981	12,359	9,596	2,051	13,924	11,097	3.5	12.7	15.6
제주	692	96	1,346	656	100	1,467	-5.1	4.7	9.0
합계	16,239	66,861	135,266	16,524	74,525	146,038	1.8	11.5	8.0
전국	16,239	66,861	146,866	16,524	74,525	158,723	1.8	11.5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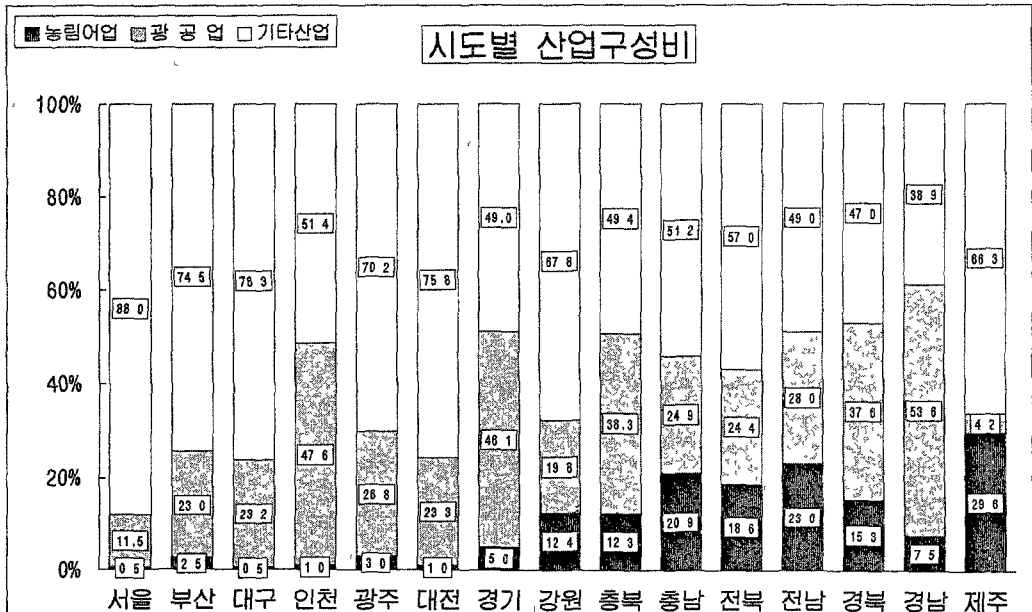
4. 시도별 산업구조 (경상가격)

가. 개 황

(1) 산업의 시도별 구성비(각 산업 전체 생산액에 대한 지역구성비)



(2) 시도별 산업구조(각 시도의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산업의 구성비)



나. 산업의 시도별 구성비 및 시도의 산업별 구성비

산업을 농림어업, 광공업, 기타산업으로 구분하여 '산업별 총생산의 시도별 구성비'와 '지역별 총생산의 산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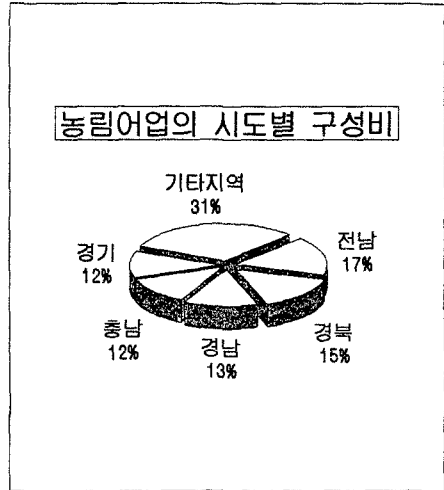
(1) 농림어업

(가) 농림어업의 시도별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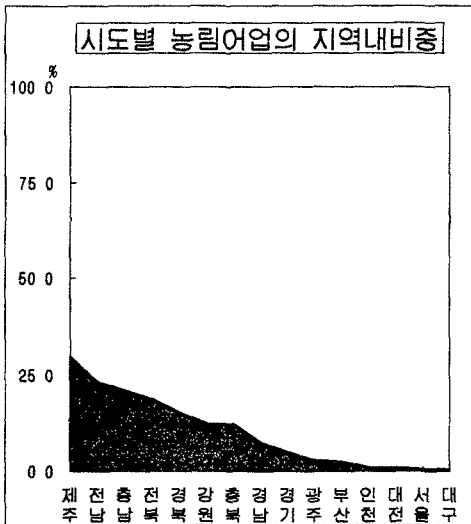
○ 전국의 농림어업 생산액에 대한 시도별 구성비는 경지면적이 넓은 전남, 경북의 순임

- '93년도에 비해서 경북은 미곡, 과일, 육우, 양돈 등의 호조로 농림어업 비중이 0.7%포인트 증가한 반면, 전남은 0.3%포인트 감소함

* 경지면적 비중 : 전남(16.2%), 경북(15.2%)



(나) 시도별 농림어업의 지역내 구성비



○ 각 시도내에서의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농업생산이 전반적으로 부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감소현상을 보임

- 농림어업은 각각 0.7%포인트 증가한 제주, 강원을 제외하고 각 시도의 구성비는 감소하여 전국적으로는 0.1%포인트 감소함
- 농림어업의 구성비가 높은 지역의 전년대비 구성비 증감

	'93년	'94년	증감		'93년	'94년	증감
· 제주	28.9%	29.6%	0.7%p	충남	22.5%	20.9%	△1.6%p
· 전남	23.6%	23.0%	△0.6%p	전북	20.4%	18.6%	△1.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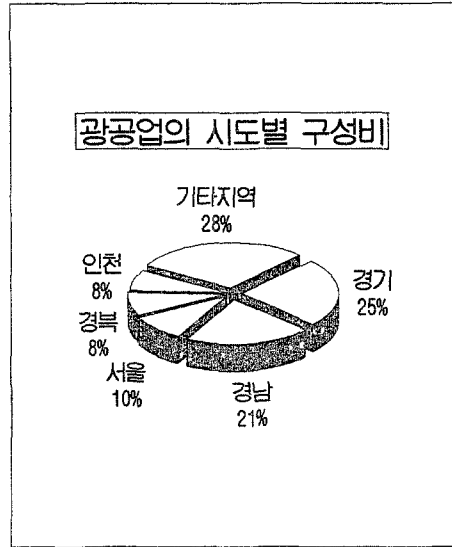
(2) 광 공 업

(가) 광공업의 시도별 구성비

○ 전국의 광공업 생산액에 대한 시도별 광공업 구성비를 보면 경기도와 경남이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이들 지역의 생산액이 전체 광공업 생산액의 45.7%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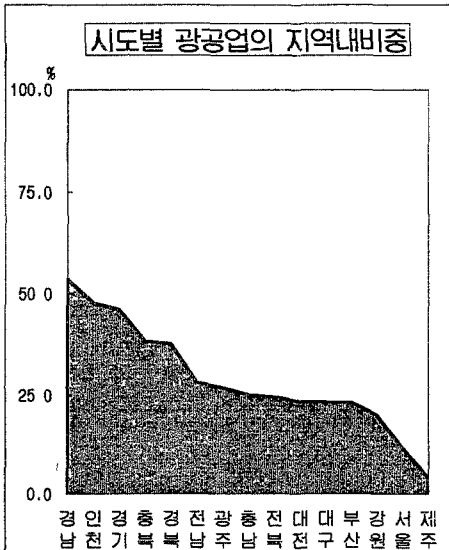
- 경기(24.7%), 경남(21.0%)

- 섬유, 의복, 신발류 등 경공업이 집중되어 있는 6대 도시의 광공업 구성비는 1.8%포인트 감소한 반면, 9개 도는 상대적으로 1.8%포인트 증가함



	'93년(%)	'94년(%)	증감(%p)
· 6대도시 :	30.7	28.8	△1.8
· 9개도 :	69.3	71.2	1.8
(수도권) :	43.0	41.7	△1.3

(나) 시도별 광공업의 지역내 구성비



○ 각 시도내에서의 광공업 구성비는 자동차산업을 비롯한 석유화학 등 중화학 공업이 발달한 경남, 인천, 경기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제주와 서울은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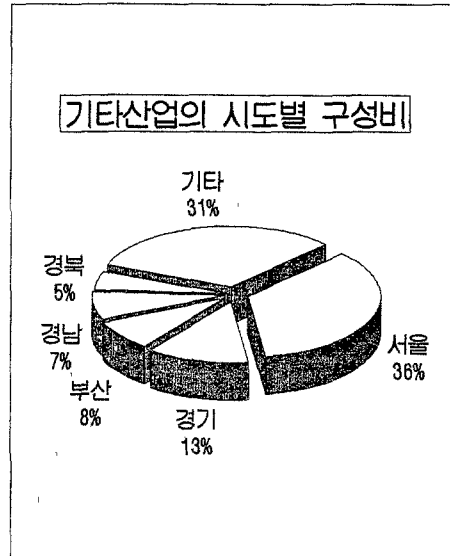
- 광공업 구성비가 높은 지역:
경남(53.6%), 인천(47.6%), 경기(46.1%)
- 광공업 구성비가 낮은 지역:
제주(4.2%), 서울(11.5%)

(3) 기타 산업

(가) 기타산업의 시도별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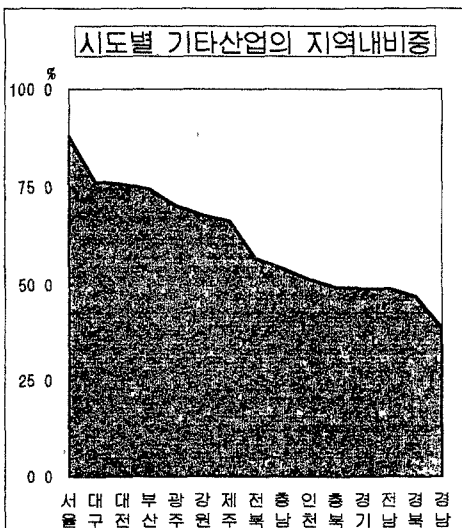
○ 전국의 기타산업 생산액에 대한 기타산업의 구성비를 보면 서울, 경기, 부산 등의 순이며, 이들 지역은 전체 기타산업 생산액의 56.1%를 차지하고 있음

- 서울(35.3%), 경기(12.7%), 부산(8.1%)
- 특히 수도권 지역의 기타산업 비중은 52.0%로 전년에 비해 1.0%포인트 감소하였는데 이는 서울이 건축 허가면적 및 신규발주물량의 감소로 인한 건설경기의 위축 등에 기인함



	'93년	'94년	증감
· 수도권 :	53.0%	52.0%	△1.0%p
서울 :	36.5	35.3	△1.2
경기 :	12.5	12.7	0.2
인천 :	4.0	4.0	0.0

(나) 시도별 기타산업의 지역내 구성비



○ 경남, 충북, 제주를 제외한 각 시도내의 기타산업 구성비가 높아졌으나, 전국의 구성비는 0.1%포인트 낮아짐

산업의 시도별 구성비

(단위: %, %포인트)

	농 립 어 업			광 공 업			기 타 산 업		
	'93년 (A)	'94년 (B)	차이 (B-A)	'93년 (A)	'94년 (B)	차이 (B-A)	'93년 (A)	'94년 (B)	차이 (B-A)
서울	15	17	02	10.3	95	-08	365	353	-12
부산	29	25	-0.4	57	52	-05	81	81	-
대구	03	03	-	30	29	-01	47	47	-
인천	08	07	-01	78	75	-03	4.0	4.0	-
광주	10	1.0	-	20	20	-	25	25	-
대전	03	03	-	18	17	-01	2.9	27	-02
경기	120	117	-0.3	249	247	-02	125	127	02
강원	44	48	04	19	17	-02	29	29	-
충북	6.0	57	-03	37	41	04	25	2.6	01
충남	121	123	02	30	34	04	33	35	02
전북	103	97	-06	29	2.9	-	32	33	01
전남	17.4	171	-03	51	48	-03	39	41	02
경북	144	151	07	81	8.4	03	49	51	02
경남	127	128	0.1	196	210	14	71	74	03
제주	39	43	04	01	01	-	10	11	01
합계	1000	100.0	-	1000	1000	-	1000	1000	-

시도의 산업별 구성비

(단위: %, %포인트)

	'93년 (A)			'94년 (B)			증 감 (B - A)		
	농림 어업	광공업	기타 산업	농림 어업	광공업	기타 산업	농림 어업	광공업	기타 산업
서울	0.4	12.0	87.6	0.5	11.5	88.0	0.1	-0.5	0.4
부산	3.0	24.6	72.5	2.5	23.0	74.5	-0.5	-1.6	2.0
대구	0.5	23.4	76.1	0.5	23.2	76.3	-	-0.2	0.2
인천	1.1	48.1	50.8	1.0	47.6	51.4	-0.1	-0.5	0.6
광주	3.1	26.8	70.2	3.0	26.8	70.2	-0.1	-	-
대전	0.9	23.4	75.7	1.0	23.3	75.8	0.1	-0.1	0.1
경기	5.2	46.4	48.4	5.0	46.1	49.0	-0.2	-0.3	0.6
강원	11.7	20.8	67.5	12.4	19.8	67.8	0.7	-1.0	0.3
충북	13.6	35.5	50.9	12.3	38.3	49.4	-1.3	2.8	-1.5
충남	22.5	23.6	53.9	20.9	24.9	54.2	-1.6	1.3	0.3
전북	20.4	24.0	55.6	18.6	24.4	57.0	-1.8	0.4	1.4
전남	23.6	29.4	47.0	23.0	28.0	49.0	-0.6	-1.4	2.0
경북	15.7	37.5	46.7	15.3	37.6	47.0	-0.4	0.1	0.3
경남	8.1	52.6	39.3	7.5	53.6	38.9	-0.6	1.0	-0.4
제주	28.9	4.5	66.6	29.6	4.2	66.3	0.7	-0.3	-0.3
합계	7.1	30.2	62.7	7.0	30.4	62.6	-0.1	0.2	-0.1
전국	6.8	29.0	64.2	6.7	29.2	64.1	-0.1	0.2	-0.1

5. 시도별 1인당 생산수준(경상가격)

* 1인당 생산수준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시도별 지역내총생산을 그 지역 총인구로 나눈 단순지표임. 따라서 1인당 생산수준으로 시도간 주민소득 수준이나 생활수준 등을 직접 비교할 수는 없음

○ '94년도 전국의 1인당 평균 생산수준은 6,883천원(8,565달러)임

- 전국 1인당 생산수준: 6,883 천원(8,565달러)
 - 국방부문 등 포함시: 7,161 천원(8,911달러)
 - 1인당 국내총생산: 6,883 천원(8,565달러)

○ 시도별로는 전국평균을 100으로 볼 때 경남, 경북, 충북 등이 평균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대구, 부산 등이 평균이하의 수준을 보임

- 경남(139.5), 경북(110.3), 충북(104.9), 서울(104.0), 전남(102.5)
- 대구(76.2), 부산(80.0), 강원(81.9), 광주(83.1), 전북(84.4)

※ 최상위지역(경남:9,601천원)과 최하위지역(대구: 5,244천원)간의 격차가 1.8배로 일본, EU 등 선진국의 경우(2배 이상)보다 낮음.

○ '93년대비 증가율을 보면, 충남, 경북, 제주가 20%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서울, 인천, 대전은 10%이하의 증가율을 보임

- 충남(23.9%), 제주(21.2%), 경북(20.6%)
- 대전(6.1%), 인천(7.7%), 서울(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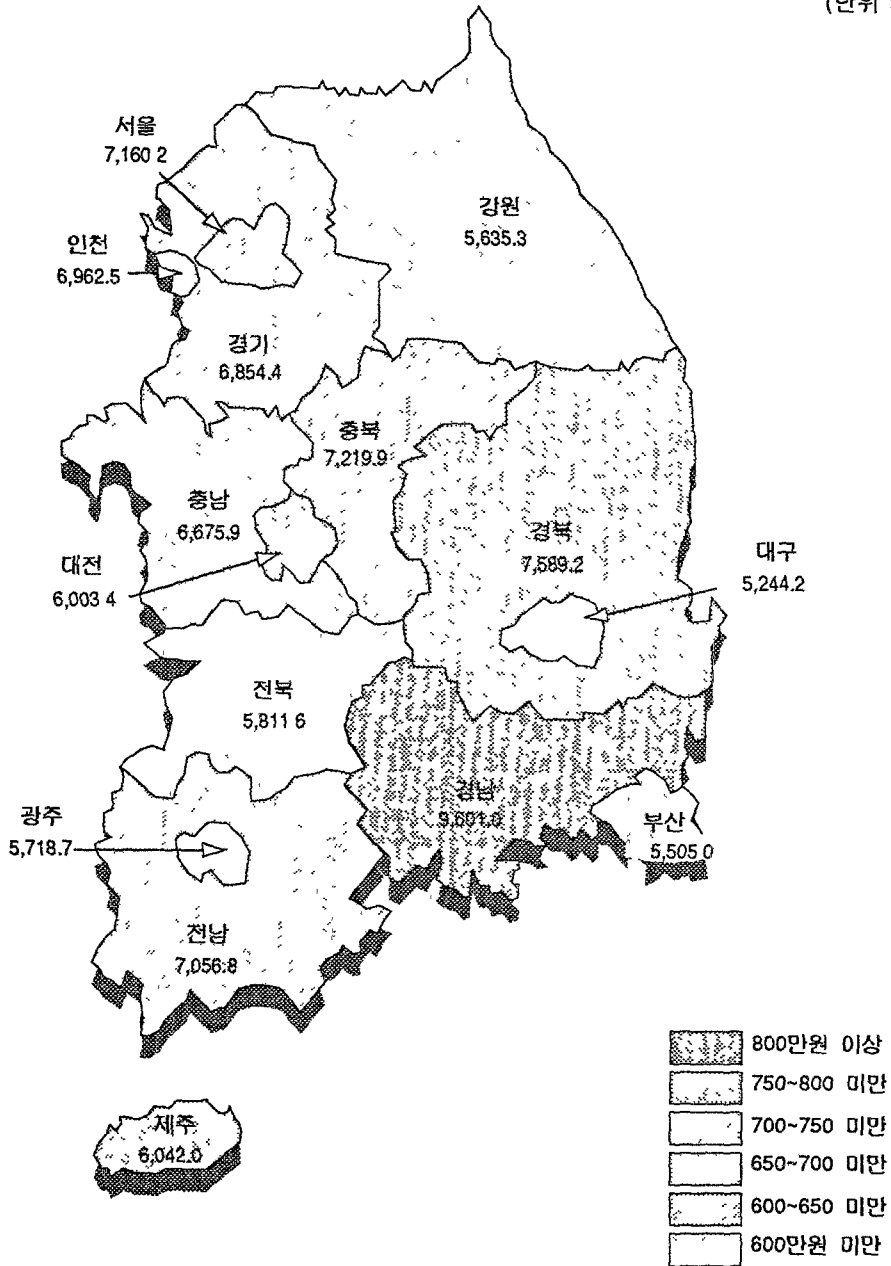
1인당 생산수준 변화

	1인당 지역내총생산 변화					수준지수	
	'93년		'94년		증가율 %	'93년	'94년
	천원	\$	천원	\$			
서울	6,542.3	8,150.3	7,160.2	8,910.1	9.4	107.7	104.0
부산	4,950.8	6,167.7	5,505.0	6,850.4	11.2	81.5	80.0
대구	4,648.1	5,790.5	5,244.2	6,525.9	12.8	76.5	76.2
인천	6,467.4	8,057.0	6,962.5	8,664.1	7.7	106.5	101.2
광주	5,077.4	6,325.4	5,718.7	7,116.3	12.6	83.6	83.1
대전	5,657.1	7,047.6	6,003.4	7,470.7	6.1	93.2	87.2
경기	6,228.9	7,760.0	6,854.4	8,529.6	10.0	102.6	99.6
강원	4,884.0	6,084.4	5,635.3	7,012.6	15.4	80.4	81.9
충북	6,083.0	7,578.1	7,219.9	8,984.5	18.7	100.2	104.9
충남	5,386.2	6,710.1	6,675.9	8,307.5	23.9	88.7	97.0
전북	4,934.0	6,146.8	5,811.6	7,231.9	17.8	81.2	84.4
전남	6,110.1	7,612.0	7,056.8	8,781.5	15.5	100.6	102.5
경북	6,291.2	7,837.5	7,589.2	9,444.0	20.6	103.6	110.3
경남	8,030.0	10,003.8	9,601.0	11,947.4	19.6	132.2	139.5
제주	4,984.5	6,209.6	6,042.0	7,518.7	21.2	82.1	87.8
합계	6,073.0	7,565.8	6,883.1	8,565.3	13.3	100.0	100.0
전국 ¹⁾	6,322.4	7,876.4	7,160.8	8,911.0	13.3	104.1	104.0

주 : 1) 국방부문과 수입세가 포함된 수치임.

1994년 시·도별 1인당 생산수준

(단위 : 천원)



Ⅲ . 관련지표와의 비교

1. 국내총생산(GDP) 추계결과와의 비교

○ 시도별 GDP라 할 수 있는 지역내총생산의 전국 합계(국방부문 및 수입세 포함)와 국내총생산(GDP)은 이론적으로 일치하여야 함

- 그러나 이용기초자료와 접근방법 등의 상이로 4%~5% 정도의 차이 발생

(단위: 10억원)

	'92	'93	'94
지역내총생산(A)	251,842	278,503	318,278
국내총생산(B)	240,392	267,146	305,970
(A) / (B)	104.8	104.3	104.0

주: (A), (B)에는 국방부문과 수입세가 포함되어 있음

* 일본의 현내총생산과 국내총생산 비교

일본의 현내총생산은 국민소득추계기관인 경제기획청에서 각 현에 『현민 소득추계 표준방식』을 시달 작성하고 있으나, 각 현별로 추계시 이용하는 기초자료 상이로 인하여 국내총생산(GDP)과 1%~3% 정도의 차이를 보임

(단위: 10억엔)

	'91	'92	'93
현내총생산(A)	469,363	471,749	473,000
국내총생산(B)	455,888	464,191	466,764
(A) / (B)	103.0	101.6	101.3

자료 : 縣民經濟計算年報(日本經濟企劃廳, '96. 3)
國民經濟計算年報(日本經濟企劃廳, '95. 4)

2. 외국의 관련지표와의 비교

※ 1인당생산수준은 전국평균 6,883천원이고, 최상위지역(경남:9,601천원)과 최하위지역(대구: 5,244천원)간의 격차가 1.8배로 일본, EU 등 선진국의 경우(2배 이상)보다 낮음.

국가	대상 년도	추계지역	1인당 지표				
			단위	전국평균	최상위지역 (A)	최하위지역 (B)	(A)/(B) (배)
한 국	1994	15개 시도	천원	6,883	9,601	5,244	1.8
일 본	1993	47개 都道府縣	천엔	3,037	4,395	2,108	2.1
미 국	1994	50개 주	\$	21,809	29,402	15,838	1.9
중 국	1993	30개 지구	元	2,909	11,700	1,034	11.3
캐나다	1993	12개 주	CA\$	24,611	33,927	16,152	2.1
영 국	1992	35개 지역	ECU	13,926	20,288	10,334	2.0
프랑스	1992	26개 지역	ECU	17,885	26,964	5,622	4.8
이태리	1992	20개 지역	ECU	16,318	20,874	9,751	2.1
스페인	1992	18개 지역	ECU	11,354	15,115	7,510	2.0
그리스	1992	13개 지역	ECU	7,183	8,608	5,263	1.6

주: 1) 일본, 캐나다의 1인당지표는 비교를 위해 임의 산정한 수치임
(지역총생산/역내총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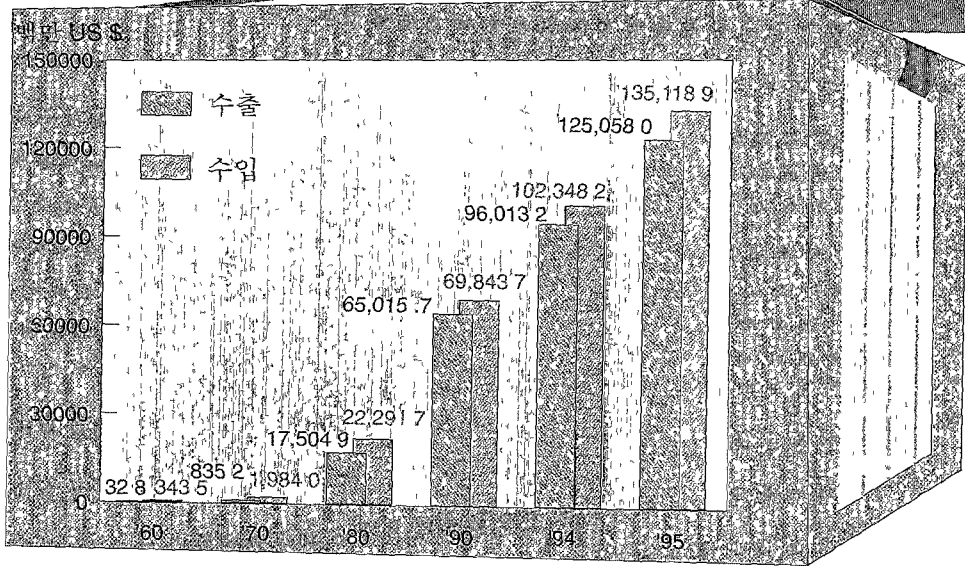
2) ECU는 유럽공동체의 통화단위(1ECU=1.21US\$, '92.12월말)

3) 1 US\$=5.77중국원('92.12월말)

여 백

'60년대 이후의 경제 · 사회 변화상

수출입



'60년 당시 약 33백만불에 불과했던 수출은
'95년 현재 1,250억 58백만불로 3,813배 늘어 났고,
수입은 약 344백만불 수준에서 1,351억 19백만불로 393배
늘어난 수준이다.

- 본문 중에서 -

60년대 이후의
경제 · 사회 변화상

1996. 7

자료관리국 자료관리과

1. 국민계정

'60년에 비해 GNP 규모 238배, 1인당 GNP 128배 늘어

- '60년 당시 GNP규모는 19억불, '95년 현재는 4,517억불로 '60년에 비해 238배 늘어났고, 1인당 GNP도 79불에서 10,076불로 128배 늘어난 수준
- '60년 당시 국내총생산(GDP)기준 36.8%를 차지하였던 농업·어업 비중은 6.6%로 낮아진 대신 광공업(15.9%→27.2%)과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47.3%→66.2%) 비중이 높아져 산업구조도 크게 변모
- '60년 당시 76.6%에 달했던 경공업 비중은 23.9%로 낮아진 대신 중화학공업은 23.4%에서 76.1%로 높아져 공업구조도 완전 탈바꿈
- 총저축률은 '60년 9.0%에서 36.2%로 확대되고, 국내총투자율도 10.0%에서 37.5%로 확대
- 수출입액(국제수지기준)의 GNP에 대한 비율도 '60년 16.0%에서 69.3%로 4배 이상 확대

2. 무역·국제수지

수출 3,813배, 수입 393배 증가

- '60년 당시 약 33백만불에 불과했던 수출은 '95년 현재 1,250억 58백만불로 3,813배 늘어났고, 수입은 약 344백만불 수준에서 1,351억 19백만불로 393배 늘어난 수준
- '60년 당시의 주 수출 상품류는 원재료·연료(52.3%), 식품 및 산동물(29.5%)이었으나, '95년 현재는 기계 및 운수장비(52.5%), 재료별 제조제품(22.0%)으로 수출상품 구성도 크게 변모
- '70년 당시 수출상대국가수는 122개국, '95년 현재는 213개국으로 확대되었고,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 비중도 '70년 0.5%에서 2.5%로 확대

총외채 '60년에 비해 689배, 순외채는 '70년 대비 6.8배 늘어나

- 경상수지 규모도 '60년 당시 13.4백만불 흑자(무역수지 272.5백만불 적자, 무역외수지 10.2백만불 흑자, 이전수지 275.7백만불 흑자)로 보잘 것 없는 수준이었으나, '95년 현재는 8,816.8백만불 적자(무역수지 4,749.0백만불 적자, 무역외수지 3,512.2백만불 적자, 이전수지 555.6백만불 적자)로 규모는 물론 질적 수준도 크게 변모
- 금·외환보유액은 '60년 1억 57백만불 수준에서 '95년 현재 327억 12백만불로 208배, 국민 1인당기준으로는 6.2불에서 729.4불로 118배 증가
- 총외채는 '60년 당시 83백만불에서 '94년 현재 571억 77백만불로 689배 늘어났고, 순외채는 '70년 15억 70백만불에서 '94년 107억불로 '70년에 비해 6.8배 증가

3. 산업

농가인구는 1/3 수준으로 줄고, 전체 곡물자급도는 현저히 떨어져

- 농가인구는 '60년 14,559천명에서 '94년 현재 5,167천명으로 거의 1/3 수준으로 줄었고, 이에 따라 총인구 중에서의 농가인구 비중도 '60년 당시 총인구의 절반이 넘었으나(58.2%) '94년 현재 11.6%로 축소
- '60년 당시 식량작물 재배면적이 전체 경지이용면적의 92.4%에 달했으나 '94년 현재는 63.6%로 줄고, 대신 과채류, 특용작물면적 등이 확대
- '60년 당시 153대에 불과했던 경운기는 '94년 현재 836.8천대로 농가 2호당 1대꼴로 바뀌었고 바인더, 콤바인등 수확기는 '70년대 초반부터 보급되기 시작, '94년 현재 100가구당 8.8대꼴로 보급
- 곡물자급도(주곡, 콩, 감자, 고구마, 옥수수등)는 '65년 당시 93.9%였으나, '94년 현재는 27.7%로 현저히 떨어졌고, 주곡인 쌀은 '65년 100%에서 '94년 현재 87.8%로, 보리쌀은 '70년 106.3%에서 '94년 현재 48.3%로 떨어짐

조강 생산 '62년에 비해 262배 늘어나

- 조강생산은 '62년 약 141천톤 수준에서 '95년 36,772천톤 수준으로 262배, 조강수출은 '62년 3천톤 수준에서 '95년 현재 9,556천톤 수준으로 2,986배 증가
- 개인용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화기등 산업용 전자기기 수출은 '83년 337백만불에서 '95년 7,666백만불로 약 23배 증가하였고, 칼라TV, VCR, 녹음기, 전자레인지 등 가정용 전자기기 수출은 '81년 1,398백만불에서 '95년 7,861백만불로 5.6배 증가

자동차 생산 '62년에 비해 1,422배 증가

- 자동차 생산은 '62년 당시 1,777대 수준에서 '95년 현재 2,526.4천대로 1,422배 증가. 수출은 '75년 31대를 시작으로 '95년 현재 978.6천대로 확대
- '81년 당시만 해도 국내판매 승용차 중 경·소형 비율이 78.3%에 이르렀으나 '95년 현재는 53.1%로 줄고, 중형비율이 19.3%에서 37.5%로 높아짐
- 신조선 수주는 '73년 982천G/T에서 '95년 7,133천G/T으로 7.3배 증가
- 금속공작기계 수출은 '74년 460천불에서 '95년 248,967천불로 541배, 수입은 '74년 34,240천불에서 '95년 959,880천불로 28배 증가

4. 에너지

1인당 전력소비 '60년 46kWh에서 3,640kWh로 79배 늘어

- 석유총소비량은 '70년 62,702천 배럴에서 '95년 676,982천배럴로 '70년에 비해 10.8배 증가
- 원유도입액은 '64년 12.5백만불에서 '95년 10,810.2백만불로 '64년에 비해 865배 늘어났고,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부담액도 '64년 0.45불에서 '95년 241.02불로 증가
- 1인당 1차에너지 소비량도 '61년 0.38TOE(석유환산톤수, 1TOE=10⁷ kcal)에서 '95년 3.35TOE로 8.8배 증가
- 1차에너지 소비구조(TOE기준)도 '61년 당시는 나무·숯 57.8%, 석탄 32.4% 소비수준에서 '95년 현재 석유 62.6%, 석탄 18.5% 등 수준으로 변모
- 1인당 전력소비량은 '60년 46kWh에서 '95년 3,640kWh로 79.1배 증가
- 도시가스 수요가수는 '72년 당시만 해도 6,600호 남짓 하였으나, '95년 현재는 4,347천호로 '72년에 비해 659배 늘어났고, 도시가스 호당 공급량도 '72년 233m³에서 '95년 현재 1,226m³로 5.3배 증가

5. 건설·항만·교통·통신

주택부문 투자 GNP대비 7.7%로 확대

- GNP대비 주택부문 투자율은 '62년 1.6%에서 '94년 현재 7.7%로 6.1% 「포인트」 증가
- 항만하역능력은 '66년 당시 14,650천톤에서 '94년 현재 276,198천톤으로 19배 증가

내용누락

7. 인구

가임여성 한사람당 평균 출산자녀 6명에서 1.8명으로 변모

- '96년 7월1일 현재 인구는 45,248천명(추계치)으로 '60년 25,012천명에 비해 1.8배 증가
 - 이에 따라 인구밀도는 '60년 254.1명/km²에서 455.2명/km²로 1.8배 이상 조밀해졌음
- 0~14세의 유년층 인구비율은 '60년 당시 42.3%에서 '96년 현재 22.6%로 줄어들고 대신 15~64세의 생산연령계층인구(54.8%→71.6%)와 65세 이상의 노년인구(2.9%→5.8%)가 늘어남
이에따라 생산연령계층(15~64세)의 부양부담비율(유년+노년인구/생산연령인구)은 '60년 82.6%에서 '96년 39.7%로 크게 축소
- '66년 당시만 해도 25세 이상 인구중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자가 79.6%에 이르렀으나, '9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는 고졸이상 비율이 47.6%를 차지, '9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60% 수준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
- 국민평균수명도 '60년 당시 52.4세(남자 51.1세, 여자 53.7세)에 불과하였으나 '93년 현재(잠정) 72.8세(남자 68.9세, 여자 76.8세)로 '60년에 비해 20.4세(남자 17.8세, 여자 23.1세)더 높아짐
이에따라 연령 각세별 인구수를 누적하여 계산한 국민평균연령도 '60년 23.0세에서 '96년 현재 31.5세로 장년으로 접어들
- '60년 당시만 해도 15~49세의 여성 한사람당 가임기간동안 출산자녀수는 평균 6.0명 수준이었으나 '94년 현재는 1.8명 수준으로 낮아짐
- '94년 현재 혼인건수는 '70년에 비해 1.3배(295천건 → 380천건) 증가, 이혼건수는 5.7배 증가(12천건→66천건)

8. 고용·임금

'63년 당시 15~19세 미성년 취업비율이 12.1%

- 15세 이상 인구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는 '63년 당시 8,230천명에서 '95년 현재 20,797천명으로 2.5배 증가하였고, 취업자는 '63년 7,563천명에서 '95년 20,377천명으로 2.7배 늘어났으며, 실업자는 '63년 667천명에서 419천명으로 37.2% 줄었음. 특히 여성취업자수는 '63년 당시 2,633천명에서 '95년 8,224천명으로 '63년 대비 3.1배 증가
- '63년 당시 15~19세의 미성년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12.1%에 달하였으나 '95년 현재는 2.0%에 불과하고 대신 60세 이상의 노령층 취업자는 4.3%에서 8.5%로 2배 가까이 증가
-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율도 '63년 당시에는 농림어업 종사자가 63.0%에 달하였으나 현재는 12.5%로 줄고, 대신 광공업과 SOC 및 기타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이 크게 증가
- 제조업종사자 평균임금은 '70년 당시 명목기준 14,300원, '95년 현재는 1,124천원으로 79배 가까이 증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70년에 비해 약 7배 증가한 셈

9. 물가·가계

'65년 당시 만원 가치는 현재 503원 가치로 하락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명목기준)은 '70년 28천원에서 '95년 현재 1,911천원으로 '70년에 비해 명목상 68배 증가
소비자물가 상승을 제한 실질임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70년에 비해 6.1배 증가한 셈
- '63년 당시 도시근로자 가구의 엔겔계수(식료품비/소비지출)는 61.0%에 달했으나 '95년 현재는 28.8%로 축소된 대신 교육·교양·오락비와 교통·통신비 지출은 크게 증가

-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지수로 따져 '95년 현재 '65년 대비 19.9배 상승
- '65년 당시 10,000원의 화폐가치는 소비자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95년 현재 503원 가치로 저락

10. 교육

초등학생의 중학교 진학률 '65년 50% 상회수준에서 거의 100%

- 유치원 취원율은 '61년 당시 0.8% 수준(학생수/4~5세 연령 아동수)이었으나 '95년 현재는 40.1%로 늘어남
-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는 '60년 당시 58.8명 수준에서 현재는 28.2명으로 절반이하 수준이며,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60년 57.0명에서 36.4명으로 줄어들었고 초등학교 여교사비율은 '60년 100명중 22명에서 현재는 55.6명 수준으로 증가
- '65년 당시 초등학생의 중학교 진학률은 절반이 조금 넘는 54.3%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거의 100%이며, 중학생의 고등학교 진학률도 69.1%에서 98.5%로 확대되었고, 고등학생의 전문대이상 진학률은 '65년 당시 32.3%에서 현재는 51.4% 수준으로 확대
- 도시가구의 가계소비지출중 교육비 비중은 '65년 4.9%에서 '95년 9.3%로 2배 가까이 비중이 늘어남

11. 보건 · 사회 · 문화 · 기타

의사 1인당 인구수는 3,221명에서 817명으로 줄어

- 종합병원 및 일반 병의원수는 '60년 4,013개소에서 '94년 현재 14,279개소로 36배 늘어났고, 의사1인당 인구수는 '60년 3,221명에서 '94년 817명으로 1/4 수준으로 축소
병상당 인구수는 '65년 2,515명에서 '94년 317명으로 1/8 수준으로 축소

의료보험 수혜율은 '77년 전국민의 8.8% 수준에서 '94년 현재 97.3%로 확대

- 국민1인당 1일 영양공급량은 에너지로 따져 '62년 당시 1,943kcal였으나 '94년 현재는 2,944kcal로 증가
단백질 공급량(1인 1일당)은 '62년 53.2g에서 93.8g으로 1.8배, 지방공급량(1인1일당)은 '62년 13.1g에서 77.6g으로 5.9배 증가
- 국내 생산된 주류의 18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소비량은 '62년 당시 34.9ℓ, '94년 현재는 927ℓ로 27배 증가하였고, 담배(외산포함)의 18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소비량은 '60년 당시 1,599개비(20개비들이 약 80갑)에서 '95년 현재 3,112개비(약 156갑)으로 1.9배 증가
- 상수도 보급률은 '60년 당시 16.8%에서 '94년 현재 82.1%로 확대되었고 급수인구 1인당 1일 급수량은 99ℓ에서 408ℓ로 4.1배 증가
- '70년 당시 95.3%에 달하였던 단독주택 비율은 '95년 현재 47.6%로 절반이하 수준으로 감소한 대신 아파트(0.8%→37.4%), 연립주택(3.3%→11.6%)비율이 증가
- '60년 당시 대중음식점수(제과점, 다방 등 제외) 수는 약 21천개소였으나 '94년 현재 382천개소로 약 18배 증가

중 3 남학생 키 14.5cm, 몸무게 13.1kg 더 늘어나

-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연령(11세)의 평균 키는 '65년 당시 132.0cm에서 '94년 현재 145.4cm로 13.4cm 더 커졌고, 몸무게는 28.3kg에서 39.1kg으로 10.8kg 더 늘어났음
중학교 3학년 남학생 연령(14세)의 경우는 같은해 기준으로 키는 149.9cm에서 164.4cm로 14.5cm 더 커졌고, 몸무게는 41.1kg에서 54.2kg으로 13.1kg 더 늘어났음

자가용 승용차 1,376배 증가

- 자가용 승용차 등록대수는 '60년 당시 4.2천대에서 '95년 현재 5,778천대로 1,376배 증가하였고,('96. 5월말 현재 6,149천대로 1,464배 증가) 자가용 승용차 1대당 인구수는 '60년 5,955.2명에서 '95년 현재 7.8명당 1대꼴로 변모('96. 5월말 현재로는 7.3명당 1대꼴)
- 자동차사고 발생건수는 '60년 6.3천건에서 '94년 현재 266.1천건으로 42배 늘어났고, 인구 10만명당 자동차사고 사망자는 5.6명에서 22.7명으로 4.1배, 인구 10만명당 부상자수는 35.0명에서 789.4명으로 22.6배 증가
- 내국인 해외 출국자수는 '60년 당시 불과 7,900명 수준이었으나 '95년 현재 3,819천명 수준으로 '60년에 비해 483배 증가하였고 내국인 1인당 해외여행경비도 '60년 582불에서 1,655불로 2.8배 증가

산업재해자수 '64년에 비해 58배 늘어나

- 산업재해자수는 '64년 당시 1,489명에서 '94년 현재 85,948명으로 '64년에 비해 58배 증가
- 범죄자수는 '73년 당시 391.2천명에서 '94년 현재 1,660.1천명으로 4.2배 증가하였고 19세이하 소년범죄자수도 '74년 48천명에서 '94년 현재 108천명으로 2.3배 늘어났음
- 화재발생건수는 '60년 1,946건에서 '95년 26,170건으로 13배 이상 증가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수 크게 늘어

-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85년 당시 21.4㎡에서 '94년 현재 19.0㎡로 축소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수는 '80년 8,835개소에서 '94년 현재 30,074개소로 3.4배,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수는 '80년 5,097개소에서 '94년 현재 30,587개소로 6.0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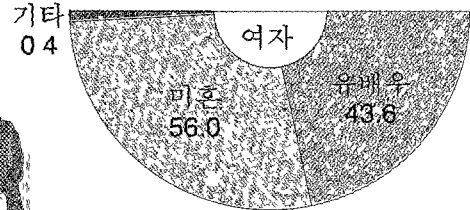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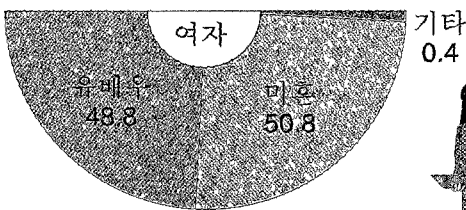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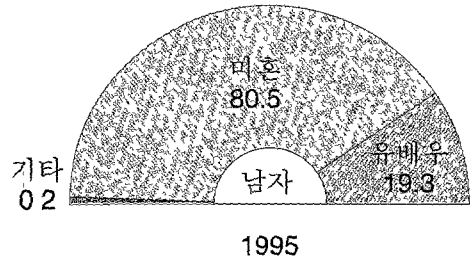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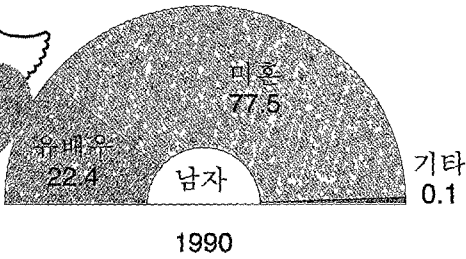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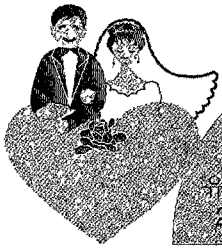
특허출원건수 128배 늘어

- 연구개발활동 수행기관수는 '63년 당시 72개 기관에서 '94년 현재 2,640개 기관으로 확대되었고, 인구만명당 연구원수도 '63년 0.6명 수준에서 '94년 현재 26.4명으로 확대
- 특허출원건수는 '60년 611건에서 '95년 78,499건으로 128배, 실용신안출원건수는 1,207건에서 59,866건으로 50배 증가

여 백

'95년 인구 주택총조사 2%표본 속보 집계결과

20대의 성별·혼인상태별 인구(%)



연령계층별 혼인상태를 보면
 특히 20대 여자의 미혼비율은 56.0%로
 '90년의 50.8%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
 여성의 교육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따라
 만혼 추세가 확산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5 인구주택 총조사
2% 표본 속보 집계 결과

1996. 7

통계조사국 인구조사과

I.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인구·가구·주택의 규모와 제반속성을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과 평가, 학술연구, 통계모집단자료 등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2. 조사 연혁

- 인구 총조사 : 1925년이후 5년주기로 조사, 1995년은 15회에 해당.
- 주택 총조사 : 1960년이후 5년주기로 인구 총조사와 함께 조사.

3. 법적 근거

- 통계법 제 3조 및 동법시행령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로서 법정 통계조사임.

4. 조사 대상

- 대한민국 영토중 행정권이 미치는 전지역에 상주하는 내·외국인 및 이들이 살고 있는 모든거처(주택포함)와 공무로 해외에 체류중인 외교관·수행원 및 그 가족

5. 조사 기준시점 및 조사 기간

- 조사 기준시점 : 1995년 11월 1일 0시 현재
- 조사 기간
 - 준비조사 : 1995. 10. 29 ~ 10. 31 (3 일간)
 - 본 조사 : 1995. 11. 1 ~ 11. 9 (9 일간)

6. 조사 항목

- 전가구에 대하여 17개 항목 조사.
 - 인 구 :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나이, 종교, 교육정도, 혼인상태 등 7개 항목
 - 주 택 : 거처의 종류, 가구구분, 점유형태, 사용방수, 주거시설 형태, 연건평, 대지면적, 총방수, 건축년도, 편의 시설수 등 10개 항목

○ 총 조사구의 10%에 대하여 11개 항목 추가조사, 총28개 항목 조사.

- 인 구 : 출생지, 5년전거주지, 통근·통학여부 및 장소, 이용교통수단, 통근·통학 소요시간, 경제활동상태, 산업, 직업, 종사상의 지위 등 9개 항목

- 주 택 : 임차료, 거주기간 등 2개 항목

7. 조사 체계

○ 통계청이 주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시

○ 군부대, 재외공관, 교도소, 전투경찰대는 각각 국방부, 외무부, 법무부, 경찰청에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가족의 상주지에 합산함.

8. 조사결과 공표계획

○ 잠정집계결과('96. 3. 30 기공표)

- 읍면동용 집계표를 기초로 전국 및 지역별(시도,시군구,읍면동별) 인구, 가구, 주택유형별 총수를 집계하여 공표.

○ 2%표본속보결과('96. 7월)

- 교육정도별, 혼인상태별, 출생지별, 5년전 거주지별, 통근·통학지별, 가구형태별, 가구원수별, 점유형태별, 사용방수별, 주거시설 형태별, 주택연면적별 등 총 11개표를 분석하여 공표.

○ 최종확정 집계결과('96년말)

- 전국 전가구의 모든 조사표를 집계한 세부적인 결과(총 65개표)를 분석하여 공표.

○ 표본집계결과('97.6월)

- 인구이동편, 통근·통학편, 경제활동편, 산업·직업 중소분류편, 임차료편, 고령자편 등 6개부문 총 79개의 통계표를 분석하여 공표.

II. 기공표된 잠정집계 결과

- 잠정집계결과는 읍면동에서 수집계로 작성한 집계표를 기초로 행정구역 별 인구, 가구, 주택을 단순 집계한 것임.
- 이 자료는 전가구의 모든 조사표를 집계한 최종확정집계발표시까지 잠정 결과로 이용.
- '95년 총조사의 잠정결과는 '96. 3. 30일 발표되었음.

○ '95. 11. 1일 0시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44,606천명으로 잠정집계

(단위 : 천명)

총 조사 실시년도	총조사 인구		
	계	남 자	여 자
1985	40,448	20,244	20,204
1990	43,411	21,782	21,629
1995	44,606	22,397	22,209

○ 총가구수는 12,961천가구로 '90년 11,355천가구보다 1,606천가구(14.1%)가 증가함.

(단위 : 천가구, %)

	1990	1995	증 감 (율)
가 구 수	11,355	12,961	1,606(14.1)

○ 한편 '95년우리나라의 주택총수(빈집 포함)는 9,579천호로 '90년 7,357천호보다 2,221천호(30.2%)가 증가함.

(단위 : 천호, %)

	총 계	거 주 주 택					빈 집 (빈집률)
		계	단독주택	아 파 트	연 립 ·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1990	7,357	7,160 (100.0)	4,727 (66.0)	1,628 (22.8)	603 (8.4)	202 (2.8)	197 (2.7)
1995	9,579	9,216 (100.0)	4,383 (47.6)	3,447 (37.4)	1,065 (11.5)	321 (3.5)	363 (3.8)
증 감 (율)	2,222 (30.2)	2,056 (28.7)	△344 (△7.3)	1,819 (111.7)	462 (76.6)	119 (58.9)	166 (84.4)

주 빈집률(Vacancy Rate)은 빈집수를 총주택수(주택+빈집)로 나눈 값임.

Ⅲ. 2% 표본집계 결과

1. 인구편

가. 교육정도별 인구

○ 6세이상 인구 40,450천명중 초등학교이상 교육(초등학교 재학, 중학교 중퇴이상 포함)을 받은 사람은 37,484천명으로 92.7%를 차지함. 이는 '90년(36,193천명, 91.8%)보다 0.9%포인트(1,291천명) 증가한 것임.

초등학교이상 교육인구(6세이상 인구)

(단위 : 천명, %)

년도	구분	6세이상인구	1)			
			초등학교이상 교육 인구	졸업 ²⁾	중학교이상 중퇴자 ³⁾	재학 ⁴⁾
1990	계	39,445(100.0)	36,193(91.8)	24,151(61.2)	1,022(2.6)	11,020(28.0)
	남자	19,697(100.0)	18,746(95.2)	12,179(61.9)	770(3.9)	5,797(29.4)
	여자	19,748(100.0)	17,447(88.3)	11,972(60.6)	252(1.3)	5,223(26.4)
1995	계	40,450(100.0)	37,484(92.7)	26,161(64.7)	753(1.9)	10,570(26.1)
	남자	20,175(100.0)	19,358(95.9)	13,098(64.9)	514(2.5)	5,746(28.5)
	여자	20,275(100.0)	18,126(89.4)	13,063(64.4)	239(1.2)	4,824(23.8)
증감률	계	2.5	3.6	8.3	△26.3	△4.1
	남자	2.4	3.3	7.5	△33.3	△0.9
	여자	2.7	3.9	9.1	△4.9	△7.6

주 · 1) 초등학교 재학은 포함, 초등학교 중퇴자 및 불취학은 제외

2) 초등학교, 중학교, 고교, 전문대이상 각각의 졸업인구

3) 중학교 중퇴, 고교 중퇴, 전문대이상 중퇴인구

4) 초등학교이상 각급학교 재학인구

○ 15세 이상 인구 34,210천명중 고등학교이상 졸업인구의 구성비는 57.8%(19,774천명)으로 '90년의 50.0%(16,133천명)에 비해 7.8%포인트(3,641천명) 증가하여 국민의 교육수준이 다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고등학교이상 졸업인구(15세 이상 인구)

(단위 : 천명, %)

년도	구분	15세이상인구	고졸이상 교육인구	고교졸업 ¹⁾		전문대 이상졸업 ²⁾
				고교졸업 ¹⁾	전문대 이상졸업 ²⁾	
1990	계	32,256(100.0)	16,133(50.0)	12,382(38.4)	3,751(11.6)	
	남 자	15,990(100.0)	9,362(58.5)	6,881(43.0)	2,481(15.5)	
	여 자	16,266(100.0)	6,771(41.6)	5,501(33.8)	1,270 (7.8)	
1995	계	34,210(100.0)	19,774(57.8)	14,093(41.2)	5,681(16.6)	
	남 자	16,931(100.0)	11,080(65.4)	7,545(44.5)	3,535(20.9)	
	여 자	17,279(100.0)	8,694(50.3)	6,548(37.9)	2,146(12.4)	
증감률	계	6.1	22.6	13.8	51.4	
	남 자	5.9	18.4	9.7	42.5	
	여 자	6.2	28.4	19.0	68.9	

주 1) 고졸+전문대재학+대학재학+전문대중퇴+대학중퇴
 2) 전문대졸+대학졸+대학원졸업+대학원재학+대학원중퇴

- 특히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는 '90년에 비해 51.4% 증가하였음.
 이를 남녀별로 비교해 보면 남자는 '90년에 비해 42.5% 증가한 반면, 여자는 68.9%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자가 크게 증대되고 있음을 나타냄.

전문대이상 졸업인구

(단위 천명, %)

	'90	'95	증가(율)
전문대이상 졸업자	3,751	5,681	1,930 (51.4)
남 자	2,481	3,535	1,054 (42.5)
여 자	1,270	2,146	876 (68.9)
대학이상 졸업자	2,965	4,435	1,470 (49.6)
남 자	2,027	2,883	856 (42.2)
여 자	938	1,552	614 (65.5)

학력별 인구

(단위 : 천명, %)

		년도	계		남 자		여 자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졸	초등학교	1990	5,220	13.2	2,054	10.4	3,166	16.0
		1995	4,771	11.8	1,840	9.1	2,931	14.5
	중 학교	1990	5,104	12.9	2,334	11.9	2,770	14.0
		1995	4,377	10.8	2,011	10.0	2,366	11.7
	고등학교	1990	11,099	28.1	6,082	30.9	5,017	25.4
		1995	12,177	30.1	6,289	31.2	5,888	29.0
업	전문대	1990	786	2.0	454	2.3	332	1.7
		1995	1,246	3.1	652	3.2	594	2.9
	대학이상	1990	2,965	7.5	2,027	10.3	938	4.8
		1995	4,343	10.8	2,819	14.0	1,524	7.5
		재학	1990	11,020	28.0	5,797	29.4	5,223
1995	10,570	26.1	5,746	28.5	4,824	23.8		
초등학교 중 퇴 자	1990	182	0.5	63	0.3	119	0.6	
1995	244	0.6	79	0.4	165	0.8		
불 취 학 ¹⁾	1990	3,066	7.8	885	4.5	2,181	11.1	
	1995	2,714	6.7	733	3.6	1,981	9.8	

- 주 1 구성비는 6세이상 인구에 대한 구성비임.
 2 중퇴인구는 하위학력에 포함.
 3 재학인구는 국민학교 이상 각급학교의 재학생수
 4 「불취학」¹⁾에는 6세인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숫자임.

학력별 인구(학력별 누적)

(단위 : 천명, %)

		년도	계		남 자		여 자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졸	초등학교 이 상	1990	25,173	63.7	12,950	65.8	12,223	61.9
		1995	26,914	66.6	13,612	67.5	13,302	65.6
	중 학교 이 상	1990	19,954	50.5	10,896	55.4	9,058	45.9
		1995	22,143	54.8	11,772	58.4	10,371	51.1
	고등학교 이 상	1990	14,850	37.6	8,562	43.5	6,288	31.9
		1995	17,766	44.0	9,760	48.4	8,006	39.4
업	전문대 이 상	1990	3,751	9.5	2,481	12.6	1,270	6.5
		1995	5,589	13.9	3,471	17.2	2,118	10.4
	대학이상	1990	2,965	7.5	2,027	10.3	938	4.8
		1995	4,343	10.8	2,819	14.0	1,524	7.5
	재 학	1990	11,020	28.0	5,797	29.4	5,223	26.4
		1995	10,570	26.1	5,746	28.5	4,824	23.8
중 퇴 자	1990	182	0.5	63	0.3	119	0.6	
	1995	244	0.6	79	0.4	165	0.8	
불 취 학 ¹⁾	1990	3,066	7.8	885	4.5	2,181	11.1	
	1995	2,714	6.7	733	3.6	1,981	9.8	

- 주 1. 이표의 졸업인구는 누적개념임(예 : 중졸=중졸+고졸+초급·전문대이상 졸)
 2. 구성비는 6세이상 인구에 대한 구성비임
 3. 중퇴인구는 하위학력에 포함
 4. 재학인구는 국민학교 이상 각급학교의 재학생수
 5. 「불취학」¹⁾에는 6세인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숫자임

나. 혼인상태별 인구(15세 이상 인구)

- 15세 이상 인구의 혼인상태를 보면 유배우가 차지하는 비율이 61.2%, 미혼 30.2%, 사별 7.5%, 이혼 1.1%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90년과 비교하여 보면 유배우 인구의 비율이 2.1%포인트(59.1%→61.2%) 늘어남.
- 반면 미혼인구의 비율은 27%포인트(32.9%→30.2%) 낮아졌는데, 이는 결혼 적령기 인구의 절대 감소에 기인함.
 - 이를 결혼 적령기 연령층 20~30대만을 보면 만혼 및 독신자의 증가로 미혼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30대 남자 : 13.0%, 20대 여자 : 56.0%)
- 사별인구는 '90년보다 약간 증가하였으나, 남자(1.8%)와 여자(13.2%)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원인은 여자의 재혼율이 남자에 비해서 낮은 점도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여자의 평균수명이 남자보다 높은데도 원인이 있음.
- 이혼인구 비율은 '90년에 비하여 0.3%포인트 증가(0.8%→1.1%)하였는데,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85년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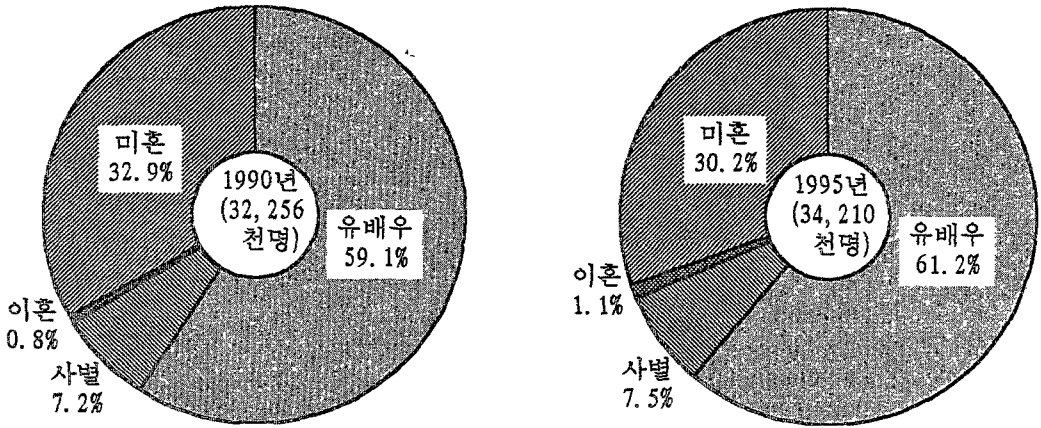
혼인상태별 인구(15세 이상 인구)

(단위 : 천명, %)

	1990						1995					
	계	구성비	남자	구성비	여자	구성비	계	구성비	남자	구성비	여자	구성비
전 국	32,256	100.0	15,991	100.0	16,265	100.0	34,210	100.0	16,931	100.0	17,279	100.0
유배우	19,052	59.1	9,482	59.3	9,570	58.8	20,916	61.2	10,492	62.0	10,424	60.3
사 별	2,320	7.2	283	1.8	2,037	12.5	2,573	7.5	296	1.8	2,277	13.2
이 혼	249	0.8	110	0.7	139	0.9	383	1.1	176	1.0	207	1.2
미 혼	10,631	32.9	6,114	38.2	4,517	27.8	10,328	30.2	5,961	35.2	4,367	25.3
미 상	4	0.0	2	0.0	2	0.0	10	0.0	6	0.0	4	0.0

주) 외국인 제외

혼인상태별 구성비 비교



○ 연령계층별로 혼인상태를 보면

- 특히 20대 여자의 미혼비율은 56.0%로 '90년의 50.8%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 여성의 교육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따라 만혼 추세가 확산되고 있음을 나타냄.
- 30대 남자의 경우도 군복무, 취업 등 경제안정 기반 마련을 위해 20대 여자와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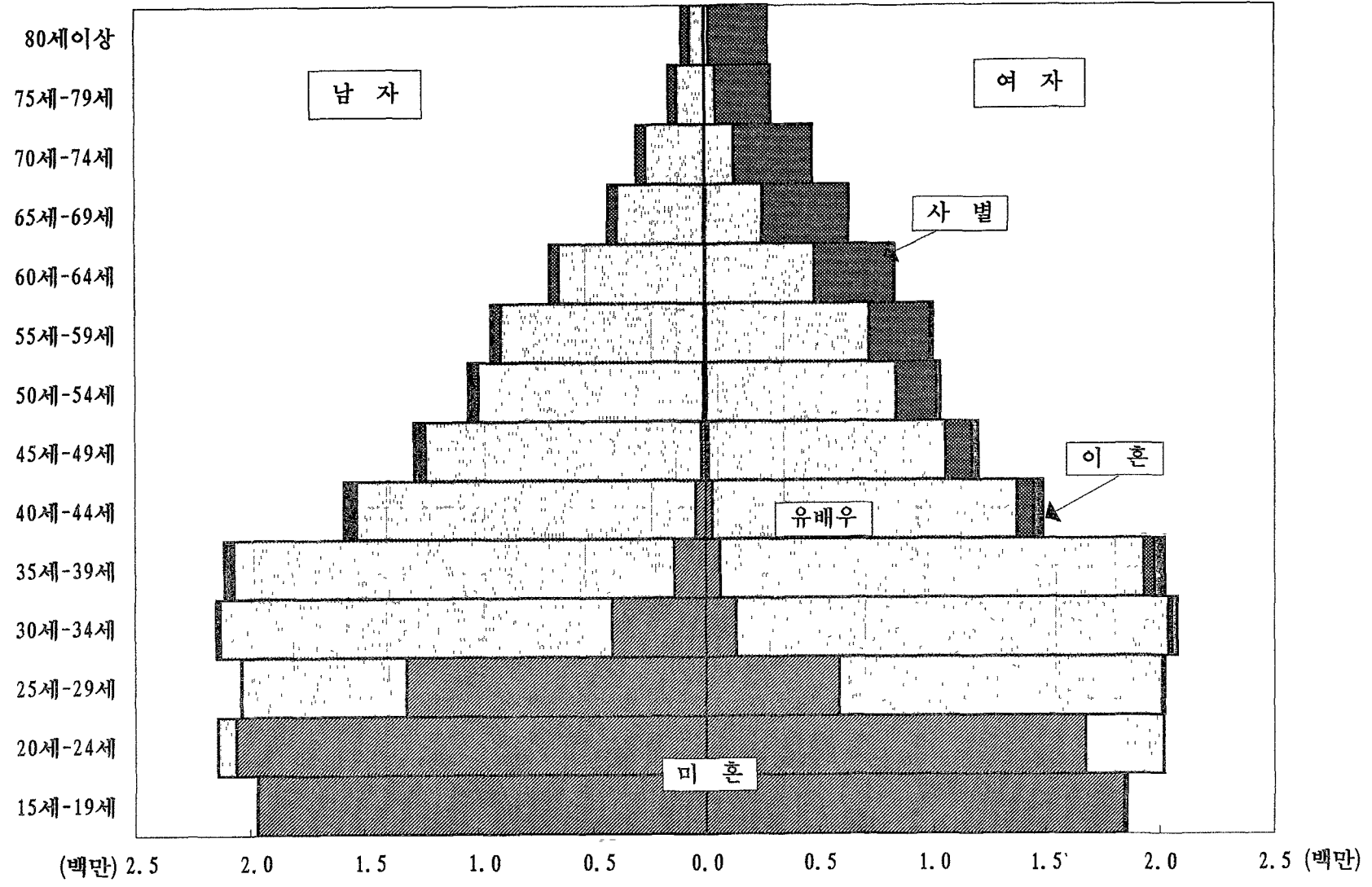
연령계층별 유배우·미혼인구(20~30대)

(단위 : 천명, %)

	1990				1995			
	계	유배우	미혼	기타	계	유배우	미혼	기타
남 자								
20대	4,455 (100.0)	997 (22.4)	3,451 (77.5)	7 (0.1)	4,179 (100.0)	807 (19.3)	3,365 (80.5)	7 (0.2)
30대	3,791 (100.0)	3,375 (89.0)	361 (9.5)	55 (1.5)	4,258 (100.0)	3,637 (85.4)	554 (13.0)	67 (1.6)
여 자								
20대	4,275 (100.0)	2,088 (48.8)	2,171 (50.8)	16 (0.4)	4,047 (100.0)	1,766 (43.6)	2,266 (56.0)	15 (0.4)
30대	3,618 (100.0)	3,347 (92.5)	147 (4.1)	124 (3.4)	4,104 (100.0)	3,774 (92.0)	197 (4.8)	133 (3.2)

여 백

1995년 연령계급 및 혼인상태별 인구



여 백

다. 출생지별 인구

- 총대상인구 43,832천명(특별조사구 및 외국인 제외) 중 자기가 태어난 시·도에 계속 거주하는 인구는 24,411천명(55.7%), 반대로 타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19,421천명으로 44.3%에 이르고 있음. 이는 '90년보다 3.0%포인트(41.3%→44.3%) 높아진 것임.
- 시·도간의 출생지별 인구의 구성비를 보면 서울·부산 등 6대도시와 경기도는 타 시·도 출생자 비율이 과반수를 넘어 51.4%~61.0%에 이르고, 경기도를 제외한 8개도는 타 시·도 출생자 비율이 3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음.

시·도별 출생지 이동인구

(단위 · 천명, %)

	1990				1995			
	총인구	비이동인구	이동인구	이동률	총인구	비이동인구	이동인구	이동률
전국	42,708	25,068	17,640	41.3	43,832	24,411	19,421	44.3
서울	10,460	4,558	5,902	56.4	10,055	4,372	5,683	56.5
부산	3,741	1,707	2,034	54.4	3,746	1,822	1,924	51.4
대구	2,195	938	1,257	57.3	2,406	1,124	1,282	53.3
인천	1,794	652	1,142	63.6	2,276	892	1,384	60.8
광주	1,122	503	619	55.2	1,235	548	687	55.6
대전	1,036	446	590	56.9	1,252	489	763	61.0
경기	6,080	2,772	3,308	54.4	7,547	3,012	4,535	60.1
강원	1,549	1,191	358	23.1	1,437	1,076	361	25.1
충북	1,365	1,057	308	22.5	1,372	1,002	370	27.0
충남	1,971	1,669	302	15.3	1,729	1,361	368	21.3
전북	2,023	1,803	220	10.9	1,860	1,606	254	13.7
전남	2,451	2,236	215	8.8	2,019	1,799	220	10.9
경북	2,803	2,347	456	16.3	2,623	2,117	506	19.3
경남	3,612	2,759	853	23.6	3,780	2,773	1,007	26.6
제주	506	430	76	15.1	495	418	77	15.6

○ 시·도별로 출생지별 인구 구성을 살펴보면

- 6대도시중 서울과 인천은 각 지역 출생지 인구가 비교적 고르게 전입된 반면,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4개시는 인근 도지역의 인구가 주로 전입되었음.
- 9개도중 경기도는 출생지 거주비율이 가장 낮은 39.9%로 비교적 각 지역의 인구가 고르게 전입되었으며, 나머지 8개도는 주로 출생지 거주자로 구성되었음. 특히 전남은 출생지 거주비율이 가장 높은 89.1%로 나타남.

서울	서울 43.5%	전남 9.5%	경기 8.2%	충남 7.0%	전북 6.9%	경북 5.4%	기타 19.5%	
부산	부산 48.6%	경남 25.5%		경북 8.9%	전남 4.7%	기타 12.3%		
대구	대구 46.7%	경북 35.3%			경남 7.1%	기타 10.9%		
인천	인천 39.2%	서울 10.8%	충남 9.5%	경기 9.1%	전남 7.0%	전북 4.8%	기타 19.6%	
광주	광주 44.4%	전남 45.0%				전북 3.8%	기타 6.8%	
대전	대전 39.0%	충남 23.0%		충북 9.2%	전북 5.6%	서울 5.5%	기타 17.7%	
경기	경기 39.9%	서울 17.1%	충남 7.3%	전남 7.1%	전북 5.2%	강원 4.9%	기타 18.5%	
강원	강원 74.9%				경북 4.6%	서울 4.2%	경기 3.7%	기타 12.6%
충북	충북 73.0%			강원 4.1%	충남 3.9%	서울 3.7%	기타 15.3%	
충남	충남 78.7%				서울 3.6%	경기 3.0%	기타 14.7%	
전북	전북 86.3%				전남 4.4%	기타 9.3%		
전남	전남 89.1%					광주 2.6%	기타 8.3%	
경북	경북 80.7%			대구 4.5%	경남 3.4%	기타 11.4%		
경남	경남 73.4%			부산 7.2%	경북 6.8%	기타 12.6%		
제주	제주 84.4%				전남 4.1%	기타 11.5%		

라. 5년전거주지별 이동인구(5세 이상)

- 5세이상 인구 40,374천명(특별조사구 및 외국인 제외)중 10,122천명이 5년전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시·군·구로 이동하여 살고 있어 25.1%의 이동률을 나타냄('90년 25.0%)
- 총이동 인구 10,122천명중 시·도 경계를 벗어나 이동한 인구는 5,739천명으로 '90년(5,492천명)에 비해 247천명(4.5%)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도내에서 시·군·구간의 이동인구도 4,383천명으로 '90년(4,379천명)에 비해 4천명(0.1%)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시·도별로 보면 서울과 부산은 인근 시·도로의 이주가 많아 전출초과 현상이 나타났고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은 전입초과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서울에서 경기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여 서울에서의 전출초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전체로는 인구집중현상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냄.
 - 강원, 충남, 전남·북, 경북의 5개도는 '90년에 이어 계속 전출초과 현상을 나타냄

시도별 이동인구

(단위 : 천명, %)

	1990						1995					
	5세이상 이동인구	이동률	전입	전출	순이동	순 이동률	5세이상 이동인구	이동률	전입	전출	순이동	순 이동률
전국	9,871	25.0	5,492	5,492	-	-	10,122	25.1	5,739	5,739	-	-
서울	3,092	32.0	1,333	1,377	△44	△1.4	2,483	26.7	1,033	1,917	△884	△35.6
부산	824	23.7	373	348	25	3.1	745	21.4	229	457	△228	△30.5
대구	602	29.6	293	214	79	13.1	640	28.8	255	218	37	5.8
인천	569	35.1	413	174	239	42.0	746	36.3	446	230	216	29.0
광주	271	26.2	186	122	64	23.7	325	28.8	190	126	64	19.5
대전	287	30.1	199	96	103	35.8	443	38.7	264	99	165	37.2
경기	1,911	34.8	1,458	727	731	38.2	2,525	37.0	1,900	747	1,153	45.7
강원	237	16.4	124	299	△175	△74.0	239	17.8	142	233	△91	△37.9
충북	210	16.5	121	190	△69	△32.6	226	17.8	158	147	11	4.7
충남	210	11.3	136	326	△190	△90.6	241	14.9	188	258	△70	△28.9
전북	233	12.3	82	268	△186	△79.7	218	12.5	119	208	△89	△41.0
전남	252	11.0	140	438	△298	△118.2	229	12.1	135	330	△195	△85.2
경북	429	16.4	245	453	△208	△48.6	361	14.8	251	335	△84	△23.2
경남	689	20.8	360	372	△12	△1.8	644	18.6	397	311	86	13.3
제주	55	11.6	29	33	△4	△7.5	57	12.6	32	26	6	10.2
기타				55	△55					97	△97	

주) 특별조사구 인구 및 외국인 제외

마. 통근·통학 인구(12세이상 인구)

- 6대도시의 12세이상 인구(특별조사구 및 외국인 제외)중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비율은 '90년(55~60%)보다 전반적으로 약 5% 수준이 높아진 60~65%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도시별로 보면 서울이 64.6%로 가장 높고, 대구가 60.7%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여자에 비하여 남자의 통근·통학인구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남.
- '90년과 비교해 보면 통근·통학하는 인구비율의 증가가 가장 큰 지역은 광주(55.5%→62.9%)이고, 가장 작은 지역은 부산(57.3%→61.7%)임.

대도시 통근·통학인구

(단위 : 천명, %)

		1990				1995			
		12세이상 인구	비통근·통학자	통근·통학자	통근·통학률 ¹⁾	12세이상 인구	비통근·통학자	통근·통학자	통근·통학률 ¹⁾
서울	계	8,383	3,347	5,036	60.1	8,400	2,975	5,425	64.6
	남	4,092	815	3,277	80.1	4,108	675	3,433	83.6
	여	4,291	2,532	1,759	41.0	4,292	2,300	1,992	46.4
부산	계	2,975	1,270	1,705	57.3	3,126	1,196	1,930	61.7
	남	1,427	354	1,073	75.2	1,504	304	1,200	79.8
	여	1,548	916	632	40.8	1,622	892	730	45.0
대구	계	1,749	776	973	55.6	1,979	778	1,201	60.7
	남	840	215	625	74.4	958	198	760	79.4
	여	909	561	348	38.3	1,021	580	441	43.2
인천	계	1,379	585	794	57.6	1,792	667	1,125	62.8
	남	678	141	537	79.2	888	142	746	84.0
	여	701	444	257	36.7	904	525	379	41.9
광주	계	879	391	488	55.5	1,001	371	630	62.9
	남	428	115	313	73.2	484	92	392	81.1
	여	451	276	175	38.7	517	279	238	45.9
대전	계	813	362	451	55.4	1,012	387	625	61.7
	남	400	107	293	73.3	495	100	395	79.8
	여	413	255	158	38.2	517	287	230	44.4

주) 1. 특별조사구인구 및 외국인 제외

2. 「통근·통학률」¹⁾ = 통근·통학자 ÷ 12세이상인구 × 100

- 대도시의 주·야간 인구이동을 살펴보면, 서울을 제외한 5대도시는 모두 유입인구보다 유출인구가 많으며 서울은 유입인구 955천명, 유출인구 518천명으로 유입초과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서울에서만 유입초과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서울 외곽지역의 신도시 개발에 기인한 것임.
 - 야간인구(상주인구) 대비 비율로 계산한 주간인구 지수는 105.2로 '90년(103.8)에 비하여 1.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인천은 서울로의 유출인구가 많기 때문이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은 인근 외곽지역에 위치한 공장 등의 산업시설과 대학(교) 등으로의 통근·통학에 기인함.

대도시 주·야간 인구

(단위 : 천명, %)

	1990						1995					
	야간 (상주) 인구 (A)	유입 인구	유출 인구	¹⁾ 주간 인구 (B)	주간 인구 지수 (B/A)	²⁾ 유입 초과 인구	야간 (상주) 인구 (A)	유입 인구	유출 인구	¹⁾ 주간 인구 (B)	주간 인구 지수 (B/A)	²⁾ 유입 초과 인구
서울	8,383	676	356	8,703	103.8	320	8,400	955	518	8,837	105.2	437
남	4,092	488	275	4,305	105.2	213	4,108	691	397	4,402	107.2	294
여	4,291	188	81	4,398	102.5	107	4,292	264	121	4,435	103.3	143
부산	2,975	34	66	2,943	98.9	△32	3,126	52	107	3,071	98.2	△55
남	1,427	21	53	1,395	97.8	△32	1,504	37	89	1,452	96.6	△52
여	1,548	13	13	1,548	100.0	0	1,622	15	18	1,619	99.8	△3
대구	1,749	32	93	1,688	96.5	△61	1,979	33	114	1,898	95.9	△81
남	840	21	64	797	94.9	△43	958	25	79	904	94.4	△54
여	909	11	29	891	98.0	△18	1,021	8	35	994	97.4	△27
인천	1,379	83	150	1,312	95.2	△67	1,792	114	202	1,704	95.1	△88
남	678	66	113	631	93.2	△47	888	90	154	824	92.8	△64
여	701	17	37	681	97.1	△20	904	24	48	880	97.4	△24
광주	879	27	28	878	99.8	△1	1,001	29	49	981	98.0	△20
남	428	17	21	424	99.2	△4	484	19	37	466	96.3	△18
여	451	10	7	454	100.5	3	517	10	12	515	99.6	△2
대전	813	23	25	811	99.8	△2	1,012	27	46	993	98.2	△19
남	400	16	19	397	99.3	△3	495	20	36	479	96.9	△16
여	413	7	6	414	100.2	1	517	7	10	514	99.4	△3

주 : 1) 야간인구+유입인구-유출인구

2) 유입인구-유출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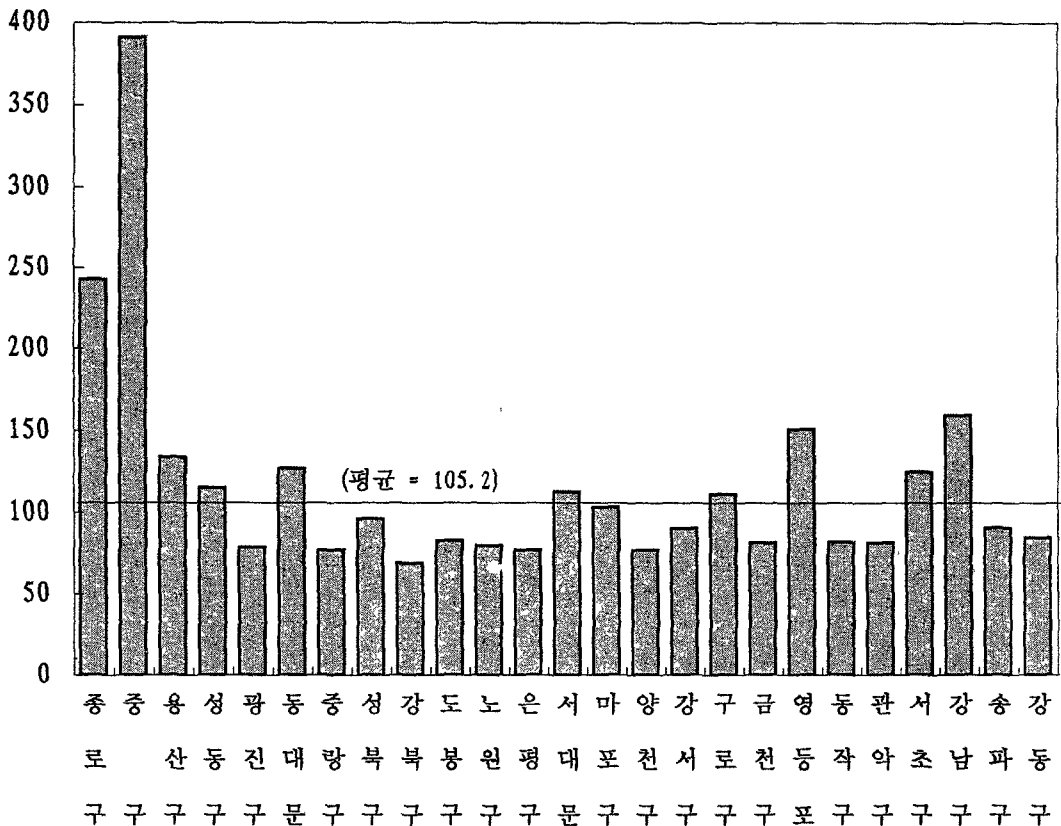
○ 서울시의 주·야간 인구를 비교해 보면

- 25개구중 주간인구가 야간(상주)인구에 비해 많은 지역은 모두 10개구로 나타났음. 특히 중구와 종로구는 대기업 본사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체가 밀집되어 있어 유입인구가 야간(상주)인구보다 월등히 많아 주간인구지수(야간인구=100)가 각각 390.8과 242.7을 나타냄.

○ 한편 주간인구가 작은 구는 15개구이며, 특히 주로 주거지역으로 이루어진 강북구(68.8%), 은평구(76.7%), 중랑구(76.8%), 양천구(76.9%) 등은 주간인구가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음.

서울시 구별 주간인구 지수

(야간인구 = 100)



서울시 주·야간 인구

(단위 : 천명, %)

행정 구역	상 주 인 구 (야간인구)						유입인구		주간 인구	주 간 인 구 지 수 (야간 인구 =100)
	계	비통근 통학자	통 근 통 학 자				시 내 다른구 유 입 인 구	시 외 지 역 유 입 인 구		
			계	시내 통근통학자		시 외 유 출 통근· 통학자				
				구 내 통근· 통학자	시 내 다른구 유 출 통근자					
서울 남 여	8,400 4,108 4,292	2,975 675 2,300	5,425 3,433 1,992	2,491 1,457 1,034	2,416 1,579 837	518 397 121	2,416 1,579 838	955 691 264	8,837 4,402 4,435	105.2 107.2 103.3
종로구	161	61	100	58	36	6	211	60	390	242.7
중구	115	44	71	41	26	4	283	81	449	390.8
용산구	214	79	135	65	59	10	102	38	285	133.6
성동구	276	101	175	75	87	14	112	30	317	114.8
광진구	310	107	203	89	98	17	40	9	244	78.6
동대문구	344	126	218	109	93	16	160	41	436	126.4
중랑구	354	128	226	96	107	23	33	15	272	76.8
성북구	408	152	256	119	119	18	99	21	391	96.0
강북구	327	116	211	80	116	15	25	4	225	68.8
도봉구	282	104	178	69	93	16	45	15	233	82.7
노원구	451	165	286	119	146	21	60	15	359	79.7
은평구	399	145	254	111	117	26	27	23	306	76.7
서대문구	296	111	185	82	88	15	107	32	332	112.3
마포구	323	114	209	101	90	18	82	35	332	103.0
양천구	374	129	245	104	114	27	36	18	287	76.9
강서구	406	145	261	125	109	27	60	35	365	90.0
구로구	296	101	195	88	76	31	76	64	329	110.9
금천구	231	81	150	68	58	24	19	20	188	81.3
영등포구	341	117	224	112	86	26	185	101	515	150.8
동작구	347	119	228	87	118	23	58	20	284	81.8
관악구	452	160	292	123	138	31	60	25	368	81.4
서초구	323	109	214	99	93	22	128	65	403	124.5
강남구	452	148	304	168	108	28	288	117	721	159.4
송파구	521	175	346	170	141	34	79	45	470	90.3
강동구	397	138	259	133	100	26	41	24	336	84.6

바. 이용교통수단별 통근·통학 인구

- 6대도시의 통근·통학인구중 단일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통근·통학 인구는 92.8%이며, 복합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통근·통학인구는 7.2%로 나타났음.
- 6대도시에서 이용교통수단은 시내버스가 31.7%, 도보 22.5%, 승용차 20.4%, 전철·지하철 7.8% 순으로 나타났음.
 - 시내버스는 '90년에 비하여 9.1%포인트 감소(40.8%→31.7%)하여 이용비율은 낮아졌으나 여전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나타났음.
 - 승용차는 자동차 보급확대에 힘입어 '90년에 비하여 배이상 크게 증가(9.6%→20.4%)한 것으로 나타남.

이용교통수단별 통근·통학인구

(단위 : 천명, %)

	통근·통학인구 ('90)		통근·통학인구 ('95)	
	통근·통학인구 ('90)	구성비	통근·통학인구 ('95)	구성비
6대 도시계	9,447	100.0	10,936	100.0
단일 수단	8,784	93.0	10,145	92.8
시내버스	3,857	40.8	3,462	31.7
도보	2,287	24.2	2,463	22.5
승용차	911	9.6	2,234	20.4
전철, 지하철 ¹⁾	636	6.7	848	7.8
기타버스	633	6.7	445	4.1
좌석버스	105	1.1	157	1.4
택시	99	1.1	95	0.9
자전거	118	1.2	92	0.8
기타	138	1.5	349	3.2
복합 수단	663	7.0	791	7.2
시내+전철,지하철	374	4.0	452	4.1
시내+좌석버스	39	0.4	48	0.4
시내+기타버스	75	0.8	35	0.3
좌석+전철,지하철	11	0.1	20	0.2
기타	164	1.7	236	2.2

주 : 1) 기차 포함

대도시 통근·통학인구의 이용교통수단

(단위 : 천명, %)

	6대도시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계	10,936 (100.0)	5,425 (100.0)	1,930 (100.0)	1,201 (100.0)	1,125 (100.0)	630 (100.0)	625 (100.0)
<u>단일 수단</u>	10,145 (92.8)	4,821 (88.9)	1,856 (96.1)	1,179 (98.2)	1,048 (93.2)	624 (99.0)	617 (98.8)
시내 버스	3,462 (31.7)	1,385 (25.5)	785 (40.6)	458 (38.2)	345 (30.6)	272 (43.2)	217 (34.8)
도 보	2,463 (22.5)	1,305 (24.1)	451 (23.4)	225 (18.7)	216 (19.2)	126 (20.0)	140 (22.3)
승용차	2,234 (20.4)	1,024 (18.9)	321 (16.6)	309 (25.7)	274 (24.4)	141 (22.4)	165 (26.4)
전철, 지하철	827 (7.6)	693 (12.8)	79 (4.1)	- (-)	55 (4.9)	- (-)	- (-)
기타 버스	445 (4.1)	131 (2.4)	97 (5.0)	66 (5.5)	75 (6.7)	41 (6.5)	35 (5.6)
좌석 버스	157 (1.4)	88 (1.6)	15 (0.8)	25 (2.1)	13 (1.1)	4 (0.7)	12 (1.9)
택시	95 (0.9)	40 (0.7)	21 (1.1)	10 (0.9)	9 (0.8)	7 (1.1)	8 (1.3)
자전거	92 (0.8)	31 (0.6)	11 (0.6)	20 (1.7)	11 (1.0)	9 (1.4)	10 (1.6)
기차	21 (0.2)	10 (0.2)	4 (0.2)	3 (0.2)	1 (0.1)	1 (0.1)	2 (0.3)
기타	349 (3.2)	114 (2.1)	72 (3.7)	63 (5.2)	49 (4.3)	23 (3.7)	28 (4.5)
<u>복합 수단</u>	791 (7.2)	604 (11.1)	74 (3.9)	22 (1.8)	77 (6.8)	6 (1.0)	8 (1.2)
시내버스+전철·지하철	452 (4.1)	374 (6.9)	37 (1.9)	- (-)	41 (3.6)	- (-)	- (-)
기타버스+전철·지하철	87 (0.8)	69 (1.3)	3 (0.2)	- (-)	15 (1.3)	- (-)	- (-)
시내버스+좌석버스	48 (0.4)	24 (0.4)	7 (0.4)	10 (0.8)	3 (0.2)	2 (0.3)	2 (0.2)
시내버스+기타버스	35 (0.3)	18 (0.3)	8 (0.4)	2 (0.2)	5 (0.4)	1 (0.2)	1 (0.2)
좌석버스+전철·지하철	20 (0.2)	18 (0.3)	1 (0.0)	- (-)	1 (0.1)	- (-)	- (-)
좌석버스+기타버스	3 (0.0)	2 (0.0)	1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146 (1.3)	99 (1.8)	17 (0.9)	10 (0.8)	12 (1.1)	3 (0.5)	5 (0.8)

2. 가 구 편

가. 가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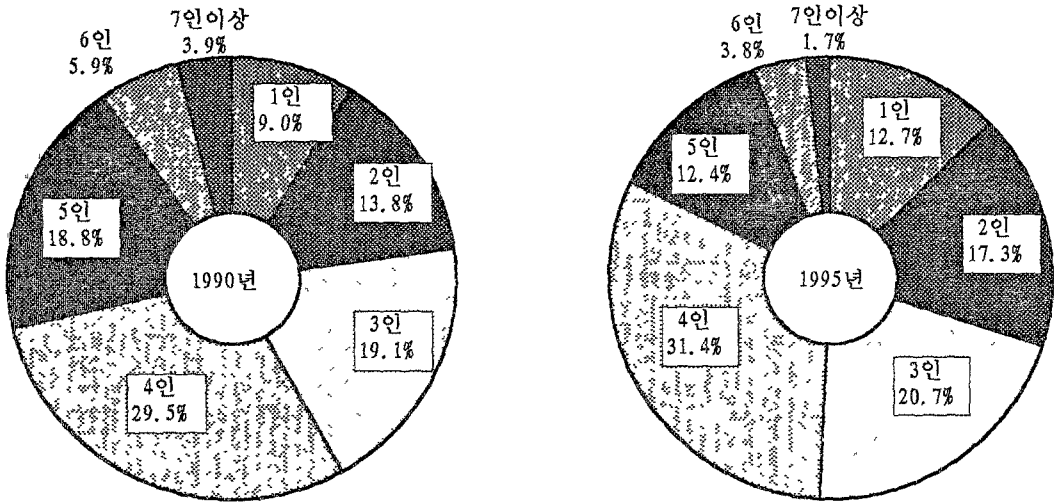
- 우리나라 일반 가구수는 12,961천가구로 '90년의 11,355천가구보다 14.1%가 증가함.
- 가구원수별로 보면 1~4인 가구는 증가하는 반면 5인 이상 가구들은 감소하고 있어 가구분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90년 3.7명에서 '95년 3.3명으로 감소하였음.
 - 가구원수가 적은 가구일수록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혼자 생활하는 1인가구는 1,650천가구로 '90년대비 61.4%의 높은 증가를 보여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도 12.7%로 '90년보다 3.7%포인트가 높아졌음.
 - 일반가구중 가구원수가 4인인 가구가 31.4%(4,075천가구)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3인 가구로 전체의 20.7%(2,680천가구)를 차지하고 있음.

가구원수별 가구

(단위 . 천가구, %, 명)

	1990		1995		증감(율)
	가구수	구성비	가구수	구성비	
일반가구	11,355	100.0	12,961	100.0	1,606 (14.1)
1~4인	8,102	71.4	10,642	82.1	2,540 (31.4)
1인	1,022	9.0	1,650	12.7	628 (61.4)
2인	1,566	13.8	2,237	17.3	671 (42.8)
3인	2,163	19.1	2,680	20.7	517 (23.9)
4인	3,351	29.5	4,075	31.4	724 (21.6)
5~7인 이상	3,253	28.6	2,319	17.9	△934(△28.7)
5인	2,140	18.8	1,606	12.4	△534(△25.0)
6인	671	5.9	491	3.8	△180(△26.8)
7인 이상	442	3.9	222	1.7	△220(△49.8)
평균가구원수	3.7		3.3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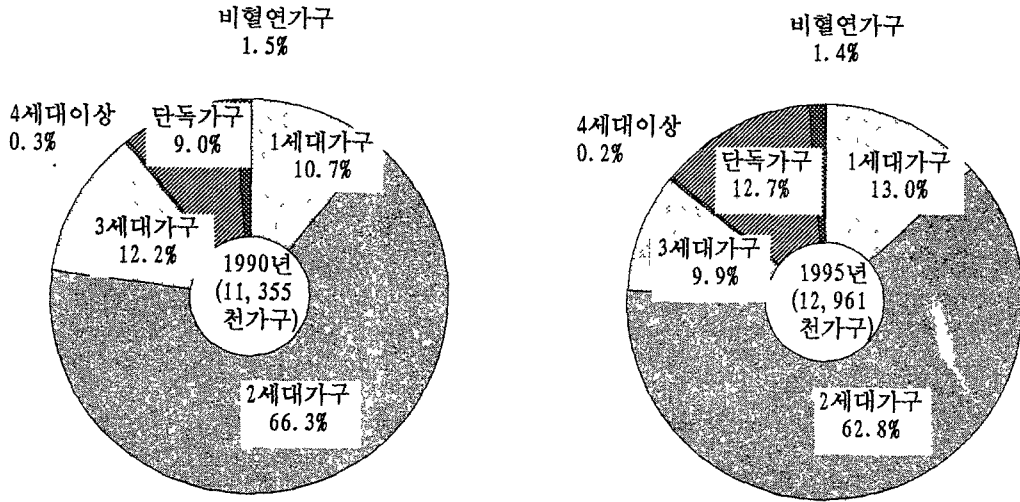
가구원수별 구성비 비교



나. 세대(世代)구성별 가구

- 가구의 세대별(가구주와 가구원간의 관계) 유형을 보면 총가구(일반가구) 중 2세대가구가 62.8%로 가장 많고, 구성원별로 보면 「부부+자녀」가 50.0%로 가장 많음.
- 이를 세대(世代)별로 '90년과 비교하여 보면 3세대이상 가구의 구성비는 감소한 반면, 1세대 및 단독가구는 증가하였음.
 - 1세대가구는 1,682천가구로 '90년의 1,220천가구보다 37.9%가 증가하여 총가구 증가율(14.1%)보다 상회함.
 -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도 '90년의 10.7%에서 13.0%로 높아졌음.
 - 2세대가구는 8,142천가구로 '90년 7,529천가구보다 8.1%가 증가하였으나, 구성비는 '90년의 66.3%에서 62.8%로 감소함.
 - 3세대이상 가구는 감소현상을 보였음.
 - 단독가구는 동기간중 61.4%나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이는 초혼연령 상승으로 인한 도시의 미혼 단독가구의 증가와 읍면(畵面)부의 노인 단독가구 증가 등에 기인함.

세대구성별 구성비 비교



세대구성별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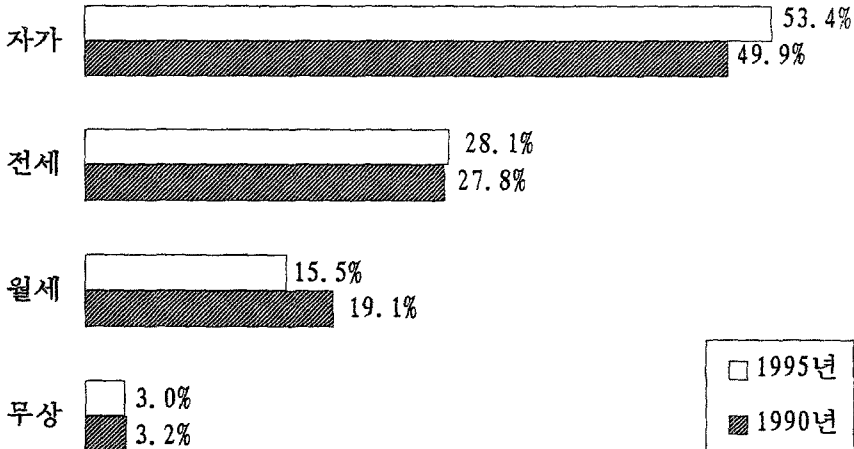
(단위 : 천가구, %)

	1990		1995		증감(율)
	가구수	구성비	가구수	구성비	
<u>일 반 가 구</u>	11,355	100.0	12,961	100.0	1,606 (14.1)
- 1 세 대 가 구	1,220	10.7	1,682	13.0	462 (37.9)
· 부부	942	8.3	1,465	11.3	523 (55.5)
- 2 세 대 가 구	7,529	66.3	8,142	62.8	613 (8.1)
· 부부+자녀	5,895	51.9	6,480	50.0	585 (9.9)
· 부부+양친	22	0.2	39	0.3	17 (77.3)
· 부부+편친	70	0.6	115	0.9	45 (64.3)
- 3 세 대 가 구	1,383	12.2	1,279	9.9	△104(△7.5)
· 부부+양친+자녀	192	1.7	179	1.4	△13(△6.8)
· 부부+편친+자녀	758	6.7	857	6.6	99 (13.1)
- 4세대이상 가구	35	0.3	28	0.2	△7(△20.0)
- 단 독 가 구	1,022	9.0	1,650	12.7	628 (61.4)
- 비 혈 연 가 구	166	1.5	180	1.4	14 (8.4)

다. 점유형태별 가구

- 전국의 총 12,961천가구중 자기집에 거주하는 가구(자가거주)는 6,913천가구(53.4%), 전세는 3,645천가구(28.1%), 월세는 2,010천가구(15.5%)로 나타났다.
- 자가거주비율은 정부의 꾸준한 주택공급정책과 주택가격 안정으로 '90년 49.9%에서 '95년 53.4%로 3.5%포인트 높아졌음.
- 전국 동(洞)부의 자가거주 비율은 '90년 40.5%에서 '95년 46.4%로 5.9%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읍면(邑面)부에서는 같은 수준(77.3%)을 나타냄.
-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는 전체가구의 28.1%로 '90년 27.8%보다 0.3%포인트 상승하였으나 월세는 15.5%로 '90년 19.1%보다 3.6%포인트 감소하였음.

점유형태별 구성비 비교



여 백

라. 주택당 거주 가구수

- '95년 주택당 거주가구수는 1.4가구로 '90년의 1.6가구보다 0.2가구가 감소하여 주거의 밀집도는 낮아졌음.
- 이는 독립거주거구에 적합한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신축증가에 기인.
- 동(洞)지역의 주택당 가구수는 1.5, 읍면(邑面)지역은 1.1로 농촌가구의 도시전입에 따라 읍면지역의 주택당 거주가구수는 낮게 나타남.

주택당 거주 가구수

(단위 : 천호, 천가구, 가구)

	1990			1995		
	주택수	가구수	주택당 거주가구수	주택수	가구수	주택당 거주가구수
전 국	7,160	11,301	1.6	9,216	12,905	1.4
단 독 주 택	4,727	8,506	1.8	4,383	7,701	1.8
아 파 트	1,628	1,678	1.0	3,447	3,458	1.0
연립·다세대	603	729	1.2	1,065	1,175	1.1
비거주용건물 내주택	202	388	1.9	321	571	1.8
동 (洞) 부	4,646	8,417	1.8	6,571	9,988	1.5
단 독 주 택	2,411	5,841	2.4	2,238	5,339	2.4
아 파 트	1,542	1,591	1.0	3,161	3,168	1.0
연립·다세대	532	655	1.2	938	1,042	1.1
비거주용건물 내주택	161	330	2.0	234	439	1.9
읍면(邑面)부	2,514	2,884	1.1	2,645	2,917	1.1
단 독 주 택	2,316	2,665	1.2	2,145	2,362	1.1
아 파 트	86	87	1.0	286	290	1.0
연립·다세대	70	74	1.1	127	133	1.0
비거주용건물 내주택	42	58	1.4	87	132	1.5

주) 가구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수임.

마. 사용방수별 가구

- '95년의 가구당 사용방수는 3.1개로 '90년 2.5개보다 0.6개 증가함.
- 동부는 3.2개, 읍면부는 3.0개로 '90년대비 각각 0.7개, 0.5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생활 공간은 넓어짐.
- 시·도별로 보면 제주도가 가구당 사용방수가 3.6개로 가장 많고, 다음은 대전이 3.3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시·도별 가구당 평균사용방수

(단위 : 개)

구 분	'90	'95	증 가
전 국	2.5	3.1	0.6
동 (洞) 부	2.5	3.2	0.7
읍면(邑面)부	2.5	3.0	0.5

<u>6대도시</u>	2.5	3.1	0.6
서울	2.5	3.1	0.6
부산	2.4	3.0	0.6
대구	2.5	3.2	0.7
인천	2.6	3.2	0.6
광주	2.7	3.2	0.5
대전	2.6	3.3	0.7

<u>9개도</u>	2.5	3.1	0.6
경기	2.4	3.2	0.8
강원	2.6	3.1	0.5
충북	2.6	3.1	0.5
충남	2.6	3.1	0.5
전북	2.5	3.0	0.5
전남	2.5	3.0	0.5
경북	2.4	3.0	0.6
경남	2.5	3.1	0.6
제주	3.0	3.6	0.6

- 가구당 사용방수를 보면 1~2개의 방을 사용하는 가구는 3,802천가구(29.3%)를 차지하여 '90년대비 38.6%가 감소한 반면, 3개 이상을 사용하는 가구는 9,159천가구(70.7%)를 차지하여 '90년대비 대폭 증가하였음.

사용방수별 가구

(단위 : 천가구, 개)

구 분	1990		1995		증감(율)
	가구수	구성비	가구수	구성비	
전 국	11,355	100.0	12,961	100.0	1,606 (14.1)
소 계	6,188	54.5	3,802	29.3	△2,386(△38.6)
1개	2,925	25.8	1,472	11.3	△1,453(△49.7)
2개	3,263	28.7	2,330	18.0	△933(△28.6)
소 계	5,167	45.5	9,159	70.7	3,992 (77.3)
3개	2,854	25.1	3,911	30.2	1,057 (37.0)
4개	1,519	13.4	3,976	30.7	2,457 (161.8)
5개	598	5.3	910	7.0	312 (52.2)
6개 이상	196	1.7	362	2.8	166 (84.7)
동 (洞) 부	8,462	100.0	10,034	100.0	1,572 (18.6)
소 계	4,645	54.9	2,813	28.0	△1,832(△39.4)
1개	2,436	28.8	1,207	12.0	△1,229(△50.5)
2개	2,209	26.1	1,606	16.0	△603(△27.3)
소 계	3,817	45.1	7,221	72.0	3,404 (89.2)
3개	1,904	22.5	2,945	29.3	1,041 (54.7)
4개	1,220	14.4	3,249	32.4	2,029 (166.3)
5개	520	6.1	710	7.1	190 (36.5)
6개 이상	173	2.1	317	3.2	144 (83.2)
읍면(邑面)부	2,892	100.0	2,927	100.0	35 (1.2)
소 계	1,544	53.4	988	33.8	△556(△36.0)
1개	489	16.9	265	9.1	△224(△45.8)
2개	1,055	36.5	723	24.7	△332(△31.5)
소 계	1,348	46.6	1,939	66.2	591 (43.8)
3개	950	32.8	966	33.0	16 (1.7)
4개	298	10.3	727	24.8	429 (144.0)
5개	78	2.7	201	6.9	123 (157.7)
6개 이상	22	0.8	45	1.5	23 (104.5)

바. 주거시설형태별 가구

- 1995년 전체가구중 입식부엌이 10,948천가구(84.5%), 재래식부엌 시설을 사용하는 가구가 1,913천가구(14.8%)이며, 부엌시설이 없는 가구는 100천가구(0.7%)로 나타남.
- 화장실 시설은 전체가구중 75.0%인 9,719천가구가 수세식 화장실, 24.3% (3,152천가구)는 재래식 화장실, 0.7%(90천가구)는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 가구임.
- 목욕시설은 전체가구중 10,143천가구(78.3%)가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구로 나타났으며 이중 9,730천가구(75.1%)는 온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가구로 나타남.

주거시설형태별 가구

(단위 : 천가구, %)

	1990		1995		증감(율)
	가구수	구성비	가구수	구성비	
<u>부엌시설</u>	11,355	100.0	12,961	100.0	1,606 (14.1)
입 식	5,952	52.4	10,948	84.5	4,996 (83.9)
재래식	5,323	46.9	1,913	14.8	△3,410(△64.1)
없 음	80	0.7	100	0.7	20 (25.0)
<u>화장실시설</u>	11,355	100.0	12,961	100.0	1,606 (14.1)
수세식	5,822	51.3	9,719	75.0	3,897 (66.9)
재래식	5,482	48.3	3,152	24.3	△2,330(△42.5)
공중(없음)	51	0.4	90	0.7	39 (76.5)
<u>목욕시설</u>	11,355	100.0	12,961	100.0	1,606 (14.1)
있 음	5,002	44.1	10,143	78.3	5,141 (102.8)
[온 수	3,870	34.1	9,730	75.1	5,860 (151.4)
비온수	1,132	10.0	413	3.2	△719(△63.5)
없 음	6,353	55.9	2,818	21.7	△3,535(△55.6)

- 동(洞)부, 읍면(邑面)부 구분없이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온수 목욕시설이 증가하여 주거시설 환경이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洞)부·읍면(邑面)부간의 구성비를 보면 아직도 읍면(邑面)부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동(洞)부·읍면(邑面)부별 주거시설형태 비교

(단위 : 천가구, %)

	가구수		구성비		
	동 부	읍면부	동 부 (A)	읍면부 (B)	차 이 (A-B)
<u>부엌시설</u>	10,034	2,927	100.0	100.0	-
입 식	8,773	2,175	87.4	74.3	13.1
재래식	1,172	741	11.7	25.3	△13.6
없 음	89	11	0.9	0.4	0.5
<u>화장실시설</u>	10,034	2,927	100.0	100.0	-
수세식	8,431	1,288	84.0	44.0	40.0
재래식	1,526	1,626	15.2	55.6	△40.4
공중(없음)	77	13	0.8	0.4	0.4
<u>목욕시설</u>	10,034	2,927	100.0	100.0	-
있 음	8,179	1,964	81.5	67.1	14.4
[온 수	7,946	1,784	79.2	60.9	18.3
비온수	233	180	2.3	6.2	△3.9
없 음	1,855	963	18.5	32.9	△14.4

3. 주택편

가. 주택의 종류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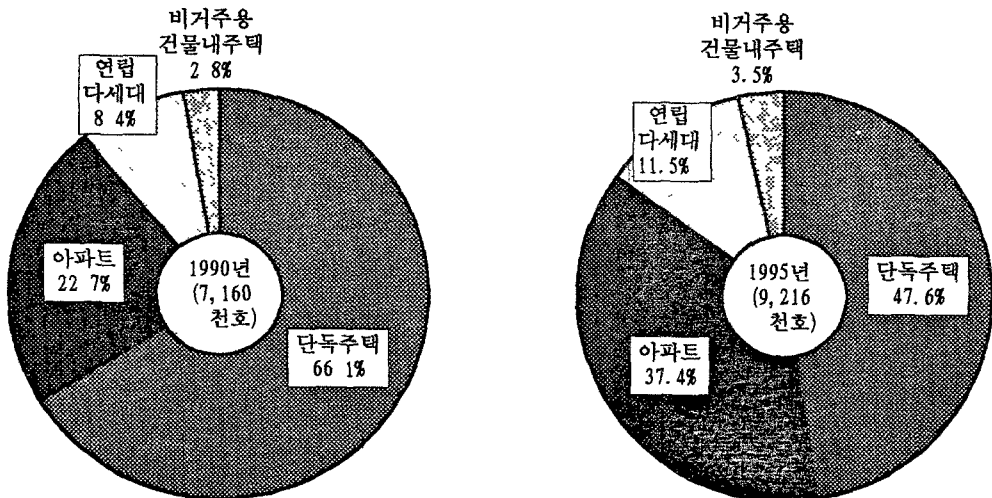
- 빈집을 제외한 총주택수는 '90년의 7,160천호에 비하여 2,056천호(28.7%)가 증가하였음.
- 이에 따라 주택보급률은 '90년의 72.4%에서 13.7%포인트가 증가한 86.1%로 나타났음.
- 주택의 종류별로 보면, 지난 5년간 아파트가 1,819천호(111.7%), 연립·다세대주택이 462천호(76.6%)가 증가한 반면, 단독주택은 오히려 344천호(△7.3%)가 감소하였음.
- 주택중 공동주택의 비중(48.9%)이 단독주택의 비중(47.6%)을 앞서 국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종류별 주택

(단위 : 천호, %)

	1990		1995		증감(율)
	주택수	구성비	주택수	구성비	
총 주택 수	7,160	100.0	9,216	100.0	2,056 (28.7)
단 독 주 택	4,727	66.1	4,383	47.6	△344 (△7.3)
아 파 트	1,628	22.7	3,447	37.4	1,819 (111.7)
연 립 · 다 세 대	603	8.4	1,065	11.5	462 (76.6)
비거주용건물내주택	202	2.8	321	3.5	119 (58.9)

주택의 종류별 구성비 비교



- 이를 동(洞)부와 읍면(邑面)부로 나누어 보면, 동(洞)부는 1,925천호('90년대비 41.4%)가 증가한 반면, 읍면(邑面)부에서는 131천호('90년대비 5.2%)의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동(洞)부·읍면(邑面)부별 주택수

(단위 . 천호, %)

	1990		1995		증 감	
	주택수	구성비	주택수	구성비	주택수	증감률
전 국	7,160	100.0	9,216	100.0	2,056	28.7
동 (洞) 부	4,646	64.9	6,571	71.3	1,925	41.4
읍면(邑面)부	2,514	35.1	2,645	28.7	131	5.2

- '90년대비 주택증가추세를 시도별로 보면, 대전(70.5%), 인천(64.2%), 경기(54.8%), 광주(51.5%), 대구(46.1%) 등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크게 증가한 반면, 전남(9.1%), 충남(12.2%), 강원(12.6%), 경북(12.8%) 등 지방은 비교적 증가율이 낮았음.

지역별 주택

(단위 . 천호, %)

	1990		1995		증가(율)
	주택수	구성비	주택수	구성비	
총주택수	7,160	100.0	9,216	100.0	2,056 (28.7)
서울	1,431	20.0	1,692	18.4	261 (18.2)
부산	510	7.1	662	7.2	152 (29.8)
대구	292	4.1	426	4.6	134 (46.1)
인천	310	4.3	509	5.5	199 (64.2)
광주	161	2.3	244	2.6	83 (51.5)
대전	159	2.2	271	2.9	112 (70.5)
경기	998	13.9	1,545	16.8	547 (54.8)
강원	328	4.6	369	4.0	41 (12.6)
충북	269	3.8	339	3.7	70 (26.1)
충남	403	5.6	453	4.9	49 (12.2)
전북	404	5.6	473	5.1	70 (17.2)
전남	523	7.3	571	6.2	48 (9.1)
경북	610	8.5	689	7.5	78 (12.8)
경남	672	9.4	863	9.4	190 (28.3)
제주	90	1.3	110	1.2	20 (22.4)

나. 연건평별 주택

- 전국의 주택당 평균건평은 25.1평으로 90년의 24.5평보다 0.6평이 증가하여 주택의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동(洞)부와 읍면(邑面)부로 나누어 보면, 동부는 26.3평으로 90년 26.7평보다 오히려 0.4평이 줄었고 읍면부는 22.1평으로 90년 20.5평보다 1.6평이 늘었음.
- 이는 단독주택보다 건평이 비교적 작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증가가 동부에서 크게 늘어난 반면, 읍면부에서는 건평이 큰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증가에 기인한 것임.

주택당 평균 연건평

(단위 : 평)

		평 균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전 국	1990	24.5	25.6	21.9	19.3	34.8
	1995	25.1	29.1	21.3	19.6	29.9
	증 감	0.6	3.5	△0.6	0.3	△4.9
동 부	1990	26.7	30.6	22.0	19.3	36.5
	1995	26.3	35.7	21.4	19.4	31.3
	증 감	△0.4	5.1	△0.6	0.1	△5.2
읍면부	1990	20.5	20.4	18.6	18.8	28.5
	1995	22.1	22.2	21.1	20.9	26.2
	증 감	1.6	1.8	2.5	2.1	△2.3

○ 주택의 종류별로 '90년과 비교하여 보면,

- 단독주택은 19평미만의 경우 30.2%가 감소한 반면, 29평이상은 16.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아파트는 19~29평이 141.0%나 크게 증가하였고, 19평미만은 109.0%, 29평이상은 59.6% 각각 증가 하였음.
- 19평미만의 아파트가 증가하는 것은 소형 영구 임대아파트 건설에 기인한 것임.
- 연립·다세대주택은 모든 규모에서 60~80%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연건평별 주택

(단위 · 천호, %)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1990	합 계	7,160	4,727	1,628	603	202
	19평미만	3,296	2,080	785	357	74
	19~29평	2,254	1,440	566	206	42
	29평이상	1,610	1,207	277	40	86
1995	합 계	9,216	4,383	3,447	1,065	321
	19평미만	3,837	1,452	1,641	624	120
	19~29평	3,348	1,532	1,364	375	77
	29평이상	2,031	1,399	442	66	124
증감률	합 계	28.7	△7.3	111.7	76.6	58.9
	19평미만	16.4	△30.2	109.0	74.8	62.1
	19~29평	48.5	6.4	141.0	82.0	83.3
	29평이상	26.1	16.0	59.6	65.0	44.1

다. 총방수별 주택

- 총방수의 합을 주택수로 나눈 주택당 평균총방수는 4.39개로 '90년의 3.96개보다 0.43개가 증가하였음.
- 총방수가 4개인 주택이 전체 주택중 38.6%(3,555천호)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총방수별 주택수를 '90년과 비교하면, 총방수가 1~2개인 주택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3개이상인 주택은 늘어나고 있음.
- 특히 방 4개인 주택의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그동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증가에 기인한 것임

총방수별 주택

(단위 : 천호, %)

	1990		1995		증감률
	주택수	구성비	주택수	구성비	
총 계	7,160	100.0	9,216	100.0	28.7
1~2개	1,295	18.1	654	7.1	△49.5
3개	2,216	30.9	2,425	26.3	9.4
4개	1,619	22.6	3,555	38.6	119.6
5개 이상	2,030	28.4	2,582	28.0	27.2
평균방수	3.96		4.39		0.43

라. 대지면적별 단독주택

- 전국 평균 단독주택의 대지면적은 77.5평으로 '90년보다 3.6평이 늘어났음. 이를 동부와 읍면부로 보면, 동부는 54.2평(90년 52.0평), 읍면부는 101.7평('90년 96.8평)으로 '90년보다 약간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읍면부의 대지면적은 동부보다 47.5평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음.
- 시도별로는, 전남(103.1평), 충북(96.2평), 제주(95.8평)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서울(45.1평), 부산(42.1평), 대구(55.3평), 인천(54.3평), 광주(60.4평) 등 대도시 지역의 대지면적이 좁은 것으로 나타났음.

단독주택의 평균 대지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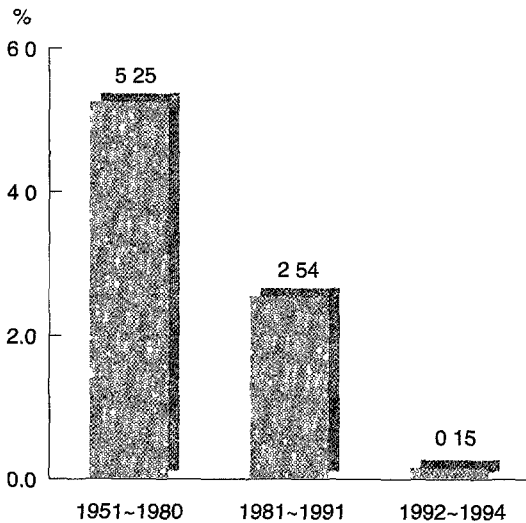
(단위 : 천호, 평, %)

	1990		1995		증감(율)
	주택수	평균면적	주택수	평균면적	
전 국	4,727	73.9	4,383	77.5	3.6(0.5)
동 부	2,411	52.0	2,238	54.2	2.2(4.2)
읍 면 부	2,316	96.8	2,145	101.7	4.9(5.1)
서 울	660	43.3	568	45.1	1.8(4.2)
부 산	303	40.1	290	42.1	2.0(4.9)
대 구	179	51.6	187	55.3	3.7(7.1)
인 천	118	45.2	130	54.3	9.1(20.1)
광 주	102	60.9	96	60.4	△0.5(△0.8)
대 전	92	64.5	87	64.6	0.1(0.1)
경 기	550	75.6	511	81.4	5.8(7.7)
강 원	253	70.8	228	78.6	7.8(11.0)
충 북	213	93.9	200	96.2	2.3(2.4)
충 남	362	86.0	334	93.2	7.2(8.4)
전 북	339	98.1	307	93.5	△4.6(△4.7)
전 남	469	96.9	431	103.1	6.2(6.4)
경 북	509	90.7	466	94.4	3.7(4.1)
경 남	501	77.6	473	81.6	4.0(5.2)
제 주	77	98.4	75	95.8	△2.6(△2.6)

여 백

통계로본 통독의 통일비용

실질 GNP 성장률



서독의 실질 GNP는 '50년 436.9십억DM,
'80년 2,025.5십억DM, '91년 2,668십억DM,
'94년도에는 2,680.3십억DM으로 나타나
통일전('81~'91)은 연평균 2.54%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통일후('92~'94)는 0.15%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통계로 본 통독의 통일비용

1996. 7

자료관리국 국제통계과

통계로 본 통독의 통일비용(요약)

(1) 인 구

- 서독의 혼인건수는 1950년 535,708건에서 1993년 393,353건으로 26.6%가 감소하였는데 통일전 40년간(1951~90) 평균증감률은 -0.6%, 통일후 3년간(1991~93) 평균증감률은 -1.7%로써 통일후 혼인건수가 대폭 감소하고 있다.
- 동독의 혼인건수는 1950년 214,744건에서 1993년 49,252건으로 77.1%대폭 감소하였으며 통일전 40년간(1951~90) 평균증감률은 -1.9%, 통일후 3년간(1991~93)은 -21.5%로써 통일후 혼인건수가 대폭 감소하고 있어 인구·사회적인 비용을 치르고 있다.
- 1989년부터 1993년 말까지 동독지역에서 서독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은 1,256,262명으로써 1993년 동독총인구대비 8%에 해당되며
- 1990년 9월1일부터 1993년 말까지 서독지역에서 동독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은 329,136명으로써 1993년 서독총인구대비 0.5%에 불과하다.

(2) 고용·임금

- 서독의 1990년 경제활동참가율은 58%, 실업률은 6.3%를 나타내고 있다.
통일후 1993년도에는 참가율은 58.1%, 실업률은 7.2%를 기록함으로써 실업률이 1990년보다 0.9%「포인트」 높아졌다.
 - 동독의 1992년도 경제활동참가율은 64.5%, 실업률은 17%를 기록하고 있으며 1993년도에는 참가율은 63%, 실업률은 18.3%를 기록하여 전년보다 실업률이 1.3%「포인트」 높아졌다.

-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를 분석해보면 서독은 1990년에 농림어업이 3.5%, 광공업이 32.2%, S.O.C 및 기타가 64.3%로 나타났으며 1994년도에는 차례로 2.9%, 28.5%, 68.6%로 나타나 광공업이 3.7%「포인트」 낮아졌다.
 - 동독은 1991년에 농림어업이 6%, 광공업이 31.1%, S.O.C 및 기타가 62.9%로 나타났고 1994년도에는 차례로 3.4%, 19.2%, 77.4%로 나타나 광공업이 11.9%「포인트」 낮아져 동독인들이 높은 광공업 노동강도를 견디지 못하여 실업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실업자수의 구인자수에 대한 배율은 서독은 1990년 6배, 1993년 9.3배로 나타났고 동독은 1991년 29배, 1993년 31.8배로 나타나 높은 실업률과 더불어 고용사정이 극히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노·사간의 산업평화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노동쟁의 실태는 서독은 통일 후 5년(1990~94) 평균쟁의발생사업장수는 933개소, 참여자수는 296,171명, 노동손실일수는 472,682일에 달하고 지난 1989년도와 비교하면 사업장수는 3배, 참여자수는 6.7배, 손실일수는 4.7배에 이르고 있고
- 동독은 1993년도에 노동쟁의 사업장수가 186개소, 참여자수 103,842명, 손실일수가 508,737일로 나타났다.

3) 국민총생산

- 서독의 GDP성장률은 1951~80년 기간중에는 연평균 5.3%, 1981~91년 기간중에는 2.5%, 1992~94년 기간중에는 0.8%의 저성장률을 시현함으로써 통일전(1981~91)보다 1/3이하로 떨어졌다.
- 동독의 성장률은 1992~94기간중 연평균 7.6%를 기록하여 같은기간중 서독보다 10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서독의 GNP성장률은 1951~80년 기간중에는 연평균 5.3%, 1981~91년 기간중에는 2.5%, 1992~94년 기간중에는 0.2%의 저성장률을 시현함으로써 통일전(1981~91)보다 1/15이하로 떨어졌다.

- 동독의 성장률은 1992~94기간중 연평균 7.3%를 기록하여 같은 기간중 서독보다 48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재 정

- 조세 및 준조세가 GNP에서 차지하는 조세부담률은 서독의 경우 1950년 21.4%, 1980년 40.4%, 1990년 38%로 나타났으며 1994년 독일전체로서는 42.2%로 높아져 1990년 서독대비 4.2%「포인트」 높아졌다.
- 서독의 통일전 4년간(1987~90) 재정수지 적자액은 166,195백만DM으로 나타났으며 통일후 독일전체의 4년간(1991~94) 재정수지 적자액은 464,129백만DM으로써 통일전 서독의 4년간 적자액보다 2.8배규모로 확대되었다.
 - 또한, 서독의 부채총액은 1990년 1,048,761백만DM으로 나타났고 독일전체의 1994년도 부채총액은 1,604,074백만DM으로 나타나 부채가 1990년 서독에 비하여 555,313백만DM만큼 늘어났다.
- 서독의 공무원 및 준공무원수는 1990년 4,666,618명이며 1993년도 독일전체의 공무원 및 준공무원수는 6,502,646명으로써 1990년 서독대비 39.3% 증가하였다.

(5) 기업활동

- 통일후 동독지역의 말소사업건수는 1991년 99,767건에서 1994년 119,300건으로 19.6% 증가하였고, 서독은 통일전 4년간(1987~90) 연평균 소멸사업체수가 18,161개소에서 통일후 2년간(1991~92)연평균 20,932개소로 15.3% 증가하였다.

- 통일전 5년간(1986~90) 연평균 서독 대기업체의 자본에 대한 부채비율은 277.3%로 나타났으며 통일후 1991년도는 306.9%로 나타나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다.
 - 통일전 5년간(1986~90) 연평균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률은 8.1%로 나타났고 1991년도에는 6.7%로 나타나 영업실적이 통일전 보다 나빠졌다.

- 서독의 1990년 지불불능건수는 13,271건에서 1994년 20,092건으로 51.4% 증가하였고, 동독은 1991년 401건에서 1994년 4,836건으로 12.1배 증가하였다.

(6) 농림어업

- 서독의 자영경작면적은 1989년 7,229.9천ha로써 구성비가 61.4%를 차지하였고, 1993년도에는 6,363.2천ha로써 구성비가 54.2%로써 7.2%「포인트」 감소하였다.
 - － 동독의 자영경작면적은 1991년 626.1천ha로써 구성비가 11.9%를 차지하였고 1993년도에는 437.1천ha로써 8.3%를 차지하여 3.6%「포인트」 감소하였다.
- 1993년도 ha당 임차료는 서독은 425DM, 동독은 150DM으로 서독지역이 동독지역보다 2.8배 비싼편이며 1993년도 ha당 농지가격은 서독은 29,781DM, 동독은 8,322DM으로 서독지역이 동독지역보다 3.6배 비싸다.
- ha당 곡물생산량을 분석해보면 서독의 경우 1988년 57.3백kg에서 1994년 59.3백kg으로 생산성이 3.5%증가하였으며 동독의 경우 1988년 40.9백kg에서 1994년 56.2백kg으로 생산성이 37.4%신장되었다.

(7) 광공업·건설업

- 제조업 순생산지수는 1985년을 100으로 볼때 서독은 1982년 92.3, 1990년 118.3, 1993년 111.2로 나타나 통일전의 상승세와 통일후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동독도 1990년 하반기를 100으로 볼때 1993년 70.5를 기록하여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건설업 순생산지수는 1985년을 100으로 볼때 서독은 1982년 107.3, 1990년 123.7, 1993년 133.2를 기록하여 통일전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통일후의 증가폭이 통일전보다 더 큰 편이며 동독은 1993년 157.3으로써 상승세가 폭발적이다.
- 광공업 종업원수는 서독의 경우 1980년 7,660천명에서 1994년 6,368천명으로 16.9% 감소하였으며, 동독은 1991년 1,759천명에서 1994년 671천명으로 61.9% 감소하였다.
- 건설업 판매액은 서독은 1987년 129,080백만DM에서 1994년 225,944백만DM으로 명목상 75% 증가하였고 동독은 1991년 27,201백만DM에서 1994년 77,073백만DM으로 명목상 2.8배 증가하였다.

(8) 도소매·관광업

- 1990년도 서독의 상품공급은 21,325.7백만DM, 수요는 8,274.1백만DM으로 +13,051.6백만DM만큼 상품 재고가 발생하였으며 1994년도에는 상품공급은 68,685.6백만DM, 수요는 13,706.3백만DM으로 +54,979.3백만DM만큼 상품재고가 발생하였다.
- 서독의 숙박시설은 1989년 47,985개소, 1990년 47,842개소, 1994년도에는 44,781개소로써 1989년대비 6.7% 감소하였으며 동독은 1991년 3,807개소에서 1994년 5,314개소로써 39.6%크게 증가하였다.
- 독일전체의 1990년 관광수입은 16,866백만DM 관광지출은 47,386백만DM으로써 관광지출이 관광수입보다 2.8배 많으며, 1994년도에는 관광수입은 17,180백만DM 관광지출은 67,223백만DM으로 관광지출이 관광수입보다 3.9배에 달하고 있어 격차가 보다 커졌다.

(9) 금융업

- 서독의 화폐발행고 연평균 증가율은 통일전 9년간(1981~89)은 6.6%, 통일후 독일전체의 4년간(1991~94)은 8.7%를 기록하여 통일전 서독보다 2.1%「포인트」 증가하였다.
- 서독의 화폐민간보유고 연평균증가율은 통일전 9년간(1981~89)은 6.4%, 통일후 독일전체의 4년간(1991~94)은 9.3%를 기록하여 통일전 서독보다 2.9%「포인트」 증가하였다.
- 서독의 1983~89 기간중 M_1 , 연평균증가율은 7.4%, M_2 는 6.4%, M_3 는 6.1%를 나타내었고
- 통일후 1991~94 기간중 독일전체는 M_1 은 6.9%, M_2 는 6.8%, M_3 는 6.5%를 나타내어 M_1 은 0.5%「포인트」 감소하였고 M_2 와 M_3 는 각각 0.4%「포인트」 증가하였다.
- 서독의 주식가격 총지수는 1988년 248.4를 기록하였고 통일에 대한 기대 심리로 인하여 1989년도에는 330.4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33%증가하였고 1990년에는 274.5를 기록하여 통일후에 대한 불안심리로 인하여 전년대비 16.9% 감소하였다.

- 통일후 1993년도는 370.8로써 전년대비 39.9%상승하여 총지수면이나 상승률면에서 최고의 수치를 기록하였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989년 498.9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116.9%의 상승률을 나타내었으며 1993년도에는 613.6을 기록하여 통일전후 및 업종을 막론하고 최고수치를 기록하였다.
- 서독의 당좌대출 이자율(백만DM~5백만DM)은 1986년 12월 7%에서 1990년 12월 10.3%로 3.3%「포인트」상승하여 자금수요가 증가하였고
- 통일후 독일전체의 경우 1991년 12월 11.3%, 1992년 12월 12%로 1990년 12월서독대비 1.7%「포인트」증가하였다. 1994년 12월에는 9.3%로 1990년 12월서독대비 1%「포인트」낮아져 자금수요가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10) 국제수지

- 서독의 경상수지는 1985년 48,327백만DM의 흑자를 시현하였고, 1989년도에는 108,116백만DM의 흑자를 시현하여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통일후 독일전체는 1990년 75,703백만DM의 흑자를 기록하여 1989년 서독대비 30% 감소하였다.

- 그러나 1991년도에는 32,243백만DM의 적자, 1992년도에는 34,382백만 DM의 적자, 1993년도에는 32,245백만DM의 적자를 기록하여 3년 연속 적자액은 98,870백만DM에 달한다.
- 독일전체의 대외순자산은 1990년도에는 532,996백만DM으로 1950년이후 최고의 대외순자산을 보유하였으나 1994년 6월에는 335,454백만DM으로 1990년대비 197,542백만DM 감소하였다.

(ii) 물 가

- 서독의 소매물가지수는 1985년을 100으로 볼때 1990년 104.4를 나타내어 1985년대비 4.4% 증가하였으며 1994년도에는 113.4를 나타내어 1990년대비 8.6% 증가하였다.
- 독일전체로서는 1991년을 100으로 볼때 1995년 114.8을 나타내어 1991년대비 14.8% 상승하였으며 연평균 상승률(1992~95)은 3.5%로써 통일전 서독(1986~90)의 연평균상승률인 0.9%의 약 4배수준이다.
- 가족이 살 수 있는 거주용 건물의 물가지수를 분석해 보면 1985년을 100으로 볼때 서독은 1990년 116.4로써 1985년대비 16.4%증가하였으며 1993년도에는 137.2로써 1990년대비 17.9%증가 하였다.

- 동독은 1989년을 100으로 볼때 1993년 195.2를 기록하여 1990년대비 36.9% 상승하여 집값이 통일후 대폭 상승하였다.
- 서독의 건축부지시가를 분석해 보면 1985년 m²당 시가는 78.7DM으로 나타났으며 1990년도에는 89.2DM으로 나타나 1985년대비 13.4% 상승하였고 1993년에는 96.5DM으로 1990년대비 8.2%상승하였다.
- 동독의 1991년 m²당 시가는 13.1DM으로 나타났으며 1993년에는 28.3DM으로 나타나 1991년대비 2.2배 상승하였다.

12) 사회간접자본

- 통독후 독일전체의 여객수송인원을 분석해 보면 철도는 1990년 1,642백만명에서 1993년 1,570백만명으로 4.4% 감소하였다. 육로는 1990년 8,696백만명에서 1993년 7,919백만명으로 8.9% 감소하였다. 항공은 1990년 66백만명에서 1993년 79백만명으로 19.7% 증가하였다.
- 통독후 독일전체의 화물수송량을 분석해 보면 철도는 1990년 540.4백만톤에서 1993년 329.2백만톤으로 39.1%감소하였다. 육로는 1990년 3,388.7백만톤에서 1993년 3,629.6백만톤으로 7.1%증가하였다. 내수면은 1990년 245.2백만톤에서 1993년 218.3백만톤으로 11% 감소하였다. 파이프라인은 1990년 94.2백만톤에서 1993년 83.4백만톤으로 11.5% 감소하였다.

- 서독의 전화가입자수는 1988년 28.4백만회선에서 1990년 30.3백만회선으로 6.7% 증가하였고 통일 후에는 1991년도의 33.6백만회선에서 1993년 37백만회선으로 1991년대비 10.1% 증가하였다.

(13) 교육·과학

- 서독의 대학이하 교육기관인 일반학교수는 1988/89학기에는 32,369개교로 나타났으며 1991/92학기에는 32,457개교로써 0.3% 증가하였다. 동독은 1989/90학기에는 5,928개교에서 1991/92학기에는 9,858개교로 66.3%대폭 증가하였다.
 - 서독의 대학교 수는 1989/90학기의 244개교에서 1991/92학기의 249개교로 2% 증가하였으며 동독은 1990/91학기의 54개교에서 1991/92학기 63개교로 16.7% 증가하였다.
- 서독의 연구개발비는 1985년 50,112백만DM에서 1990년 74,920백만DM으로 49.5% 증가하였다가 1991년도에는 69,786백만DM으로 전년대비 8.2% 감소하였다.

- 동독의 연구개발비는 1991년 4,731백만DM으로 서독대비 6.8%수준에 불과하다. 1991년도 독일전체의 연구개발비는 74,517백만DM으로써 GNP대비 2.6%이며 1990년도 서독의 3.1%에 비하여 0.5%「포인트」 낮아졌다.
- 서독의 연구개발인력은 1985년도에 391,509명, 1990년도에 432,659명으로 10.5% 증가하였고 1991년도에는 424,221명으로 전년대비 2% 감소하였다.
- 또한 동독의 1991년도 연구개발인력은 91,035명으로 나타나 서독의 21.5%를 차지하였다.

(14) 공안·보건·사회보장·환경

- 서독의 1990년 법원수는 859개소로 나타났으며 통일후 1994년 법원수는 1,111개소로써 1990년 서독법원수에 비하여 29.3%증가하였다.
- 통독의 1993년도 법조인력은 85,658명으로 1989년 서독대비 18% 증가하였고 직업별로는 판사는 8.1%, 변호사는 24.5% 각각 증가하였으나 검사는 1.5% 감소하였다.

- 서독의 1990년 범죄발생 건수는 4,455,333건으로써 1985년 4,215,451건보다 5.7% 증가하여 연평균 1.1%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 독일전체의 경우 1993년도에는 6,750,613건으로써 1991년의 5,302,796건보다 27.3% 증가하여 연평균 12.8%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 5대 형법범죄의 인구십만명당 발생건수를 분석해보면 절도는 1990년 서독의 경우 4,258건에서 1993년 독일전체의 경우 5,126건으로 20.4% 증가하였으며
 - 강도는 1990년 서독의 경우 56건에서 1993년 독일전체의 경우 76건으로 35.7% 증가하였다.

- 도로상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해 보면 서독의 대인사고건수는 1980년 379,235건, 1990년 340,043건, 1994년도에는 314,059건을 나타내어 통일전 10년간(1981~90)은 연평균 -1.1%, 통일후 4년간(1991~94)은 연평균 -2%를 기록하여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있다.
 - 동독은 1980년 33,437건 1990년 49,307건, 1994년 78,373건으로 나타나 통일전 10년간(1981~90)은 연평균 4%, 통일후 4년간은 연평균 12.3%를 기록하고 있다.

- 서독의 인구십만명당 성병감염자수는 1988년 18.3명이었고 동독은 176.7 명으로써 서독보다 9.7배나 높다. 독일전체로서는 1988년 52.1명에서 1993년 9.8명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 서독의 사회보장급부총액은 1988년 662,071백만DM, 1990년 714,834백만 DM, 1994년 900,008백만DM으로써 연평균증가율은 통일전 2년간(1989~90)은 3.9%, 통일후 4년간(1991~94)은 5.9%로 나타나 통일후가 통일전보다 2%「포인트」 높아졌다.
 - 동독은 1991년 99,612백만DM, 1994년 206,179백만DM으로 나타나 연평균 27.4%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 서독의 실업수당 대상자수는 1990년 1,598천명으로 나타났으며 통일후 1993년도 독일전체는 4,184천명으로 2.6배 증가하였다.
- 서독의 생산산업의 환경보호투자액은 1980년 2,673,924천DM, 1990년 7,252,576천DM, 1994년도에는 6,319,225천DM으로 나타나 1990년대비 12.9% 감소하였다. 생산산업의 총투자액에 대한 구성비는 1980년 3.5%에서 1990년 5.9%로 2.4%「포인트」 증가하였다가 1992년도에는 4.8%로 1990년대비 1.1%「포인트」 감소하였다.

- 동독의 환경산업 투자액은 1992년 2,488,404천DM으로 총투자액의 9.6%를 차지하여 서독의 1992년 구성비의 2배 규모나 된다.
- 서독의 주민 1인당 수거 쓰레기량은 1990년도에 322.5kg, 동독은 376.2kg으로 동독이 서독보다 16.7%정도 많은 편이다.
- 서독의 환경범죄는 1986년 14,853건에서 1990년 21,412건으로 1986년대비 44.2% 증가하였다. 독일전체의 환경범죄는 1993년 29,732건으로 1990년 서독대비 38.9% 증가하였다.
- 특히 환경손상쓰레기처리는 1993년 18,575건으로 나타나 1990년 서독의 9,009건에 비하여 2.1배 정도 규모가 크다.

통독의 주요 경제사회 지표

부 문	지 표 명	지 역	기 준		지 표	
			통일시점 및 통일전	통일후	통일시점 및 통일전	통일후
1. 인 구	연평균 혼인 전수 증감률	서 독	51~90	91~93	-0.6%	- 1.7%
		동 독	51~90	91~93	-1.9%	-21.5%
		한 국	—	90~93	—	- 0.8%
	인구이동자수	동독→서독	—	89.1~93.12	—	1,256,262명
		서독→동독	—	90 9~93.12	—	329,136명
	총인구대비 인구이동률	동독→서독	—	89.1~93.12	—	8.0%
	서독→동독	—	90 9~93.12	—	0.5%	
2. 고용·임금	경제활동 참가율	서 독	90	93	58.0%	58.1%
		동 독	92	93	64.5%	63.0%
		한 국	90	93	60.0%	61.1%
	실업률	서 독	90	93	6.3%	7.2%
		동 독	92	93	17.0%	18.3%
		한 국	90	93	2 4%	2.8%
	실업자수의 구인자수에 대한배율	서 독	90	93	6.0배	9.3배
		동 독	91	93	29.0배	31.8배
		한 국	90	93	0.5배	0.4배
	광공업 취업 인구비율	서 독	90	94	32.2%	28.5%
		동 독	91	94	31.1%	19.2%
		한 국	90	94	27.6%	23.9%
3. 국민총생산	GDP성장률	서 독	81~91	92~94	2.5%	0.8%
		동 독	—	92~94	—	7.6%
		한 국	—	92~94	—	7.2%

부 문	지 표 명	지 역	기 준		지 표	
			통일시점 및 통일전	통일후	통일시점 및 통일전	통일후
4. 재 정	GNP성장률	서 독	81~91	92~94	2.5%	0.2%
		동 독	—	92~94	—	7.3%
		한 국	—	92~94	—	7.1%
	1인당GNP	서 독	91	94	41,600DM	40,700DM
		동 독	91	94	13,500DM	17,000DM
		한 국	91	94	6,757 \$	8,508 \$
	조세부담률	서 독	90	—	38%	—
		독일전체	—	94	—	42.2%
		한 국	90	94	19.4%	19.6%
	재정수지 적자액	서 독	87~90	—	166,195백만DM	—
		독일전체	—	91~94	—	464,129백만DM
	정부부채총액	서 독	90	—	1,048,761백만DM	—
독일전체		—	94	—	1,604,074백만DM	
5. 기업활동	말소사업건수	동 독	91	94	99,767건	119,300건
	연평균소멸 사업체수	서 독	87~90	91~92	18,161개소	20,932개소
		서 독	90	94	13,271건	20,092건
	지불불능건수	동 독	91	94	401건	4,836건
6. 농림어업	ha당임차료	서 독	—	93	—	425DM
		동 독	—	93	—	150DM
	ha당농지가격	서 독	—	93	—	29,781DM
		동 독	—	93	—	8,322DM

부 분	지 표 명	지 역	기 준		지 표	
			통일시점 및 통일전	통일후	통일시점 및 통일전	통일후
	ha당곡물	서 독	88	94	57.3백kg	59.3백kg
	생산량	동 독	88	94	40.9백kg	56.2백kg
		한 국	90	94	39.8백kg	40.9백kg
	자경경작 면적	서 독	89	93	7,229.9천ha	6,363.2천ha
		동 독	91	93	626.1천ha	437.1천ha
	자영경작 면적구성비	서 독	89	93	61.4%	54.2%
		동 독	91	93	11.9%	8.3%
7. 광공업· 건설업	제조업순생	서 독	90	93	118 3	111 2
	산지수	동 독	90년하반기	93	100	70.5
	건설업	서 독	90	93	123 7	133.2
	순생산지수	동 독	90년하반기	93	100	157.3
8 도소매· 관 광 업	상품재고	서 독	90	94	13,051.6백만DM	54,979 3백만DM
9. 금 용 업	화폐발행고	서 독	81~89	—	6.6%	—
	연평균증가율	독일전체	—	91~94	—	8.7%
		한 국	—	91~94	—	16.4%
		M ₁ 연평균	서 독	83~89	—	7.4%
	증가율	독일전체	—	91~94	—	6.9%
		한 국	—	91~94	—	19.6%
		M ₂ 연평균	서 독	83~89	—	6.4%
	증가율	독일전체	—	91~94	—	6.8%
한 국		—	91~94	—	18.0%	

부 문	지 표 명	지 역	기 준		지 표		
			통일시점 및 통일전	통일후	통일시점 및 통일전	통일후	
10. 국제수지	M ₃ 연평균 증가율	서 독 독일전체 한 국	83~89 — —	— 91~94 91~94	6.1% — —	— 6.5% 22.3%	
	주식가격 총지수	서 독 독일전체	88 —	— 93	248.4 —	— 370.8	
	경상수지	서 독	89	—	108,116백만DM	—	
		독일전체	—	93	—	-32,245백만DM	
	대외순자산	서 독	90	—	532,996백만DM	—	
		독일전체	—	94. 6월	—	335,454백만DM	
11. 물 가	소매물가 상승률	서 독 독일전체 한 국	86~90 — —	— 92~95 91~94	0.9% — —	— 3.5% 6.6%	
	m ² 당 건축 부지시가	서 독 동 독	90 91	93 93	89.2DM 13.1DM	96.5DM 28.3DM	
	12. 사회간접 자 본	여객수송인원					
		철 도	독일전체	90	93	1,642백만명	1,570백만명
		육 로	독일전체	90	93	8,696백만명	7,919백만명
		화물수송량					
철 도		독일전체	90	93	540.4백만톤	329.2백만톤	
육 로	독일전체	90	93	3,388.7백만톤	3,629.6백만톤		

부 문	지 표 명	지 역	기 준		지 표	
			통일시점 및 통일전	통일후	통일시점 및 통일전	통일후
13. 교육·과학	일반학교수	서 독	88/89학기	91/92학기	32,369개교	32,457개교
		동 독	89/90학기	91/92학기	5,928개교	9,858개교
	대학교수	서 독	89/90학기	91/92학기	244개교	249개교
		동 독	90/91학기	91/92학기	54개교	63개교
	GNP대비	서 독	90	—	3.1%	—
	연구개발비	독일전체	—	91	—	2.6%
		한 국	90	91	1.9%	1.9%
14. 공 안 보 건 · 사회보장 환 경	연평균	서 독	86~90	—	1.1%	—
	범죄발생 증가율	독일전체	—	92~93	—	12.8%
		한 국	—	91~94	—	4.1%
	연평균	서 독	81~90	91~94	-1.1%	-2.0%
	교통사고 증가율	동 독	81~90	91~94	4.0%	12.3%
		한 국	—	91~94	—	1.0%
	사회보장 급부액	서 독	88	94	662,071백만DM	900,008백만DM
		동 독	91	94	99,612백만DM	206,179백만DM
	실업수당 대상자수	서 독	90	—	1,598천명	—
		독일전체	—	93	—	4,184천명
	생산산업 환경보호	서 독	90	92	5.9%	4.8%
		동 독	—	92	—	9.6%
	투자비율					
	1인당수거 쓰레기량	서 독	90	—	322.5kg	—
		동 독	90	—	376.2kg	—

목 차

1. 인 구	473
2. 고용·임금	477
3. 국민총생산	483
4. 재 정	486
5. 기업활동	490
6. 농림어업	494
7. 광공업·건설업	501
8. 도소매·관광업	505
9. 금융업	508
10. 국제수지	513
11. 물 가	517
12. 사회간접자본	520
13. 교육·과학	525
14. 공안·보건·사회보장·환경	529

여 백

1. 인 구

동독지역은 통일후 혼인건수 격감 등 인구·사회학적인 병리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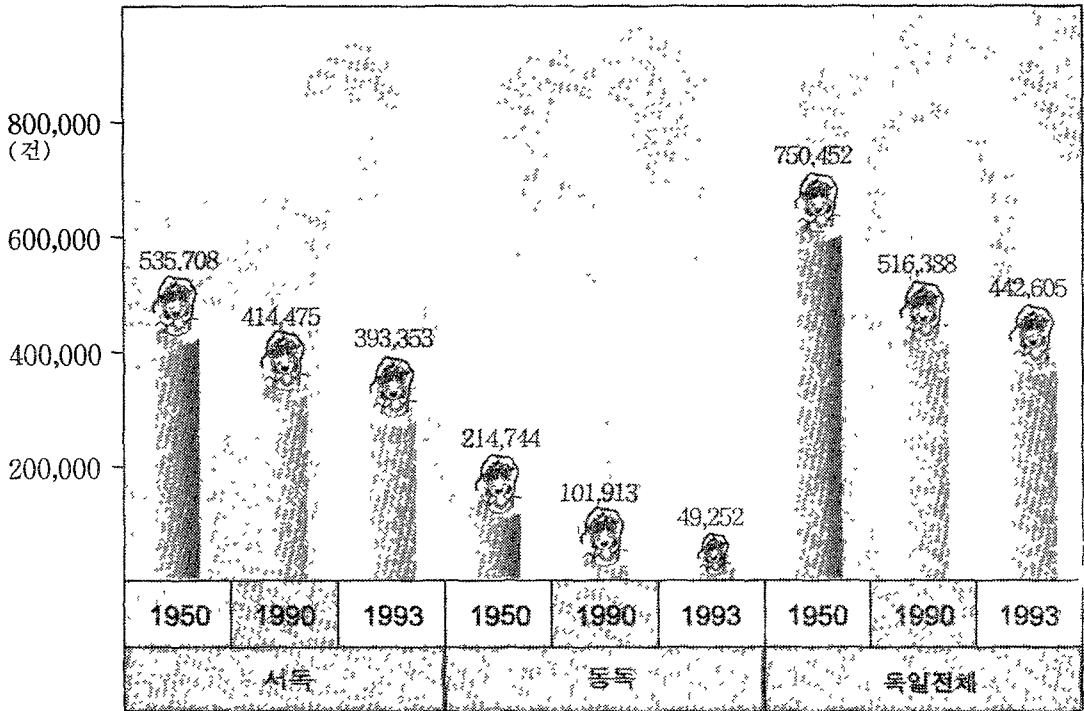
- 서독의 혼인건수는 1950년 535,708건에서 1993년 393,353건으로 26.6%가 감소하였는데 통일전 40년간(1951~90) 평균증감률은 -0.64% , 통일후 3년간(1991~93) 평균증감률은 -1.73% 로써 통일후 혼인건수가 대폭 감소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출생자수도 통일전 40년간(1951~90) 평균증감률이 -0.28% , 통일후 3년간(1991~93) 평균증감률은 -0.43% 로써 통일후 출생자수 감소폭이 통일전보다 큰 편이다. 또한 사망자수는 통일전 40년간(1951~90)은 평균증감률이 0.75% , 통일후 3년간(1991~93)은 -0.08% 로써 통일후에는 사망자수가 줄어드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 동독의 혼인건수는 1950년 214,744건에서 1993년 49,252건으로 77.1% 대폭 감소하였으며 통일전 40년간(1951~90) 평균증감률은 -1.85% , 통일후 3년간(1991~93)은 -21.52% 로써 통일후 혼인건수가 대폭 감소하고 있다.
 - 특히, 출생자중에서 혼인외의 사생아 비율은 1990년 35%, 1993년 41.1%를 기록하여 경제적·심리적 불안감과 장래에 대한 불확실로 인하여 인구·사회학적인 병리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 독일전체의 혼인건수는 1950년 750,452건에서 1993년 442,605건으로 40% 감소하였는데 통일전 40년간(1951~90) 평균증감률은 -0.93% , 통일후 3년간(1991~93)은 -5.01% 로써 통일후의 혼인건수 감소가 대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인구·사회학적인 비용을 치르고 있다.

〈표〉 혼인건수, 출생 및 사망자수

(단위 건, 명)

	혼 인	출 생			사 망	자연적 증감
		계	혼 인 외	출생자대비 구성비(%)		
〈서 독〉						
1950	535 708	812 835	79 075	9.7	528 747	+284 088
1970	444 510	810 808	44 280	5.5	734 843	+75 965
1990	414 475	727 199	76 300	10.5	713 335	+13 864
1993	393 353	717 915	85 191	11.9	711 625	+6 290
평균증감률(%)						
1951~90	-0.64	-0.28	-0.09	-	0.75	-
1991~93	-1.73	-0.43	3.74	-	-0.08	-
〈동 독〉						
1950	214 744	303 866	38 859	12.8	219 582	+84 284
1970	130 723	236 929	31 522	13.3	240 821	-3 892
1990	101 913	178 476	62 455	35.0	208 110	-29 634
1993	49 252	80 532	33 093	41.1	185 645	-105 113
평균증감률(%)						
1951~90	-1.85	-1.32	1.19	-	-0.13	-
1991~93	-21.52	-23.30	-19.08	-	-3.74	-
〈독 일 전 체〉						
1950	750 452	1 116 701	117 934	10.6	748 329	+368 372
1970	575 233	1 047 737	75 802	7.2	975 664	+72 073
1990	516 388	905 675	138 755	15.3	921 445	-15 770
1993	442 605	798 447	118 284	14.8	897 270	-98 823
평균증감률(%)						
1951~90	-0.93	-0.52	0.41	-	0.52	-
1991~93	-5.01	-4.11	-5.18	-	-0.88	-

〈도〉 혼인건수



1989년부터 1993년 말까지 동독지역에서 서독지역으로 이주자수 약 126만명

- 1990년 9월 1일부터 1993년 말까지 동서독간 인구이동을 분석해 보면 동독지역에서 서독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은 674,024명으로써 1993년 동독총인구대비 4.3%에 해당되며 1989년 1월부터 1990년 6월까지 이주한 582,238명을 합하면 총이주자수는 1,256,262명으로써 1993년 동독총인구대비 8%에 해당된다.
- 1990년 9월 1일부터 1993년말까지 서독지역에서 동독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은 329,136명으로써 1993년 서독총인구대비 0.5%에 불과하다.
- 1990년 9월 1일부터 1993년말까지 동독지역에서 서독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을 서독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바이에른주는 134,762명으로써 가장 많으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115,017명, 니더작센주는 108,930명,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107,03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 1990년 9월 1일부터 1993년말까지 서독지역에서 동독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을 동독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작센주는 81,113명으로써 가장 많으며, 동베를린 65,166명, 튀링겐주는 53,449명, 브란덴부르크주는 47,518명을 기록하고 있다.

〈표〉 동서독간 인구이동

	동독지역에서 이주자수				서독지역에서 이주자수			
	1990. 4/4	1991	1992	1993	1990 4/4	1991	1992	1993
바덴-뷔르템베르크	8 146	43 907	31 754	23 225	-	-	-	-
바 이 에 른	11 961	52 849	39 659	30 293	-	-	-	-
베 를 린	6 457	10 085	13 292	20 425	9 526	12 452	20 084	23 104
브란덴부르크*	-	-	-	-	1 205	11 644	15 107	19 562
브 레 멘	468	2 623	2 219	1 667	-	-	-	-
함 부 르 크	1 006	5 794	5 327	5 061	-	-	-	-
헤 쉐	4 336	22 893	18 452	15 485	-	-	-	-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	-	-	-	1 094	8 223	12 326	13 405
니 더 작 쉐	7 115	41 142	32 568	28 105	-	-	-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9 220	43 747	33 837	28 213	-	-	-	-
라인란트-갈츠	1 867	12 363	9 998	8 742	-	-	-	-
자 르 란 트	279	1 388	1 020	923	-	-	-	-
작 쉐*	-	-	-	-	3 226	21 606	28 335	27 946
작 쉐-안할트*	-	-	-	-	1 367	12 506	15 255	17 714
살레스비히-홀슈타인	1 870	12 952	11 044	10 247	-	-	-	-
튀 링 겐*	-	-	-	-	2 006	13 836	20 238	17 369
계	52 725	249 743	199 170	172 386	18 424	80 267	111 345	119 100

- 주 1) 1990 4/4분기 가료중 베를린주를 제외한 15개주 통계는 베를린주를 제외한 수키이며, 베를린주 통계는 동서베를린 이주자를 제외한 수키임
 2) 주독한국대사관자료에 의하면 1989년도에 동독지역에서 서독지역으로 이주한 수치는 343,854명이고 1990년 1~6월에 이주한 수키는 238,384명임
 3) *표는 동독지역의 주임

2. 고용·임금

동독지역의 실업률은 1993년도 18.3%를 기록하여

- 서독의 1970년 경제활동인구는 26,610천명으로써 경제활동인구의 15세이상 인구에 대한 비율인 경제활동참가율은 56.7%를 나타내고 있으며 실업자는 117천명으로써 실업률은 0.4%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독일 통일의 해인 1990년도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은 58%, 실업률은 6.3%를 나타내고 있다.
 - 통일후 1993년도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은 58.1%, 실업률은 7.2%를 기록함으로써 실업률이 1990년보다 0.9%「포인트」 높아졌다.
- 동독의 1980년 경제활동인구는 8,717천명인데 경제활동참가율이 64.7%로써 공산국가 특유의 완전고용을 시현하고 있으나 통일후 1992년도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은 64.5%로 통일전과 마찬가지로 높으나 실업자가 1,398천명 발생하여 실업률은 17%를 기록하고 있으며 1993년도에는 실업자가 1,476천명, 실업률은 18.3%를 기록하여 전년보다 실업률이 1.3%「포인트」 높아졌다
 - 이는 동독인들이 광공업분야에서 높은 노동강도를 감당치 못하여 실업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독일전체의 실업률은 통일후 첫해인 1991년도에는 6.6%, 1992년 7.9%, 1993년 9.5%, 1994년도에는 10.3%를 기록하여 통일이후 고용상의 높은 雇傭費用을 치르고 있다.

〈표〉 경제활동 상태(센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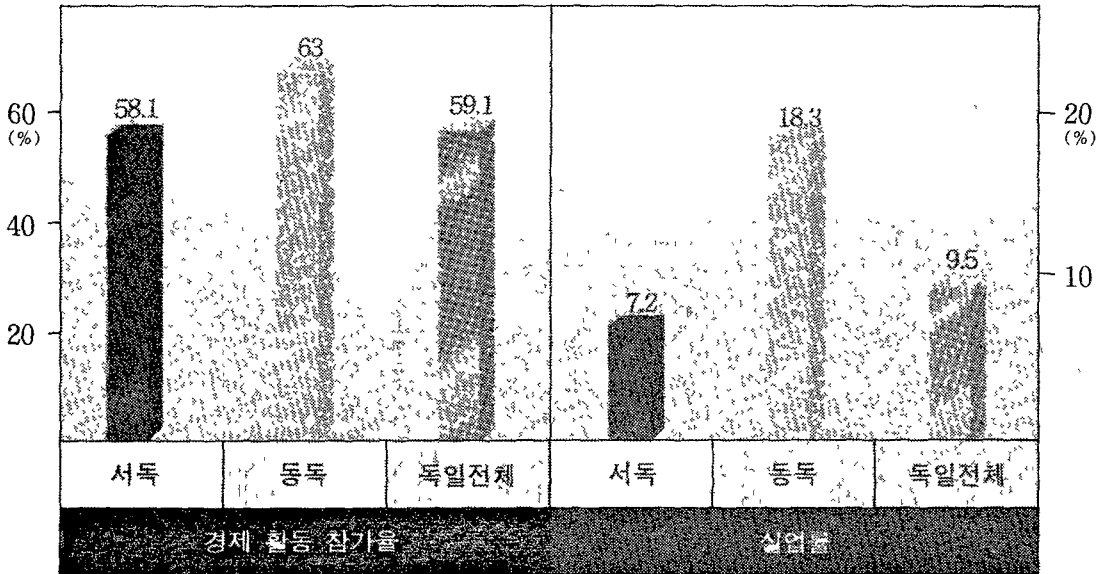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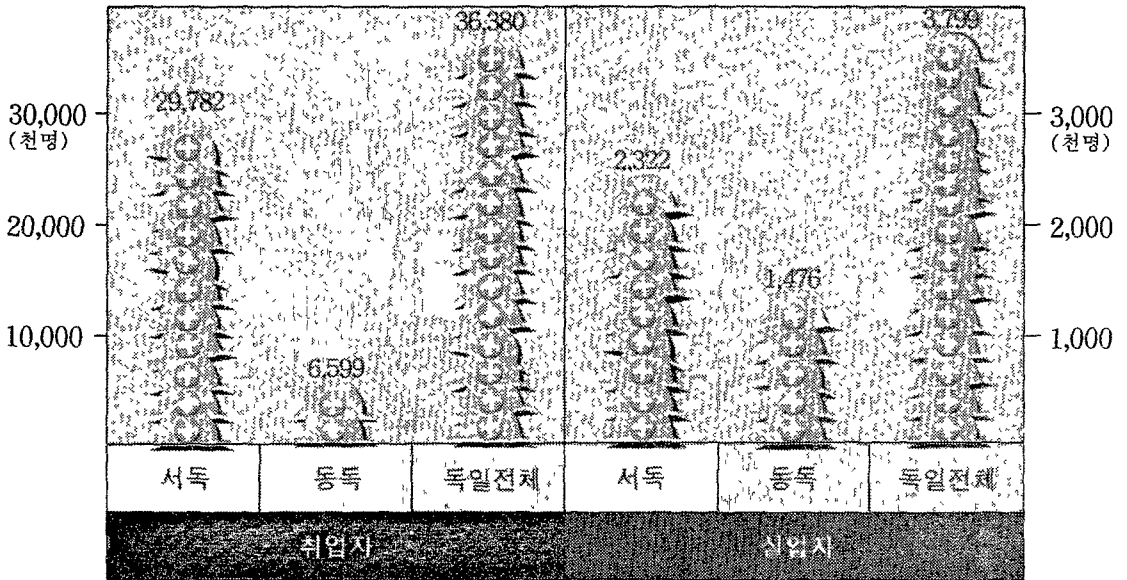
(단위 천명, %)

	15세 이상 인구 ¹⁾	경제 활동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서독〉						
1970. 5.27	46 898	26 610	56.7	26 493	117	0.4
1990 4	53 936	31 305	58.0	29 334	1 971	6.3
1993. 4	55 214	32 104	58.1	29 782	2 322	7.2
〈동독〉						
1980. 9.30	13 469	8 717 ²⁾	64.7	8 717	0	0.0
1992. 5	12 772	8 244	64.5	6 846	1 398	17.0
1993. 4	12 816	8 075	63.0	6 599	1 476	18.3
〈독일전체〉						
1991. 4	67 175	40 087	59.7	37 445	2 642	6.6
1992. 5	67 733	40 126	59.2	36 940	3 186	7.9
1993 4	68 030	40 179	59.1	36 380	3 799	9.5
1994. 4	68 245	40 236	59.0	36 076	4 160	10.3

주 1) 연말기준임

2) 견습생을 포함한 취업자 수치임

〈도〉 1993년도 경제활동상태(센서스)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광공업 취업자 구성비가 11.9% 「포인트」 낮아져

- 산업별로 취업자 구성비를 분석해보면 서독은 농림어업이 1970년 8.5%에서 1990년 3.5%로 5% 「포인트」 낮아졌으며 통일후 1994년도에는 2.9%로 낮아지고 있으며, 광공업은 1970년 40.1%에서 1990년 32.2%로 7.9% 「포인트」 낮아졌으며 1994년도에는 28.5%로 낮아지고 있다.
 - S.O.C 및 기타 산업은 1970년 51.4%에서 1990년 64.3%로 12.9% 「포인트」 높아졌으며 1994년도에는 68.6%로 1990년대비 4.3% 「포인트」 높아져 산업구조의 서비스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 동독은 1991년 농림어업이 6%에서 1994년 3.4%로 2.6% 「포인트」 낮아졌으며, 광공업은 1991년 31.1%에서 1994년 19.2%로 무려 11.9% 「포인트」 낮아져 동독인들이 높은 광공업 노동강도를 견디지 못하여 실업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S.O.C 및 기타산업은 1991년 62.9%에서 1994년 77.4%로 14.5% 「포인트」 크게 높아졌다.
- 독일전체로써는 1991년 이후 농림어업과 광공업취업자 구성비가 낮아진 반면 S.O.C 및 기타산업은 1991년 64.4%에서 1994년 70.3%로 5.9% 「포인트」 높아져 산업구조의 서비스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표〉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단위 천명)

	계		농림어업		광 공 업		S.O.C 및 기타	
		%		%		%		%
(서 독)								
1970	26 668	100.0	2 262	8.5	10 701	40.1	13 705	51.4
1990	28 486	100.0	990	3.5	9 175	32.2	18 321	64.3
1991	28 974	100.0	957	3.3	9 239	31.9	18 778	64.8
1992	29 130	100.0	909	3.1	9 030	31.0	19 191	65.8
1993	28 665	100.0	854	3.0	8 495	29.6	19 316	67.4
1994	28 288	100.0	811	2.9	8 065	28.5	19 412	68.6
(동 독)								
1991	7 590	100.0	454	6.0	2 360	31.1	4 776	62.9
1992	6 724	100.0	282	4.2	1 587	23.6	4 855	72.2
1993	6 521	100.0	231	3.5	1 351	20.7	4 939	75.7
1994	6 593	100.0	224	3.4	1 267	19.2	5 102	77.4
(독일전체)								
1991	36 564	100.0	1 411	3.9	11 599	31.7	23 554	64.4
1992	35 854	100.0	1 191	3.3	10 617	29.6	24 046	67.1
1993	35 186	100.0	1 085	3.1	9 846	28.0	24 255	68.9
1994	34 881	100.0	1 035	3.0	9 332	26.8	24 514	70.3

주 1) 독일 연방 노동성 자료임

동독의 1993년 실업자수의 구인자수에 대한 배율은 31.8배

- 실업자수의 구인자수에 대한 배율을 분석하여 보면 서독의 배율은 1980년 2.9배, 1990년 6배, 1993년 9.3배로써 독일통일이후 고용사정이 다소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동독의 배율은 1991년 29배, 1992년 35.8배, 1993년 31.8배로써 높은 실업률과 더불어 고용사정이 극히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독일전체의 배율은 1991년 7.2배, 1992년 8.4배, 1993년 12.2배로써 실업자수의 구인자수에 대한 배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실업자수의 구인자수에 대한 배율

(단위 명, 배)

	실업자수 (A)	구인자수 (B)	배율 (A / B)
〈 서독 〉			
1980	888 900	308 348	2.9
1990	1 883 147	313 604	6.0
1991	1 689 365	331 390	5.1
1992	1 808 310	323 514	5.6
1993	2 270 349	243 282	9.3
〈 동독 〉			
1991	912 838	31 445	29.0
1992	1 170 261	32 723	35.8
1993	1 148 792	36 170	31.8
〈 독일 전체 〉			
1991	2 602 203	362 835	7.2
1992	2 978 571	356 237	8.4
1993	3 419 141	279 452	12.2

주 1) 독일 연방 노동성 자료임

독일통일후 노동쟁의가 격화되고 있어

- 노·사간의 산업평화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노동쟁의 실태를 분석해 보면 서독은 1990년 이후 1994년까지 5개년동안 연평균 쟁의발생 사업장수는 933개소로써 노동쟁의 참여자수는 296,171명으로써 노동손실일수는 472,682일에 달하고 있다.
 - 지난 1989년과 비교하면 사업장수는 3배, 참여자수는 6.7배, 손실일수는 4.7배에 달함으로써 통일이후 서독근로자의 근로조건 만족도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동독지역도 1993년도에는 노동쟁의사업장수가 186개소, 참여자수 103,842명, 노동손실일수가 508,737일로 나타났으며
 - 1994년도에는 쟁의발생 사업장수가 41개소, 참여자수 12,245명, 노동손실일수 12,742일로써 1993년도에 비하여 노동쟁의가 진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노동쟁의 사업장 및 참여자수¹⁾

(단위 개소, 명, 일)

	쟁의발생사업장수	참 여 자 수	노 동 손 실 일 수
〈 서 독 〉			
· 1988	41	33 485	41 880
1989	306	43 934	100 409
1990	777	257 160	363 547
1991	367	208 177	153 589
1992	2 466	598 364	1 545 320
1993	227	28 713	84 258
1994	827	388 431	216 694
〈 동 독 〉			
1993	186	103 842	508 737
1994	41	12 245	12 742
〈 독 일 전 체 〉			
1993	413	132 555	592 995
1994	863	400 676	229 436

주·1) 연방노동협회(뉘른베르크)자료로써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운수업, 금융업 등의 주요업종에서 발췌한 사업장의 수치로써 전수통계는 아님

통일후 동독의 금융업종 사무직 급여상승률은 서독보다 15%「포인트」 높아

- 산업별 사무직 월급료 상승률을 분석해보면 서독의 경우 생산산업은 통일전 3년간(1988~90)은 3.9%, 통일후 4년간(1991~94)은 4.5% 증가하였다.
 - 도매업은 통일전 3.8%, 통일후 5.3%, 소매업은 통일전 4.7%, 통일후 5.4%
 - 금융업은 통일전 3.6%, 통일후 5%, 보험업은 통일전 3.3%, 통일후 4.9% 각각 증가하여 통일후가 통일전에 비하여 1~2%「포인트」정도 증가하였다.
- 동독의 경우는 통일후 4년간(1991~94) 평균증감률이 생산산업이 10%, 도매업 19%, 소매업 19.9%, 금융업 20%를 기록하여 서독보다 5~1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같이 임금상승률이 동독이 서독보다 훨씬 높은 이유는 동독지역의 생산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서독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을 막기 위하여 정책적인 배려를 한 탓으로 풀이된다.

〈표〉 산업별 영업·전문직 사무원 월급료

	생 산 산 업 ¹⁾	도 매 업	소 매 업	금 용 업	보 험 업
〈 서 독 〉					
1987	4 439	3 506	2 658	3 623	3 898
1990	4 982	3 916	3 054	4 026	4 299
1994	5 933	4 820	3 776	4 894	5 193
경 균 증 감 률					
1988~90	3.9	3.8	4.7	3.6	3.3
1991~94	4.5	5.3	5.4	5.0	4.9
〈 동 독 〉					
1991	2 915	1 869	1 657	2 003	-
1994	3 878	3 146	2 853	3 462	3 833
경 균 증 감 률					
1991~94	100	19.0	19.9	20.0	-

주 1) 생산산업은 전기 가스 난방 수도업, 광업, 제조업 및 건설업을 의미함

3. 국민총생산

통일후 서독은 저성장, 동독은 고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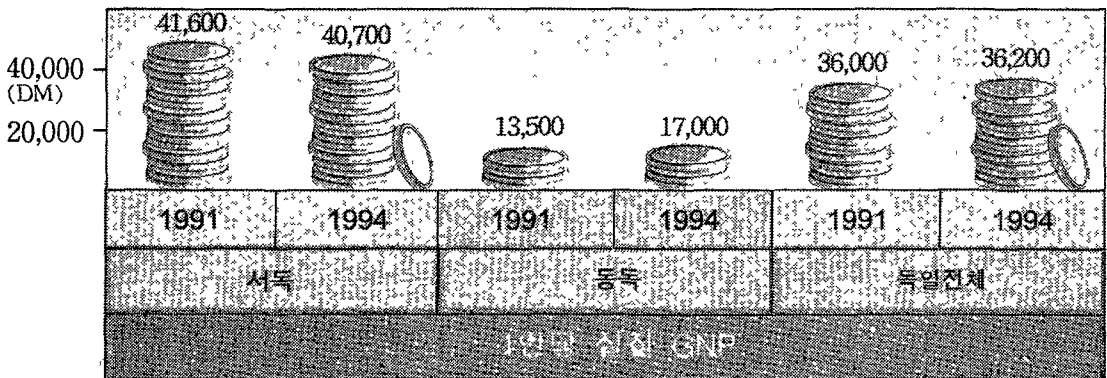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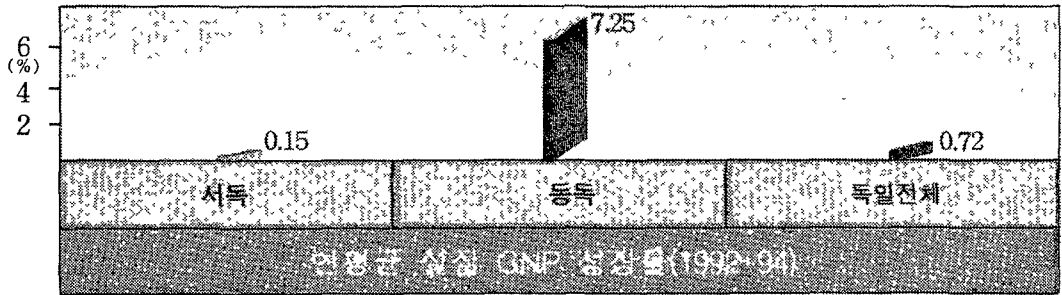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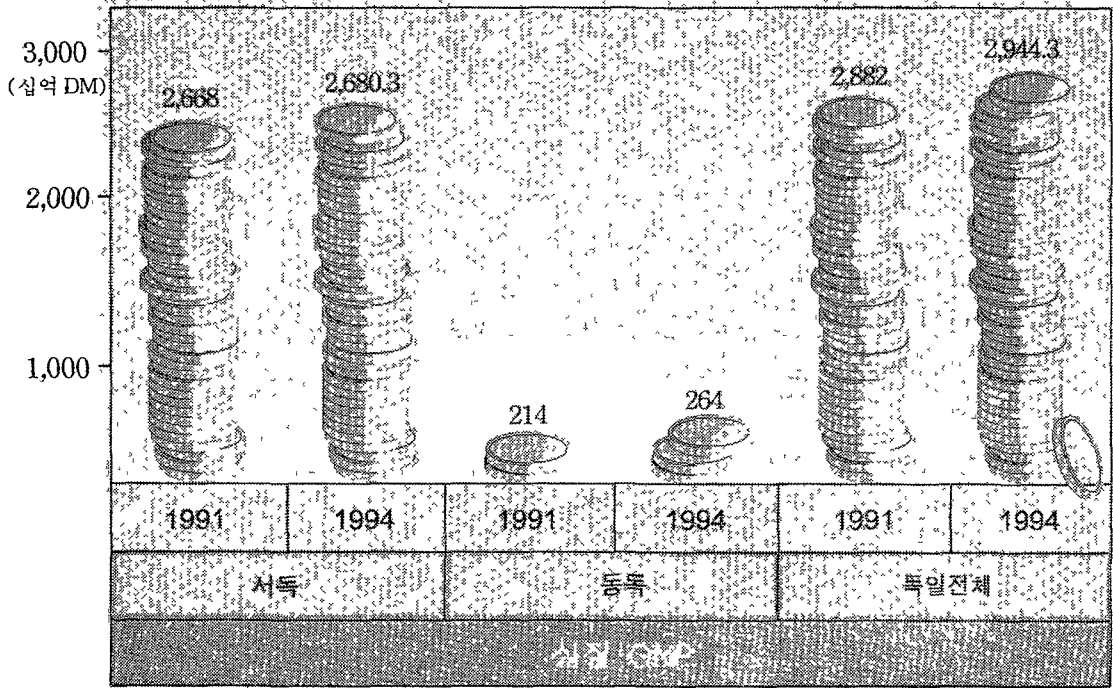
- 서독의 실질 GDP는 1950년 426.7십억DM, 1980년 2,018십억DM, 1991년 2,647.6십억DM, 1994년도에는 2,709.6십억DM으로 나타났다. 성장률은 1951~80년 기간 중에는 연평균 5.32%, 1981~91년 기간중에는 연평균 2.5%, 1992~94년 기간중에는 연평균 0.77% 성장률을 시현함으로써 통일전(1981~91)보다 성장률이 1/3 이하로 낮아졌다.
 - 또한 동독의 성장률은 1992~94년 기간중 연평균 7.61%를 기록하여 같은 기간중 서독보다 10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취업자 1인당 실질GDP를 분석해 보면 서독은 1980년 74,800DM, 1991년 90,700DM, 1994년 94,700DM을 나타내어 1981~91년기간 중에는 연평균 1.77%의 성장률을 나타내었고 1992~94년기간중에는 연평균 1.45%의 성장률을 나타내어 통일전보다 0.32%「포인트」 낮아져 생산성이 떨어졌다.
 - 동독의 경우 1992~94년 기간중 연평균 13.42%를 기록하여 동서독간의 1인당 생산성 격차가 1991년 3.2배에서 1994년 2.3배로 낮아졌다.
- 서독의 실질 GNP는 1950년 436.9십억DM, 1980년 2,025.5십억DM, 1991년 2,668십억DM, 1994년도에는 2,680.3십억DM으로 나타나 통일전(1981~91)은 연평균 2.54%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통일후(1992~94)는 0.15%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 그러나 동독은 통일후(1992~94) 7.2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 1인당 실질GNP를 분석해 보면 서독은 1950년 9,300DM, 1980년 32,900DM, 1991년 41,600DM, 1994년 40,700DM으로 나타났는데 연평균 성장률은 1951~80년 기간중에는 4.3%, 1981~91년 기간중에는 2.16%, 1992~94년 기간중에는 -0.73%를 기록하여 통일후에 負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 동독은 1992년 13,500DM에서 1994년 17,000DM으로 연평균 7.99% 성장하여 동서독간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표〉 국내총생산 및 국민총생산

	국내총생산(1991년 불변가격)		국민총생산(1991년 불변가격)	
	총 액 (십억DM)	취업자 1인당 (DM)	총 액 (십억DM)	1 인 당 (DM)
〈 서 독 〉				
1950 ¹⁾	426.7	21 800	436.9	9 300
1980	2 018.0	74 800	2 025.5	32 900
1991	2 647.6	90 700	2 668.0	41 600
1994 ²⁾	2 709.6	94 700	2 680.3	40 700
성 장 륜 (%)				
1951~80	5.32	4.20	5.25	4.30
1981~91	2.50	1.77	2.54	2.16
1992~94	0.77	1.45	0.15	-0.73
〈 동 독 〉				
1991 ²⁾	206.0	28 100	214.0	13 500
1994 ²⁾	256.7	41 000	264.0	17 000
성 장 륜 (%)				
1992~94	7.61	13.42	7.25	7.99
〈 독 일 전 체 〉				
1991 ²⁾	2 853.6	78 200	2 882.0	36 000
1994 ²⁾	2 966.3	85 000	2 944.3	36 200
1995 ²⁾	3 022.8	-	-	-
성 장 륜 (%)				
1992~94	1.30	2.82	0.72	0.18

주 1) 서베를린 및 자르란트는 제외한 수치임
2) 잠정치임

〈도〉 GNP, 성장률 및 1인당 GNP



4. 재 정

1994년 독일전체의 조세부담률은 42.2%로 크게 높아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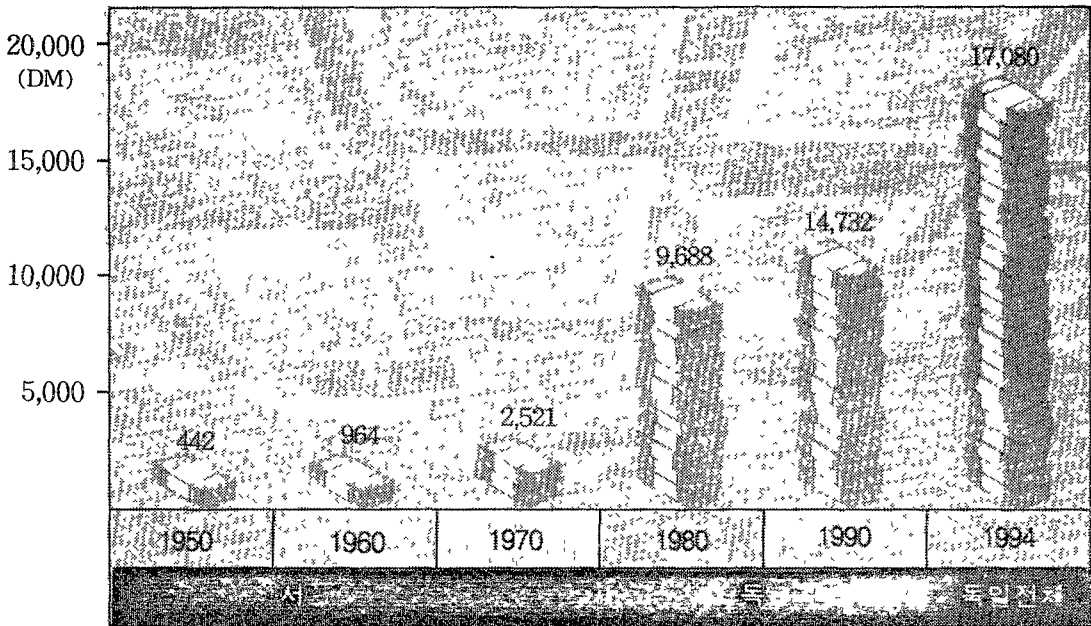
- 서독의 세입총액은 1950년 26,443백만DM에서 1990년 1,091,309백만DM으로 나타나 기간중(1951~90) 평균 9.7%의 증가를 시현하였고 통일전 10년간(1981~90) 평균증가율은 4.7%를 나타내었다.
 - 통일후 독일전체의 1994년도 세입총액은 1,653,286백만DM으로써 통일후 4년간(1991~94) 연평균증가율은 10.9%로 나타나 통일전(1981~90) 서독보다 6.2%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높은 통일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조세 및 준조세의 연평균증가율은 통일전(1981~90) 서독은 4.6%, 통일후(1991~94) 독일전체의 경우 10.5%로 나타나 조세 및 준조세의 부담이 5.9% 「포인트」 높아졌다.
- 1인당 조세 및 준조세는 1990년 서독의 경우 14,732DM이었으나 1994년 독일전체의 경우 17,080DM으로써 15.9% 정도 높아졌다.
 - 따라서 조세 및 준조세가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도 1990년 서독의 38%에서 1994년 독일전체의 42.2%로 4.2% 「포인트」 높아졌다.

〈표〉 세입예산

	세 입 총 액		1 인 당 세 입		조 세 부 담 륜 (%)
	(백만DM)	조세 및 준조세 (백만DM)	(DM)	1인당 조세 및 준조세(DM)	
〈 서 독 〉					
1950	26 443	21 091	554	442	21.4
1980	690 009	596 379	11 209	9 688	40.4
1990	1 091 309	931 565	17 259	14 732	38.0
증 가 율 (%)					
1951~90	9.7	9.9	-	-	-
1981~90	4.7	4.6	-	-	-
〈 독 일 전 체 〉					
1994	1 653 286	1 390 458	20 308	17 080	42.2
증 가 율' (%)					
1991~94	10.9	10.5	-	-	-

주 1) 서독의 1990년도 수치를 기준시점의 수치로 보았음

〈도〉 1인당 조세 및 준조세



통일후 4년간 독일정부의 부채는 5,500억DM이상 늘어나

- 서독의 통일전 4년간(1987~90) 재정수지 적자액은 166,195백만DM으로 나타났으며 통일후 독일전체의 4년간(1991~94) 재정수지 적자액은 464,129백만DM으로써 통일전 서독의 4년간 재정수지 적자액보다 2.8배 규모로 확대되었다.
- 서독의 부채총액은 1950년 18,725백만DM에서 1990년 1,048,761백만DM으로 늘어나 서독의 40년간(1951~90) 평균 부채증가율은 10.6%로 나타났으며 통일전 10년간(1981~90) 증가율은 8.5%로 나타났다.
- 통일후 독일전체의 1994년도 부채총액은 1,604,074백만DM으로써 1990년 서독에 비하여 555,313백만DM만큼 부채가 늘어났으며 또한 4년간(1991~94) 부채증가율도 11.2%로 나타나 통일전 서독보다 증가율이 높다.

〈표〉 재정수지 및 부채

	재 정 수 지 (백만DM)	부 채 (백만DM)
〈서 독〉		
1950	-1 698	18 725
1980	-51 618	462 838
1987	-46 030	844 253
1988	-53 585	898 954
1989	-13 282	924 755
1990	-53 298	1 048 761
부 채 증 가 율 (%)		
1951~90	-	10.6
1981~90	-	8.5
〈독 일 전 체〉		
1991	-114 971	1 165 521
1992	-112 443	1 331 503
1993	-131 796	1 499 155
1994	-104 919	1 604 074 ²⁾
부 채 증 가 율 (%)		
1991~94	-	11.2

- 주 1) 서독의 1990년도 수치를 기준시점의 수치로 보았음
 2) 1993년 부채총액에 1994년 재정적자분을 가산한 수치임
 3) 부채는 연말기준임

1993년 독일전체의 공무원수는 1990년 서독대비 39.3% 증가하여

- 서독의 공무원 및 준공무원수는 1950년 2,282,000명, 1980년 4,419,900명, 1990년 4,666,618명, 1993년도에는 4,967,729명으로써 지난 40년간(1951~90) 연평균증가율은 1.8%로 나타났으며
 - 통일전 10년간(1981~90)은 0.5%로, 통일후 3년간(1991~93)은 2.1%로 나타나 통일후 3년간 증가율이 통일전 10년간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 독일전체의 1993년도 공무원 및 준공무원수는 6,502,646명으로써 1990년 서독대비 39.3% 증가하였는데 이중 서독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구성비는 76.4%이며 동독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구성비는 23.6%에 해당된다.

〈표〉 공무원 및 준공무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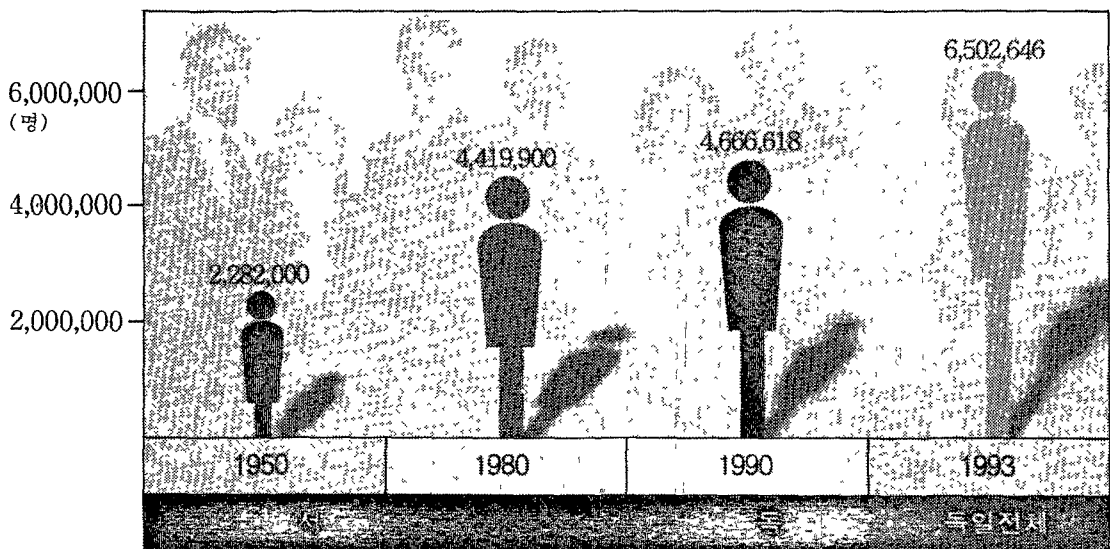
(단위 : 명)

	계	상 용	일 용
〈서 독〉			
1950. 9. 2	2 282 000	2 214 800	67 200
1980. 6. 30	4 419 900	3 801 500	618 400
1990. 6. 30	4 666 618	3 796 251	870 367
1993. 6. 30	4 967 729	4 022 613	945 116
증 가 율 (%)			
1951~90	18	1.4	6.6
1981~90	05	-0.01	3.5
1991~93	21	19	28
〈등 독〉			
1993. 6. 30	1 534 917	1 346 364	188 553
〈독 일 전 체〉			
1993 6. 30	6 502 646	5 368 977	1 133 669
증 가 율' (%)			
1991~93	11.7	12.2	9.2

주 1) 관사, 직업군인, 노무직 공무원, 지방공무원 및 지방은행 직원 등 준공무원 포함한 수치임

2) 서독의 1990년 수치를 기준시점의 수치로 보았음

〈도〉 공무원 및 준공무원 수



5. 기업활동

1994년 동독지역의 말소사업건수는 1991년대비 약 20% 증가

- 통일후 동독지역의 등록 및 말소사업건수를 분석해 보면 등록사업건수는 1991년 292,997건에서 1994년 170,782건으로 41.7% 감소하였다.
 - － 업종별로는 공업은 1992년 9,820건에서 1994년 8,976건으로 8.6% 감소하였으며, 수공업은 1991년 27,207건에서 1994년 19,838건으로 27.1% 감소하였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1991년 138,009건에서 1994년 74,069건으로 46.3% 대폭 감소하였다.
- 말소사업건수는 1991년 99,767건에서 1994년 119,300건으로 19.6% 증가하였다.
 - － 업종별로는 공업이 1992년 3,398건에서 1994년 3,377건으로 0.6% 감소하였으나 수공업은 1991년 12,109건에서 1994년 12,573건으로 3.8% 증가하였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1991년 48,091건에서 1994년 59,251건으로 23.2% 증가하였다.

〈표〉 등록 및 말소 사업건수(동독)

(단위: 건)

	등록				말소			
	계	공업	수공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계	공업	수공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991	292 997	—	27 207	138 009	99 767	—	12 109	48 091
1992	214 316	9 820	22 366	98 822	120 768	3 398	11 028	62 316
1993	190 032	8 663	20 630	85 767	119 557	2 938	11 351	60 757
1994	170 782	8 976	19 838	74 069	119 300	3 377	12 573	59 251

통일후 서독지역의 소멸기업체는 연평균 15% 증가하여

- 서독의 발생·소멸 기업체수 및 자본금을 분석해 보면 통일전 4년간(1987~90) 연평균 발생사업체수는 44,592개소이며 통일후 2년간(1991~92) 평균발생사업체수는 85,334개소로써 통일전보다 1.9배 증가하였으나
 - － 소멸사업체수는 통일전 18,161개소, 통일후 20,932개소로써 통일전보다 15% 정도 증가하였다.

- 발생 자본금은 통일전 연평균 30,309백만DM에서 통일후 58,356백만DM으로 1.9배 증가하였으나 소멸자본금은 통일전 연평균 8,884백만DM에서 20,722백만DM으로 2.3배 증가하여 통일후의 경기가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발생·소멸 기업체수 및 자본금¹⁾

(단위 개소, 백만DM)

	계		생 산 산 업 ²⁾		도 소 매 업		사 업 서 비 스 업	
	기업체	자본금	기업체	자본금	기업체	자본금	기업체	자본금
〈 서 독 〉								
연평균(1987~90)								
발 생	44 592	30 309	11 889	11 779	11 902	3 738	18 070	11 212
소 멸	18 161	8 884	4 879	15 242	5 419	1 541	6 755	2 782
연평균(1991~92)								
발 생	85 334	58 356	26 351	24 793	20 192	7 181	33 088	18 376
소 멸	20 932	20 722	5 825	10 875	5 987	1 764	7 800	4 191

주 1)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를 포함한 자료임
 2)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업을 의미함

서독지역 대기업체의 재무구조와 영업실적이 통일전보다 악화되어

- 통일전 5년간(1986~90) 대기업체의 연평균 자본금은 210,587백만DM으로 나타났다으며 부채는 583,974백만DM으로 나타나 자본에 대한 부채비율은 277.3%로 나타났다.
- 통일후 첫해인 1991년도의 자본금은 241,771백만DM으로 통일전 대비 14.8% 늘어났으며 부채는 742,032백만DM으로 통일전대비 27.1% 증가하여 자본에 대한 부채비율이 306.9%로 높아져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다.
- 통일전 5년간(1986~90) 대기업체의 당기순이익은 +16,977백만DM으로써 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률은 8.1%를 기록하였으나
- 1991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16,240백만DM으로써 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률이 6.7%로써 통일전보다 영업실적이 악화되었다.

〈표〉 대기업체의 재무구조(서독)

(단위 : 개소, 백만DM)

결 산 기업체수	대 차 대 조 표					손 익 계 산 서			
	자 산	자 본	부 채	자본에 대한 부채비율	당 기 순이익	당 기 순손실	당 기 순손익	자본에 대한 당기순손익률	
1986	1 371	685 510	219 708	465 802	212.0	-	-	+19 144	8.7
1988	1 078	738 493	185 980	552 513	297.1	17 328	1 670	+15 658	8.4
1989	1 326	861 386	211 384	650 002	307.5	19 739	2 929	+16 810	8.0
1990	1 328	892 853	225 275	667 578	296.3	18 303	2 008	+16 295	7.2
1991	1 368	983 803	241 771	742 032	306.9	19 074	2 834	+16 240	6.7

1994년 동독지역 지불불능건수는 1991년대비 12배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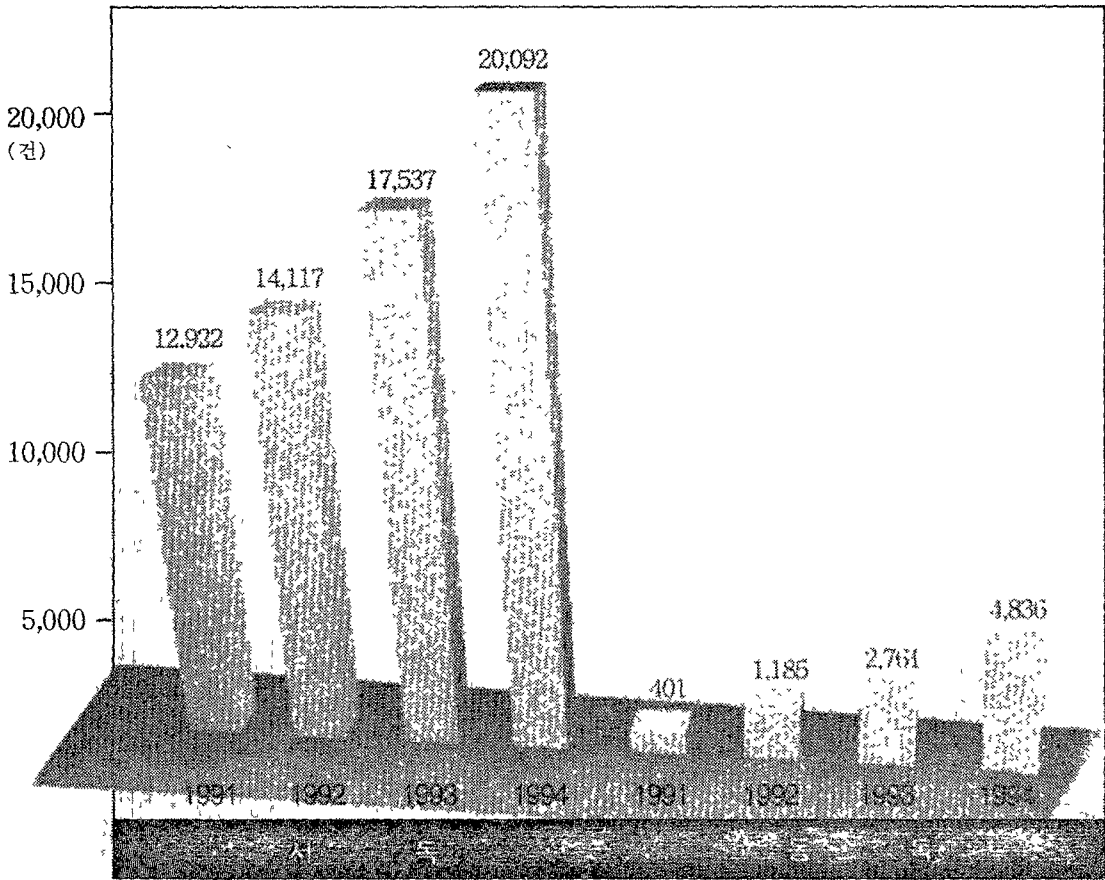
- 서독의 지불불능건수는 1980년 9,140건, 1990년 13,271건으로 1980년대비 45.2% 증가하였고 1994년 지불불능건수는 20,092건으로써 1990년대비 51.4% 증가하여 통일후 부도율이 통일전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 동독지역의 지불불능건수는 1991년 401건에서 1994년 4,836건으로 1991년대비 12.1배 증가하였다.

〈표〉 지불불능건수

(단위 : 건)

	서	독	동	독	독 일 전 체
1960	2 958	-	-	-	-
1970	4 201	-	-	-	-
1980	9 140	-	-	-	-
1990	13 271	-	-	-	-
1991	12 922	401	-	-	13 323
1992	14 117	1 185	-	-	15 302
1993	17 537	2 761	-	-	20 298
1994	20 092	4 836	-	-	24 928

〈도〉 지불불능건수



6. 농림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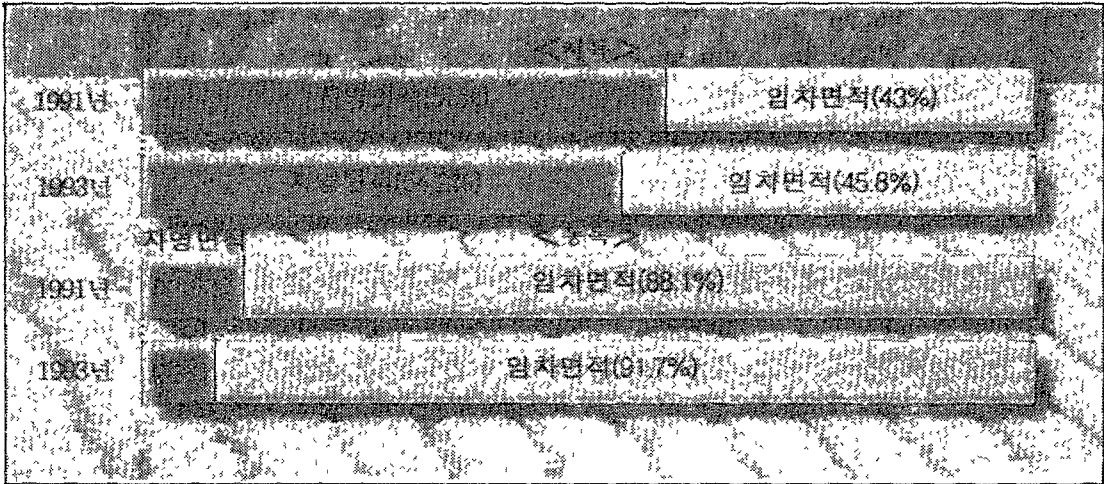
1993년 동독지역의 자영경작면적 8.3%

- 서독의 자영 농업사업체수는 1989년 615.6천개소로써 총 농업사업체수의 92.6%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3년도에는 520.5천개소로써 총 농업사업체수의 89.8%를 차지하여 2.8%「포인트」 감소하였다.
 - － 동독은 1991년 15.8천개소로써 구성비는 72.8%를 차지하였고 1993년도에는 19.6천개소로써 구성비는 73.1%를 차지하여 0.3%「포인트」 증가하였다.
- 서독의 자영 경작면적은 1989년 7,229.9천ha로써 구성비가 61.4%를 차지하였고 1993년도에는 6,363.2천ha로써 구성비가 54.2%로 7.2%「포인트」 감소하였다.
 - － 동독의 경우 자영경작면적이 1991년 626.1천ha로써 구성비가 11.9%를 차지하였고 1993년도에는 437.1천ha로써 8.3%를 차지하여 3.6%「포인트」 감소하였다.

〈표〉 소유형태별 농업사업체수

	자 영 사 업 체 수		자 영 면 적	
	(천개소)	%	(천ha)	%
〈 서 독 〉				
1989	615.6	92.6	7,229.9	61.4
1991	561.5	90.4	6,694.7	57.0
1993	520.5	89.8	6,363.2	54.2
〈 동 독 〉				
1991	15.8	72.8	626.1	11.9
1993	19.6	73.1	437.1	8.3
〈 독 일 전 체 〉				
1991	577.3	89.8	7,320.8	43.0
1993	540.1	89.1	6,800.3	39.9

〈도〉 소유형태별 경작면적 구성비



서독지역의 1993년 ha당 임차료는 동독지역의 약3배

- 서독의 임차농지의 실태를 분석해 보면 1975년도에는 임차면적이 2,910.2천ha, 1993년도에는 4,078.9천ha로써 40.2% 증가하였고 동독은 1991년 3,939.5천ha에서 1993년 4,634천ha로 17.6% 증가하였다.
- 연간 임차료는 서독의 경우 1975년 713.3백만DM, 1993년도에는 1,733.7백만DM으로써 2.4배 증가하였다. 동독은 1991년 515.3백만DM에서 1993년 695.2백만DM으로 34.9% 증가하였다.
- ha당 임차료는 서독의 경우 1975년 245DM에서 1993년 425DM으로 1.7배 증가하였고 동독은 1991년 131DM에서 1993년 150DM으로 14.5% 증가하였다.

〈표〉 임차지보유 농업사업체의 연간 임차료

	임 차 면 적 (천ha)	연 간 임 차 료	
		(백만DM)	ha당 (DM)
〈 서 독 〉			
1975	2 910.2	713.3	245
1991	3 838.6	1 631.0	425
1993	4 078.9	1 733.7	425
〈 동 독 〉			
1991	3 939.5	515.3	131
1993	4 634.0	695.2	150

1993년 서독지역의 농지가격은 동독지역의 3.6배 수준

- 농지의 매도건수는 서독의 경우 1975년 25,015건에서 1990년 29,874건, 1993년도에는 25,734건으로 나타나 지난 1985년이래 매도건수가 감소하고 있다.
 - 동독의 매도건수는 1991년 3,087건에서 1993년 4,276건으로 1991년대비 38.5%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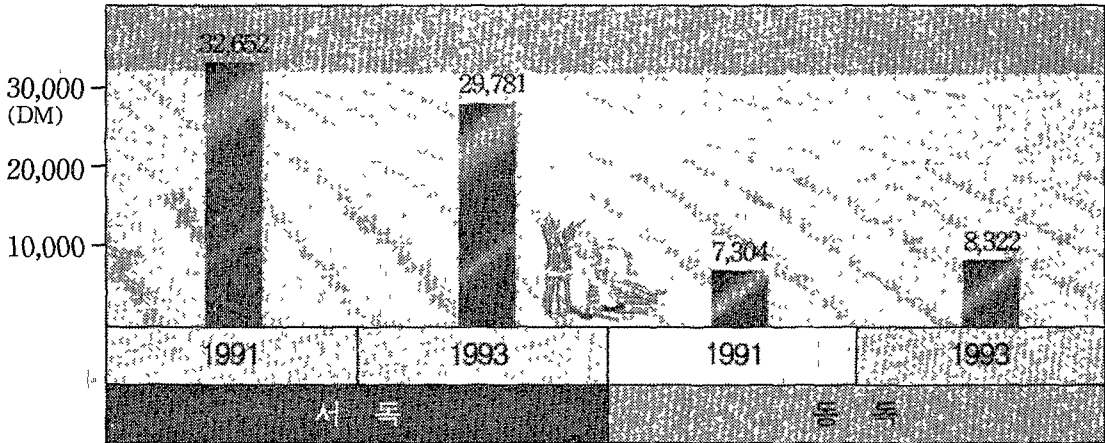
- 매도면적은 서독의 경우 1975년 28,124ha, 1990년 41,734ha, 1993년도에는 41,193ha로 나타나 1987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동독의 경우는 1991년 14,363ha에서 1993년 22,876ha로 59.2% 증가하였다.

- ha당 가격은 서독의 경우 1975년 17,193DM, 1990년 33,639DM, 1993년 29,781DM을 나타내어 1985년이후 농지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동독의 경우에는 1991년 7,304DM에서 1993년 8,322DM으로 13.9% 상승하였다.

〈표〉 농지의 가격

	매도건수 (건)	재배면적중 매도면적 (ha)	매도가격 (천 DM)	ha당 연평균 가격 (DM)
〈 서독 〉				
1975	25 015	28 124	483 538	17 193
1990	29 874	41 734	1 403 884	33 639
1993	25 734	41 193	1 226 775	29 781
〈 동독 〉				
1991	3 087	14 363	104 901	7 304
1993	4 276	22 876	190 370	8 322
〈 독일 전체 〉				
1991	31 958	57 218	1 504 213	26 289
1993	30 010	64 069	1 417 145	22 119

〈도〉 ha당 농지의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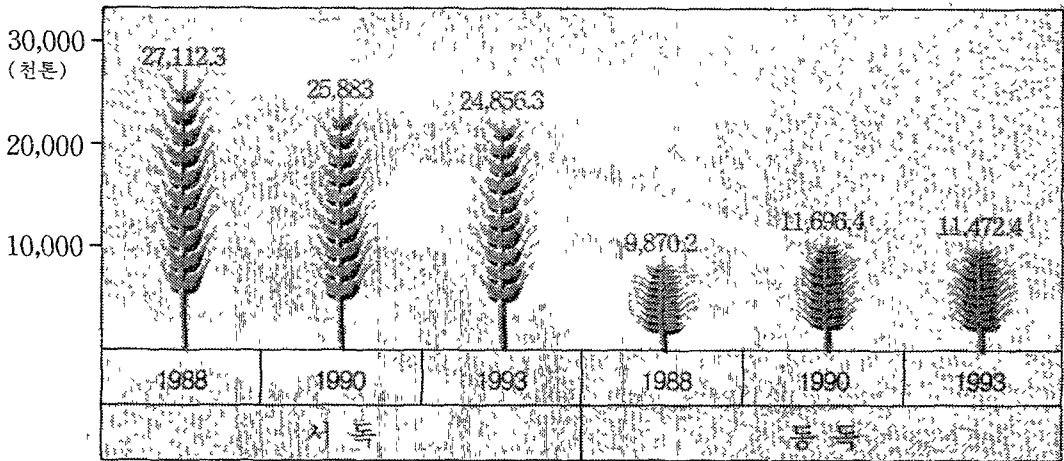
통일후 동독지역의 농업 생산성이 크게 신장되어

- 서독의 곡물생산량은 1988년 27,112.3천톤에서 1994년 24,856.3천톤으로 1988년 대비 8.3% 감소하였다. 동독은 1988년 9,870.2천톤에서 1994년 11,472.4천톤으로 1988년대비 16.2% 증가하였다.
- ha당 곡물생산량을 분석해 보면 서독의 경우 1988년 57.3백kg에서 1994년 59.3백kg으로 생산성이 3.5% 증가하였으며 동독의 경우 1988년 40.9백kg에서 1994년 56.2백kg으로 생산성이 37.4% 신장되었다.

〈표〉 곡물생산량 및 ha당 곡물생산량

	곡 물 생 산 량 (천톤)	ha 당 곡물생산량 (백 kg)
〈 서 독 〉		
1988	27 112.3	57.3
1990	25 883.0	57.9
1994	24 856.3	59.3
〈 동 독 〉		
1988	9 870.2	40.9
1990	11 696.6	47.2
1994	11 472.4	56.2
〈 독 일 전 체 〉		
1988	36 982.6	51.7
1990	37 579.6	54.1
1994	36 328.7	58.3

〈도〉 곡물생산량



동독지역 임목생산량은 격감하여

- 서독의 임목생산량은 1986년 29,177천^m, 1990년 68,421천^m로 2.3배 증가하였다가 1993년도에는 24,374천^m로 1990년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동독은 1986년 10,800천^m에서 1993년 3,894천^m로 1986년의 36.1% 수준에 달하고 있다.
- 수종별로 보면 특히 활엽수가 서독의 경우 1986년 8,055천^m에서 1993년 5,496천^m로 31.8% 감소하였고 동독은 1986년 4,660천^m에서 1993년 844천^m로 82.1% 감소하였다.

〈표〉 임목생산량¹⁾

(단위 천^m)

	계	활엽수	침엽수
〈서독〉			
1986	29 177	8 055	21 122
1990	68 421	8 057	60 364
1993	24 374	5 496	18 878
〈동독〉			
1986	10 800	4 660	6 140
1990	6 600	1 365	5 235
1993	3 894	844	3 051
〈독일 전체〉			
1986	39 977	12 715	27 262
1990	75 021	9 422	65 599
1993	28 268	6 339	21 929

주 1) 껍질을 벗긴 임목의 생산량임

가축사육두수 동독지역에서 격감하고 있어

- 가축사육두수를 분석해보면 소는 서독의 경우 1986년 15,304.7천두에서 1994년 13,065.7천두로 14.6% 감소하였고 동독은 1988년 5,709.8천두에서 1994년 2,896.6천두로 49.3% 대폭 감소하였다.
- 양의 경우 서독은 1986년 1,382.8천두에서 1994년 1,667.9천두로 20.6% 증가하였으나 동독은 1988년 2,634.4천두에서 1994년 672.2천두로 74.5% 격감하였다. 그리고 돼지, 말, 닭의 사육두수도 동독은 통일이후 격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가축사육두수¹⁾

(단위 천두)

	소	양	돼지	말	닭
〈 서 독 〉					
1986	15 304.7	1 382.8	24 502.3	353.6	78 708.2
1990	14 541.5	1 783.8	22 035.2	406.0	74 971.2
1994	13 065.7	1 667.9	21 330.8	519.3	73 887.3
〈 동 독 〉					
1988	5 709.8	2 634.4	12 464.0	101.9	45 274.5
1990	4 946.5	1 455.6	8 783.2	85.0	31 083.2
1994	2 896.6	672.2	3 367.3	79.6	27 251.6
〈 독일 전체 〉					
1988	20 369.1	4 098.7	35 053.5	476.8	117 309.1
1990	19 488.0	3 239.5	30 818.4	490.9	106 054.4
1994	15 962.2	2 340.1	24 698.1	598.8	101 139.0

주 1) 매년 12월 기준임

어획고 및 판매액도 계속 감소세

- 어획고의 경우 서독은 1980년 286,861톤에서 1990년 154,146톤으로 46.3% 감소하였으며 판매액도 1980년 304,381천DM에서 1990년 234,480천DM으로 23% 감소하였다.
- 통일이후 독일전체의 경우 어획고는 1991년 199,702톤에서 1994년 143,527톤으로 28.1% 감소하였고 판매액은 1991년 285,896천DM에서 1994년 186,823천DM으로 34.7% 감소하였다.

〈표〉 어획고 및 판매액

	계		원 양 어 업		인 근 해 어 업	
	어 획 고	판 매 액	어 획 고	판 매 액	어 획 고	판 매 액
	톤	천DM	톤	천DM	톤	천DM
〈 서 독 〉						
1980	286 861	304 381	194 941	209 928	91 920	94 453
1990	154 146	234 480	92 281	117 914	61 865	116 566
〈 독일전체 〉						
1991	199 702	285 896	104 387	133 079	95 314	152 818
1994	143 527	186 823	74 211	63 077	69 316	123 747

7. 광공업·건설업

통일후 제조업경기는 하락세, 건설업경기는 호황을 나타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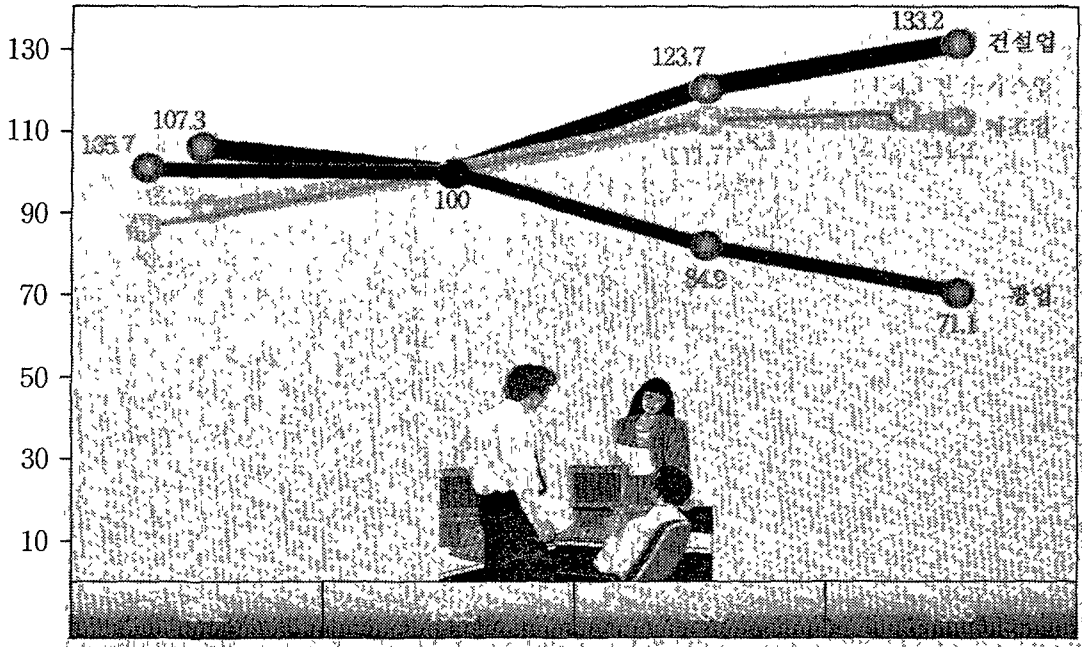
- 전기가스업, 광공업 및 건설업을 의미하는 생산산업의 순생산지수를 분석해 보면 1985년도를 100으로 보았을 때 서독은 1982년 93, 1990년 117.3 1993년 111.6으로 나타나 통일전에는 상승세, 통일후에는 감소세를 나타냈다.
 - － 동독도 1990년 하반기를 100으로 보았을때 1993년도에는 87.4로써 감소세를 나타냄으로써 독일전체도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 전기가스업에서는 서독의 경우 1982년 89.1, 1990년 111.7, 1993년 114.3을 나타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동독도 1993년 103을 기록하여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 광업에서는 서독의 경우 1982년 105.7에서 1993년 71.1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동독은 1993년 39.3을 나타내고 있다.
- 제조업에서는 서독의 경우 1982년 92.3에서 1990년 118.3, 1993년 111.2로 나타나 통일전의 상승세와 통일후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동독도 1993년 70.5를 나타내고 있다.
- 건설업에서는 서독의 경우 1982년 107.3, 1990년 123.7, 1993년 133.2로 통일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통일후의 증가폭이 통일전보다 더 큰 편이며 동독은 1993년 157.3으로써 증가세가 폭발적이다.

〈표〉 생산산업 순생산지수

	계 ¹⁾	전기·가스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1985 = 100.0				
〈서독〉					
1982	93.0	89.1	105.7	92.3	107.3
1990	117.3	111.7	84.9	118.3	123.7
1993	111.6	114.3	71.1	111.2	133.2
	1990 하반기 = 100.0				
〈동독〉					
1993	87.4	103.0	39.3	70.5	157.3
〈독일전체〉					
1993	93.1	102.4	67.4	90.6	114.8
	1991 = 100.0				
〈독일전체〉					
1992	99.6	100.0	93.0	98.4	111.8
1993	93.4	98.4	86.1	90.8	115.5
1994	97.4	99.2	83.1	94.4	126.9

주. 1) 20인이상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과 수공업체를 대상으로 한 통계임

〈도〉 생산산업 순생산지수(서독)



1994년도 동독지역 광공업 종업원수 1991년대비 60%이상 감소

- 서독의 광공업 사업체수는 1980년 48,777개소에서 1994년 44,060개소로써 1980년대비 9.7% 감소하였으며 동독의 경우 1991년 7,112개소에서 1994년 6,952개소로써 2.2% 감소하였다.
- 종업원수는 서독의 경우 1980년 7,660천명에서 1994년 6,368천명으로 16.9% 감소하였으며 동독은 1991년 1,759천명에서 1994년 671천명으로 61.9% 감소하였다.
- 투입노동시간도 서독은 1980년 9,153백만시간에서 1994년 6,410백만시간으로 30% 감소하였고 동독은 1991년 1,417백만시간에서 1994년 767백만시간으로 45.9% 감소하였다.
- 판매액은 1980년 1,196,543백만DM에서 1994년 1,873,639백만DM으로 명목상 56.6% 증가하였으며 동독은 1991년 96,616백만DM에서 1994년 114,891백만DM으로 명목상 18.9% 증가하였다.

〈표〉 광공업 사업체, 종업원수 및 판매액

	사업체수 ¹⁾ (개소)	종업원수 ²⁾ (천명)	투입노동시간 (백만시간)	판매액 ³⁾ (백만DM)
〈서독〉				
1980	48 777	7 660	9 153	1 196 543
1990	46 674	7 411	7 993	1 823 282
1994	44 060	6 368	6 410	1 873 639
〈동독〉				
1991	7 112	1 759	1 417	96 616
1994	6 952	671	767	114 891
〈독일전체〉				
1991	54 338	9 274	9 369	2 046 172
1994	51 011	7 039	7 177	1 988 530

주 1) 20이상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과 수공업체틀 대상으로 한 통계임
 2) 연평균 기준임
 3) 매세상 제외함

통일후 건설업종은 호황을 맞이하고 있어

- 건설업은 통독후 주택 및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으로 인하여 통일전후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서독의 사업체수는 1987년 63,385개소에서 1994년 74,300개소로써 1987년대비 17.2% 증가하였다.
- 동독은 1991년 3,073개소에서 1994년 16,355개소로써 1991년 대비 5.3배로 크게 확대되었다.
- 종업원수는 서독의 경우 1987년 1,174.8천명에서 1994년 1,344.4천명으로 14.4% 증가하였고 동독은 1991년 343.4천명에서 1994년 539.1천명으로 57% 증가하였다.
- 근로시간수는 서독은 1987년 1,502백만시간에서 1,696백만시간으로 12.9%, 동독은 404백만시간에서 739백만시간으로 82.9% 각각 증가하였다.
- 판매액은 서독은 1987년 129,080백만DM에서 1994년 225,944백만DM으로 명목상 75% 증가하였고 동독은 1991년 27,201백만DM에서 1994년 77,073백만DM으로 명목상 2.8배 증가하였다.

〈표〉 건설업 사업체수, 종업원수 및 판매액

	사업체수 ¹⁾ (개소)	종업원수 (천명)	근로시간수 (백만시간)	판매액 (백만 DM)
〈서독〉				
1987	63 385	1 174.8	1 502	129 080
1990	69 697	1 251.6	1 647	170 587
1994	74 300	1 344.4	1 696	225 944
〈동독〉				
1991	3 073	343.4	404	27 201
1994	16 355	539.1	739	77 073
〈독일전체〉				
1991	73 426	1 634.5	2 047	217 508
1994	90 655	1 883.4	2 434	303 017

주 1) 20인이상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과 수공업체를 대상으로 한 통계이며, 매년 6월말 기준임

8. 도소매·관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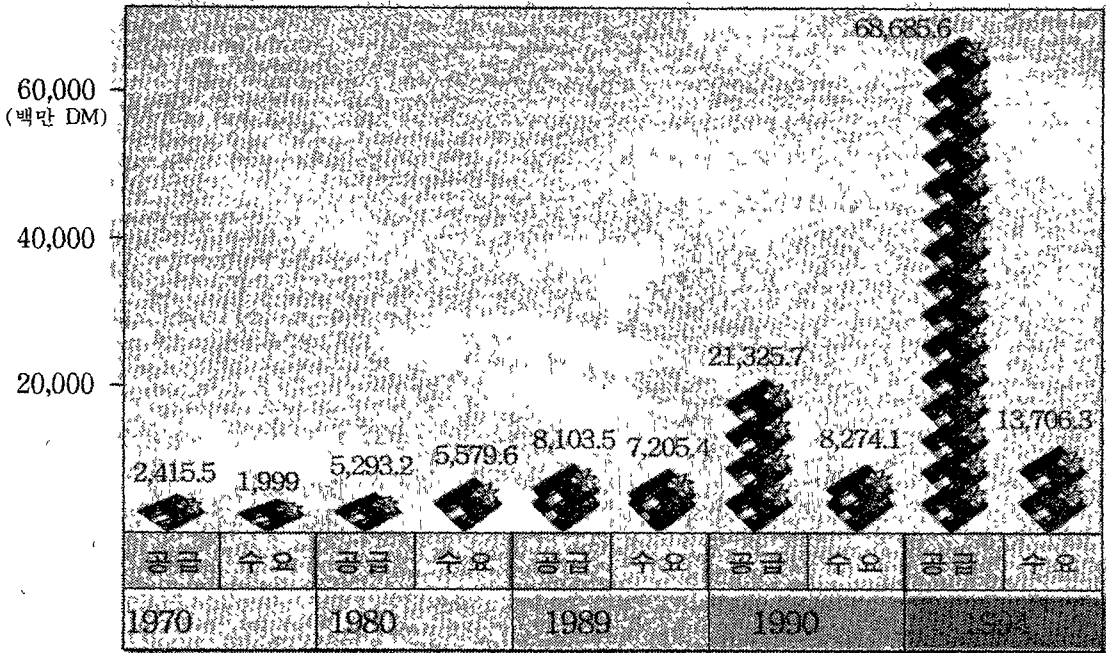
통일후 서독지역은 상품의 재고가 크게 발생하여

- 서독의 상품수급현황을 분석해 보면 상품공급은 1960년 959.5백만DM에서 1989년에는 8,103.5백만DM으로 1960년대비 8.4배로 규모가 증대되었으며
 - 통일후 수요증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0년도에는 21,325.7백만DM으로 전년대비 2.6배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고 1994년도에는 68,685.6백만DM으로 1990년대비 3.2배로 규모가 증대하였다.
- 수요는 1960년 1,122.5백만DM에서 1989년 7,205.4백만DM으로 1960년대비 6.4배로 규모가 증대되었고 1990년도에는 8,274.1백만DM으로써 수요가 크게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1989년대비 14.8% 증가에 그쳤으며 1994년도에는 13,706.3백만DM으로 1990년대비 65.7% 증가에 그쳤다.
- 상품과부족 현황을 분석해 보면 1960년 -163백만DM, 1970년 +419.5백만DM, 1980년 -286.4백만DM, 1989년 +898.1백만DM으로 나타나 통일전에는 수급상 큰 문제가 없었으나
 - 1990년도에는 +13,051.6백만DM, 1994년도에는 +54,979.3백만DM으로 나타나 통일후에 수요예측이 잘못되어 상품의 재고가 크게 증가하였다.

〈표〉 서독의 상품수급 현황

	공 급 (백만DM)	수 요 (백만DM)	과 부 족 (백만DM)
1960	959.5	1 122.5	-163.0
1970	2 415.5	1 996 0	+419.5
1980	5 293.2	5 579.6	-286 4
1989	8 103.5	7 205.4	+898.1
1990	21 325 7	8 274.1	+13 051 6
1991	46 732 7	8 985 1	+37 747.7
1992	63 385 1	10 227.8	+53 157.4
1993	64 981 9	10 710.3	+54 271.6
1994	68 685 6	13 706.3	+54 979.3

〈도〉 서독의 상품수급 현황



동독지역의 숙박시설이 크게 증가

- 서독의 숙박시설은 1989년 47,985개소, 1990년 47,842개소, 1994년도에는 44,781개소로써 1989년 대비 6.7% 감소하였으며 동독은 1991년 3,807개소에서 1994년 5,314개소로써 39.6% 증가하였다.
- 제공침대수는 서독은 1989년 1,810,035개에서 1,841,132개로써 오히려 1.7% 늘었고, 동독은 1991년 222,067개에서 1994년 287,220개로써 29.3% 증가하였다.
- 총침대이용률은 서독은 1989년 36.8%, 1990년 38.4%, 1994년 36.4%를 나타내어 1989년대비 0.4%「포인트」 낮아졌고 동독은 1992년 29.7%에서 1994년 31.3%로 1.6%「포인트」 높아졌다.

〈표〉 숙박시설, 침대수 및 침대 이용률

	개업 숙박시설 (개소)	제공 침대수 (개)	침대 이용률	
			총침대 이용률(%)	제공침대 이용률(%)
〈서독〉				
1989	47 985	1 810 035	36.8	40.6
1990	47 842	1 827 542	38.4	42.8
1994	44 781	1 841 132	36.4	40.0
〈동독〉				
1991	3 807	222 067	—	—
1992	3 767	220 215	29.7	39.4
1994	5 314	287 220	31.3	38.7
〈독일전체〉				
1991	51 027	2 056 739	—	—
1992	49 613	2 007 859	38.2	42.8
1994	50 095	2 128 352	35.7	39.8

1994년 독일전체 관광지출은 관광수입의 3.9배

- 서독의 관광수입은 1988년 14,632백만DM, 1989년 15,910백만DM으로 8.7% 증가하였고 독일전체는 1990년 16,866백만DM, 1993년 18,000백만DM으로 1990년대비 6.7% 증가하였다가 1994년도에는 17,180백만DM을 나타내어 전년대비 4.6% 감소하였다.
- 서독의 관광지출은 1988년 43,581백만DM, 1989년 44,280백만DM으로 1.6% 증가하였고 독일전체로는 1990년 47,386백만DM, 1994년 67,223백만DM을 나타내어 1990년대비 41.9% 늘어났다. 특히 1994년도 관광지출은 관광수입의 3.9배에 달하고 있다.

〈표〉 관광수입과 지출

(단위 백만DM)

	수입				지출			
	계	선진국	동유럽	기타	계	선진국	동유럽	기타
〈서독〉								
1988	14 632	13 561	131	940	43 581	38 517	942	4 122
1989	15 910	14 613	143	1 154	44 280	39 038	821	4 421
〈독일전체〉								
1990 ¹⁾	16 866	15 565	143	1 158	47 386	41 728	842	4 816
1993	18 000	16 364	344	1 292	62 731	53 261	1 763	7 707
1994	17 180	15 500	424	1 256	67 223	56 639	1 872	8 712

주. 1) 1990년 7월부터 독일전체 자료이며 6월까지의 서독자료임

9. 금융업

통일후 화폐발행고 연평균증가율은 통일전보다 2%「포인트」 이상 높아

- 서독의 화폐발행고는 연말기준으로 1980년 91,191백만DM에서 1989년 162,144백만DM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6.6%에 달하고 있으며
 - 독일전체로서는 1990년 179,499백만DM에서 1994년 250,907백만DM으로 연평균 8.7%의 증가율을 보임으로써 통일전(1981~89)보다 연평균 2.1%「포인트」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 서독의 화폐민간보유고는 연말기준으로 1980년 83,962백만DM, 1989년 146,916백만DM으로 연평균 6.4%의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며
 - 독일전체로서는 1991년 158,567백만DM에서 1994년 225,900백만DM으로 연평균 9.3%의 증가율을 보임으로써 통일전보다 2.9%「포인트」 높았다.
- 서독의 1인당 화폐발행고는 1980년 1,404DM에서 1989년 2,490DM으로 연평균 6.6%의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며
 - 독일전체로서는 1990년 2,073DM에서 1994년 2,934DM으로 연평균 9.1% 증가율을 나타내어 통일전보다 2.5%「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표〉 화폐발행고

	연 말		연 양	
	화 폐 발 행 고 (백만 DM)	화 폐 민 간 보 유 고 (백만 DM)	화 폐 발 행 고 (백만 DM)	1인당 화폐발행고 (DM)
〈 서 독 〉				
1980	91 191	83 962	86 425	1 404
1989	162 144	146 916	154 538	2 490
연평균증가율(%)				
1981~89	6.6	6.4	6.7	6.6
〈 독 일 전 체 〉				
1990 ¹⁾	179 499	158 567	164 531	2 073
1994	250 907	225 900	238 815	2 934
연평균증가율(%)				
1991~94	8.7	9.3	9.8	9.1

주 1) 1990년 7월부터 독일전체 자료이며 6월까지는 서독 자료임

통일후 연평균증가율 M₁ 6.9%, M₂ 6.8%, M₃ 6.5%

- 서독의 은행제도 전체의 자산은 1982년 2,089,743백만DM에서 1989년 3,242,309백만DM으로 연평균 6.5%의 증가율을 보였고 독일전체는 1990년 3,831,900백만DM에서 1994년 5,277,802백만DM으로 연평균 8.3%가 증가하여 통일전(1983~89)보다 1.8%「포인트」 증가하였다.
- 특히, 자산중 해외자산은 통일전에는 연평균 11.5%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통일후에는 연평균 5.8%의 증가율을 보여 5.7%「포인트」 감소하였다.
- 부채중 M₁은 통일전에는 연평균 증가율이 7.4%, M₂는 6.4%, M₃는 6.1%를 나타내었고 통일후에는 M₁은 6.9%, M₂는 6.8%, M₃는 6.5%를 나타내어 M₁은 0.5%「포인트」 감소하였으나 M₂와 M₃는 각각 0.4%「포인트」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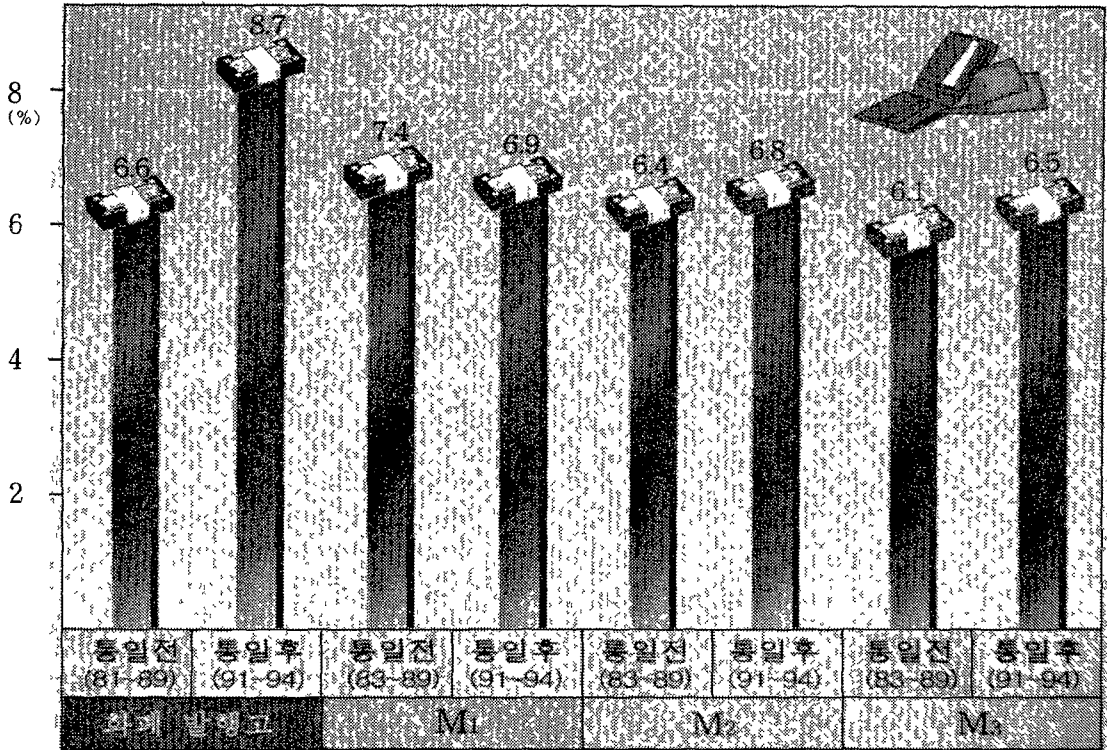
〈표〉 은행제도의 통합 대차대조표

(단위, 백만 DM)

	계	자 산		부 채 와 자 본				해 외
		국 내	해 외	국 내			해 외	
				계	M ₁	M ₂		
〈서 독〉								
1982	2 089 743	1 803 749	285 994	1 917 459	273 047	502 200	830 957	172 284
1989	3 242 309	2 628 790	613 519	2 917 167	450 746	776 561	1 255 627	325 142
연평균증가율(%)								
1983~89	6.5	5.5	11.5	6.2	7.4	6.4	6.1	9.5
〈독일전체〉								
1990 ¹⁾	3 831 900	3 113 534	718 366	3 438 918	584 338	987 618	1 502 983	392 982
1994	5 277 802	4 376 846	900 956	4 664 318	764 075	1 282 697	1 937 017	613 484
연평균증가율(%)								
1991~94	8.3	8.9	5.8	7.9	6.9	6.8	6.5	11.8

주 1) 1980년 7월부터 독일전체 자료이며 6월까지의 서독자료임

〈도〉 화폐발행고, M_1 , M_2 및 M_3 연평균증가율



통일직전 건설업주가는 폭등세

- 서독의 주식가격 총지수는 1988년도에는 248.4를 기록하였고 통일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하여 1989년도에는 330.4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33%가 증가하였고 1990년에는 274.5를 기록하여 통일후에 대한 불안심리로 인하여 전년대비 16.9% 감소하였다.
- 통일후 1993년도에는 370.8로써 전년대비 39.9%나 상승하여 통일후 총지수면이나 상승률면에서 최고의 수치를 나타냈고 1994년도에는 341.6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7.9% 하락하였다.
- 업종별 주가지수는 건설업이 1989년 498.9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116.9%의 상승률을 나타내었으며 1993년 주가지수는 613.6을 나타내어 통일전후를 막론하고 최고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전년대비로는 27.6% 증가하였다.

〈표〉 주식가격지수(연말기준)

	총 지 수		전기·수도·광업		제 조 업		건 설 업		기 타		
	전년대비 증 감 률 (%)		전년대비 증 감 률 (%)		전년대비 증 감 률 (%)		전년대비 증 감 률 (%)		전년대비 증 감 률 (%)		
	1980. 12. 30 = 100.0										
〈서 독〉											
1988	248.4	-	157.9	-	246.9	-	230.0	-	282.9	-	
1989	330.4	+33.0	236.2	+49.6	321.4	+30.2	498.9	+116.9	372.7	+31.7	
1990	274.5	-16.9	231.9	-1.8	253.9	-21.0	537.1	+7.7	316.8	-15.0	
〈독일전체〉											
1993	370.8	+39.9	303.1	+37.6	334.4	+38.3	613.6	+27.6	448.9	+43.1	
1994	341.6	-7.9	295.4	-2.5	323.6	-3.2	557.2	-9.2	383.4	-14.6	

통일후 자금수요증대로 이자율 수준은 높아

- 서독의 당좌대출이자율(백만DM~5백만DM)은 1986년 12월 6.99%에서 1990년 12월 10.28%로 3.29%「포인트」 상승하여 자금수요가 증대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 통일후 독일전체의 경우 1991년 12월에는 11.31%, 1992년 12월 12.03%로 자금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1994년 12월에는 9.32%로 1990년 12월 대비 0.96%「포인트」 낮아져 자금수요의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 서독의 1~3개월 정기예금이자율(백만DM~5백만DM)은 1986년 12월 4.40%에서 1990년 8.11%로 3.71%「포인트」 증가하였다.
 - 통일후 독일전체는 1991년 12월 8.52%, 1992년 12월 8.14%, 1994년 12월 4.81%를 나타내어 최근에는 자금의 수급이 통일전의 수준으로 안정화되고 있다.

〈표〉 이자율

(단위 %)

	당좌대출이자율		1~3개월 정기예금이자율	
	백만DM 미만	백만DM~5백만DM	십만DM~백만DM	백만DM~5백만DM
〈서독〉				
1986. 12월	8.63	6.99	3.86	4.40
1990. 12월	11.97	10.28	7.53	8.11
〈독일전체〉				
1991. 12월	12.95	11.31	7.95	8.52
1992. 12월	13.66	12.03	7.65	8.14
1994. 12월	11.25	9.32	4.41	4.81

10. 국제수지

통독후 3년간(1991~93) 경상수지적자액은 약 1,000억DM

- 서독의 경상수입은 1985년도에는 669,576백만DM, 1989년도에는 817,983백만DM으로 연평균 5.1%의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독일전체의 경상수입은 1990년도에는 866,329백만DM, 1993년도에는 872,745백만DM으로 연평균 0.2%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통일전보다 4.9%「포인트」 낮아졌다.
 - 특히 상품수출(운임등 제외)은 통일후 -1.8%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 서독의 경상지출은 1985년도에는 621,250백만DM, 1989년도에는 709,866백만DM으로 연평균 3.4%의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며 독일전체의 경상지출은 1990년도에는 790,626백만DM, 1993년도에는 904,989백만DM을 나타냄으로써 연평균 4.6%의 증가율을 보였다.
- 서독의 경상수지는 1985년 48,327백만DM의 흑자를 시현하였고, 1989년도에는 108,116백만DM의 흑자를 시현하여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 통일후 독일전체의 경우에는 1990년 75,703백만DM의 흑자를 기록하여 1989년 서독대비 30% 감소하였고 1991년은 32,243백만DM의 적자, 1992년은 34,382백만DM의 적자, 1993년도에는 32,245백만DM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표〉 경상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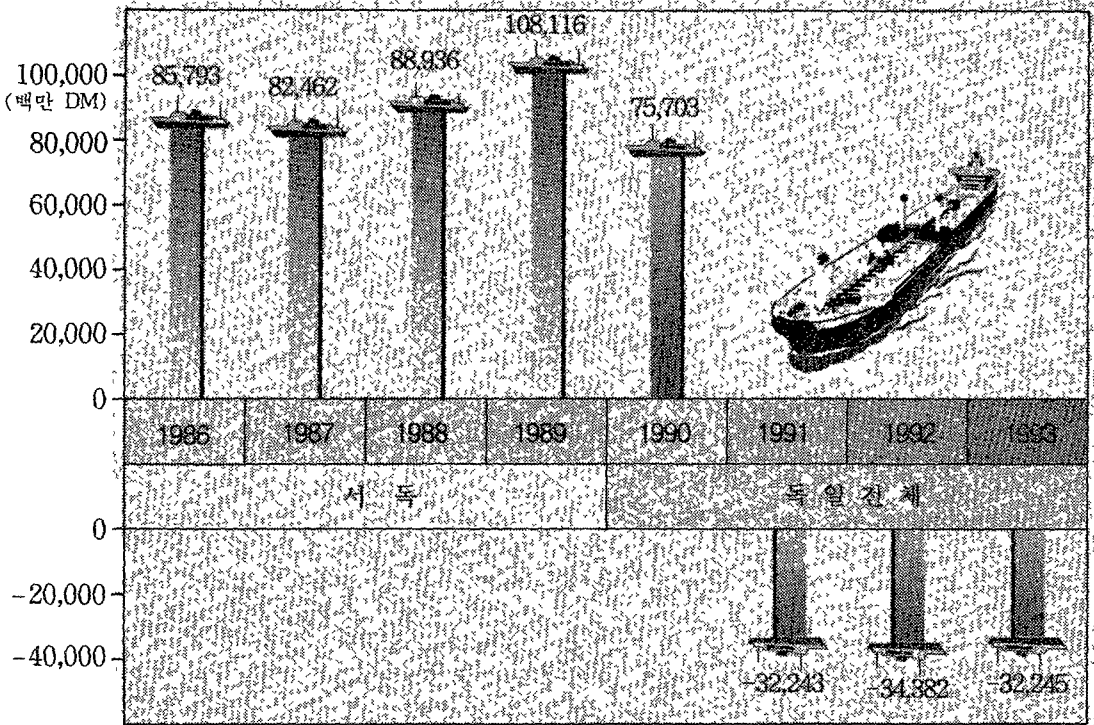
(단위 백만DM)

	경 상 수 입				경 상 지 출				경상수지
	계	상 품 ¹⁾	용 역	이전수입	계	상 품 ¹⁾	용 역	이전지출	
〈서 독〉									
1985	669 576	509 458	142 452	17 666	621 250	424 776	149 716	46 758	+48 327
1989	817 983	610 919	186 599	20 465	709 866	464 524	191 167	54 175	+108 116
연평균증가율(%)									
1986~89	5.1	4.6	7.0	3.7	3.4	2.3	6.3	3.7	-
〈독 일 전 체〉									
1990 ²⁾	866 329	631 379	212 586	22 364	790 626	514 427	217 350	58 849	+75 703
1993	872 745	598 577	249 878	24 290	904 989	525 885	303 132	75 972	-32 245
연평균증가율(%)									
1991~93	0.2	-1.8	5.5	2.8	4.6	0.7	11.7	8.9	-

주 1) FOB가격기준임

2) 1990년 7월이후 자료는 독일전체자료이며 6월까지기는 서독자료임

〈도〉 경상수지



통일후 3년6개월동안 대외순자산 약 2,000억DM 감소

- 서독의 1950년 대외자산은 3,895백만DM을 기록하였고 1989년 대외자산은 1,466,144백만DM을 기록함으로써 연평균(1951~89) 16.4%를 기록하였으며, 1981~89 기간중에는 12.6%의 연평균증가율을 기록하였다.
- 통일후 1990년 독일전체의 대외자산은 1,644,361백만DM을 나타내었고 1994년 6월 2,160,277백만DM을 나타내어 연평균 8.1%의 증가율을 보임으로써 통일전(1981~89)보다 4.5%「포인트」 낮아졌다.
- 서독의 대외부채는 1950년 8,613백만DM에서 1989년 1,008,075백만DM으로 증가하여 연평균(1951~89) 13%의 증가율을 나타내었고 1981~89기간중에는 연평균 9.7%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 통일후 독일전체의 대외부채는 1990년 1,111,365백만DM으로 나타났고 1994년 6월에는 1,824,823백만DM로 나타나 연평균(1991~94.6) 15.2%의 증가율

을 나타내어 통일전(1981~89)보다 5.5%「포인트」 높아졌다.

- 따라서 대외순자산은 1990년도에 532,996백만DM으로 나타나 1950년이후 최고의 대외순자산을 보유하였으나 1994년 6월에는 335,454백만DM으로 1990년대 비 37.1%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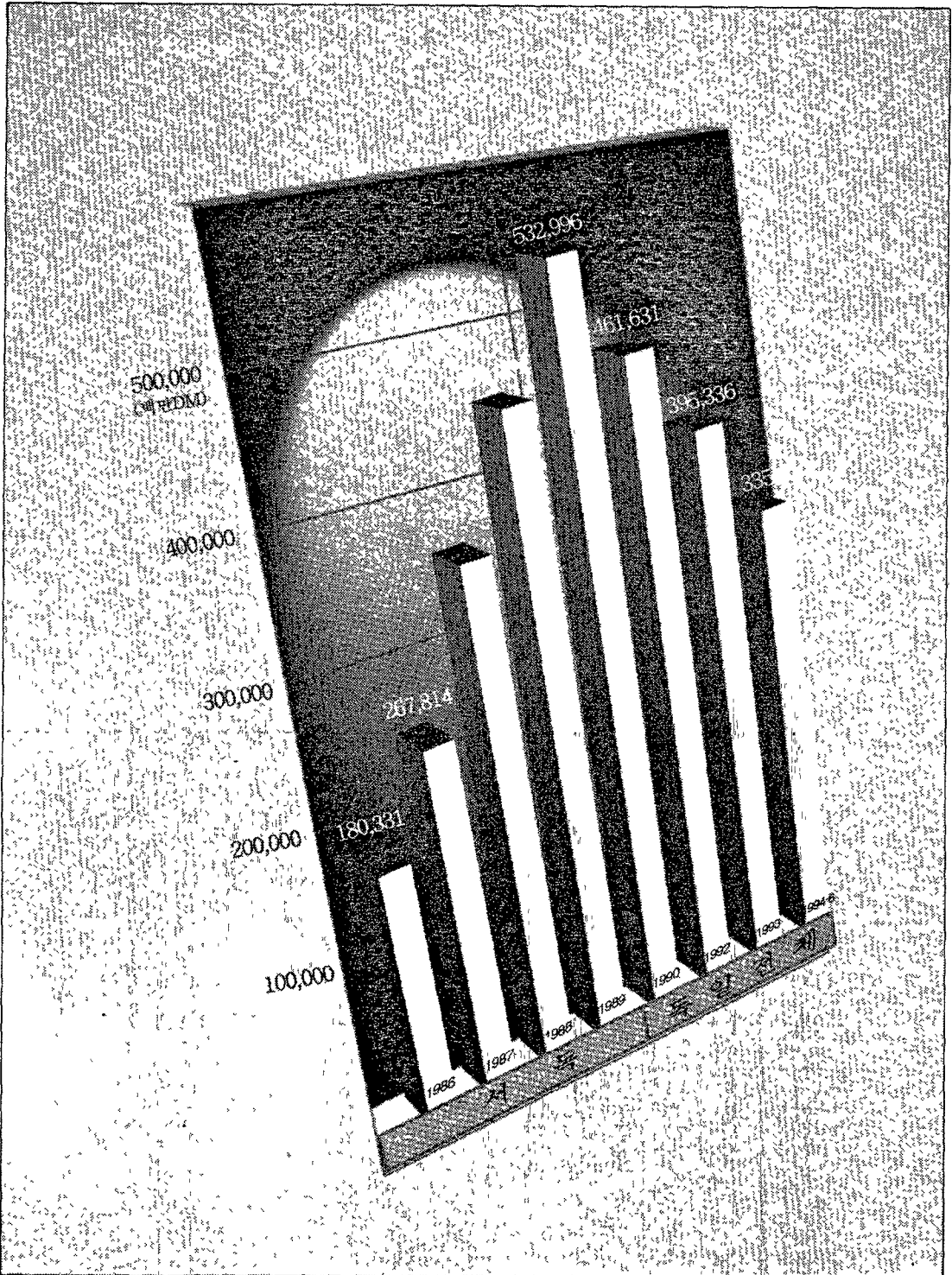
〈표〉 대외자산 및 부채현황¹⁾

(단위 백만DM)

	대 외 자 산 (A)	대 외 부 채 (B)	(A) - (B)
〈 서 독 〉			
1950	3 895	8 613	-4 718
1960	63 394	40 096	+23 298
1970	186 183	126 903	+59 280
1980	502 707	437 711	+64 996
1989	466 144	1 008 075	+458 069
연평균증가율(%)			
1951~89	16.4	13.0	-
1981~89	12.6	9.7	-
〈 독 일 전 체 〉			
1990	1 644 361	1 111 365	--532 996
1994. 6월	2 160 277	1 824 823	+335 454
연평균증가율(%)			
1991~94. 6월	8.1	15.2	-

주 1) 연말기준임

〈도〉 대외순자산



11. 물 가

통독후 독일전체의 소매물가 상승률은 통일전 서독의 약4배

- 서독의 도매판매물가지수는 1985년을 100으로 볼 때 1990년도에는 95.2로써 1985년 대비 4.8% 하락하였으나 1994년도에는 97.2로써 1990년 대비 2.1% 상승하였다.
 - 독일전체로서는 1991년을 100으로 볼 때 1995년도에는 103.7을 기록함으로써 1991년대비 3.7% 상승하였다.
- 서독의 소매물가지수는 1985년을 100으로 볼 때 1990년 104.4를 나타내어 1985년대비 4.4% 증가하였으며 1994년도에는 113.4를 나타내어 1990년대비 8.6% 증가하였다.
 - 독일전체로서는 1991년을 100으로 볼 때 1995년 114.8을 나타내어 1991년대비 14.8% 상승하였으며 연평균 상승률(1992~95)은 3.5%로써 통일전 서독(1986~90)의 약4배 수준이다.
- 생계비지수를 분석해보면 서독의 경우 1990년도에는 107을 기록하여 1985년대비 7% 상승하였고 1994년도에는 123.5를 기록하여 1990년대비 15.4% 상승하였다. 동독의 경우 1994년도에는 135.4를 나타내어 1991년대비 25%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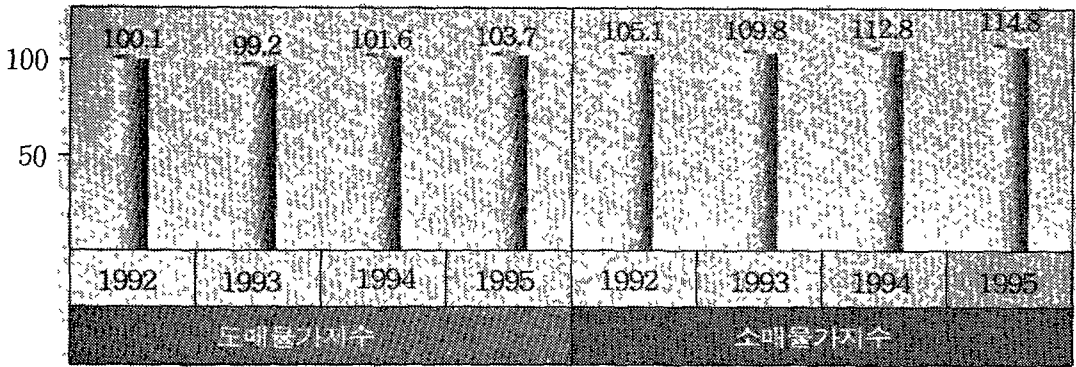
〈표〉 도·소매 물가지수 및 생계비지수

	도매판매물가지수 ¹⁾ (1985=1000)	소매물가지수 ¹⁾ (1985=1000)	생계비지수 ²⁾ (1985=1000)
〈 서 독 〉			
1990	95.2	104.4	107.0
1994	97.2	113.4	123.5
연평균상승률(%)			
1986~90	-1.0	0.9	1.4
1991~94	0.5	2.1	3.7
	1990년 하반기 ~ 1991년 상반기=100.0		
〈 동 독 〉			
1991	-	-	108.3
1994	-	-	135.4
연평균상승률(%)			
1992~94	-	-	7.7
		1991 = 100.0	
〈 독 일 전 체 〉			
1992	100.1	105.1	-
1993	99.2	109.8	-
1994	101.6	112.8	-
1995	103.7	114.8	-
연평균상승률(%)			
1992~95	0.9	3.5	-

주 1) 연평균 지수임

2) 서독은 모든 가계의 연평균 지수이며 동독은 모든 근로자가계의 연평균 지수임

〈도〉 독일전체의 도소매 물가지수
(1991=100.0)



동독지역은 통일후 집값이 대폭상승

- 가족이 살 수 있는 거주용 건물의 물가지수를 분석해 보면 1985년을 100으로 볼 때 서독은 1990년 116.4로써 1985년 대비 16.4% 증가하였으며 1993년도에는 137.2로써 1990년대비 17.9% 증가하였다.
- 동독은 1989년을 100으로 볼 때 1993년 195.2를 기록하여 1990년대비 36.9% 상승하여 집값이 통일후 대폭 상승하였다.
- 독일전체로는 1991년을 100으로 볼 때 1995년 117.3을 나타내어 1991년대비 17.3% 상승하였다.

〈표〉 거주용건물 물가지수

	서 독 (1985=100.0)	동 독 (1989=100.0)	독 일 전 체 (1991=100.0)
1990	116.4	142.6 ¹⁾	-
1993	137.2	195.2	111.7
1995	-	-	117.3

주 1)1990년 8월 지수임

통일후 동독지역의 건축부지시가지도 대폭 상승

- 서독의 건축부지시가를 분석해 보면 1985년 m²당 시가는 78.69DM으로 나타났으며 1990년도에는 89.24DM으로 나타나 1985년 대비 13.4% 상승하였고 1993년에는 96.53DM으로 1990년대비 8.2% 상승하였다.
- 동독의 1991년 m²당 시가는 13.11DM으로 나타났으며 1993년에는 28.30DM으로 나타나 1991년대비 2.2배 상승하였다.
- 독일전체의 m²당 시가는 1992년 49.08DM에서 1994년 70.84DM으로 1992년대비 44.3% 상승하였다.

〈표〉 건축부지 시가

	매 매 건 수 (건)	면 적 (천m ²)	m 당 시 가 (DM)
〈 서 독 〉			
1985	62 382	75 815	78.69
1990	86 709	118 348	89.24
1993	97 480	132 386	96.53
〈 동 독 〉			
1991	17 114	176 869	13.11
1993	34 044	154 045	28.30
〈 독 일 전 체 〉			
1992	121 353	317 195	49.08
1994	111 660	204 000	70.84

12. 사회간접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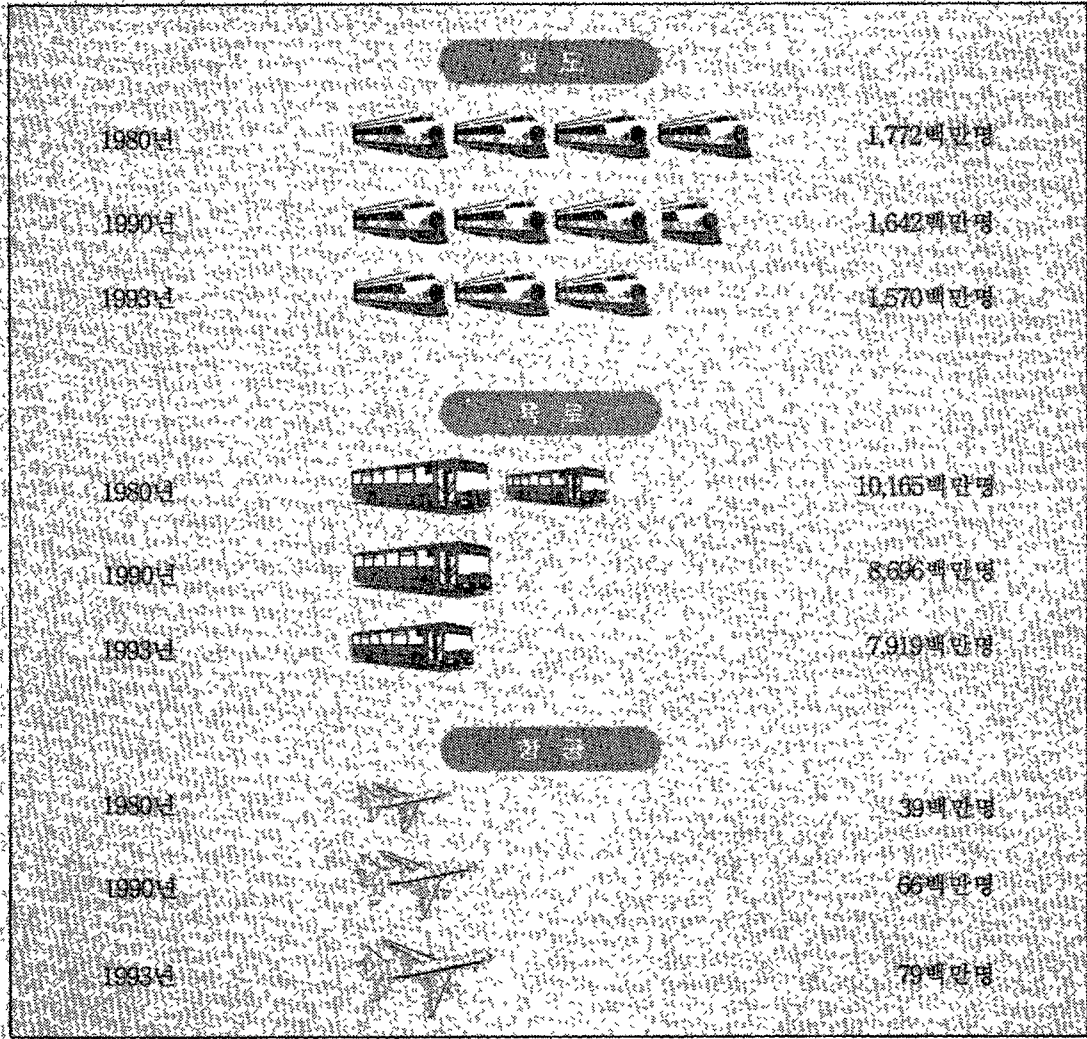
통일후 철도, 육로여객수송인원은 감소하여

- 철도여객수송인원을 분석해 보면 서독은 1980년 1,165백만명에서 1990년 1,172백만명으로 0.6% 증가하였고 동독은 1980년 607백만명에서 1990년 470백만명으로 22.6% 감소하였다.
 - － 통독후 독일전체는 1990년 1,642백만명에서 1993년 1,570백만명으로 4.4% 감소하였다.
- 육로여객수송인원은 서독의 경우 1980년 6,730백만명에서 1990년 5,894백만명으로 12.4% 감소하였고 동독은 1980년 3,435백만명에서 1990년 2,802백만명으로 18.4% 감소하였다.
 - － 통일후 독일전체의 경우 1990년 8,696백만명에서 1993년 7,919백만명으로 8.9% 감소하였다.
- 항공여객 수송인원은 서독은 1980년 38백만명에서 1990년 65백만명으로 71.1% 증가하였다.
 - － 통독후 독일전체의 수송인원은 1990년 66백만명에서 1993년 79백만명으로 19.7% 증가하였다.

〈표〉 여객수송량 및 수송거리

	철도		육로		항공	
	수송인원 (백만명)	수송거리 (백만인-킬로)	수송인원 (백만명)	수송거리 (백만인-킬로)	수송인원 (백만명)	수송거리 (백만인-킬로)
〈서독〉						
1980	1 165	38 862	6 730	73 931	38	10 960
1990	1 172	44 588	5 894	65 149	65	18 442
〈동독〉						
1980	607	22 027	3 435	27 952	1	2 053
1990	470	17 397	2 802	23 876	1	2 621
〈독일전체〉						
1980	1 772	60 889	10 165	101 883	39	13 013
1990	1 642	61 985	8 696	89 025	66	21 063
1993	1 570	58 003	7 919	79 634	79	21 885

〈도〉 독일전체의 여객수송량



통일후 철도, 내수면, 파이프라인 화물수송량 모두 감소

○ 철도화물수송량은 서독의 경우 1980년 364.3백만톤에서 1990년 310.4백만톤으로 14.8% 감소하였으며 동독은 1980년 311.6백만톤에서 1990년 230백만톤으로 26.2% 감소하였다.

— 통독후 독일전체는 1990년 540.4백만톤에서 1993년 329.2백만톤으로 39.1%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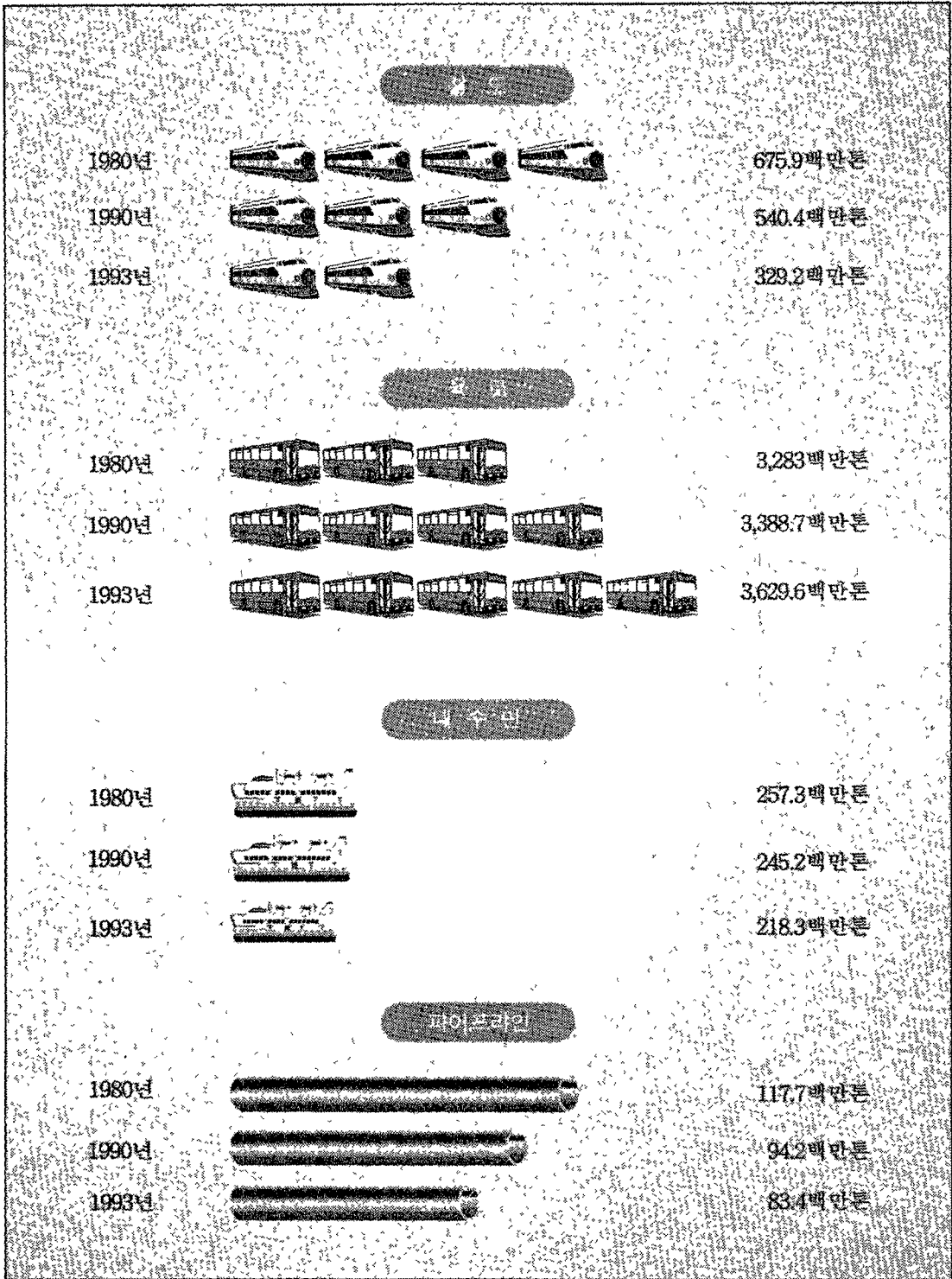
- 육로화물수송량은 서독의 경우 1980년 2,553.2백만톤에서 1990년 2,848.1백만톤으로 11.6% 증가하였고 동독은 1980년 729.8백만톤에서 1989년 540.6백만톤으로 25.9% 감소하였다.
 - 통독후 독일전체는 1990년 3,388.7백만톤에서 1993년 3,629.6백만톤으로 7.1% 증가하였다.
- 내수면 화물수송량은 서독의 경우 1980년 241백만톤에서 1990년 231.6백만톤으로 3.9% 감소하였고, 동독은 1980년 16.3백만톤에서 1990년 13.6백만톤으로 16.6% 감소하였다.
 - 또한 통독후 독일전체는 1990년 245.2백만톤에서 1993년 218.3백만톤으로 11% 감소하였다.
- 파이프라인 원유수송량의 경우 서독은 1980년 76.1백만톤에서 1990년 64.4백만톤으로 15.4%, 동독은 1980년 41.6백만톤에서 1990년 29.8백만톤으로 28.4% 각각 감소하였다.
 - 통독후 독일전체는 1990년 94.2백만톤에서 1993년 83.4백만톤으로 11.5% 감소하였다.

〈표〉 화물수송량 및 수송거리

	서독		동독		내수면		파이프라인	
	수송량 (백만톤)	수송거리 (백만톤-킬로)	수송량 (백만톤)	수송거리 (백만톤-킬로)	수송량 (백만톤)	수송거리 (백만톤-킬로)	수송량 (백만톤)	수송거리 (백만톤-킬로)
〈서독〉								
1980	364.3	66 803	2 553.2	124 439	241.0	51 435	76.1	13 096
1990	310.4	62 864	2 848.1	169 844	231.6	54 803	64.4	11 737
〈동독〉								
1980	311.6	56 395	729.8	21 020	16.3	2 159	41.6	5 002
1990	230.0	40 163	540.6 ¹⁾	16 874 ¹⁾	13.6	1 924	29.8	3 324
〈독일전체〉								
1980	675.9	123 198	3 283.0	145 459	257.3	53 594	117.7	18 098
1990	540.4	103 027	3 388.7 ¹⁾	186 718 ¹⁾	245.2	56 727	94.2	15 061
1993	329.2	66 646	3 629.6	211 617	218.3	57 559	83.4	14 279

주 1) 동독자료는 1989년 수치임
2) 원유수송 파이프라인임

〈도〉 독일전체의 화물수송량



통독의 1993년도 전화가입자수는 3천7백만회선

- 서독의 우편물은 1988년 13,808백만통에서 1990년 14,244백만통으로 3.2% 증가하였다. 독일전체의 우편물은 1991년 15,564백만통에서 1993년도에는 18,300백만통으로 나타나 1991년대비 17.6% 증가하였다.
- 서독의 소포는 1988년 254백만통에서 1990년 247백만통으로 2.8% 감소하였고 독일전체로서는 1991년 640백만통에서 1993년 667백만통으로 4.2% 증가하였다.
- 서독의 전화가입자수는 1988년 28.4백만회선에서 1990년 30.3백만회선으로 6.7% 증가하였고 통일후에는 1991년도의 33.6백만회선에서 1993년 37백만회선으로 1991년대비 10.1% 증가하였다.

〈표〉 통 신 현 황

	우 편 물 ¹⁾ (백 만 통)	소 포 ¹⁾ (백 만 통)	전 화 가 입 자 수 (백 만 회 선)
〈 서 독 〉			
1988	13 808	254	28 4
1990	14 244	247	30 3
〈 독 일 전 체 〉			
1991	15 564	640	33 6
1993	18 300	667	37 0

주 1) 국제우편물 및 소포를 포함한 수치임

13. 교육·과학

일반학교와 대학교 수는 통일후 지속적으로 증가

- 서독의 대학이하 교육기관인 일반학교수는 1988/89학기에는 32,369개교로 나타났으며 1991/92 학기에는 32,457개교로 1988/89학기 대비 0.3% 증가되었고 동독은 1989/90학기에는 5,928개교에서 1991/92학기에는 9,858개교로 66.3% 대폭 증가하였다.
- 서독의 직업학교수는 1988/89학기에는 7,543개교로 나타났고 1991/92학기에는 6,824개교로 9.5% 감소하였고 동독은 1989/90학기의 1,185개교에서 1991/92학기의 1,159개교로 2.2%감소하였다.
- 서독의 대학교 수는 1989/90학기의 244개교에서 1991/92학기의 249개로 2% 증가였으며 동독은 1990/91학기 54개교에서 1991/92학기 63개교로 16.7% 증가하였다.

〈표〉 각급 학교 현황

	일반학교 ¹⁾			직업학교			대학교		
	학교수 (개교)	교사수 (명)	학생수 (명)	학교수 (개교)	교사수 (명)	학생수 (명)	학교수 (개교)	교사수 (명)	학생수 (명)
〈서독〉									
1988/89	32 369	489 577	6 707 376	7 543	90 716	2 401 090	—	102 056	—
1989/90	32 312	490 360	6 734 495	7 592	90 461	2 256 951	244	108 587	1 508 241
1990/91	32 238	493 004	6 881 509	6 895	90 189	2 162 192	248	112 939	1 585 167
1991/92	32 457	—	6 991 540	6 824	—	2 121 419	249	—	1 647 015
〈동독〉									
1989/90	5 928	167 794	2 089 554	1 185	27 524	467 600	—	—	—
1990/91	6 056	—	2 080 952	1 215	26 154	395 689	54	—	133 602
1991/92	9 858	—	2 151 025	1 159	—	326 864	63	—	135 724
〈독일 전체〉									
1992/93	43 941	656 809	9 345 162	8 951	105 546	2 470 837	318	—	1 827 229
1993/94	43 238	659 738	9 558 455	9 069	105 363	2 449 083	314	—	1 858 455
1994/95	—	—	—	—	—	—	325	—	1 856 542

주 1) 유치원, 장애자학교, 야간학교를 포함한 대학이하의 교육기관임

1991년 통독의 연구개발비는 GNP대비 2.6%로 낮아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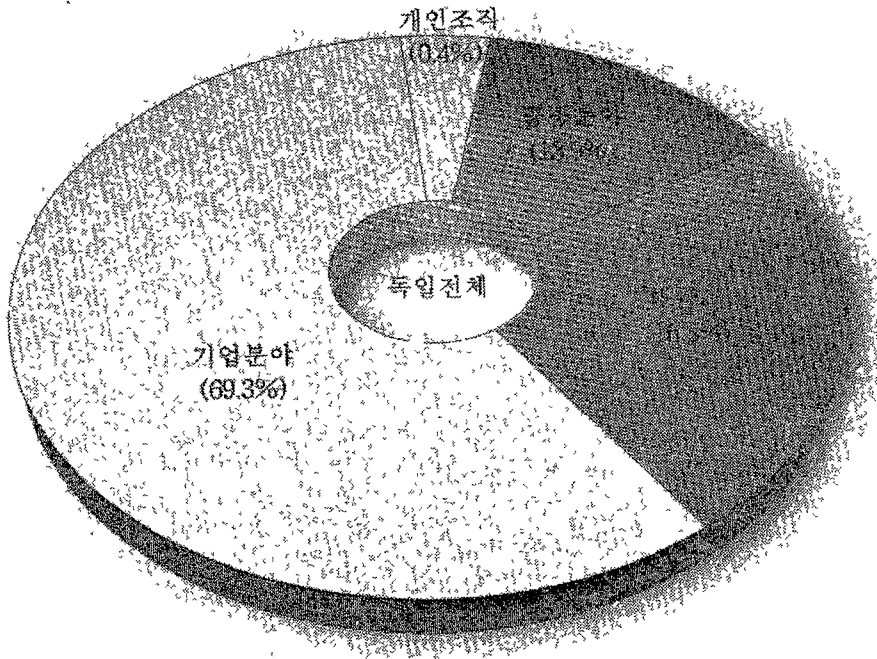
- 서독의 연구개발비는 1985년 50,112백만DM에서 1990년 74,920 백만DM으로 49.5% 증가하였다가 1991년도에는 69,786백만DM으로 전년대비 8.2%감소하였다. 동독의 연구개발비는 1991년 4,731백만DM으로 서독대비 6.8%수준에 불과하다.
- 1991년도 독일전체의 연구개발비는 74,517백만DM으로써 GNP대비 2.6%이며 1990년도 서독의 3.1%에 비하여 0.5% 「포인트」낮아졌다.
-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별로 연구개발비를 분석해 보면 1991년도 서독의 경우 기업분야연구개발비는 49,777백만DM으로써 전체 개발비의 7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독은 1,898백만DM으로써 전체의 40.1%를 차지하였다.
- 그리고 독일전체로 보면 기업분야 개발비는 51,675백만DM으로써 전체의 69.3%를 차지하였다.

〈표〉 연구개발비

(단위 백만 DM)

	계	공공분야	대 학 교	기업분야	개 인 조 직
〈 서 독 〉					
1985	50 112	6 392	7 288	36 212	220
1990	74 920	8 575	9 870	47 600	300
1991	69 786	9 005	10 708	49 777	296
〈 동 독 〉					
1991	4 731	1 373	1 461	1 898	-
〈 독 일 전 체 〉					
1991	74 517	10 378	12 169	51 675	296

〈도〉 1991년도 연구개발비 구성비



1991년도 통독의 기업분야 연구개발인력은 62.4%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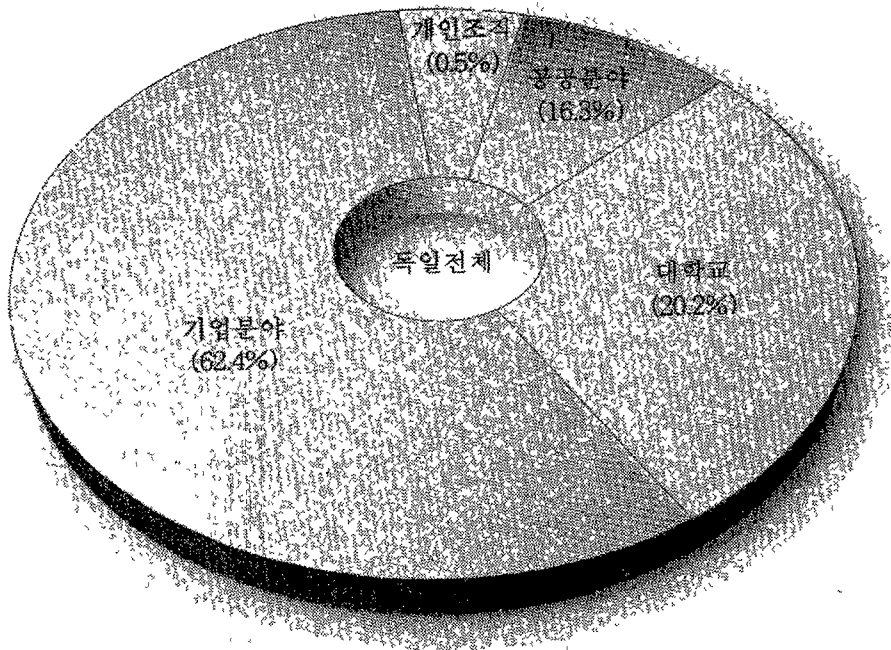
- 서독의 연구개발인력은 1985년도에 391,509명, 1990년도에 432,659명으로 10.5% 증가하였고 1991년도에는 424,221명으로 전년대비 2% 감소하였다.
 - 또한 동독의 1991년도 연구개발인력은 91,035명으로 나타나 서독의 21.5%를 차지하였다.
- 1991년도 서독의 연구개발인력중 기업분야 인력은 287,197명으로 서독전체의 67.7%를 차지하였으며 동독의 1991년도 기업분야인력은 34,559명으로 동독전체의 38.0%를 차지하였다.
 - 그리고 1991년도 독일전체의 기업분야인력은 321,756명으로 독일전체의 62.4%를 차지하였다.

〈표〉 연구개발인력

(단위 명)

	계	공공분야	대학교	기업분야	개인조직
〈서독〉					
1985	391 509	51 741	62 188	275 080	2 500
1990	432 659	58 719	73 900	297 640	2 400
1991	424 221	58 795	75 819	287 197	2 410
〈동독〉					
1991	91 035	28 431	28 045	34 559	—
〈독일 전체〉					
1991	515 256	87 226	103 864	321 756	2 410

〈도〉 1991년도 연구개발인력 구성비



14.公安·보건·사회보장·환경

통일후 1994년도 법원수는 1990년 서독대비 29.3% 증가

- 서독의 1990년 법원수는 859개소로 나타났으며 통일후 1994년 법원수는 1,111개소로써 1990년 서독법원수에 비하여 29.3% 증가하였다.
- 법원의 종류별로 보면 우리나라의 지방법원 지원에 해당하는 구법원이 1990년 551개소에서 1994년 707개소로 28.3%, 노동법원이 1990년 95개소에서 123개소로 29.5% 각각 증가하였다.

〈표〉 법원현황¹⁾

(단위 개소)

	계	구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노동법원	행정법원	사회법원	조세법원
〈서독〉 1990	859	551	94	20	95	35	50	14
〈독일전체〉 1994	1 111	707	116	25	123	52	69	19

주 1) 12월 31일 기준임

통독후 법관은 8.1%, 변호사 24.5% 각각 증가

- 서독의 1989년도 법조인력은 68,797명으로 나타났으며 동독은 3,775명으로 나타나 독일 전체로서는 72,572명을 기록하였다.
- 통독후 1993년도 법조인력은 85,658명으로 1989년 대비 18% 증가하였고 직업별로는 판사는 8.1%, 변호사는 24.5% 각각 증가하였으나 검사는 1.5% 감소하였다.

〈표〉 법조인력 현황

(단위 명)

	계	판사	검사	변호사	공증인
〈서독〉 1989	68 797	17 627	3 759	46 397	1 014
〈동독〉 1989 ¹⁾	3 775	1 493	1 237	592	453
〈독일전체〉 1989	72 572	19 120	4 996	46 989	1 467
1993	85 658	20 672	4 920	58 504	1 562

주 1) 동독 통계연감(1990) 자료임

통일후 범죄발생 연평균증가율은 통일전보다 10배가 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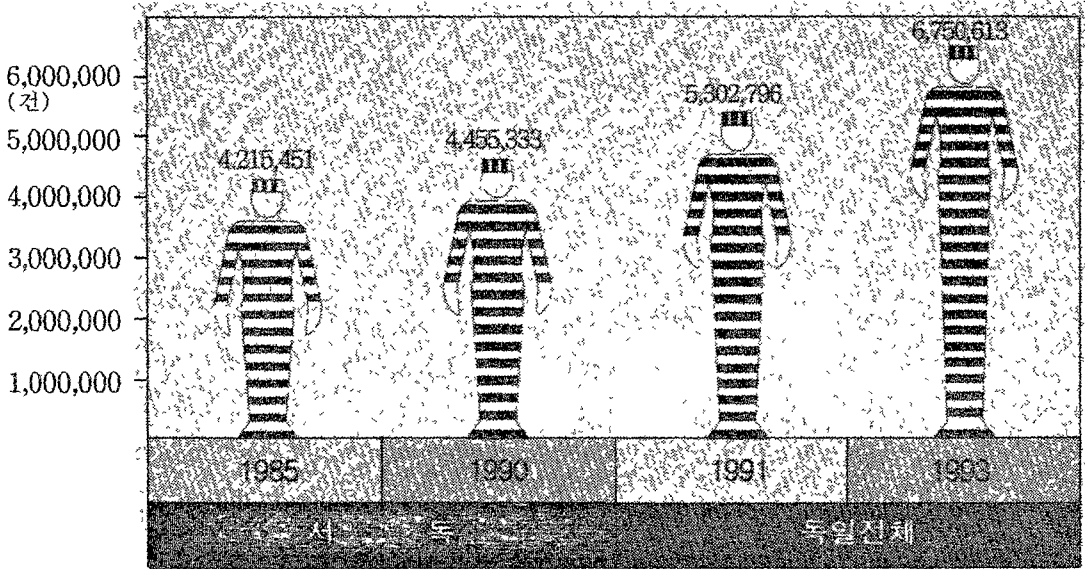
- 서독의 1990년 범죄발생건수는 4,455,333건으로써 1985년 4,215,451건보다 5.7% 증가하여 연평균 1.1%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 독일전체의 경우 1993년도에는 6,750,613건으로써 1991년의 5,302,796건보다 27.3% 증가하여 연평균 12.8%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 서독의 형사범죄자수는 1990년 1,375,423명으로 1985년의 1,232,188명보다 11.6% 증가하여 연평균 2.2%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 독일전체로서는 1993년 1,963,499명으로써 1991년 1,531,205명보다 28.2% 증가하여 연평균 13.2%의 증가율을 보였다.

〈표〉 범죄 현황¹⁾

	발생건수 (건)	범죄건수 (건)	형사 범죄자 수(명)		
			계	남	여
〈서독〉					
1985	4 215 451	1 988 478	1 232 188	939 117	293 071
1990	4 455 333	2 093 130	1 375 423	1 052 521	322 902
연평균증가율(%)					
1986~90	1.1	10	2.2	2.3	2.0
〈독일전체〉					
1991	5 302 796	2 339 519	1 531 205	1 192 256	338 949
1993	6 750 613	2 957 135	1 963 499	1 544 990	418 509
연평균증가율(%)					
1992~93	12.8	124	13.2	13.8	11.1

주 1) 살인, 상해, 강간, 절도, 강도 및 환경범 등을 포함하는 수치임

〈도〉 범죄 발생건수



1993년 통독의 인구십만명당 범죄발생건수는 8,337건으로 높아져

- 서독의 인구십만명당 범죄발생건수는 1985년 6,909건에서 1990년 7,046건으로 2%늘었고 독일전체는 1991년 6,649건에서 1993년 8,337건으로 25.4%크게 증가하였다.
- 14세이상 십만명당 형사범죄자수를 분석해보면 서독은 1985년 2,346명에서 1990년 2,555명으로 8.9%증가하였고 독일전체의 경우에는 1991년 2,264명에서 1993년 2,863명으로 26.5%크게 증가하였다.

〈표〉 범죄 주요지표¹⁾

	인구십만명당 발생건수 (건)	발생건수대비 범죄건수비율 (%)	14세이상인구십만명당 형사범죄자수(명)		
			계	남	여
〈서독〉					
1985	6 909	47.2	2 346	3 784	1 058
1990	7 046	47.0	2 555	4 095	1 148
〈동독〉					
1991	6 649	44.1	2 264	3 694	959
1993	8 337	43.8	2 863	4 691	1 174

주 1) 살인, 상해, 강간, 절도, 강도 및 환경범 등을 포함한 수치임

통독후 절도, 강도 등 재산범죄 건수가 크게 늘어

- 5대 형법범죄의 인구십만명당 발생건수를 분석해 보면 살인은 1990년 서독의 4건에서 1993년 독일전체의 5건으로 25% 증가하였다.
- 상해는 1990년 서독의 106건에서 1993년 독일전체의 108건으로 1.9% 증가하였고 강간은 1990년 서독의 59건에서 1993년 독일전체의 55건으로 6.8% 감소하였다.
- 절도는 1990년 서독의 4,258건에서 1993년 독일전체의 5,126건으로 20.4% 증가하였으며 강도는 1990년 서독의 56건에서 1993년 독일전체의 76건으로 35.7% 증가하였다.

〈표〉 5대 형법범죄 인구십만명당 발생건수

(단위 건)

	살인	상해	강간	절도	강도
〈서독〉					
1990	4	106	59	4 258	56
〈독일전체〉					
1991	3	96	53	4 072	61
1993	5	108	55	5 126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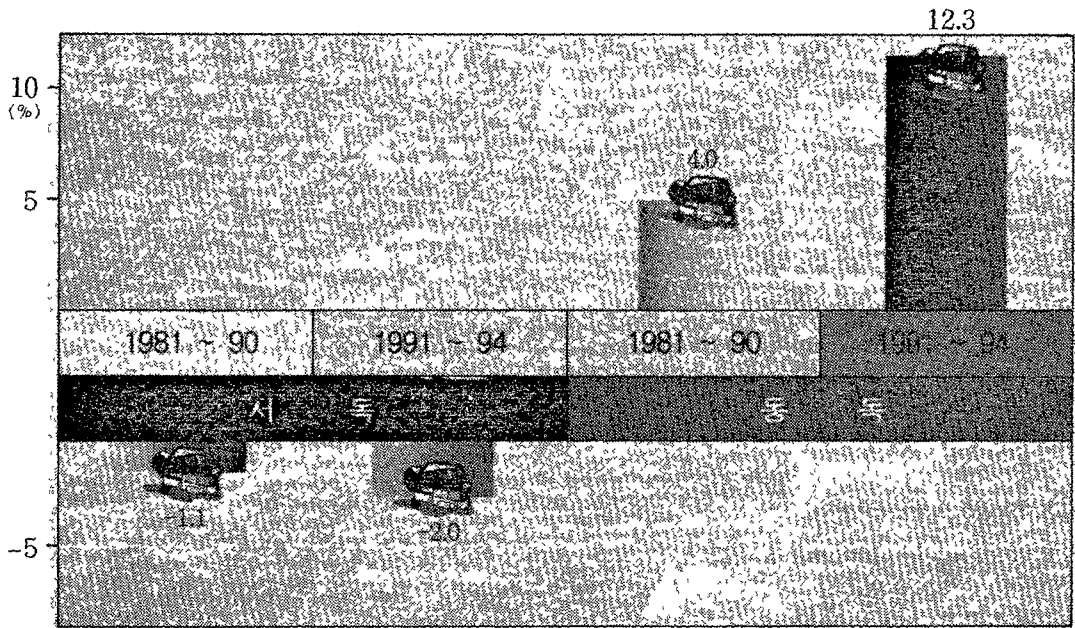
동독지역 통일후 교통사고건수가 격증

- 서독의 도로상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해 보면 대인사고건수는 1980년 379,235건, 1990년 340,043건, 1994년도에는 314,059건을 나타내어 통일전 10년간(1981~90)은 연평균 -1.1%, 통일후 4년간(1991~94)은 연평균 -2%를 기록하여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있다.
- 동독은 1980년 33,437건, 1990년 49,307건, 1994년 78,373건으로 나타나 통일전 10년간(1981~90)은 연평균 4%, 통일후 4년간(1991~94)은 연평균 12.3%를 기록하고 있다.

〈표〉 교통사고 현황

	도 로		
	대인사고건수 (건)	사망자수 (명)	부상자수 (명)
〈 서 독 〉			
1980	379 235	13 041	500 463
1990	340 043	7 906	448 158
1994	314 059	6 791	414 873
연평균증가율(%)			
1981~90	-1.1	-4.9	-1.1
1991~94	-2.0	-3.7	-1.9
〈 동 독 〉			
1980	33 437	2 009	40 453
1990	49 307	3 140	62 773
1994	78 373	3 014	101 146
연평균증가율(%)			
1981~90	4.0	4.6	4.5
1991~94	12.3	-1.0	12.7
〈 독 일 전 체 〉			
1980	412 672	15 050	540 916
1990	389 350	11 046	510 931
1994	392 432	9 805	516 019
연평균증가율(%)			
1981~90	-0.6	-3.0	-0.6
1991~94	0.2	-2.9	0.2

〈도〉 도로교통사고 연평균 증가율



통일전 동독의 인구십만명당 성병감염자수는 서독의 약 10배

- 서독의 인구십만명당 성병감염자수는 1988년 18.3명이었고 동독은 176.7명으로써 서독보다 9.7배나 높다. 독일전체로서는 1988년 52.1명에서 1993년 9.8명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 서독의 인구십만명당 결핵감염자수는 1988년 21.9명으로 나타났으며 동독은 17.4명으로 나타났다. 독일전체로서는 1988년 20.8명에서 1993년 17.4명으로 낮아졌다.
- 서독의 인공유산건수는 1988년 83,784건이었고 1993년도 독일전체는 111,236건으로 나타났다. 서독지역의 감소추세를 감안하면 동독지역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주요 전염성 질병환자수 및 인공유산 건수

	성 병		결 핵		인 공 유 산 건 수 (건)
	감 염 자 수 (명)	인구십만명당 감 염 자 수 (명)	감 염 자 수 (명)	인구십만명당 감 염 자 수 (명)	
〈서 독〉 1988	11 265	183	13 379	21.9	83 784
〈동 독〉 1988	29 472	176.7	2 903	17.4	-
〈독 일 전 체〉 1988	40 737	52.1	16 282	20.8	-
1990	20 778	26.1	14 653	18.5	-
1993	7 933	9.8	14 161	17.4	111 236

통일후 동독지역 사회보장급부액은 연평균 27.4%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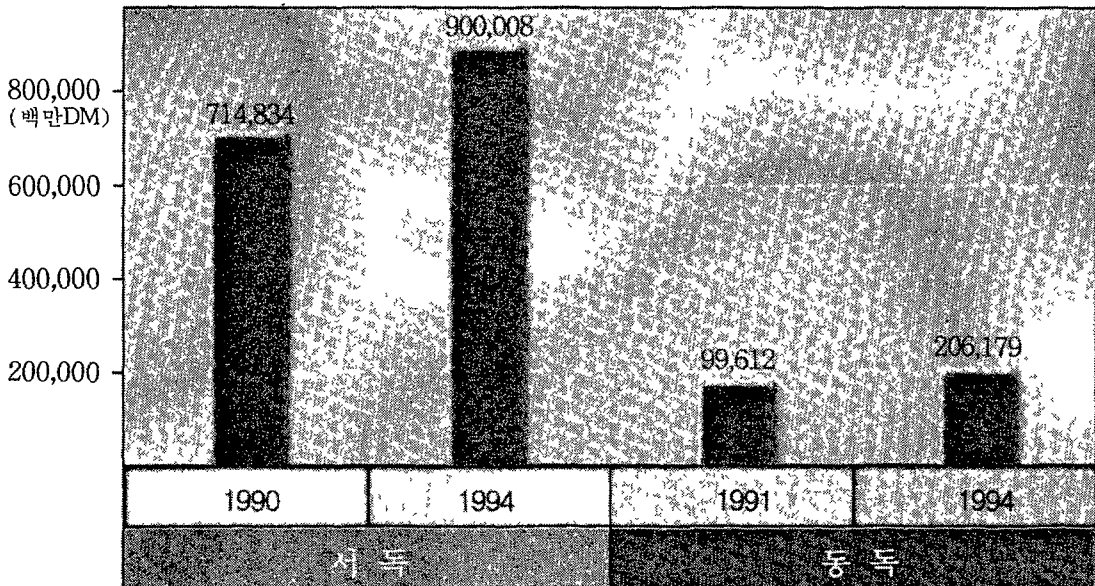
- 서독의 사회보장급부총액은 1988년 662,071백만DM, 1990년 714,834백만DM, 1994년 900,008백만DM으로써 연평균증가율은 통일전 2년간(1989~90)은 3.9%, 통일후 4년간(1991~94)은 5.9%로 나타나 통일후가 통일전보다 2% 「포인트」 높아졌다.
- 동독은 1991년 99,612백만DM, 1994년 206,179백만DM으로 나타나 연평균 27.4%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 서독의 사용자 및 노동자의 사회보장 부담금은 1988년 438,948백만DM, 1990년 491,253백만DM, 1994년 638,796백만DM으로 나타나 통일전 2년간은 연평균 5.8%, 통일후 4년간은 연평균 6.8%로 통일전보다 1% 「포인트」 높아졌다.
- 동독은 1991년 62,809백만 DM에서 1994년 105,278백만DM으로 나타나 연평균 18.8%의 증가율을 보였다.

〈표〉 사회보장예산

(단위 백만DM)

	급부총액		조달총액	
		이전소득		사용자·노동자분담금
〈서독〉				
1988	662 071	441 130	680 313	438 948
1990	714 834	480 182	750 743	491 253
1994	900 008	589 198	972 629	638 796
연평균증가율(%)				
1989~90	3.9	4.3	5.0	5.8
1991~94	5.9	5.2	6.7	6.8
〈동독〉				
1991	99 612	72 855	103 260	62 809
1994	206 179	121 155	169 254	105 278
연평균증가율(%)				
1992~94	27.4	18.5	17.9	18.8
〈독일전체〉				
1991	893 266	584 137	926 676	606 591
1994	1 106 185	710 352	1 141 883	744 075
연평균증가율(%)				
1992~94	7.4	6.7	7.2	7.0

〈도〉 사회보장예산



통일후 각종 보험가입자수는 통일전보다 약 1/3정도 증가

- 각종 사회보장성 보험가입자수를 분석해 보면 1989년 서독은 질병보험이 37,230천명으로 나타났고 통일후 1993년도 독일전체는 50,759천명으로 나타나 1989년 서독대비 36.3% 증가하였다.
- 서독의 상해보험 가입자수는 1989년 40,302천명, 1993년도 독일전체의 경우는 51,844천명으로 나타나 28.6% 증가하였다.
- 서독의 연금보험 가입자수는 1989년 32,793천명으로 나타났고 독일전체의 1993년도는 44,554천명으로 나타나 35.9% 증가하였다.

〈표〉 각종 보험가입자 수

	질 병 보 험 (천 명)	상 해 보 험 (천 명)	연 금 보 험 (천 명)
〈서 독〉 1989	37 230	40 302	32 793
〈독 일 전 체〉 1993	50 759	51 844	44 554

통일후 1993년도 실업수당대상자수는 1990년 서독대비 2.6배 규모

- 서독의 실업수당 대상자수는 1990년 1,598천명으로 나타났으며 통일후 1993년도 독일전체는 4,184천명으로 2.6배 증가하였다.
- 서독의 유아수당대상자수는 1990년 6,206천명이며 독일전체의 1993년도는 7,849천명으로 26.5% 증가하였다.
- 서독의 유아부양수당 대상자수는 1990년 680,897명이며 독일전체의 1993년도는 703,386명으로 3.3% 증가하였다.

〈표〉 각종 사회보장 수당 대상자 수

	실업수당 (천명)	유아수당 (천명)	유아부양수당 (명)
〈서독〉			
1990	1 598	6 206	680 897
〈독일전체〉			
1993	4 184	7 849	703 386

1992년도 동독지역의 생산산업 환경보호투자액 구성비는 서독지역의 2배수준

- 서독의 생산산업의 환경보호투자액은 1980년 2,673,924천DM, 1990년도에는 7,252,576천DM, 1992년도에는 6,319,225천DM으로 나타나 1990년대비 12.9% 감소하였다.
 - 생산산업의 총투자액에 대한 구성비는 1980년 3.5%에서 1990년 5.9%로 2.4% 「포인트」 증가하였다가 1992년도에는 4.8%로 1990년대비 1.1% 「포인트」 감소하였다.
- 동독의 생산산업 환경보호투자액은 1992년 2,488,404천DM으로 총투자액의 9.6%를 차지하여 서독의 1992년 구성비의 2배규모나 된다.

〈표〉 생산산업¹⁾의 환경보호 투자액

	환경보호투자액					
	계 (천DM)	총투자액대비 (%)	쓰레기제거 (천DM)	수질보호 (천DM)	소음방지 (천DM)	대기정화 (천DM)
〈서독〉						
1980	2 673 924	3.5	220 231	914 657	247 254	1 291 781
1990	7 252 576	5.9	824 239	2 016 850	295 596	4 115 891
1992	6 319 225	4.8	813 503	2 064 175	325 388	3 116 159
〈동독〉						
1992	2 488 404	9.6	123 417	1 083 144	37 490	1 244 353
〈독일전체〉						
1992	8 807 629	5.6	936 920	3 147 319	362 878	4 360 512

주 1) 생산산업은 전기 가스 난방 수도업, 광업, 제조업 및 건설업을 의미함

동독지역은 갈탄으로 인한 아황산가스가 특히 많아

- 서독의 CO₂배출량은 1990년 720백만톤에서 1992년 740백만톤으로 2.8% 증가하였고 NO₂는 1990년 2,460천톤에서 1992년 2,426천톤으로 1.4% 감소하였다. 그밖의 SO₂, CO, NH₃, 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1990년에 비하여 1992년도 방출량이 감소하였다.
- 동독의 CO₂배출량은 1990년 303백만에서 1992년 195백만톤으로 35.6% 감소하였고 NO₂는 1990년 573천톤에서 1992년의 478천톤으로 16.6% 감소하였다. 그밖의 SO₂, CO, NH₃, 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메탄가스도 1992년 방출량이 1990년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 특히 동독지역의 SO₂방출량이 서독지역보다 1992년도에 3.5배정도 높은 이유는 갈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표〉 대기오염물질 방출량

	CO ₂ (백만톤)	NO ₂ (천톤)	SO ₂ (천톤)	CO (천톤)	NH ₃ (천톤)	먼 지 (천톤)	휘 발 성 유기화합물 (천톤)	메탄가스 (천톤)
〈서 독〉								
1990	720	2 460	878	7 276	554	436	2 271	5 013
1992	740	2 426	875	6 577	531	430	2 092	5 045
〈동 독〉								
1990	303	573	4 755	3 633	205	1 960	737	1 201
1992	195	478	3 021	2 558	117	906	699	1 119

주민 1인당 쓰레기량은 동독이 서독보다 약 17%정도 많아

- 서독의 수거쓰레기량은 1990년 22,759천톤이며 동독은 1990년 7,702천톤으로 서독대비 33.8% 수준이다.
- 서독의 산업쓰레기량은 1990년 2,208천톤이며 동독은 1,733천톤으로 서독대비 78.5% 수준에 달하고 있다.
- 주민1인당 쓰레기량은 1990년도에 서독은 322.5kg, 동독은 376.2kg으로 동독이 서독보다 16.7% 정도 많은 편이다.

〈표〉 쓰레기 처리량

	수거 쓰레기량		산업 쓰레기량		주민 1인당 쓰레기량 ¹⁾	
	천 톤	천m ³	천 톤	천m ³	kg	ℓ
〈서 독〉						
1990	22 759	143 475	2 208	11 077	322.5	2 077.6
〈동 독〉						
1990	7 702	40 086	1 733	6 388	376.2	2 123.8
〈독 일 전 체〉						
1990	30 461	183 561	3 941	17 466	333.2	2 086.8

주 1) 산업쓰레기량을 제외한 주민 1인당 쓰레기량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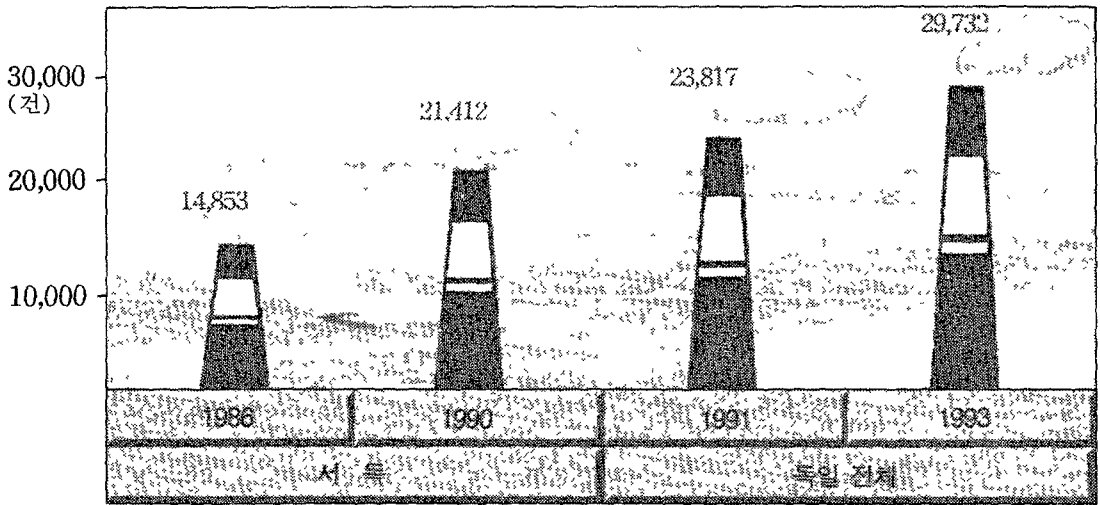
통독후 환경범죄중 환경손상쓰레기 처리건수가 크게 늘어

- 서독의 환경범죄는 1986년 14,853건에서 1990년 21,412건으로 1986년대비 44.2% 증가하였다.
- 독일전체의 환경범죄는 1993년 29,732건으로 1990년 서독대비 38.9% 증가하였다. 특히 환경손상 쓰레기처리는 1993년 18,575건으로 나타나 1990년 서독의 9,009건에 비하여 2.1배정도 규모가 크다.

〈표〉 환경 범죄

	계	수 질 오염	대 기 오염	소 음	환 경 손 상 쓰 레 기 처 리
	(건)	(건)	(건)	(건)	(건)
〈서 독〉					
1986	14 853	9 294	338	35	3 682
1990	21 412	10 073	457	66	9 009
〈독 일 전 체〉					
1993	29 732	8 701	349	53	18 5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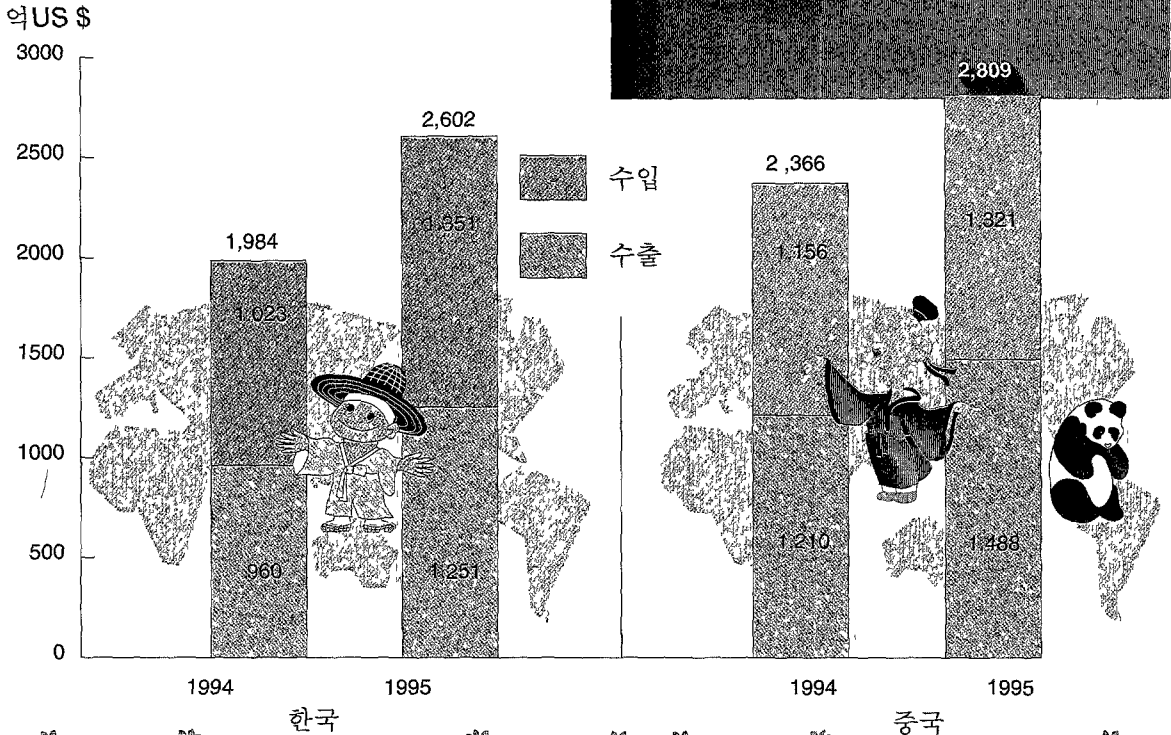
〈도〉 환경 범죄



여 백

통계로 본 중국의 경제사회의상 및 한·중 교류 현황

한국·중국의 무역규모 비교



'95년 중국과 한국의 무역액 규모를 비교해보면
 중국이 2,809억달러,
 한국이 2,602억달러로
 중국이 한국보다 207억달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로 본

중국의 경제사회상 및
한·중교류 현황

1996. 8

자료관리국 국제통계과

1. 인 구

세계인구의 21.2%로 1위, 한국의 27배

- 인구는 '95년 기준으로 12억 1,121만명으로 세계 1위이며, 미국의 4.6배, 일본의 9.7배, 한국의 27배에 달하고 있으며, 세계인구의 21.2%를 차지하고 있다.
- 성별로 보면 남자가 6억 1,808만명(51%), 여자가 5억 9,313만명(49%)로 나타나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 여자 100명당 남자수를 나타내는 성비는 104.2명으로 세계평균인 101.5명, 한국의 101.4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인구밀도는 '95년 기준으로 1km²당 126명으로 세계평균 인구밀도인 42명보다 높으나
 - 한국(451명), 일본(331명), 영국(239명), 독일(229명)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인구규모 및 인구밀도

국 가	추 계 인 구 ('95년, 만명)	인구밀도('95년, 명/1km ² 당)	
		성 비	
세 계	571,643	101.5	42
중 국	121,121	104.2	126
한 국	4,485	101.4	451
일 본	12,510	96.4	331
미 국	26,325	95.4	28
영 국	5,826	95.7	239
독 일	8,159	95.3	229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감 1995」, 「중국인구통계연감 1995」,
 「중국통계적요 1996」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0~2021」, 「국제통계연감 1996」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1994」

인구증가율은 65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 추세

-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52년 2.0%, '62년 2.7%, '65년 2.8%로 점점 높아졌으나 그 이후 감소세로 반전하여 '95년에는 1.1%로 낮아졌다.
- 출생률(천명당 출생아수)은 '65년 37.9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91년에 20명미만인 19.7명을 기록한 이후 계속 줄어들어 '95년에는 17.1명으로 나타났다.
- 사망률(천명당 사망자수)은 '52년 17.0명으로 최고치를 나타낸 이후 '62년 10.0명, '65년 9.5명, '75년 7.3명, '85년 6.8명, '95년 6.6명으로 나타나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표> 인구증가율 추이

(단위 : ‰)

연 도	출 생 률	사 망 률	자연증가율
1952	37.0	17.0	20.0
1962	37.0	10.0	27.0
1965	37.9	9.5	28.4
1970	33.4	7.6	25.8
1975	23.0	7.3	15.7
1978	18.3	6.3	12.0
1980	18.2	6.3	11.9
1985	21.0	6.8	14.3
1990	21.0	6.7	14.4
1991	19.7	6.7	13.0
1992	18.2	6.6	11.6
1993	18.1	6.6	11.5
1994	17.7	6.5	11.2
1995	17.1	6.6	10.6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감 1995」, 「중국인구통계연감 1995」, 「중국통계적요 1996」

- '91~'95년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1.16%로 나타나 세계평균인 1.57% 보다는 낮으나 0.3~0.6%대의 유럽선진국보다는 높은 편이며, 멕시코(2.06%), 베트남(2.23%) 등 개발도상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표> 인구증가율 국제비교('91~'95년 평균)

(단위 : %)

국 가	인구증가율	국 가	인구증가율
세 계	1.57	한 국	0.91
일 본	0.25	태 국	1.12
영 국	0.29	중 국	1.16
독 일	0.55	멕 시 코	2.06
미 국	1.04	베 트 남	2.23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감 1995」, 「중국통계적요 1996」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0~2021」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1994」

민족구성 — 한족이 91.9%, 조선족은 0.2%에 불과

- '90년 인구센서스(人口普查) 결과에 의하면 중국은 한족 등 57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족이 10억 3,919만명으로 91.9%를 차지해 절대 다수이며, 기타 56개 소수민족은 9,132만명으로 8.1%에 불과하다.
- 조선족은 192만명으로 0.2% 정도를 차지하며, 주로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등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수민족중 인구 500만명을 넘는 민족은 장족(1.4%), 만주족(0.9%), 회족(0.8%), 묘족(0.7%), 위구르족(0.6%), 이족(0.6%), 토가족(0.5%) 등 7개 민족이다

<표> 민족구성(1990)

(단위 : 만명, %)

	한족	소수 민족									
		장족	만주족	회족	묘족	위구르족	이족	토가족	조선족	기타	
인구수	103,919	9,132	1,556	985	861	738	721	658	573	192	2,848
구성비	91.9	8.1	1.4	0.9	0.8	0.7	0.6	0.6	0.5	0.2	2.5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1990년 중국인구센서스자료」

10세미만 아동 성비불균형 심각

- 연령별 성비(여자 100명당 남자수)를 보면 '94년 기준으로 0~4세는 116.3명, 5~9세는 110.1명으로 10세미만 아동에서는 심각한 수준의 성비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그 이유는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과 특히 '82년 3월 시행된 한자녀갓기 정책으로 '84년부터 출생아 성비가 갑자기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표> 연령별 성비구조(1994)

(단위 : 세, 명)

연령	성비	연령	성비
전체	104.0	45 ~ 49	104.3
4세이하	116.3	50 ~ 54	101.4
5 ~ 9	110.1	55 ~ 59	106.4
10 ~ 14	107.1	60 ~ 64	104.6
15 ~ 19	105.7	65 ~ 69	97.0
20 ~ 24	101.0	70 ~ 74	90.1
25 ~ 29	101.0	75 ~ 79	77.5
30 ~ 34	102.1	80 ~ 84	62.6
35 ~ 39	105.0	85 ~ 89	48.0
40 ~ 44	104.5	90세이상	29.1

주 : '94년 10월 1일 기준 인구변동표본조사로써 추출률은 0.63%임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감 1995」

중국의 평균수명 68.5세로 한국보다 약 4세 낮아

- 중국의 평균수명은 '91~'95년 남자 66.7세, 여자 70.4세로 평균 68.5세로 선진국보다 8세정도 낮고, 한국보다 약 4세 낮으나, 레바논, 이란 등 중동국가들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평균수명(1991~1995)

(단위 : 세)

국	가	계	남자	여자
세	계	64.4	62.4	66.5
일	본	79.5	76.4	82.5
미	국	76.0	72.5	79.3
한	국 ¹	72.8	68.9	76.8
중	국	68.5	66.7	70.4
레	바논	68.5	66.6	70.5
이	란	67.5	67.0	68.0

주 : 1) 93년 잠정자료
 자료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1994」

노령인구는 6.2%로 싱가포르, 한국과 비슷

- 65세이상 인구비율은 '94년 기준으로 6.2%로 나타나 '95년 세계 평균인 6.5%와 비슷하며, 싱가포르(6.7%), 한국(5.7%)과도 거의 대등한 수준이다.
- 영국(15.5%), 독일(15.2%), 일본(14.1%), 미국(12.6%) 등 이미 고령화된 선진국들보다는 훨씬 낮으나, 태국(5.0%), 베트남(4.9%), 인도(4.6%), 인도네시아(4.3%) 등 개발도상국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표> 65세이상 인구비율 비교(1995)

(단위 : %)

국	가	65세이상인구	국	가	65세이상인구
세	계	6.5	중	국	6.2 ¹
영	국	15.5	한	국	5.7
독	일	15.2	태	국	5.0
일	본	14.1	베	트 남	4.9
미	국	12.6	인	도	4.6
싱	가	6.7	인	도	4.3

주 : 1) '94년 인구변동표본조사로써 추출률은 1.08%임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감 1995」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0~2021」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1994」

도시화율 46년동안 18.1% 증가

- 도시거주 인구비율은 '49년에 10.6%였으나, '81년에 처음으로 20%를 넘어선 20.2%를 기록한 이후 도시화가 계속 진행되어 '95년 28.7%로 나타나 46년동안 18.1%가 증가하였다.
- 선진국의 도시화율을 '95년 기준으로 보면 영국 89.5%, 독일 86.5%, 일본 77.6, 미국 76.2%, 프랑스 72.8%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도 77.6%로 상당히 도시화가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 아시아에서 중국과 도시화율이 비슷한 나라는 인도네시아 35.4%, 파키스탄 34.7%, 예멘 33.6%, 인도 26.8%, 미얀마 26.2%이다.

2. 노동 및 임금

3차산업으로 노동력이동 급증

- 중국은 1978년 이후 경제체제에 대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여 과거 노동력의 획일적인 계획관리(국가에 의한 노동력 배치와 직업할당)에서 기업과 노동자간의 계약고용방식을 허용함에 따라 특정범위 내에서 부분적인 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
- 경제개혁 첫해인 '78년 전체취업자중 1차산업 70.5%, 2차산업 17.4%, 3차산업 12.1%의 비율이 '95년에는 각각 52.2%, 23.0%, 24.8%로 변하여 경제개혁 및 개방정책의 실시이후 농업부문에서 광공업 및 서비스산업부문으로 노동력이동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3차산업 취업자의 경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모두 70%이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중국은 아직 25%대에 머물고 있어 중국경제가 선진화됨에 따라 3차산업으로 노동력이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단위 : %)

	1차	2차	3차
중 국 1978	70.5	17.4	12.1
1980	68.7	18.3	13.0
1985	62.4	20.9	16.7
1990	60.0	21.4	18.6
1991	59.8	21.4	18.9
1992	58.5	21.7	19.8
1993	56.4	22.4	21.2
1994	54.3	22.7	23.0
1995	52.2	23.0	24.8
한 국 1995	12.5	23.5	64.0
미 국 1994	2.9	16.9	80.2
일 본 1993	5.9	23.8	70.2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감 1995」, 「중국통계적요 1996」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5」

ILO 「Yearbook of Labor Statistics 1995」

도시지역 취업자의 66.7%가 국영기업에서 근무

- '94년 도시와 농촌취업자의 비율은 27.4%대 72.6%으로 농촌노동력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취업자의 비율은 '78년 23.7%에서 '94년 27.4%로 16년간 3.7% 「포인트」가 증가하여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 도시지역 취업자는 '94년에 국영기업에 66.7%, 집단·공동운영기업에 19.8%가 근무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외국인투자기업 등 사영업체 성격의 기업에 근무하는 취업자는 13.5%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국영기업의 취업자 비중은 경제개혁의 첫해인 '78년에는 78.3%로 상당히 높았으나 '94년에는 66.7%로 낮아진 반면
 - 사영업체 성격의 취업자 비율은 주식회사 1.7%, 외국인투자기업 1.2%, 기타 10.6%로 나타나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도시·농촌간 기업체 취업자 분포

(단위 : %)

	도시						농촌
	국영기업	집단·공동 운영 기업	주식회사	외국인 투자 기업	기타		
1978	23.7	78.3	21.5			0.2	76.3
1980	24.8	76.2	23.0			0.8	75.2
1985	25.7	70.2	26.2			3.5	74.3
1990	26.0	70.2	24.7		0.4	4.6	74.0
1991	26.2	69.8	24.1		0.6	5.4	73.8
1992	26.3	69.7	23.5		0.9	5.9	73.7
1993	26.5	68.8	21.7	1.0	0.8	8.1	73.5
1994	27.4	66.7	19.8	1.7	1.2	10.6	72.6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감 1995」

도시지역 실업률 '85년이후 증가세

- 도시지역 등록실업자수는 '95년말 현재 520만명이었으며, 그중 약 59.0%가 청년실업자로 나타났다.
- 실업률은 2.9%로 '78년의 5.3%보다 2.4% 「포인트」 하락하였으나, '85년 1.8%로 최저를 기록한 이후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이는 '78년이후 경제개혁정책의 추진과 함께 기업설립을 완화하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고용기회가 대폭 확대되어 실업률이 줄어들었으나, '85년 이후 농촌지역 주민의 소도시 이주허용, 국영기업의 고용제도 개혁 등에 따른 잉여노동력이 발생하여 점점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 도시 등록실업자수 및 실업률

(단위 : 만명, %)

연도	등록실업자수 ¹		구성비	실업률
	청년실업자	구성비		
1978	530.0	249.1	47.0	5.3
1980	541.5	382.5	70.6	4.9
1985	238.5	196.9	82.6	1.8
1990	383.2	312.2	81.6	2.5
1991	352.2	288.4	81.9	2.3
1992	363.9	299.8	82.9	2.3
1993	420.1	331.9	79.0	2.6
1994	476.4	301.0	63.2	2.8
1995	520.0	306.8	59.0	2.9

주 : 1) 도시지역 비농업인구중 일정한 연령내(16~50세 남자와 16~45세 여자)에서 노동력이 있는 무직자가 취업을 위하여 해당지역의 취업서비스 센터에 취업대기를 등록한 자를 말함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감 1995」, 「중국통계적요 1996」

- '94년 도시지역 실업률을 지역별로 보면 전국의 2.8%에 비해 북경(0.4%), 천진(1.2%), 산서(1.2%), 길림(1.8%), 강서(2.0%) 등은 낮은 편이며, 청해(6.0%), 귀주(5.5%), 감숙(5.3%), 영하(5.3%) 등은 아주 높은 편이다.

1인당 연평균 임금

'78년 615元에서 '95년 5,500元으로 연평균 13.8% 증가

- 명목상 1인당 연평균임금은 '78년 615元, '85년 1,148元, '90년 2,140元, '95년 5,500元으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79-95년 연평균 임금성장율이 13.8%, '91-95년 연평균 임금성장율이 20.8%로 나타나 최근 5년간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인당 연평균임금

(단위 : 元)

연 도	1978	1980	1985	1989	1990
연평균임금	615	762	1,148	1,935	2,140
연 도	1991	1992	1993	1994	1995
연평균임금	2,340	2,711	3,371	4,538	5,500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감 1995」, 「중국통계적요 1996」

- 1인당 연평균임금을 산업별로 보면 '95년 기준으로 금융·보험업이 8,135元으로 1위, 부동산업이 7,623元으로 2위, 과학연구 및 기술서비스업 이 7,469元으로 3위, 전기·가스·수도업 7,458元으로 4위를 보였고, 도소매·음식업(4,400元)과 농림어업(3,416元)은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 1인당 연평균임금을 지역별로 보면 '94년 기준으로 전국의 4,538元에 비하여 상해(7,405元), 광둥(7,117元), 북경(6,523元), 절강(5,597元), 천진(5,364元), 강소(4,974元), 복건(4,889元) 등 대외개방이 활발한 연해지역의 평균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서장(7,115元), 청해(4,976元), 감숙(4,796元) 등 서부내륙지방의 평균임금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이들 지역에서 자원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1인당 연평균임금을 지역/산업별로 보면 '94년 기준으로 해남의 금융·보험업이 10,357元으로 1위, 상해의 부동산업이 10,400元으로 2위, 상해의 전기·가스·수도업이 10,365元으로 3위, 서장의 금융·보험업, 지질탐사·수리관리업, 과학연구 및 기술서비스업이 10,000元으로 공동 4위를 기록하였다.

3. 물가 및 가계

소매물가 '95년 다소 안정세, '96년 1/4분기 하락세

- '49년 정부수립 이후 70년대말까지 1~2%대의 안정적인 물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78년 대외개방, 경제개혁정책 실시의 영향으로 '80년에 6.0%의 소매물가상승률을 나타내자 물가조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81년 이후에는 1~2%대에서 다시 안정되었다.
- '84~88년간은 경제개혁이 가속화함에 따라 지속적인 물가상승이 일어나 '88년에는 18.5%를 나타내었으나, '89년 천안문사태를 계기로 계엄체제하의 강력한 인플레이 억제정책이 실시됨으로써 '90년 2.1%, '91년 2.9%수준으로 진정되었다.
- '91년 9월 긴축정책 종료 이후 고도성장에 따른 각종 원자재의 가격 상승이 다시 물가상승을 일으켜 '93년 13.2%, '94년 21.7%로 불안한 물가동향을 보였으나, '95년에 중국정부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최우선과제로 설정하여 금융긴축과 강력한 행정지도 및 물가 보조정책 등을 시행한 데 힘입어 14.8%로 낮아졌다.
- '96년 1/4분기의 물가상승률은 '95년 1/4분기의 18.7%에 비해 11.0% 「포인트」 낮은 7.7%로 나타나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표> 소매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전년=100, %)

연 도	소매물가상승률	연 도	소매물가상승률
1978	0.7	1989	17.8
1979	2.0	1990	2.1
1980	6.0	1991	2.9
1981	2.4	1992	5.4
1982	1.9	1993	13.2
1983	1.5	1994	21.7
1984	2.8	1995	14.8
1985	8.8	1/4분기	18.7
1986	6.0	1996	
1987	7.3	1/4분기	7.7
1988	18.5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감 1995」, 「중국통계적요 199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국통상정보」 '96. 5월호

도시주민 1인당 연평균 소비지출 — 식료품비 절반 차지

- 도시주민 1인당 연평균 소비지출을 비목별로 보면 '95년 현재 식량, 육류, 수산물, 과일, 외식 등에 지출되는 식료품비가 1,766.0元 (49.9%)으로 1위이며(우리나라의 '95년 식료품 비중은 28.8%임)
 - 의류, 신발 등의 구입에 지출되는 피복신발비가 479.2元(13.7%)으로 2위, 문화오락용품 구입 및 교육에 지출되는 교육문화오락비가 312.7元(8.8%)으로 3위, 내구용 소비재 및 일용잡품 구입에 지출되는 가정용품비가 296.9元(8.4%)으로 4위, 주택,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에 소모되는 주거비가 250.2元(7.1%)으로 5위를 차지했다.

- 전년대비 구성비를 살펴보면 외식비 및 주거비가 0.3%, 보건의료비 및 교육비가 0.2%, 교통통신비가 0.1% 「포인트」 씩 늘어났으며
 - 가정용품비가 0.4%, 피복신발비 및 기타 소비지출이 0.2%, 교통비가 0.1% 「포인트」 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전년대비 증가율은 외식비가 34.0%, 보건의료비가 32.8%, 주거비가 29.5%, 교육비가 29.0%씩 늘어났다.

<표> 도시주민 1인당 연평균 소비지출

(단위 : 元, 전년대비, %)

	1994			1995		
	금액	구성비	증감률	금액	구성비	증감률
소비지출	2,851.3	100.0		3,537.6	100.0	
식료품	1,422.5	49.9	34.4	1,766.0	49.9	24.1
(외식비)	119.9	4.2	30.6	160.7	4.5	34.0
피복신발	390.4	13.7	29.9	479.2	13.5	22.7
가정용품	251.4	8.8	35.9	296.9	8.4	18.1
보건의료	82.9	2.9	45.7	110.1	3.1	32.8
교통통신	132.7	4.7	64.6	171.0	4.8	28.9
(교통비)	69.8	2.4	33.2	83.0	2.3	18.9
교육문화오락	250.8	8.8	29.3	312.7	8.8	24.7
(교육비)	128.4	4.5	34.6	165.7	4.7	29.0
주거비	193.2	6.8	38.0	250.2	7.1	29.5
기타 소비지출	127.6	4.5	33.6	151.4	4.3	18.7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통계적요 1996」

4. 산 업

광공업 총생산액 최근 5년간 32.7% 증가 — 사기업체 비중 상승세

- 광공업 총생산액은 '78년에 4,237억 원, '90년에 23,924.4억 원, '95년에 98,520억 원으로 나타나 지난 17년간 연평균 20.3%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최근 5년간 32.7% 증가하여 중국의 경제발전 속도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광공업 총생산액을 소유주체별로 살펴보면 국영기업의 경우 '78년 77.6%를 차지했으나 '92년 처음으로 50%이하인 '48.1%로 떨어진 후 계속 그 비중이 줄어 '95년에는 30.9%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 '78년 경제개혁정책이후 '80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일종의 사기업 형태인 개인기업, 주식회사, 합영기업, 외국인투자기업, 홍콩·마카오·대만투자기업, 기타 기업 등의 경우 '80년 0.5%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85년 3%, '90년 9.8%, '95년 26.3%로 그 비중이 크게 증가되었다. 앞으로도 비교적 생산규모가 적은 개인기업이나 합영기업의 비중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소유주체별 광공업 생산액

(단위 : 억 원, %)

연도	총생산액	소유주체별 비중 (%)		
		국영기업	집단운영기업	개인기업 및 기타
1978	4,237.0	77.6	22.4	
1980	5,154.3	76.0	23.5	0.5
1985	9,716.5	64.9	32.1	3.0
1990	23,924.4	54.6	35.6	9.8
1991	28,248.0	52.9	35.7	11.4
1992	37,065.7	48.1	38.0	13.9
1993	52,692.0	43.1	38.4	18.5
1994	76,909.5	34.1	40.9	25.0
1995	98,520.0	30.9	42.8	26.3

주 : 1) 개인기업, 주식회사, 합영기업, 외국인투자기업, 홍콩·마카오·대만투자기업, 기타 기업 등 포함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통계적요 1996」

산업구조 — 중공업 우위

- 광공업 총생산액중 경공업과 중공업 비중을 살펴보면 중공업이 '78년 56.9%, '85년 52.9%, '90년 50.6%, '95년 51.9%를 각각 차지하여 중공업이 경공업보다 광공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경공업의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광공업총생산액 중에서 중공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경공업보다 다소 높은 것은 중국이 여전히 중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 '79년부터 '95년까지 17년간 생산액 증가율을 보면 경공업이 연평균 21.1%, 중공업이 19.7%로 나타나 경공업 부문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은 각각 32.1%, 33.4% 증가하여 중공업 부문의 증가율이 약간 앞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경·중공업별 광공업 생산액

(단위 : 억원, %)

연 도	생 산 액		구 성 비	
	경 공 업	중 공 업	경 공 업	중 공 업
1978	1,826	2,411	43.1	56.9
1980	2,430	2,724	47.1	52.9
1985	4,575	5,141	47.1	52.9
1990	11,813	12,111	49.4	50.6
1991	13,801	14,447	48.9	51.1
1992	17,492	19,572	47.2	52.8
1993	23,184	29,508	44.0	56.0
1994	36,204	40,705	47.1	52.9
1995	47,430	51,090	48.1	51.9
연평균 증가율				
'79-'95	21.1	19.7		
'91-'95	32.1	33.4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통계적요 1996」

광공업 생산액 — 江蘇 13.4%로 1위

- 광공업 생산액을 '95년 기준으로 지역별로 보면 강소가 8,776억 원 (13.4%) 1위, 광둥이 6,734억 원(10.3%) 2위, 산둥이 6,221억 원(9.5%) 3위, 상해가 4,557억 원(7.0%) 4위, 요녕이 3,593억 원(5.5%)으로 5위로 나타나 대외무역이 활발한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용 내구소비재 생산량 급증

- '78년 경제개혁 및 대외개방정책 이후 중국의 공업생산량은 시멘트, 철강 등 주요 기초자재와 칼라TV, 냉장고, 세탁기 등 내구소비재, 자동차, 화학섬유 등의 생산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내구소비재가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 바 칼라TV의 경우 '81년부터 '95년까지 연평균 53.4%로 가장 높은 성장율을 보였으며

— 가정용 냉장고가 연평균 41.9%, 카메라가 31.8%, 가정용 세탁기가 27.6%의 높은 성장율을 나타내었다.

<표> 가정용 내구소비재 생산 추이

(단위 : 만대, %)

	TV		라디오	카메라	가정용 세탁기	가정용 냉장고	선풍기
		칼라TV					
1980	249.2	3.2	3,003.8	37.3	24.5	4.9	724
1985	1,667.7	435.3	1,600.3	179.0	887.2	144.8	3,175
1990	2,684.7	1,033.0	2,103.0	213.2	662.7	463.1	5,799
1991	2,691.4	1,205.1	1,969.1	478.2	687.2	469.9	6,219
1992	2,867.8	1,333.1	1,648.9	526.5	707.9	485.8	6,837
1993	3,033.0	1,435.8	1,754.2	1,930.5	895.9	596.7	7,387
1994	3,283.3	1,689.2	4,132.3	2,830.0	1,094.2	768.1	8,614
1995	3,469.9	1,958.3	5,637.8	2,357.1	944.8	929.6	8,908
연평균 성장율 '81-'95	19.2	53.4	4.3	31.8	27.6	41.9	18.2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통계적요 1996」

5. 무역 및 외환

무역규모 세계10위이며, 세계무역량의 2.7% 차지

- 중국의 무역총액은 '94년 현재 2,366억달러로 세계 10위이며, 세계 무역량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 '94년 세계의 무역량은 8조 6,533억달러이며, 미국이 1조 2,017억달러로 세계시장의 13.9%를 차지하여 1위, 독일이 8,091억달러(9.4%)로 2위, 일본이 6,722억달러(7.8%)로 3위를 차지하였으며, 한국은 1,984억달러(2.3%)로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 '94년 현재 수출액 1,210억달러, 수입액 1,156억 달러로 모두 세계 10위로 나타났다.
- '95년 중국과 한국의 무역액 규모를 비교해보면 중국이 2,809억달러, 한국이 2,602억달러로 중국이 한국보다 207억달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무역총액 비교(1994)

(단위 : US억달러)

국 가	무역총액		수출액		수입액	
		순위		순위		순위
세 계	86,533		43,675		42,859	
미 국	12,017	1	5,125	1	6,892	1
독 일	8,091	2	4,272	2	3,918	2
일 본	6,722	3	3,970	3	2,752	3
프 랑 스	4,661	4	2,359	4	2,302	4
영 국	4,319	5	2,049	5	2,270	5
이탈리아	3,575	6	1,898	6	1,677	6
카 나 다	3,204	7	1,654	7	1,551	8
중 국 ¹	2,366	10	1,210	10	1,156	10
한 국 ²	1,984	12	960	12	1,023	12

주 : 1) '95년 무역총액 2,809억달러, 수출액 1,488억달러, 수입액 1,321억달러

2) '95년 무역총액 2,602억달러, 수출액 1,251억달러, 수입액 1,351억달러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통계적요 1996」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96.4」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1996.3」

무역 — 일본, 홍콩 미국에 편중

- 중국은 '78년 대외개방정책 이후 대외무역관계의 지속적인 확대로 현재 180여개 국가와 무역관계를 맺고 있다.
- 중국의 수출입 비중을 국별로 보면 '94년 현재 일본(20.2%) 1위, 홍콩(17.7%) 2위, 미국(15.0%) 3위로 3개국의 비중이 50%를 넘어 이들 국가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만(6.9%), 독일(5.0%), 한국(5.0%)이 4, 5, 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제3세계국, 러시아 및 동구권국가들과의 무역량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이것을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주가 60.1%로 1위, 유럽주가 18.5%로 2위, 북미주가 16.3%로 3위를 차지하였다.

<표> 중국의 국별/대륙별 수출입 현황(1994)

(단위 : 억달러)

	수출입		수 출	수 입
		비중(%)		
무 역 총 액	2,367.3	100.0	1,210.4	1,156.9
일 본	478.9	20.2	215.7	263.2
홍 콩	418.2	17.7	323.6	94.6
미 국	354.3	15.0	214.6	139.7
대 만	163.3	6.9	22.4	140.8
독 일	119.0	5.0	47.6	71.4
한 국	117.2	5.0	44.0	73.2
아시아주	1,422.1	60.1	734.5	687.7
아프리카주	26.4	1.1	17.5	8.9
유럽주	438.4	18.5	188.0	250.4
남미주	47.2	2.0	24.5	22.5
북미주	386.6	16.3	228.6	158.0
오세아니아주	46.4	2.0	17.2	29.2
기 타	0.3	0.0	-	0.3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감 1995」

무역구조 — 공업제품이 80% 이상 차지

- '80~'95년 기간동안 중국무역구조의 최대변화는 1차상품의 비중이 감소된 반면 공업제품의 비중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 '80년 1차상품이 중국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수출 50.3%, 수입 34.8%였으나 '95년의 경우 각각 14.4%, 18.5%로 감소했다.
 - 반면에 공업제품의 무역 비중은 '80년 수출 49.7%, 수입 65.2%에서 '95년에는 각각 85.6%, 81.5%로 크게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 현재 중국은 공업제품이 1차상품을 거의 대체하여 대외무역의 주요상품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지난 15년간 수출에서는 광물성연료와 식품 및 주요식용동물이 각각 20.0%, 9.8%씩 감소하였고, 잡제품 및 기타와 기계 및 운수장비가 각각 19.9%, 16.4%씩 증가하였다. 수입면에서는 기계 및 운수장비가 15년동안 14.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수출입 상품구조

(단위 : %)

	수 출				수 입			
	1980	1985	1990	1995	1980	1985	1990	1995
1차상품(SITC 0~4)	50.3	50.6	25.6	14.4	34.8	12.6	18.5	18.5
0 식품 및 주요식용동물	16.5	13.9	10.6	6.7	14.6	3.7	6.3	4.6
1 음료 및 담배류	0.4	0.4	0.6	0.9	0.2	0.5	0.3	0.3
2 비식용원료	9.4	9.7	5.7	2.9	17.8	7.7	7.7	7.7
3 광물원료, 운할유와 관련원료	23.6	26.1	8.4	3.6	1.0	0.4	2.4	3.9
4 動植物油, 유지 및 왁스	0.3	0.5	0.3	0.3	1.2	0.3	1.8	2.0
공업상품(SITC 5~9)	49.7	49.4	74.4	85.6	65.2	87.4	81.5	81.5
5 화학품 및 관련제품	6.2	5.0	6.0	6.1	14.5	10.6	12.5	13.1
6 섬유, 고무, 철강제품	22.1	16.4	20.3	21.7	20.8	28.2	16.7	21.8
7 기계 및 운수장비	4.7	2.8	9.0	21.1	25.6	38.4	31.6	39.9
8 잡제품 및 미분류 제품	16.8	25.2	39.2	36.7	4.4	10.3	20.8	6.8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감 1995」, 「중국통계적요 1996」

외자도입 — 직접투자 급증추세

- '78년 개혁·개방 노선이 공식적으로 채택된 후 외자도입의 길이 열리고 난 후 중국의 외자도입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 차관과 직접투자의 비중을 보면 '82년까지는 차관이 직접투자보다 많았으며, '83~'85년에는 직접투자가 차관을 상회하였다.
- '86년부터 외채가 급격히 증가한 '88년까지는 차관이 직접투자보다 많았으나 외채위기의식이 팽배해지면서 '89년부터는 직접투자가 차관보다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 특히 최근 전면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추구하면서 외국기업들의 중국진출이 크게 늘어 특히 '93년에는 계약건수 83,595건, 계약금액 1,232.7억달러를 기록하여 최고의 외자도입을 기록하였다. 그 이후에는 '94년 937.6억달러, '95년 1,032억달러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외자 도입액 추이(계약기준)

(단위 : US억달러)

	총 계		차 관		직접투자 및 기타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79~'82	949	205.5	27	135.5	922	70.0
1983	522	34.3	52	15.1	470	19.2
1984	1,894	47.9	38	19.2	1,856	28.8
1985	3,145	98.7	72	35.3	3,073	63.3
1986	1,551	117.4	53	84.1	1,498	33.3
1987	2,289	121.4	56	78.2	2,233	43.2
1988	6,063	160.0	118	98.1	5,945	61.9
1989	5,909	114.8	130	51.9	5,779	62.9
1990	7,371	120.9	98	51.0	7,273	69.9
1991	13,086	195.8	108	71.6	12,978	124.2
1992	48,858	694.4	94	107.0	48,764	587.4
1993	83,595	1,232.7	158	113.1	83,437	1,119.7
1994	47,646	937.6	97	106.7	47,549	830.9
1995	37,184	1,032.1	173	112.9	37,011	919.2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통계적요 1996」

중국의 외자도입은 홍콩, 일본, 대만에 크게 의존

- 중국의 외자도입액 현황을 국별로 보면 '94년 현재 집행기준으로 홍콩(45.9%) 1위, 대만(7.8%) 2위, 일본(7.1%) 3위로 이들 3개국이 전체도입액의 60.8%정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93년의 69.2%에 비해서는 3개국에 대한 외자 의존도는 다소 완화된 것이다. 최근에는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일부 아시아 국가와 한국, 캐나다로부터의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차관의 경우 세계은행이 전체 차관액의 13.0%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은 일본(10.5%), 프랑스(5.8%), 미국(5.8%)의 순이었다.
 - 직접투자는 홍콩이 전체 직접투자액의 58.4%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은 대만(10.0%), 미국(7.3%), 일본(6.1%)의 순이었다.

- 우리나라는 '92년 수교후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94년 현재 집행기준으로 중국 외자도입액의 1.8%수준인 795백만달러에 불과하였다.

<표> 외자도입액 현황(집행기준, 1994)

(단위 : US백만달러, %)

	총 계		차 관		직접투자 및 기타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외 자 총 액	43,212.8	100.0	9,267.0	100.0	33,945.8	100.0
홍 콩	19,835.7	45.9	13.0	0.1	19,822.7	58.4
대 만	3,391.3	7.8	3,391.3	10.0
일 본	3,060.9	7.1	974.7	10.5	2,086.2	6.1
미 국	3,026.9	7.0	536.0	5.8	2,490.8	7.3
세계은행	1,200.4	2.8	1,200.4	13.0
싱가포르	1,179.6	2.7	1,179.6	3.5
영 국	1,085.8	2.5	397.0	4.3	688.8	2.0
한 국	794.9	1.8	68.7	0.7	726.1	2.1
프 랑 스	733.8	1.7	540.4	5.8	193.4	0.6
카 나 다	640.7	1.5	424.7	4.6	216.1	0.6
독 일	583.7	1.4	319.6	3.4	264.1	0.8
이탈리아	524.1	1.2	317.9	3.4	206.2	0.6
마 카 오	509.4	1.2	509.4	1.5

주 : 1) 통계작성기준 및 시점 등의 차이로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통계수치와는 차이가 있음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감 1995」

'94년 외채구조 — 장기외채가 88.8%로 안정적

- 중국은 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경제건설에 필요한 자금의 많은 부분을 외자에 의존하고 있다.
 - 그 결과 '88년에 외채규모가 400억달러를 넘어서자 외채위험에 대해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여, 그 이후 중국정부는 이자 및 원리금상환부담이 적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펼쳐 외자의 자금원이 차관에서 직접투자로 바뀌었다.
- 그러나 중국경제가 고도성장을 추진하면서 해외차입규모가 계속 확대되어 '94년에는 928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 외채구조를 상환기간으로 보면 '85년 단기 40.5%, 장기 59.5%에서 '94년 단기 11.2%, 장기 88.8%로 장기외채의 비율이 지난 9년간 30% 정도 늘어나 외채구조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기관유형으로 보면 '94년 현재 국제상업차관이 50.0%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정부차관 21.1%, 국제금융기관차관 14.0%, 기타 13.9%로나타났다.

<표> 외채현황

(단위 : US억달러, %)

	외채총액	기관유형별				상환기간별	
		외국정부 차관	국제금융 기관차관	국제상업 차관	기타	단기	장기
1985	158.3	23.0	7.5	40.7	28.8	40.5	59.5
1986	214.8	23.0	12.2	35.4	29.4	22.2	77.8
1987	302.1	16.6	12.4	40.3	30.7	18.9	81.1
1988	400.0	16.6	10.6	47.5	25.3	18.3	81.7
1989	413.0	16.8	12.9	52.5	17.8	10.3	89.7
1990	525.5	16.0	12.0	55.5	16.5	12.9	87.1
1991	605.6	15.7	11.7	52.1	20.5	17.0	83.0
1992	693.2	16.6	12.1	51.2	20.1	15.6	84.4
1993	835.7	17.1	12.5	49.2	21.2	16.2	83.8
1994	928.1	21.1	14.0	50.0	13.9	11.2	88.8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감 1993, 1995」

대미환율 14년간 약 5배 급등

- 중국정부는 '81년 1월 1일부터 무역거래에는 내부결제환율을, 무역 외거래에는 공정환율을 적용하는 이중환율제도를 실시하였으며, '85년 1월 1일부터 무역외환에 대해 적용된 내부결제환율은 폐지 하였으나 외환조절센타 설립으로 공정환율과 조절환율이 공존하는 이중환율제도가 재형성되었다.
- '91년 4월 19일 미국과의 통상마찰과 GATT 가입을 앞두고 정부가 단기적인 목표환율을 설정하고 시장균형환율이 이와 괴리될 때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의 점진적인 변동을 유도하는 관리 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하였으며
- '94년 1월 1일부터 통화당국이 결정하는 공식환율과 외환조절센타의 시장환율로 이원화된 제도를 시장수급에 기초한 단일변동 환율제도를 바꾸어 미국 1달러당 변동환율을 8.7元으로 하였다.
- 대미환율은 '81년에는 100달러당 170.5元이었으나 '95년에는 835.1元으로 14년간 4.9배의 환율인상을 기록하였으며, 동기간 대일환율은 11.5배, 대홍콩환율은 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환율 추이

(단위 : 元)

연 도	미 국 (100달러)	일 본 (10,000엔)	홍 콩 (100달러)
1981	170.5	77.4	30.4
1985	293.7	124.6	37.6
1986	345.3	206.9	44.2
1987	372.2	258.0	47.7
1988	372.2	290.8	47.7
1989	376.6	273.6	48.3
1990	478.4	332.3	61.4
1991	532.3	396.0	68.5
1992	551.5	436.1	71.2
1993	576.2	520.2	74.4
1994	861.9	843.7	111.5
1995	835.1	892.3	108.0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통계적요 1996」

외환보유액(금제외) 세계 5위

- '95년말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액(금제외)은 736억달러로 일본 1,833억달러(1위), 대만 903억달러(2위), 독일 850억달러(3위), 미국 748억달러(4위)에 이어 5위를 차지하고 있다. 6위는 싱가포르가 687억달러이며, 우리나라는 327억달러로 14위이며, 일본의 17.8%, 중국의 44.4%를 보유하고 있다..

<표> 외환보유액(금제외) 국제비교(1995)

(단위 : US억달러)

국 가	외환보유액 (금제외)		국 가	외환보유액 (금제외)	
		순 위			순 위
일 본	1,833	1	싱가포르	687	6
대 만	903	2	영 국	420	8
독 일	850	3	한 국	327	14
미 국	748	4	프 랑 스	269	15
중 국	736	5	멕 시 코	168	21

자료 : IMF 「IFS DATA」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통계적요 1996」

- 중국의 외환보유액(금제외)은 '78년에 1.7억달러였으나, '90년에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넘어선 110.9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계속 증가하여 '95년에는 '90년의 6.6배 수준인 736.0억달러로 나타났다.

— 금보유량은 '81년 이래 1,267만온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표> 외환 및 금보유액

(단위 : US억달러, 만온스)

연 도	외 환	금	연 도	외 환	금
1978	1.7	1,280	1991	217.1	1,267
1980	-13.0	1,280	1992	194.4	1,267
1985	26.4	1,267	1993	212.0	1,267
1989	55.5	1,267	1994	516.2	1,267
1990	110.9	1,267	1995	736.0	1,267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감 1995」, 「중국통계적요 1996」

6. 재 정

재정적자 '95년 621.4억원으로 '90년의 4.5배

○ 경제개혁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던 '79년부터 계속적인 재정적자현상을 보이고 있다. '85년 21.6억원의 흑자를 제외하면 '79년 이후 '95년까지 지속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90년 이후에 재정적자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 이는 개혁·개방 추진에 따른 투자지출의 증대와 각종 재정보조의 급증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재정수지의 28~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재정보조금 지출은 재정운용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중국의 재정적자 추이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재정수지
1978	1,121.1	1,111.0	10.1
1979	1,103.3	1,273.9	-170.6
1980	1,085.2	1,212.7	-127.5
1981	1,089.5	1,115.0	-25.5
1982	1,124.0	1,153.3	-29.3
1983	1,249.0	1,292.5	-43.5
1984	1,501.9	1,546.4	-44.5
1985	1,866.4	1,844.8	21.6
1986	2,260.3	2,330.8	-70.5
1987	2,368.9	2,448.5	-79.6
1988	2,628.0	2,706.6	-78.6
1989	2,947.9	3,040.2	-92.3
1990	3,312.6	3,452.2	-139.6
1991	3,610.9	3,813.6	-202.7
1992	4,153.1	4,389.7	-236.6
1993	5,088.2	5,287.4	-199.2
1994	5,218.1	5,792.6	-544.5
1995	6,187.7	6,809.2	-621.4

주 : 1994년 이후 재정수지에 채무수지는 포함되지 않음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통계적요 1996」

세입 비중 — 광공업 하향세,

도소매업 및 기타 서비스업 상승세

- '78년 이후 16년간 세입의 산업별 분류를 보면 광공업이 27.9%, 운수업이 3.6% 감소하였고
 - 광공업의 경우 '78년 845억 원으로 75.4%를 차지하여 세입의 3/4을 차지하였으나, 절대액('85년 1,195억 원, '90년 1,364억 원, '94년 2,478억 원)이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 비중은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
 - 운수업은 '78년 7%대에서 '92년 5%, '93년 이후 3%대로 줄었다. '79~'94년간 절대액은 82억 원에서 193억 원으로 16년간 2.4배 늘어났다.

- 지난 16년간 도소매업은 18.8%, 농업은 3.0%, 건설업은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도소매업이 '78년 경제개혁정책으로 계획가격 상품이 점점 축소되고, 계획외가격이 통용되는 상품수가 대폭 확대되는 한편, 일부 품목에 대한 가격인상이 단행되고, 최근에는 농산물가격을 자유화하는 등 시장경제로의 전환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다.

<표> 세입의 산업별 분류

(단위 : %)

	농업	광공업	도소매업	운수업	건설업	기 타
1978	2.8	75.4	12.2	7.3	0.2	2.1
1980	3.1	82.7	1.5	6.5	0.1	6.2
1985	4.7	64.0	7.7	7.0	0.4	16.2
1990	3.8	41.2	21.9	7.0	1.3	24.8
1991	3.7	41.2	23.5	4.4	1.4	25.8
1992	3.6	41.0	24.0	5.0	1.6	24.8
1993	4.6	38.3	26.3	3.1	1.6	26.1
1994	5.8	47.5	31.0	3.7	1.7	10.3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감 1995」

**세출구조 — 경제건설비 24.7%, 국방비 6.5% 감소
문화·교육비 10.3%, 행정관리비 8.5% 증가**

- '78년 이후 지난 16년간 세출의 기능별 분류를 보면 경제건설비가 24.7%, 국방비가 6.5% 감소하였고,
 - 경제건설비의 경우 '78년 63.7%에서 '94년 39.0%로 24.7% 줄어들었다. 이는 '78년 경제개혁 이후 각종 경제정책을 예산외자금으로 보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 국방비는 '79년 17.5%를 정점으로 국가예산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감소추세에 있으며 '94년에는 8.6%에 불과하다. 중국정부가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경제개혁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방비를 계속 삭감하고 있는 추세이다.
- 문화·교육비는 10.3%, 행정관리비는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의 질적수준 향상에 지출되는 문화·교육비와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 운영에 지출되는 행정관리비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표> 세출의 기능별 분류

(단위 : %)

	경제건설	문화·교육	국방	행정관리	채무지출	기 타
1978	63.7	13.2	15.1	4.8		3.2
1980	55.3	16.4	16.0	6.2	2.4	3.7
1985	48.5	22.1	10.4	9.3	2.1	7.5
1990	44.8	21.4	8.4	12.0	5.5	7.9
1991	42.2	22.3	8.7	10.9	6.5	9.5
1992	41.5	22.1	8.6	10.6	10.0	7.2
1993	40.5	22.3	8.1	12.0	6.4	10.8
1994	39.0	23.5	8.6	13.3	7.8	7.8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감 1995」

7. 국민계정

국내총생산 '91-95년 연평균 11.9% 성장

- 중국의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은 '78년 대외개방 정책 추진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불변가격 기준으로 17년간('79~'95)은 연평균 9.9% 성장하였고, 최근 5년간('91~'95)은 11.9% 성장하였다.
 - 6.5계획기간('80~'85)에는 연평균 10.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7.5계획기간('86~'90)에는 3년간에 걸쳐 긴축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연평균 7.7%의 성장에 그쳤다.
 - 특히 중국경제의 과열이 일어났던 '87년과 '88년에는 11.6%, 11.3%의 두자리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이러한 과열에 편승한 물가상승률이 18%선에 이르러 경제안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88년 9월에 긴축정책을 실시하였다.
 - 긴축정책 실시이후 '89년과 '90년에는 4.1%, 3.8%의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긴축정책이 종료된 '91년 가을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여 '91년 9.2%, '92년 14.2%, '93년 13.5%, '94년 12.6%, '95년 10.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 국내총생산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7년간 1차산업이 8.5% 줄었으며, 2차산업(건설업 포함)이 0.9%, 3차산업이 7.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1차산업의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3차산업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중국경제가 완만하게나마 선진국형 산업구조에 점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고도성장의 결과 명목상 1인당GNP도 '95년에는 4,757元으로 '78년 379元에 비해서는 12.6배, '90년 1,638元에 비해서도 2.9배 늘어났다.
 -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94년 기준 중국의 1인당GNP는 530달러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중국의 16배인 8,508달러를 기록했다.

<표> 경제성장 추이

(단위 : 억원, %, 元)

연도	국민 총생산	국내			1인당 GNP	
		총생산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1978	3,624.1	3,624.4	28.1	48.2	23.7	379
1980	4,517.8	4,517.8	30.1	48.5	21.4	460
1985	8,989.1	8,964.4	28.4	43.1	28.5	855
1990	18,598.4	18,547.9	27.1	41.6	31.3	1,638
1991	21,662.5	21,617.8	24.5	42.1	33.4	1,882
1992	26,651.9	26,638.1	21.8	43.9	34.3	2,288
1993	34,560.5	34,634.4	19.9	47.4	32.7	2,933
1994	46,495.8	46,622.3	20.3	48.0	31.7	3,901
1995	57,650.0	57,733.7	19.6	49.1	31.3	4,757
연평균성장률						
'79~'95		9.9	5.1	11.9	10.9	
'91~'95		11.9	4.1	17.3	9.9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통계적요 1996」

'94년 GNP 5,096억달러로 세계9위

○ 중국의 국민총생산(GNP) 규모는 '94년 기준으로 5,096억달러로 세계 9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이 6조 7,269억달러로 1위, 일본이 4조 6,295억달러로 2위, 독일이 1조 8,150억달러로 3위를 기록하였으며, 각각 중국경제의 13.2배, 9.1배, 3.6배를 나타내었다.

○ 한국은 3,780억달러로 11위를 기록하였으며, 중국은 한국경제의 1.3배를 기록하였다.

<표> GNP 국제비교(1994)

(단위 : US십억달러)

순위	국 가	국민총생산	순위	국 가	국민총생산
1	미 국	6,726.9	7	이 란	1,012.9
2	일 본	4,629.5	8	캐 나 다	530.0
3	독 일	1,815.0	9	중 국	509.6
4	프 랑 스	1,319.4	10	스 페 인	473.5
5	이탈리아	1,102.1	11	한 국	378.0
6	영 국	1,039.7	12	네덜란드	334.4

자료 :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1996」

8. 교 육

고등학교 진학률 낮은 편

- 진학률을 보면 초등학교 적령아동 취학률과 중학교 진학률은 '95년에 각각 98.5%, 90.8%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나, 고등학교 진학률은 48.3%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적령아동 취학률 및 졸업생 진학률(1995)

(단위 : %)

	초등학교 적령아동 취학률	중 학교 진학률	고 등 학교 진학률
중 국	98.5	90.8	48.3
한 국	98.2	99.4	96.5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통계적요 1996」
통계청 「간추린 통계 1996」

대학생수 15년간 2.6배 증가

- 중국의 대학생(전문대생 포함)수는 '80년 114만명에서 '95년 291만 명으로 2.6배 늘었으며, 인구 10만명당 대학생수도 80년 116명에서 '95년 240명으로 2.1배 늘어났다.

—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대학생수는 중국의 22배 정도인 5,226명에 달하고 있다.

<표> 학교별 학생수 및 인구 10만명당 학생수

(단위 : 만명, 명)

연도	학생수			인구10만명당 학생수		
	대학교	중등 학교	초등 학교	대학생	중등 학생	초등 학생
1980	20,419	114	5,678	116	5,750	14,820
1985	18,633	170	5,093	161	4,810	12,630
1990	17,553	206	5,105	180	4,470	10,710
1995	19,677	291	6,192	240	5,110	10,890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통계적요 1996」

교사 1인당 학생수 선진국 수준

-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교(전문대 포함)의 교사 1인당 학생수를 비교해 보면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과는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교육여건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 대만 등은 전과정에서 중국보다 많이 나타났다.
- 중국의 교사 1인당 학생수는 '95년 기준 초등학교 23.3명, 중등학교 15.9명, 대학교 7.3명으로 나타나
 - '80년의 26.6명, 17.9명, 4.6명과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는 15년간 각각 3.3명과 2.0명이 줄어들었으나, 대학교는 2.7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95년)의 경우 각각 28.2명, 23.4명, 26.3명으로 나타났고, 대만('93년)은 24명, 21명, 20명으로 나타났다.

<표> 교사 1인당 학생수

(단위 : 명)

국 가	연도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교
중 국	1980	26.6	17.9	4.6
	1985	24.9	17.2	5.0
	1990	21.9	14.6	5.2
	1991	22.0	14.7	5.2
	1992	22.1	14.8	5.6
	1993	22.4	14.7	6.5
	1994	22.9	15.2	7.1
	1995	23.3	15.9	7.3
한 국	1995	28.2	23.4	26.3 ¹
일 본	1993	19	16 ²	10 ²
대 만	1993	24	21	20
미 국	1993	...	15	17
프랑스	1993	24	13	...
독 일	1993	20	15	...

주 : 1) 4년제대학 이상
2) '91년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통계적요 1996」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1996」

9. 보 건

도시지역 병원시설 확대 추세

- 병원, 요양원, 진료소, 위생방역소, 약품검사소, 의학연구기관 및 기타 의료기관을 의미하는 의료기관수는 '95년 기준으로 약 19만개 정도이며, 병원은 그중 35.7%를 차지하고 있다.
- 병상수의 경우 '80년에 198.2만개에서 '95년에 283.6만개로 늘어나 15년간 불과 1.4배 증가하였으나
 - 도시병상비율은 급속히 늘어나 '80년의 38.7%에서 '95년 52.3%로 15년간 13.6%가 증가해 도시의 병원시설이 확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인구 10만명당 병상수는 '80년 201개에서 '95년 234개로 꾸준히 늘었으나 1.2배 증가에 그쳤다.
 - '94년 기준으로 한국은 410개로 중국의 236개의 1.7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의료기관 및 병상수 현황

연도	의료기관 ¹ (개)	병원 ² (%)	병상수		인구10만명당 병상수 (개)
			(만개)	농촌 (%)	
1980	180,553	36.2	198.2	61.3	201
1985	200,866	29.7	222.9	56.8	211
1990	208,734	29.9	262.4	53.2	230
1991	209,036	30.2	268.9	52.4	232
1992	204,787	30.0	274.4	51.2	234
1993	193,586	31.4	279.5	50.3	236
1994	191,742	35.4	283.1	48.3	236
1995	190,057	35.7	283.6	47.7	234

주 : 1) 병원, 요양원, 진료소, 위생방역소, 약품검사소, 의학연구기관 및 기타 의료기관을 말함

2) 현금 이상의 병원, 보건소 및 기타 병원 등 세부분을 말하며, 현금 이상의 병원은 업무성질에 따라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으로 나누어진다.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통계적요 1996」

인구10만명당 의사수 선진국에 못미쳐

- 의사수는 '80년 115.3만명에서 '95년 191.8만명으로 15년간 76.5만명, 1.7배 늘어났으나
 - 양의사는 '80년 89.1만명에서 '95년 155.1만명으로 15년간 66만명이 늘어났으며, 그 비중도 77.3%에서 81.3%로 4% 「포인트」 증가해 도시지역에 현대적인 병원시설이 증가함을 반영하고 있다.
 - 한의사의 경우 '80년 26.2만명에서 '95년 35.8만명으로 15년간 9.6만명, 1.4배 늘어났으나, 그 비율은 약간씩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 인구 10만명당 의사수의 경우 '80년 117명에서 '95년 158명으로 늘어나 보건환경이 개선되었으나 선진국의 일반적 수준인 200~400명선에는 못미치는 수준이다.
 - 선진국인 독일은 329명, 프랑스 300명, 캐나다 224명 수준에 있으며, 한국은 중국보다 적은 122명 수준이다.

<표> 의사수 현황

국 가	연 도	의 사 (만명)	의 사		인구10만명당 의사수 (명)
			한의사 (%)	양의사 (%)	
중 국	1980	115.3	22.7	77.3	117
	1985	141.3	23.8	76.2	133
	1990	176.3	20.9	79.1	154
	1994	188.2	19.2	80.8	157
	1995	191.8	18.7	81.3	158
한 국	1994	5.4	15.0	85.0	122
독 일	1994	26.7	329
프랑스	1989	16.9	300
캐나다	1991	6.1	224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통계적요 1996」

후진국형 사인구조를 보여

- 중국의 10대 사망원인을 보면 선진국에서는 보이지 않는 신생아병, 폐결핵, 전염병에 의한 사망이 포함되어 있어 후진국형 사인구조를 보이고 있다.
 - 도시에서는 뇌혈관질환이 22.1%를 차지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각종 암으로 인한 사망인 악성종양이(21.8%), 호흡기질환(16.1%), 심장병(15.0%), 손상과 중독(6.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신병(1.2%)이 사망원인 10위내에 포함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 농촌에서는 호흡기질환이 25.3%를 차지해 1위이며, 그 다음으로 악성종양(16.5%), 뇌혈관질환(16.4%), 손상과 중독(12.0%), 심장병(10.4%)의 순이며, 신생아병(1.8%), 폐결핵(1.8%), 전염병(1.4%)이 사망원인 10위내에 포함되어 후진국형 사인구조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표> 지역별 10대 사망원인 비교(1994)

(단위 : %)

순위	도 시		농 촌	
	사 망 원 인	비율	사 망 원 인	비율
계		91.0		91.7
1	뇌혈관질환	22.1	호흡기질환	25.3
2	악성종양	21.8	악성종양	16.5
3	호흡기질환	16.1	뇌혈관질환	16.4
4	심장병	15.0	손상과 중독	12.0
5	손상과 중독 ¹	6.7	심장병	10.4
6	소화기질환	3.5	소화기질환	4.8
7	내분비, 면역 및 신진대사질환	2.2	신생아병	1.8
8	비뇨생식기질환	1.5	폐결핵	1.8
9	정신병	1.2	전염병(폐결핵 제외)	1.4
10	신경병	0.9	비뇨생식기질환	1.3

주 : 1) 불의의 사고 포함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감 1995」

10. 한·중교류 현황

대중국무역액 지난 3년간 2.6배 증가

-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규모는 '95년에 16,545백만달러로 무역총액의 6.4%를 차지하였으며, 한중수교 첫해인 '92년 6,379백만달러에 비해서는 2.6배 증가하였다.
 - 대중국 무역비중을 보면 '90년에는 2.1%에 불과하였으나, 한중수교 원년인 '92년에는 4.0%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93년 5.5%, '94년 6.0%, '95년 6.4%로 나타났다.
 - 지난 5년간 대중국 수출비중은 0.9%에서 7.3%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대중국 수입비중은 3.2%에서 5.5%로 소폭 증가하였다.
- '91-'95년간 대중국 무역액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42.1%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무역총액 증가율인 14.0%의 3배로 나타나 한중무역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특히 대중국 수출액 연평균 증가율이 5년간 73.3%로 나타나 수입액 연평균 증가율 26.7%보다 무려 46.6% 「포인트」 앞서고 있다.

<표> 한국의 대중국 무역규모

(단위 : US백만달러, %)

연도	무역총액	대중국		수출액	대중국		수입액	대중국	
		무역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입액	비중
1990	134,860	2,853	2.1	65,016	585	0.9	69,844	2,268	3.2
1991	153,395	4,444	2.9	71,870	1,003	1.4	81,525	3,441	4.2
1992	158,407	6,379	4.0	76,632	2,654	3.5	81,775	3,725	4.6
1993	166,036	9,080	5.5	82,236	5,151	6.3	83,800	3,929	4.7
1994	198,361	11,666	6.0	96,013	6,203	6.5	102,348	5,463	5.3
1995	260,177	16,545	6.4	125,058	9,144	7.3	135,119	7,401	5.5
연평균 증가율									
'91-'95	14.0	42.1		14.0	73.3		14.1	26.7	
'93-'95	18.0	37.4		17.7	51.0		18.2	25.7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1996」, 「주요무역동향지표」 1995~1996

중국 — 한국의 3대 무역국
한국 — 중국의 5대 무역국

- 우리나라의 국별 무역액을 살펴보면 중국이 작년에 이어 '95년에도 미국, 일본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의 국별 무역액에서 우리나라는 일본, 홍콩, 미국, 대만에 이어 전년도 5위인 독일을 추월하고 5대무역국으로 부상하였다.

<표> 한국 및 중국의 5대 무역국(1995)

(단위 : US백만달러)

한 국			중 국		
순위	국 가	무역액	순위	국 가	무역액
1	미 국	54,535	1	일 본	57,468
2	일 본	49,655	2	홍 콩	44,575
3	중 국	16,545	3	미 국	40,829
4	독 일	12,549	4	대 만	17,882
5	홍 콩	11,520	5	한 국	16,982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요무역동향지표」 1995~1996

대중국 무역수지 '93년 이후 계속 흑자

- 대중국 무역수지를 보면 한중수교 이전에는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 적자를 보였으나, 수교를 기점으로 수출이 수입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되어 '93년 이후에는 계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 한중수교 이듬해인 '93년에 처음으로 1,222백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이후 '94년에는 740백만달러, '95년 1,742백만달러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표> 대중국 무역수지 추이

(단위 : US백만달러)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수 출	585	1,003	2,654	5,151	6,203	9,144
수 입	2,268	3,441	3,725	3,929	5,463	7,401
무역수지	-1,683	-2,438	-1,071	1,222	740	1,742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요무역동향지표」 1995~1996

대중국 투자금액 '92년 이후 3년간 5.8배 늘어

- '92년 한중투자보장협정(5월)과 한중수교(8월)가 이루어지고 난 후 우리나라의 대중국투자(실행기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92년 이후 3년간 투자건수로 4.2배, 투자금액으로 5.8배 증가하였다.
 - 한중수교 이전인 '90년과 '91년에는 투자건수와 투자금액이 각각 30건 22.1백만달러, 69건 42.5백만달러였으나
 - 한중수교 원년인 '92년에는 8월이후에 투자가 급증하여 171건 141.2백만달러를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 '92년 이후 대중국투자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95년에는 725건에 814.4백만달러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의 해외투자금액 대비 대중국투자금액은 수교이전인 '90년에 2.3%, '91년에 3.8%로 미미했으나
 - '92년에 처음으로 10%를 넘어선 11.6%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 '94년에 27.4%, '95년에 26.6%를 차지하고 있어 '94년 이후 우리나라 해외투자금액의 1/4 이상을 점하고 있다.

<표> 한국의 대중국 투자추이(실행기준)

(단위 : 건, US백만달러, %)

	해외투자			해외투자		
	건수	대중국 투자건수	비중	금액	대중국 투자금액	비중
1990	338	30	8.9	958.6	22.1	2.3
1991	443	69	15.6	1,115.0	42.5	3.8
1992	497	171	34.4	1,218.4	141.2	11.6
1993	682	376	55.1	1,260.3	262.2	20.8
1994	1,475	836	56.7	2,305.1	630.8	27.4
1995	1,285	725	56.4	3,058.9	814.4	26.6
연평균증가율						
'91-'95	30.6	89.1		26.1	105.7	
'93-'95	37.3	61.9		35.9	79.3	

자료 : 한국은행 「해외투자통계연보」 1994~1996

대중국투자 제조업에 집중

- '95년말 잔존실행기준으로 보면 대중국투자는 2,193건에 1,886.3백만달러로 나타났는데 그 중 제조업이 1,908건(87.0%)에 1,668.5백만달러(88.5%)를 차지해 제조업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제조업 부문을 업종별로 보면 조립금속, 섬유·의복, 비금속광물이 각각 438.3백만달러(26.3%), 252.7백만달러(15.1%), 176.9백만달러(10.6%)로 나타나 3개업종이 52.0%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제조업 부문의 대중국투자는 전기·전자제품 조립등 조립금속업, 섬유 및 의류봉제업, 신발 및 가죽제품업 및 기타 제조업 등 대체로 단순노동 집약적인 업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지역별로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환발해만지역(북경, 천진, 산둥)과 동북 3성(요녕, 길림, 흑룡강성)에 72.0%인 1,358.2백만달러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산업별 대중국투자('95년말 잔존실행기준)

(단위 : 건, US백만달러, %)

	투자건수	비중	투자금액	비중
총 계	2,193	100.0	1,886.3	100.0
임업	2	0.1	0.3	0.0
수산업	23	1.0	5.2	0.3
광업	13	0.6	6.6	0.3
제조업	1,908	87.0	1,668.5	88.5
조립금속	258	13.5	438.3	26.3
섬유·의복	404	21.2	252.7	15.1
비금속광물	83	4.4	176.9	10.6
석유·화학	168	8.8	153.1	9.2
신발·가죽	192	10.1	140.4	8.4
기계장비	108	5.7	140.3	8.4
건설업	17	0.8	38.7	2.1
운수보관업	20	0.9	23.4	1.2
무역업	27	1.2	6.5	0.3
기타	183	8.3	137.0	7.3

주 : ()는 제조업에 대한 비중임

자료 : 한국은행 「해외투자통계연보 1996」

중국의 대한국투자 급증세

○ 중국의 대한국투자를 인가·수리기준으로 보면 '89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1건 2,800달러의 투자를 시작한 이래 한중수교를 기점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여 '95년말 현재 117건에 28,472천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 한중수교 원년인 '92년에는 6건 1,056천달러를 투자하여 백만달러 이상을 기록하였고, 계속 늘어나 '95년에는 45건 10,892천달러를 투자하여 투자금액으로 보면 지난 3년간 연평균 11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중국의 대한국투자(인가·수리기준)

(단위 : 건, US천달러, %)

	투자건수		투자금액	
		비중		비중
총 계	117	100.0	28,472	100.0
1989	1	0.9	2,800	9.8
1990	1	0.9	100	0.4
1991	3	2.6	690	2.4
1992	6	5.1	1,056	3.7
1993	29	24.8	6,727	23.6
1994	32	27.4	6,207	21.8
1995	45	38.5	10,892	38.3
연평균증가율 '93-'95	95.7		117.7	

자료 : 재정경제원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 동향」 1995. 12월호

○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20건에 11,244천달러이며, 서비스업이 97건에 17,228천달러로 나타나 서비스업이 투자건수의 82.9%, 투자금액의 60.5%를 차지하고 있다.

— 업종별로는 무역업이 10,779천달러로 총투자금액의 37.9%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음식점업 3,037천달러(10.7%), 전기 및 전자제조업 2,800천달러(9.8%), 의약제조업 2,600천달러(9.1%), 기계제조업 2,145천달러(7.5%), 운수 및 창고업 2,140천달러(7.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의 중국 방문객수 4년간 26.7배 증가

- 한국인의 중국 방문객수는 '91년에는 15,261명에 불과하였으나 '95년에는 406,918명으로 '91년에 비해 26.7배 증가하였다.
 - 한중수교 이후인 3년간('93~'95년) 한국인의 중국 방문객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111.1%로 나타나 한국인 총출국자수의 증가율인 20.9%보다 5.3배의 속도로 증가하였다.
 - 한국인 총출국자수 대비 한국인의 중국 방문객수는 '91년에 0.7%였으나 '95년에는 9.8%로 중국방문객의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인의 한국 방문객수는 '91년 44,188명에서 '95년 81,120명으로 4년간 1.8배 증가하였다.
 - 조선족의 한국방문은 한약판매의 목적으로 대거 입국하여 '91년 36,147명, '92년 31,005명을 기록하였으나 최근에는 2만명 내외의 인원이 방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출국자 및 입국자수¹

(단위 : 명, %)

연 도	한국인			외국인		
	총출국자수	한국인 訪中者	구성비	총입국자수	중국인 訪韓者 ²	구성비
1991	2,165,725	15,261	0.7	2,492,824	44,188	1.8
1992	2,353,889	43,234	1.8	2,498,823	(36,147) 45,187	1.8
1993	2,741,500	111,655	4.1	2,568,494	(31,005) 40,011	1.6
1994	3,478,199	235,452	6.8	2,775,473	(12,227) 63,302	2.3
1995	4,155,799	406,918	9.8	2,923,642	(22,605) 81,120 (19,065)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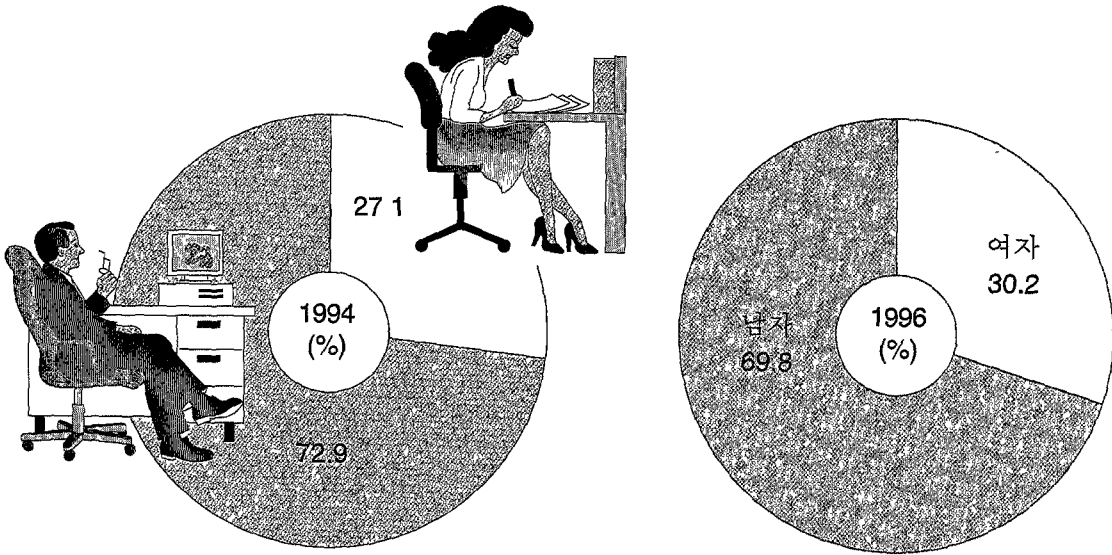
주 : 1) 승무원 제외

2) ()는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입

자료 : 출입국관리국 「출입국관리통계연보」 1991~1995

'96년 통계활동현황조사 결과

성별 통계인력현황



통계인력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0.2%로 '94년의 27.1% 비하여 3.1%포인트 증가 하였다.

- 본문 중에서 -

'96년 통계활동현황조사 결과

1996. 9

통계기획국 통계조정과

I.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국가승인통계를 작성하는 정부 및 민간지정기관의 통계조직, 통계인력, 통계예산 및 통계작성현황 등을 파악하여 국가통계 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3조에 의한 일반통계(통계작성 승인번호 제10113호)

3. 조사기준일 및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96년 2월 1일
— 단, 통계예산현황조사표의 '95년 예산은 '95.1.1 ~ '95.12.31의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조사
- 조사 기간 : '96년 2월 21일 ~ 3월 20일

4. 조사주기 : 2년

5. 조사방법 : 우편조사에 의한 전수조사

6. 조사대상

가. 대상기관의 범위

- 승인통계를 작성하는 정부 및 민간지정기관

(단위 : 개)

계	정 부 기 관			민간지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99	40	25	15	59

나. 대상 인력의 범위

- 작성기관에서 통계업무를 전담하거나 주로 하는 정규직원 및 임시직원을 대상으로 하였음. 단, 통계작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채용하는 임시조사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청 단위에서 통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청장을 포함하여 모든 청직원을 조사. 이때 통계업무와 관계없이 행정지원을 하는 총무과 직원도 포함.
 - 국 또는 부의 단위에서 통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장 또는 부장을 포함하여 모든 국 또는 부직원을 조사. 이때 국 또는 부에 소속되어 행정지원을 하는 직원도 포함.
 - 과 단위에서 통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과장을 포함하여 모든 과직원을 포함. 이때 과에 소속되어 행정지원을 하는 직원도 포함.
 - 계 단위에서 통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계장을 포함하여 모든 계직원을 포함. 이때 계에 배치되어 행정지원을 하는 직원도 포함.
 - 담당직원만에 의하여 통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계장과 담당직원만을 대상.
 - 연구팀 단위에 의하여 통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팀장과 팀조직원을 대상.

7. 조사항목

가. 통계조직현황 조사표

- 통계기구 및 통계인력현황(정원 및 현원) 등 2개 항목

나. 통계인력현황 조사표

- 성명, 성별, 연령, 직종, 직위 및 직급, 담당업무, 통계경력, 교육정도, 전공과목, 통계교육훈련 등 10개 항목

다. 통계예산현황 조사표

- 기본적 경비, 사업비, 기타비용 등 3개 항목

라. 통계작성현황 조사표

- 작성기관, 연혁, 조사표 명칭(보고서식명), 조사(보고)대상, 조사(보고)방법, 조사(보고)기준, 조사범위 및 표본설계, 조사(보고)사항, 지수작성방법, 결과공표 등 10개 항목

II. 조사결과

1. 개요

○ '96년 2월 1일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은 99개 기관이며, 통계 작성기관에서 작성하는 통계는 372종, 작성기관에서 통계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5,607명이며, '95년중 통계조사에 소요된 예산은 956억 8,300만원으로 나타났다.

— 이는 '94년에 비해 통계작성기관은 7개 증가, 작성통계는 19종 증가, 통계인력은 113명이 증가 한 것이며, '93년에 소요된 예산보다 785억 9,000만원이 증가 한 것임.

		계	민 간			지정기관
			정부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작성기관 (개)	'94	92	41	26	15	51
	'96	99	40	25	15	59
	증감	7	- 1	- 1	0	8
작성통계 (종)	'94	353	248	210	38	105
	'96	372	269	219	50	103
	증감	19	21	9	12	-2
통계인력 ¹⁾ (명)	'94	5,494	4,697	3,977	720	797
	'96	5,607	4,801	4,084	717	806
	증감	113	104	107	- 3	9
통계예산 (백만원)	'93	17,093	11,792	8,877	2,915	5,301
	'95	95,683	88,561	83,122	5,439	7,122
	증감	78,590	76,769	74,245	2,524	1,821

주 1) 대한, 부산, 인천, 대전상공회의소 이외의 지방상공회의소 통계인력을 제외하였음

2. 통계작성기관현황

가. 통계작성기관

○ '96년 2월 1일 현재 통계작성기관은 99개로 이중 정부기관이 40개 (40.4%), 민간지정기관이 59개(59.6%)로 민간지정기관이 정부기관보다 19개기관이 더 많음.

○ '94년에 비해 7개 기관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정부기관에 건설부와 교통부가 통합되어 건설교통부가 됨으로 1개 감소한 반면, 민간지정기관은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전기통신공사협회 등 8개의 기관이 작성기관으로 새로 지정되었기 때문임.

(단위 : 개, %)

	'94년 (A)	구성비	'96년 (B)	구성비	증 감	
					(B-A)	증감율
계	92	100.0	99	100.0	7	7.6
○ 정 부 기 관	41	44.6	40	40.4	- 1	- 2.4
— 중앙행정기관	26	28.3	25	25.3	- 1	- 3.8
— 지방자치단체	15	16.3	15	15.1	-	-
○ 민간 지정 기관	51	55.4	59	59.6	8	15.7
— 금 용 기 관	8	8.7	8	8.1	-	-
— 정부투자기관	8	8.7	9	9.1	1	12.5
— 정부출연기관	10	10.9	12	12.1	2	20.0
— 공 공 법 인	13	14.1	15	15.2	2	15.4
— 각 종 단 체	12	13.0	15	15.2	3	25.0

나. 통계조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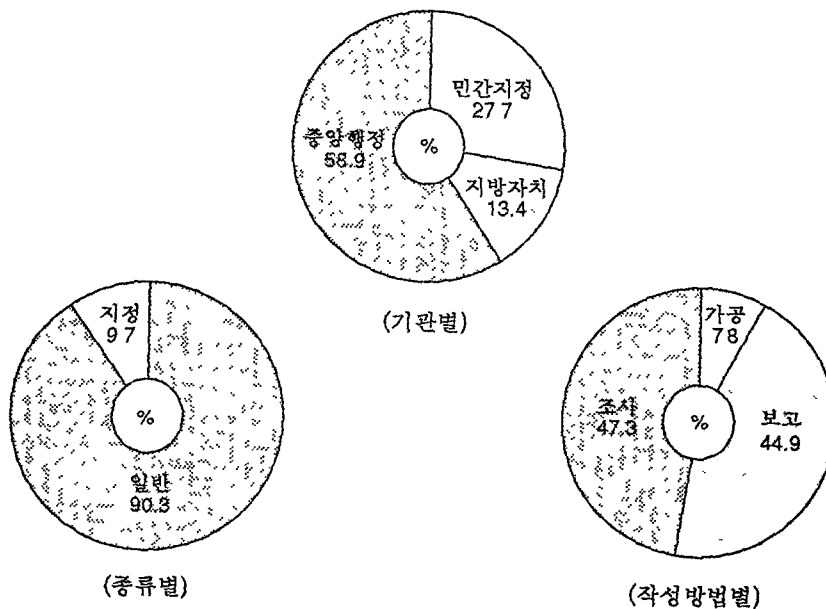
- 중앙행정기관에서 과단위 이상에서 통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통계청, 농림수산부 등 7개 기관이며, '94년 2월에 비해 정부조직법이 개편됨에 따라 건설교통부 1개 기관이 추가되었음.
- 지방자치단체는 '94년에는 서울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과 단위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96년에는 15개 시·도 모두 계 단위로 조직이 축소 되었음.
- 민간지정기관에서 과단위 이상에서 통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은행 1개 뿐임.

구 분	'94 년	'96 년	비 고
○ 중앙 행정 기관			
— 통 계 청	본청 . 3국 1원 17과 지방 · 11개 지방사무소 5개 출장소	본청 . 3국1원 17과 1담당관 지방 : 12개 지방사무소 9개 출장소	
— 농림수산부	본부 : 1국 4과 지방 : 9개 지방사무소 142개 지방출장소	본부 : 1국 4과 지방 · 9개 지방사무소 142개 지방출장소	
— 노 동 부	1과(통계담당관)	1과(통계담당관)	
— 보건복지부	1과(전산통계담당관)	1과(전산통계담당관)	
— 환 경 부	1과(전산통계담당관)	1과(전산통계담당관)	
— 통상산업부	1과(전산통계담당관)	1과(전산통계담당관)	
— 건설교통부	-	1과(전산통계담당관)	· '94.12 정부조직개편
○ 지방 자치 단체	각 시·도 1과 (단, 서울은 통계계)	각 시·도 1~2계 (서울,경북은 2개계)	· '94.5, '96.1 직제개편
○ 민간 지정 기관			
— 한국 은행	1부 5과	1부 6과	

3. 통계작성 현황

- '96년 2월 1일 현재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하고 있는 통계는 372종이며 '94년에 비해 19종이 증가 하였음. 이는 38종의 통계(사업체기초통계조사, 석유수급통계표)가 신규로 작성된 반면 19종의 통계(총사업체통계조사, 임대배가공작성실적보고 등)가 작성중지 되었기 때문임.
- '94년에 비해 정부기관에서 21종이 증가 하였는데 이는 15개 시·도에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신규로 작성한데에 주로 기인함.
- 통계종류별로 보면 일반통계가 90.3%이며, 작성방법별로 보면 조사통계가 47.3%로 가장 많음
- 작성기관별로 보면 정부기관이 269종(72.3%)을 작성하여 민간지정기관의 103종에 비하여 2.6배 수준임
- 통계청과 보건복지부는 36종과 35종을 작성하여 2개 기관에서 작성하는 통계가 전체 통계의 1/5수준임

통계작성현황 (1996년)



(단위 : 종, %)

	'94년						'96년					
	종 류 별		작성방법별				종 류 별		작성방법별			
	지정	일반	조사	보고	가공	지정	일반	조사	보고	가공		
계	353 (100.0)	35 (9.9)	318 (90.1)	163 (46.2)	165 (46.7)	25 (7.1)	372 (100.0)	36 (9.7)	336 (90.3)	176 (47.3)	167 (44.9)	29 (7.8)
정 부 기 관	248 (100.0)	31 (12.5)	217 (87.5)	91 (36.7)	138 (55.6)	19 (7.7)	269 (100.0)	30 (11.2)	239 (88.8)	104 (38.7)	142 (52.8)	23 (8.5)
중앙행정기관	210 (100.0)	31 (14.8)	179 (85.2)	84 (40.0)	123 (58.6)	3 (1.4)	219 (100.0)	30 (13.7)	189 (86.3)	84 (38.3)	127 (58.0)	8 (3.7)
통 계 청	31 (100.0)	18 (58.1)	13 (41.9)	28 (90.3)	1 (3.2)	2 (6.5)	36 (100.0)	17 (47.2)	19 (52.8)	29 (80.6)	1 (2.7)	6 (16.7)
농림수산부	28 (100.0)	9 (32.1)	19 (67.9)	12 (42.9)	16 (57.1)	- (-)	27 (100.0)	9 (33.3)	18 (66.7)	11 (40.7)	16 (59.3)	- (-)
노 동 부	14 (100.0)	3 (21.4)	11 (78.6)	8 (57.1)	6 (42.9)	- (-)	15 (100.0)	3 (20.0)	12 (80.0)	10 (66.7)	5 (33.3)	- (-)
보건복지부	34 (100.0)	- (-)	34 (100.0)	8 (23.5)	26 (76.5)	- (-)	35 (100.0)	- (-)	35 (100.0)	8 (22.9)	27 (77.1)	- (-)
건설교통부	24 (100.0)	1 (4.2)	23 (95.8)	3 (12.5)	21 (87.5)	- (-)	20 (100.0)	1 (5.0)	19 (95.0)	3 (15.0)	17 (85.0)	- (-)
기타 기관	79 (100.0)	- (-)	79 (100.0)	25 (31.6)	53 (67.1)	1 (1.3)	86 (100.0)	- (-)	86 (100.0)	23 (26.8)	61 (70.9)	2 (2.3)
지방자치단체	38 (100.0)	- (-)	38 (100.0)	7 (18.4)	15 (39.5)	16 (42.1)	50 (100.0)	- (-)	50 (100.0)	20 (40.0)	15 (30.0)	15 (30.0)
민간지정기관	105 (100.0)	4 (3.8)	101 (96.2)	72 (68.6)	27 (25.7)	6 (5.7)	103 (100.0)	6 (5.8)	97 (94.2)	72 (69.9)	25 (24.3)	6 (5.8)
한국 은행	18 (100.0)	- (-)	18 (100.0)	7 (38.9)	8 (44.4)	3 (16.7)	18 (100.0)	- (-)	18 (100.0)	7 (38.9)	8 (44.4)	3 (16.7)
기 타	87 (100.0)	4 (4.6)	83 (95.4)	65 (74.7)	19 (21.8)	3 (3.5)	85 (100.0)	6 (7.1)	79 (92.9)	65 (76.5)	17 (20.0)	3 (3.5)

4. 통계인력현황

가. 작성기관별 인력현황

○ 1996년 2월 1일 현재 통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은 5,607명으로 '94년에 비해 113명이 증가 하였음.

— 이중 정부기관은 104명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중앙행정기관중 통계청이 153명 증가 한데에 기인하며 통계청에서는 '9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자료처리를 위한 내점요원을 다수 채용하였기 때문임.

— 지방자치 단체는 전체적으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도 인력은 과단위에서 계단위로 기관이 축소됨에 따라 '94년의 160명에서 '96년에 134명으로 현저히 감소하였음.

— 민간지정기관도 변동이 크지 않았으나 한국은행은 20명이 감소된 반면, 기타기관은 29명이 증가 하였음.

○ 작성기관별로 살펴보면 정부기관이 4,801명(85.6%)으로 민간지정기관의 806명(14.4%)에 비해 약 6배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 통계인력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농림수산부로 2,095명(37.4%)을 보유하고 있으며 통계청이 1,581명(28.2%)으로 2개 기관이 전체의 65.6%를 차지하고 있음.

— 민간지정기관중에는 한국은행이 272명(4.9%)으로 가장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단위 : 명, %)

	'94년 ¹⁾		'96년 ¹⁾		증 감	
	(A)	구성비	(B)	구성비	(B-A)	증감율
계	5,494	100.0	5,607	100.0	113	2.1
○ 정부 기관	4,697	85.5	4,801	85.6	104	2.2
— 중앙행정기관	3,977	72.4	4,084	72.8	107	2.7
· 통계청	1,428	26.0	1,581	28.2	153	10.7
· 농림수산부	2,134	38.8	2,095	37.4	- 39	- 1.8
· 노동부	107	1.9	100	1.8	- 7	- 6.5
· 보건복지부	54	1.0	60	1.1	6	11.1
· 건설교통부	65	1.2	52	0.9	- 13	- 20.0
· 기타 기관	189	3.4	196	3.5	7	3.7
— 지방자치단체	720	13.1	717	12.8	- 3	- 0.4
· 시 · 도	160	2.9	134	2.4	- 26	- 16.3
· 구 · 시 · 군	560	10.2	583	10.4	23	4.1
○ 민간 지정 기관	797	14.5	806	14.4	9	1.1
— 한국은행	292	5.3	272	4.9	- 20	- 6.8
— 기타 기관	505	9.2	534	9.5	29	5.7

주 · 1) 대한, 부산, 인천, 대전상공회의소 이외의 지방상공회의소 통계인력을 제외하였음

나. 성별 인력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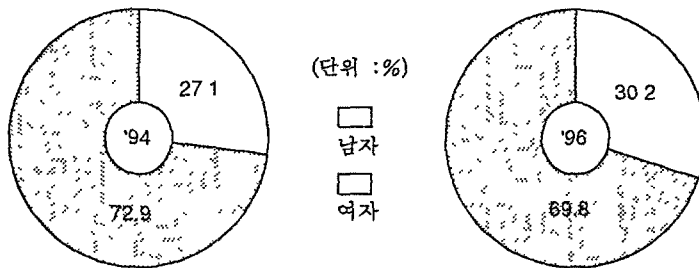
○ 통계인력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0.2%로 '94년의 27.1%에 비하여 3.1%포인트 증가 하였음.

— 통계청 및 구·시·군이 총인력의 증가와 더불어 여성의 구성비가 각각 5.9%포인트, 7.5%포인트 증가하였으며 노동부, 건설교통부, 한국은행 등이 총인력의 감소와 더불어 여성의 구성비가 각각 3.8%포인트, 5.0%포인트, 1.2%포인트 씩 감소하였음.

○ 기관별로 보면 정부기관의 여성 구성비가 32.0%로 민간지정기관의 20.0%보다 12.0%포인트 높음.

— 노동부의 여성 구성비가 86.0%로 가장 높으며 통계청이 48.1% 순이며, 건설교통부가 5.8%로 가장 낮음.

성별인력현황



(1996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지정기관	
통계청	노동부	건설교통부	시·도	구·시·군	한국은행	기타기관
48.1	86.0	5.8	31.3	21.8	27.2	16.3
51.9	14.0	94.2	68.7	78.2	72.8	83.7

(단위 : 명, %)

	'94 년			'96 년		
	계	남	여	계	남	여
계	5,494 (100.0)	4,007 (72.9)	1,487 (27.1)	5,607 (100.0)	3,911 (69.8)	1,696 (30.2)
○ 정부 기관	4,697 (100.0)	3,364 (71.6)	1,333 (28.4)	4,801 (100.0)	3,266 (68.0)	1,535 (32.0)
— 중앙행정기관	3,977 (100.0)	2,769 (69.6)	1,208 (30.4)	4,084 (100.0)	2,718 (66.6)	1,366 (33.4)
· 통계청	1,428 (100.0)	825 (57.8)	603 (42.2)	1,581 (100.0)	820 (51.9)	761 (48.1)
· 농림수산부	2,134 (100.0)	1,669 (78.2)	465 (21.8)	2,095 (100.0)	1,616 (77.1)	479 (22.9)
· 노동부	107 (100.0)	19 (17.8)	88 (82.2)	100 (100.0)	14 (14.0)	86 (86.0)
· 보건복지부	54 (100.0)	36 (66.7)	18 (33.3)	60 (100.0)	42 (70.0)	18 (30.0)
· 건설교통부	65 (100.0)	58 (89.2)	7 (10.8)	52 (100.0)	49 (94.2)	3 (5.8)
· 기타 기관	189 (100.0)	162 (85.7)	27 (14.3)	196 (100.0)	177 (90.3)	19 (9.7)
— 지방자치단체	720 (100.0)	595 (82.6)	125 (17.4)	717 (100.0)	548 (76.4)	169 (23.6)
· 시·도	160 (100.0)	115 (71.9)	45 (28.1)	134 (100.0)	92 (68.7)	42 (31.3)
· 구·시·군	560 (100.0)	480 (85.7)	80 (14.3)	583 (100.0)	456 (78.2)	127 (21.8)
○ 민간 지정 기관	797 (100.0)	643 (80.7)	154 (19.3)	806 (100.0)	645 (80.0)	161 (20.0)
· 한국은행	292 (100.0)	209 (71.6)	83 (28.4)	272 (100.0)	198 (72.8)	74 (27.2)
· 기타 기관	505 (100.0)	434 (85.9)	71 (14.1)	534 (100.0)	447 (83.7)	87 (16.3)

다. 연령별 인력현황 ('96년)

○ 통계인력의 평균연령은 36세이며, 30세이상 40세미만이 36.9%로 가장 많음.

○ 기관별로 보면 정부기관의 평균연령이 37세로, 민간지정기관의 34세보다 3세가 더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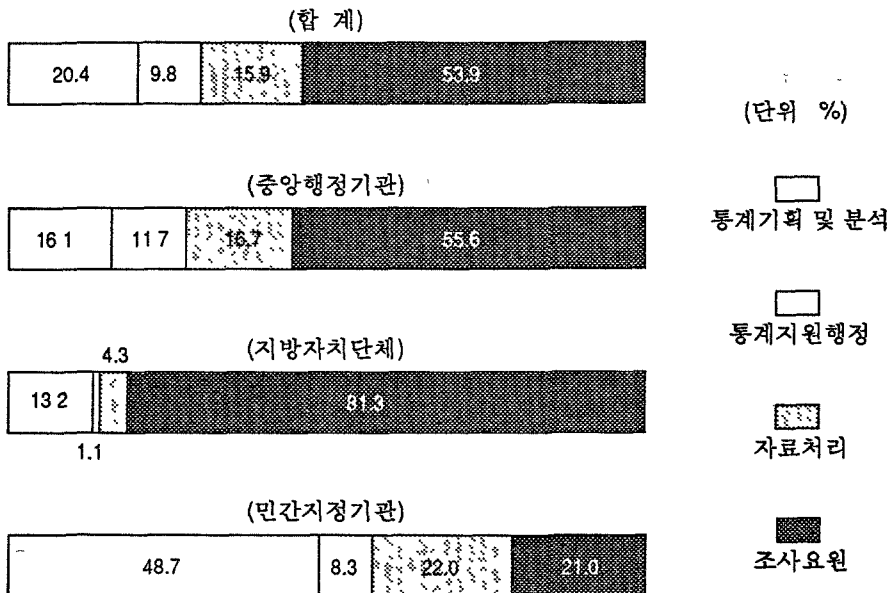
(단위 : 명, %)

	계		30세 미만		30~40 미 만		40~50 미 만		50세 이상		평균연령 (세)
	명	구성비	명	구성비	명	구성비	명	구성비	명	구성비	
계	5,607	100.0	1,611	28.7	2,067	36.9	1,248	22.3	681	12.1	36
○ 정부기관	4,801	100.0	1,392	29.0	1,653	34.4	1,110	23.1	646	13.5	37
├ 중앙행정기관	4,084	100.0	1,232	30.2	1,371	33.6	901	22.1	580	14.2	37
├ 통계청	1,581	100.0	525	33.2	606	38.3	337	21.3	113	7.1	35
├ 농림수산부	2,095	100.0	646	30.8	582	27.8	444	21.2	423	20.2	38
├ 노동부	100	100.0	31	31.0	58	58.0	9	9.0	2	2.0	33
├ 보건복지부	60	100.0	2	3.3	22	36.7	23	38.3	13	21.7	42
├ 건설교통부	52	100.0	4	7.7	25	48.1	17	32.7	6	11.5	40
├ 기타 기관	196	100.0	24	12.2	78	39.8	71	36.2	23	11.7	42
└ 지방자치단체	717	100.0	160	22.3	282	39.3	209	29.1	66	9.2	37
├ 시·도	134	100.0	29	21.6	48	35.8	40	29.9	17	12.7	38
├ 구·시·군	583	100.0	131	22.5	234	40.1	169	29.0	49	8.4	37
○ 민간지정기관	806	100.0	219	27.2	414	51.4	138	17.1	35	4.3	34
├ 한국은행	272	100.0	74	27.2	153	56.3	43	15.8	2	0.7	33
├ 기타 기관	534	100.0	145	27.2	261	48.9	95	17.8	33	6.2	35

라. 담당업무별 인력사항

- 통계담당업무별 인력을 보면 조사요원이 53.9%로 가장 많으며, 통계 지원행정업무는 9.8%가 담당하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담당업무별 인력을 보면 농림수산부와 노동부는 통계기획및분석이 9.6%, 17.0%로 낮은 반면 조사요원이 71.7%와 71.0%로 높은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음.
- 반면,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및 기타 중앙행정기관은 통계기획 및 분석이 65.0%, 61.5%, 66.8%로 높은 반면 조사요원이 없거나 4.6%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시·도는 통계기획및분석이 70.9%로 높은 반면 조사요원이 없으나 구·시·군은 통계기획및분석이 전혀없고 모두 조사요원임.

담당업무별 인력현황(199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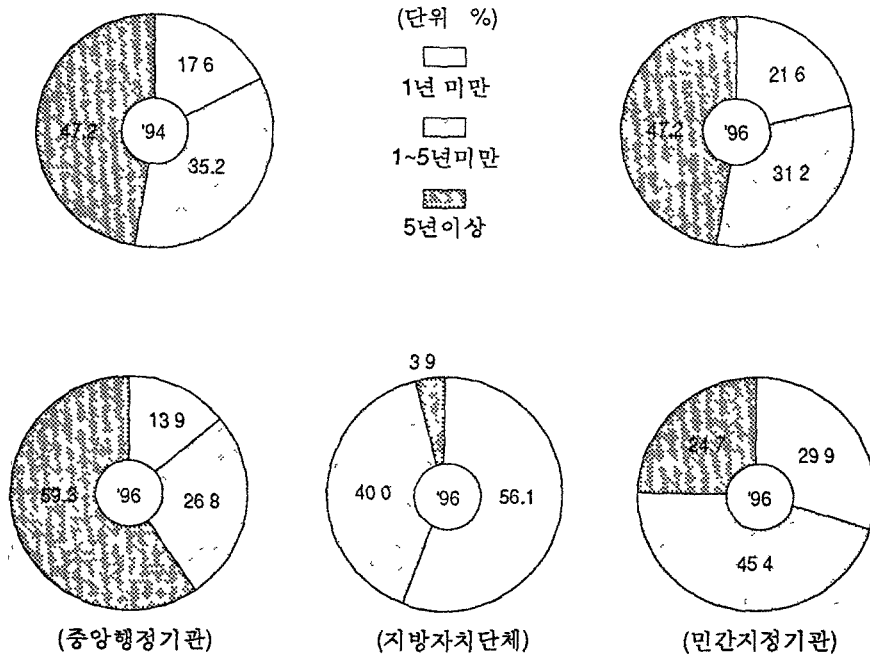
(단위 : 명,%)

	계		통계 기획및 분석		통계 지원 행정		자료 처리 요원		조사 요원	
	계	구성비	계	구성비	계	구성비	계	구성비	계	구성비
계	5,607	100.0	1,145	20.4	551	9.8	889	15.9	3,022	53.9
○ 정부 기관	4,801	100.0	752	15.7	484	10.1	712	14.8	2,853	59.4
— 중앙행정기관	4,084	100.0	657	16.1	476	11.7	681	16.7	2,270	55.6
· 통계청	1,581	100.0	236	14.9	299	18.9	359	22.7	687	43.5
· 농림수산부	2,095	100.0	202	9.6	170	8.1	220	10.5	1,503	71.7
· 노동부	100	100.0	17	17.0	1	1.0	11	11.0	71	71.0
· 보건복지부	60	100.0	39	65.0	1	1.7	20	33.3	(-)	(-)
· 건설교통부	52	100.0	32	61.5	1	1.9	19	36.5	(-)	(-)
· 기타 기관	196	100.0	131	66.8	4	2.0	52	26.5	9	4.6
— 지방자치단체	717	100.0	95	13.2	8	1.1	31	4.3	583	81.3
· 시 · 도	134	100.0	95	70.9	8	6.0	31	23.1	(-)	(-)
· 구 · 시 · 군	583	100.0	(-)	(-)	(-)	(-)	(-)	(-)	583	100.0
○ 민간지정기관	806	100.0	393	48.8	67	8.3	177	22.0	169	21.0
— 한국은행	272	100.0	105	38.6	26	9.6	44	16.2	97	35.7
— 기타 기관	534	100.0	288	53.9	41	7.7	133	24.9	72	13.5

마. 통계경력별 통계인력

- 통계경력별 인력을 보면 5년이상 경력자가 47.2%로 약 절반수준이며 '94년에 비하여 1년미만은 4.0%포인트 감소한 반면 1~5년 미만은 4.0%포인트 증가하여 통계경력이 다소 길어졌음
- 기관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에는 5년 이상자가 59.3%로 나타났으나, 지방자치단체에는 1년 미만의 경력자가 5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중앙행정기관중 농림수산부와 통계청의 5년이상 경력자는 68.1%, 57.2%로 장기경력자가 가장 많음

통계 경력별 통계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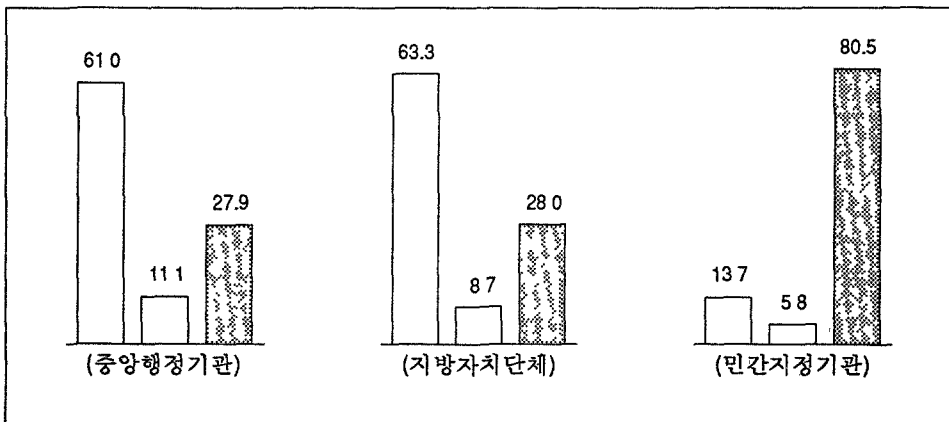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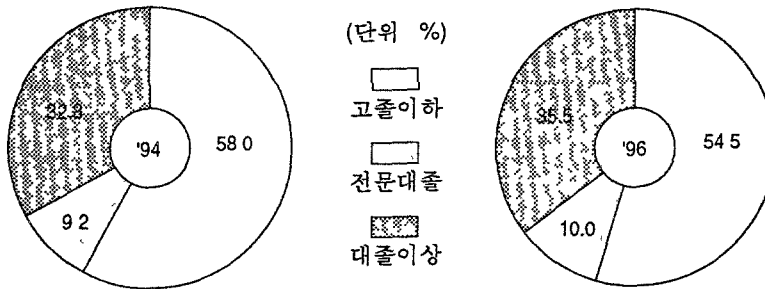
(단위 : 명, %)

	'94 년				'96 년			
	계	1년미만	1~5년 미 만	5년이상	계	1년미만	1~5년 미 만	5년이상
계	5,494 (100.0)	969 (17.6)	1,933 (35.2)	2,592 (47.2)	5,607 (100.0)	1,211 (21.6)	1,748 (31.2)	2,648 (47.2)
○ 정부 기관	4,697 (100.0)	764 (16.3)	1,510 (32.1)	2,423 (51.6)	4,801 (100.0)	970 (20.2)	1,382 (28.8)	2,449 (51.0)
— 중앙행정기관	3,977 (100.0)	409 (10.3)	1,173 (29.5)	2,395 (60.2)	4,084 (100.0)	568 (13.9)	1,095 (26.8)	2,421 (59.3)
· 통계청	1,428 (100.0)	91 (6.4)	448 (31.4)	889 (62.2)	1,581 (100.0)	316 (20.0)	360 (22.8)	905 (57.2)
· 농림수산부	2,134 (100.0)	180 (8.4)	549 (25.7)	1,405 (65.9)	2,095 (100.0)	140 (6.7)	529 (25.2)	1,426 (68.1)
· 노동부	107 (100.0)	18 (16.8)	48 (44.9)	41 (38.3)	100 (100.0)	12 (12.0)	47 (47.0)	41 (41.0)
· 보건복지부	54 (100.0)	24 (44.4)	19 (35.2)	11 (20.4)	60 (100.0)	17 (28.3)	36 (60.0)	7 (11.7)
· 건설교통부	65 (100.0)	24 (36.9)	29 (44.6)	12 (18.5)	52 (100.0)	13 (25.0)	30 (57.7)	9 (17.3)
· 기타 기관	189 (100.0)	72 (38.1)	80 (42.3)	37 (19.6)	196 (100.0)	70 (35.7)	93 (47.5)	33 (16.8)
— 지방자치단체	720 (100.0)	355 (49.3)	337 (46.8)	28 (3.9)	717 (100.0)	402 (56.1)	287 (40.0)	28 (3.9)
· 시 · 도	160 (100.0)	59 (36.9)	86 (53.7)	15 (9.4)	134 (100.0)	55 (41.0)	65 (48.5)	14 (10.5)
· 구 · 시 · 군	560 (100.0)	296 (52.9)	251 (44.8)	13 (2.3)	583 (100.0)	347 (59.5)	222 (38.1)	14 (2.4)
○ 민간지정기관	797 (100.0)	205 (25.7)	423 (53.1)	169 (21.2)	806 (100.0)	241 (29.9)	366 (45.4)	199 (24.7)
· 한국은행	292 (100.0)	86 (29.4)	164 (56.2)	42 (14.4)	272 (100.0)	97 (35.6)	137 (50.4)	38 (14.0)
· 기타 기관	505 (100.0)	119 (23.6)	259 (51.3)	127 (25.1)	534 (100.0)	144 (27.0)	229 (42.9)	161 (30.1)

바. 교육정도별 통계인력

- 교육정도별 통계인력을 보면 고졸이하가 54.5%로 가장 많으며, '94년과 비교하면 고졸이하는 3.5%포인트 감소한 반면 전문대졸 및 대졸이상 은 각각 0.8%포인트, 2.7%포인트 증가하여 고학력화 하고 있음.
- 기관별로 보면 정부기관은 고졸이하 인력이 61.4%로 민간지정기관의 13.7%보다 47.7%포인트 많은 반면 대졸이상자는 27.9%로 민간지정기관의 80.5%보다 52.6%포인트 적게 나타났음.

교육정도별 통계인력



(단위 : 명, %)

	'94 년				'96 년			
	계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	계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
계	5,494 (100 0)	3,183 (58 0)	507 (9.2)	1,804 (32 8)	5,607 (100 0)	3,055 (54 5)	562 (10 0)	1,990 (35 5)
○ 청 부 기 관	4,697 (100 0)	3,060 (65 1)	474 (10.1)	1,163 (24 8)	4,801 (100 0)	2,945 (61 4)	515 (10 7)	1,341 (27.9)
— 중앙행정기관	3,977 (100 0)	2,573 (64.7)	412 (10.4)	992 (24 9)	4,084 (100 0)	2,491 (61 0)	453 (11 1)	1,140 (27 9)
· 통 계 청	1,428 (100 0)	839 (58.8)	178 (12.4)	411 (28.8)	1,581 (100 0)	844 (53 4)	216 (13 7)	521 (32 9)
· 농림수산부	2,134 (100 0)	1,570 (73 6)	194 (9.1)	370 (17 3)	2,095 (100 0)	1,496 (71.4)	204 (9 7)	395 (18 9)
· 노 동 부	107 (100 0)	79 (73.8)	6 (5.6)	22 (20 6)	100 (100 0)	85 (85.0)	2 (2 0)	13 (13 0)
· 보건복지부	54 (100 0)	9 (16.7)	9 (16.7)	36 (66 6)	60 (100 0)	12 (20 0)	8 (13 3)	40 (66 7)
· 건설교통부	65 (100 0)	20 (30 8)	5 (7 7)	40 (61 5)	52 (100 0)	10 (19 2)	2 (3 9)	40 (76.9)
· 기타 기관	189 (100 0)	56 (29 6)	20 (10 6)	113 (59.8)	196 (100 0)	44 (22 5)	21 (10 7)	131 (66 8)
— 지방자치단체	720 (100 0)	487 (67 6)	62 (8.6)	171 (23 8)	717 (100 0)	454 (63 3)	62 (8 7)	201 (28 0)
· 시 · 도	160 (100.0)	85 (53.1)	20 (12.5)	55 (34 4)	134 (100 0)	56 (41.8)	16 (11.9)	62 (46 3)
· 구 · 시 · 군	560 (100.0)	402 (71 8)	42 (7.5)	116 (20 7)	583 (100 0)	398 (68 3)	46 (7 9)	139 (23.8)
○ 민간 지정 기관	797 (100 0)	123 (15.4)	33 (4.2)	641 (80 4)	806 (100.0)	110 (13 7)	47 (5 8)	649 (80 5)
· 한국 은행	292 (100 0)	63 (21.6)	8 (2 7)	221 (75.7)	272 (100.0)	52 (19 1)	6 (2.2)	214 (78.7)
· 기타 기관	505 (100.0)	60 (11 9)	25 (4 9)	420 (83 2)	534 (100 0)	58 (10.9)	41 (7 7)	435 (81.4)

사. 석·박사학위 소지자 현황

- 통계인력중 석·박사학위 소지자는 전체의 6.0%이며 이중 석사학위 소지자는 5.0%, 박사학위소지자는 1.0%임.
- 작성기관별로 보면 정부기관이 3.0%인데 비하여 민간지정기관은 23.8%로 정부기관의 8배 수준임
 - 한국은행이 단일 기관으로는 가장높은 23.5%이며 정부기관중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가 18.3%, 17.3%로 높은 수준이고 농림수산부는 0.6%로 가장 낮음.

(단위 · 명, %)

	계		학 위 소지자		석 사		박 사	
	계	구성비	계	구성비	계	구성비	계	구성비
계	5,607	100.0	335	6.0	279	5.0	56	1.0
○ 정부 기관	4,801	100.0	143	3.0	123	2.6	20	0.4
— 중앙행정기관	4,084	100.0	129	3.2	109	2.7	20	0.5
· 통계청	1,581	100.0	59	3.7	44	2.8	15	0.9
· 농림수산부	2,095	100.0	13	0.6	12	0.6	1	0.0
· 노동부	100	100.0	3	3.0	3	3.0	-	-
· 보건복지부	60	100.0	11	18.3	10	16.6	1	1.7
· 건설교통부	52	100.0	9	17.3	9	17.3	-	-
· 기타 기관	196	100.0	34	17.3	31	15.8	3	1.5
— 지방자치단체	717	100.0	14	2.0	14	2.0	-	-
· 시 · 도	134	100.0	10	7.5	10	7.5	-	-
· 구 · 시 · 군	583	100.0	4	0.7	4	0.7	-	-
○ 민간지정기관	806	100.0	192	23.8	156	19.3	36	4.5
· 한국은행	272	100.0	64	23.5	53	19.5	11	4.0
· 기타 기관	534	100.0	128	24.0	103	19.3	25	4.7

아. 통계교육훈련 현황

1) 국내교육

○ 국내에서 통계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전체인력중 40.3%로 '94년에 비하여 1.0%포인트 감소한 상태임

— 국내교육자중 6개월미만자가 99.0%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함.

○ 기관별로 보면 정부기관에서 국내교육을 받은 사람이 43.6%로 민간지정기관의 20.6% 보다 2배이상 많음

(단위 : 명, %)

	1994년				1996년			
	계	교육자 합 계	6개월 미 만	6개월 이 상	계	교육자 합 계	6개월 미 만	6개월 이 상
계	5,494 (100 0)	2,269 (41 3) (100 0)	2,254 (41.0) (99.3)	15 (0.3) (0 7)	5,607 (100 0)	2,258 (40 3) (100 0)	2,235 (39 9) (99 0)	23 (0 4) (1.0)
○ 정 부 기 관	4,697 (100 0)	2,156 (45 9) (100.0)	2,149 (45.8) (99 7)	7 (0.1) (0 3)	4,801 (100 0)	2,092 (43 6) (100.0)	2,076 (43.3) (99 2)	16 (0 3) (0.8)
— 중앙행정기관	3,977 (100 0)	1,942 (48.8) (100 0)	1,935 (48.6) (99.6)	7 (0 2) (0.4)	4,084 (100 0)	1,986 (48 6) (100 0)	1,970 (48 2) (99.2)	16 (0 4) (0.8)
— 지방자치단체	720 (100 0)	214 (29.7) (100.0)	214 (29.7) (100 0)	- (-) (-)	717 (100 0)	106 (14 8) (100 0)	106 (14 8) (100 0)	- (-) (-)
○ 민간 지정 기관	797 (100 0)	113 (14 2) (100 0)	105 (13.2) (92 9)	8 (1.0) (7 1)	806 (100 0)	166 (20 6) (100.0)	159 (19.7) (95 8)	7 (0.9) (4.2)

2) 국외 훈련

○ 통계인력중 국외훈련을 받은 사람은 1.9%로 '94년과 비교하면 국외 교육자가 0.2%포인트 증가한 것임.

— 국외교육자중 6개월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이 36.2%에 이룸.

○ 이를 기관별로 보면 정부기관이 1.6%로 민간지정기관의 3.6%보다 2.0%포인트 낮은 수준임. 그러나 정부기관은 '94년보다 0.3%포인트 증가 하였으나 민간지정기관은 0.7%포인트 감소하였음.

(단위 : 명, %)

	1994년				1996년			
	계	교육자 합 계	6개월	6개월	계	교육자 합 계	6개월	6개월
			미 만	이 상			미 만	이 상
계	5,494 (100.0)	95 (1.7) (100.0)	62 (1.1) (65.3)	33 (0.6) (34.7)	5,607 (100.0)	105 (1.9) (100.0)	67 (1.2) (63.8)	38 (0.7) (36.2)
○ 정부 기관	4,697 (100.0)	61 (1.3) (100.0)	31 (0.7) (50.8)	30 (0.6) (49.2)	4,801 (100.0)	76 (1.6) (100.0)	41 (0.9) (53.9)	35 (0.7) (46.1)
— 중앙행정기관	3,977 (100.0)	60 (1.5) (100.0)	30 (0.8) (50.0)	30 (0.8) (50.0)	4,084 (100.0)	76 (1.9) (100.0)	41 (1.0) (53.9)	35 (0.9) (46.1)
— 지방자치단체	720 (100.0)	1 (0.1) (100.0)	1 (0.1) (100.0)	- (-) (-)	717 (100.0)	- (-) (-)	- (-) (-)	- (-) (-)
○ 민간 지정 기관	797 (100.0)	34 (4.3) (100.0)	31 (3.9) (91.2)	3 (0.4) (8.8)	806 (100.0)	29 (3.6) (100.0)	26 (3.2) (89.7)	3 (0.4) (10.3)

5. 통계예산현황

○ '95년간 각종 통계조사 업무에 사용한 사업비는 956억 8,300만원으로 '93년에 비하여 785억 9,000만원 증가하였음. 이는 중앙행정기관인 통계청에서 실시한 '9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532억원과 농림수산부에서 실시한 농어업총조사에 73억원이 소요되었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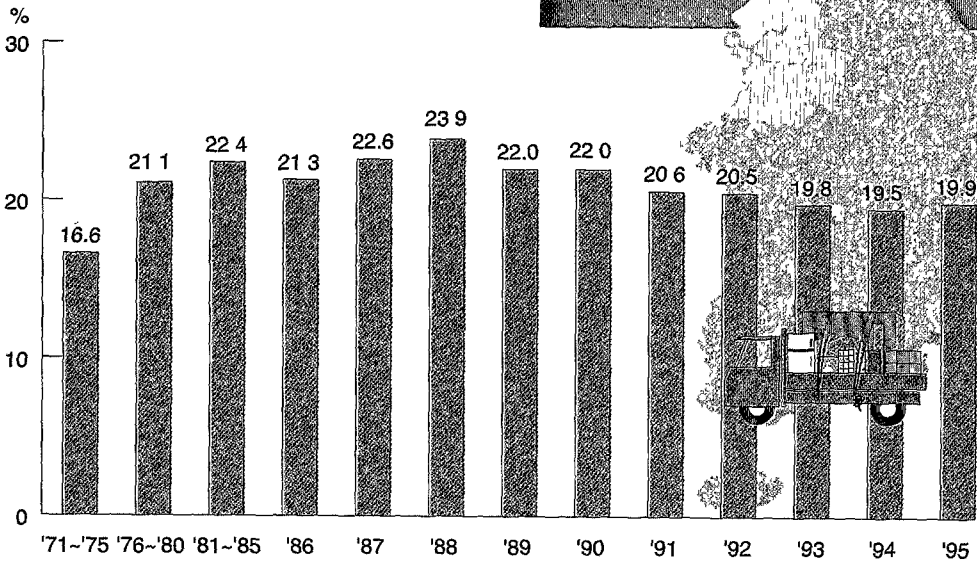
— 이를 기관별로 보면 정부기관이 소요예산의 92.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기관에서 기초통계가 되는 대규모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임.

(단위 : 백만원, %)

	'93년		'95년		증 감	
	(A)	구성비	(B)	구성비	(B-A)	증감율
계	17,093	100.0	95,683	100.0	78,590	459.8
○ 정부기관	11,792	69.0	88,561	92.6	76,769	651.0
- 중앙행정기관	8,877	51.9	83,122	86.9	74,245	836.4
· 통계청	2,418	14.1	65,289	68.2	62,871	2600.1
· 농림수산부	3,546	20.7	14,878	15.6	11,332	319.6
· 노동부	621	3.6	596	0.6	- 25	- 4.0
· 보건복지부	251	1.5	510	0.5	259	103.2
· 건설교통부	918	5.4	835	0.9	- 83	- 9.0
· 기타 기관	1,123	6.6	1,014	1.1	- 109	- 9.7
- 지방자치단체	2,915	17.1	5,439	5.7	2,524	86.6
○ 민간 지정 기관	5,301	31.0	7,122	7.4	1,821	34.4
· 한국은행	725	4.2	763	0.8	38	5.2
· 기타 기관	4,576	26.8	6,359	6.6	1,783	39.0

주민등록에 의한 '95 인구이동 집계결과

인구이동률 추이



총 이동률(인구100명당 이동환사람수)을 보면
 '70년대 이후 증가 추세에서, '80년대 후반인 '88년에
 이동률이 가장높은 수준을 보인후
 계속 감소세를 나타내다가
 '93년후부터 '95년까지는 다소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민등록에 의한
'95 인구가동 집계결과

1996. 9

통계조사국 인구분석과

1. 통계 작성 개요

1. 기초자료

-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서를 기초로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하여 집계된 통계자료를 매월 읍면등에서 구시군으로 전송.
- 구시군에서는 이를 취합하여 시·도로 전송, 시·도에서는 이를 다시 취합하여 통계청에 보고
- 특히, '95년도의 이동자료부터는 읍면등에서 직접 전산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령별 및 구시군 이동자료를 최초로 수록 하였음.
- o 주요보고사항 : 성·연령 및 주거주지별 이동인구, 시·도내 및 시·도간 이동인구
구시군내 및 구시군간 이동인구

2. 유의사항

- 이 이동통계 자료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기초로 작성되므로 사실상의 이동과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o 이동사항의 미신고, 지연신고, 위장신고, 왜곡신고 등.
- o 각 이동을 산출은 당해년도의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총조사 인구나 추계인구 등을 기준으로 할 때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용어 정의

- 이동현상

- o 전 입 : 이동 경계를 넘어 다른 지역에서 현재 지역으로 이동.
- o 전 출 : 이동 경계를 넘어 현재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
- o 순이동 : 전입 - 전출 (사회적 인구 증감).

- 이동경계기준

- o 총 이 동 : 행정 동·읍·면 경계를 넘어 이동.
- o 시·도내 이동 : 시·도는 같으나 행정 동·읍·면이 다른 이동.
- o 시·도간 이동 : 시·도를 달리하는 이동.
- o 구·시·군내 이동 : 구·시·군은 같으나 행정 동·읍·면이 다른 이동.
- o 구·시·군간 이동 : 구·시·군을 달리하는 이동.
-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청주시, 전주시, 포항시, 울산시, 마산시의 구(區)는 제외)

- 이동률(%)

$$o \text{ 전입률} = \frac{\text{년간 전입자수}}{\text{주민등록 연앙인구}} \times 100$$

$$o \text{ 전출률} = \frac{\text{년간 전출자수}}{\text{주민등록 연앙인구}} \times 100$$

$$o \text{ 순이동률} = \text{전입률} - \text{전출률}$$

II. 1995년 인구이동 집계 주요 결과

1. 개 황

가. 1995년 인구이동

단위 : 천명, %

	1994년		1995년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율
총 이 동 (이 동 률)	8 792 (19.5)	(100.0)	9 073 (19.9)	(100.0)	281	3.2
시·도내 이동 (이 동 률)	6 052 (13.4)	(68.8)	6 208 (13.6)	(68.4)	156	2.6
시·도간 이동 (이 동 률)	2 740 (6.1)	(31.2)	2 865 (6.3)	(31.6)	125	4.6

— '95년 한 해동안 주민등록상으로 동·읍·면 경계를 넘어 이동한 사람(이하 동일)은 '94년보다 281천명(3.2%)이 증가한 9,073천명으로 이는 인구 100명당 19.9명이 이동한 것으로 작년보다 0.4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를 시·도 경계로 구분하여 보면,

o 같은 시·도내에서 이동한 사람은 총 이동자의 68.4%인 6,208천명으로 '94년보다 156천명(2.6%) 증가한 반면,

o 시·도 경계를 넘어 다른 시·도로 이동한 사람은 '94년보다 125천명(4.6%) 증가한 2,865천명으로 인구 100명당 6.3명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남.

— '95년 총 이동자가 '94년 보다 다소 증가한 것은 6대도시를 제외한 9개도 자체내의 이동증가와 특히, 6대도시(특별시, 광역시)로부터 인근지역으로의 시·도간 이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나. 인구이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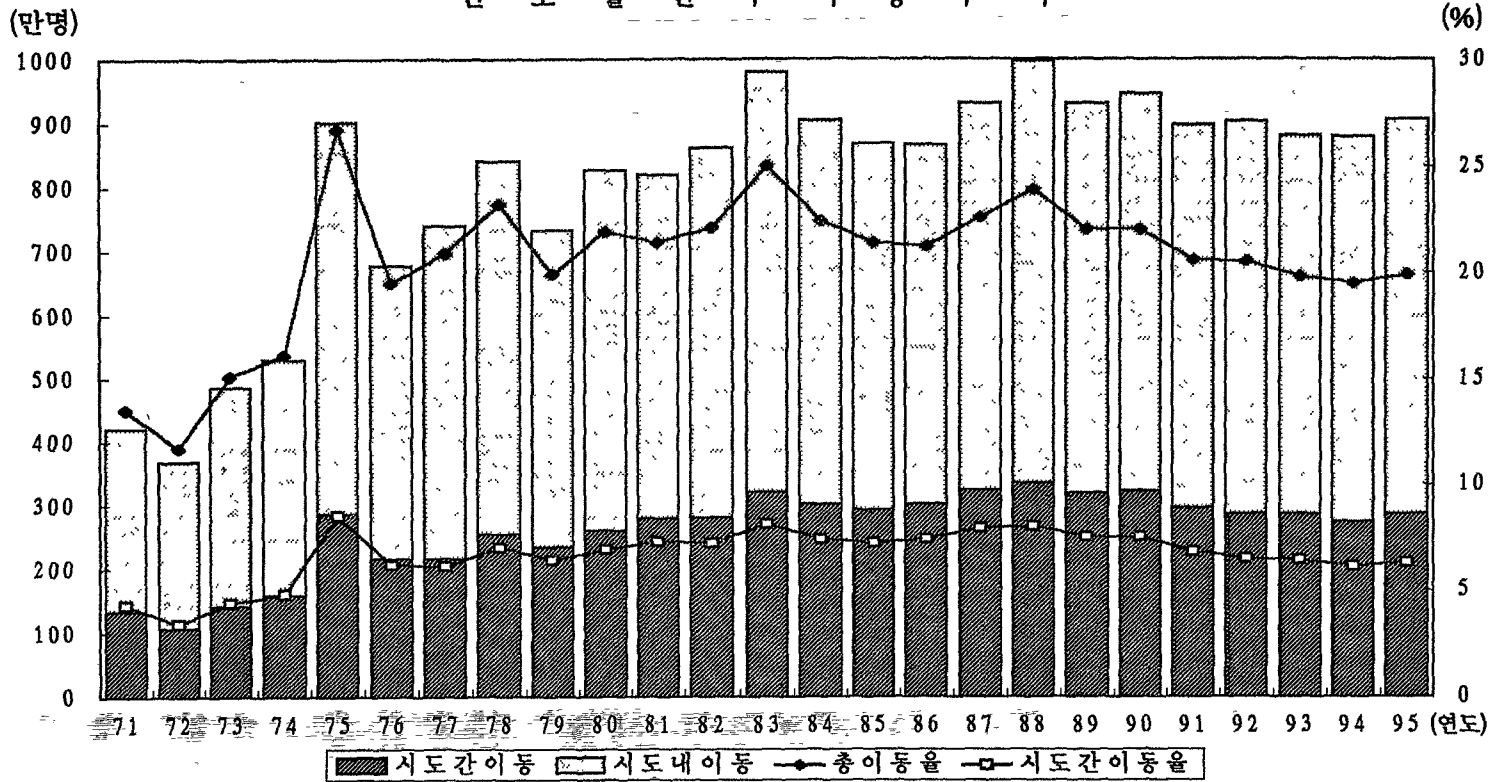
단위 : 천명, %

년 도	총 이 · 동			시 · 도 간 이 동		
	이동자수	이동률	성 비 (여자=100)	이동자수	이동률	성 비 (여자=100)
1971~75	5 414	16.6	107.0	1 656	5.1	113.6
1976~80	7 633	21.1	111.0	2 363	6.5	122.6
1981~85	8 866	22.4	105.2	2 950	7.4	113.7
1986	8 660	21.3	104.7	3 021	7.4	112.6
1987	9 309	22.6	103.4	3 243	7.9	108.5
1988	9 969	23.9	103.1	3 352	8.0	108.9
1989	9 316	22.0	102.7	3 190	7.5	106.9
1990	9 459	22.0	103.3	3 231	7.5	107.8
1991	8 981	20.6	102.3	2 985	6.8	105.7
1992	9 032	20.5	101.2	2 860	6.5	103.8
1993	8 807	19.8	101.2	2 864	6.4	104.1
1994	8 792	19.5	100.5	2 740	6.1	102.2
1995	9 073	19.9	100.1	2 865	6.3	100.8

(주) 5년 간격은 해당기간의 연평균 수치임.

- 총 이동률(인구100명당 이동한 사람수)을 보면 '70년대 이후 증가 추세에서 '80년대 후반인 '88년에 이동률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후 계속 감소세를 나타내다가 '93년후부터 '95년까지는 다소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5명중 1명이 이동하는 높은 수준의 이동률이 지속되고 있음.
- 시도간 이동률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가 '95년에는 전년보다 0.2% 포인트 증가하여 100명당 6.3명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남.
- 이동자의 성비(여자 이동자 100명당 남자 이동자수)는 해마다 낮아져 '95년 총 이동자의 성비는 가장 낮은 100.1로 떨어졌으며, 시도간 이동 역시 100.8를 나타내고 있음. 이는 여성들의 교육, 고용기회 확대등에 따른 이동이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점차 많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

연도별 인구 이동 추이



- 주) . '75년 주민등록번호 신규 부여
 . '78년 개인별 주민등록카드 신규작성
 . '83년 주민등록 일제 갱신

다. 연령별 인구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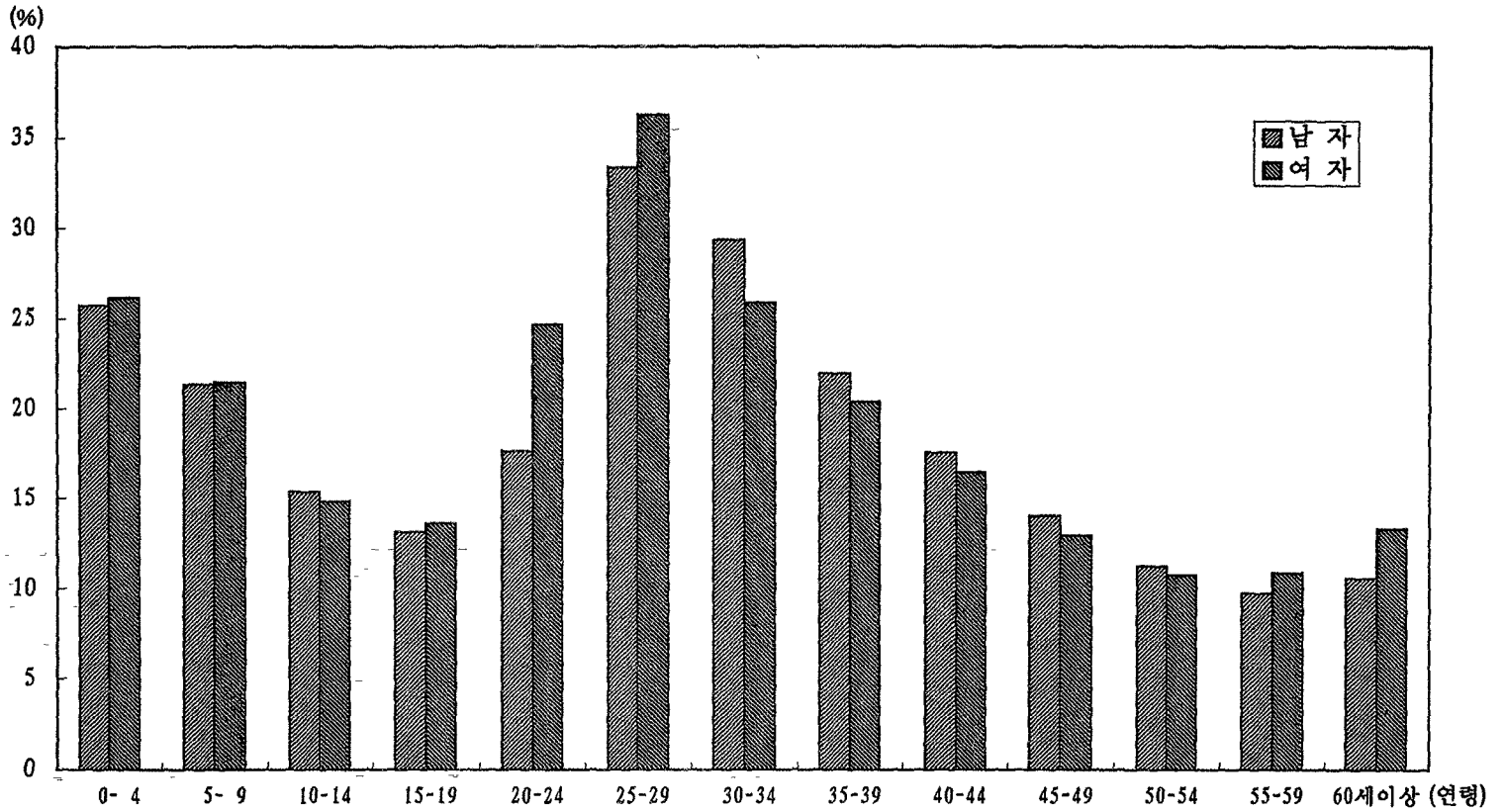
단위 : 천명, %

연령	총 이 동			남 자			여 자		
	이동자수	이동률	구성비	이동자수	이동률	구성비	이동자수	이동률	구성비
계	9 073	19.9	100.0	4 538	19.8	100.0	4 535	20.0	100.0
0-4세	913	25.9	10.1	483	25.7	10.6	430	26.1	9.5
5-9세	676	21.3	7.4	354	21.3	7.8	322	21.4	7.1
10-14세	580	15.0	6.4	304	15.3	6.7	276	14.8	6.1
15-19세	520	13.1	5.7	265	13.1	5.8	255	13.3	5.6
20-24세	950	21.0	10.5	409	17.6	9.0	542	24.6	11.9
25-29세	1 572	34.7	17.3	772	33.3	17.0	800	36.2	17.6
30-34세	1 237	27.6	13.6	677	29.3	14.9	560	25.8	12.3
35-39세	875	21.1	9.6	466	21.9	10.3	409	20.3	9.0
40-44세	504	17.0	5.6	267	17.5	5.9	237	16.4	5.2
45-49세	321	13.5	3.5	170	14.0	9.8	151	12.9	3.3
50-54세	237	10.9	2.6	120	11.2	2.6	118	10.7	2.6
55-59세	195	10.3	2.2	87	9.7	1.9	108	10.8	2.4
60세이상	492	12.2	5.4	165	10.5	3.6	328	13.3	7.2

— 연령별 인구이동을 보면 총 이동자중에서 20대 및 30대가 2,522천명(27.8%) 2,112천명(23.2%)으로 총 이동자중 절반을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대 연령층의 주요 이동 원인을 보면 졸업, 입대(제대), 취업, 결혼등 활동이 매우 강한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30대인 경우 취업, 주택사정에 따른 이동 등과 이들과 함께 취학전 자녀의 이동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연령별 성별 이동률



2. 시·도별 인구이동

가. 시·도별 총이동

	이동자수 (천명)					이동률 (%)				
	총이동	시도내 이동	시도간 이동			총이동	시도내 이동	시도간 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전국	9 073	6 208	2 865	2 865	0	19.9	13.6	6.3	6.3	0.0
서울	3 049	1 604	561	883	△322	28.6	15.1	5.3	8.3	△3.0
부산	861	546	130	185	△55	22.1	14.0	3.3	4.7	△1.4
대구	650	422	112	116	△3	26.3	17.1	4.5	4.7	△0.1
인천	632	312	169	151	19	27.3	13.5	7.3	6.5	0.8
광주	401	217	90	94	△4	31.4	17.0	7.0	7.3	△0.3
대전	395	216	98	81	18	31.7	17.3	7.9	6.5	1.4
경기	2 450	1 083	870	497	373	32.4	14.3	11.5	6.6	4.9
강원	352	184	79	88	△9	23.0	12.0	5.2	5.8	△0.6
충북	323	171	78	74	4	22.6	11.9	5.4	5.2	0.3
충남	370	136	118	116	2	20.0	7.4	6.4	6.3	0.1
전북	453	280	82	92	△10	22.6	13.9	4.1	4.6	△0.5
전남	478	204	128	147	△19	21.8	9.3	5.8	6.7	△0.9
경북	570	275	145	150	△5	20.6	9.9	5.3	5.4	△0.2
경남	852	494	186	172	14	21.7	12.6	4.7	4.4	0.3
제주	102	65	18	19	△1	19.8	12.6	3.6	3.7	△0.2

- (주) 1. 전국 총이동(율) = 이동자 총수(시도내+시도간 전입 또는 전출)
 2. 시도별 총이동(율)은 해당 시도와 관련된 총이동을 나타낸 것으로
 「시도내 이동(율) + 시도간 전입(율) + 시도간 전출(율)」의 합계임.

- 시도별로 총 이동자수를 보면 서울이 3,049천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부산, 경남순으로 이동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시도별 총 이동률을 보면 다른 시도로 부터 인구유입이 가장 많았던 경기도가 32.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전(31.7%), 광주(31.4%), 서울(28.6%) 순으로 나타남.
- 전출·입 차이가 높은 지역을 보면 경기가 373천명의 전입초과로 가장높은 반면, 반대로 전출초과가 높은 지역은 서울의 322천명임.

나. 시도내 이동

	시도내 이동자 (천명)				이동률 (%)		
	1994	1995	증 △감	율 (%)	1994	1995	증 △감
전 국	6 052	6 208	156	2.6	13.4	13.6	0.2
서울	1 666	1 604	△62	△3.7	15.4	15.1	△0.3
부산	537	546	9	1.7	14.0	14.0	0.0
대구	426	422	△4	△0.9	18.4	17.1	△1.3
인천	328	312	△16	△4.8	15.2	13.5	△1.7
광주	225	217	△8	△3.5	17.9	17.0	△0.9
대전	219	216	△2	△1.0	18.1	17.3	△0.8
경기	1 010	1 083	73	7.3	14.1	14.3	0.2
강원	163	184	21	12.7	10.7	12.0	1.3
충북	156	171	15	9.4	11.0	11.9	0.9
충남	118	136	18	15.0	6.4	7.4	1.0
전북	233	280	46	19.9	11.6	13.9	2.3
전남	162	204	41	25.5	7.3	9.3	2.0
경북	249	275	26	10.3	8.7	9.9	1.2
경남	500	494	△7	△1.4	12.8	12.6	△0.2
제주	59	65	6	10.0	11.6	12.6	1.0

(주) 전입과 전출의 증감률은 명단위로 계산된 수치임.

— '95년 시도내의 이동자는 '94년 보다 156천명이 증가한 6,208천명으로 인구 100명당 13.6명으로 다소 높은 이동률을 나타냄.

○ 이는 부산을 제외한 대도시(특별시·광역시)에서는 이동이 감소한 반면, 경남지역을 제외한 8개도는 전년에 비해 이동이 큰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종전과 달리 대도시 이외 지방에서 인구이동이 보다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남.

다. 시도간 인구이동(시도 경계기준)

	전 입(천명)				전 출(천명)			
	1994	1995	증 △감	율(%)	1994	1995	증 △감	율(%)
전 국	2 704	2 865	125	4.6	2 740	2 865	125	4.6
서울	574	561	△13	△2.2	810	883	73	9.0
부산	131	130	△1	△1.1	189	185	△4	△2.1
대구	120	112	△8	△6.5	113	116	3	2.2
인천	179	169	△10	△5.2	142	151	9	6.4
광주	87	90	3	3.2	77	94	17	22.0
대전	97	98	1	1.4	67	81	14	21.1
경기	798	870	72	8.9	476	497	21	4.4
강원	71	79	8	11.7	89	88	△1	△0.9
충북	71	78	7	9.1	75	74	△1	△1.1
충남	96	118	22	23.0	116	116	0	△0.5
전북	69	82	13	18.0	92	92	0	△0.3
전남	102	128	26	25.6	148	147	△1	△0.9
경북	144	145	1	1.1	162	150	△12	△7.6
경남	184	186	2	1.2	164	172	8	5.2
제주	17	18	1	11.0	19	19	0	2.7

(주) 전입과 전출의 증감률은 명단위로 계산된 수치임.

- 시도 경계를 넘어 이동한 사람은 '94년보다 125천명이 증가한 2,865천명으로 나타남.
 - o 경기도내의 신도시 아파트 입주가 계속되면서 서울로 부터 경기도로의 이동자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여타 시도간 이동이 전년보다 다소 증가함.
- 서울, 부산, 대구, 인천으로의 전입자는 '94년보다 줄어든 반면 이외 다른지역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o 특히, 경기, 충남, 전남등의 전입자는 인근 대도시인 서울, 대전, 광주로부터 각각 이동이 증가했기 때문임.
 - o 부산을 제외한 대도시에서의 전출자는 전년에 비해 증가한 반면,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의 전출자는 오히려 감소내지는 정체함.

라. 시도간 이동자의 전입지 분포

단위 : 명, %

전 출 지	총전출자	전 입 지 순 위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서울	883 390	경기 (67.9)	인천 (7.1)	충남 (3.0)	전북 (2.7)	전남 (2.7)
부산	184 959	경남 (49.9)	서울 (13.8)	경기 (9.2)	경북 (7.2)	대구 (4.1)
대구	115 514	경북 (51.4)	서울 (12.2)	경남 (11.3)	경기 (8.7)	부산 (5.4)
인천	150 795	경기 (41.1)	서울 (27.6)	충남 (5.8)	전남 (3.6)	강원 (3.4)
광주	93 975	전남 (55.6)	서울 (16.8)	경기 (10.0)	전북 (5.8)	인천 (2.3)
대전	80 682	충남 (29.3)	서울 (18.1)	경기 (15.8)	충북 (10.6)	전북 (5.2)
경기	497 138	서울 (52.9)	인천 (11.3)	충남 (5.9)	강원 (4.5)	충북 (3.9)
강원	88 497	경기 (29.7)	서울 (29.0)	인천 (6.9)	충북 (6.3)	경북 (6.3)
충북	74 226	경기 (24.6)	서울 (23.1)	대전 (14.0)	충남 (8.4)	강원 (5.8)
충남	115 723	경기 (25.6)	서울 (23.0)	대전 (22.4)	인천 (7.2)	충북 (5.7)
전북	91 945	서울 (34.1)	경기 (23.3)	대전 (6.4)	전남 (6.1)	광주 (6.0)
전남	146 730	광주 (34.7)	서울 (24.6)	경기 (15.7)	인천 (4.6)	전북 (4.2)
경북	149 795	대구 (38.9)	서울 (14.6)	경남 (11.7)	경기 (11.7)	부산 (7.2)
경남	172 409	부산 (35.3)	서울 (13.1)	경기 (11.4)	경북 (9.9)	대구 (7.9)
제주	19 161	서울 (30.1)	경기 (17.3)	부산 (10.8)	경남 (8.1)	전남 (7.4)

(주) ()는 지역별 총전출자에 대한 구성비임.

- 시도간 경계를 넘어 이동한 사람들의 전입지를 보면 '94년에 이어 '95년에도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높은 이동성향을 보여 주고 있음.
 - o 6대도시의 전출자는 인근 지역에서 가장 많이 전입하였고 그 다음이 대부분 서울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남.
 - o 수도권과 인접 지역인 강원, 충북, 충남에서는 경기로 가장 많이 전출하였으며 그 다음이 서울로 전출하였는데, 이들 지역에서 수도권으로의 전출비중은 강원 (65.6%), 충북 (52.9%), 충남 (55.8%) 등 50%이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북 (62.9%), 제주 (52.2%)도 50%이상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o 전남, 경북, 경남은 인근 지역인 광주, 대구, 부산으로 각각 전출이 많고 그 다음이 서울로 전출이 많았음.
- 서울, 부산, 대구에서는 전출자의 50%이상이 인근 지역으로 전출하고 있어 3대도시의 광역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음.

마. 시도별 순이동(전입-전출) 추이-사회적 인구증감에 영향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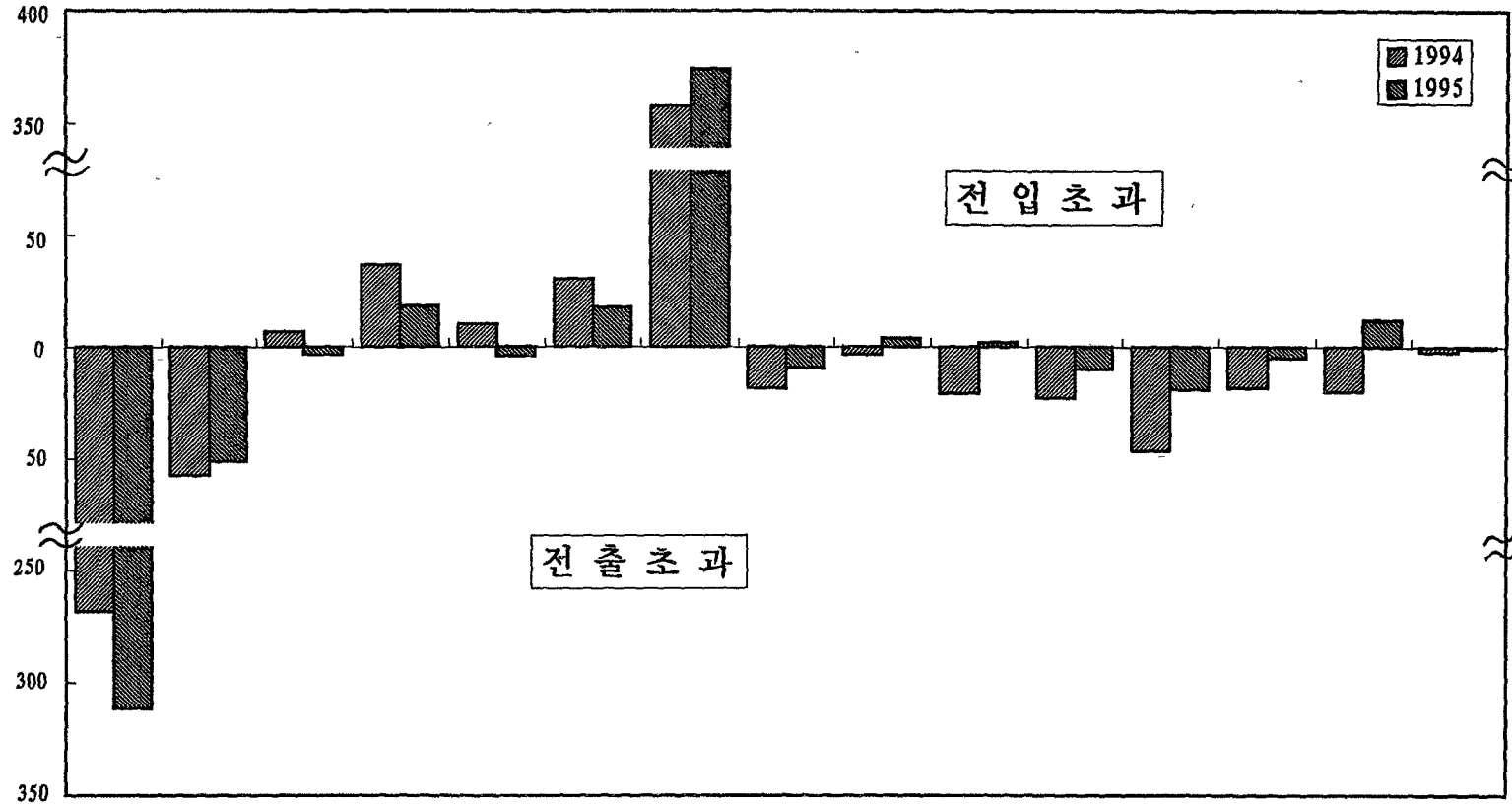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서울	△90 992	△36 879	△104 884	△182 632	△236 497	△321 898
부산	△35 860	△35 548	△51 995	△58 925	△57 475	△54 909
대구	△1 477	2 464	676	△177	6 935	△3 279
인천	116 658	80 398	59 381	39 663	36 861	18 556
광주	28 477	36 037	21 537	8 381	10 164	△4 021
대전	33 463	36 615	24 130	38 030	30 484	17 750
경기	250 511	177 062	214 871	294 498	322 077	372 514
강원	△47 637	△38 030	△24 845	△24 586	△18 471	△9 350
충북	△17 579	△11 131	28	1 684	△3 569	3 771
충남	△53 746	△45 444	△28 290	△24 259	△20 627	1 915
전북	△53 340	△42 298	△30 761	△25 990	△22 929	△10 115
전남	△100 070	△100 570	△76 533	△59 255	△46 442	△19 164
경북	△49 953	△47 308	△29 832	△15 509	△18 383	△4 608
경남	18 390	21 856	24 812	10 806	20 017	13 664
제주	3 128	2 776	1 705	△1 729	△2 145	△826

(주) △는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은 전출초과를 나타냄.

- 시도별 순이동(전입-전출) 추이를 보면 6대도시중 서울, 부산에서는 전출초과 현상이 지속 내지 증가추세를 보이고 대구, 광주는 오히려 전입초과에서 전출초과로 반전되었으며, 인천, 대전의 전입초과는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o 이는 다른지역으로부터 6대도시의 전입은 다소 감소추세가 유지되고 있는반면, 오히려 6대도시에서 인근지역으로 전출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 o 특히, 서울의 전출초과 현상은 '90년 부터의 주택가격의 상승과 이에 따른 전세값의 상승, '92년부터의 신도시 아파트의 입주로 그 폭이 더욱 커지고 있음.
- 그러나 수도권 및 인근 대도시로의 이동이 많았던 강원, 전북, 전남, 경북등에서는 전출자수는 점차 줄어들고 오히려 전입자는 늘어나 전출초과가 크게 둔화되었고, 특히, 충북, 충남은 타 시도로부터의 전입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94년 전출초과에서 전입초과로 반전 된것으로 나타남.

지역별 순이동

(천명)



바. 시도별 연령별 및 권역별 순이동(전입-전출)

단위 : 명

	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수도권	69 172	△20 365	11 562	99 489	△16 713	△2 225	△1 143	△1 433
(서울)	△321 898	△76 637	△27 597	△28 674	△95 764	△39 009	△29 735	△24 482
(인천)	18 556	△1 485	2 242	13 961	△675	1 648	1 612	1 253
(경기)	372 514	57 757	36 917	114 202	79 726	35 136	26 980	21 796
영남권	△49 132	△4 038	△5 257	△31 055	△5 674	△1 928	△684	△496
(부산)	△54 909	△9 085	△4 465	△20 656	△11 149	△3 918	△3 285	△2 351
(대구)	△3 279	273	715	△755	288	△1 607	△1 263	△930
(경북)	△4 608	2 718	△62	△14 036	2 215	1 861	1 675	1 021
(경남)	13 664	2 056	△1 445	4 392	2 972	1 736	2 189	1 764
호남권	△33 300	9 004	△5 897	△42 437	6 879	251	△518	△582
(광주)	△4 021	118	968	△924	△472	△1 895	△1 462	△354
(전북)	△10 115	4 674	△1 760	△16 471	3 586	393	△120	△417
(전남)	△19 164	4 212	△5 105	△25 042	3 765	1 753	1 064	189
중부권	14 086	15 160	△258	△24 432	15 074	3 791	2 250	2 501
(대전)	17 750	3 085	3 321	5 264	4 066	1 042	169	803
(강원)	△9 350	2 264	△2 672	△10 967	1 410	97	238	280
(충북)	3 771	3 114	159	△5 136	3 389	902	743	600
(충남)	1 915	6 697	△1 066	△13 593	6 209	1 750	1 100	818
제주	△826	239	△150	△1 565	434	111	95	10

— 권역별 순이동을 보면 수도권 및 중부권은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많은 전입초과 현상으로 인구가 계속 집중하고 있는반면, 영·호남권은 전출초과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연령별로 세분하여 보면,

- 수도권에서는 주로 취업, 취학등과 관련이 깊은 10대 및 20대의 전입초과로 아직도 수도권으로의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데, 오히려 그외 다른 연령층에서는 전출초과를 보이고 있어 탈 서울을 반영하고 있음.
- 중부권에서는 20대 및 30대에서 전출초과 현상을 보이면서 수도권과는 반대현상을 나타냄.
- 영남권에서는 모든 연령층에서 전출초과를 나타냄.
- 호남권에서는 10대, 20대, 50대 및 60대이상에서 전출초과를 나타냄.

3. 수도권외 인구이동

가. 수도권외와 관련된 시도간 인구이동

단위 : 천명, %

	1994년	1995년	증 △감	율
전 국	2 740 (100.0)	2 865 (100.0)	125	4.6
수 도 권	1 952 (71.2)	2 047 (71.5)	95	4.9
수도권내	1 027 (37.5)	1 085 (37.9)	58	5.6
전 입	524 (19.1)	516 (18.0)	△8	△1.5
전 출	401 (14.6)	447 (15.6)	46	11.5
수 도 권 외	788 (28.8)	818 (28.5)	30	3.8

— '95 시도간 이동자는 94년보다 125천명이 증가했는데 이중 수도권외와 관련된 이동증가가 95천명(76.0%)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이를 이동경계로 세분해보면

o 서울에서 고양시, 성남시등 신도시 아파트 입주로 인한 수도권내의 시도간 이동이 계속 증가

(천명)

	1991	1992	1993	1994	1995
서울 → 경기 (A)	384	428	503	542	599
경기 → 서울 (B)	256	254	256	259	263
순이동 (A-B)	128	174	267	283	336

주) 순이동 (A-B)는 서울에서 경기도로의 전출초과를 나타냄.

o 수도권외에서 수도권으로의 전입자는 오히려 감소한 반면에, 수도권에서 수도권 밖으로 전출이 큰폭으로 증가

나. 수도권으로의 시도별 전입자 추이

단위 : 명, %

	1990 (A)	1991	1992	1993	1994	1995 (B)	90년대비 (B/A)	1990~95 합 계	구성 비
계	747 816	670 219	613 283	586 458	523 568	515 683	69.0	3 667 027	100.0
부 산	57 563	50 526	50 445	51 635	47 757	46 697	81.1	304 623	8.3
대 구	31 981	28 846	27 502	26 505	24 702	26 132	81.7	165 668	4.5
광 주	33 858	29 972	28 576	29 442	27 207	27 307	80.7	176 362	4.8
대 전	27 461	26 688	26 896	26 600	26 504	29 872	108.8	164 021	4.5
강 원	86 023	76 613	68 548	67 435	59 560	58 019	67.4	416 198	11.3
충 북	60 923	55 501	49 034	44 832	41 412	39 280	64.5	300 982	8.2
충 남	101 320	90 268	80 058	75 558	66 822	64 590	63.7	478 616	13.1
전 북	95 754	81 394	73 202	67 917	59 768	57 805	60.4	435 840	11.9
전 남	118 585	105 507	92 595	84 155	69 376	65 927	55.6	536 145	14.6
경 북	66 391	61 965	55 804	50 579	45 323	43 417	65.4	323 479	8.8
경 남	57 938	53 275	51 282	51 686	45 590	46 635	80.5	306 406	8.4
제 주	10 019	9 664	9 341	10 114	9 547	10 002	99.8	58 687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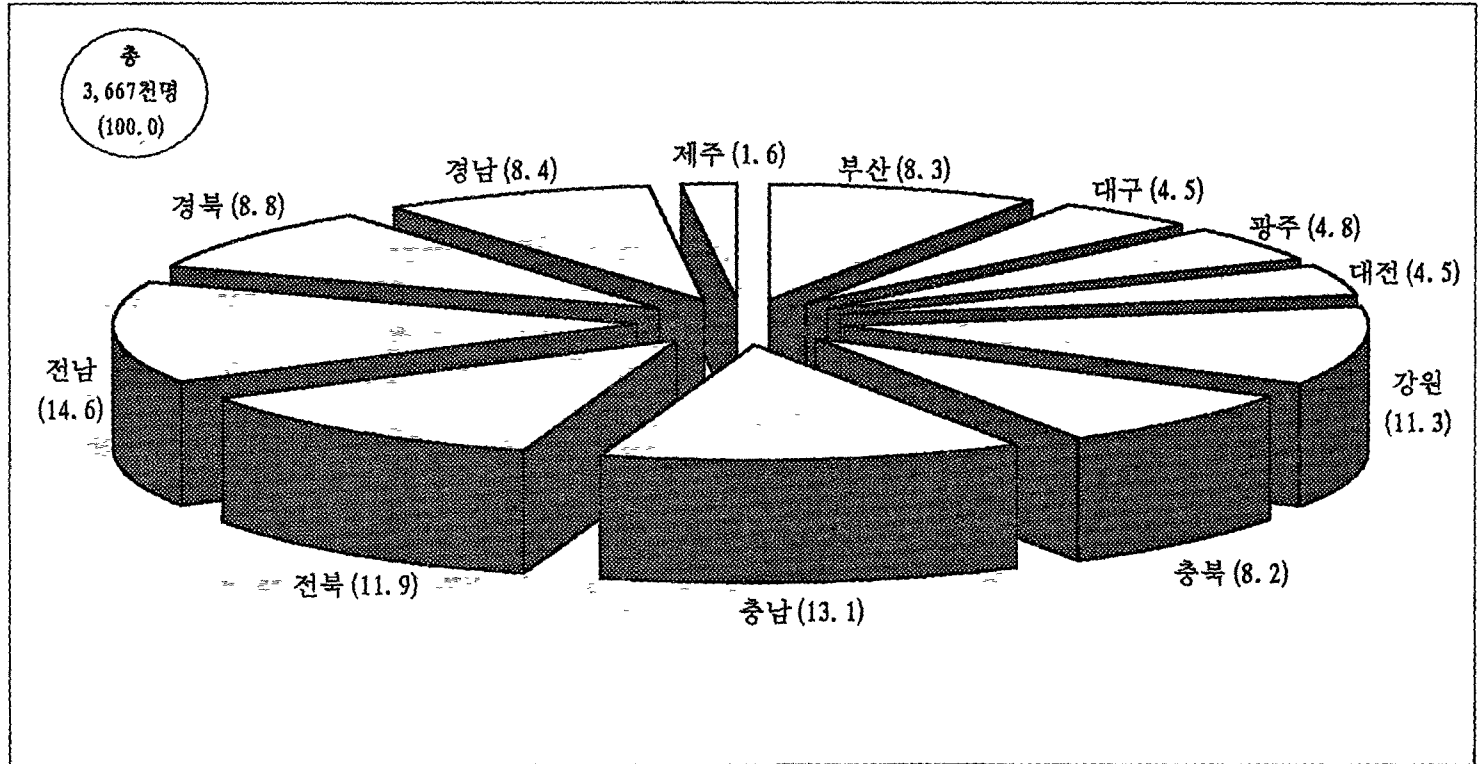
— 각 시도로부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으로의 전입자 추이는 '90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95년 수도권 전입자는 516천명으로 '90년 대비 69.0% 수준으로 낮아짐.

o 특히, 수도권으로의 전출이 많았던 전남·북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져 '90년 대비 60%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강원, 충남·북 등 중부권에서도 70%이하 수준을 나타냄.

o 대도시 및 경남, 제주 등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으로부터의 수도권 전입자는 '90년 대비가 상대적으로 높아 아직도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반영함.

— '90년 이후 지난 6년간의 시도별 수도권 전입자를 보면, 전남 536천명(14.6%), 충남 479천명(13.1%), 전북 435천명(11.9%), 강원 416천명(11.3%) 순이며, 특히, 이들 지역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전출자의 영향으로 인구감소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임.

‘90~95년 수도권 전입자의 전거주지 분포 (%)



다. 수도권 전입자의 전입지역 변화 추이

단위 : 천명, %

	수도권 전 입		서 울		인 천		경 기		수도권 순이동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1971~75	598	100.0	458	76.5	-	-	141	23.5	358
1976~80	762	100.0	562	73.7	-	-	200	26.3	364
1981~85	810	100.0	558	68.9	60	7.5	191	23.6	345
1986~90	774	100.0	467	60.3	67	8.7	240	31.0	304
1988	795	100.0	489	61.5	65	8.2	242	30.4	314
1989	778	100.0	466	59.9	67	8.6	245	31.5	327
1990	748	100.0	428	57.2	74	9.9	246	32.9	276
1991	670	100.0	372	55.5	67	10.0	232	34.6	221
1992	613	100.0	332	54.2	61	10.0	221	36.1	169
1993	587	100.0	311	53.0	58	9.9	218	37.1	152
1994	524	100.0	271	51.7	53	10.1	200	38.2	123
1995	515	100.0	257	49.8	50	9.8	208	40.4	69

(주) 5년 간격은 해당기간의 연평균 수치임.

- '95년에 수도권으로 전입한 총 이동자는 '94년 보다 9천명 감소한 515천명으로 '88년이후 감소추세가 계속되고 있음.
- 수도권 전입자의 서울 전입비중이 계속 낮아져 '95년에는 49.8%로 떨어지는 반면, 경기도로의 전입 비중은 '80년대 후반이후 증가추세로 '95년에는 40.4%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냄.
- 수도권 지역으로의 전입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전입초과(전입-전출)는 특히, '90년 이후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95년에는 전출도 크게 증가하여 69천명으로 가장 낮아졌으나 아직도 수도권의 인구집중 현상은 지속되고 있음.

라. 수도권외의 연도별 연령별 순이동(전입-전출) 추이

단위 : 명

	1993	1994	1995		
			전 입	전 출	순이동
계	146 866	116 374	515 683	446 511	69 172
0- 4세	△3 391	△5 345	37 803	50 481	△12 678
5- 9세	△706	△3 176	28 154	35 841	△7 687
10-14세	5 018	2 868	21 648	21 267	381
15-19세	20 567	13 551	26 664	15 483	11 181
20-24세	78 725	61 496	111 213	49 717	61 496
25-29세	39 565	39 903	123 325	85 332	37 993
30-34세	△1 352	△2 754	54 539	65 197	△10 658
35-39세	21	△1 035	34 638	40 693	△6 055
40-44세	1 413	701	17 773	19 275	△1 502
45-49세	1 563	1 272	10 943	11 666	△723
50-54세	1 671	2 024	9 154	9 742	△588
55-59세	1 431	2 140	9 033	9 588	△555
60세이상	2 341	4 729	30 796	32 229	△1 433

주) 1993년 및 1994년도는 연도별 연령별 주민등록인구로 간접추정된 것임(생잔율법)

- 수도권밖에서 수도권내로의 전입자의 연령을 보면 25-29세 및 20-24세에서 가장 높고, 전출자는 25-29세 및 30-34세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전·출입 차이를 보면 오히려 20-24세 및 25-29세가 가장 높아 이들 연령층에서는 계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93년에 30-34 및 0-9세에서 연령층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전출초과 현상은 '95년에 더욱 뚜렷해져 10대 및 20대 연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전출초과 현상을 나타냄.
 - o 이는 수도권내의 제조업체들이 지방으로 분산됨에 따른 인구이동 결과로 풀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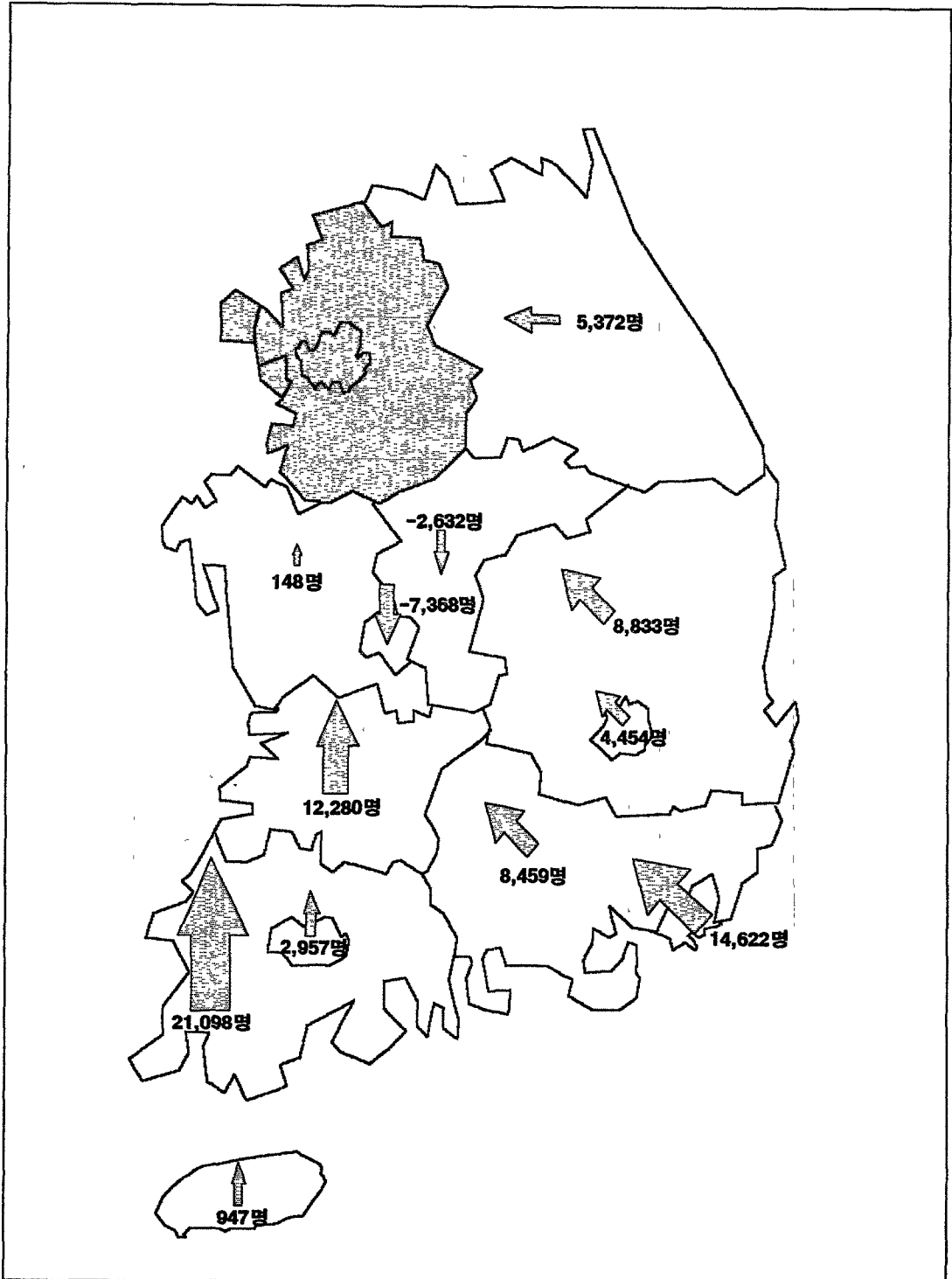
마. 서울특별시의 각 구별의 순이동(전입-전출)

단위 : 명

	計	서울	인천	경기	기타지역
서울특별시	△321 898	0	△21 094	△336 518	35 714
종로구	△11 673	△8 379	△361	△4 251	1 318
중구	△12 169	△8 969	△366	△3 434	600
용산구	△12 225	△5 824	△719	△6 730	1 048
성동구	△20 337	△10 517	△871	△10 092	1 143
광진구	△8 902	750	△726	△11 278	2 352
동대문구	△27 703	△17 890	△996	△10 948	2 131
중랑구	△8 259	4 612	△831	△12 186	146
성북구	△11 328	△2 899	△880	△8 906	1 357
강북구	△15 787	△6 709	△710	△8 792	424
도봉구	236	9 428	△424	△8 589	△179
노원구	3 995	21 574	△508	△16 790	△281
은평구	△12 982	5 460	△474	△19 577	1 609
서대문구	△7 762	2 036	△532	△11 234	1 968
마포구	△17 339	△6 672	△814	△12 554	2 701
양천구	△9 952	4 866	△932	△14 714	828
강서구	10 266	24 393	△1 144	△14 039	1 056
구로구	△19 022	△2 215	△1 849	△16 103	1 145
금천구	△20 916	△4 888	△1 551	△14 898	421
영등포구	△21 234	△7 404	△1 441	△14 902	2 513
동작구	△9 464	2 937	△1 221	△13 773	2 593
관악구	△27 869	△9 799	△1 939	△20 075	3 944
서초구	△6 784	5 514	△202	△13 890	1 794
강남구	△16 891	3 545	△177	△22 747	2 488
송파구	△18 375	6 019	△525	△26 141	2 272
강동구	△19 422	1 031	△901	△19 875	323

— 서울특별시의 각 구별로 순이동을 보면 도봉, 노원, 강서구를 제외하면 모든 구가 전출초과를 보였는데, 이들 대부분이 경기, 인천으로 전출초과를 보인 반면, 수도권외 기타 지역에서는 오히려 전입초과현상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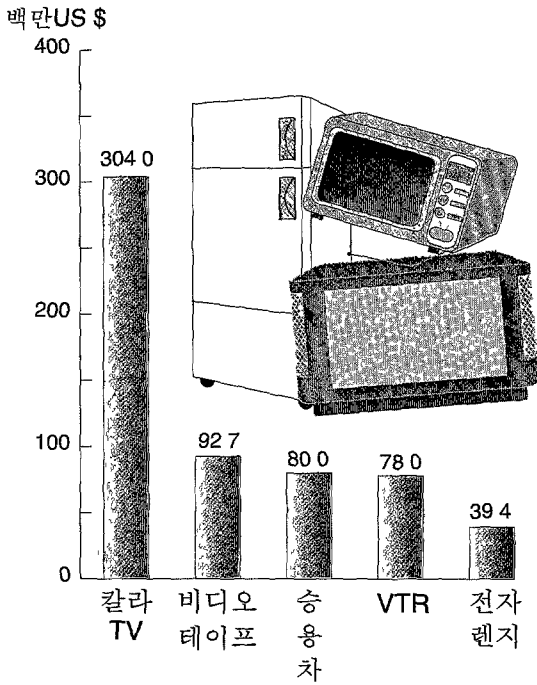
수도권의 전입 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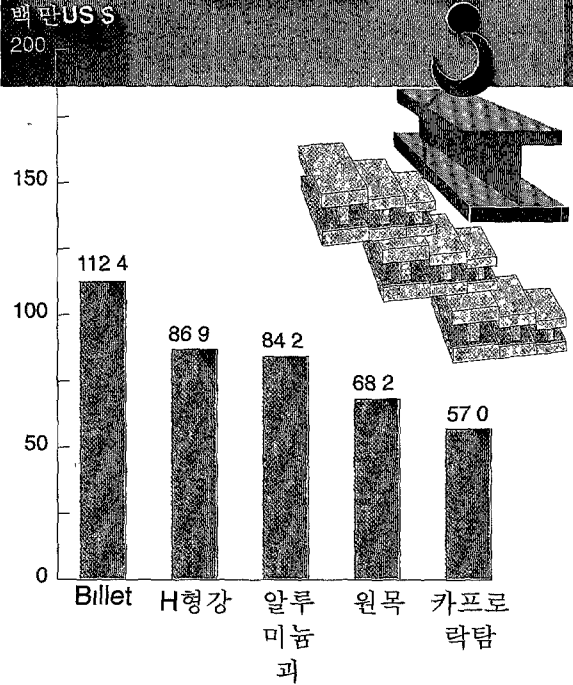
통계로 본 한·러 교류 현황 및

러시아 경제동향

주요수출상품('96. 1~7월)



주요수입상품('96. 1~7월)



'96년 1~7월중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주로 수출한 품목은 칼라TV, VTR, 비디오테이프, 전자렌지, 냉장고등 전기·전자제품이고, 수입한 품목은 H형강, Billet, 알루미늄괴, 동괴, 니켈괴, 원목등 원자재 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통계로 본
한·러교류 현황 및 러시아
경제 동향

1996. 9

자료관리국 국제통계과

I. 한·러교류 현황

1. 무역

'95년 대러시아 무역액 '93년에 비해 2.1배 증가

-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무역규모는 '95년에 3,309백만달러로 무역총액의 1.3%를 차지하였으며, '93년 1,576백만달러에 비해 2.1배 증가하였다.
 - 대러시아 수출액은 '93년 601백만달러에서 '95년 1,416백만달러로 2.4배나 증가한 반면 수입액은 975백만달러에서 1,893백만달러로 1.9배 증가하여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0.5배나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96년 1~7월 동안의 대러시아 무역액은 2,324백만달러로 전년동기의 1,643백만달러보다 1.4배 증가하였다.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9배 증가하였으나, 수입액은 1.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무역비중을 살펴보면 '93년에는 0.9%에 불과하였으나 '94년에 1.1%, '95년에 1.3%, '96년 1~7월에 1.4%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무역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 대러시아 수출비중은 '93년에는 0.7%였으나, '94년 1.0%, '95년 1.1%, '96년 1~7월 1.6%로 나타났으며
 - 대러시아 수입비중은 '93년이후 1.2~1.4%대를 유지하고 있다.
- '94-'95년간 대러시아 무역액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44.9%로 우리나라의 무역총액 증가율인 25.2%보다 19.7% 「포인트」 높은 것으로 한러무역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특히 대러시아 수출액 연평균 증가율이 2년간 53.5%로 나타나 수입액 연평균 증가율 39.3%보다 14.2% 「포인트」 높아 수출이 수입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표> 대러시아 무역규모

(단위 : US백만달러, %)

연도	무역 총액	대러		수출액	대러		수입액	대러	
		무역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입액	비중
1990	134,859	889	0.7	65,016	519	0.8	69,844	370	0.5
1991	153,395	1,202	0.8	71,870	625	0.9	81,525	577	0.7
1992	158,407	859	0.5	76,632	365	0.5	81,775	495	0.6
1993	166,036	1,576	0.9	82,236	601	0.7	83,800	975	1.2
1994	198,361	2,192	1.1	96,013	962	1.0	102,348	1,230	1.2
1995	260,177	3,309	1.3	125,058	1,416	1.1	135,119	1,893	1.4
'95.1~7월	145,301	1,643	1.1	68,727	647	0.9	76,574	996	1.3
'96.1~7월	160,807	2,324	1.4	75,211	1,234	1.6	85,597	1,090	1.3
연평균 증가율 '94-'95	25.2	44.9		23.3	53.5		27.0	39.3	

주 : '92년이전은 구소련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KOTIS

대러시아 무역수지 '96년 흑자전환

○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무역수지를 보면 '90년에 149백만달러, '91년에 48백만달러의 흑자를 보였으나, '92년에 130백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93~'95년에는 250~500백만달러의 적자를 보였다.

— '96년 1~7월에는 수출 1,234백만달러, 수입 1,090백만달러로 144백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여 '92년이후의 지속적인 적자에서 '96년에는 흑자로 반전되었음을 보여준다.

<표> 대러시아 무역수지 추이

(단위 : US백만달러)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7월
수출	519	625	365	601	962	1,416	1,234
수입	370	577	495	975	1,230	1,893	1,090
무역수지	149	48	-130	-374	-268	-477	144

주 : '92년이전은 구소련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KOTIS

러시아 — '96년 한국의 15대 무역국으로

○ 우리나라의 국별 무역액을 '96년 7월말까지의 금액으로 살펴보면 미국이 32,282백만달러로 1위, 일본이 27,714백만달러로 2위, 중국이 11,033백만달러로 3위, 홍콩이 7,302백만달러로 4위, 독일이 7,181백만달러로 5위 순으로 나타났다.

— 러시아는 '95년에 3,309백만달러로 17위였으나, '96년 1~7월에는 2,324백만달러로 15위를 기록했다.

○ 국별 수출액은 미국이 13,062백만달러로 1위, 일본이 9,494백만달러로 2위, 홍콩이 6,637백만달러로 3위, 중국이 6,236백만달러로 4위 싱가포르가 3,773백만달러로 5위 순으로 나타났다.

— 러시아는 '95년에 1,416백만달러로 19위였으나, '96년 1~7월에는 1,234백만달러로 13위로 부상하였다.

○ 국별 수입액은 미국이 19,220백만달러로 1위, 일본이 18,220백만달러로 2위, 중국이 4,797백만달러로 3위, 독일이 4,250백만달러로 4위, 사우디아라비아가 3,654백만달러로 5위 순으로 나타났다.

— 러시아는 '95년에 1,893백만달러로 15위였으나, '96년 1~7월에는 1,090백만달러로 17위로 떨어졌다.

<표> 국별 무역현황

(단위 : US백만달러)

국 가	수 출				국 가	수 입			
	1995		1996. 1~7월			1995		1996. 1~7월	
	순위	금액	순위	금액		순위	금액	순위	금액
미 국	1	24,131	1	13,062	미 국	2	30,404	1	19,220
일 본	2	17,049	2	9,494	일 본	1	32,606	2	18,220
홍 콩	3	10,682	3	6,637	중 국	3	7,401	3	4,797
중 국	4	9,144	4	6,236	독 일	4	6,584	4	4,250
싱가포르	5	6,689	5	3,773	사우디 아라비아	5	5,432	5	3,654
독 일	6	5,965	6	2,931	오스트레 일리아	6	4,897	6	3,353
러 시 아	19	1,416	13	1,234	러 시 아	15	1,893	17	1,090

자료 : 한국무역협회 KOTIS

수출 — 전기·전자제품, 수입 — 원자재가 대다수

-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품목은 컬러TV, VTR, 비디오테이프, 전자렌지, 냉장고 등 전기·전자제품이 전체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96년 1~7월의 품목별 수출비중은 컬러TV가 1위(24.6%), 비디오테이프가 2위(7.5%), 승용차가 3위(6.5%), VTR이 4위(6.3%), 전자렌지가 5위(3.2%) 순으로 나타났다.
- 주요 수입품목은 H형강, BILLET, 알루미늄괴, 동괴, 니켈괴, 원목 등 원자재 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 '96년 1~7월의 품목별 수입비중은 BILLET이 1위(10.3%), H형강이 2위(8.0%), 알루미늄괴가 3위(7.7%), 원면이 4위(6.3%), 카프로락탐이 5위(5.2%) 순으로 나타났다.
- 10대 수출품목 전년동기('95년 1~7월)대비 증가율을 보면 승용차가 193.6%, 사무자동화기기가 166.8%, 향신료 및 조미료가 154.0%, 전자렌지가 147.0%, 컬러TV가 136.1%씩 증가하였으며, 10대 수입품목으로는 열연강판이 325.1%, 카프로락탐이 251.3%, 펄프가 144.0%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대러시아 10대 수출입 품목

(단위 : US백만달러)

순위	수출				수입			
	1995		1996(1~7월)		1995		1996(1~7월)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컬러TV	350.9	컬러TV	304.0	H형강	170.1	BILLET	112.4
2	비디오테이프	108.1	비디오테이프	92.7	BILLET	144.5	H형강	86.9
3	VTR	91.5	승용차	80.0	알루미늄괴	139.1	알루미늄괴	84.2
4	승용차	57.8	VTR	78.0	동괴	99.6	원면	68.2
5	과자류	40.7	전자렌지	39.4	어란	93.7	카프로락탐	57.0
6	전자렌지	31.2	과자류	31.9	원면	79.3	열연강판	55.2
7	냉장고	30.8	기타 음료수	26.8	니켈괴	76.4	어란	55.1
8	향신료/조미료	20.6	사무자동화기기	26.2	열연강판	63.9	펄프	52.5
9	기타 음료수	17.1	향신료/조미료	21.6	원목	60.5	원목	42.4
10	라면	16.9	냉장고	21.1	후판	54.9	동괴	38.7
계	1,415.9		1,233.9		1,892.9		1,089.9	

자료 : 한국무역협회 KOTIS

2. 투 자

대러시아 투자건수 한리수교 이후 4년간 6배 늘어

- 우리나라의 대러시아투자(실행기준)는 한리수교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1년 4건 16.9백만달러에서 '95년 24건 30.6백만달러로 4년간 투자건수로 6.0배, 투자금액으로 1.8배 증가하였다.
- 투자금액 비중은 수교이전인 '89년에는 0.1%에 불과하였으나, '91년에 1.5%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계속 1% 이하를 나타내고 있다.
- '96년 상반기의 대러시아투자는 9건 11.7백만달러로 나타나 전년동기의 12건 5.9백만달러에 비해 건수로는 3건이 줄었으나 금액으로는 5.8백만달러가 늘어났다.
- 4년간('92-'95년) 해외총투자금액은 연평균 28.7%씩 증가하였으나, 대러시아투자금액은 16.0%씩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해외총투자금액 증가율보다 12.7% 「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표> 대러시아 투자추이(실행기준)

(단위 · 건, US백만달러, %)

	해외총투자			해외총투자		
	건수	대러시아 투자건수	비중	금액	대러시아 투자금액	비중
1989	269	2	0.7	569.6	0.5	0.1
1991	443	4	0.9	1,115.0	16.9	1.5
1992	497	7	1.4	1,218.4	3.2	0.3
1993	682	13	1.9	1,260.3	3.3	0.3
1994	1,475	20	1.4	2,305.1	11.9	0.5
1995	1,285	24	1.9	3,058.9	30.6	1.0
'95.1~6월	659	12	1.8	1,401.9	5.9	0.4
'96.1~6월	670	9	1.3	2,326.9	11.7	0.5
연평균증가율 '92-'95	30.5	56.5		28.7	16.0	

주 : '90년은 대러시아 투자가 없음

자료 : 한국은행

대CIS투자중 러시아투자 비중
— 건수로 76.7%, 금액으로 27.1% 차지

- 우리나라의 대CIS(독립국가연합) 총투자(실행기준)는 '96년 6월말 현재 103건에 289.2백만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러시아가 79건에 78.3백만달러로 투자건수의 76.7%, 투자금액의 27.1%를 차지하고 있다.
- '96년 상반기 대CIS투자는 13건에 76.8백만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 가운데 대러시아투자는 9건 11.7백만달러로 건수로는 69.2%를 차지하나 금액으로는 15.2%에 불과하다.
- 4년간('92-'95년) 대CIS투자금액은 연평균 49.5%씩 증가하였으나, 대러시아투자금액은 16.0%씩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대CIS투자금액 증가율보다 33.5% 「포인트」 낮게 나타나 나머지 CIS국가에 투자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러시아정치의 불안, 투자인센티브의 부재 등의 요인으로 투자환경이 악화되어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를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대CIS 투자추이(실행기준)

(단위 : 건, US백만달러, %)

	대CIS 투자건수			대CIS 투자금액		
	대러시아 투자건수	비중	대러시아 투자금액	비중		
총 계	103	76.7	289.2	27.1		
1989	2	100.0	0.5	100.0		
1991	6	66.7	17.8	94.9		
1992	11	63.6	4.2	76.2		
1993	14	92.9	18.2	18.1		
1994	22	90.9	82.7	14.4		
1995	35	68.6	89.0	34.4		
'95.1~6월	17	70.6	41.0	14.4		
'96.1~6월	13	69.2	76.8	15.2		
연평균증가율 '92-'95	55.4	56.5	49.5	16.0		

주 : '90년은 대러시아 투자가 없음
자료 : 한국은행

대러시아투자 제조업에 집중

- 우리나라의 대러시아투자('95년말 잔존투자기준)는 총 68건 66,196천달러이며,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22건 35,823천달러(54.1%)를 차지해 제조업 부문에 절반 이상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 그 다음으로 무역업이 24건 3,550천달러(5.4%), 수산업이 6건 2,482천달러(3.7%), 임업이 1건 130천달러(0.2%) 순으로 나타났다.
- 제조업 부문을 업종별로 보면 목재·가구, 1차금속, 조립금속, 음식료품이 각각 16,151천달러(45.1%), 5,000천달러(14.0%), 4,320천달러(12.1%), 3,889천달러(10.9%)로 4개업종이 29,360천달러로 82.0%를 차지하고 있다.

<표> 산업별 대러시아투자('95년말 잔존투자기준)

(단위 : 건, US천달러, %)

	투자건수		투자금액	
		비중		비중
총 계	68	100.0	66,196	100.0
임업	1	1.5	130	0.2
수산업	6	8.8	2,482	3.7
제조업	22	32.4	35,823	54.1
목재·가구	2	(9.1)	16,151	(45.1)
1차금속	1	(4.5)	5,000	(14.0)
조립금속	4	(18.2)	4,320	(12.1)
음식료품	3	(13.6)	3,889	(10.9)
석유·화학	1	(4.5)	400	(1.1)
신발·가죽	2	(9.1)	288	(0.8)
섬유·의복	2	(9.1)	163	(0.5)
기타 제조	7	(31.8)	5,612	(15.7)
무역업	24	35.3	3,550	5.4
기타	15	22.1	24,211	36.6

주 : ()는 제조업에 대한 비중임

자료 : 한국은행 「해외투자통계연보 1996」

- 한편, 우리나라의 기타 CIS국투자는 총 18건에 145,630천달러이며,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7건 109,849천달러, 카자흐스탄공화국에 10건 6,781천달러, 타지크스탄공화국에 1건 29,000천달러로 조선족이 밀집한 지역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대한국투자 '96년 6월말 현재 606.4만달러

- 러시아의 대한국투자(인가·수리기준)를 살펴보면 한러수교 원년인 '90년에 처음으로 1건 20만달러의 투자를 시작한 이래 '92년에 10건 145.8만달러, '94년에 14건 142.0만달러를 투자하였으며, '96년 상반기에 6건 42.0만달러를 투자하여 '96년 6월말 현재 총투자 51건에 606.4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 외국인 총투자 대비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비중은 '90년에는 0.02%에 불과하였으나, '92년에 0.16%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93~'94년에는 0.1%내외인 0.09%, 0.11%를 나타내었으나, '95년에는 0.05%, '96년 상반기에는 0.03%로 나타나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 '95년 러시아의 대한국투자는 9건에 95.2만달러로 외국인 총투자 578건에 194,142.3만달러에 비해 건수대비 1.6%, 금액대비 0.05%였으며, '96년 상반기에는 6건 42.0만달러로 305건 126,773.9만달러에 비해 건수대비 2.0%, 금액대비 0.03%로 나타났다.
- '96년 상반기에는 6건 42.0만달러로 전년동기의 5건 41.5만달러에 비해 건수로 1건, 금액으로 0.5만달러 늘어나 러시아의 대한국투자가 약간 증가하였다.

<표> 러시아의 대한국투자(인가·수리기준)

(단위 : 건, US만달러, %)

	외국인			외국인		
	총투자건수	러시아	비중	총투자금액	러시아	비중
1990	306	1	0.3	80,263.5	20.0	0.02
1991	296	5	1.7	139,599.6	71.1	0.05
1992	236	10	4.2	89,447.6	145.8	0.16
1993	278	6	2.2	104,427.4	90.3	0.09
1994	424	14	3.3	131,650.5	142.0	0.11
1995	578	9	1.6	194,142.3	95.2	0.05
'95.1~6월	255	5	2.0	95,408.3	41.5	0.04
'96.1~6월	305	6	2.0	126,773.9	42.0	0.03

자료 : 재정경제원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 동향」 1996. 6월호

러시아의 대한국투자 — 무역업이 54.4% 차지

- 러시아의 대한국투자(인가·수리기준)를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에 45건 533.9만달러로 투자건수의 88.2%, 투자금액의 88.0%를 투자하여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 제조업에는 5건 48.3만달러(8.0%), 농축수산업에는 1건 24.2만달러(4.0%)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업종별로는 무역업이 329.9만달러(30건)로 총투자금액의 54.4%로 가장 많으며
 - 운수 및 창고업이 104.7만달러(8건)로 17.3%, 도소매업이 72.0만달러(4건)로 11.9%로 나타나 1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 10%미만을 차지하는 업종은 수산업이 24.2만달러(1건)로 4.0%, 음식점업이 21.0만달러(2건)로 3.5%, 기계제조업이 19.2만달러(2건)로 3.2%, 운송용 기계제조업이 16.3만달러(1건)로 2.7%, 화공제조업이 12.8만달러(2건)로 2.1% 등으로 나타났다.

<표> 러시아의 산업별 대한국투자(인가·수리기준)

(단위 : 건, US만달러, %)

산업별	투자건수	투자금액		
		비중	투자금액	비중
총 계	51	100.0	606.4	100.0
농축수산업	1	2.0	24.2	4.0
수산	1	2.0	24.2	4.0
제조업	5	9.8	48.3	8.0
화공	2	3.9	12.8	2.1
기계	2	3.9	19.2	3.2
운송용 기기	1	2.0	16.3	2.7
서비스업	45	88.2	533.9	88.0
도소매업	4	7.8	72.0	11.9
무역업	30	58.8	329.9	54.4
음식점업	2	3.9	21.0	3.5
운수 및 창고	8	15.7	104.7	17.3
기타 서비스	1	2.0	6.3	1.0

자료 : 재정경제원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 동향」 1996. 6월호

3. 인적 교류

**러시아인의 한국 방문객수 3년간('93-'95년) 5.3배 증가
— 한국인의 러시아 방문객수는 2.0배 증가**

- 한국인의 러시아 방문객수는 '92년 14,981명에서 '95년 29,577명으로 3년간 2.0배 증가하였으나, 러시아인의 한국 방문객수는 '92년에는 9,095명에 불과하였으나 '95년에는 48,511명으로 5.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93-'95년 연평균 증가율은 한국인의 러시아 방문객수는 25.5%로 나타난 반면, 러시아인의 한국 방문객수는 74.7%로 나타났다.
 - 한국인 총출국자수 대비 한국인의 러시아 방문객 비중은 '92년에 0.64%였으며 '94년에 0.81%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점점 감소하여 '96년 상반기에는 0.59%로 나타났다.
- 외국인 총입국자수 대비 러시아인의 한국 방문객 비중은 '92년에 0.36%였으나 '96년 상반기에는 2.14%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출입국자수

(단위 · 명, %)

연 도	한국인			외국인		
	총출국자수	러시아방문 한국인수	구성비	총입국자수	한국방문 러시아인수	구성비
1990	1,882,400	3,478	0.18	2,349,693	5,322	0.23
1991	2,165,725	9,569	0.44	2,492,824	7,218	0.29
1992	2,353,889	14,981	0.64	2,498,823	9,095	0.36
1993	2,741,500	20,657	0.75	2,568,494	24,329	0.95
1994	3,478,199	28,036	0.81	2,775,473	45,554	1.64
1995	4,155,799	29,577	0.71	2,923,642	48,511	1.66
'95.1~6월	1,922,340	12,537	0.65	1,389,101	21,043	1.51
'96.1~6월	2,357,582	13,925	0.59	1,370,844	29,293	2.14

주 : 승무원을 제외한 인원이며, '91년이전은 구소련임
 자료 :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II. 러시아 경제동향

러시아 경제 — 회복세에 접어들어

- 러시아의 GDP는 경제개혁이 시작된 지난 1991년 이래 매년 10%대의 하락세를 보이다가 '95년이후 4~5%대의 소폭 감소를 기록하여 러시아 경제가 점점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전망된다.
 - 러시아의 GDP감소는 '92년 14.5%, '93년 8.7%, '94년 12.6%에 달하여 경제가 침체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나, '95년에 4%, '96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대비 5% 감소하였다.
- 공업생산도 '92년이후 두자리수의 감소율을 기록하다가 '95년에는 3% 감소에 그쳐 전년의 22.8% 감소에 비교할 때 산업이 급속도로 회복되고 있으며, '96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대비 4% 감소하였다.
- 소비자물가는 '94년까지는 초인플레이션을 기록했으나 정부의 엄격한 통화관리, 강력한 긴축정책 및 서비스·독점품목가격 통제강화로 '95년에 131%, '96년 상반기에 15%를 기록하여 인플레이가 진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 대미환율은 '95년 4월 29일 5,130루블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정부의 통화긴축정책과 IMF의 102억불 차관제공 결정('96. 3. 26), '95년 7월부터 실시된 환율변동폭 설정 등으로 투기성 외환거래가 사라지고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표> 주요지표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상반기
실질경제성장률	- 5.0	- 14.5	- 8.7	- 12.6	- 4.0	- 5.0
공업생산증가율	- 8.0	- 18.8	- 16.2	- 22.8	- 3.0	- 4.0
소비자물가상승률	..	1,527.4	840.0	249.0	131.0	15.0
환율(기간말)	1.7	415	1,247	3,550	4,640	5,108

자료 : 러시아 국가통계위원회 「러시아통계연감 1995」, 「Russia in Figures 199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경제」 1996. 8월호
 「조선일보」 1996년 9월 11일자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1996. 8월호

'95년 1인당GDP 2,458달러로 한국의 1/4 수준

-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세계경쟁력연감에 의하면 러시아는 조사대상 46개국(선진국 27개, 개도국 19개)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 미국, 싱가포르, 일본, 덴마크, 노르웨이 순으로 1~5위를 기록했으며, 중국은 26위, 우리나라는 27위로 나타났다.
- 8개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과학기술부문이 31위로 다소 나은 편이며, 인적자원부문이 41위, 국제화부문이 45위로 나타났으며, 국내경제, 정부, 금융, 사회간접자본 및 기업경영 부문은 최하위인 46위를 기록했다.
- 경제총량을 나타내는 GDP는 '95년 현재 3,643억달러로 46개국중 13위를 기록하였으나, 1인당 GDP는 2,458달러로 40위로 나타났다.
 - GDP부문에서는 미국이 7조 2,477억달러로 1위, 일본이 5조 1,105억달러로 2위, 독일이 2조 4,156억달러로 3위를 기록했으며, 1인당 GDP에서는 4만달러 이상인 스위스, 룩셈부르크, 일본이 각각 1~3위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는 GDP는 4,555억달러로 11위, 1인당 GDP는 10,144달러로 27위로 나타나 GDP는 러시아의 1.3배, 1인당 GDP는 4.1배로 나타났다.

<표> 국민계정 국제비교(1995)

(단위 : US십억달러, 달러)

GDP			1인당 GDP		
순위	국가	금액	순위	국가	금액
1	미국	7,247.7	1	스위스	43,088
2	일본	5,110.5	2	룩셈부르크	41,161
3	독일	2,415.6	3	일본	40,786
4	프랑스	1,553.7	4	노르웨이	33,489
5	이탈리아	1,103.4	5	덴마크	33,071
7	중국	691.3	27	한국	10,144
11	한국	455.5	40	러시아	2,458
13	러시아	364.3	45	중국	562

자료 :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1996」

러시아의 무역규모 — 3년간 연 13.8%씩 증가

- 러시아의 무역규모를 살펴보면 '95년 현재 1,424억달러로 '92년 966억달러에 비해 1.5배 늘었으며, CIS국이 22.7%, CIS외 국가가 77.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의 무역에서 CIS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92년에 17.8%에서 '95년에 22.7%로 4.9% 「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3년간('93-95년) 무역총액은 연평균 13.8%씩 증가하였는데, 수출은 15.0%, 수입은 12.2% 증가하여 수출이 수입보다 2.8% 「포인트」 더 증가하였다.
 - 수입은 CIS국로부터는 연평균 무려 40.7% 증가하였으나, CIS외 국가로부터는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무역수지는 '92년 106억달러, '93년 153억달러, '94년 176억달러, '95년 208억달러의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흑자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표> 러시아의 무역

(단위 · US십억달러, %)

구 분	1992	1993	1994	1995	연평균 증가율 ('93-'95)
무역총액	96.6	103.9	118.6	142.4	13.8
CIS국	17.2	26.8	28.5	32.3	23.4
비중	17.8	25.8	24.0	22.7	
CIS외 국가	79.4	77.1	90.1	110.1	11.5
비중	82.2	74.2	76.0	77.3	
수출총액	53.6	59.6	68.1	81.6	15.0
CIS국	11.2	15.3	14.9	15.6	11.7
CIS외 국가	42.4	44.3	53.2	66.0	15.9
수입총액	43.0	44.3	50.5	60.8	12.2
CIS국	6.0	11.5	13.6	16.7	40.7
CIS외 국가	37.0	32.8	36.9	44.1	6.0

주 : 비공식무역 포함

자료 · 러시아 국가통계위원회 「Russia in Figures 1996」

실질임금 5년간 약 1/4로 줄어

- 월평균 수입은 구소련 시절의 '90년 350루블에 비하면 '95년 12월에는 782,000루블로 2,234배 증가했지만, 초인플레이션에 의하여 실질임금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하바로프스크 경제대학의 분석에 의하면 '95년 실질임금은 '90년의 약 1/4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 5년간 지하철·버스요금은 30,000배, 빵은 25,000배, 우유는 9,375배, 극장입장료는 5,000배나 늘어나 월평균 수입보다 2.2~13.4배의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 '95년 1년간 월평균 수입은 1월의 356,000루블에서 12월의 782,000루블로 120% 증가하였으나, 지하철·버스요금은 1년간 150% 증가하였지만 빵과 우유는 각각 25%, 20% 증가하였으며, 극장입장료는 1년간 동결되어 전체적인 물가상승률은 낮게 나타났다.
- 상위 10%와 하위 10%의 수입격차는 '90년에는 4.5배였으나 '95년 1월에는 13.6배로 급속히 늘어났으나, '95년 12월에는 13.4배로 나타나 조금이나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러시아의 생활물가 추이

(단위 : 루블)

	'90년 평균	'95년 1월	'95년 12월	5년간 증가배율
월평균 수입	350	356,000	782,000	2,234배
빵 1kg	0.2	4,000	5,000	25,000배
우유 1ℓ	0.32	2,500	3,000	9,375배
지하철·버스요금	0.05	600	1,500	30,000배
극장입장료	2	10,000	10,000	5,000배
상위 10%와 하위 10%의 수입격차	4.5배	13.6배	13.4배	

주 : '95년 12월 월평균 환율은 1달러당 4,616루블임

자료 : 日本「産経新聞」 1996년 5월 15일자

< 참고자료 >

1. 한·러관계 略史

- 1989년 ○ 4. 3 주서울 소련상공회의소 설치
○ 4. 7 주모스크바 한국무역관 설치
- 1990년 ○ 6. 4 한·소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
○ 9.30 한·소 외무장관 회담시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한·러수교일)
○ 10.30 주소 대한민국대사관 개설
○ 12. 7 주한 소련대사관 개설
○ 12.13~16 노태우 대통령 방소
○ 12.14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무역협정, 과학기술
협력협정 등 4개 경제협력 기본조약 체결
- 1991년 ○ 3.14 한·소 항공협정 체결
○ 4.19~20 고르바초프 대통령 방한
○ 8. 7 주한 무역대표부 개설
○ 9.16 한·소 어업협정 체결
○ 10. 6 한·소 철도협력에 관한 의정서 체결
○ 11.26 한·소 관세회담(한국을 관세특혜국으로 인정)
○ 12.27 한국정부 러시아연방의 소연방 승계 인정
- 1992년 ○ 8.26 한·러 기본조약 체결
○ 11.18~20 엘친 대통령 방한
○ 11.20 한·러 세관협력협정 체결
○ 11.21 한·러 양국 군사교류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 11.21 한·러 경제·과학기술 공동위원회 발족
- 1994년 ○ 6. 1~4 김영삼 대통령 러시아 방문
- 1995년 ○ 1.23 한·러 환경협력공동위 개최(모스크바)
○ 7.25 한·러 이중과세방지협정 비준서 교환
○ 9.27~30 체르노미르딘 총리 방한
○ 9.28 경제·과학기술협력선언 채택
- 1996년 ○ 2.26 민간경제협력 의정서 체결

2.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현황(1995)

	면적 (km ²)	인구 ¹ (백만명)	취업자수 (백만명)	1994=100		
				GDP	산업생산	소비자 물가지수
러시아	17,075.4	148.0	67.1	96.0	97.0	231.3 ³
아제르바이잔	86.6	7.5	2.6	82.8	78.6	511.8
아르메니아	29.8	3.8	1.5	106.9	102.4	276.0
벨라루스	207.6	10.3	4.6	90.0	88.5	809.3
그루지아	69.7	5.4 ²	...	102.4	90.2	155.4 ³
카자흐스탄	2,717.3	16.5	6.4	91.1	92.1	276.2
키르기즈	199.9	4.6	1.6	93.8	87.5	151.6
모르도바	33.7	4.3	1.7 ⁴	97.0	94.0 ⁴	130.0 ⁴
타지키스탄	143.1	5.9	1.8	87.6	94.9	543.1
투르크메니스탄	488.1	4.6	1.7	...	93.1	...
우즈베키스탄	447.4	23.0	8.2	98.8	100.2	415.5
우크라이나	603.7	51.3	22.5	88.2	88.5	281.7 ³

주 : 1) 연말 기준

2) 추정치

3) 전년 12월대비

4) 드니에스트르강의 왼쪽강둑과 벤드리市 지역 제외

자료 : 러시아 국가통계위원회 「Russia in Figures 1996」

3. 주요통계지표 요약

주요지표	연도	단위	통 계	비 고
I. 한·러 교류현황				
1. 무역				
대러무역액	'93 '95 '96.1~7	US억불	15.76 33.09 23.24	- 2년간 2.1배 증가 - 우리나라의 무역국중 '95년 17위에서 '96년 1~7월 15위로 두계단 상승
대러무역 비중	'93 '94 '95 '96.1~7	%	0.9 1.1 1.3 1.4	-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대러무역액 연평균 증가율	'94~'95	%	44.9	- 무역총액 증가율 25.2에 비해 19.7% 「포인트」 높아
대러5대수출품 컬러TV 비디오테이프 승용차 VTR 전자렌지	'96.1~7	US백만불	304.0 92.7 80.0 78.0 39.4	- 전기·전자제품이 전체 수출액의 50% 이상을 차지
대러5대수입품 BILLET H형강 알루미늄괴 원면 카프로락탐	'96.1~7	US백만불	112.4 86.9 84.2 68.2 57.0	- 원자재가 대다수
2. 투자				
대러 투자건수 투자액	'96.1~6	건 US백만불	9 11.7	- 해외총투자건수의 1.3% - 해외총투자액의 0.5%

주요지표	연도	단위	통 계	비 고
대러투자액 제조업 무역업		%	54.1 5.4	· '95년말 잔존투자기준 · 투자건수는 32.4% · 투자건수는 35.3%
대한국 투자건수	'90~'96.6	건	51	· 인가·수리기준
투자액	'96.1~6	US만불	6	· 외국인 총투자건수의 2.0% · 인가·수리기준
	'90~'96.6		606.4	
	'96.1~6		42.0	· 외국인 총투자액의 0.03%
대한국 투자액 무역업 운수/창고업 도소매업 제조업	'96.1~7	%	54.4 17.3 11.9 8.0	· 인가·수리기준
3. 인적 교류				
러시아방문 한국인수	'92 '95	명	14,981 29,577	· 3년간 2.0배 증가
한국방문 러시아인수	'92 '95	명	9,095 48,511	· 3년간 5.3배 증가
II. 러시아 경제동향				
실질경제성장률		%		· 전년동기대비 · '95년부터 GDP 감소폭이 줄어들면서 회복세 보임
	'92		- 14.5	
	'93		- 8.7	
	'94		- 12.6	
	'95		- 4.0	
	'96.1~6		- 5.0	
소비자물가 상승률		%		· 전년동기대비 · '95년부터 진정세
	'92		1,527.4	
	'93		840.0	
	'94		249.0	
	'95		131.0	
	'96.1~6		15.0	

주요지표	연도	단위	통 계	비 고
GDP	'95	US억불		
한국			4,555	· 러시아의 1.3배
러시아			3,643	
1인당 GDP	'95	달러		
한국			10,144	· 러시아의 4.1배
러시아			2,458	
월평균 수입	'90년평균 '95. 12	루블	350 782,000	· 5년간 2,234배 증가
빵 1kg	'90년평균 '95. 12	루블	0.2 5,000	· 5년간 25,000배 증가
지하철·버스료	'90년평균 '95. 12	루블	0.05 1,500	· 5년간 30,000배 증가
우유 1ℓ	'90년평균 '95. 12	루블	0.32 3,000	· 5년간 9,375배 증가
극장입장료	'90년평균 '95. 12	루블	2 10,000	· 5년간 5,000배 증가
러시아 무역액	'92 '95	US십억불	96.6 142.4	· 3년간 연평균 13.8%씩 증가
CIS국 비중	'92 '95	%	17.8 22.7	· 3년간 4.9% 「포인트」 증가

통 계 분 석 자 료 모 음

발 행 일 : 1996년 12월 일

발 행 인 : 장 승 우

발 행 처 : 통 계 청

☎ 135-723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15

인쇄처 : (주)범신사 720-9786~9